譯註 日本書紀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124

역주 일본서기 2

연민수
김은숙
이근우
정효운
나행주
서보경
박재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간행사

『일본서기』 역주본의 간행은 국내 역사학계의 커다란 과제였습니다. 국내에서 『일본서기』 번역서는 한두 권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룬 역주본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 책에는 『일본서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한 주석과 해제 그리고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어 단순한 역주본을 뛰어넘어 『일본서기』 연구서로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주지하듯이 『일본서기』는 일본의 고대사를 다룬 역사서이지만, 한국사와 관련된 기술이 많아 사료가 영성한 한국고대사 연구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료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서기』를 이용하는 데 주저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 사서가 일본 고대국가가 완성되는 천황제 율령국가의 통치 이념,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서기』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왜곡된 한국사관을 바로잡아 한국사를 올바로 인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서기』는 일본국을 통일한 천황가의 역사로서 천황의 절대적 존엄성을 강조하고 타씨족, 타민족에 우월한 극도의 일본 중심적 이념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편찬 이데올로기는 근대에 들어 일본의 한국 침략기에 『일본서기』의 조작된 내용과 왜곡된 기술을 근거로 한국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배타적이고 침략주의적인 역사관도 이 역사서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서로서의 『일본서기』는 전시대를 관통하면서 일본의 정신을 지탱하고 있고, 위정자들은 하나의 성전과 같이 인식하고 이용해 왔습니다. 해방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일본서기』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일본학계에서 대외관계사를 보는 기본 시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정치인의 우익사상의 원류도 알고 보면 『일본서기』에 내재되어 있는 '천황'이라는 절대적이며 유일한 인격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서기』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역사를 이해하는 길이며, 한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간된 『일본서기』 역주본은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서기』 역주사업은 재단의 주요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랜 기간의 작업 끝에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역주본이 일본고대사 연구와 한국사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고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

일러두기

원문

- 원문은 岩波書店의 日本古典文學大系『日本書紀』上·下(天理大學 도서관 소장 卜部兼右本 日本書紀에 의거, 1965·1967)를 저본으로 사용하였다.
- 자구의 판본 비교는 小學館의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日本書紀』1~3(1994~1998)에 의거하였다.
- 원문의 일본식 略字는 가능한 한 정자체로 고쳐 적었다.
- 『일본서기』 원문에 포함된 細註는 [ ] 안에 넣었다.
- 원문의 기사는 연별, 월별로 행을 바꾸었다.
- 원문의 마침표(。)와 쉼표(、)는 모두 마침표(.)와 쉼표(,)로 바꾸어 적었다.
- 一書, 或本 등은 '어떤 책(一書, 或本)에는 ~이라고 한다.'로 해석하였다.
- 一云, 一曰 등은 '어떤 책(一)에서 ~라고 말하였다.'로 해석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日本書紀

번역문

- 번역은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옮기고자 하였다. 한자의 음을 그대로 적은 경우에는 '호상(胡床)'과 같이 ( ) 안에 한자를 넣었고, 한자어를 번역한 경우에는 각주에 원문의 한자를 드러내어 번역상의 부족한 점을 독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우리에게 없는 한자일 경우는 '일본음(한자)'으로 표기하고 각주에서 '우리 한자에는 없는 음이다.'라는 설명을 붙였다.
- 한자어 가운데 문맥상으로 의미가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한자를 생략하였다. 특히 연월일의 경우 '2년 봄 3월 경술삭 임자(3일)'와 같이 표기하였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百 단위를 넘는 경우는 '3백'과 같이 표기하였다.
- 인명과 지명을 표기할 경우에는 '소아한자숙녜(蘇我韓子宿禰 ; 소가노카라코노스쿠네)'와 같이 한글음(한자 ; 일본음)으로 표기하였다.
- 일본음을 표기할 때는 岩波書店의 『日本書紀』에 표기된 음가대로 표기하였고, 이중 모음 살려서 'ゐ'는 '웨'로 표기하였다. 'つ'의 경우는 '츠'로 표기하였으나, 對馬島(つしま)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쓰시마'로 표기하였고, 天皇(てんわう)의 경우도 '텐노'로 표기하였다.
- 각 天皇紀 시작 부분에서 해당 천황의 생애를 각주를 붙여 설명하였다.
- 천황이나 왕 등의 죽음에 관한 표기는 '귀수왕이 죽었다(薨).'와 같이 '죽었다.'로 해석하고 ( ) 안에 薨과 崩 등의 한자를 넣었다.

차례

간행사 _ 4

일러두기 _ 6

		[역주]	[원문]
권 제11	인덕천황仁德天皇	12	49
권 제12	이중천황履中天皇	62	81
	반정천황反正天皇	78	85
권 제13	윤공천황允恭天皇	86	112
	안강천황安康天皇	106	119
권 제14	웅략천황雄略天皇	122	181
권 제15	청녕천황淸寧天皇	198	234
	현종천황顯宗天皇	207	236
	인현천황仁賢天皇	226	242
권 제16	무열천황武烈天皇	246	256
권 제17	계체천황繼體天皇	260	29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주]	[원문]
권 제18	안한천황安閑天皇	310	328
	선화천황宣化天皇	322	330
권 제19	흠명천황欽明天皇	334	405
권 제20	민달천황敏達天皇	428	454

부록 _ 462

찾아보기 _ 57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권 차례

권 제1 신대神代 상

권 제2 신대神代 하

권 제3 신무천황神武天皇

권 제4 수정천황綏靖天皇

안녕천황安寧天皇

의덕천황懿德天皇

효소천황孝昭天皇

효안천황孝安天皇

효령천황孝靈天皇

효원천황孝元天皇

개화천황開化天皇

권 제5 숭신천황崇神天皇

권 제6 수인천황垂仁天皇

권 제7 경행천황景行天皇

성무천황成務天皇

권 제8 중애천황仲哀天皇

권 제9 신공황후神功皇后

권 제10 응신천황應神天皇

참고문헌

찾아보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권 차례

권 제21 용명천황用明天皇
숭준천황崇峻天皇
권 제22 추고천황推古天皇
권 제23 서명천황舒明天皇
권 제24 황극천황皇極天皇
권 제25 효덕천황孝德天皇
권 제26 제명천황齊明天皇
권 제27 천지천황天智天皇
권 제28 천무천황天武天皇 상
권 제29 천무천황天武天皇 하
권 제30 지통천황持統天皇

찾아보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서기 권 제11

日本書紀 卷第十一

제16대 **대초료천황**(大鷦鷯天皇) **인덕천황**(仁德天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서기 권 제11

대초료천황(大鷦鷯天皇 ; 오호사자키노스메라미코토) **인덕천황**(仁德天皇 ; 닌토쿠텐노)

대초료천황[1]은 예전천황(譽田天皇 ; 호무타노스메라미코토)[2]의 넷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중희명(仲姬命 ; 나카츠히메노미코토)[3]이라 한다. 오백성입언황자(五百城入彦皇子 ; 이호키이리비코노미코)[4]의 손자이다. 천황은 어려서는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용모가 수려하였다. 장성하여서는 인자하고 자애로웠다. 41년 봄 2월[5]

---

1 仁德天皇은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전하는 제16대 천황이다. 이름은 오오사자키(大雀, 大鷦鷯)이며 應神天皇과 仲姬 사이에서 태어났다. 仁德紀에는 태자 菟道稚郎子가 仁德에게 왕위를 양위하였지만 仁德은 이를 사양하였고, 태자가 자살함에 따라 仁德이 즉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인덕은 難波高津宮에 도읍을 정하였다. 葛城氏의 여인인 葛城磐之媛을 皇后로 세워 履中, 反正, 允恭天皇 등 4명의 아들을 낳았고, 妃인 日向髮長媛과의 사이에도 1남 1녀를 두었다. 인덕천황은 『古事記』와 『日本書紀』에는 堯舜과 같은 성스러운 군주로 묘사되어 있다. 『日本書紀』에는 절명한 나이는 기록하지 않고 재위 87년에 죽었다고만 되어 있지만, 『古事記』에는 83세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陵墓인 百舌鳥耳原中陵은 大阪府 堺市 大仙町의 大山古墳으로 비정되고 있다.

2 응신천황을 가리킨다.

3 『古事記』 應神天皇段에는 中日賣命(나카츠히코노미코토)이라 적고 있다.

4 『日本書紀』 景行天皇 4년 2월조에서는 경행천황의 둘째 황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古事記』에서는 五百木之入日子命(오호키노이리비코노미코토)–品陀直若王–高木入日賣命–中日賣命–弟日賣命'이라 적고 있으므로 仲姬命(中日賣命)의 조부로 기록되어 있다.

5 응신천황 41년 2월을 가리킨다.

에 예전천황이 죽었다(崩). 이때 태자[6]인 토도치랑자(菟道稚郎子 ; 우지노와키이라츠코)는 대초료존(大鷦鷯尊 ; 오호사자키노미코토)에게 양보하며, 제위(帝位)에 오르지 않았다. 그는 대초료존에게 "무릇 천하의 군주가 되어 만민을 다스리는 자는 위로는 하늘과 같이 덮고 아래로는 땅과 같이 포용해야 합니다. 군주는 백성을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부려야 합니다. 백성은 이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천하가 편안합니다. 지금 저는 아우입니다. 또한 배움과 깨우침이 부족합니다. 어찌 감히 황위를 이어 천황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대왕(大王)[7]은 풍모와 자태가 뛰어납니다. 인자함과 효심이 멀리까지 알려졌으며 연령도 위이십니다. 천하의 임금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무릇[8] 선제(先帝)께서 저를 태자로 세운 것이 재능이 있어서였겠습니까. 다만 저를 어여삐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묘사직[9]을 받드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저는 불초하여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릇 형은 위, 아우는 아래, 성인은 군주, 우인은 신하가 되는 것이 고금의 변치 않는 법도입니다. 아무쪼록 왕께서는 주저하시 마시고 제위에 오르소서. 저는 신하로서 도울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대초료존이 "선제께서 '제위는 하루도 비워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밝고 덕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 황태자로 삼아 제위를 계승할 복과 백성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태자를 총애한다는 증표를 중시하여 천하에 널리 알리셨습니다. 제

---

6 『日本書紀』 응신천황 40년 정월조에는 응신천황이 菟道稚郎子를 태자로 삼고, 大鷦鷯尊에게 태자를 보좌하게 하였다고 적혀 있다. 『古事記』 응신천황단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설화가 전해지지만, 大雀命(오호사자키노미코토)을 태자로 기록하고 있다.

7 『日本書紀』에서는 이 기사에서 처음 보인다. 이후 允恭天皇, 顯宗天皇, 繼體天皇대에 대왕호 사용례가 보인다. 천황호 성립 이전에는 대외적으로는 倭王, 倭國王, 王 등으로 불렸다. 금석문의 용례로는 「江田船山古墳出土太刀銘」에 명기된 「治天下獲□□歯大王世」가 있다.

8 원문은 其이다. '其'자의 사용은 권11부터 13에 걸쳐 나타는 문장상의 특징이다.

9 宗廟는 천자의 조상을 모신 곳, '社稷'은 土地와 五穀의 神을 일컫는다. 고대의 天子와 諸侯는 궁전의 왼쪽에 종묘를, 오른쪽에 사직을 받들어 모셨다.

가 어리석지만 어찌 선제의 명을 버리고 쉽게 아우 왕의 바람을 따를 것입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굳게 사양하며 서로 양보하였다[10]. 이때 액전대중언황자(額田大中彦皇子 ; 누카타노오호나카츠히코노미코)[11]가 왜(倭 ; 야마토)의 둔전(屯田)[12] 및 둔창(屯倉)[13]을 관장하고자 둔전사(屯田司)[14]인 출운신(出雲臣 ; 이즈모노오미)[15]의 선조 어우숙녜(淤宇宿禰 ; 오우노스쿠네)[16]에게 "이 둔전은 본래 산수(山守 ; 야마모리)[17]의 땅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스리려고 한다. 너는 관장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어우숙녜는 이를 태자[18]에게 아뢰었다. 태자는 "대초료존에게 아뢰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어우숙녜가 대초료존에게 "신에게 주어진 둔전을 대중언황자가 방해하여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대초료존은 왜직(倭直 ; 야마토노아타이)의 선조 마려(麻呂 ; 마로)[19]에게 "왜의 둔전이 본래 산수(山守)의 땅이라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신은 모릅니

---

10 장자상속과 賢者가 제위에 올라야 한다는 중국적인 유교사상에 기초한 사상이 더해져 만들어진 설화이다.

11 『日本書紀』 응신천황 2년 3월조에서는 응신천황의 비인 高城入姬의 장남으로 액전대중언황자가, 차남으로 대산수황자가 보인다. 『古事記』 응신천황단에서는 「高木入日賣命之子, 額田大中日子命, 次大山守命, 次伊奢之眞若命.」이라고 적고 있다.

12 천황의 식량을 생산하는 토지를 둔전이라 하며 주로 畿內에 설치되었다.

13 屯倉 또는 御宅, 三宅, 官家라고도 표기된다. 倭의 둔창으로는 來目邑, 村合, 蔣代, 匝布, 小墾田, 大身狹, 小身狹의 둔창을 들 수 있다.

14 둔전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관사이다. 대보령제에서는 官內省의 하급관인이 둔전사에 임명되었다.

15 出雲國 意宇郡을 본거로 한 호족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神代 上 第六段의 出雲臣 참조.

16 이 시기에 보이는 宿禰는 이름에 붙은 원시적인 칭호라 간주되므로, 후세의 姓(가바네) 가운데 하나인 '숙녜'와는 다르다.

17 『日本書紀』 응신천황 5년 8월조에서는 海人 및 山守部를 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山守는 특정한 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8 菟道稚郎子이다.

19 여기에만 보인다.

다. 신의 아우 오자롱(吾子籠 ; 오고코)[20]만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때 마침 오자롱은 한국(韓國 ; 카라쿠니)[21]에 파견되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대초료존은 어우에게 "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오자롱을 불러 오너라. 밤낮을 가리지 말고 급히 가거라."라고 말하였다. 곧 담로(淡路)의 해인(海人)[22] 80명을 뽑아 수부로 삼았다. 이에 어우가 바로 한국으로 가서 오자롱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리하여 왜의 둔전에 관해 물었다. 오자롱이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전향옥성궁(纏向玉城宮 ; 마키무쿠노타마키노미야)에서 천하를 다스린 천황[23]의 시대에 태자 대족언존(大足彦尊 ; 오호타라시히코노미코)[24]에게 맡겨 왜의 둔전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조를 내려 '무릇 왜의 둔전은 언제나 천황의 것이다. 천황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장차 천하를 다스릴 사람이 아니면 관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산수의 땅이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대초료존은 오자롱을 액전대중언황자에게 보내어 진상을 알리게 하였다. 대중언황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었다. 이에 그 잘못을 알았지만 용서하고 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산수황자는 항상 선제가 자기

---

20 오자롱은 『日本書紀』 인덕천황 62년 5월조에는 遠江에 파견되어 造船에 종사한 기록이 보이고, 履中卽位前紀에는 住吉仲皇子의 모반에 가담하였지만 누이를 바치고 죽음을 모면한 일화가 기술되어 있다. 윤공천황 7년 12월조에는 천황의 부름에 좀처럼 응하지 않던 의통랑희가 그의 집에 머물렀고, 웅략천황 2년 10월조에는 大倭國造吾子籠宿禰가 協穗子鳥別을 바쳤다는 기사에도 등장한다.

21 韓國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사례이다. 한국은 한반도를 가리킨다.

22 『日本書紀』 응신천황 22년 3월조에는 淡路 御原을 수부로 삼았다는 기록이 보이고, 履中卽位前紀에는 반란을 일으킨 仲皇子의 병력에 淡路 野嶋의 해인이 동원된 기록이 보인다. 야도는 담로도의 북부이고, 어원은 중부에 해당된다.

23 수인천황을 가리킨다. 『日本書紀』와 『古事記』에는 수인천황대에 倭의 둔전을 정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24 뒤에 경행천황이 된다.

를 버려두고 태자로 삼지 않은 일[25]을 원망하고 있던 차에, 이 일로 원한이 더욱 쌓이게 되었다. 그래서 모의하여 "내가 태자를 죽이고, 제위에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초료존이 미리 그 모의를 듣고 태자에게 몰래 고하여 군사를 갖추어 지키게 하였다. 그런 까닭에 태자는 군사를 갖추고 대비하였다. 대산수황자[26]는 군사가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홀로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한밤중에 출발하였다. 새벽에 토도(菟道 ; 우지)에 이르러 강을 건너려고 하였다. 그때 태자가 삼베옷을 입고 노를 잡고 몰래 사공들 틈에 섞여 대산수황자를 태우고 건너갔다. 이윽고 강 가운데에 이르러 사공을 꾀어 배를 밟아 전복시켰다. 그러자 대산수황자가 강에 떨어져 물에 빠졌다. 그는 물에 떠내려가면서 노래하였다.

토도의 나루에서 능숙하게 노를 젓는 사람이여. 나를 구하러 빨리 와다오.

그러나 복병이 많아 강기슭에 이르지 못하여, 마침내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시신을 찾게 하였더니 고라제(考羅濟 ; 카와라노와타리)[27]에서 떠올랐다. 태자가 그 시신을 보고 노래하였다.

토도를 건너는 나루터에 서 있는 박달나무여. 마음으로는 베려고 생각했건만, 마음으로는 베려고 생각했건만. 뿌리에서는 그대를 떠올리고 가지에서는 누이를 떠올려. 이쪽 저쪽 모두 가슴이 아파 끝내 베지 못하고 돌아왔구나. 박달나무여.

---

25 『日本書紀』 응신천황 40년조 참조.

26 대산수황자의 반역에 관한 설화는 『古事記』 응신천황단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7 율령제의 山城國 綴喜郡 河原村(현재 京都府 綴喜郡 田邊町 河原)에 비정된다.

그리하여 나라산(那羅山 ; 나라노야마)에 (대산수황자를) 장사 지냈다[28]. 이후 토도에 궁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살았으나, 여전히 제위를 대초료존에게 양보하려고 오랫동안 즉위하지 않아 제위를 비워둔 지 이미 3년이 지났다. 그때 해인(海人)들이 생선을 진상품으로 가지고 와 토도궁(菟道宮 ; 우지노미야)[29]에 바쳤다. 태자가 해인들에게 "나는 천황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곧 돌아가서 난파(難波 ; 나니하)에 진상하도록 하였다. 대초료존 역시 돌려주어 토도에 바치도록 하였다. 그래서 해인들의 바구니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생선이 썩었다. 또 다시 돌아가 다른 생선을 잡아 바치려 했으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로 사양하였다. 그리하여 생선이 또 썩었다. 해인들은 여러 번 왕복하는 일에 지쳐서 생선을 버리고 울었다. 그래서 속담에 "해인인가. 해인도 아닌데 자기 물건 때문에 운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태자가 "나는 형님의 뜻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았다. 어찌 오래 살아서 천하에 폐를 끼치겠는가."라고 말하며 자살하였다[30]. 대초료존은 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난파에서 달려 토도궁에 이르렀다. 태자가 죽은 지 3일이 지난 날이었다. 대초료존은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머리를 풀고 시체 앞에 웅크리고 "나의 아우 황자야."라고 세 번 불렀다[31]. 그랬더니 갑자기 살아나 스스로 일어나 앉았다. 대

---

28 奈良市 北郊 奈良坂 부근의 구릉을 말한다. 『陵墓要覽』에서는 「大山守命, 那羅山墓, 奈良縣奈良市法蓮町字境目谷.」이라고 기재하였다.

29 菟道宮은 『詞林采葉抄』 第一에 인용된 『山城國風土記』 逸文에서는 「謂宇治(우지)者, 輕島豐明宮御宇天皇之子, 宇治若郎子, 造桐原日桁宮, 以爲宮室, 因御名號宇治.」라고 적고 있다.

30 『古事記』 응신천황단에는 「宇遲能和紀郎子者, 早崩.」이라 적혀 있을 뿐, 자살에 관한 내용이나 소생담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자살담은 帝位를 피해 자살했다는 중국 隱士談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31 머리를 풀고 유해에 걸터앉아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부르는 행위는 魂을 부르는 행위로 중국이나 한국, 인도 등에서 널리 행해진 주술이다.

초료존은 태자[32]에게 "슬프고도 아깝도다. 무엇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가. 만약 선제[33]께서 (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에게 무어라 말씀하시겠는가."라고 하였다. 태자가 형왕[34]에게 "천명입니다.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천황이 계신 곳에 가게 되면 형님이 성인(聖人)이며 계속 (제위를) 양보하신 것을 상세히 아뢸 것입니다. 그런데 형님께서는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급히 달려오셨습니다. 어찌 수고롭지 않으셨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곧 동복누이[35]인 팔전황녀(八田皇女 ; 야타노히메미코)[36]를 바치며 "비록 납채(納采)[37]하시기에 부족합니다만, 삼가 후궁으로 삼아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관에 엎드려 죽었다. 대초료존은 소복(素服)을 입고 슬퍼하며 소리 내어 슬피 울었다. 그리고 토도산(菟道山 ; 우지노야마)[38] 위에 장사지냈다.

원년[39] 봄 정월 정축삭(丁丑朔) 기묘(3일)에 대초료존이 천황의 자리에 올랐

---

32 토도치랑자를 가리킨다.

33 응신천황을 가리킨다.

34 대초료존을 가리킨다.

35 응신천황의 비인 宮主宅媛이 낳은 아이가 菟道稚郎子皇子, 矢田皇女, 雌鳥皇女이므로 同母妹라 한 것이다.

36 인덕천황 2년 12월 정월조와 同30년조에는 천황이 팔전황녀를 비로 삼으려 하자, 황후 반지원이 반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반지원이 죽은 뒤인 인덕천황 38년 정월에 황후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7 『儀禮』 士昏禮에 따르면 結婚의 六禮 가운데 하나로 남자 측에서 결혼을 제의한 뒤, 예물을 여자 집에 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38 『延喜式』 諸陵寮式 宇治墓의 註에는 「菟道稚郎皇子. 在山城國宇治郡. 兆域東西十二町. 南北十二町. 守戶三烟.」이라고 적혀 있다. 『陵墓要覽』에서는 「京都府宇治市菟道丸山.」이라 적고 있다.

39 『日本書紀』에는 응신천황이 41년(庚午) 2월에 죽은 것(崩)으로 되어 있고, 인덕천황 원년은 太歲癸酉라고 기재되어 있어 양자 사이에는 3년의 차이가 난다. 이는 즉위전기에 나오는 「皇位空之, 旣經三載.」라는 내용과 합치된다.

다. 그리고 황후[40]를 높여 황태후[41]라 하였다. 궁전을 난파에 지었는데, 이것을 고진궁(高津宮 ; 타카츠노미야)[42]이라 한다. 궁전의 담장과 건물에는 흰색을 칠하지 않았다. 서까래, 들보, 기둥도 장식하지 않았다. 억새로 지붕을 이을 때에도 끝을 가지런히 하지 않았다. 이는 사사로운 이유로 백성이 밭을 갈고 베 짜는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전에 천황이 태어난 날 부엉이[43]가 산실에 들어왔다. 다음날 아침 예전천황이 대신(大臣)[44] 무내숙녜(武內宿禰 ; 타케시우치노스쿠네)[45]를 불러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라고 물었다. 대신이 "길조입니다. 또한 어제 신의 처가 아이를 낳을 때 굴뚝새[46]가 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또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천황이 "지금 짐의 아들과 대신의 아들이 같은 날에 함께 태어났다. 모두 길조이다. 이것은 하늘의 표식이다. 그 새의 이름을 따서 서로 바꾸어 자식의 이름에 붙여 후세의 증표로 삼자."고 말하였다. 그래서 굴뚝새의 이름을 따서 태자의 이름을 대초료황자라 하였으며, 부엉이의 이름을 따서 대신의 아들을 목토숙녜(木菟宿禰 ; 츠쿠노스쿠네)[47]라 하였다. 이는 평군신(平群臣 ; 헤구리노오미)[48]의 시조이다. 이 해

---

40 응신천황의 황후 仲姬를 가리킨다.

41 『日本書紀』 綏靖天皇 2년 정월조에 황후를 높여 황태후라 한 사례가 기재되어 있다.

42 大阪市 中央區 法圓坂에 7세기 후반부터 8세기에 걸쳐 조영된 난파궁적을 중심으로 한 上町臺地의 북부와 大阪城 남쪽 일대의 대판성지 주변이라 간주되고 있다.

43 원문은 木菟(학명 : Strigidae)이다.

44 『日本書紀』 景行天皇 51년 8월조에서는 「武內宿禰爲棟梁之臣.」이라 하고, 成務天皇 3년 정월조에서는 「武內宿禰爲大臣也.」라 기록하고 있다.

45 『古事記』 孝元天皇段에서는 建內宿禰(타케우치노스쿠네)라 한다. 『日本書紀』 景行天皇 3년 2월조 武內宿禰 참조.

46 원문은 鷦鷯(학명 : Troglodytes troglodytes)이다.

47 『古事記』 효원천황단에는 平群都久宿禰(헤구리노츠쿠노스쿠네)는 建內宿禰의 아들이며 平群臣, 佐和良臣, 馬御樴 등의 선조라고 기재하고 있다.

48 平群臣은 大和의 웅족이다. 천무천황 13년 11월에 朝臣으로 改姓하였다. 『新撰姓氏錄』

의 간지는 계유이다.

2년 봄 3월 신미삭 무인(8일)에 반지원명(磐之媛命 ; 이하노히메노미코토)[49]을 황후로 삼았다. 황후는 대형거내수별천황(大兄去來穗別天皇 ; 오호에노이자호와케노스메라미코토)[50], 주길중황자(住吉仲皇子 ; 스미노에노나카츠미코)[51], 서치별천황(瑞齒別天皇 ; 미츠하와케노스메라미코토)[52], 웅조진간치자숙녜천황(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 ; 오아사즈마와쿠고노스메라미코토)[53]을 낳았다. 또 비(妃) 일향발장원(日向髮長媛 ; 히무카노카미나가히메)[54]은 대초향황자(大草香皇子 ; 오호쿠사카노미코)[55]와 번사황녀(幡梭皇女 ; 하타비노히메미코)[56]를 낳았다.

4년 봄 2월 기미삭 갑자(6일)에 군신을 불러 "짐이 누대에 올라 멀리 바라보

右京 皇別 平群朝臣條에는「平群朝臣, 石川朝臣同, 武內宿禰男平群都久宿禰之後也.」라고 적혀 있다.

49 『古事記』 仁德天皇段에는 葛城之曾都毗古의 딸 石之日賣命(이하노히메노미코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속일본기』 천평 원년(729) 8월 24일조의 光明皇后 宣明에서는 葛城曾豆比古(葛城曾豆比古)의 伊波乃比賣命(石之比賣命)을 황족이 아닌 여인의 첫 入后 사례로 적고 있다.

50 履中天皇을 말한다.

51 『古事記』 仁德天皇段에서는 墨江之中津王(스미노에노나카츠호호키미)이라 적고 있고, 『日本書紀』 履中卽位前紀와 『古事記』 履中天皇段에서는 반역을 도모하여 살해되었다고 적고 있다.

52 反正天皇을 가리킨다.

53 允恭天皇을 가리킨다.

54 천황과 髮長媛과의 관계는 『日本書紀』 응신천황 11년 시세조와 동13년조 참조.

55 『古事記』 인덕천황단에서는 波多毘能大郎子(하타비노오호이라쓰코) 또는 大日下(오호쿠사카)王이라고 적고 있다.

56 『古事記』 인덕천황단에서는 波多毘能若郎女(하타비노와키이라쓰메) 또는 長目比売(나가메히메)命 혹은 若日下部(와카쿠사카베)命이라고 적고 있다.

니 나라 안에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다. 생각하건대, 백성이 매우 가난하여 집에서 밥 짓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짐이 듣기에 '옛 성왕(聖王)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덕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집집마다 천하가 태평하다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지금 짐이 백성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났다. 칭송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으며, 밥 짓는 연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것으로 오곡이 여물지 아니하고 백성이 궁핍하다는 것을 알았다. 기내(畿內)에서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는데, 하물며 기외(畿外)[57]의 제국은 일러 무엇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3월 기축삭 기유(21일)에 "지금부터 3년간 모든 과역(課役)[58]을 면제하고 백성의 괴로움을 덜어 주라."고 명하였다. 이 날부터 시작하여 수놓은 옷과 비단신은 완전히 해지지 않으면 다시 만들지 않았다. 또한 따뜻한 밥과 국은 시고 썩지 않으면 바꾸지 않았으며, 욕심을 줄이고 행동을 삼가하여 쓸데없는 일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궁전의 담장이 무너져도 수축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이은 억새가 허물어져도 개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비바람이 그 틈새로 들어와서 의복을 적시었고, 별빛이 무너진 곳으로 새어 들어와 침상을 비추었다. 이후 비바람이 때에 맞아 오곡이 풍성하게 여물었다. 세 번 곡식이 익는 사이에 백성은 부유하고 넉넉해져 칭송하는 소리가 이미 가득하고 밥 짓는 연기 또한 가득 피어올랐다.

7년 여름 4월 신미삭(1일)에 천황이 누대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연기가 많이 피어올랐다. 이 날 황후에게 "짐은 이미 넉넉하다. 아무런 근심이 없다."고 말하였다. 황후가 "어찌하여 부유하다고 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천황이 "연

57 이 기사에서 畿內는 都나 皇居에 가까운 지역을, 畿外는 먼 지역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경행천황 51년 8월조의 邦畿之外라는 표현이 참고가 된다.

58 課는 調用, 役은 身役을 가리키는 율령 용어이다. 『日本書紀』 숭신천황 12년 3월조의 課役 참조.

기가 나라에 가득하니 백성이 당연히 부유한 것이 아닌가."라고 답하였다. 황후가 다시 "궁의 담장이 무너졌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궁전이 무너져 옷이 이슬에 젖습니다. 어찌 넉넉하다 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천황이 "무릇 하늘이 군주를 세우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옛 성왕은 한 사람이라도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 돌아보고 스스로를 책망하였다. 백성이 가난한 것은 짐이 가난한 것이고, 백성이 부유한 것은 곧 짐이 부유한 것이다. 백성이 부유한데 군주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가을 8월 기사삭 정축(9일)에 대형거내수별황자[59]를 위하여 임생부(壬生部)[60]를 정하였다. 또한 황후[61]를 위하여 갈성부(葛城部)[62]를 정하였다.

9월에 제국(諸國)이 모두 "과역을 모두 면제한 지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 궁전은 썩어 무너지고 창고는 비었습니다. 지금 백성[63]이 부유하여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습니다. 마을에 홀아비, 과부가 없고 집집마다 쓰고 남은 것이 쌓여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때에 조세를 바쳐 궁전을 수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하늘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참고 허락하지 않았다.

10년 겨울 10월에 처음으로 과역을 부과하여 궁전을 지었다. 백성들은 명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재목을 나르고 망태를 짊어졌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힘을 다해 앞다투어 지었다. 그래서

---

59 履中天皇을 가리킨다.

60 임생부는 황자녀의 양육을 위해 설치된 部이다. 乳部라고도 한다.

61 반지원을 가리킨다.

62 『古事記』 인덕천황단에는 御名代(미나시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63 원문은 黔首이다. 『史記』 始皇紀의 「更民曰, 名黔首.」라는 문구가 참고가 된다.

얼마 되지 않아 궁전이 모두 완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금도 성제(聖帝)[64]라 칭하는 것이다.

11년 여름 4월 무인삭 갑오(17일)에 군신에게 "지금 짐이 이 나라를 둘러보니 들판과 못은 넓은데, 전지는 부족하다. 또 하천은 제멋대로 흐르고 하천 하류는 흐름이 빠르지 않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바닷물이 역류하여 거리에서 배를 타야할 지경이 되고, 도로 또한 진흙탕이 된다. 이에 군신들은 함께 이러한 상황을 살펴 물길을 바로잡아 바다로 통하게 하고 역류하는 것을 막아 전지와 택지를 안전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겨울 10월에 궁전[65] 북쪽의 들에 수로를 파서 남쪽의 물을 끌어들여 서쪽[66] 바다로 흘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이 물을 굴강(堀江 ; 호리에)[67]이라 불렀다. 또한 북쪽 하천의 홍수를 막기 위해 자전제(茨田堤 ; 마무타노츠츠미)[68]를 쌓았다. 이때 쌓으면 무너져 막기가 어려운 곳이 두 군데 있었다. 그때 천황의 꿈에 신이 나타나 "무장인(武藏人 ; 무사시노히토) 강경(强頸 ; 코하쿠비)[69]과 하내인(河內

64 『古事記』 인덕천황단에도 「天皇登高山, 見四方之國, 詔之. 於國中烟不発. 國皆貧窮. 故, 自今至三年, 悉除人民之課役. (중략) 是以, 百姓之栄, 不苦役使. 故, 称其御世, 謂聖帝世也.」라고 적혀 있다. 『日本書紀』와 『古事記』 모두 3년의 과역 면제에 관한 설화를 싣고 있다.

65 난파 고진궁을 가리킨다.

66 大阪灣을 가리킨다.

67 大川(현재 淀川)으로 비정한다.

68 자전제에 대해서는 枚方市의 伊加賀 부근에서 都道區 東野田町 부근에 이르는 장대한 제방이라 보는 견해와 伊加賀 부근의 정천 좌안에서부터 寢屋川市 太間 부근을 거쳐 門眞市 北島 부근에 이른다고 보는 견해, 伊加賀에서 출발하여 정천이 크게 분류하는 지점인 太間과 정천이 고천으로 다시 분류되는 지점인 平池 부근에 이르는 지역에 축조된 제방이라 보는 견해가 있다.

69 강경은 문화 후진지역인 東國 武藏에서 온 병사로서 원시적 습속에 순응하여 죽음에 이른 존재로, 삼자는 문화 선진지역인 畿內人이어서 신의 진위를 의심하고 신을 시험하는

人 ; 카후치노히토) 자전련삼자(茨田連衫子 ; 마무타노무라지코로모노코)[70][삼자는 코로모노코(莒呂母能古)라고 읽는다.] 이 두 사람을 하백(河伯)[71]에게 바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다[72]."라고 일러 주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하백에게 제사지냈다. 이에 강경은 울먹이며 물에 빠져 죽었다. 이후 곧 그 제방이 완성되었다. 다만 삼자는 온전한 박 두 개를 가지고 막기 어려운 곳으로 갔다. 그리고 두 개의 박을 강의 신에게 던지며 "강의 신을 두려워하여 저를 제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제가 왔습니다. 기어이 저를 얻고자 한다면 이 박을 가라앉혀 뜨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진정한 신이라 여기고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박을 가라앉힐 수 없다면 자연히 가짜 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찌 헛되이 제 목숨을 끊을 것입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때에 폭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박을 끌어다 물속에 넣었다. 박은 물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가라앉지 않았다. 빠른 물결에 떠서 멀리 흘러갔다. 이 때문에 삼자는 목숨을 잃지 않고 제방을 완성할 수 있었다. 삼자는 재능에 의해 몸을 망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두 곳을 가리켜 강경단간(强頸斷間 ; 코와

등 원시적 습속을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기도 한다.

70 『新撰姓氏錄』 右京 皇別 茨田連條에서 「多朝臣同祖. 神八井耳命男彦八井耳命之後也.」, 山城國 皇別 茨田連條에서 「茨田宿禰同祖. 彦八井耳命之後也.」라고 적고 있다. 또 同書 河內國 皇別 茨田宿禰條에서는 「多朝臣同祖…男野現宿禰. 仁德天皇御代. 造茨田堤.」라고 적고 있다. 天武天皇 13년 12월에 茨田連씨가 宿禰로 改姓하였다.

71 하백은 원래 중국 黃河의 신을 일컫는데, 고구려의 주몽신화에도 보인다. 『日本書紀』에는 하천을 관장하는 신이 대부분 '水神', '河神'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하백이 등장한 사례는 위 사료와 皇極天皇 원년조에서 「羣臣相謂之曰. 随村村祝部所教. 或殺牛馬祭諸社神. 或頻移市. 或祷河伯. 既無所効. 蘇我大臣報曰. 可於寺寺轉讀大乘經典. 悔過如佛所訟. 敬而祈雨.」라고 적고 있는 예가 전부이다. 양 기사에 등장하는 하백은 수신으로서의 능력을 시험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천황에 비해 물을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72 인간을 희생으로 바치는 이른바 '人身供犧'설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쿠비노타에마)[73], 삼자단간(衫子斷間 ; 코로모노코노타에마)[74]이라 불렀다.

이 해에 신라인이 조공하였다. 그래서 이 공사에 종사시켰다[75].

12년 가을 7월 신미삭 계유(3일)에 고구려[76]가 철로 만든 방패와 과녁을 바쳤다[77].

8월 경자삭 기유(10일)에 고구려의 사신에게 조정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이날 군신 및 백료를 모아 고구려가 바친 철 방패와 철 과녁을 쏘게 하였다. 많은 사람이 과녁을 맞히지 못하였다. 다만 적신(的臣 ; 이쿠하노오미)[78]의 선조 순인숙녜(盾人宿禰 ; 타타히토노스쿠네)만이 철 과녁을 관통하였다. 이때 고구려 사신들이 활 쏘는 솜씨의 훌륭함에 경외를 표하며 모두 일어나 절하였다. 다음날 순인숙녜를 칭찬하여 이름을 내려 적호전숙녜(的戶田宿禰 ; 이쿠하노토다노스쿠네)라 하였다. 같은 날 소박뢰조(小泊瀨造 ; 오하츠세노미야츠코)[79]의 선조 숙녜

---

73 단간은 하천의 분류 지점이나 합류 지점과 같이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물의 흐름이 빨라지는 지역이어서, 제방을 쌓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간을 가리킨다.

74 衫子斷間은 茨田郡 太間村(현재 寢屋川市 太間町 부근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비정되고 있다. 强頸斷間은 東生郡 千林村(현재 大阪市 旭區 千林 부근 지역)으로 비정하거나, 정천이 고천으로 다시 분류되는 지점인 平地 부근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75 조공이 일종의 외교 행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공과 노역 종사는 곧바로 연결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것은 『日本書紀』에 깔린 삼한 복속의 관념적 이데올로기와 열도로 도해한 이주민들의 기술이 畿內의 개발에 공헌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76 원문은 高麗이다. 『日本書紀』의 高麗는 모두 『三國史記』의 高句麗이다. 이하 본문에서는 고구려로 해석한다.

77 고구려와 倭 양국 관계를 조공국과 피조공국 관계로 설정한 것은 『日本書紀』 편자의 윤색이다.

78 『新撰姓氏錄』 山城, 河內, 和泉國皇別 的臣條에서는 武內宿禰의 아들인 葛城襲津彦의 후예라고 적고 있다.

79 小泊瀨造는 武烈天皇의 名代인 小泊瀨部를 관장하는 伴造이며, 小泊瀨는 武烈天皇의 이름이다. 천무천황 12년 9월에 泊瀨造가 連姓으로 개성되었다.

신(宿禰臣 ; 스쿠네노오미)에게 이름을 내려 현유신(賢遺臣 ; 사카노코리노오미)[賢遺는 사카노코리(左舸能莒里)라고 읽는다.]이라 하였다.

겨울 10월에 큰 수로를 산배(山背 ; 야마시로)의 율외현(栗隈縣 ; 구루쿠마노아가타)[80]에 파서 논에 물을 대었다. 이로 인해 그 지방의 백성은 항상 넉넉하였다.

13년 가을 9월에 처음으로 자전(茨田)[81]둔창을 세웠다. 그래서 용미부(舂米部)[82]를 정하였다.

겨울 10월에 화이지(和珥池)[83]를 만들었다. 이 달에 횡야제(橫野堤)[84]를 쌓았다.

14년 겨울 11월에 저감진(猪甘津 ; 웨카히노츠)[85]에 다리를 놓았다. 그곳을 소교(小橋 ; 오바시)[86]라고 불렀다.

---

80 『和名類聚抄』에서는 「山城國久世郡栗隈鄕.」이라고 적고 있다. 현재 京都府 城陽市 久世鄕 久御山町에 걸친 지역이다.

81 『和名類聚抄』에서 「河內國茨田郡萬牟多鄕.」이라고 적고 있다. 현재 大阪府 枚方市 남서부와 寢屋川市의 西半部, 守口市, 門眞市 전역, 大東市의 서부, 大阪市 鶴見區 동부지역에 해당된다.

82 「大寶戶籍」에는 舂米部, 搗米部가 보이는데, 그 반조인 舂米連은 천무천황 13년 12월에 宿禰 姓을 받았다.

83 『大和志』에서는 「添上郡和珥池. 在池田村. 一名廣臺寺池.」라고 적고 있어 和珥池(현재 奈良市 池田町)일 가능성도 있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21년 11월조에 和珥池 축조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84 『延喜式』 神名帳의 攝川郡 六座 중에 橫野神社가 기재되어 있다. 현재 大阪市 生野區 巽西3丁目에 橫野神社蹟이 남아 있다. 橫野堤의 수호신이었을 것이다.

85 현재 大阪市 生野區 中川西 平野川의 東岸 지역이다.

86 현재 天王寺區 小橋町이다. 『古事記』 인덕천황단에는 「堀難波之堀江次通海, 又堀小椅江, 又定墨江之津.」이라고 적고 있다.

이 해에 왕경 안에 큰 길[大道][87]을 만들었다. 남문에서 곧바로 단비읍(丹比邑 ; 타지히노무라)[88]에 이른다. 또 큰 수로를 감구(感玖 ; 코무쿠)[89]에 팠다. 석하(石河 ; 이시가하)[90]의 물을 끌어들여 상령록(上鈴鹿 ; 카미츠스즈카), 하령록(下鈴鹿 ; 시모츠스즈카), 상풍포(上豐浦 ; 가미츠토유라)[91], 하풍포(下豐浦 ; 시모츠토유라) 네 곳의 들에 물을 대고, 개간하여 4만여 경의 논을 얻었다. 그래서 그곳의 백성은 풍족하고 여유로워 흉년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

16년 가을 7월 무인삭(1일)에 천황은 궁인[92] 상전구하원(桑田玖賀媛 ; 구하타노쿠가히메)[93]을 근시하는 사인(舍人)[94]들에게 보이며 "짐이 이 여인을 사랑하려 하여도 황후[95]의 질투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지 여러 해가 지났다. 어찌 한창 때를 헛되이 보내야 하는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곧 노래하였다.

---

87 『日本書紀』에는 大道 관계 기사가 3회 나온다. 이 기사와 『日本書紀』 推古天皇 21년 11월조의 「自難波至京置大道.」, 孝德天皇 白雉 4년 6월조의 「脩治処処大道.」가 그 예이다.

88 『和名類聚抄』에서는 「河內國丹比郡丹北, 丹南.」이라 적고 있다. 이 두 鄕이 丹比邑과 관련된 지역이라면 현재 大阪府 南河內郡 美原町 북동부의 丹上, 松原市 南部의 丹南을 중심으로 한 羽曳野市 郡戶를 포함한 지역에 해당된다.

89 『和名類聚抄』에는 「河內國石川郡紺口.」라고 적고 있다. 현재 大阪府 南河內郡 河南町 부근이다.

90 和泉山脈의 灯明岳 부근이 原流인데, 북쪽으로 흘러 錦部, 石川, 古市 등을 경유하여 志紀郡에서 大和川에 합류한다.

91 『和名類聚抄』에 보이는 河內郡豐浦(현재 大阪府 東大阪市 豐浦町)로 비정할 수 있지만, 거리상으로 너무 멀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92 궁중에서 근무하던 여성들을 총칭한 표현이다. 율령제에서는 6위 이하의 女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93 『和名類聚抄』에 보이는 丹波國桑田郡(현재 京都府 北桑田郡, 龜岡市)을 출신지로 하는 인명이다. 玖賀媛에 관한 이야기는 『古事記』에는 보이지 않는다.

94 舍人은 천황이나 황족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다.

95 磐之媛을 가리킨다.

나를 섬기는 여인을 누가 돌볼 것인가.

이에 파마국조(播磨國造)[96]의 선조 속대(速待 ; 하야마치)[97]가 홀로 나아가 노래하였다.

파마속대가 두려움이 많지만 삼가 돌보겠습니다.

그 날 구하원을 속대에게 보냈다. 다음날 저녁 속대가 구하원의 집에 이르렀다. 그러나 구하원과 뜻이 맞지 않았다. 이에 억지로 침소에 들어가려 하였다. 이때 구하원이 "첩은 과부로 평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어찌 그대의 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천황이 듣고 속대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생각하고, 구하원을 속대에게 딸려 상전(桑田 ; 구하타)으로 보냈다. 곧바로 구하원은 병이 들어 도중에 숨졌다. 지금도 구하원의 묘가 있다.

17년에 신라가 조공하지 않았다.

가을 9월에 적신의 선조 지전숙녜(砥田宿禰 ; 토다노스쿠네)와 소박뢰조(小泊瀨造 ; 오하츠세노미야츠코)의 선조 현유신(賢遺臣 ; 사카노코리노오미)을 보내 조공하지 않은 일에 관해 묻게 하였다. 신라인이 두려워하여 공물을 바쳤다. 조(調)로 바치는 비단 1,460필[98] 및 여러 가지 잡물을 합하여 배 80척 분량이었다[99].

---

96 『日本書紀』 경행천황 4년 2월조에서 「稻背入彦皇子. 是播磨別之始祖也.」라고 적고 있듯이 稻背入彦皇子는 播磨別(하리마노와케)의 시조이다. 『先代舊事本紀』 國造本紀에는 志賀高穴穗朝(成務朝)에 伊許自別命(이코지와케노미코토)을 針間(하리마)국조로 정했다고 적혀 있다.

97 여기에만 보인다.

98 조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라가 倭에게 문책을 당하고 그 때문에 많은 공물을 바치게 되었다는 상황 설정 자체는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단지 비단 1,460필이라는 구체적

22년 봄 정월에 천황이 황후[100]에게 "팔전황녀(八田皇女 ; 야타노히메미코)를 들여 비로 삼으려 한다."고 말하였다. 이때 황후는 듣지 않았다. 이에 천황이 노래를 부르며 황후에게 청하여 말하였다.

귀인(貴人)이 분명히 하고픈 말은, 여분의 활시위는 끊어졌을 때 연결하기 위한 것이니 나란히 하였으면.

황후가 답하여 노래하였다.

옷이라면 이중으로 겹쳐 입는 것도 좋지만, 밤의 잠자리를 나란히 하고자 하는 당신은 두렵기만 하네.

천황이 또 노래하였다.

난파 해변에 있는 물가와 같이 함께 두기 위해 그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황후가 답하여 노래하였다.

수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어디에서 이러한 구체적 수치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후대 신라가 보낸 물품의 양이 이 기사에 혼입되어 나타난 수치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99 고대 일본에서 八이라는 숫자가 '많다, 넓다'라는 일반적 의미를 내포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80척이라는 말도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는 아니다. 『日本書紀』 神功皇后攝政前紀(仲哀天皇 9년 겨울 10월조)에 神功皇后에 항복한 신라왕이 미사흔을 인질로 보냄과 동시에 80척의 배에 공물을 실어 보냈으며, 이것이 신라왕이 항상 80척의 배에 공물을 바치는 연유라고 기술된 전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보인다.

100 磐之媛을 가리킨다.

여름누에가 누에고치를 이중으로 입고 싸안고 자는 것이 어찌 좋을까.

천황이 또 노래하였다.

조유의 피개 언덕을 홀로 울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짝이 있다면 좋으련만.

황후는 끝내 허락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잠자코 답하지 않았다.

30년 가을 9월 을묘삭 을축(11일)에 황후가 기국(紀國 ; 키노쿠니)에 행차하여 웅야갑(熊野岬 ; 쿠마노노미사키)[101]에 이르러 이곳의 어강엽(御綱葉 ; 미츠나카시하)[102][엽은 카시하(箇始婆)라고 읽는다.]을 따서 돌아왔다. 천황은 황후가 없는 틈을 타 팔전황녀를 맞이해 궁전에 들였다. 그때 황후는 난파 해변에 이르러 천황이 팔전황녀를 맞아 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원망하였다. 곧바로 따 가지고 온 어강엽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를 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시 사람들이 황후가 잎을 뿌린 바다를 엽제(葉濟 ; 카시하노와타리)[103]라 칭하였다. 천황은 황후가 노하여 상륙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친히 대진(大津 ; 오호츠)[104]으로 행차하여 황후의 배를 기다리며 노래하였다.

---

101 和歌山縣 新宮市 新宮 주변이다. 『日本書紀』 신무즉위전기 6월조 熊野 참조.

102 御綱葉(미츠나카시하)는 三角葉(미츠노카시하)가 변한 것이다. 잎의 끝이 3개로 벌어진 상록엽으로, 神에게 바치는 술을 담는 나뭇잎이다.

103 『古事記』에서는 「御津前(미츠노사키)」이라 적고 있다. 현재 난파의 淀川 하구 부근의 선착장이다.

104 難波大津(인덕천황 62년 5월조에는 難波津)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지만, 明治 19년의 大阪實測圖에 따라 寢屋川 左岸의 大阪市 中央區 城見 지역이라 보기도 한다.

난파인이여 방울이 달린 배를 끌어당겨라. 허리까지 물에 잠겨도 그 배를 끌어라. 대어선을 끌어라.

이때 황후는 대진에 정박하지 않고 다시 배를 이끌고 강을 거슬러 산배(山背 ; 야마시로)를 순회하여 왜(倭)로 향하였다. 다음날 천황이 사신 조산(鳥山 ; 토리야마)[105]을 보내 황후를 모시고 돌아오게 하였다. 이에 노래하였다.

산배로 빨리 뒤쫓아 가라. 조산이여. 서둘러 쫓아가면 내가 사랑하는 처를 쫓아가 만날 수 있을 지도.

황후는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나아갔다. 산배하(山背河)[106]에 이르러 노래하였다.

산배하를 거슬러 올라 내가 가니, 강 굽이에 서서 무성히 자라는 잎이 무성한 나무는 마치 우리 대군(大君)과 같구나.

이에 나라산[107]을 넘어서 갈성(葛城 ; 카즈라키)[108]을 바라보고 노래하였다.

산배하를, 궁을 지나쳐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산을 지나 야마토를 지나, 내가 보고 싶은 나라는 갈성고궁, 내 집 근처.

---

105 여기에만 보인다.

106 산배하는 木津川의 옛 이름이다. 현재 三重縣과 京都府를 흐르는 淀川水系의 지류이다.

107 현재 奈良市 北郊 奈良坂 부근의 언덕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숭신천황 10년 9월조 那羅山 참조.

108 葛城은 현재 奈良縣 中西部, 葛城山 동쪽 기슭 일대를 가리킨다.

(황후는) 다시 산배로 돌아와서 궁전을 통성강(筒城岡 ; 츠츠키노오카)[109]의 남쪽에 짓고 그곳에서 지냈다.

겨울 10월 갑신삭(1일)에 적신의 선조 구지신(口持臣 ; 쿠치모치노오미)[110]을 보내 황후를 불렀다[화이신(和珥臣 ; 와니노오미)[111]의 선조 구자신(口子臣 ; 쿠치노오미)이라 한다.]. 이에 구지신은 통성궁에 이르러 황후에게 아뢰고자 하였으나 (황후는) 묵묵히 답하지 않았다. 그때 구지신은 늦은 가을비[112]를 맞으며 주야로 황후의 궁전 앞에 엎드려 피하지 않았다. 구지신의 누이 국의원(國依媛 ; 쿠니요리히메)[113]이 황후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때 황후의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국의원은 오라비가 비에 젖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였다.

산배의 통성궁에서 말씀을 올리려는 나의 오라비를 보니 눈물이 나네.

이때 황후가 국의원에게 "너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지금 뜰에 엎드려 말씀을 청하려는 자가 첩의 오라비입니다. 비에 젖어도 피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 울며 슬퍼할 따름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황후가 "너의 오라비에게 말해 속히 돌아가게 하여라.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구지는 곧 돌아가 천황에게 아뢰었다.

---

109 『和名類聚抄』에서는 「山城國綴喜郡綴喜, 豆豆木.」이라 적고 있다. 綴喜鄕은 元嘉 원년의 「興福寺官務牒」에 기초하여 현재 京都府 綴喜郡 田邊町 普賢寺 부근으로 추정하고 있다.

110 여기에만 보인다.

111 和珥臣은 奈良縣 天理市 和爾를 본거로 한 호족이다.

112 『古事記』 인덕천황단에서는 「是口子臣, 白此御歌之時, 大雨. 爾, 不避其雨.」라고 적고 있다.

113 『古事記』 인덕천황단에서는 '口子臣(쿠치코노오미)의 妹인 口比賣(쿠치히메)가 大后에게 봉사하였다.'고 적고 있다.

11월 갑인삭 경신(7일)에 천황이 배를 타고 산배에 행차했다. 그때 뽕나무 가지가 물에 따라 떠내려 왔다. 천황이 뽕나무 가지를 보고 노래하였다.

반지원이 정말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내 사랑 같은 뽕나무여. 어디든 걸리지 말고 흘러 갔으면 좋을 것을. 강의 물굽이에 걸리며 흘러 가는구나. 내 사랑 같은 뽕나무여.

다음날 천황이 통성궁에 이르러 황후를 불렀다. 황후는 만나보려 하지 않았다. 이때 천황이 노래하였다.

산배녀가 나무 괭이를 가지고 파낸 무의 잎이 흔들리듯 수런대며 당신이 말을 하기에. 저 멀리 보이는 나무의 가지가 무성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거느리고 온 것이오.

또 노래하였다.

산배녀가 나무 괭이를 가지고 파낸 무, 무처럼 새하얀 팔을 휘감지만 않았다면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으련만.

이에 황후가 "폐하는 팔전황녀를 들여 비로 맞으셨습니다. 그 황녀 옆에서 황후 노릇을 하기는 싫습니다."라고 말하고 끝내 만나 보지 않았다. 그리하여 천황[114]이 궁으로 돌아왔다. 천황은 황후의 노여움이 큰 것을 한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모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

114 원문은 車駕이다. 『後漢書』 明帝紀의 「車駕還宮.」이라는 내용이 참조가 된다.

31년 봄 정월 계축삭 정묘(15일)에 대형거내수별존[115]을 황태자로 삼았다.

35년 여름 6월에 황후 반지원명이 통성궁에서 죽었다(薨).

37년 겨울 10월 갑술삭 을유(12일)에 황후를 내라산(乃羅山 ; 나라노야마)[116]에 장사지냈다[117].

38년 봄 정월 계유삭 무인(6일)에 팔전황녀를 세워 황후로 삼았다[118].

가을 7월에 천황이 황후와 같이 누대에서 더위를 피하였다. 밤마다 토아야(菟餓野 ; 토가노)[119]에서 수사슴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청아하면서도 구슬퍼 가엾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런데 그 달 말에 이르러 사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에 천황이 황후에게 "오늘 밤은 사슴이 울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라고 말하였다. 다음날 저명현(猪名縣 ; 웨나노아가타)[120]의 좌백

---

115 大兄去來穗別(오호에노이자호와케)尊은 履中天皇을 가리킨다. 『古事記』에는 大江之伊耶本和氣(오호에노이자호와케)命이라 적혀 있다.

116 那羅山을 가리킨다.

117 『延喜式』 諸陵寮式에서는 「平城坂上墓[磐之媛命. 在大和國添上郡. 兆域 東西一町. 南北一町. 無守戶.]」라고 적고 있다. 『陵墓要覽』에서는 「平城坂上陵, 奈良縣奈良市佐紀町字ヒシアゲ」라고 적고 있다. 佐紀盾列古墳群의 東群을 구성하는 세 개의 전방후원분 가운데 서쪽에 위치한 것이 반지원의 무덤이라 정하였다.

118 『古事記』 인덕천황단에는 磐之媛의 사망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팔전황녀를 황후로 세운 내용도 보이지 않지만, 팔전황녀의 御名代로 八田部를 정했다는 내용은 보인다.

119 『攝津風土記』 逸文에 의거하여 雄伴郡의 夢野(현재 兵庫縣 神戶市 兵庫區 夢野町)의 옛 명칭이라는 설과, 이곳으로 비정하면 천황과 황후가 菟餓野에서 사슴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본조의 이야기와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현재 大阪市 北區 菟我野町 부근이라는 설이 제시되어 있다.

120 『和名類聚抄』에서는 攝津國 河邊郡 爲奈鄕(현재 兵庫縣 尼崎市 동북부)이라고 적고 있다. 猪名縣은 猪名川 양안에 걸친 지역으로 豐島郡(현재 大阪府 豐中市, 池田市, 箕面

부(佐伯部 ; 사헤키베)[121]가 진상품을 바쳤다. 천황이 선부(膳夫 ; 가시하데)[122]에게 "진상한 물건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수사슴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어디의 사슴인가."라고 물었다. "토아야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천황은 이 진상물이 필경 그때 울던 사슴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황후[123]에게 "짐이 요즈음 마음속으로 근심하는 바가 있었는데, 사슴의 소리를 듣고 위안이 되었다. 지금 좌백부가 사슴을 잡은 날과 장소를 미루어보니 바로 울던 그 사슴일 것이다. 그 사람은 짐이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연히 잡았을 터이지만,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좌백부는 황거(皇居) 가까이에 두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에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안예(安藝 ; 아키)의 정전(淳田 ; 누타)[124]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이것이 지금 정전의 좌백부의 선조이다. 그 지방 사람들이 "옛적에 어떤 사람이 토아에 이르러 들판에서 잠들었다. 그때 두 마리의 사슴이 곁에 드러누워 있었다. 새벽녘에 수사슴이 암사슴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흰 서리가 많이 내려서 내 몸을 뒤덮었다. 이것은 무슨 징조일까.'라고 말하였다. 암사슴이 '당신이 나돌아 다니면 필경 사람이 쏘아서 죽일 것입니다. 곧 흰 소금이 몸에 발라지는 것이 서리의 흰 빛처럼 될 것이라는 징조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때 들에서 자고 있던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상한 일이라 여겼다. 그런데 새벽에 사냥꾼이 나타나 수사슴을 쏘아 죽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속담에 '우는 수사슴인가. 꿈처럼 되었다.'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市)에서 河邊郡(현재 兵庫縣 川邊郡 尼崎市, 川西市) 주변에 해당된다.

121 蝦夷로 조직된 部(베)로, 궁정 경호를 담당하였다.

122 천황에게 음식으로 봉사하는 집단이다. 『日本書紀』 경행천황 18년 8월조 膳夫 참조.

123 팔전황후를 가리킨다.

124 『和名類聚抄』에서는 「安藝國沼田郡沼田鄕.」이라고 적고 있다. 현재 廣島縣 豐田郡 本鄕町, 三原市 서부, 竹原市 동부 지역에 해당된다.

40년 봄 2월에 자조황녀(雌鳥皇女 ; 메토리노히메미코)[125]를 맞이하여 비로 삼고자 준별황자(隼別皇子 ; 하야부사와케노미코)[126]에게 주선하게 하였다. 이때 준별황자는 몰래 자기 자신이 아내로 맞이하고 오랫동안 복명하지 않았다. 이에 천황은 지아비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자조황녀의 침실에 들었다. 이에 비단을 짜는 여인들이 노래하였다.

하늘을 나는 자조(雌鳥)가 짜는 금기(金機)는 준별왕의 의복(襲) 재료!

이에 천황은 준별황자가 몰래 아내로 맞이한 것을 알게 되어 분개하였다. 그러나 황후의 말과 형제의 의리를 중히 여겼기에 참고 벌하지 않았다. 얼마 뒤에 준별황자가 황녀의 무릎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있었다. 이에 황자가 "굴뚝새(鷦鷯)와 매(隼)[127] 가운데 어느 것이 빠를까?"라고 물었다. 황녀가 "매가 빠르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황자가 "그래서 내가 선수를 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이 말을 듣고 다시금 분한 마음이 일었다. 이때 준별황자의 사인(舍人)들이 노래하였다.

매여! 하늘에 올라 높이 날아 재장(齋場) 위에 있는 굴뚝새를 잡아라.

천황이 이 노래를 듣고 돌연 크게 노하여 "짐이 사사로운 원한으로 형제를

---

125 팔전황녀와 同母妹이다. 『古事記』에서는 '女島王(메도리노오호키미)'이라고 적고 있다. 『日本書紀』 응신천황 2년 3월조 雌鳥皇女 참조.

126 인덕천황이나 팔전황녀와는 배다른 형제이다. 『古事記』에서는 '速總別王(하야부사와케노미코)'이라 적고 있다. 『日本書紀』 응신천황 2년 3월조 참조.

127 굴뚝새(鷦鷯)와 매(隼)는 모두 새 이름이지만, 여기서 '鷦鷯'는 인덕천황을, '隼'은 준별황자를 가리킨다.

잃지 않으려고 참은 것이다. 어찌 상처를 내어 사사로운 일이 사직에 미치게 하는가."라고 말하고 곧 준별황자를 죽이려 하였다. 그때 황자는 자조황녀를 데리고 이세신궁(伊勢神宮 ; 이세노카무미야)에 들어가려고 말을 달렸다[128]. 천황은 준별황자가 도주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길비품지부웅즉(吉備品遲部雄鯽 ; 키비노호무치베노오후나)[129]과 파마좌백직아아능호(播磨佐伯直阿俄能胡 ; 하리마노사헤키노아타히아가노코)[130]를 파견하여 "쫓아가 붙잡는 즉시 죽여라."라고 하였다. 이에 황후[131]가 "자조황녀는 실로 중한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죽이는 날에 황녀의 몸이 드러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웅즉 등에게 "황녀가 지니고 있는 족옥이나 수옥[132]을 빼앗지 말라."고 명하였다. 웅즉 등은 쫓아서 토전(菟田 ; 우다)[133]에 이르고, 소이산(素珥山 ; 소니노야마)[134]에 들이닥쳤다. 그때는 풀 속에 숨어서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이후 급히 도망쳐 산을 넘었다. 이에 황자가 노래하였다.

사다리를 세워 놓은 듯 험한 산이라도 나와 처 두 사람이 함께 넘으면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구나.

---

128 『日本書紀通釋』에서는 古俗에 神地로 도망하여 형벌을 면하려하는 일이 자주 보인다고 적고 있다.

129 吉備品遲部는 『和名類聚抄』에서는 「吉備國品治郡」, 『선대구사본기』 國造本紀에서는 「吉備品治國造.」라고 적고 있다.

130 播磨佐伯直은 播磨國의 佐伯部를 관장하는 伴造이다.

131 팔전황후를 가리킨다.

132 『古事記』에는 玉釧(옥으로 장식한 팔찌)이라 적고 있다.

133 大和國 宇陀郡은 현재 奈良縣 宇陀市에 해당된다.

134 素珥山은 현재 奈良縣 宇陀郡 實生村 동쪽의 曾爾(소니)村山에 해당된다. 『古事記』에서는 速總別王과 女島王 두 사람이 여기에서 잡혀서 죽었다고 적고 있다.

이에 웅즉 등이 피한 것을 알고 급히 이세의 장대야(蔣代野 ; 코모시로노노)[135]로 쫓아가서 죽였다. 그때 웅즉 등이 황녀의 옥을 찾았는데, 치마 속에서 얻었다. 곧 두 왕의 시신을 여저하(廬杵河 ; 이호키가하)[136] 근처에 묻고 복명하였다. 황후는 웅즉 등에게 "황녀의 옥을 보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 해에 신상(新嘗)의 달에 연회가 열렸을 때 내외명부(內外命婦)[137] 등에게 술을 내렸다. 근강산군치수산(近江山君稚守山 ; 오후미노야마노키미와카모리야마)[138]의 처와 채녀(采女)[139]반판원(磐坂媛 ; 이하사카히메)[140], 이 두 여인이 손에 좋은 옥을 차고 있었다. 황후가 그 옥을 보고 자조황녀의 옥과 매우 비슷하다고 여겼다. 곧 의심을 품고 유사에게 명하여 그 옥을 얻은 연유를 묻게 하였다. 그러자 "좌백직아아능호 처의 옥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아아능호를 취조하였다. 그는 "황녀를 주살하던 날 찾아내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리하여 곧바로 아아능호를 죽이려 하였으나, 아아능호가 자신의 땅을 바치고 죽음을 면해주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그 땅을 받아들이고 죽을 죄를 용서하였다. 이 때문에 그 땅을 옥대(玉代 ; 타마테)[141]라고 부른다.

---

135 『日本書紀』 履中天皇 원년 4월조에 나오는 倭蒋代屯倉은 倭(야마토)이므로 이 기사와는 다른 곳이다.

136 廬杵는 三重縣 一志郡 雲出川의 언덕에 있는 家城(이에키)町으로 비정되고 있다. 廬杵河(현재 雲出川)는 三重縣 一志郡을 남서에서 북동방향으로 흘러 伊勢灣으로 들어간다.

137 『令義解』 職員令 中務省條에서는 五位以上의 女官을 內命婦라 하고, 5위 이상 官人의 처를 外命婦라고 적고 있다.

138 近江山君은 근강의 山部를 관장하는 씨족이다. 『古事記』에서는 山部大楯連의 배하에 소속되어 준별황자의 토벌에 가담하였다고 적혀 있다.

139 『養老令』 後宮職員令 氏女采女條에는 郡의 少領 이상의 자매 내지 딸 중에서 용모가 단정한 자를 선발하여 後宮에 봉사하게 하였다고 적고 있다.

140 磐坂은 大和國 城上郡 磐坂村, 현재 奈良縣 櫻井市 巖坂에 비정되는 지역이다. 지명에서 유래한 인명이다.

41년 봄 3월에 기각숙녜(紀角宿禰 ; 키노츠노노스쿠네)[142]를 백제에 파견하여 처음으로 국군(國郡)의 경계를 나누고, 각 지역에서 나는 것을 상세히 기록하게 하였다[143]. 그때 백제의 왕족 주군(酒君 ; 사케노키미)[144]이 무례하였다[145]. 이 때문에 기각숙녜가 백제의 왕을 책망하였다. 그때 백제의 왕이 두려워하여 쇠사슬로 주군을 묶어서 습진언(襲津彦 ; 소츠비고)[146]에게 딸려서 바쳤다. 이에 주군이 와서 석천금직수허려사(石川錦織首許呂斯 ; 이시카하노니시코리노오비토코로시)[147]의 집으로 도망가 숨었다. 그리고 거짓으로 "천황께서 이미 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너에게 의지하여 살고자 한다."라고 말하였다. 오래 지난

---

141 관련 지명은 大和國 葛上郡 玉手丘(현재 奈良縣 御所市)와 河內國 安宿郡(현재 大阪府 羽曳野市) 玉手山, 玉手村에 모두 존재한다.

142 기각숙녜는 실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승상의 존재로 간주된다. 『古事記』 孝元天皇段에는 「此建內宿禰之子. 幷九男七女二…次木角宿禰者, 木臣, 都奴臣, 坂本臣之祖.」로, 『新撰姓氏錄』 左京皇別 紀朝臣條에는 「石川朝臣同祖. 建內宿禰男紀角宿禰之後也.」라고 적혀 있다. 『日本書紀』 응신천황 3년 시세조 紀角宿禰 참조.

143 '처음으로~모두 기록하였다'라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하나는 『日本書紀』 孝德天皇 大化 원년 7월조에 보이는 詔에 기초하여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덕천황 41년조(『日本書紀』 기년으로는 353년)가 근초고왕 8년(353)에 해당되므로 본문 기사를 백제의 檐魯制 시행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로 활용하거나, 『日本書紀』의 신공황후부터 웅략천황 이전까지는 2주갑을 내려 보아야 한다는 통설에 따라 473년(개로왕 19년)으로 수정해 蓋鹵王代에 지방 통치 조직의 편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144 『新撰姓氏錄』右京 諸蕃下 「刑部」조, 和泉諸蕃 「百濟公」조, 同「六人部連」조에 「出自百濟國酒王也」라는 기록이 있어, 酒君을 선조로 하는 후예씨족이 확인된다.

145 『日本書紀』 응신천황 25년조 無禮 참조.

146 仁德天皇 이후 仁賢天皇에 이르기까지 安康天皇을 제외하고 모두 葛城氏를 妃 혹은 母로 삼고 있다. 『日本書紀』 신공황후섭정 3년 정월조 葛城襲津彦 참조.

147 『住吉大社神代記』에는 「石川錦織許呂志.」라는 인명이 보이며, 『和名類聚抄』에는 「河內國石川郡, 以之加波」라 적고 있다. 현재 大阪府 南河內郡 太子町, 河南町 千早赤阪村, 羽曳野市의 일부, 富田千市의 동부 지역에 해당된다. 석천씨는 蘇我氏 일족이라는 설과, 河內의 石川郡을 본거로 하는 백제계 씨족이라는 설이 있다.

뒤에 천황이 드디어 그 죄를 용서하였다.

43년 가을 9월 경자삭(1일)에 의망둔창(依網屯倉)[148]의 아미고(阿弭古 ; 아비코)[149]가 기이한 새를 잡아 천황에게 바치며 "신이 늘 그물을 쳐서 새를 잡아왔지만, 이러한 새는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기이하여 바칩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주군을 불러 새를 보이며 "이것이 무슨 새인가?"라고 물었다. 주군이 "이런 새는 백제에 많이 있습니다. 길들이면 사람을 잘 따릅니다. 또한 빨리 날아서 여러 가지 새를 잡습니다. 백제인들은 이 새를 구지(倶知)[150]라고 부릅니다[지금의 매이다.]."라고 답하였다[151]. 이에 주군에게 주어 사육하게 하였다. 이후 얼마 안 되어 길들일 수 있었다. 곧 주군이 가죽 끈을 새의 다리에 매고, 작은 방울을 꼬리에 달아 팔뚝 위에 앉혀서 천황에게 바쳤다. 이 날에 백설조야(百舌鳥野 ; 모즈노)[152]에 행차하여 사냥하였다. 그때 암꿩이 많이 날아올라 매를 놓아 잡게 하였다. 그러자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꿩을 잡았다. 이 달에 처음으로 응감부(鷹甘部)[153]를 정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매 기르는 곳을 응감읍(鷹甘邑 ; 타카카히노무라)[154]이라 칭하였다.

---

148 依網은 현재 大阪市 東住吉區 我孫子町과 庭井町에서 大和川의 對岸 松原市 天善町 일대에 걸친 지역이다. 『日本書紀』 숭신천황 62년 10월조의 依網池 참조.

149 阿弭古는 원시적인 姓(가바네)으로 이해되고 있다. 阿比古, 阿毘古, 我孫이라고도 쓴다.

150 『和名類聚抄』에는 「鷙, 和名太加(다카). 今案, 古語云倶知(구치).」라고 적고 있다.

151 『삼국사기』 백제본기 阿莘王 원년조(392)와 毗有王 8년(434) 2월조, 8년 9월조에 의거하면 阿莘王代(392~405) 이전에 매사냥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2 和泉國 大鳥郡이다. 현재 大阪府 堺市의 中百舌鳥町에서 濱寺石津町에 걸친 지역이다.

153 매를 사육하고 매사냥에 종사하는 특수기술자 집단이다. 매를 사육하는 호를 '鷹戶'라 하는데, 『令集解』에 인용된 『古記』에서는 '大和, 河內, 攝津에 鷹養戶 17호가 있었다.'고 적고 있다.

154 『攝津志』에서는 「鷹飼部第宅古蹟在鷹合村, 又有鷹甘部墓, 今稱平塚.」이라 적고 있다. 鷹甘邑(鷹合村)은 현재 大阪市 東住吉區 鷹合町에 해당된다.

50년 봄 3월 임진삭 병신(5일)에 하내(河內 ; 카후치) 사람이 "자전제에서 기러기가 새끼를 낳았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그날 사람을 보내 살펴보게 하였다. 그는 "정말 사실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노래하며 무내숙네에게 물었다.

조정에 봉사하는 무내숙네여! 그대야말로 이 세상의 장수인. 그대야말로 나라 안의 최고 장수인! 왜국에서 기러기가 새끼를 낳는다는 말을 그대는 들어 보았는가!

무내숙네가 노래하며 답하였다.

대군이 제게 물으심은 지당하지만, 왜국에서 기러기가 새끼를 낳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네.

53년에 신라가 조공하지 않았다.

여름 5월에 상모야군(上毛野君 ; 카미츠케노노키미)[155]의 선조 죽엽뢰(竹葉瀨 ; 타카하세)[156]를 파견하여 조공하지 않은 까닭을 묻게 하였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흰 사슴을 잡아, 곧바로 돌아와서 천황에게 바쳤다. 이윽고 다시 날을 잡아 길을 떠났다. 얼마 후에 또 죽엽뢰의 아우 전도(田道 ; 타지)[157]를 파견했다. "만일

155 上毛野氏는 『日本書紀』에 의하면 崇神天皇의 황자로, 豐城命(豐城入彦命)의 후예이다. 『日本書紀』 숭신천황 48년 4월조 上毛野君 참조.

156 『新撰姓氏錄』 左京皇別 上毛野朝臣條에는 「豐城入彦命五世孫多奇波世君之後也.」, 『弘仁私記』 序에는 「田邊史, 上毛野公…大鷦鷯天皇御宇之時, 自百濟國化來而言, 己等祖是貴國將軍上毛野公竹合也者, 天皇矜憐混彼族訖.」이라고 적고 있다. 多奇波世(다카하세)와 竹合(다카하세)은 竹葉瀨를 가리킨다.

157 『新撰姓氏錄』 河內皇別 止美連條에는 「尋來津公同祖, 豐城入彦命後也, 四世孫荒田別命男, 田道公被遣百濟國, 娶止美邑吳女, 生男持君, 三世孫熊次, 新羅等, 欽明天皇御世參來.」라고 적고 있다. 전도는 55년에 전개된 에미시 정토 중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신라가 막으면 군사를 일으켜 치라."고 명하고 정병을 주었다. 이에 신라가 군사를 일으켜 막았다. 이때 신라인이 나날이 싸움을 걸었다. 전도는 요새를 굳게 하며 나아가지 않았다. 때마침 신라의 군졸 하나가 병영 밖으로 나왔다. 곧 사로 잡아 그 상황을 물었다. "백충(百衝 ; 모모츠키)[158]이라는 힘센 자가 있습니다. 가볍고 민첩하며 용맹합니다. 항상 군의 우측 선봉에 섭니다. 그러므로 살펴보고 있다가 좌측을 치면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때 신라는 왼쪽을 비워놓고 오른쪽을 방비하고 있었다. 전도는 날랜 기병으로 하여금 왼쪽을 계속 공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신라군이 무너지자, 그 틈을 타 군사를 풀어 수백 명의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4읍[159]의 백성을 사로잡아 돌아왔다[160].

55년에 하이(蝦夷 ; 에미시)[161]가 이반하였다. 그리하여 전도를 보내 치게 하였다. 그러나 하이에게 패하여 이치수문(伊峙水門 ; 이시노미토)[162]에서 죽었다. 이때 시종이 전도가 차고 있던 팔찌를 가져다 그의 처에게 주었다. 부인은 팔찌를 가슴에 안고 목을 매어 죽었다. 당시 사람들이 이를 듣고 슬퍼하였다. 그 후에 하이가 또 습격해 백성을 약탈하였다. 이에 전도의 묘를 팠다. 그랬더니 큰 뱀이 눈을 부라리며 묘에서 나와 물었다. 하이는 뱀의 독으로 인하여 많이 죽었다. 단지 한두 사람이 죽음을 면하였을 뿐이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도는 죽었지만 끝내 원수를 갚았다. 어찌하여 죽은 사람이 지각이

158 여기에만 보인다.

159 『日本書紀』에는 '4邑, 4縣, 4村' 등 4를 단위로 한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160 『古事記』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161 蝦夷는 '에미시' 혹은 '에비스'라 칭한다. 古代 일본열도 北東部 지역에 거주하며 통일국가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그 지배권 밖에 존재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162 上總國 夷灊郡 伊志美(이시미 ; 현재 千葉縣 夷隅郡, 勝浦市 지역)라고 보는 설과 陸奧國 牧鹿郡 石卷(이시노마키 ; 현재 宮城縣 石卷市)으로 보는 설이 있다.

없다 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58년 여름 5월에 황릉(荒陵 ; 아라하카)[163]의 소나무 숲 남쪽 길에 갑자기 두 그루의 상수리나무가 뿌리를 내렸다. 길을 사이에 두고 끝이 연결되어 있었다[164].

겨울 10월에 오국(吳國)[165]과 고구려가 나란히 조공하였다[166].

60년 겨울 10월에 백조릉(白鳥陵 ; 시로토리노미사자키)[167]의 능지기[168]들을 차출하여 역정(役丁)[169]으로 충당하였다. 이때 천황이 친히 노역하는 곳에 행차하였다. 그러자 능지기 목저(目杵 ; 메키)[170]가 갑자기 흰 사슴으로 변하여 달아났다. 이에 천황이 "이 능은 본래 비어 있었다[171]. 그래서 능지기를 폐하려고 생각하고

---

163 攝津國 西成郡 安良鄕이라는 설과 大阪市 사천왕사의 서남에 있는 茶磨山이라는 설이 있다.

164 '木連理'를 祥瑞로 간주하는 중국사상에 의거한 내용이다.

165 應神紀부터 齊明紀에 걸쳐 '吳'가 나온다. 고대 일본에서 사용된 吳의 용례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중국의 장강 하류 지역을 가리키거나 중국 전체를 吳라고 칭한다는 견해이다. 둘째, 吳는 본래 가야 지역의 '久禮'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실제로는 한반도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라 보는 것이다. 셋째, 『日本書紀』에 등장하는 吳를 고구려를 매개로 등장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흠명기와 추고기에 보이는 백제를 매개로 한 오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日本書紀』 찬자의 吳國觀을 읽어내는 연구가 있다.

166 『宋書』 文帝紀의 元嘉 7년(430) 正月條에는 「倭國王遣使獻方物.」이란 기사가 보인다. 원가 7년이 庚午年이고 인덕천황 58년도 경오년이므로, 『日本書紀』 편자가 이 시기 정도에 吳國의 조공 기사를 비정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167 백조릉은 현재 大阪府 羽曳野市 輕里에 있다.

168 陵守는 천황과 황족의 능묘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킨다. 『令集解』 諸陵司條에서는 「諸陵及陵戶名籍事[古記云. 別記云. 常陵守及墓守. 幷八十四戶.]」라고 적고 있어, 『古記』에 인용된 別記에 따르면 陵戶를 陵守로도 칭했음을 알 수 있다.

169 役丁은 歲役(庸), 雜徭 등의 역에 징발되는 남자를 의미한다.

170 여기에만 보인다.

처음 역정으로 차출한 것이다. 지금 이 괴이함을 보니 매우 두렵구나. 능지기를 그대로 두어라."고 하였다. 곧 다시 토사련(土師連 ; 하지노무라지)[172]들에게 관장하게 하였다.

62년 여름 5월에 원강국사(遠江國司)[173]가 표를 올려 "큰 나무가 대정하(大井河 ; 오호웨가하)[174]에서부터 흘러내려 와서 강 구비에 멈추었습니다. 그 크기가 열 아름이나 됩니다. 뿌리는 하나인데 줄기는 둘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왜직오자롱(倭直吾子籠 ; 야마토노아타히아고코)을 파견하여 배를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남해로부터 운반하여 난파진(難波津 ; 나니하노츠)[175]으로 가져와 천황의 배로 삼았다.

이 해에 액전대중언황자[176]가 투계(鬪鷄 ; 츠케)[177]에서 사냥하였다. 그때 황자가 산 위에서 들을 내려다보니 물건이 있었다. 그 형상이 초막과 같았다. 이에 사신을 파견하여 자세히 살펴보게 하였다. 사신은 돌아와서 "굴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투계도치대산주(鬪鷄稻置大山主 ; 츠케노이나키오호야마누시)를 불러 "저 들 가운데 있는 것은 무슨 굴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빙실(氷室)

---

171 『日本書紀』 경행천황 40년 시세조에는 '日本武尊의 영혼이 백조가 되어 날아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172 土師連은 葬事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73 『日本書紀』에서 처음 國司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遠江國司는 율령에 의거한 표현이다.

174 遠江과 駿河의 경계를 흐르는 현재의 大井川을 가리킨다.

175 難波港은 인덕천황 30년 9월조 등에도 보이지만, 難波津은 처음 보인다. 소재지는 현재 大阪市 中央區 心齋橋筋 부근이라는 설과 同 高麗橋 부근이라는 설이 있다.

176 응신천황과 高城入姬 사이에서 태어난 황자이다.

177 『和名類聚抄』의 大和國 山邊郡 都介(츠게)鄕이다. 현재 奈良縣 山邊郡 都祁(쓰게)村을 중심으로 하며 동쪽으로는 伊賀國境, 서쪽으로는 天理市 福住町 부근에 해당된다.

입니다[178]."라고 하였다. 황자는 "그 저장 상태는 어떠하며, 무엇에 쓰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땅을 1장[179] 남짓 파고 풀을 그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두텁게 띠와 갈대를 깔고 얼음을 가져다 그 위에 놓습니다. 그러면 여름이 지나도 녹지 않습니다. 그 용도는 더운 때가 되면 술을 차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황자는 곧 그 얼음을 가지고 와서 천황에게 바쳤다. 천황은 기뻐하였다. 이후 겨울이 될 때마다 반드시 얼음을 저장하였다. 춘분이 되면 비로소 얼음을 나누어 주었다[180].

65년에 비탄국(飛驒國 ; 히다노쿠니)에 숙나(宿儺 ; 스쿠나)[181]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몸이 하나인데 얼굴이 둘이었다. 얼굴은 각기 서로 등을 지고 있었으며, 정수리가 합쳐져 목덜미가 없었다. 그리고 각각 손발이 있었고, 무릎은 있는데 오금과 발뒤꿈치는 없었다. 또한 힘이 세고 민첩하여 좌우에 칼을 차고 네 손으로 활과 화살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황명에 따르지 않으며 백성을 약탈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이에 화이신의 선조 난파근자무진웅(難波根子武振熊 ; 나니하노네코타케후루쿠마)[182]을 파견하여 죽였다[183].

67년 겨울 10월 경진삭 갑신(5일)에 하내의 석진원(石津原 ; 이시츠노하라)[184]

---

178 빙실은 諸國에 있었지만, 『延喜式』 主水司式에서는 「大和國山邊郡都介一所.」라고 적고 있다. 이에 따르면 都介에 빙실이 한 곳 있으므로 이 설화와 합치된다. 長野王邸에서 발굴된 출토목간에는 장야왕이 都祁에 氷屋을 두 군데 두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179 丈은 길이의 단위로, 1장은 한 자(尺)의 열 배로 약 3m에 해당된다.

180 鬪鷄의 빙실 기원설화는 『古事記』에는 보이지 않는다.

181 여기에만 보인다.

182 『日本書紀』 신공황후섭정 원년 3월조에 和珥臣의 선조 武振熊이 忍熊王을 토벌한 이야기가 보인다.

183 飛驒國의 宿儺라는 괴물을 和珥臣이 퇴치하는 이야기인데, 『古事記』에는 보이지 않는다.

에 행차하여 능지를 정하였다. 정유(18일)에 처음으로 능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날 사슴이 들판에서 갑자기 달려와 역민(役民)들 속으로 들어오더니 쓰러져 죽었다. 그때 갑자기 죽은 것을 괴이하게 여기고 상처를 찾았다. 그랬더니 귀에서 때까치[185]가 나와 날아갔다. 그리하여 귓속을 보니 모두 먹히고 할퀴어 벗겨져 있었다. 이곳을 백설조이원(百舌鳥耳原 ; 모즈노미하라)이라 부르는 것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이 해에 길비중국(吉備中國 ; 키비노미치노나카노쿠니)[186] 천도하(川島河 ; 카하시마가하)[187]의 물길이 갈라지는 곳에 용[188]이 있어 사람을 괴롭혔다. 그리하여 길 가던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 독에 당하여 많이 죽었다. 입신(笠臣 ; 카사노오미)[189]의 선조 현수(縣守 ; 아가타모리)[190]는 용감하고 힘이 세었다. 그는 깊은 못에 가서 세 개의 박을 물에 던지며[191] "너는 자주 독을 뿜어 길 가는 사람을 괴롭혔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네가 이 박을 가라앉히면 나는 물러날 것이다. 가라앉히지 못하면 바로 네 몸을 베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용이 사슴으로 변해 박을 끌어

---

184 白舌鳥野와 같은 곳이다. 본조에는 인덕천황의 능호에 관한 기원설화에 해당되는데, 『古事記』에는 보이지 않는다.

185 원문은 百舌鳥(학명 : Lanius bucephalus)이다.

186 吉備國이 전, 중, 후의 3개로 나누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天武朝 초년이라는 설과 천무조 말년 이후 淨御原令制 시기라는 설이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본조에 나온 국명은 이후의 지식에 기초한 표현이다. 藤原宮跡 출토목간에서 '吉備中國下道評'이라는 문자가 발견되었다.

187 『和名類聚抄』에는 備中國 淺口郡이라 적혀 있다. 현재 岡山縣 淺口郡과 倉敷市 玉島地區의 河部川(高梁川)이라 추정하고 있다.

188 원문은 大虵(미츠치)이다. 『和名類聚抄』에서는 「蛟, 美都知(미츠치), 日本紀私記用大虵二子.」라고 적고 있다.

189 입신의 시조는 鴨別로 길비신의 선조 御友別의 동생이다. 『日本書紀』 응신천황 22년 9월조 笠臣 참조.

190 여기에만 보인다.

191 박이 가라앉음을 신의 의지와 연결시킨 설화는 인덕천황 11년 10월조에도 보인다.

당겼으나 박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하여 곧 칼을 빼고 물에 들어가 용을 베었다. 그리고 다시 용의 무리를 찾았다. 깊은 못 바닥에 있는 굴에는 용의 무리가 가득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베었다. 그러자 못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이로 인해 현수연(縣守淵 ; 아가타모리노후치)[192]이라고 불렀다. 그때 괴이한 기운이 나타나고, 배반하는 자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천황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며, 부역과 조세를 가벼이 하고 백성을 관대히 대하고 덕을 펼치며 은혜를 널리 베풀어 곤궁한 자를 구하였다. 그리고 조문과 병문안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부양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정사가 잘 행해졌으며 천하가 태평하였다. 20여 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다.

87년 봄 정월 무자삭 계묘(16일)에 천황이 죽었다(崩)[193].

겨울 10월 계미삭 기축(7일)에 백설조야릉(百舌鳥野陵 ; 모즈노노미사자키)[194]에 장사지냈다.

일본서기 권 제11

---

192 현재 岡山縣 倉敷市 부근으로 추정한다.

193 『古事記』에는 정묘년 8월 15일 죽은(崩)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나이가 83세가 된다. 『水鏡』과 『帝王編年記』 등에는 110세라고 적고 있다. 소위 '倭五王' 가운데 '찬(讚 ; 산)'을 인덕천황의 諱인 '大鷦鷯(오호사자키)'의 '사'음과 통한다고 보고 있지만, 履中天皇의 諱인 '去來穗別(이자호와케)'의 '자'음과 통한다고 보고 履中天皇으로 보기도 한다.

194 『古事記』에는 毛受之耳原(모즈노미미하라)이라 기재되어 있고, 『延喜式』 諸陵式에는 「白舌鳥原中陵[難波高津宮御宇仁德天皇. 在和泉國大鳥郡. 兆域東西八町. 南北八町. 陵戶五烟.].」이라 적혀 있다. 『陵墓要覽』에는 大阪府 堺市 大仙町으로 소재지를 정하였다. 인덕천황릉이라 간주되는 전방후원분의 長軸은 485m, 전방부 전면의 폭은 302m, 높이는 수면에서 전방부가 34m, 후원부가 36m, 三重의 堀을 둘렀으며 총면적 46만 4,000km²이다. 축조에 연 180만(680만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상을 필요로 했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日本書紀 卷第十一

大鷦鷯天皇 仁德天皇

大鷦鷯天皇, 譽田天皇之第四子也. 母曰仲姬命. 五百城入彦皇子之孫也. 天皇幼而聰明叡智. 貌容美麗. 及壯仁寬慈惠. 卌一年春二月, 譽田天皇崩. 時太子菟道稚郎子, 讓位于大鷦鷯尊, 未卽帝位. 仍諮大鷦鷯尊, 夫君天下, 以治萬民者, 蓋之如天, 容之如地. 上有驩心, 以使百姓. 百姓欣然, 天下安矣. 今我也弟之. 且文獻不足. 何敢繼嗣位, 登天業乎. 大王者風姿嶷. 仁孝遠聆, 以齒且長. 足爲天下之君. 其先帝立我爲太子, 豈有能才乎. 唯愛之者也. 亦奉宗廟社稷重事也. 僕之不佞, 不足以稱. 夫昆上而季下, 聖君而愚臣, 古今之常典焉. 願王勿疑, 須卽帝位. 我則爲臣之助耳. 大鷦鷯尊對言, 先皇謂, 皇位者一日之不可空. 故預選明德, 立王爲貳. 祚之以嗣, 授之以民. 崇其寵章, 令聞於國. 我雖不賢, 豈棄先帝之命, 輒從弟王之願乎. 固辭不承, 各相讓之. 是時, 額田大中彦皇子, 將掌倭屯田及屯倉, 而謂其屯田司出雲臣之祖淤宇宿禰曰, 是屯田者, 自本山守地. 是以, 今吾將治矣. 爾之不可掌. 時淤宇宿禰啓于太子[1]. 太子[2]謂之曰, 汝便啓大鷦鷯尊. 於是, 淤宇宿禰啓大鷦鷯尊曰, 臣所任屯田者, 大中彦皇子距不令

1 소학관본에서는 '皇太子'라고 적고 있다.

2 소학관본에서는 '皇太子'라고 적고 있다.

治. 大鷦鷯尊, 問倭直祖麻呂曰, 倭屯田者, 元謂山守地, 是如何. 對言, 臣之不知. 唯臣弟吾子籠知也. 適是時, 吾子籠遣於韓國而未還. 爰大鷦鷯尊, 謂淤宇曰, 爾躬往於韓國, 以喚吾子籠. 其兼日夜而急往. 乃差淡路之海人八十爲水手. 爰淤宇往于韓國, 卽率吾子籠而來之. 因問倭屯田. 對言, 傳聞之, 於纏向玉宮御宇天皇之世, 科太子大足彦尊, 定倭屯田也. 是時, 勅旨, 凡倭屯田者, 每御宇帝皇之屯田也. 其雖帝皇之子, 非御宇者, 不得掌矣. 是謂山守地非之也. 時大鷦鷯尊, 遣吾子籠於額田大中彦皇子, 而令知狀. 大中彦皇子, 更無如何焉. 乃知其惡, 而赦之勿罪. 然後, 大山守皇子, 每恨先帝廢之非立, 而重有是怨. 則謀之曰, 我殺太子, 遂登帝位. 爰大鷦鷯尊, 預聞其謀, 密告太子, 備兵令守. 時太子設兵待之. 大山守皇子, 不知其備兵, 獨領數百兵士, 夜半, 發而行之. 會明, 詣菟道, 將度河. 時太子服布袍取檝櫓, 密接度子, 以載大山守皇子而濟. 至于河中, 誂度子, 蹈船而傾. 於是, 大山守皇子, 墮河而沒. 更浮流之歌曰, 知破挪臂, 于旎能和多利珥, 佐烏刀利珥, 破挪鷄務臂苔辭, 和餓毛胡珥虛務. 然伏兵多起, 不得著岸. 遂沈而死焉. 令求其屍, 泛於考羅濟. 時太子視其屍, 歌之曰, 智破挪臂等, 于旎能和多利珥, 和多利涅珥, 多氐屢, 阿豆瑳由瀰摩由瀰, 伊杞羅牟苔, 虛虛呂破望閉耐, 伊斗羅牟苔, 虛虛呂破望閉耐, 望苔幣破, 杞瀰烏於望臂涅[3], 須慧[4]幣破, 伊暮烏於望比涅, 伊羅那鷄區, 曾虛珥於望比, 伽那志鷄區, 虛虛珥於望臂, 伊杞羅儒層區屢, 阿豆瑳由瀰摩由瀰[5]. 乃葬于那羅山. 旣而興宮室於菟道而居之. 猶由讓位於大鷦鷯尊, 以久不卽皇位. 爰皇位空之, 旣經三載. 時有海人, 齎鮮魚之苞苴, 獻于菟道宮也. 太子令海人曰, 我非天皇, 乃返之令進難波. 大鷦鷯尊亦返, 以令獻菟道. 於是, 海人之苞苴, 鯑於往還. 更返

3 소학관본에서는 '泥'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4 소학관본에서는 '惠'라고 적고 있다.

5 소학관본에서는 '彌'라고 적고 있다.

之, 取他鮮魚而獻焉. 讓如前日. 鮮魚亦鯁. 海人苦於屢還, 乃棄鮮魚而哭. 故諺曰, 有海人耶, 因己物以泣, 其是之緣也. 太子曰, 我知不可奪兄王之志. 豈久生之, 煩天下乎, 乃自死焉. 時大鷦鷯尊, 聞太子薨以驚之, 從難波馳之, 到菟道宮. 爰太子薨之經三日. 時大鷦鷯尊, 摽擗叫哭, 不知所如. 乃解髮跨屍, 以三呼曰, 我弟皇子. 乃應時而活. 自起以居. 爰大鷦鷯尊, 語太子曰, 悲兮, 惜兮. 何所以歟自逝之. 若死者有知, 先帝何謂我乎. 乃太子啓兄王曰, 天命也. 誰能留焉. 若有向天皇之御所, 具奏兄王聖之, 且有讓矣. 然聖王聞我死, 以急馳遠路. 豈得無勞乎, 乃進同母妹八田皇女曰, 雖不足納采, 僅充掖庭之數. 乃且伏棺而薨. 於是, 大鷦鷯尊素服, 爲之發哀, 哭之甚慟. 仍葬於菟道山上.

元年 春正月丁丑朔己卯, 大鷦鷯尊卽天皇位. 尊皇后曰皇太后. 都難波. 是謂高津宮. 卽宮垣室屋弗堊色也. 桷梁柱楹弗藻飾也. 茅茨之蓋弗割齊也. 此不以私曲之故, 留耕績之時者也. 初天皇生日, 木菟入于産殿. 明旦, 譽田天皇, 喚大臣武內宿禰語之曰, 是何瑞也. 大臣對言, 吉祥也. 復當昨日, 臣妻産時, 鷦鷯入于産屋. 是亦異焉. 爰天皇曰, 今朕之子與大臣之子, 同日共産. 並有瑞. 是天之表焉. 以爲, 取其鳥名, 各相易名子, 爲後葉之契也. 則取鷦鷯名, 以名太子, 曰大鷦鷯皇子. 取木菟名, 號大臣之子, 曰木菟宿禰. 是平群臣之始祖也.

是年也, 太歲癸酉.

二年 春三月辛未朔戊寅, 立磐之媛命爲皇后. 皇后生大兄去來穗別天皇·住吉仲皇子·瑞齒別天皇·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 又妃日向髮長媛, 生大草香皇子·幡梭皇女.

四年 春二月己未朔甲子, 詔群臣曰, 朕登高臺, 以遠望之, 烟氣不起於域中. 以爲, 百姓旣貧, 而家無炊者. 朕聞, 古聖王之世, 人人誦詠德之音, 每家有康哉

之歌. 今朕臨億兆, 於玆三年. 頌音不聆. 炊烟轉疎. 卽知, 五穀不登, 百姓窮乏也. 邦畿之內, 尙有不給者. 況乎畿外諸國耶.

三月己丑朔己酉, 詔曰, 自今以後, 至于三年[6], 悉除課役, 以息百姓之苦. 是日始之, 黼衣絓履, 不弊盡不更爲也. 溫飯煖羹, 不酸餒不易也. 削心約志, 以從事乎無爲. 是以, 宮垣崩而不造, 茅茨壞以不葺. 風雨入隙, 而沾衣被. 星辰漏壞, 而露床蓐. 是後, 風雨順時, 五穀豐穰. 三稔之間, 百姓富寬. 頌德旣滿, 炊烟亦繁.

七年 夏四月辛未朔, 天皇居臺上, 而遠望之, 烟氣多起. 是日, 語皇后曰, 朕旣富矣. 更無愁焉. 皇后對諮, 何謂富矣. 天皇曰, 烟氣滿國. 百姓自富歟. 皇后且言, 宮垣壞而不得脩. 殿屋破之衣被露. 何謂富乎. 天皇曰, 其天之立君, 是爲百姓. 然則君以百姓爲本. 是以, 古聖王者, 一人飢寒, 顧之責身. 今百姓貧之, 則朕貧也. 百姓富之, 則朕富也. 未之有, 百姓富之君貧矣.

秋八月己巳朔丁丑, 爲大兄去來穗別皇子, 定壬生部. 亦爲皇后, 定葛城部.

九月, 諸國悉請之曰, 課役並免, 旣經三年. 因此, 以宮殿朽壞, 府庫已空. 今黔首富饒, 而不拾遺. 是以, 里無鰥寡, 家有余儲. 若當此時, 非貢稅調, 以脩理宮室者, 懼之, 其獲罪于天乎. 然猶忍之不聽矣.

十年 冬十月, 甫科課役, 以構造宮室. 於是, 百姓之不領, 而扶老携幼, 運材負簣. 不問日夜, 竭力競[7]作. 是以, 未經幾時, 而宮室悉成. 故於今稱聖帝也.

十一年 夏四月戊寅朔甲午, 詔群臣曰, 今朕視是國者, 郊澤曠遠, 而田圃少

---

6 소학관본에서는 '載'라고 적고 있다

7 소학관본에서는 '爭'이라고 적고 있다

乏. 且河水橫逝, 以流末不駃. 聊逢霖雨, 海潮逆上, 而巷里乘船, 道路亦泥. 故群臣共視之, 決橫源而通海, 塞逆流以全田宅.

冬十月, 掘宮北之郊原, 引南水以入西海. 因以號其水曰堀江. 又將防北河之澇, 以築茨田堤. 是時, 有兩處之築而乃壞之難塞. 時天皇夢, 有神誨之曰, 武藏人强頸·河內人茨田連衫子[衫子, 此云莒呂母能古.]二人, 以祭於河伯, 必獲塞. 則覓二人而得之. 因以, 禱于河神. 爰强頸泣悲之, 沒水而死. 乃其堤成焉. 唯衫子取全匏兩箇, 臨于難塞水. 乃取兩箇匏, 投於水中, 請之曰, 河神祟之, 以吾爲幣. 是以, 今吾來也. 必欲得我者, 沈是匏而不令泛. 則吾知眞神, 親入水中. 若不得沈匏者, 自知僞神. 何徒亡吾身. 於是, 飄風忽起, 引匏沒水. 匏轉浪上而不沈. 則滔滔汎以遠流. 是以, 衫子雖不死, 而其堤亦成也. 是因衫子之幹, 其身非亡耳. 故時人號其兩處, 曰强頸斷間·衫子斷間也.

是歲, 新羅人朝貢. 則勞於是役.

十二年 秋七月辛未朔癸酉, 高麗國貢鐵盾·鐵的.

八月庚子朔己酉, 饗高麗客於朝. 是日, 集群臣及百寮, 令射高麗所獻之鐵盾的. 諸人不得射通的. 唯的臣祖盾人宿禰, 射鐵的而[8]通焉. 時高麗客等見之, 畏其射之勝工[9], 共起以拜朝. 明日, 美盾人宿禰, 而賜名曰的戶田宿禰. 同日, 小泊瀨造祖宿禰臣, 賜名曰賢遺臣[10][賢遺, 此云左舸能莒里].

冬十月, 掘大溝於山背栗隈縣以潤田. 是以, 其百姓每年豐之[11].

十三年 秋九月, 始立茨田屯倉. 因定春米部.

---

8 소학관본에는 '而'자가 없다.

9 소학관본에서는 '巧'라고 적고 있다.

10 소학관본에는 '臣' 뒤에 '也'자가 첨가되어 있다.

11 소학관본에는 '豐之'를 '豐年也'라 한다.

冬十月, 造和珥池. 是月, 築横野堤.

十四年 冬十一月, 爲橋於猪甘津. 卽號其處, 曰小橋也.

是歲, 作大道於京中. 自南門直指之, 至丹比邑. 又掘大溝於感玖. 乃引石河水, 而潤上鈴鹿·下鈴鹿·上豐浦·下豐浦, 四處郊原, 以墾之得四萬余頃之田. 故其處百姓, 寬饒之無凶年之患.

十六年 秋七月戊寅朔, 天皇以宮人桑田玖賀媛, 示近習舍人等曰, 朕欲愛是婦女, 苦皇后之妬, 不能合, 以經多年. 何徒妨[12]其盛年乎. 仍以歌問之曰[13], 瀰儺曾虛赴, 於瀰能烏苔咩烏, 多例揶始儺播務. 於是, 播磨國造祖速待, 獨進之歌曰, 瀰箇始報, 破利摩波揶摩智, 以播區娜輸, 伽之古俱等望, 阿例揶始儺破務. 卽日, 以玖賀媛賜速待. 明日之夕, 速待詣于玖賀媛之家. 而玖賀媛不和. 乃强近帷內. 時玖賀媛曰, 妾之寡婦以終年. 何能爲君之妻乎. 於是, 天皇[14]欲遂速待之志, 以玖賀媛, 副速待, 送遣於桑田. 則玖賀媛, 發病死于道中. 故於今有玖賀媛之墓也.

十七年 新羅不朝貢.

秋九月, 遣的臣祖砥田宿禰·小泊瀨造祖賢遣臣, 而問闕貢之事. 於是, 新羅人懼之乃貢獻. 調絹一千四百六十匹[15], 及種種雜物, 幷八十艘.

廿二年 春正月, 天皇語皇后曰, 納八田皇女將爲妃. 時皇后不聽. 爰天皇歌,

---

12 소학관본에서는 '棄'라고 적고 있다.

13 소학관본에서는 '仍以歌問之曰'은 '卽歌曰'이라고 적고 있다.

14 소학관본에는 '天皇' 뒤에 '聞之' 두 자가 첨가되어 있다.

15 소학관본에서는 '疋'이라고 적고 있다.

以乞於皇后曰，于磨臂苔能，多菟屢虛等太氐，于磋由豆流，多曳[16]麽[17]菟餓務珥，奈羅陪氐毛餓望．皇后答歌曰，虛呂望虛曾，赴多幣茂豫耆，瑳用迺虛烏，那羅陪務耆瀰破，介[18]辭古耆呂介茂．天皇又歌曰，於辭氐屢，那珥破能瑳耆能，那羅弭破莽，那羅陪務苔虛層，曾能古破阿利鷄梅．皇后答歌曰，那菟務始能，譬務始能虛呂望，赴多幣耆氐，介區瀰夜儀利破，阿珥豫[19]區望阿羅儒．天皇又歌曰，阿佐豆磨能，避介能烏瑳介烏，介多那耆珥，瀰致喩區茂能茂，多遇[20]譬氐序豫枳．皇后遂謂不聽，故默之亦不答言．

卅年 秋九月乙卯朔乙丑，皇后遊行紀國，到熊野岬，卽取其處之御綱葉[葉，此云箇始婆]而還．於是[21]，天皇伺皇后不在，而娶八田皇女，納於宮中．時皇后到難波濟，聞天皇合八田皇女，而大恨之．則其所採御綱葉投於海，而不著岸．故時人號散葉之海，曰葉濟也．爰天皇不知皇后忿不著岸．親幸大津，待皇后之船．而歌曰，那珥波譬苔，須儒赴泥苔羅齊，許辭那豆瀰，曾能赴尼苔羅齊，於朋瀰赴泥苔禮．時皇后不泊于大津，更引之泝江，自山背廻而向倭．明日，天皇遣舍人鳥山，令還皇后．乃歌之曰，夜莽之呂珥，伊辭鷄苔利夜莽，伊辭鷄之鷄，阿餓茂赴菟磨珥，伊辭枳阿波牟伽茂．皇后不還猶行之．至山背河而歌曰，菟藝泥赴，揶莽之呂餓波烏，箇破能朋利，涴餓能朋例麽，箇波區莽珥，多知瑳介喩屢，毛毛多羅儒，揶素麽能紀破，於朋耆瀰呂介茂．卽越那羅山，望葛城歌之曰，菟藝泥赴，揶莽之呂餓波烏，瀰揶能朋利，和餓能朋例麽，阿烏珥豫辭，儺羅烏輸疑，

16 소학관본에서는 '由'라고 적고 있다.
17 소학관본에서는 '磨'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18 소학관본에서는 '箇'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19 소학관본에서는 '予'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20 소학관본에서는 '愚'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21 소학관본에서는 '是' 아래에 '日'자가 첨가되어 있다.

烏陀氐, 夜莽苔烏輸疑, 和餓瀰餓朋辭區珥波, 箇豆羅紀多伽瀰揶, 和藝幣能阿多利. 更還山背, 興宮室於筒城岡南而居之.

冬十月甲申朔, 遣的臣祖口持臣喚皇后[一云, 和珥臣祖口子臣.] 爰口持臣, 至筒城宮, 雖謁皇后, 而黙之不答. 時口持臣, 沾雪雨, 以經日夜, 伏于皇后殿前而不避. 於是, 口持臣之妹國依媛, 仕于皇后. 適是時, 侍皇后之側. 見其兄沾雨, 而流涕之歌曰, 揶莽辭呂能, 菟菟紀能瀰揶珥, 茂能莽烏輸, 和餓齊烏瀰例麼, 那瀰多遇摩辭茂. 時皇后謂國依媛曰, 何爾泣之. 對言, 今伏庭請謁者, 妾兄也. 沾雨不避. 猶伏將謁. 是以, 泣悲耳. 時皇后謂之曰, 告汝兄令速還. 吾遂不返焉. 口持則返之, 復奏于天皇.

十一月甲寅朔庚申, 天皇浮江幸山背. 時桑枝沿水而流之. 天皇視桑枝歌之曰, 菟怒瑳破赴, 以破能臂謎餓, 飫朋呂伽珥, 枳許瑳怒, 于羅遇破能紀, 豫屢麻志士枳, 箇破能區莽愚莽, 豫呂朋譬喩玖伽茂, 于羅愚破能紀. 明日, 乘輿詣于筒城宮, 喚皇后. 皇后不肯參見. 時天皇歌曰, 菟藝泥赴, 揶摩之呂謎能, 許久波茂知, 于智辭於朋泥, 佐和佐和珥, 儺餓伊幣齊虛曾, 于知和多須, 椰餓波曳儺須, 企以利摩韋區例. 亦歌曰, 菟藝泥赴, 夜莽之呂謎能, 許玖波茂知, 于智辭於朋泥, 泥士漏, 辭漏多娜武枳, 摩箇儒鷄麼虛曾, 辭羅儒等茂伊波梅. 時皇后令奏言, 陛下納八田皇女爲妃. 其不欲副皇女而爲后, 遂不奉見. 乃車駕還宮. 天皇, 於是, 恨皇后大忿. 而猶有戀思.

卅一年 春正月癸丑朔丁卯, 立大兄去來穗別尊, 爲皇太子.

卅五年 夏六月, 皇后磐之媛命, 薨於筒城宮.

卅七年 冬十一月甲戌朔乙酉, 葬皇后於乃羅山.

卅八年 春正月癸酉朔戊寅, 立八田皇女爲皇后.

秋七月, 天皇與皇后, 居高臺而避暑. 時每夜, 自菟餓野, 有聞鹿鳴. 其聲寥亮而悲之. 共起可怜[22]之情. 及月盡, 以鹿鳴不聆. 爰天皇語皇后曰, 當是夕, 而鹿不鳴. 其何由焉. 明日, 猪名縣佐伯部獻苞苴. 天皇令膳夫以問曰, 其苞苴何物也. 對言, 牡鹿也. 問之, 何處鹿也. 曰, 菟餓野. 時天皇以爲, 是苞苴者, 必其鳴鹿也. 因語皇后曰, 朕比有懷抱, 聞鹿聲而慰之. 今推佐伯部獲鹿之日夜及山野, 卽當鳴鹿. 其人雖不知朕之愛, 以適逢獮獲, 猶不得已而有恨. 故佐伯部不欲近於皇居. 乃令有司, 移鄉于安藝渟田. 此今渟田佐伯部之祖也. 俗曰, 昔有一人, 往菟餓, 宿于野中. 時二鹿臥傍. 將及鷄鳴, 牡鹿謂牝鹿曰, 吾今夜夢之, 白霜多降之覆吾身. 是何祥焉. 牝鹿答曰, 汝之出行, 必爲人見射而死. 卽以白鹽塗其身, 如霜素之應也. 時宿人心裏異之. 未及昧爽, 有獵人, 以射牡鹿而殺. 是以, 時人諺曰, 鳴牡鹿矣, 隨相夢也.

卅年 春二月, 納雌鳥皇女欲爲妃, 以隼別皇子爲媒. 時隼別皇子密親娶, 而久之不復命. 於是, 天皇不知有夫, 而親臨雌鳥皇女之殿. 時爲皇女織縑女人等歌之曰, 比佐箇多能, 阿梅箇儺麼多, 謎迺利餓, 於瑠箇儺麼多, 波揶步佐和氣能, 瀰於須譬鵝泥. 爰天皇知隼別皇子密婚, 而恨之. 然重皇后之言, 亦敦友于之義, 而忍之勿罪. 俄而隼別皇子, 枕皇女之膝以臥. 乃語之曰, 孰捷鷦鷯與隼焉. 曰, 隼捷也. 乃皇子曰, 是我所先也. 天皇聞是言, 更亦起恨. 時隼別皇子之舍人等歌曰, 破夜步佐波, 阿梅珥能朋利, 等弭箇慨梨, 伊菟岐餓宇倍能, 娑奘岐等羅佐泥. 天皇聞是歌, 而勃然大怒之曰, 朕以私恨, 不欲失親, 忍之也. 何豈矣私事將及于社稷, 則欲殺隼別皇子. 時皇子率雌鳥皇女, 欲納伊勢神宮而馳. 於是,

22 소학관본에서는 '憐'이라고 적고 있다.

天皇聞隼別皇子逃走, 卽遣吉備品遲部雄鯽·播磨佐伯直阿俄能胡曰, 追之所逮卽殺. 爰皇后奏言, 雌鳥皇女, 寔當重罪. 然其殺之日, 不欲露皇女身. 乃因勅雄鯽等, 莫取皇女所齎之足玉手玉. 雄鯽等追之至菟田, 迫於素珥山. 時隱草中僅得免. 急走而越山. 於是, 皇子歌曰, 破始多氐能, 佐餓始枳揶摩茂, 和藝毛古等, 赴馱利古喩例麼, 揶須武志呂箇茂. 爰雄鯽等知免, 以急追及于伊勢蒋代野而殺之. 時雄鯽等, 探皇女之玉, 自裳中得之. 乃以二王屍, 埋于廬杵河辺, 而復命. 皇后令問雄鯽等曰, 若見皇女之玉乎. 對言, 不見也.

是歲, 當新嘗之月, 以宴會日, 賜酒於內外命婦等. 於是, 近江山君稚守山妻與采女磐坂媛, 二女之手, 有纏良珠. 皇后見其珠, 旣似雌鳥皇女之珠. 則疑之, 命有司, 推[23]問其玉所得之由. 對言, 佐伯直阿俄能胡妻之玉也. 仍推鞫阿俄能胡. 對曰, 誅皇女之日, 探而取之. 卽將殺阿俄能胡. 於是, 阿俄能胡, 乃獻己之私地, 請贖[24]死. 故納其地赦死罪. 是以, 號其地曰玉代.

卅一年 春三月, 遣紀角宿禰於百濟, 始分國郡堺場, 具錄鄕土所出. 是時, 百濟王之族酒君无禮. 由是, 紀角宿禰訶責百濟王. 時百濟王悚[25]之, 以鐵鎖縛酒君, 附襲津彦而進上. 爰酒君來之[26], 則逃匿于石川錦織首許呂斯之家. 則欺之曰, 天皇旣赦臣罪. 故寄汝而活焉. 久之天皇遂赦其罪.

卅三年 秋九月庚子朔, 依網屯倉阿弭古, 捕異鳥, 獻於天皇曰, 臣每張網捕鳥, 未曾得是鳥之類. 故奇而獻之. 天皇召酒君, 示鳥曰, 是何鳥矣. 酒君對言, 此鳥之類, 多在百濟. 得馴而能從人. 亦捷飛之掠諸鳥. 百濟俗號此鳥曰俱

---

23 소학관본에는 없는 글자이다.

24 소학관본에서는 '免'이라고 적고 있다.

25 소학관본에서는 '懼'라고 적고 있다.

26 소학관본에는 없는 글자이다.

知.[是今時鷹也.]乃授酒君令養馴. 未幾時而得馴. 酒君則以韋緡著其足, 以小鈴著其尾, 居腕上, 獻于天皇. 是日, 幸百舌鳥野而遊獵. 時雌雉多起. 乃放鷹令捕. 忽獲數十雉.

是月, 甫定鷹甘部. 故時人號其養鷹之處, 曰鷹甘邑也.

五十年 春三月壬辰朔丙申, 河內人奏言, 於茨田堤鴈産之. 卽日, 遣使令視. 曰, 旣實也. 天皇, 於是, 歌以問武內宿禰曰, 多莽耆破屢, 宇知能阿曾, 儺虛曾破, 豫能等保臂等, 儺虛曾波, 區珥能那餓臂等, 阿耆豆辭莽, 揶莽等能區珥珥, 箇利古武等, 儺波企箇輸揶. 武內宿禰答歌曰, 夜輸瀰始之, 和我於朋枳瀰波, 于陪儺于陪儺, 和例烏斗波輸儺, 阿企菟辭摩, 揶莽等能俱珥珥, 箇利古武等, 和例破枳箇儒.

五十三年 新羅不朝貢.

夏五月, 遣上毛野君祖竹葉瀨, 令問其闕貢. 是道路之間獲白鹿. 乃還之獻于天皇. 更改日而行. 俄且重遣竹葉瀨之弟田道. 則詔之曰, 若新羅距者, 擧兵擊之. 仍授精兵. 新羅起兵而距之. 爰新羅人, 日日挑戰. 田道固塞而不出. 時新羅軍卒一人, 有放于營外. 則掠俘之. 因問消息. 對曰, 有强力者. 曰百衝. 輕捷猛幹. 每爲軍右前鋒. 故伺之擊左則敗也. 時新羅空左備右. 於是, 田道連精騎擊其左. 新羅軍潰之. 因縱兵乘之, 殺數百人. 卽虜四邑之人民以歸焉.

五十五年 蝦夷叛之. 遣田道令擊. 則爲蝦夷所敗, 以死于伊峙水門. 時有從者, 取得田道之手纏, 與其妻. 乃抱手纏而縊死. 時人聞之流涕矣. 是後, 蝦夷亦襲之略人民. 因以, 掘田道墓. 則有大蛇, 發瞋目自墓出以咋. 蝦夷悉被蛇毒, 而多死亡. 唯一二人得免耳. 故時人云, 田道雖旣亡, 遂報讎. 何死人之無知耶.

五十八年 夏五月, 當荒陵松林之南道, 忽生兩歷木. 挾路而末合.

冬十月, 吳國·高麗國, 並朝貢.

六十年 冬十月, 差白鳥陵守等充役丁. 時天皇親臨役所. 爰陵守目杵, 忽化白鹿以走. 於是, 天皇詔之曰, 是陵自本空. 故欲除其陵守, 而甫差役丁. 今視是怪者, 甚懼之. 無動陵守者. 則且, 授土師連等.

六十二年 夏五月, 遠江國司表上言, 有大樹, 自大井河流之, 停于河曲. 其大十圍. 本壹以末兩. 時遣倭直吾子籠令造船. 而自南海運之, 將來于難波津, 以充御船也.

是歲, 額田大中彦皇子, 獵于闘鷄. 時皇子自山上望之, 瞻野中, 有物. 其形如廬. 乃遣使者令視. 還來之曰, 窟也. 因喚闘鷄稲置大山主, 問之曰, 有其野中者何窖矣. 啓之曰, 氷室也. 皇子曰, 其藏如何. 亦奚用焉. 曰, 掘土丈余[27]. 以草蓋其上. 敦敷茅荻, 取氷以置其上. 既經夏月而不泮. 其用之, 卽當熱月, 漬水酒以用也. 皇子則將來其氷, 獻于御所. 天皇歡之. 自是以後, 每當季冬, 必藏氷. 至于春分, 始散氷也.

六十五年 飛驒國有一人. 曰宿儺. 其爲人, 壹體有兩面. 面各相背. 頂合無項. 各有手足. 其有膝而無腨踵. 力多以輕捷. 左右佩劒[28], 四手並用弓矢. 是以, 不隨皇命. 掠略人民爲樂. 於是, 遣和珥臣祖難波根子武振熊而誅之.

六十七年 冬十月庚辰朔甲申, 幸河內石津原, 以定陵地. 丁酉, 始築陵. 是日,

---

27 소학관본에서는 '餘'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28 소학관본에서는 '劍'이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有鹿, 忽起野中, 走之入役民之中而仆死. 時異其忽死, 以探其痍. 卽百舌鳥, 自耳出之飛去. 因視耳中, 悉咋割剝. 故號其處, 曰百舌鳥耳原者, 其是之緣也.

是歲, 於吉備中國川嶋河派, 有大虵令苦人. 時路人觸其處而行, 必被其毒, 以多死亡. 於是, 笠臣祖縣守, 爲人勇捍[29]而强力. 臨派淵, 以三全瓠投水曰, 汝屢吐毒, 令苦路人. 余殺汝虵. 汝沈是瓠, 則余避之. 不能沈者, 仍斬汝身. 時水虵化鹿, 以引入瓠. 瓠不沈. 卽擧劒入水斬虵. 更求虵之黨類. 乃諸虵族, 滿淵底岫穴. 悉斬之. 河水變血. 故號其水, 曰縣守淵也. 當此時, 妖氣稍動, 叛者一二始起. 於是, 天皇夙興夜寐, 輕賦薄斂, 以寬民萌, 布德施惠, 以振困窮. 弔死問疾, 以養孤孀. 是以, 政令流行, 天下大平. 廿余年無事矣.

八十七年 春正月戊子朔癸卯, 天皇崩.

冬十月癸未朔己丑, 葬于百舌鳥野陵.

日本書紀卷第十一

29 소학관본에서는 '悍'이라고 적고 있다.

일본서기 권 제12

日本書紀 卷第十二

제17대 **거래수별천황**(去來穗別天皇) **이중천황**(履中天皇)

제18대 **서치별천황**(瑞齒別天皇) **반정천황**(反正天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서기 권 제12

거래수별천황(去來穗別天皇 ; 이자호와케노스메라미코토) **이중천황**(履中天皇 ; 리츄텐노)

거래수별천황[1]은 대초료천황(大鷦鷯天皇 ; 오호사자키노스메라미코토)[2]의 태자[3]이다[去來는 이자(伊奘)라고 읽는다.]. 어머니는 반지원명(磐之媛命 ; 이하노히메노미코토)[4]이다. 갈성습진언(葛城襲津彦 ; 가즈라키노소츠비코)[5]의 딸이다. 대초료천황

---

1 去來穗別天皇은 『古事記』에서는 大江之伊耶本和氣命, 『日本書紀』에서는 大兄去來穗別尊이라 적고 있다. '大兄'은 황태자로 입후보할 자격을 가진 자를 가리킨다고 보거나, 難波 해안의 '大江'이라는 지명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한다. 『宋書』에 등장하는 倭의 五王 가운데 讚은 履中天皇에 비정되고 있다. 珍은 反正天皇, 濟는 允恭天皇, 興은 安康天皇, 武는 雄略天皇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濟, 興, 武는 연구자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만, 讚과 珍은 『송서』와 『古事記』, 『日本書紀』의 전승에 차이가 있어 미확정 상태이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인덕천황의 장남으로 葛城襲津彦의 딸 磐之媛이 낳은 반정천황과 윤공천황이 있다. 즉위전기에 또 한 사람의 同母弟인 住吉仲皇子가 모반을 도모하다 墨刑에 처해졌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중천황의 즉위가 순조롭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宮은 磐余稚櫻宮이다. 즉위원년에 葦田宿禰(갈성습진언의 아들)의 딸 黑媛(즉위전기에서는 羽田矢代宿禰의 딸)을 황비로 삼았지만, 5년에 죽자 6년에 草香幡梭皇女를 황후로 삼아 황자 2명과 황녀 2명을 두었다. 『日本書紀』에서는 재위 6년에 70세로 죽었다고 적고 있지만, 『古事記』에서는 64세, 『扶桑略記』에서는 67세라고 적고 있는 등 차이가 있다. 능은 百舌鳥耳原陵이다.

2 仁德天皇을 가리킨다.

3 여기에서는 正妻가 낳은 嫡子라는 의미이다.

31년 봄 정월에 황태자로 삼았다[6][그때 나이 15세였다[7].]. 87년 봄 정월에 대초료천황이 죽었다. 태자는 천황의 상중에 거처에서 나와, 천황의 자리에 오르기 전 우전시대숙녜(羽田矢代宿禰 ; 하타노야시로노스쿠네)[8]의 딸 흑원(黑媛 ; 쿠로히메)[9]을 비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납채[10]가 끝난 후 주길중황자(住吉仲皇子 ; 스미노에노나카츠미코)를 파견하여 길일을 묻게 하였다. 그때 중황자(仲皇子 ; 나카츠미코)가 태자의 이름을 사칭하고 흑원을 범하였다[11]. 그날 밤에 중황자는 손에 차고 있던 방울을 깜빡 잊고 흑원의 집에 두고 돌아갔다. 다음 날 밤에 태자는 중황자가 범한 것을 모르고 갔다. 그래서 침실에 들어가 장막을 열고 침상에 올랐다. 그때 침대 머리에서 방울 소리가 났다. 태자는 이상히 여겨 흑원에게 "무슨 방울인가."라고 물었다. 흑원은 "어젯밤에 태자가 가지고 계셨던 방울이 아닙니까. 어째서 새삼스럽게 첩에게 물으십니까."라고 답하였다. 태자는 중황자가 흑원을 속이고 범한 사실을 자연히 알게 되어 곧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이에 중황자는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태자를 죽이려 마음먹고, 몰래 군사를 일으켜 태자궁[12]을 둘러쌌다[13]. 그때 평군목토숙녜(平群

---

4 인덕천황의 황후를 가리킨다. 『日本書紀』 인덕천황 2년 3월조 磐之媛命 참조.

5 『日本書紀』 신공황후섭정 5년 3월조 葛城襲津彦 참조.

6 『日本書紀』 인덕천황 31년 정월조 참조.

7 履中天皇 6년 3월조의 분주에서는 천황이 70세에 죽었다고 적혀 있다.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인덕천황 31년은 8세가 되므로 「時年十五.」라는 기술과 맞지 않다.

8 波多臣의 선조이다. 『日本書紀』 응신천황 3년 시세조 羽田矢代宿禰 참조.

9 履中天皇 원년 7월조에 보이는 葛城氏 출신의 葦田宿禰의 딸이라는 흑원과 동일 인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모순을 보인다.

10 納采는 남자 쪽에서 혼인을 제기한 뒤 예물을 여자 집에 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日本書紀』 仁德天皇卽位前紀 納采 참조.

11 『日本書紀』 인덕천황 2년 3월조에 따르면, 천황의 同母弟이다. 『古事記』에서는 황자가 흑원을 범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日本書紀』 편찬자가 仲皇子의 난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부가한 내용이라 추정하고 있다.

木菟宿禰 ; 헤구리노츠쿠노스쿠네), 물부대전숙네(物部大前宿禰 ; 모노노베노오호마헤노스쿠네)[14], 한직(漢直 ; 아야노아타이)의 선조 아지사주(阿知使主 ; 아치노오미)[15] 세 명이 태자에게 아뢰었다. 그러나 태자는 믿지 않았다[一云에는 '태자가 취하여 일어나지 못하였다[16].'고 한다.]. 그래서 세 사람이 태자를 부축하여 말에 태우고 도망쳤다[어떤 책(一云)에서는 대전숙네가 태자를 안고 말에 탔다고 한다.]. 중황자는 태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태자궁에 불을 질렀는데,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태자는 하내국(河內國 ; 카후치노쿠니)의 식생판(埴生坂 ; 하니후노사카)[17]에 이르러서야 깨어났다. 그리고 난파를 돌아보다가 불빛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리하여 바로 급히 말을 달려 대판(大坂 ; 오호사카)에서 왜(倭 ; 야마토)로 향하였다. 이윽고 비조산(飛鳥山 ; 아스카노야마)[18]에 이르러 산 입구에서 소녀를 만났다. 태자는 "이 산에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소녀는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산 속에 가득합니다. 우회하여 당마경(當摩徑 ; 타기마노미치)[19]으로 넘

---

12 難波 高津宮을 가리킨다. 『古事記』에서는 「本, 坐難波宮之時.」라고 적고 있다.

13 『古事記』 履中天皇에는 천황의 御殿에 불을 지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4 物部大前宿禰는 安康卽位前紀에도 혈수황자(안강천황)와 대립한 경황자를 제거하여 안강의 즉위에 공을 세운 인물로 나타난다. 『古事記』 履中天皇段에는 平群木菟宿禰와 物部大前宿禰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15 『日本書紀』 應神天皇 20년 9월조, 동 37년 2월조, 동 41년조와 더불어 이 기사에서는 倭漢氏의 祖先傳承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응신기의 기사는 모두 阿知使主와 都加使主가 함께 등장하지만, 여기에서는 아지사주만 등장하고 있다. 또 『古事記』 履中天皇段에서는 阿知直(아지사주)이 천황을 구출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16 『古事記』 履中天皇段에는 「坐大嘗而爲豐明之時, 於大御酒宇良宜而大御寢也.」라 적혀 있다.

17 『古事記』 履中天皇段에는 波邇賦坂(하니후자카)이라 적혀 있다. 『日本書紀』 인현천황 11년 10월조에는 埴生坂本陵이 보인다. 埴生坂은 大阪府 羽曳野市 부근으로 대판평야의 남부를 동서로 통하는 도로가 羽曳野 구릉을 횡단하는 언덕이다.

18 현재 大阪府 羽曳野市 駒ヶ谷 부근의 산지를 가리킨다.

19 『和名類聚抄』에는 「大和國葛下郡當麻鄕.」이라 적혀 있다. 현재 奈良縣 북갈성군 당마촌

어가십시오."라고 답하였다. 태자는 이에 소녀의 말을 듣고 난을 면할 수 있다고 여기고 곧 노래하였다.

대판에서 만난 소녀에게 길을 물으니, 곧바로 가는 길은 가르쳐 주지 않고 우회하는 당마도를 가르쳐 주는구나.

곧 다시 돌아와[20] 그 현(縣)의 군사를 징발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여 용전산(龍田山 ; 다츠타노야마)[21]을 넘었다. 그때 수십 명이 무기를 들고 쫓아오고 있었다. 태자가 멀리서 바라보며 "무릇[22] 저기 오는 자는 누구인가. 어찌하여 급히 걸어오는가. 혹시 적인가."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산 속에 숨어서 기다렸다.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곧 한 사람을 보내어 "누구이며 또 어디로 가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담로(淡路 ; 아하지) 야도(野島 ; 노시마)[23]의 해인(海人)[24]입니다. 아담련빈자(阿曇連浜子 ; 아즈미노무라지하마코)[25][어떤 책(一云)에서는 아담련흑우

에 해당되는데, 當麻徑은 大阪府 南河内郡 太子町에서 二上山의 남쪽을 관통하는 고갯길이다. 『古事記』에는 當岐麻道(타기마치)라 적혀 있다.

20 『古事記』에서는 소녀가 말한 대로 우회로인 竹内越을 넘어 대화의 석상신궁으로 향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21 하내국과 대화국의 경계에 있는 信貴山의 남쪽, 대화천의 북안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 그 산기슭을 통해 하내와 대화를 연결하는 길이 龍田道이다. 大阪이나 당마경보다 북쪽에 위치한 하내에서 대화로 통하는 교통로이다. 『日本書紀』 神武卽位前紀 戊午年 4월조 龍田 참조.

22 「其」자는 권11부터 13에 걸쳐 나타는 문장상의 특징이다.

23 野島는 현재 兵庫縣 津名郡(淡路島) 北淡町 野島 부근이다.

24 『日本書紀』 응신천황 22년 3월조에 담로 御原의 해인 80인, 인덕즉위전기에 담로의 해인 80인 등이 보인다. 응신천황 3년 11월조 海人 참조.

25 阿曇連浜子는 중황자 편에 가담하였다가 거래수별황자에게 체포되어 원년 4월 墨刑에 처해졌다. 『古事記』에는 보이지 않는다.

(阿曇連黑友 ; 아즈미노무라지쿠로토모)라 한다.]가 중황자를 위해 태자를 뒤쫓으라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복병을 내어 둘러싸 모두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이때 중황자와 왜직오자롱(倭直吾子籠 ; 야마토노아타히아고코)[26]은 원래부터 사이가 좋았다. 그는 미리 그 모략을 알고 몰래 정병 수백 명을 교식(攪食 ; 카키하미)[27]의 밤나무 숲에 모아 놓고 중황자를 위해 태자를 막으려고 하였다. 그때 태자는 군사가 막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을 나와 몇 리를 갔다. 이윽고 군사들이 많이 막고 있어 나아갈 수가 없었다. 곧 사신을 파견하여 "누구인가?"라고 물으니, "왜직오자롱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곧 다시 사신에게 "누구의 사신인가?"라고 물으니, "황태자의 사신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오자롱은 군사의 수가 많음을 두려워하여 사신에게 "황태자에게 불의의 사태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도와드리려고 군사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태자는 그 진심을 의심하고 죽이려 하였다. 이에 오자롱이 놀라서 자신의 누이 일지원(日之媛 ; 히노히메)[28]을 바쳐 죽을 죄를 면하게 해줄 것을 청하였다. 태자는 이를 허락하였다. 왜직 등이 채녀(采女)[29]를 바치는 것은 아마 이때에 시작된 것인 듯하다. 태자는 석상진신궁(石上振神宮 ; 이소노카미노후루노카미노미야)[30]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서치별황자(瑞齒別皇子 ; 미츠하와케노미코)[31]는

---

26 吾子籠은 『日本書紀』 인덕천황즉위전기 吾子籠 참조.

27 『和名類聚抄』에는 「大和國忍海郡栗栖鄕.」이라 기재되어 있다. 현재 奈良縣 御所市 北部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지만, 설화의 지리 관계 기술과 맞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28 왜직씨의 채녀공진에 관련된 설화상의 인물이다. 履中紀 외에도 雄略紀(倭采女日媛)에 관련 전승이 모두 등장한다.

29 『日本書紀』 인덕천황 40년 시세조 采女 참조.

30 石上神宮을 가리킨다. 현재 奈良縣 天理市에 있는 신사이다. 『延喜式』 神名帳에 등재된 式內社이다. 『日本書紀』에 기재된 신궁은 伊勢神宮과 石上神宮뿐이다. 古代의 軍事氏族으로 알려진 物部氏가 이 신궁의 祭祀를 담당했으며, 왜왕권의 무기고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日本書紀』 수인천황 39년 10월조 석상신궁 참조.

태자가 없어진 것을 알고 찾아왔다. 그러나 태자는 아우의 마음을 의심하고 불러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치별황자는 "저는 흑심이 없습니다. 단지 태자가 사라진 것을 걱정하여 찾아 왔을 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태자가 아우에게 "나는 중황자의 반역을 두려워하여 홀로 피하여 여기까지 왔다. 어찌 너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황자가 살아 있는 것이 나의 근심이다. 중황자를 제거하고자 한다. 그래서 네가 정말로 다른 마음이 없다면 다시 난파로 돌아가 중황자를 죽여라. 그렇게 하고 나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서치별황자는 태자에게 "대인[32]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지금 중황자는 무도하여 군신과 백성이 다 같이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또한 그 문하에 있던 사람도 모두 배반하고 적이 되었습니다. 고립되어 있어 같이 의논할 사람도 없습니다. 신이 비록 그 반역을 알았지만, 아직 태자의 명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혼자 분개하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명을 받았습니다. 어찌 중황자 죽이기를 주저하겠습니까. 단지 두려운 것은 중황자를 죽이고 나서도 여전히 신을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충직한 사람을 얻어 신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곧 태자는 (서치별황자에게) 목토숙녜(木菟宿禰 ; 츠쿠노스쿠네)[33]를 딸려 보냈다. 이에 서치별황자가 "지금 태자와 중황자는 모두 형이다.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배반할 것인가. 그러나 무도함을 멸하고 도리가 있는 편을 따른다면 누가 나를 의심할 것인가."라고 탄식하였다. 곧 난파에 이르러 중황자의 동정을 엿보았다. 중황자는 태자가 이미 도망갔다고 생각하여 방비하지 않고 있었다. 이때 (중황자를) 가까이에서 섬기는 준인(隼人)[34]이 있었는데

---

31 뒤에 反正天皇이 되는 인물로 황태자 居來穗別皇子 및 住吉仲皇子와 동복형제이다.

32 大人은 有德者나 연장자에 대한 존칭이다. 『日本書紀』 神代下 第九段의 訓註 大人 참조.

33 木菟宿禰 파견에 관한 내용은 『古事記』 履中天皇段에는 보이지 않는다.

34 隼人(하야히토, 하야토)은 고대 일본에서 薩摩나 大隅(현재의 鹿児島縣)에 거주한 사람들

자령건(刺領巾 ; 사시히레)[35]이라 하였다. 서치별황자는 자령건을 몰래 불러 "나를 위하여 황자[36]를 죽여 다오. 내가 반드시 후하게 너에게 보답할 것이다."라고 꼬드기고 비단옷과 하의(褌)를 벗어 주었다[37]. 자령건은 그 감언을 믿고 혼자서 창을 들고 중황자가 뒷간[38]에 들어간 틈을 타 찔러 죽였다. 그리고 곧 서치별황자를 섬겼다. 이에 목토숙녜가 서치별황자에게 "자령건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군주를 죽였으니 그것이 자신에게 큰 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군주에게는 무자비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어찌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자령건을 죽였다. 그리고 그 날[39] 왜로 향하여 한밤에 석상(石上)에 이르러 복명하였다. 이에 태자가 제왕(弟王)[40]을 불러 두터이 총애하며 촌합둔창(村合屯倉)[41]을 주었다. 이 날에 아담련빈자를 붙잡았다.

원년 봄 2월 임오삭(1일)에 황태자[42]는 반여치앵궁(磐余稚櫻宮 ; 이하레노와카사쿠라노미야)[43]에서 즉위하였다.

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神代 下 第九段 隼人 참조.

35 『古事記』 履中天皇段에는 「曾婆加理(소바카리)」라고 적고 있다.

36 住吉仲皇子를 가리킨다.

37 『日本書紀』 경행천황 12년 9월조에도 「赤衣褌及種種奇物」을 준 사례가 있다.

38 뒷간에서 살해된 유사한 사례로는 『古事記』 景行天皇段에 기재된 小碓命의 형 大碓命에 관한 전승이 있다.

39 여기에서는 서치별황자가 충성을 보이기 위해 석상으로 바로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古事記』에서는 대화의 飛鳥에서 1박한 뒤에 石上에 이르렀다고 적고 있다.

40 瑞齒別皇子를 가리킨다.

41 소재지를 비정하기 어렵다.

42 거래수별황자. 뒤에 履中天皇이 된다.

43 『日本書紀』 履中天皇 2년 10월조에도 「都於磐余.」라고 보인다. 3년 11월조에 궁호의 유래에 관한 설화가 보인다. 『古語拾遺』에서는 신공황후의 시대를 磐余稚櫻朝, 履中天皇의 시대를 後磐余稚櫻朝라고 적고 있다.

여름 4월 신사삭 정유(17일)에 아담련빈자를 불러 "너는 중황자와 더불어 반역을 꾀하고 천황을 죽이려 하였다. 그 죄는 죽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큰 은혜를 베풀어 사형 대신에 묵형[44]에 처한다."고 명하였다. 그리고 그 날 묵형을 행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아담목(阿曇目 ; 아즈미메)이라 하였다. 또 빈자가 거느리는 야도(野島 ; 노시마)의 해인 등의 죄를 면해주고 왜의 장대둔창(蔣代屯倉)[45]에서 사역하였다.

가을 7월 기유삭 임자(4일)에 위전숙녜(葦田宿禰 ; 아시타노스쿠네)[46]의 딸 흑원[47]을 황비[48]로 삼았다. 비는 반판시변압우황자(磐坂市邊押羽皇子 ; 이하사카노이치노헤노오시하노미코)[49], 어마황자(御馬皇子 ; 미마노미코)[50], 청해황녀(青海皇女 ; 아오미노히메미코)[51][어떤 책(一云)에서는 반풍황녀(飯豊皇女 ; 이히도요노히메미코)[52]라고

---

44 墨刑에 관한 이야기는 『古事記』에는 보이지 않는다. 묵형은 罪를 범한 자에 대해 얼굴이나 팔 등에 입묵하는 행위로, 고대 중국에 존재한 5형 가운데 하나이다.

45 소재지를 비정하기 어렵다. 『日本書紀』 인덕천황 40년 2월조 蔣代野 참조.

46 『古事記』에서는 「此天皇, 娶葛城之曾都比古之子, 葦田宿禰之女, 名黒比売命.」이라 적고 있어, 이에 따르면 葦田宿禰는 '葛城之曾都比古(가즈라키노소츠히코)'의 아들이다.

47 『古事記』에는 黒比賣命(쿠로히메노미코토)이라 적고 있다. 즉위전기에는 羽田矢代宿禰의 딸이라 적고 있다.

48 皇妃라는 표기는 履中天皇대는 黒媛에게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흑원이 죽은 이중천황 6년 정월에 草香幡梭皇女가 황후가 되었기에 구별하여 표기한 것이다.

49 『日本書紀』에는 市邊押磐皇子, 磐坂皇子로, 『古事記』에는 市邊之忍歯王, 市邊子押歯王, 市邊王이라 적고 있다. 현종, 인현천황의 아버지이다. 『日本書紀』 현종즉위전기의 분주에 인용된 譜第에서는 '蜾蠃臣의 女黄媛과 혼인하여 居夏姫, 億計王(仁賢), 弘計王(顯宗), 飯豊女王, 橘王의 3남 2녀를 낳았다.'고 적고 있다. 『日本書紀』 현종즉위전기에는 「於市邊宮治天下天萬國萬押磐等.」, 『播磨風土記』에는 「市邊天皇命.」이라 적혀 있다. 이를 근거로 안강천황이 죽은 뒤에 얼마 동안 황위에 올랐다고 보기도 한다.

50 『古事記』는 御馬王(미마노오호키미)이라고 적고 있다. 『日本書紀』 안강천황 3년 10월에 대박뢰황자(웅략천황)에게 체포되어 살해되었다.

51 『古事記』는 青海郎女(아오미노이라츠메)라고 적고 있다. 『日本書紀』 顯宗卽位前紀에는 飯豊青皇女라고 적혀 있다.

한다.]를 낳았다. 다음 비인 번사황녀(幡梭皇女 ; 하타비노히메미코)[53]는 중기황녀(中磯皇女 ; 나카시노히메미코)[54]를 낳았다. 이 해의 간지는 경자이다.

2년 봄 정월 병오삭 기유(4일)에 서치별황자를 저군(儲君 ; 히츠기노미코)[55]으로 삼았다.

겨울 10월에 반여(磐余 ; 이하레)[56]에 도읍[57]을 조영하였다. 이때 평군목토숙녜(平群木菟宿禰 ; 헤구리노츠쿠노스쿠네)[58], 소하만지숙녜(蘇賀滿智宿禰 ; 소가노마치

---

52 飯豐(青)皇女는 청해황녀, 飯豐女王, 忍海部女王, 飯豐郎女 등 여러 가지로 표기된다. 『日本書紀』 이중기에서는 이중천황의 딸이라 하고, 『古事記』도 이와 동일하다. 『日本書紀』 현종기에서는 이중천황의 아들 市辺押磐皇子의 딸이라 한다. 어머니는 전자의 경우는 흑원, 후자는 黃媛이라 하지만, 양자 모두 蟻臣(위전숙녜)의 딸이다. 淸寧天皇이 죽고 나서 億計, 弘計 두 왕이 서로 황위를 양보하여 오랫동안 空位가 계속되었기에 반풍청황녀가 忍海角刺宮에서 천황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古事記』 청해천황단에서는 「天皇崩後, 無可治天下之王也. 於是, 問日継所知之王, 市辺忍歯別王之妹, 忍海郎女, 又名飯豐王坐葛城忍海之高木角刺宮也.」라고 적고 있다. 여기에는 계승할 왕이 없어 즉위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지만, 『古事記』 청녕천황단에서는 「其二柱王子, 坐左右膝上泣悲而, 集人民作仮宮, 坐置其仮宮而, 貢上駅使. 於是, 其姨飯豐王, 聞歓而, 令上於宮.」이라고 적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播磨國風土記』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등 전승상에 상당한 혼란이 드러난다. 황녀를 『日本書紀』에서는 천황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扶桑略記』에서는 「飯豐天皇, 二十四代女帝.」라고 기록하여 女帝로서의 즉위를 인정하고 있다. 반풍청황녀에 관한 연구는 그녀의 즉위 여부는 물론이고 실존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53 草香梭皇女를 가리킨다. 이 황녀를 비로 삼은 내용은 『古事記』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중천황 6년 정월에 황후가 되었다.

54 中磯皇女는 中蒂姫, 中蒂姫命이라고도 쓴다. 『日本書紀』 雄略天皇卽位前紀에는 「中蒂姫皇女, 更名長田大娘皇女也.」라고 적고 있다.

55 황태자를 의미한다. 『日本書紀』 반정즉위전기에도 이중천황 2년에 「立太子.」한 것으로 적고 있다.

56 현재 奈良縣 櫻井市 중서부에서 橿原市 동부에 걸친 지역이다.

57 磐余稚櫻宮을 가리킨다.

노스쿠네)[59], 물부이거불대련(物部伊莒弗大連 ; 모노노베노이코후노오호무라지)[60], 원(圓 ; 츠부라노)[圓은 츠부라(豆夫羅)[61]라고 읽는다.]대사주(大使主 ; 오호미)가 함께 국사[62]를 집행하였다.

11월에 반여지(磐余池 ; 이하레노이케)[63]를 만들었다.

3년 겨울 11월 병인 초하루 신미(6일)에 천황은 양지선(兩枝船)[64]을 반여시기지(磐余市磯池 ; 이하레노이치시노이케)에 띄워 황비[65]와 각기 나누어 타고 즐겼다. 선신여기(膳臣余磯 ; 카시하데노오미아레시)[66]가 술을 바쳤는데, 이때 벚꽃이

---

58 平群木菟宿禰 등이 국사를 집행했다는 이야기는 『古事記』에는 보이지 않는다.

59 蘇我滿智宿禰는 『公卿補任』 宣化天皇條에는 蘇我稻目宿禰에 「滿智宿禰之曾孫. 韓子之孫. 高麗之子也.」라고 註를 붙이고 있다. 또한 『古語拾遺』에서는 蘇我麻智宿禰가 웅략천황 때 三藏을 검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적고 있다. 『尊卑分脈』에서는 「彦太忍信命(孝元天皇의 皇子) – 屋主忍男武雄心命 – 武內宿禰 – 石川宿禰 – 蘇我麻智宿禰」라고 적고 있다. 『日本書紀』 응신천황 3년 11월조 石川宿禰 참조.

60 『新撰姓氏錄』 左京 神別과 河內國 神別에는 '伊己布都大連(이코후츠노오호무라지)', 山城國神別에서는 '伊己布都乃連公(이코후츠노무라지노키미)'이라 적혀 있고, '依羅連(右京神別), 巫部連(山城國神別), 高橋連(河內國神別)이 그 후예'라고 적고 있다. 『先代舊事本紀』 天孫本紀에는 '饒速日尊十世孫으로 五十琴宿禰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物部多遲麻大連의 딸 香兒媛이고 아들 眞椋, 布都久留, 目, 鍛冶師, 竺志가 있었다.'고 적고 있다.

61 『古事記』 안강천황단에는 都夫良意富美(츠부라오호미)라고 적고 있다. 『日本書紀』 웅략천황 원년 3월 시월조에서는 葛城圓大臣, 『公卿補任』에서는 武內宿禰의 증손, 葛城襲津彦의 손, 玉田宿禰의 아들이라고 적고 있다.

62 『日本書紀』 응신천황 40년 정월조에는 「以大鷦鷯尊, 爲太子輔之, 令知國事.」라 적혀 있다. 4명이 국정을 담당한 내용은 『古事記』에는 보이지 않는다. 平群, 蘇我, 物部는 모두 뒤에 大臣, 大連이 된 씨족이다.

63 『日本書紀』 履中天皇 3년 11월조에 나오는 磐余市磯池와 동일한 곳으로 보기도 한다.

64 『古事記』 이중천황단에는 「亦此御世, 於若櫻部臣等, 賜若櫻部名.」이라고 적고 있을 뿐, 이러한 설화는 보이지 않는다. 『古事記』 수인천황단에는 '두 갈래로 갈라진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였다.'는 유사한 전승이 기록되어 있다.

65 黑媛를 가리킨다.

잔에 떨어졌다. 천황은 이상히 여겨 물부장진담련(物部長眞膽連 ; 모노노베노나가마이노무라지)[67]을 불러 "이 꽃은 필 때가 아닌데 피었다. 도대체 어느 곳의 꽃인지 그대가 가서 직접 찾아오라."고 명하였다. 장진담련은 홀로 액상(掖上 ; 와키노카미)의 실산(室山 ; 무로노야마)[68]에서 꽃을 찾아내어 바쳤다. 천황은 그 진귀함에 기뻐하며 곧 궁 이름으로 삼아 반여치앵궁(磐余稚櫻宮 ; 이하레노와카사쿠라노미야)이라 하였다. 이것이 그 유래이다. 또한 이 날에 장진담련의 원래의 성(姓 ; 가바네)을 고쳐 치앵부조(稚櫻部造 ; 와카사쿠라베노미야츠코)[69]라 하였다. 또 선신여기를 치앵부신(稚櫻部臣 ; 와카사쿠라베노오미)[70]이라 불렀다.

4년 가을 8월 신묘삭 무술(8일)에 처음으로 제국(諸國)에 국사(國史)[71]를 두었다. 언사(言事)를 기록하여 국내의 정세를 보고하게 하였다[72].

겨울 10월에 석상구(石上溝)[73]를 팠다.

---

66 선신은 천황의 食膳에 관한 것을 봉사하는 膳部를 관장하는 씨족에 해당된다.

67 『新撰姓氏錄』 右京 神別 若櫻部造條에는 「同神(神饒速日命)三世孫出雲色男命之後也. 四世孫物部長真胆連. 初去来穗別天皇[諡. 履中]泛両枝船於磐余市磯池.」라고 적고 있다.

68 掖上은 南葛城郡 掖上村(현재 奈良縣 御所市 부근)이다. 室山은 『和名類聚抄』에는 「大和國葛上郡牟婁鄕.」이라 적혀 있다. 현재 奈良縣 御所市 북동부 부근이다.

69 『新撰姓氏錄』 右京 神別 若櫻部造條에는 「同神三世孫出雲色男命之後也…乃俘得掖上室山獻之. 天皇歡之. 賜余磯姓を稚櫻部臣. 長真胆連賜姓稚櫻部造也.」라 적혀 있고, 和泉國 神別 若櫻部造條에는 「饒速日命七世孫止智尼大連之後也…仍改物部連. 賜姓若櫻部造.」라 적혀 있다.

70 천무천황 13년 11월에 朝臣 姓을 받았다. 『新撰姓氏錄』 右京 皇別 若櫻部朝臣條에는 '약앵부조신이 阿部朝臣과 同氏이고 大彦命의 孫 伊波我牟都加利命의 후예'라고 적고 있다.

71 國史는 제국에 설치된 기록을 담당한 관리를 의미한다. '諸國'에 둔다는 것은 '國'이라는 지방행정구획이 정해진 大化改新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다.

72 『古事記』에는 없는 내용이다.

73 『和名類聚抄』에는 「大和國山邊郡石上鄕.」이라 적혀 있다. 현재 奈良縣 天理市 布留町 부근에 만들어진 용수로이다.

5년 봄 3월 무오삭에 축자(筑紫 ; 츠쿠시)의 삼신(三神)[74]이 궁중에 나타나 "어찌하여 내 백성을 빼앗느냐[75]. 내가 지금 그대를 부끄럽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기도는 하였지만, 제사는 지내지 않았다.

가을 9월 을유삭 임인(18일)에 천황이 담로도(淡路島 ; 아하지노시마)에서 사냥하였다. 이 날 하내(河內)의 사부(飼部)[76] 등이 천황을 모시며 말고삐를 잡았다. 이에 앞서 사부의 눈가에 입묵한 상처가 모두 아물지 않았는데, 섬에 있는 이장락신(伊奘諾神 ; 이자나키노카미)[77]이 신관[祝][78]에게 "피 냄새 때문에 견디기 어렵다."고 신탁하였다. 이로 인해 점을 쳤다. 점괘는 "사부 등이 입묵한 상처에서 나는 냄새를 싫어한다."고 나왔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부에게 입묵하는 것을 일체 금하였다. 계묘(19일)에 바람 소리처럼 하늘에서 "검도태자왕(劒刀太子王 ; 츠루기타치히츠기노미코)[79]"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또 "새가 왕래하는[80] 우전(羽田 ; 하타)[81]의 내 누이(汝妹)[汝妹는 儺邇毛(나니모)라 읽는다.]는 우협(羽狹 ; 하사)[82]에 장사

---

74 筑前國 宗像神社의 田心姬, 湍津姬, 市杵島姬라는 세 명의 여신을 의미한다.

75 뒤의 이중천황 5년 10월조에 보이는 車持君이 축자에 이르러 車持部를 檢校하고 신에게 배당된 백성을 약탈한 사건을 말한다.

76 飼部는 말 調習, 飼育에 관한 일을 담당한 部民이다.

77 담로도의 수렵 이야기에 『日本書紀』 神代記에 보이는 伊奘諾神이 나오므로, 이것은 神代史가 만들어진 이후의 것이다. 『日本書紀』 神代 上 一書第三 第六의 伊奘諾尊 참조.

78 神主와 禰宜 바로 아래에서 神事에 종사하는 신관을 가리킨다.

79 츠루기타치는 『釋日本紀』에 인용된 私記에는 「寶號也.」라고 적고 있다. 태자를 수식하는 문구이다. 여기에 태자는 『日本書紀通證』, 『書紀集解』에서는 '황태자인 瑞齒別皇子라고 해석하고, 다음해 履中天皇이 사망하고 황자가 즉위할 것에 대한 전조 기사이다.'라고 적고 있다. 『日本書紀通釋』에서는 『釋日本紀』에 인용된 天書에서는 천황의 황자였던 사람 가운데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자가 죽은 것이라 기재하고 있다.

80 羽田을 수식하는 문구이다.

81 즉위전기에 羽田矢代宿禰의 딸 黑媛을 비로 삼으려 한 것과 원년 7월조에 葦田宿禰의 딸 黑媛을 황비로 삼은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는 전자를 가리킨다.

82 『日本書紀』 윤공천황 24년 6월조에 나오는 가요에 「幡舍(하사)山」이 보인다.

지내고 떠났다."는 소리가 들렸다. 또 "협명래전장진지명(狹名來田藏津之命 ; 사나쿠타코모츠노미코토)[83]을 우협에 장사지내고 떠났다."라는 소리가 들렸다. 천황이 매우 놀라 곧 말을 타고 돌아갔다. 병오(22일)에 담로에서 돌아왔다.

겨울 10월 갑인삭 갑자(11일)에 황비를 장사지냈다. 천황이 신의 저주를 가라앉히지 못하여 황비를 잃게 된 것을 후회하며, 그 과실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어떤 사람이 "거지군(車持君 ; 쿠루마모치노키미)[84]이 축자국에 가서 모든 거지부(車持部 ; 쿠루마모치베)[85]를 관할하고, 아울러 신호(神戶)로 배당된 백성을 빼앗았습니다. 반드시 그 죄일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즉시 거지군을 불러 추문하였다. 그러자 그 일이 곧 사실임이 드러났다. 그래서 "비록 네가 거지군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천자의 백성을 검교(檢校)하였다. 그것이 첫 번째 죄이다. 또한 이전에 신기(神祇)에게 나누어 바친 거지부를 빼앗았다. 그것이 두 번째 죄이다."라고 말하고 악해제(惡解除), 선해제(善解除)[86]를 부과하고, 장저기(長渚崎 ; 나가스노사키)[87]에 보내어 불계(祓禊)[88]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 축자의 거지부를 관장하지 못한다."고 명하였다. 곧 모두 거

---

83 『釋日本紀』에는 「此語未詳. 但謂太子瑞齒別尊歟.」라 적혀 있다.

84 車持部를 관장하고 천황의 乘輿를 만들고 관리하는 직장에서 유래한 씨명이다. 이름은 알 수 없는 인물이다. 『新撰姓氏錄』 左京 皇別 車持公條에는 「上毛野朝臣同祖. 豐城入彦命八世孫射狹君之後也. 雄略天皇御世. 供進乘輿. 仍賜車持公.」이라 적고 있고, 攝津國 皇別 車持公條에는 「同豐城入彦命之後也.」라고 적고 있다.

85 車(혹은 輿)를 제작하고 운반하는 일을 담당한 職業部로, 車持君이 관리하였다.

86 神에 대해 범한 죄를 갚기 위해 범죄자가 공물을 바쳐 부정이나 재앙을 쫓는 의식, 즉 '祓(하라헤)'를 의미한다. 『類聚三代格』 延曆 20년 5월 14일조 太政官符에는 「承前事有犯料祓贖罪. 善惡二祓重料一人.」이라 적혀 있다. 神代 上 第七一書 第三 解除 참조.

87 攝津國 川邊郡을 흐르는 神崎川 하구이다. 현재 兵庫縣 尼崎市 長洲, 杭瀨 부근 해안을 가리킨다.

88 3월 3일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묵은 때를 씻어 마음과 몸을 정결히 하던 일종의 종교적 의식을 말한다. 祓禊는 일본 고대 사료에는 祓, 禊, 解除 등으로도 표기된다.

두어 다시 나누어 세 신[89]에게 바쳤다.

6년 봄 정월 계미삭 무자(6일)에 초향번사황녀(草香幡梭皇女 ; 쿠사카노하타비노히메미코)[90]를 세워 황후로 삼았다. 신해(29일)에 처음으로 장직(藏職)을 두고, 장부(藏部)[91]를 정하였다.

2월 계축삭(1일)에 즉어기별왕(鯽魚磯別王 ; 후나시와케노오호키미)의 딸 태희랑희(太姬郎姬 ; 후토히메노이라츠메), 고학랑희(高鶴郎姬 ; 타카츠루노이라츠메)[92]를 불러 후궁으로 들여 나란히 빈(嬪)[93]으로 삼았다. 이에 두 사람의 빈이 늘 "슬프구나. 우리들의 형왕(兄王)은 어디로 가 버렸나."라고 한탄하였다. 천황이 그 한탄하는 소리를 듣고 "그대들은 어찌하여 탄식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첩의 형인 취주왕(鷲住王 ; 와시스미노오키미)[94]은 힘이 세고 몸이 날렵합니다. 그래서 혼자 팔심옥(八尋屋)[95]을 뛰어 넘으며 돌아 다녔습니다. 이미 많은 날이

---

89 宗像神社의 세 여신을 가리킨다.

90 幡梭皇女는 『古事記』 인덕천황단에서는 「波多毗能若郎女, 亦名長日比賣壹命, 亦名若日下部命.」, 『日本書紀』 웅략천황 원년 3월조에서는 「立草香幡梭姬皇女爲皇后[更名橘姬皇女.].」라고 적고 있다.

91 율령제에서는 大藏省에 藏部 60명, 中務省의 피관인 內藏寮에 40명의 장부가 배속되었다. 『古語拾遺』에는 「至於後磐余稚櫻朝, 三韓貢獻, 突世無絶. 齋藏之傍, 更建內藏, 分收官物. 仍令阿知使主與百濟博士王仁, 記其出納. 始更定藏部.」라 적혀 있다. 이 三藏 기원 설화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만, 大藏, 內藏이 율령제 이전부터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

92 鯽魚磯別王, 太姬郎姬, 高鶴郎姬는 여기에만 보인다.

93 율령제의 후궁제도에서는 천황의 正妻를 '皇后'라 하고 內親王을 妃, 그 이외는 夫人, 嬪이라 하였다. 여기에서는 율령제의 관념에 의거해 황후나 비에 비해 지위가 낮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한 것이다.

94 여기에만 보인다.

95 八, 즉 야(や)는 크다는 의미이며, 여기서는 높고 큰 집을 의미한다. 尋은 원래는 양손을 좌우로 펼친 길이의 단위이다. 중국에서는 8척 또는 7척이라 하여 일정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曲尺의 6척(약 1.8m)을 말한다.

지났지만 만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천황은 힘이 세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또 사신을 보내 거듭 불렀다. 그래도 오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주길읍(住吉邑 ; 스미노에노무라)[96]에 있었다. 이후 부르는 것을 그만 두었다. 이것이 찬기국조(讚岐國造 ; 사누키노쿠니노미야츠코)[97], 아파국각사별(阿波國脚咋別 ; 아하노쿠니노아시쿠히와케)[98] 두 일족의 시조이다.

3월 임오삭 병신(15일)에 천황이 옥체에 병이 들어 신체가 조화롭지 못하였다[99]. 치앵궁에서 죽었다(崩)[당시 70세이다.][100].

겨울 10월 기유삭 임자(4일)에 백설조이원릉(百舌鳥耳原陵 ; 모즈노미미노하라노미사자키)[101]에 장사지냈다.

---

96 攝津國 住吉郡 住吉津은 현재 大阪市 住吉區 住吉 부근에 해당된다. 『日本書紀』 신공황후섭정원년 2월조 住吉 참조.

97 『日本書紀』 경행천황 4년 2월조에는 「神櫛皇子. 是讚岐國造之始祖也.」라 적혀 있다.

98 脚咋를 阿波國 海部郡의 肉咋(현재 德島縣 海部郡 宍喰町)에 비정하고 있다.

99 원문은 水土弗調이다. 자연환경의 부조화를 여기에서는 신체가 조화롭지 못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100 『古事記』에는 「天皇之御年. 陸從肆歲[壬申年正月三日崩.]. 御陵在毛受也.」라고 기재되어 있다. 『扶桑略記』, 『一代要記』 등 후대의 연대기류에는 「六十七.」이라 적고 있는 경우도 있다. 천황의 연령에 대해서는 『日本書紀』의 기사 내부에서도 모순이 보인다.

101 『延喜式』 諸陵寮式의 百舌鳥耳原南陵에 관한 註記에는 「磐余稚櫻宮御宇履中天皇. 在和泉國大島郡. 兆域東西五町. 南北五町. 陵戶五烟.」이라 적혀 있다. 『陵墓要覽』에서는 大阪府 堺市 石津ヶ丘町에 있는 전방후원분으로 비정하였다.

서치별천황(瑞齒別天皇 ; 미즈하와케노스메라미코토) 반정천황(反正天皇 ; 한제텐노)

서치별천황[102]은 거래수별천황(去來穗別天皇 ; 이자호와케노스메라미코토)[103]의 동모제(同母弟)[104]이다. 거래수별천황 2년[105]에 황태자의 자리에 올랐다. 천황은 담로궁(淡路宮 ; 아하지노미야)에서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가 하나의 뼈로 이루어진 것 같았으며, 용모가 미려하였다. 서정(瑞井)[106]이라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길어서 태자를 씻겼다. 그때 우물 안에 다지(多遲 ; 타지)꽃이 있었다. 그래서 태자의 이름으로 삼았다. 다지꽃은 지금의 호장화(虎杖花)[107]이다. 따라서 다지비서치별천황(多遲比瑞齒別天皇 ; 타지히노미즈하와케노스메라미코토)[108]이라 칭하였다. 6년 봄 3월 거래수별천황이 죽었다(崩).

---

102 反正天皇은 『日本書紀』에 보이는 천황으로 『송서』에 등장하는 倭의 五王 가운데 珍에 비정되는 인물이다. 화풍시호는 瑞齒別天皇이다. 多遲比瑞齒別天皇이라고도 부른다. 宮은 丹比柴籬宮이며, 大宅臣의 선조 木事의 딸 津野媛을 황부인으로 삼았다. 천황의 正妻를 황후라 기재하지 않은 것은 反正天皇의 황후를 '황부인'으로 기재한 것과 履中天皇의 황후를 '황비'로 기재한 사례뿐이다. 자녀는 1황자, 3황녀를 두었다. 『日本書紀』에는 재위 5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古事記』에는 사망한 해에 '60세'였다고 적혀 있다. 陵은 耳原陵이다.

103 履中天皇을 가리킨다.

104 『日本書紀』 仁德天皇 2년 3월조에는 「立磐之媛命爲皇后. 后生大兄去來穗別天皇, 住吉仲皇子, 瑞齒別天皇, 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이라 적혀 있다. 去來穗別天皇(履中天皇)과 瑞齒別天皇(反正天皇)은 동복형제 관계이다.

105 『日本書紀』 履中天皇 2년 정월조에 보인다.

106 『新撰姓氏錄』 右京 神別 丹比宿禰條에는 「大鷦鷯天皇御世. 皇子瑞歯別尊. 誕生淡路宮之時. 淡路瑞井水奉灌御湯瓮中. 宇時虎杖花飛入御湯瓮中…奉號多治比瑞歯別命.」이라 적혀 있다.

107 『和名類聚抄』 草木部에서는 「本草疏云, 虎杖, 一名武杖[和名伊太止里(이타도리).]」이라고 적고 있다. 여름에 약간 붉은색을 띤 흰 꽃을 피우고, 검고 작은 열매를 맺는 蓼科의 초목이다.

108 多遲比는 하내의 丹比(다지히)라는 지명에서 유래한 것이다.

원년 봄 정월 정축삭 무인(2일)에 저군(儲君)[109]이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

가을 8월 갑진삭 기유(6일)에 대택신(大宅臣 ; 오호야케노오미)[110]의 선조 목사(木事 ; 고고토)[111]의 딸 진야원(津野媛 ; 츠노히메)[112]을 세워 황부인[113]으로 삼았다. 진야원은 향화희황녀(香火姬皇女 ; 카히노히메미코)[114], 원황녀(圓皇女 ; 츠부라노히메미코)[115]를 낳았다. 또 부인의 아우 제원(弟媛 ; 오토히메)[116]을 들여 재황녀(財皇女 ; 타카라노히메미코)[117]와 고부황자(高部皇子 ; 타카베노미코)[118]를 낳았다.

겨울 10월에 하내(河內 ; 카후치)의 단비(丹比 ; 타지히)[119]에 도읍을 조영하였다. 이를 시리궁(柴籬宮 ; 시바카키노미야)[120]이라 한다. 이때 비와 바람이 때를 맞추어 오곡이 잘 여물어 백성들이 부유하고 넉넉하여 천하태평이었다. 이 해의

---

109 황태자 瑞齒別皇子를 의미한다.

110 大宅氏는 大和國 添上郡 大宅鄕(현재 奈良縣 奈良市 古市町 부근)을 본거로 하는 호족으로 天足彦國押人命(孝昭天皇의 皇子)의 후예씨족이다. 천무천황 13년(685) 11월에 臣에서 朝臣으로 改姓되었다. 『古事記』 孝昭天皇段에서는 大宅臣을 '天押帶日子(아메오시타라시히코)의 후예이며 春日臣, 小野臣 등과 동족'이라고 적고 있다.

111 『古事記』 反正天皇段에는 丸邇之許碁登臣(와니노코고토노오미)이라 적혀 있다.

112 『古事記』 反正天皇段에는 都怒郎女(츠노노이라츠메)라 적혀 있다.

113 '皇夫人'이라는 용어는 여기에만 보인다.

114 『古事記』 反正天皇段에는 甲斐郎女(카히노이라츠메)라 적혀 있다.

115 『古事記』 反正天皇段에는 都夫良郎女(츠부라노이라츠메)라 적혀 있다.

116 『古事記』 反正天皇段에는 弟比賣(오토히메)라 적혀 있다.

117 『古事記』 反正天皇段에서는 「天皇, 娶丸迩之許碁登臣之女, 都怒郎女, 生御子, 甲斐郎女, 次都夫良郎女[二柱.]. 又, 娶同臣之女, 弟比売, 生御子, 財王. 次多訶弁郎女. 并四柱也.」라고 기재되어 있어, 財王은 황녀가 아닌 황자로 나와 있다.

118 『古事記』 反正天皇段에서는 多訶辨郎女(타카베노이라츠메)라고 적고 있어 황자가 아닌 황녀이다.

119 『日本書紀』 인덕천황 14년 11월조 丹比 참조.

120 『帝王編年記』에서는 「丹比柴籬宮, 河內國丹比郡, 今宮坂上路北宮地是也.」라고 적혀 있고, 『河內志』에서는 '丹北郡松原莊植田村(현재 大阪府 松原市 上田村에 비정) 廣庭神祠의 동북에 있다.'고 적고 있다.

간지는 병오이다.

5년 봄 정월 갑신삭 병오(23일)에 천황[121]이 정전[122]에서 죽었다(崩).

일본서기 권 제12

121 『古事記』 反正天皇段에는 「天皇之御年, 陸拾歲[丁丑年七月崩.]. 御陵在毛受野也.」, 『日本書紀』에는 윤공천황 5년 11월에 埋葬된 것으로 적혀 있다.

122 원문은 正寢이다. 천자, 제후가 거하는 곳을 '寢'이라 하는데, 正寢은 천황이 항시 기거하는 궁중의 正殿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卷第十二

去來穗別天皇 履中天皇

去來穗別天皇, 大鷦鷯天皇太子也[去來, 此云伊奘.]. 母曰磐之媛命. 葛城襲津彦女也. 大鷦鷯天皇卅一年春正月, 立爲皇太子[時年十五.].

八十七年春正月, 大鷦鷯天皇崩. 太[1]子自諒闇出之, 未卽尊位之間, 以羽田矢代宿禰之女黑媛欲爲妃. 納采旣訖, 遣住吉仲皇子, 而告吉日. 時仲皇子, 冒太子名, 以奸黑媛. 是夜, 仲皇子忘手鈴於黑媛之家而歸焉. 明日之夜, 太子不知仲皇子自奸而到之. 乃入室開帳, 居於玉床. 時床頭有鈴音. 太子異之, 問黑媛曰, 何鈴也. 對曰, 昨夜之非太子所齎鈴乎. 何更問妾. 太子自知仲皇子冒名以奸黑媛, 則默之避也. 爰仲皇子畏有事, 將殺太子. 密興兵, 圍太子宮. 時平群木菟宿禰·物部大前宿禰·漢直祖阿知使主, 三人, 啓於太子. 太子不信[一云, 太子醉以不起.]. 故三人扶太子, 令乘馬而逃之[一云, 大前宿禰, 抱太子而乘馬.]. 仲皇子不知太子所在[2], 而焚太子宮. 通夜火不滅. 太子到河內國埴生坂而醒之. 顧望難波. 見火光而大驚. 則急馳之, 自大坂向倭. 至于飛鳥山, 遇少女於山口. 問之曰, 此山有人乎. 對曰, 執兵者多滿山中. 宜廼自當摩徑踰之. 太子, 於是, 以

1 소학관본에는 '太'자 앞에 '皇'자가 있다.

2 소학관본에서는 '不在'라고 적고 있다.

爲, 聆少女言, 而得免難, 則歌之曰, 於朋佐箇珥, 阿布夜烏等謎烏, 瀰知度沛麼, 哆馱珥破能邏孺, 哆嗜摩知烏能流. 則更還之, 發當縣兵, 令從身, 自龍田山踰之. 時有數十人執兵追來. 太子遠望之曰, 其彼來者誰人也. 何步行急之. 若賊人乎. 因隱山中而待之. 近則遣一人, 問曰, 曷人. 且何處往矣. 對曰, 淡路野嶋之海人也. 阿曇連濱子[一云, 阿曇連黑友]爲仲皇子, 令追太子. 於是, 出伏兵圍之. 悉得捕. 當是時, 倭直吾子籠, 素好仲皇子. 預知其謀, 密聚精兵數百於攪食栗林, 爲仲皇子, 將拒太子. 時太子不知兵塞, 而出山行數里. 兵衆多塞, 不得進行. 乃遣使者, 問曰, 誰人也. 對曰, 倭直吾子籠也. 便還問使者曰, 誰使焉. 曰, 皇太子之使. 時吾子籠, 憚其軍衆多在, 乃謂使者曰, 傳聞, 皇太子有非常之事. 將助以備兵待之. 然太子疑其心欲殺. 則吾子籠愕之, 獻己妹日之媛. 仍請赦死罪. 乃免之. 其倭直等貢采女, 蓋始于此時歟. 太子便居於石上振神宮. 於是, 瑞齒別皇子, 知太子不在, 尋之追詣. 然太子疑弟王之心而不喚. 時瑞齒別皇子令謁曰, 僕無黑心. 唯愁太子不在, 而參赴耳. 爰太子傳告弟王曰, 我畏仲皇子之逆, 獨避至於此. 何且非疑汝耶. 其仲皇子在之, 獨猶爲我病. 遂欲除. 故汝寔勿異心, 更返難波, 而殺仲皇子. 然後, 乃見焉. 瑞齒別皇子啓太子曰, 大人何憂之甚也. 今仲皇子無道, 群臣及百姓, 共惡怨之. 復其門下人, 皆叛爲賊. 獨居之無與誰議. 臣雖知其逆, 未受太子命之. 故獨慷慨之耳. 今旣被命. 豈難於殺仲皇子乎. 唯獨懼之, 旣殺仲皇子, 猶且疑臣歟. 冀見得忠直者, 欲明臣之不欺. 太子則副木菟宿禰而遣焉. 爰瑞齒別皇子歎之曰, 今太子與仲皇子並兄也. 誰從矣, 誰乖矣. 然亡無道, 就有道, 其誰疑我. 則詣于難波, 伺仲皇子之消息. 仲皇子思太子已逃亡, 而無備. 時有近習隼人. 曰刺領巾. 瑞齒別皇子, 陰喚刺領巾, 而誂之曰, 爲我殺皇子. 吾[3]必敦報汝. 乃脫錦衣褌與之. 刺領巾恃其誂言, 獨執矛, 以伺仲皇子入廁而刺殺. 卽隸于瑞齒別皇子. 於是, 木菟宿禰, 啓於瑞齒別皇子

3 소학관본에서는 '我'라고 적고 있다.

曰, 刺領巾爲人殺己君. 其爲我雖有大功, 於己君無慈之甚矣. 豈得生乎. 乃殺刺領巾. 卽日, 向倭也. 夜半, 臻於石上而復命. 於是, 喚弟王以敦寵. 仍賜村合屯倉. 是日, 捉阿曇連濱子.

元年 春二月壬午朔, 皇太子卽位於磐余稚櫻宮.

夏四月辛巳朔丁酉, 召阿曇連濱子, 詔之曰, 汝與仲皇子共謀逆, 將傾國家. 罪當于死. 然垂大恩, 而免死科墨, 卽日黥之. 因此, 時人曰阿曇目. 亦免從濱子野嶋海人等之罪, 役於倭蒋代屯倉.

秋七月己酉朔壬子, 立葦田宿禰之女黑媛爲皇妃. 妃生磐坂市邊押羽皇子·御馬皇子·靑海皇女[一曰, 飯豐皇女.]. 次妃幡梭皇女, 生中磯皇女.

是年也, 太歲庚子.

二年 春正月丙午朔己酉, 立瑞齒別皇子爲儲君.

冬十月, 都於磐余. 當是時, 平群木菟宿禰·蘇賀滿智宿禰·物部伊莒弗大連·圓[圓, 此云豆夫羅.]大使主, 共執國事.

十一月, 作磐余池.

三年 冬十一月丙寅朔辛未, 天皇泛兩枝船于磐余市磯池. 與皇妃各分乘而遊宴. 膳臣余磯獻酒. 時櫻花落于御盞. 天皇異之, 則召物部長眞膽連, 詔之曰, 是花也, 非時而來. 其何處之花矣. 汝自可求. 於是, 長眞膽連, 獨尋花, 獲于掖上室山, 而獻之. 天皇歡其希有, 卽爲宮名. 故謂磐余稚櫻宮. 其此之緣也. 是日, 改長眞膽連之本姓, 曰稚櫻部造. 又號膳臣余磯, 曰稚櫻部臣.

四年 秋八月辛卯朔戊戌, 始之於諸國置國史. 記言事達四方志.

冬十月, 堀石上溝.

五年 春三月戊午朔, 於筑紫所居三神, 見于宮中, 言, 何奪我民矣. 吾今慚汝. 於是, 禱而不祠.

秋九月乙酉朔壬寅, 天皇狩于淡路嶋. 是日, 河內飼部等, 從駕執轡. 先是, 飼部之黥皆未差. 時居嶋伊奘諾神, 託祝曰, 不堪血臭矣. 因以, 卜之. 兆云, 惡飼部等黥之氣. 故自是以[4]後, 頓絶以不黥飼部而止之. 癸卯, 有如風之聲, 呼於大虛曰, 劒刀太子王也. 亦呼之曰, 鳥往來羽田之汝妹者, 羽狹丹葬立往[汝妹, 此云儞邇毛.] 亦曰, 狹名來田蒋津之命, 羽狹丹葬立往也. 俄而使者忽來曰, 皇妃薨. 天皇大驚之, 便命駕而歸焉. 丙午, 至自淡路.

冬十月甲寅朔甲子, 葬皇妃. 既而天皇, 悔之不治神祟, 而亡皇妃, 更求其咎. 或者曰, 車持君行於筑紫國, 而悉校車持部, 兼取充神者. 必是罪矣. 天皇則喚車持君, 以推問之. 事既得實焉. 因以, 數之曰, 爾雖車持君, 縱檢校天子之百姓. 罪一也. 既分寄于神車持部, 兼奪取之. 罪二也. 則負惡解除·善解除, 而出於長渚崎, 令祓禊. 既而詔之曰, 自今以後, 不得掌筑紫之車持部. 乃悉收以更分之, 奉於三神.

六年 春正月癸未朔戊子, 立草香幡梭皇女爲皇后. 辛亥[5], 始建藏職. 因定藏部.

二月癸丑朔, 喚鯽魚磯別王之女太姬郎姬·高鶴郎姬, 納於後宮, 並爲嬪. 於是, 二嬪恆歎之曰, 悲哉, 吾兄王, 何處去耶. 天皇聞其歎, 而問之曰, 汝何歎息也. 對曰, 妾兄鷲住王, 爲人强力輕捷. 由是, 獨馳越八尋屋而遊行. 既經多日, 不得面言. 故歎耳. 天皇悅其强力以喚之. 不參來. 亦重使而召. 猶不參來. 恆居於住吉邑. 自是以後, 廢以不求. 是讚岐國造·阿波國脚咋別, 凡二族之始祖也.

---

4 소학관본에는 없는 글자이다.

5 소학관본에서는 '卯'라고 적고 있다.

三月壬午朔丙申, 天皇玉體不悆, 水土弗調. 崩于稚櫻宮[時年七十.].

冬十月己酉朔壬子, 葬百舌鳥耳原陵.

瑞齒別天皇 反正天皇

瑞齒別天皇, 去來穗別天皇同母弟也. 去來穗別天皇二年, 立爲皇太子. 天皇初生于淡路宮. 生而齒如一骨. 容姿美麗. 於是有井. 曰瑞井. 則汲之洗太子. 時多遲花, 有[6]于井中. 因爲太子名也. 多遲花者, 今虎杖花也. 故稱謂多遲比瑞齒別天皇. 六年春三月, 去來穗別天皇崩.

元年 春正月丁丑朔戊寅, 儲君卽天皇位.

秋八月甲辰朔己酉, 立大宅臣祖木事之女津野媛, 爲皇夫人. 生香火姬皇女, 圓皇女. 又, 納夫人弟弟媛, 生財皇女與高部皇子.

冬十月, 都於河內丹比. 是謂柴籬宮. 當是時, 風雨順時, 五穀成熟. 人民富饒, 天下太平.

是年也, 太歲丙午.

五年 春正月甲申朔丙午, 天皇崩于正寢.

日本書紀卷第十二

6 소학관본에는 '有'자 앞에 '落'자가 있다.

일본서기 권 제13

日本書紀 卷第十三

제19대 **웅조진간치자숙네천황**(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 **윤공천황**(允恭天皇)

제20대 **혈수천황**(穴穂天皇) **안강천황**(安康天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서기 권 제13

웅조진간치자숙녜천황(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 ; 오아사즈마와쿠고노스쿠네노스메라미코토) **윤공천황**(允恭天皇 ; 인교텐노)

웅조진간치자숙녜천황[1]은 서치별천황(瑞齒別天皇 ; 미츠하와케노스메라미코토)[2]의 동복형제이다. 천황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3] 인자하고 겸손하였다. 장년이 되어서는 중병에 걸려 거동이 불편하였다. 5년 봄 정월에 서치별천황이 죽었다(崩). 이에 군경들이 "지금 대초료천황(大鷦鷯天皇 ; 오호사자키노스메라

---

1 『古事記』에는 남천진간약자숙녜명(男淺津間若子宿禰命 ; 아사즈마와카코스쿠네노미코토)이라 기재되어 있다. 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은 제19대 천황으로서 『日本書紀』 기년에 의하면 412년에서 453년까지 재위하였다. 仁德天皇의 황자로서 어머니는 磐之媛이며, 履中, 反正天皇의 同母弟이다. 忍坂大中姬를 황후로 삼고 刑部를 정하고, 木梨輕皇子와 安康, 雄略 두 명의 천황을 낳았다. 또한 황후의 동생인 衣通郎姬를 비로 삼고 藤原宮을 세우고 藤原部를 정했다. 『古事記』에는 향년 78세로 죽었다고 하며, 능은 河內의 惠賀長枝에 두었다고 적혀 있다. 이곳은 현재 大阪府 藤井寺市 國府 부근이다. 또한 允恭天皇은 『宋書』 倭國傳에 나오는 倭의 五王 가운데 왜왕 濟로 간주되고 있다. 濟는 宋 太祖 元嘉 20년(443) 宋에 조공하고 安東將軍에 임명되었으며, 同 28년(451)에는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이 되었다. 그리고 신하 23명의 將軍, 郡太守號의 제수를 요청하여 승인받았다.

2 反正天皇을 가리킨다.

3 원문은 總角이다. 總角은 남자 17, 8세 때 冠禮 후에 머리를 좌우로 나누어 귀 위에서 둥글게 묶은 모습을 가리킨다.

미코토)[4]의 아들로는 웅조진간치자숙녜황자(雄朝津間稚子宿禰皇子 ; 오아사즈마와쿠고노스쿠네노미코)와 대초향황자(大草香皇子 ; 오호쿠사카노미코)[5]가 있다. 웅조진간치자숙녜황자는 형이며 어질고 효성스럽다[6]."고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길일을 택하여 무릎을 꿇고 천황에게 옥새를 바쳤다. 웅조진간치자숙녜황자는 "나는 불행히도 오랫동안 중병에 걸려 걸어 다닐 수도 없다. 또 나는 병을 고치려고 혼자서 은밀히 몸을 상하게 하였고[7] 병을 치료하였으나 차도가 없었다. 이 때문에 선황[8]이 '네가 병에 걸리고 멋대로 몸을 상하게 하였다. 이보다 심한 불효가 없다. 그래서는 오래 산다 하더라도 끝내 제위를 계승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꾸짖으셨다. 또 나의 형인 두 분 천황[9]이 내가 어리석다고 업신여기신 것은 군경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이다. 무릇 천하는 대기(大器)이며, 제위(帝位)는 대업이다[10]. 또 백성의 부모가 되는 것은 현명한 성인이 담당하는 일이다. 어찌 어리석은 자가 맡을 수 있겠는가. 다시 현명한 왕을 뽑아 세워야 한다. 과인[11]은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군신이 재배하며 "제위는 오래 비워둘 수 없습니다. 천명은 사양하며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왕[12]이

---

4 인덕천황을 가리킨다.

5 생모는 인덕천황의 비 日向髮長媛이다. 『日本書紀』 인덕천황 2년 3월조 大草香皇子 참조.

6 『漢書』 文帝紀의 「方今, 高帝子, 獨淮南王與大王, 大王又長, 賢聖仁孝, 聞於天下.」라는 문구에 의거한다. 『古事記』에도 「天皇初爲將所知天津日継之時, 天皇辭而詔之, 我者有一長病. 不得所知日継, 然大后始而諸卿等, 因堅奏而, 乃治天下.」라 적혀 있다.

7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과도한 교정과 극약을 처방하는 행위로 인해 신체가 상한 것을 의미한다.

8 인덕천황이다.

9 履中天皇과 反正天皇을 가리킨다.

10 『後漢書』 光武帝紀에 보이는 「夫帝位不可以久曠, 天命不可以謙拒…大王留時逆衆, 不正號位, 純恐士大夫望絶.」 참조.

11 『漢書』 文帝紀에는 「原請楚王, 計宜者, 寡人弗敢當.」이라고 적고 있다. 『日本書紀』에서 즉위전 황자의 謙辭로 사용되고 있는데, 즉위 이후가 되면 '朕'으로 바뀐다.

시류를 막고 많은 사람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제위를 바로잡지 않으시니, 신들은 백성의 희망이 끊어질까 두렵습니다[13]. 원컨대 대왕은 힘드시더라도 천황위에 오르소서."라고 청하였다. 응조진간치자숙녜황자는 "종묘사직을 받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과인은 중병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여전히 사양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군신들이 모두 "신들이 생각하건대 대왕이 황조의 종묘를 받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천하 만민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원컨대 대왕은 허락하여 주소서[14]."라고 간절히 청하였다.

원년 겨울 12월에 비(妃)인 인판대중희명(忍坂大中姬命 ; 오시사카노오오호나카츠히메노미코토)[15]이 군신이 모두 염려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걱정하여 친히 세숫물을 들고 황자 앞으로 나갔다. "대왕은 사양하시며 제위에 오르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위가 비어 이미 몇 해가 지났습니다[16]. 군신백료가 근심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바라옵건대 대왕은 여러 사람의 바람에 따라 힘드시더라도 제위에 오르십시오."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황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등을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중희명은 황송하여 물러나지 못하고 곁

12 천황호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대외적으로는 '倭王, 倭國王, 大王' 등으로 불렸다.

13 『후한서』 光武帝紀에서는 「夫帝位不可以久曠, 天命不可以謙拒…大王留時逆衆, 不正號位, 純恐士大夫望絶.」이라고 적고 있다. 曠은 위에서는 空位를 의미한다. 『日本書紀』 인덕즉위전기에도 「皇位者一日之不可空.」이라고 적고 있다.

14 『한서』 文帝紀의 「代王曰, 奉高帝宗廟重事也, 寡人不佞, 不足以稱, 願請楚王計宜者, 寡人弗敢當. 群臣皆伏固請…丞相平等皆曰, 臣伏計之, 大王奉高祖宗廟最宜稱, 雖天下諸侯萬民, 皆以爲宜, 臣等爲宗廟社稷, 計不敢忽, 願大王幸聽臣等.」이라는 문장에 의거한다.

15 『日本書紀』 安康卽位前紀에서는 忍坂大中姬命을 稚渟毛二岐皇子(응신천황의 황자)의 딸이라 기재하고 있다.

16 반정천황은 병오년(406)에 즉위하여 재위 5년인 410년 1월에 죽었다. 윤공천황은 임자년(412) 11월에 즉위하였으므로 거의 3년간이 空位 상태였다.

에서 한 시간여[17]가 지났다. 이때가 음력 12월[18]이라 바람도 매섭고 차가웠다. 대중희가 바친 그릇의 물이 넘쳐서 팔에 얼어붙었으며, 추위에 견디지 못해 죽을 지경이었다. 황자는 돌아보고 놀라 바로 부축하여 일으키고, "제위를 잇는 것은 중대사이다. 쉽게 오를 수 없다. 때문에 지금껏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군신이 청하는 바는 사리에 맞는 것이다. 어찌 끝까지 사양할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중희명이 우러러 기뻐하며 군경들에게 "황자가 군신이 청하는 바를 받아들이셨다. 지금 천황의 새부(璽符)를 바쳐야 한다[19]."고 말하였다. 군신들이 크게 기뻐하여 그날로 천황의 새부를 받들고 재배하고 바쳤다. 황자는 "군경이 모두 천하를 위해 과인을 청하였다. 과인이 어찌 감히 끝내 사양할 수 있겠는가[20]."라고 말하며 곧 제위에 올랐다[21]. 이 해의 간지는 임자[22]이다.

2년 봄 2월 병신삭 기유(14일)에 인판대중희를 세워 황후로 삼았다. 이 날 황후를 위하여 형부(刑部 ; 오사카베)[23]를 정하였다. 황후는 목리경황자(木梨輕皇子 ; 키나시노카루노미코)[24], 명형대랑황녀(名形大娘皇女 ; 나가타노오호이라츠메노히메

17 원문은 四五剋이다. '剋'은 '刻'으로, 一刻은 약 15분이다. 四五刻은 1시간가량을 의미한다.

18 원문은 季冬이다. 季冬은 겨울(10월~12월)의 끝자락을 의미하므로 음력 12월에 해당된다.

19 천황의 즉위에 즈음하여 새부를 바치는 것은 이 기사가 처음이다. 새부는 '미시루시'라고 훈독되고 있다. '미시루시'는 천황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2(3)종의 신기(神器)를 의미한다. 『日本書紀』 繼體天皇 원년 2월조에도 「大伴金村大連, 乃跪上天子鏡劍璽符再拜.」라고 기재되어 있다.

20 『한서』 文帝紀의 「寡人不敢辭, 遂卽天子位.」라는 문구가 참고가 된다.

21 일반적으로 즉위에 이어 遷都(宮) 기사가 기재되는데, 보이지 않는다. 기사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古事記』에는 「遠飛鳥宮.」이라 적혀 있다.

22 임자는 412년에 해당된다.

23 『古事記』에는 대후의 御名代로서 形部를 정했다고 적혀 있다.

24 『延喜式』 神名帳의 播磨國 賀茂郡 八座 가운데 木梨神社(현재 兵庫縣 加東郡 社町 藤田)

미코)[25], 경흑언황자(境黑彦皇子 ; 사카히노쿠로히코노미코)[26], 혈수천황[27], 경대랑황녀(輕大娘皇女 ; 카루노오호이라츠메노히메미코)[28], 팔조백언황자(八釣白彦皇子 ; 야츠리노시로히코노미코)[29], 대박뢰치무천황(大泊瀨稚武天皇 ; 오호하츠세노와카타케노스메라미코토)[30], 단마귤대랑황녀(但馬橘大娘皇女 ; 타지마노타치바나노오호이라츠메노히메미코)[31], 주견황녀(酒見皇女 ; 사카미노히메미코)[32]를 낳았다. 이전에 황후가 어머니[33]를 따라 집에 있을 때 홀로 뜰에서 놀고 있었다. 이때에 투계국조(鬪鷄國造 ; 츠게노쿠니노미야츠코)[34]가 뜰 옆에 있는 길을 따라 가고 있었다. 그는 말을 타고 울타리를 넘보며 황후에게 "뜰을 잘 만들었구나. 그대여[汝는 나비토(那鼻苔)[35]라

가 있다. 물론 본조의 木梨와 동일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輕도 大和 高市郡의 지명이다. 윤공천황 23년 3월조에는 木梨輕皇子의 立太子와 輕大娘皇女의 밀통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25 『古事記』에서는 長田大郎女(나가타노오호이라츠메)라고 적고 있다.

26 『古事記』에서는 境之黑日子王(사카히노쿠로히코노오호키미)이라고 적고 있다. 『日本書紀』 雄略卽位前紀에는 웅략천황이 境黑彦皇子를 불에 태워 죽일 때에 坂合部連贄宿禰가 시체를 안고 불에 타 죽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

27 安康天皇을 가리킨다.

28 『古事記』에는 輕大郎女(카루노오호이라츠메), 다른 이름은 衣通郎女(소토호시노이라츠메)라 적고 있으므로 양자는 동일 인물이다. 『日本書紀』에서는 衣通郎女가 윤공천황의 황후의 여동생으로 등장한다.

29 『古事記』에서는 八瓜白日子王(야츠리노시로히코노오호키미)이라고 적고 있다. 八釣는 大和國 高市郡(현재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의 지명이다.

30 웅략천황을 가리킨다.

31 『古事記』에는 橘大郎女(타치바나노오호이라츠메)라 적혀 있다. 橘은 대화국 고시군(현재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의 지명이다.

32 『古事記』에는 酒見郎女(사카미노이라츠메)라 적혀 있다. 酒見은 지명이다. 『和名類聚抄』에서는 「播磨國賀茂郡酒見鄕.」이라고 적고 있고, 『延喜式』 神名帳에는 尾張國 中島郡 卅座 중에 酒見神社(현재 愛知縣 一宮市 今伊勢町 本神戶)가 보인다.

33 『古事記』 應神天皇段에는 「百師木伊呂辨, 亦名弟比賣若比賣命.」이라고 적고 있다.

34 『日本書紀』 인덕천황 62년 시세조 鬪鷄稻置 참조.

고 읽는다.]."라고 희롱하였다. 또 "자(壓乞 ; 이데)! 안주인(戶母 ; 토지)이여. 난초 한 뿌리를 주시오."라고 말하였다[壓乞[36]은 이데(異提)라고 읽는다. 戶母는 토지(覩自)[37]라고 읽는다.]. 황후는 곧 난초 한 뿌리를 뽑아 말 탄 사람에게 주었다. 그리고 "무엇에 쓰기 위해 난초를 달라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말 탄 사람은 "산에 갈 때 날벌레(蠛)를 쫓기 위해서이다."라고 대답하였다[蠛은 마구나키(摩愚那岐)[38]라고 읽는다.]. 이때 황후는 마음속으로 말 탄 자의 언사가 무례하다고 여기고 개운치 않아 맘에 담아두고 "그대[39]여 내 잊지 않으리."라고 말하였다. 그 후에 황후가 된 해에 말을 타고 난초를 달라고 한 자를 찾아내어 이전의 죄를 들어 죽이려 하였다. 이에 난초를 달라고 하던 자는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며 "신의 죄 실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귀하신 몸이 될 것을 몰랐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황후는 사형을 면해주고 그 성(姓)[40]을 낮추어 도치(稻置)[41]라고 하였다.

3년 봄 정월 신유삭(1일)에 사신을 파견하여 뛰어난 의사를 신라에서 구하였다[42].

---

35 '나비토'는 '너, 자네'라는 의미의 단순 2인칭 표현이다.

36 '이데(壓乞)'는 타인에게 무리하게 무엇인가를 청한다는 의미이다.

37 '토누시'는 '토(戶)+누시(主)'이다. '토지'는 이를 축약한 표현이다.

38 길이 2mm 정도이며 황갈색으로 흑색 반점이 있다. 풀에서 사는데 사람의 눈 주위를 맴돌며 날아다니며 피를 빨아 마신다.

39 원문은 首이다. 오호비토(大人)가 원래 의미이다.

40 氏姓制 하에서 같은 氏를 칭하는 일족은 원칙상 같은 姓을 공유하였다. 姓은 본질적으로 황실에 대한 각 씨의 정치적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41 '이나키'는 國造가 지배하는 國보다 작은 縣이나 邑의 수장에게 부여된 관직이라 추정된다. 『日本書紀』 景行天皇 27년 10월조 稻置 참조.

42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允恭天皇 시대의 한반도 관계 기사는 이전 시기에 주된 외교 대상으로 등장한 백제와 가야 지역이 아닌 신라가 주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가을 8월에 의사가 신라에서 왔다. 그리하여 천황의 병을 고치도록 하였다. 그러자 얼마 안 되어 병이 다 나았다. 천황이 기뻐하며 의사에게 후한 상을 내리고 귀국하게 하였다[43].

4년 가을 9월 신사삭 기축(9일)에 "아주 옛날에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백성은 알맞은 곳을 얻고 성명(姓名)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제 짐이 등극한 지 4년이 되었다. 그런데 아래 위가 서로 다투고 백성이 편안하지 못하다. 어떤 경우는 잘못하여 자신의 성을 잃었으며, 어떤 경우는 일부러 높은 씨를 스스로 칭한다.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은 것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비록 짐이 현명하지 못하지만 어찌 이 착오를 바로잡지 않을 것인가. 군신은 의논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군신이 모두 "폐하께서 잘못을 들어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씨성을 정하시면, 신 등은 죽음을 무릅쓰고 받들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허락하였다. 무신(28일)에 "군경백료 및 여러 국조(國造)들이 모두 각기 어떤 이는 천황의 후예, 어떤 이는 신비스럽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가 나타나 갈라진 후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래서 하나의 씨(氏)가 번성하여 수많은 성을 이루어 그 사실 여부를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러 씨성(氏姓)인들은 목욕재계하고 각기 맹신탐탕(盟神探湯)[44] 하라."고 명하였다. 곧 미강구(味橿丘 ; 우마카시노오카)[45]의 사화호갑(辭禍戶砰 ; 고토노마

---

43 『古事記』 允恭天皇段에서는 신라가 파견한 御調를 바치는 大使 金波鎭, 漢紀武가 藥方을 잘 알고 있어 천황의 병을 고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44 신에게 맹세한 뒤 손을 열탕 등에 넣어 상처가 난 인물을 '邪'라고 규정하는 신화의 일종이다. '探湯'은 『論語』 季氏篇에는 「孔子曰, 見善如不及, 見不善如探湯.」이라 적혀 있다. 『日本書紀』 응신천황 9년 4월조 探湯, 계체천황 24년 9월조 誓湯 참조.

45 현재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에 있는 언덕이다. 『延喜式』 神名帳에는 '甘樫坐(아마카시니마스)神社四坐'가 있다. '甘, 味'는 '아마 혹은 우마'로 훈독하고 있다. 『日本書紀』 황극천황 3년 11월조의 蘇我蝦夷, 入鹿이 집을 甘檮岡에 나란히 지었다는 기사에 등장하는

가헤노사키)[46]에 탐탕의 솥(探湯瓮 ; 쿠카헤)을 두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진실한 자는 온전할 것이고 거짓인 자는 반드시 다치게 된다[47]."고 말하였다[盟神探湯은 쿠카타치(區訶陀智)라고 읽는다. 혹은 진흙을 솥에 넣고 끓여 소매를 걷고 뜨거운 물속에서 진흙을 더듬어 찾는다. 혹은 도끼를 붉게 달구어 손바닥에 놓는다.]. 이에 사람들이 각기 목면(木綿)[48] 끈을 매고 솥으로 가서 탐탕하였다. 그러자 진실을 말한 사람은 당연히 온전했고 거짓을 말한 사람은 모두 상처를 입었다. 이로 인해 고의로 속인 자는 놀라서 미리 물러나 나가지 않았다. 이후에는 씨성이 자연스럽게 정해져 다시 속이는 사람이 없었다[49].

5년 가을 7월 병자삭 기축(14일)에 지진[50]이 있었다. 이에 앞서 갈성습진언(葛城襲津彦 ; 카즈라키노소츠비코)의 손자 옥전숙녜(玉田宿禰 ; 타마타노스쿠네)[51]에게 명하여 서치별천황[52]의 빈(殯)[53]을 관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진이 있던 날

甘檮岡(우마카시노오카)과 같은 곳이다.

46 『古事記』에는 「言八十禍津日前(고토야소마가츠히노사키)」이라 적혀 있다.

47 『古事記』에서는 玖訶瓮(쿠카헤)이라고 적고 있다. 『隋書』 왜국전에서 「其俗殺人強盜及姦皆死…或置小石於沸湯中, 令所競者探之, 云理曲者即手爛. 或置蛇甕中, 令取之, 云曲者即螫手矣.」라 적혀 있는 고대 일본의 형벌에 관한 기사가 참고가 된다.

48 木綿은 닥나무의 껍질을 벗겨 그것을 찌고 물에 넣어 찢어 실로 만든 것이다. 神事를 행할 때 사용된다.

49 윤공천황의 씨성을 정한 업적은 후세에도 높이 평가되었다. 『古事記』 序에 「正姓撰氏, 勒于遠飛鳥.」라 적혀 있고, 『新撰姓氏錄』의 序에도 「允恭御宇, 萬姓紛繪, 時下詔旨, 盟神探湯, 首實者全, 昌虛者害, 自 玆厥後, 氏姓自定, 更無許人.」이라 적혀 있다. 그리고 『弘仁私記』 序의 註에도 「雄朝妻稚子宿禰天皇御宇之時, 姓氏紛謬, 尊卑難決, 因坐甘樫丘, 令探熱湯定眞僞, 今大和國高市郡有釜有是也, 後世帝王見彼覆車, 每世令獻本系藏圖書寮也.」라고 기재되어 있다.

50 『日本書紀』에 처음 나오는 지진에 관한 기사이다.

51 『日本書紀』 웅략천황 7년 시세조의 분주에 인용된 別本에는 '葛城襲津彦子의 아들'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 기사에서는 '손자'라고 적고 있다.

저녁에 미장련오습(尾張連吾襲 ; 오하리노무라지아소)[54]을 파견하여 빈소의 상황을 살피게 하였다. 이때 사람들이 모두 모여 빠진 자가 없었다. 단지 옥전숙녜만 오지 않았다. 오습이 "빈궁대부(殯宮大夫)[55] 옥전숙녜가 빈소에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곧 오습을 갈성(葛城 ; 카즈라기)[56]에 보내어 옥전숙녜를 살펴보게 하였다. 이 날 옥전숙녜는 마침 남녀를 모아놓고 주연을 베풀고 있었다. 오습은 상황을 자세히 옥전숙녜에게 알렸다. 숙녜는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오습에게 말 한 마리를 주어 예물[57]로 하였다. 그리고 곧 비밀리에 오습을 가로막고 길에서 죽인 후 무내숙녜(武內宿禰 ; 타케우치노스쿠네)[58]의 묘역으로 도망가 숨었다. 천황이 이를 듣고 옥전숙녜를 불렀다. 옥전숙녜는 의심하여 갑옷을 웃옷 속에 입고 갔는데, 갑옷의 끝이 옷 밖으로 나왔다. 천황은 상황을 확실히 알기 위해 소간전채녀(小墾田采女 ; 오하리다노우네메)[59]로 하여금

---

52 반정천황을 가리킨다.

53 殯은 고대 일본에서 행해진 葬禮儀禮로 本葬에 이를 때까지 상당 기간 棺에 遺體를 임시로 안치한 뒤 부패하고 백골이 되는 등의 물리적인 변화를 확인하여 사신의 최종적인 죽음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거나, 관을 안치하는 장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殯 기간에 유체를 안치한 건물을 '殯宮'이라 칭한다.

54 『先代舊事本記』 天孫本紀에 보이는 「十六世孫尾治坂合連…允恭天皇御世, 爲寵臣供奉…次尾治阿古連.」 참조.

55 大夫는 卿 다음가는 지위의 관인을 가리킨다. 孝德朝 무렵에는 大臣이나 左右大臣과 함께 정치에 참여한 유력자를 의미한다. 이 기사에서는 빈궁을 담당하는 역할을 띤 인물을 가리킨다.

56 옥전숙녜의 출신지이며 본거지이기도 한 곳이다.

57 원문은 禮幣이다. 『儀禮』 聘禮篇에는 「執禮幣以盡言賜禮.」라 적혀 있다.

58 『帝王編年記』 仁德記에 인용된 一書에는 「武內宿禰勦討東夷, 還來大和國葛下郡蔫, 寶破賀墓是也.」라 적혀 있다. 『大和志』에는 고시군 島屋村에 武內宿禰의 묘가 있다고 전해진다. 현재 奈良縣 御所市 大學室學宮山에 있는 全長 238m의 중기전방후원분이다. 후원부의 수혈식석실 내에 長持形石棺이 있고 무기 등의 器材埴輪 등이 출토되었다.

59 小墾田은 현재 奈良縣 高市郡 明日鄕村에 있다. 『日本書紀』 안한천황 원년 10월조에 보이는 小墾田屯倉, 흠명천황 13년 원년 10월조에 나오는 蘇我稻目의 小墾田家, 추고천황

옥전숙녜에게 술을 주게 하였다. 채녀는 분명히 옥전숙녜의 옷 속에 갑옷이 있는 것을 보고 상세하게 천황에게 아뢰었다. 천황은 군사를 준비하여 죽이려 하였다. 옥전숙녜는 몰래 도망쳐 나와 집에 숨었다. 그러나 천황이 다시 군사를 내어 옥전의 집을 둘러싸고 사로잡아 죽였다[60].

겨울 11월 갑술삭 갑신(11일)에 서치별천황[61]을 이원릉(耳原陵 ; 미미노하라노미사자키)[62]에 장사지냈다.

7년 겨울 12월 임술삭(1일)에 신실(新室)에서 연회를 열었다[63]. 천황이 친히 금(琴)을 탔으며, 황후는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그런데 춤을 다 추고 나서 예사(禮事)[64]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당시 풍속에는 연회할 때 춤추던 사람이 춤을 끝내고 나서 곧 스스로 좌장에게 말하기를 "낭자를 바칩니다[65]."라고 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천황이 황후에게 "어째서 언제나 하는 예사를 말하지 않는가."라고 말하였다. 황후가 황공해하며 다시 일어나 춤을 추었다. 그리고 춤추기를 마치고 "낭자를 바칩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곧 황후에게 "바치

11년 10월조의 小墾田宮이 소재한 곳이다. 『日本書紀』 인덕천황 40년 시세조 采女 참조.

60 玉田宿禰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는 『古事記』에는 보이지 않는다.

61 반정천황을 의미한다.

62 『古事記』 反正天皇段에서는 「御陵在毛受野(모즈노)也.」라 적혀 있다. 『延喜式』 諸陵寮式 白舌鳥耳原北陵에는 「丹比柴籬宮御宇反正天皇. 在和泉國大島郡. 兆域東西三町. 南北二町. 陵戶五烟.」이라고 적고 있다. 『日本書紀』 인덕천황 87년 10월조 白舌鳥耳野陵 참조.

63 『日本書紀』에는 천도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古事記』에서는 「坐遠飛鳥宮, 治天下也.」라고 적고 있다. 본문의 연회는 신축한 궁전에서 열린 축하연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64 『周禮』 天官篇에는 「內小臣, 掌王后之命…若有祭祀, 賓客, 喪紀, 則擯, 詔后之禮事, 相九嬪之禮事, 正內人之禮事, 徹後之俎.」라 적혀 있다.

65 『日本書紀通釋』에서는 이러한 풍속은 전에도 후에도 없던 일로 단지 이 무렵에만 나타난 것이라고 적고 있다.

는 낭자는 누구인가? 성명을 알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황후는 어쩔 수 없이 "첩의 아우로 이름은 제희(弟姬 ; 오토히메)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제희는 용모가 뛰어나 비길 데가 없었으며, 아리따운 자태가 옷을 뚫고 비쳤다. 당시 사람들은 의통랑희(衣通郎姬 ; 소토호시노이라츠메)[66]라 하였다. 천황의 마음은 의통랑희에게 가 있었다. 그래서 황후에게 진상할 것을 강요한 것이었다. 황후는 미리 알고 쉽게 예사를 말하지 않은 것이다. 천황은 기뻐서 다음날 사람을 보내어 제희를 불렀다. 이때 제희는 어머니와 함께 근강(近江 ; 오후미)의 판전(坂田 ; 사카타)[67]에 있었다. 제희는 황후의 마음을 두려워하여 나아가지 않았다. 천황은 다시 거듭하여 일곱 번이나 불렀으나 역시 굳게 사양하며 가지 않았다. 그래서 천황이 불쾌하게 여겼다. 또 다시 사인(舍人)[68] 중신오적진사주(中臣烏賊津使主 ; 나카토미노이카츠노오미)[69]에게 "황후가 바친 낭자 제희가 불러도 오지 않는다. 네가 가서 제희를 불러 데리고 오면 반드시 후한 상을 내리겠다."고 명하였다. 오적진사주는 명을 받들고 물러 나왔다. 그는 말린 밥[70]을 옷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판전에 이르렀다. 그리고 제희의 집 뜰 한가운데에 엎드려 "천

---

66 衣通郎姬는 윤공천황의 황후, 忍坂大中姬의 妹라 되어 있지만, 『古事記』에서는 忍坂大中姬의 딸 輕大郎女(다른 이름은 衣通郎女이다.)라고 적고 있다. 윤공천황이 사랑한 여인 衣通郎姬를 윤공의 태자 木梨輕太子가 범한 同母妹 輕大郎皇女와 동일인이라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기에 輕大郎女와 衣通郎姬는 다른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7 『和名類聚抄』에는 「近江國坂田郡.」이라 적혀 있다. 현재 滋賀縣 坂田郡 지역에 해당된다. 『日本書紀』 추고천황 14년 5월조에 근강국 판전군이 보인다.

68 천황이나 황족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을 칭한다. 그 직무는 호위나 신변잡사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율령제가 확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69 中臣烏賊津使主, 中臣烏賊津連은 『日本書紀』 중애천황 9년 2월조와 신공황후섭정전기에도 보인다. 『일본서기통석』은 중애, 신공조에 나오는 인물과는 시대 차이가 크다는 점과, 전자가 公卿인데 비해 후자가 舍人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양자는 동일인이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다.

70 쌀을 쪄서 말린 것으로 여행자의 휴대용 식량으로 사용되었다.

황이 어명으로 부르십니다."라고 명하였다. 제희는 "어찌 천황의 명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직 황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첩은 죽을지언정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오적진사주는 이에 "신이 이미 천황의 명을 받은 이상 반드시 모셔 가야 합니다. 만일 모셔가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극형에 처해지느니 차라리 이 뜰에서 엎드려 죽고자 할 뿐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7일이 지나도록 뜰에 엎드려 있으며 음식을 주어도 먹지 않았다. 몰래 말린 밥을 꺼내 먹었다. 제희는 자신이 황후의 질투로 인하여 이미 천황의 명에 따르지 않았으나, 계속 그리 하다간 천황은 충신을 잃게 될 것이니 이것 또한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여 오적진사주를 따라 왔다. 왜(倭 ; 야마토)의 춘일(春日 ; 카스가)에 이르러 역정(櫟井 ; 이치히웨)[71]에서 식사하였는데, 제희는 친히 사주에게 술을 주며 그 마음을 위로하였다. 사주는 그 날로 왕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제희를 왜직오자롱(倭直吾子籠 ; 야마토노아타히아고코)[72]의 집에 머무르게 하고 천황에게 복명하였다. 천황은 크게 기뻐하며 오적진사주를 칭찬하고 후하게 대우하였다. 그런데 황후의 기색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궁중에 가까이 두지 않고 따로 궁을 등원(藤原 ; 후지하라)[73]에 지어 살게 하였다. 그러다가 (황후가) 대박뢰천황(大泊瀬天皇 ; 오호하츠세노스메라미코토)[74]을 출산하는 날 저녁에 처음으로 등원궁(藤原宮 ; 후지하라노미야)에 행차하였다. 황후는 그것을 듣고 "첩이 처음으로 머리를 올린 이

---

71 현재 奈良縣 天理市 櫟本町 부근이다.

72 『日本書紀』 인덕즉위전기, 인덕천황 62년 5월조, 웅략천황 2년 12월조에도 보인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활약한 것으로 기술된 것은 『日本書紀』의 紀年 연장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73 藤原宮이 橿原市 高殿町에 있었음은 유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나오는 藤原도 高殿町 부근일 가능성이 높다.

74 웅략천황을 가리킨다.

래 후궁에서 모신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너무하십니다. 천황이시여. 지금은 첩이 출산하여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필 오늘 저녁에 등원에 가셔야 합니까."라고 원망하고, 스스로 나와 산실을 불사르고 죽으려 하였다. 천황이 듣고서 크게 놀라 "짐의 과실이다."라고 말하며 황후의 마음을 위로하며 달래었다.

8년 봄 2월에 등원에 행차하였다. 이때 몰래 의통랑희의 동정을 살폈다. 이날 저녁 의통랑희는 천황을 생각하며 홀로 있었다. 의통랑희는 천황이 와 있는 것을 모르고 노래하였다.

내 남편이 찾아올 것 같은 저녁이구나. 작은 대나무 뿌리에 거미가 둥지를 치는 모양이 오늘 저녁 확실히 보이는 걸 보니.

천황이 이 노래를 듣고 감동하여 노래하였다.

작은 무늬의 비단 끈을 풀어 헤치고, 며칠 밤이라도 자고 싶지만. 하룻밤만이라도 자자.

다음날 아침 천황이 우물곁에 있는 벚꽃을 보고 노래하였다.

벚꽃의 아름다움이여. 어차피 사랑할거라면 더 일찍 사랑했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여.

황후가 이를 듣고 또 크게 원망하였다. 그러자 의통랑희가 "첩은 언제나 왕궁 가까이에서 밤낮 할 것 없이 폐하의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황후

는 첩의 언니입니다. 첩 때문에 언제나 폐하를 원망하십니다. 또 첩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십니다. 그리하여 원하옵건대 왕궁을 떠나 먼 곳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황후의 질투하는 마음도 조금은 잦아들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곧 다시 궁전을 하내의 모정(茅渟 ; 치누)[75]에 짓고 의통랑희를 살게 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번 일근야(日根野 ; 히네노)[76]로 사냥을 나갔다.

9년 봄 2월에 모정궁(茅渟宮 ; 치누노미야)에 행차하였다.
가을 8월에 모정에 행차하였다.
겨울 10월에 모정에 행차하였다.

10년 봄 정월에 모정에 행차하였다. 이에 황후가 "첩은 조금도 제희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 자주 모정에 행차하시는 것이 백성의 괴로움이 될까 두렵습니다. 바라옵건대 행차 횟수를 줄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 후에는 행차하는 일이 드물었다.

11년 봄 3월 계묘삭 병오(4일)에 모정궁에 행차하였다. 의통랑희가 노래하였다.

항상 당신을 만날 수는 없지만, 바다의 해초가 가끔 파도에 밀려 해안으로 오듯

---

75 血沼, 血渟, 珍努, 珍, 千沼 등으로도 쓴다. 律令制下의 和泉國과 和泉郡 주변을 포함한 지역명이다. 현재 大阪灣의 동쪽, 堺市에서 岸和田市를 거쳐 泉南郡에 이르는 일대를 가리킨다.

76 日根은 和泉國의 郡名이다. 『日本書紀』 웅략천황 14년 4월조에도 보인다. 日根野는 현재 大阪府 泉佐野市 日根野 지역에 비정되기도 한다.

이 드물게라도 만나고 싶네.

이때 천황이 의통랑희에게 "이 노래를 남이 듣게는 하지 말라. 황후가 들으면 필시 크게 원망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해변의 해초를 나능리증모(奈能利曾毛 ; 나노리소모)[77]라 칭하였다. 이에 앞서 의통랑희가 등원궁에 있을 때 천황이 대반실옥련(大伴室屋連 ; 오호토모노무로야노무라지)[78]에게 "짐은 요즈음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다. 황후의 여동생이다. 짐이 각별히 사랑한다. 바라건대 그 이름을 후세까지 남기고자 하는데 어찌 하면 좋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실옥련이 명에 따라 말하자 허락하였다. 곧 여러 국조들에게 명하여 의통랑희를 위해 등원부(藤原部)[79]를 정하였다.

14년 가을 9월 계축삭 갑자(12일)에 천황이 담로도에서 사냥하였다. 그때 큰 사슴, 원숭이, 멧돼지가 이리저리 뛰어 다니며 산골짜기에 가득하였다. 이들은 불꽃처럼 일어나고 파리처럼 흩어졌지만, 종일토록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 못했다. 이에 사냥을 그만두고 점을 쳤다. 그러자 섬의 신[80]이 앙화를 내려 "짐승을 못 잡게 한 것은 내 뜻이다[81]. 적석(赤石 ; 아카시)[82]의 바다 밑에 진주[83]

---

77 '나노리소'는 '勿(나)告(노리)소'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의미이다.

78 『新撰姓氏錄』 大和國 神別 高志連條에는 「天押日命十一世孫大伴室屋大連公之後也.」라 적혀 있고, 左京 神別 佐伯宿禰條에는 「大伴宿禰同祖, 道臣命七世孫室屋大連公之後也.」라 적혀 있다. 『일본삼대실록』 貞觀 3년 11월조에도 「室屋大連公之第一男…允恭天皇御世, 始任讚岐國造.」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윤공천황이라 특기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79 의통랑희를 위해 藤原宮을 축조했고 그 이름이 후세에 전해지게 하고자 '藤原部'를 새롭게 정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御名代'의 部에 해당된다.

80 『延喜式』 神名帳의 淡路國十三座 가운데 「淡路國伊佐奈伎(이사나키)神社」의 祭神을 가리키는 것일 듯하다.

81 신이 나타나 재앙의 이유를 말하는 것은 『日本書紀』 숭신천황 7년 2월조의 「天皇, 勿復爲愁, 國之不治, 是吾意也.」라는 사료에도 보인다.

가 있다. 그 진주로 나에게 제사지내면 짐승을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다시 곳곳의 해인[84]을 모아 적석의 바다 밑을 탐색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다가 깊어 바닥까지 들어갈 수 없었다. 그때 단 한 사람의 해인이 있었다. 이름은 남협기(男狹磯 ; 오사시)라 한다. 이 사람은 아파국(阿波國 ; 아하노쿠니) 장읍(長邑 ; 나가노무라)[85] 사람으로, 어떤 해인보다 뛰어났다. 그는 허리에 새끼줄을 묶어 바다 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금 있다 나와서 "바다 밑에 커다란 전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빛이 납니다."라고 말하였다. 여러 사람이 모두 "섬의 신이 원하는 구슬이 아마 그 전복의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남협기는 또 다시 들어가서 큰 전복을 찾아서 안고 올라왔다. 그러나 곧 숨이 끊어져 바다 위에서 죽었다. 새끼줄을 내려 바다의 깊이를 재어 보니 60길이었다. 전복의 배를 가르니 정말로 진주가 뱃속에 있었다. 그 크기는 복숭아만하였다. 이에 섬의 신에게 제사지내고 사냥하였더니 많은 짐승을 잡을 수 있었다. 단지 남협기가 바다에 들어가 죽은 것을 슬퍼하여 묘를 만들어 후하게 장사지냈다. 그 묘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

23년 봄 3월 갑오삭 경자(7일)에 목리경황자[86]를 세워 태자로 삼았다. 용

---

82 『播磨國風土記』에도 「赤石郡」이 보인다. 『續日本紀』나 『和名類聚抄』에는 「赤石郡」, 平城宮跡出土木簡에는 「明郡」이라 적혀 있다.

83 『和名類聚抄』 玉類에는 「珠, 白虎通云, 海出明珠[日本紀私記云, 眞珠, 之良太麻.].」라 적혀 있다.

84 원문은 白水郎이다. 『和名類聚抄』 漁獵類에서는 「白水郎, 辨色入成云, 白水郎[和名阿萬(아마).]」이라고 적고 있다. 백수랑은 원래 중국의 지명인 白水와 郎(남자)을 결합한 말로, 백수 지역에서 해상교통을 담당한 어부를 의미한다.

85 『先代舊事本紀』에서는 阿波國에 粟國造, 長國造가 보이므로 장읍은 장국조가 지배하는 長國의 중심읍락이라고 적고 있다. 「平城宮跡出土木簡」에서는 那賀郡을 長郡이라 기재하고 있다. 현재 德島縣 那賀郡 那賀川町 주변 해안에 비정되고 있다.

86 황후 인판대중희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다. 『古事記』 윤공천황단에는 輕大郎女를 간음하

모가 수려하여 보는 사람이 저절로 감탄하였다. 동복 누이 경대랑황녀[87] 또한 모습이 곱고 아름다웠다. 태자는 항상 대랑황녀와 결혼하려 마음먹고 있었지만 죄[88] 짓는 것을 두려워하여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헛되이 죽기보다는 벌을 받더라도 어찌 참고만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밀통하였다. 그러자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렸다. 이에 노래하였다.

산전을 일구고 높은 산에 지하수로를 만들 듯이 내가 남몰래 울며 그리워하는 처여. 내가 울음을 참으며 그리워하는 처여. 어젯밤에는 안심하고 살을 맞대었구나.

24년 여름 6월에 천황이 드시는 국이 얼어서 얼음이 되었다. 천황이 이상히 여겨 그 연유를 점치게 하였다. 점치는 사람이 "내부에 문란함이 있습니다. 아마 근친상간이 있는 듯합니다[89]."라고 말하였다. 이때 어떤 사람이 "목리경태자가 친누이 경대랑황녀를 범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추궁하여 묻자 말한 바가 모두 사실이었다. 태자는 제위를 이을 사람이었으므로 형을 가할 수 없었다. 이에 대랑황녀를 이예(伊豫 ; 이요)[90]로 유배 보냈다. 이때 태자가 노래하였다.

여 백관이나 천하인들이 경태자에게 등을 돌렸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87 황후 인판대중희가 낳은 딸이다.

88 당시 同父異母의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허가되었지만, 같은 어머니를 둔 남녀 간의 결혼은 허락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89 『唐律』 名例篇에는 「十曰內乱. 謂姦小功以上親, 父祖妾及與和者內亂.」이라고 적고 있다.

90 中流는 律令制 상의 형벌인 流罪의 일종이다. 近流는 越前이나 安藝 등지, 中流는 信濃이나 伊豫 등지, 遠流는 伊豆, 安房, 常陸, 佐渡, 隱岐, 土佐, 薩摩 등지로의 유배형을 의미한다.

대군을 섬으로 유배보내더라도, 배에 탄 사람 수가 너무 많아 타지 못하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내 자리를 청결히 하기를. 말로는 자리라고 했지만 나의 처여, 그대도 청결히 하기를.

또 노래하였다.

경양자(輕嬢子)여. 크게 소리내어 울면 다른 사람들이 알 것이므로, 나는 번사산의 산비둘기처럼 숨죽여 울고 있네.

42년 봄 정월 을해삭 무자(14일)에 천황이 죽었다(崩)[91]. 그때 나이 약간이었다[92]. 신라가 천황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고 슬퍼하며 조(調)를 실은 배 80척[93]과 각종 악인(樂人) 80명을 바쳤다. 이들은 대마에 머물면서 크게 곡하였으며, 축자[94]에 도착하여 또 크게 곡을 했다. 그리고 난파진(難波津 ; 나니하노츠)[95]에 도착하자 모두 소복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조물(調物)을 받쳐 들고, 또 각종 악기를 울리며 난파에서 왕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춤추며 노래하였다[96]. 마침내 빈궁(殯宮)에 들어갔다.

---

91 『古事記』에는 「甲午年正月十五日崩.」이라 적혀 있다. 甲午는 『日本書紀』에서는 安康天皇 원년에 해당되어 하루의 차이가 난다. 안강천황 원년 2월조에는 「是年, 太歲甲午.」라 적혀 있다.

92 나이를 이야기할 경우, 若干은 20세 전후의 젊은이를 칭하는 것이다. 『고사기』에는 「漆拾捌歲.」라고 적고 있다. 『日本書紀』와 『古事記』 모두 允恭天皇이 78세에 죽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만큼 若干이라 묘사한 것은 잘못된 기록이다.

93 많은 숫자를 의미한다. 『日本書紀』 인덕천황 17년 9월조 80척 참조.

94 축자의 儺大津으로 현재 博多를 의미한다.

95 『日本書紀』 인덕천황 62년 5월조 難波津 참조.

96 조문사가 倭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묘사는 8세기대에 외국의 조문사가 對馬에서 倭京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참조하여 『日本書紀』를 편찬할 때 첨가 서술한 것으로 이해된다.

겨울 11월에 신라 조문사 등이 상례를 끝내자 돌아갔다. 신라인은 늘 왕경 부근에 있던 이성산(耳成山 ; 미미나시야마), 무방산(畝傍山 ; 우네비야마)[97]을 좋아하였다. 그래서 금인판(琴引坂 ; 코토히키노사카)[98]에 이르러 돌아보며 "우니미파야(宇泥咩巴椰 ; 우네메하야) 미미파야(彌彌巴椰 ; 미미하야)"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아직 이 나라 말[99]을 익히지 못해서였다. 이는 무방산을 잘못 말하여 우네메라 하고, 이성산을 미미라고 잘못 말한 것뿐이었다. 이때 왜사부(倭飼部 ; 야마토노우마카히베)[100]가 신라인을 따라가다가 이 말을 듣고 의심하여 신라인이 채녀(采女 ; 우네메)[101]와 통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곧 돌아와서 대박뢰황자(大泊瀨皇子 ; 오호하츠세노미코)[102]에게 말하였다. 황자는 곧 신라의 사신을 모두 가두고 추문(推問)하였다. 이때 신라의 사신이 "채녀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왕경 근방의 두 산을 좋아하여 말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윽고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고 모두 용서하였다. 이에 신라인이 크게 원망하여 공상하는 물품의 종류 및 배의 수를 더욱 줄였다.

겨울 10월[103] 경오삭 기묘(10일)에 천황을 하내의 장야원릉(長野原陵 ; 나가노

---

97 大和의 三山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奈良縣 橿原市 木原에 위치하며 삼산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다. 大和의 三山은 현재 奈良縣의 奈良盆地 南部, 飛鳥 주변에 솟아 있는 세 개의 산을 가리킨다.

98 琴彈原(현재 奈良縣 御所市 富田에 있는 白鳥陵 주변)은 日本武尊의 陵이 조영되었다는 琴彈原과 같은 지역이다. 『日本書紀』 경행천황 40년 시세조 琴彈原 참조.

99 원문은 '風俗之言語'이다.

100 飼部를 지배하는 伴造는 飼造인데, 『日本書紀』 천무천황 12년 9월조에 倭馬飼造와 川內馬飼造가 連姓을 받았다. 飼部(馬飼部)는 주로 대화와 하내에 소재한 것으로 간주된다.

101 『養老令』 後宮職員令 氏女采女條에는 郡의 少領 이상의 자매 내지 딸 중에서 용모가 단정한 자를 선발하여 後宮에 봉사하게 하였다고 적고 있다.

102 윤공천황의 황자이며 뒤에 웅략천황이 된다.

103 冬十月條는 앞에 기재된 同十一月條 앞에 기재해야 할 부분이다.

노하라노미사자키)[104]에 장사지냈다.

혈수천황(穴穗天皇 ; 아나호노스메라미코토) **안강천황**(安康天皇 ; 안코우텐노)

혈수천황[105]은 응조진간치자숙녜천황(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 ; 오아사즈마와쿠고노스메라미코토)[106]의 둘째 아들이다[또는 셋째 아들이라고도 한다.].[107] 어머니는 인판대중희명(忍坂大中姬命 ; 오시사카노오호나카츠히메노미코토)[108]이라 한다. 치정모이기황자(稚渟毛二岐皇子 ; 와카누케후타마타노미코)의 딸이다. 42년[109] 봄 정월 천황이 죽었다(崩).

겨울 10월에 장례를 마쳤다. 이때 태자[110]가 포학한 짓을 하고 부녀를 간음

---

104 『古事記』에는 「御陵在河內之惠賀長枝也.」라고 적고 있다. 『延喜式』 諸陵寮式에는 「惠我長野北陵.」이라 적고 있고, 그 註에 「遠飛鳥宮御宇允恭天皇. 在河內國志紀郡. 兆域東西三町. 南北二町. 陵戶一烟, 守戶四烟.」이라고 기술하였다. 『陵墓要覽』에는 「允恭天皇, 惠我長野北陵, 大阪府藤井寺市國府一丁目.」이라 적고 있다.

105 穴穗는 大和의 지명이다. 이 천황의 궁은 石上穴穗宮이라 부른다. 『宋書』에는 태조 원가 28년(451)에 濟의 授爵과 濟가 죽고 世子 興이 사신을 파견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日本書紀』에 외교기사는 보이지 않지만, 왜의 오왕 가운데 興에 비정되어 5세기 중엽에 재위했다고 간주되는 천황이다. 『日本書紀』에 보이는 천황으로 화풍시호는 穴穗天皇이다. 윤공천황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忍坂大中姬이다. 同母兄인 太子 木梨輕皇子를 죽이고 즉위하였다. 石上穴穗宮에 도읍하여 根使主의 참언을 믿고 大草香皇子(인덕천황의 황자)를 살해하고 그의 처인 中蒂姬(履中天皇의 황녀)를 황후로 삼았다. 대초향황자와 姬의 아들 眉輪王을 키웠지만, 친부를 살해한 사실을 알게 된 미륜왕에게 살해된다.

106 윤공천황을 가리킨다.

107 『古事記』와 『日本書紀』는 모두 윤공천황의 둘째 아들은 境黑彦皇子라 기술하고 있기에, 분주로 인용된 셋째 아들이라는 내용이 타당한 듯하다.

108 『日本書紀』 윤공천황 元年 十月有二月條 忍坂大中姬命 참조.

109 『日本書紀』 윤공천황 42년 정월 을해삭 무자조 사망(崩) 기사 참조.

110 木梨輕皇子를 가리킨다.

하였다[111]. 이에 국인이 비방하였으며, 군신이 따르지 않았다. 모두 혈수황자를 따랐다. 이에 태자는 혈수황자를 습격하려고 비밀리에 군사를 준비하였다. 혈수황자도 또한 군사를 일으켜 싸우려 하였다. 그리하여 혈수괄전(穴穗括箭), 경괄전(輕括箭)이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다[112]. 그때 태자는 군신이 따르지 않고 백성도 등을 돌리며 화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곧 궁을 나와 물부대전숙녜(物部大前宿禰 ; 모노노베노오호마에노스쿠네)[113]의 집에 숨었다. 혈수황자는 이를 듣고 곧 에워쌌다. 대전숙녜는 문으로 나와 마중하였다. 이에 혈수황자가 노래하였다.

대전소전숙녜의 집 금문(金門) 그늘에 이렇게 모두 모여 비를 피하자.

대전숙녜가 답하여 노래하였다.

궁인(宮人)의 하의를 묶는 끈에 매단 작은 방울이 떨어졌다고 궁인들이 동요하고 있구나. 마을 사람들이여. 결코 경거망동하지 말거라.

그리고 황자에게 "바라건대 태자를 죽이지는 마시옵소서. 신이 도모하는 바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태자는 대전숙녜의 집에서 자살하

---

111 『日本書紀』와 『古事記』에는 동모매 輕大郎女(輕大娘)와 간통한 것을 가리킨다.

112 화살의 이름에 혈수황자와 경태자를 결부시킨 것이 최초라는 의미일 것이다. 『古事記』에 의하면 輕括箭은 銅鏃으로 만든 화살이었다. 이것과 비교된 穴穗括箭은 철촉으로 만든 화살로 추정된다. 가벼운 화살은 동촉으로 만든 輕括箭(가루야)으로 멀리 날아가지만 살상력이 약하므로 輕太子에 비유한 것이고, 穴穗括箭(아나호야)은 철촉으로 된 화살이므로 동촉보다 강하다는 의미로 혈수황자에 비유한 것이다.

113 『日本書紀』 履中卽位前紀에는 仲皇子의 반란 사건 때 履中天皇을 보필한 인물로 기재되어 있다.

였다[114][어떤 책(一云)에서는 이예국(伊豫國 ; 이요노쿠니)[115]에 유배되었다 한다.].

12월 기사삭 임오(14일)에 혈수황자가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황후[116]를 높여 황태후라 하였으며, 도읍을 석상(石上 ; 이소노카미)[117]으로 옮겼다. 이를 가리켜 혈수궁(穴穗宮 ; 아나호노미야)이라 한다. 이때 대박뢰황자(大泊瀨皇子 ; 오호하츠세노미코)[118]는 서치별천황(瑞齒別天皇 ; 미즈하와케노스메라미코토)[119]의 딸들[120][딸의 이름은 어떤 기록에도 보이지 않는다.]과 혼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황녀들은 모두 "군주는 항상 거칠고 강하십니다.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면 아침에 본 사람이 저녁에는 죽어 있습니다. 또 저녁에 본 사람이 아침에 죽어 있습니다. 지금 첩들은 얼굴이 빼어나지도 않습니다. 또한 사람됨이 졸렬합니다. 만일 태도나 말이 조금이라도 왕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어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명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끝내 피하고 승낙하지 않았다.

---

114 이 기사에서는 태자가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古事記』 윤공천황단에는 大前小前宿禰가 태자를 체포하여 혈수황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적고 있다. 분주에는 伊豫의 온천으로 유배되었다고 적혀 있어 분주의 내용은 『古事記』와 유사하다.

115 현재 愛媛縣 松山市의 道後(도고) 온천에 해당된다. 流罪는 수도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원, 중, 근류로 분류된다. 『延喜式』 刑部省式에 따르면 '伊豫'는 中流에 속한다.

116 윤공천황의 황후인 忍坂大中姬命을 가리킨다.

117 『帝王編年記』에서는 「石上穴穗宮[大和國山邊郡. 石上左大臣家西南. 吉川南地是也.]」이라 적혀 있다. 『大和志』에는 山邊郡穴穗宮이 田村(현재 奈良縣 天理市 田町)에 있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118 뒤에 웅략천황이 된다. 윤공천황의 다섯 번째 황자이다. 아래에는 대박뢰황자가 숙부인 반정천황의 딸들을 처로 삼으려 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古事記』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119 반정천황을 가리킨다. 履中天皇의 同母弟이며 모두 인덕천황의 황자이다.

120 香火姬皇女, 圓皇女, 財皇女를 가리킨다. 『古事記』 반정천황단에는 이외에 多訶辨郎女가 기재되어 있다.

원년 봄 2월 무진삭(1일)에 천황이 대박뢰황자를 위하여 대초향황자(大草香皇子 ; 오호쿠사카노미코)[121]의 누이 번사황녀(幡梭皇女 ; 하타비노히메미코)[122]를 데려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판본신(坂本臣 ; 사카모토노오미)[123]의 선조 근사주(根使主 ; 네노오미)[124]를 파견하여 대초향황자에게 "부디 번사황녀를 대박뢰황자와 혼인하게 하십시오."라고 청하였다. 대초향황자는 "저는 요즈음 중병이 걸려 낫지 않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물건을 배에 싣고 물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수명에 따른 것입니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다만 누이 번사황녀가 혼자 남을 것이 걱정되어 쉽게 죽을 수 없을 따름입니다. 지금 폐하는 그 추한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행채(荇菜)[125]의 숫자를 채우려 하십니다. 이는 몹시 큰 은혜입니다. 어찌 명하신 황감한 말씀을 사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충정을 드러내 보이고자 제가 가진 보물인 압목주만(押木珠縵)[126][또는 입만(立縵)이라고 한다. 또 반목만(磐木縵)이라고도 한다.]을 받들어, 사신 근사주에게 딸

---

121 인덕천황의 황자이며 생모는 日向髮長媛이다. 『古事記』는 大日下王(오호쿠사카노오호키미)이라고 적고 있다.

122 『日本書紀』 인덕천황 2년 3월조 幡梭皇女 참조.

123 坂本臣의 坂本은 지명이다. 현재 大阪府 和泉市 坂本町 부근이다. 『日本書紀』 天武天皇 13년 11월에 '朝臣'으로 改姓하였다. 『新撰姓氏錄』 攝津國 皇別에서는 「坂本臣, 紀朝臣同祖, 彦太忍信命孫武內宿禰命之後也.」, 同 和泉國 皇別에서는 「坂本朝臣, 紀朝臣同祖, 建內宿禰男紀角宿禰之後也, 男白城宿禰三世孫建日臣, 因居賜姓坂本臣.」, 同 左京 皇別에는 「坂本朝臣, 紀朝臣同祖, 紀角宿禰男白城宿禰之後也.」라고 기재되어 있다.

124 『古事記』에는 根臣(네노오미)이라 한다.

125 荇菜는 원래 '아사신'이라 칭하는 수초의 이름인데 의미가 전도되어 여성을 가리킨다. 『毛詩』 周南의 關雎에 「參差荇菜, 左右流之, 窈窕淑女, 寤寐求之.」라 적혀 있듯이, 행채는 요조숙녀, 즉 여성을 의미한다.

126 押木珠縵은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이 있는 금(동)관으로, 여기에 옥을 박아 장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관은 경주의 금관총이나 천마총, 서봉총을 비롯한 신라 고분의 유물에 많은 예가 있다. 일본에서는 藤ノ木古墳(현재 奈良縣 生駒郡 斑鳩町)에서 출토된 금동제관이 나뭇가지형의 立飾을 가지고 있다

려 헌상합니다. 원컨대 비천하더라도 받으시고 증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근사주는 압목주만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 몰래 자신의 보물로 삼으려 하였다. 곧 거짓으로 천황에게 "대초향황자는 명을 받들지 아니하고 신에게 '동족[127]이긴 하지만 어찌 내 누이를 처로 삼게 할 수 있겠는가[128].' 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만(縵)을 자신이 지니고 바치지 않았다. 이에 천황은 근사주의 참언을 믿고 곧 크게 노여워하며 군사를 일으켜 대초향황자의 집을 포위하고 그를 죽였다. 이때 난파길사(難波吉師 ; 나니하노키시)[129] 일향문(日香蚊 ; 히카카)[130] 부자는 모두 대초향황자를 섬기고 있었다. 이들은 함께 주군이 죄 없이 죽은 것을 슬퍼하여 아버지는 왕[131]의 목을 안고, 두 아들은 각각 왕의 발을 잡고서 "내 주군이 죄 없이 돌아가신 것이 슬프구나. 우리 부자 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섬기고, 돌아가신 때에는 따라서 죽지 않으면 신하라 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곧 스스로 목을 베어 황자의 시신 곁에서 죽으니 군사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천황은 대초향황자의 처 중체희(中蒂姬 ; 나카시히메)[132]를 불러 궁중에 두었다. 그리고 비로 삼았다. 또 번사황녀

---

127 번사황녀의 아버지는 인덕천황이고, 대박뢰황자의 아버지는 윤공천황이다. 모두 아버지가 천황이므로 同族이라 표현한 것이다.

128 『古事記』에는 「己妹乎, 爲等族之下席.」이라 적혀 있다. 下席은 처가 되는 것을 비유한 표현이다.

129 難波吉師는 難波吉士라고도 칭하는 이른바 '도래계씨족'이다. 관계 씨족으로는 '難波吉士, 難波忌寸, 難波, 難波連'을 들 수 있다. 난파는 難波國(현재 大阪府의 일부)의 국명에 기초하며, '길사'는 고대 한반도에서 사용된 수장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한다. 『日本書紀』에 난파길사라 기재된 인물은 14명인데, 대부분이 대외관계 직무를 담당한 존재로 기술되어 있다.

130 『日本書紀』 웅략천황 14년 4월조에는 日香香(히카카)이라고 적고 있다.

131 대초향황자를 가리킨다.

132 『日本書紀』 履中天皇 원년 7월조에는 「次妃幡梭皇女, 生中磯皇女.」라고 적혀 있다. 이 번사황녀는 응신천황의 황녀로 대초향황자의 누이인 번사황녀와는 다른 사람이다.

를 불러 대박뢰황자[133]와 짝을 지었다. 이 해의 간지는 갑오이다.

2년 봄 정월 계사삭 기유(17일)에 중체희명을 세워 황후로 삼았다. 천황은 황후를 매우 총애하였다. 먼저 중체희명은 대초향황자와의 사이에서 미륜왕(眉輪王 ; 마요와노오호키미)[134]을 낳았다. 그는 어머니로 인하여 죄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궁중에서 살았다.

3년 가을 8월 갑신삭 임진(9일)에 천황은 미륜왕[135]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136][그 일은 대박뢰천황기(大泊瀨天皇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3년 뒤에 관원복견릉(菅原伏見陵 ; 스가하라노후시미노미사자키)[137]에 장사지냈다.

일본서기 권 제13

---

133 뒤에 웅략천황이다.

134 『古事記』에서는 目弱王(마요와노오호키미)이라고 적고 있다.

135 안강천황은 미륜왕에게 살해당하는데, 이 弑逆에 관한 내용은 『日本書紀』 雄略卽位前紀 및 『古事記』 安康天皇段에 자세히 적혀 있다.

136 『古事記』는 「伍拾陸歲.」에 세상을 뜬 것으로 되어 있다.

137 『古事記』에서는 御陵이 「菅原之伏見陵岡」에 있다고 적고 있다. 『延喜式』 諸陵寮式에는 「菅原伏見西陵[石上穴穗宮御宇安康天皇. 在大和國添下郡. 兆域東西二町. 南北三町. 守戶三烟.]」이라고 적고 있다. 『陵墓要覽』에서는 「安康天皇, 菅原伏見西陵, 奈良縣奈良市寶來四丁目.」이라 기재하고 있다.

日本書紀 卷第十三

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 允恭天皇

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 瑞齒別天皇同母弟也. 天皇自岐嶷至於總角, 仁惠儉下. 及壯篤病, 容止不便. 五[1]年春正月, 瑞齒別天皇崩. 爰群卿議之曰, 方今, 大鷦鷯天皇之子, 雄朝津間稚子宿禰皇子, 與大草香皇子. 然雄朝津間稚子宿禰皇子, 長之仁孝. 卽選吉日, 跪上天皇之璽. 雄朝津間稚子宿禰皇子謝曰, 我之[2]不天, 久離篤疾, 不能步行. 且我旣欲除病, 獨非奏言, 而密破身治病, 猶勿差. 由是, 先皇責之曰, 汝雖患病, 縱破身. 不孝孰甚於玆矣. 其長生之, 遂不得繼業. 亦我兄二天皇, 愚我而輕之. 群卿共所知. 夫天下者大器也. 帝位者鴻業也. 且民之父母, 斯則賢聖[3]之職. 豈下愚之任乎. 更選賢王宜立矣. 寡人弗敢當. 群臣再拜言, 夫帝位不可以久曠. 天命不可以謙距. 今大王留時逆衆, 不正號位, 臣等恐, 百姓望絶也. 願大王雖勞, 猶卽天皇位. 雄朝津間稚子宿禰皇子曰, 奉宗廟社稷重事也. 寡人篤疾, 不足以稱. 猶辭而不聽. 於是, 群臣皆固請曰, 臣伏計之, 大王奉皇祖宗廟, 最宜稱. 雖天下萬民, 皆以爲宜. 願大王聽之.

---

1 소학관본에서는 '六'이라고 적고 있다.

2 소학관본에는 '之'는 없는 자이다.

3 소학관본에서는 '聖賢'이라고 적고 있다.

元年 冬十有二月, 妃忍坂大中姬命, 苦群臣之憂吟, 而親執洗手水, 進于皇子前. 仍啓之曰, 大王辭而不卽位. 位空之, 旣經年月. 群臣百寮, 愁之不知所爲. 願大王從群望, 强卽帝位. 然皇子不欲聽, 而背居不言. 於是, 大中姬命惶之, 不知退而侍之, 經四五剋. 當于此時, 季冬之節, 風亦烈寒. 大中姬所捧鋺水, 溢而腕凝. 不堪寒以將死. 皇子顧之驚. 則扶起謂之曰, 嗣位重事. 不得輒就. 是以, 於今不從. 然今群臣之請, 事理灼然. 何遂謝耶. 爰大中姬命仰歡, 則謂群卿曰, 皇子將聽群臣之請. 今當上天皇璽符. 於是, 群臣大喜, 卽日, 捧天皇之璽符, 再拜上焉. 皇子曰, 群卿共爲天下請寡人. 寡人何敢遂辭, 乃卽帝位. 是歲[4]也, 太歲壬子.

二年 春二月丙申朔己酉, 立忍坂大中姬爲皇后. 是日, 爲皇后定刑部. 皇后生木梨輕皇子·名形大娘皇女·境黑彦皇子·穴穗天皇·輕大娘皇女·八釣白彦皇子·大泊瀨稚武天皇·但馬橘大娘皇女·酒見皇女. 初皇后隨母在家, 獨遊苑中. 時鬪雞國造, 從傍徑行之. 乘馬而莅籬, 謂皇后, 嘲之曰, 能作蘭[5]乎, 汝者也[汝, 此云那鼻苔也]. 且曰, 壓乞, 戶母, 其蘭一莖焉[壓乞, 此云異提. 戶母, 此云覩自]. 皇后則採一根蘭, 與於乘馬者. 因以, 問曰, 何用求蘭耶. 乘馬者對曰, 行山撥蟻也[蟻, 此云摩愚那岐]. 時皇后結之於意裏, 乘馬者辭無禮, 卽謂之曰, 首也, 余不忘矣. 是後, 皇后登祚之年, 覓乘馬乞蘭者, 而數昔日之罪以欲殺. 爰乞蘭者, 頻搶地叩頭曰, 臣之罪實當死. 然當其日, 不知貴者. 於是, 皇后赦死刑, 貶其姓謂稻置.

三年 春正月辛酉朔, 遣使求良醫於新羅.

秋八月, 醫至自新羅. 則令治天皇病. 未經幾時, 病已差也. 天皇歡之, 厚賞

---

4 소학관본에서는 '年'이라고 적고 있다.

5 소학관본에서는 '園'이라고 적고 있다.

醫以歸于國.

四年 秋九月辛巳朔己丑, 詔曰, 上古之治, 人民得所, 姓名勿錯. 今朕踐祚, 於玆四年矣. 上下相爭, 百姓不安. 或誤失己姓. 或故認高氏. 其不至於治者, 蓋由是也. 朕雖不賢, 豈非正其錯乎. 群臣議定奏之. 群臣皆言, 陛下擧失正枉, 而定氏姓者, 臣等冒死, 奏可. 戊申, 詔曰, 群卿百寮及諸國造等皆各言, 或帝皇之裔, 或異之天降. 然三才顯分以來, 多歷萬歲. 是以, 一氏蕃息, 更爲萬姓. 難知其實. 故諸氏姓人等, 沐浴齊戒, 各爲盟神探湯. 則於味橿丘之辭禍戶畔, 坐探湯瓮, 而引諸人令赴曰, 得實則全. 僞者必害[盟神探湯, 此云區訶陀智. 或泥納釜煮沸, 攘手探湯泥[6]. 或燒斧火色, 置于掌]. 於是, 諸人各著木綿手繦, 而赴釜探湯. 則得實者自全, 不得實者皆傷. 是以, 故詐者愕然之, 豫[7]退無進. 自是之後, 氏姓自定, 更無詐人.

五年 秋七月丙子朔己丑, 地震. 先是, 命葛城襲津彦之孫玉田宿禰, 主瑞齒別天皇之殯. 則當地震夕, 遣尾張連吾襲, 察殯宮之消息. 時諸人悉聚無闕. 唯玉田宿禰無之也. 吾襲奏言, 殯宮大夫玉田宿禰, 非見殯所. 則亦遣吾襲於葛城, 令視玉田宿禰. 是日, 玉田宿禰, 方集男女, 而酒宴焉. 吾襲擧狀, 具告玉田宿禰. 宿禰則畏有事, 以馬一匹, 授吾襲爲禮幣. 乃密遮吾襲, 而殺于道路. 卽[8]逃隱武內宿禰之墓域[9]. 天皇聞之, 喚玉田宿禰. 玉田[10]宿禰疑之, 甲服襖中, 而參赴. 甲端自衣中出之. 天皇分明欲知其狀, 乃令小墾田采女, 賜酒于玉田宿禰.

---

6 소학관본에서는 '埿'라고 적고 있다.

7 소학관본에서는 '予'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8 소학관본에서는 '因以'라고 적고 있다.

9 소학관본에서는 '城'이라고 적고 있다.

10 소학관본에는 '玉田' 두 글자가 없다.

爰采女分明瞻衣中有鎧, 而具奏于天皇. 天皇設兵將殺. 玉田宿禰, 乃密逃出而匿家. 天皇更發卒, 圍玉田家, 而捕之乃誅.

冬十有一月甲戌朔甲申, 葬瑞齒別天皇于耳原陵.

七年 冬十二月壬戌朔, 讌于新室. 天皇親之撫琴. 皇后起儛. 儛旣終而, 不言禮事. 當時風俗, 於宴會, 儛者儛終, 則自對座長曰, 奉娘子也. 時天皇謂皇后曰, 何失常禮也. 皇后惶之, 復起儛. 儛竟言, 奉娘子. 天皇卽問皇后曰, 所奉娘子者誰也. 欲知姓字. 皇后不獲已而奏言, 妾弟, 名弟姬焉. 弟姬容姿絶妙無比. 其艷色徹衣而晃之. 是以, 時人號曰衣通郎姬也. 天皇之志, 存于衣通郎姬. 故强皇后而令進. 皇后知之, 不輒言禮事. 爰天皇歡喜, 則明日, 遣使者喚弟姬. 時弟姬隨母, 以在於近江坂田. 弟姬畏皇后之情, 而不參向. 又重七喚. 猶固辭以不至. 於是, 天皇不悅. 而復勅一舍人中臣烏賊津使主曰, 皇后所進之娘子弟姬, 喚而不來. 汝自往之, 召將弟姬以來, 必敦賞矣. 爰烏賊津使主, 承命退之. 糒裹裠中, 到坂田. 伏于弟姬庭中言, 天皇命以召之. 弟姬對曰, 豈非懼天皇之命. 唯不欲傷皇后之志耳. 妾雖身亡, 不參赴. 時烏賊津使主對言, 臣旣被天皇命, 必召率來矣. 若不將來必罪之. 故返被極刑, 寧伏庭而死耳. 仍經七日, 伏於庭中. 與飮食而不飡[11]. 密食懷中之糒. 於是, 弟姬以爲, 妾因皇后之嫉, 旣拒天皇命. 且亡君之忠臣, 是亦妾罪, 則從烏賊津使主而來之. 到倭春日, 食于櫟井上. 弟姬親賜酒于使主, 慰其意. 使主, 卽日, 至京. 留弟姬於倭直吾子籠之家, 復命天皇. 天皇大歡之, 美烏賊津使主, 而敦寵焉. 然皇后之色不平. 是以, 勿近宮中, 則別構殿屋於藤原而居也. 適産大泊瀨天皇之夕, 天皇始幸藤原宮. 皇后聞之恨曰, 妾初自結髮, 陪於後宮, 旣經多年. 甚哉, 天皇也, 今妾産之, 死生相半. 何故, 當今夕, 必幸藤原, 乃自出之, 燒産殿而將死. 天皇聞之, 大驚曰, 朕過也,

11 소학관본에서는 '飡'이라고 적고 있다.

因慰喩皇后之意焉.

八年 春二月, 幸于藤原. 密察衣通郎姬之消息. 是夕, 衣通郎姬, 戀天皇而獨居. 其不知天皇之臨, 而歌曰, 和餓勢故餓, 勾倍枳豫[12]臂奈利, 佐瑳餓泥能, 區茂能於虛奈比, 虛豫比辭流辭毛. 天皇聆是歌, 則有感情. 而歌之曰, 佐瑳羅餓多, 邇之枳能臂毛弘, 等枳舍氣帝, 阿麻多[13]絆泥受邇, 多儀比等用能未. 明旦, 天皇見井傍櫻華, 而歌之曰, 波那具波辭, 佐區羅能梅涅, 許等梅涅麼, 波椰區波梅涅孺, 和我梅豆留古羅. 皇后聞之, 且大恨也. 於是, 衣通郎姬奏言, 妾常近王宮, 而晝夜相續, 欲視陛下之威儀. 然皇后則妾之姉也. 因妾以恆恨陛下. 亦爲妾苦. 是以, 冀離王居, 而欲遠居. 若皇后嫉意少息歟. 天皇則更興造宮室於河內茅渟, 而衣通郎姬令居. 因此, 以屢遊獵于日根野.

九年 春二月, 幸茅渟宮.

秋八月, 幸茅渟.

冬十月, 幸茅渟.

十年 春正月, 幸茅渟. 於是, 皇后奏言, 妾如毫毛, 非嫉弟姬. 然恐陛下屢幸於茅渟. 是百姓之苦歟[14]. 仰願宜除車駕之數也. 是後, 希有之幸焉.

十一年 春三月癸卯朔丙午, 幸於茅渟宮. 衣通郎姬歌之曰, 等虛辭陪邇, 枳彌母阿閇揶[15]毛, 異舍儺等利, 宇彌能波摩毛能, 余留等枳等枳弘. 時天皇謂衣通

12 소학관본에서는 '予'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13 소학관본에서는 '哆'라고 적고 있다.

14 소학관본에는 없는 글자이다.

15 소학관본에서는 '椰'라고 적고 있다.

郎姬曰, 是歌不可聆他人. 皇后聞必大恨. 故時人號濱藻, 謂奈能利曾毛也. 先是, 衣通郎姬居于藤原宮. 時天皇詔大伴室屋連曰, 朕頃得美麗孃子. 是皇后母弟也. 朕心異愛之. 冀其名欲傳于後葉奈何. 室屋連依勅而奏可. 則科諸國造等, 爲衣通郎姬, 定藤原部.

十四年 秋九月癸丑朔甲子, 天皇獵于淡路嶋. 時麋鹿·猨[16]·猪, 莫莫紛紛, 盈于山谷. 焱起蠅散. 然終日, 以不獲一獸. 於是, 獵[17]止以更卜矣. 嶋神祟之曰, 不得獸者, 是我之心也. 赤石海底, 有眞珠. 其珠祠於我, 則悉當得獸. 爰更集處處之白水郎, 以令探赤石海底. 海深不能至底. 唯有一海人. 曰男狹磯. 是阿波國長邑之人也. 勝於諸白水郎也[18]. 是腰繫繩入海底. 差須臾[19]之出曰, 於海底有大蝮[20]. 其處光也. 諸人皆曰, 嶋神所請之珠, 殆有是蝮腹乎. 亦入而探之. 爰男狹磯, 抱大蝮而泛出之. 乃息絶, 以死浪上. 旣而下繩測海深[21], 六十尋, 則割蝮. 實眞珠有腹中. 其大如桃子. 乃祠嶋神而獵之. 多獲獸也. 唯悲男狹磯入海死之, 則作墓厚葬. 其墓猶今存之.

廿三年 春三月甲午朔庚子, 立木梨輕皇子爲太子. 容姿佳麗. 見者自感. 同母妹輕大娘皇女, 亦艷妙也. 太子恆念合大娘皇女. 畏有罪而默之. 然感情旣盛, 殆將至死. 爰以爲, 徒空死者, 雖有刑[22], 何得忍乎. 遂竊通. 乃悒懷少息.

---

16 소학관본에서는 '猿'이라고 적고 있다.

17 소학관본에서는 '獦'이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18 소학관본에서는 '諸白水郎也'가 '諸海人'이라고 적고 있다.

19 소학관본에서는 '須臾'를 '頃'이라고 적고 있다.

20 소학관본에서는 '鰒'이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21 소학관본에서는 '底'라고 적고 있다.

22 소학관본에서는 '罪'라고 적고 있다.

仍[23]歌之曰, 阿資臂紀能, 椰摩娜烏菟勾[24]利, 椰摩娜箇彌, 斯哆媚烏和之勢, 志哆那企貳, 和餓儺勾菟摩, 箇哆儺企貳, 和餓儺勾菟摩, 去鐏去曾, 椰主區泮娜布例.

廿四年 夏六月, 御膳羹汁, 凝以作氷. 天皇異之, 卜其所由. 卜者曰, 有內亂. 蓋親親相姧乎. 時有人曰, 木梨輕太子, 姧同母妹輕大娘皇女. 因以, 推問焉. 辭既實也. 太子是爲儲君, 不得加刑[25]. 則移[26]大[27]娘皇女於伊豫. 于[28]時太子歌之曰, 於哀[29]企彌烏, 志摩珥波夫利, 布儺阿摩利, 異餓幣利去牟鋤, 和餓哆哆瀰由梅, 去等烏許曾, 哆多瀰等異泮[30]梅, 和餓菟摩烏由梅. 又歌之曰, 阿摩儀霧, 箇留惋等賣, 異哆儺介麼, 臂等資利奴陪瀰, 幡舍能夜摩能, 波刀能, 資哆儺企邇奈勾.

卅二年 春正月乙亥朔戊子, 天皇崩. 時年若干. 於是, 新羅王聞天皇既崩, 而[31]驚愁之, 貢上調船八十艘, 及種種樂人八十. 是泊對馬而大哭. 到筑紫亦大哭. 泊于難波津, 則皆素服之. 悉捧御調, 且張種種樂器, 自難波至于京, 或哭泣, 或儛歌. 遂參會於殯宮也.

冬十一月, 新羅弔使等, 喪禮既闋而還之. 爰新羅人, 恆愛京城傍耳成山·畝

---

23 소학관본에서는 '因以'라고 적고 있다.
24 소학관본에서는 '絇'라고 적고 있다.
25 소학관본에서는 '加刑'을 '罪'라고 적고 있다.
26 소학관본에서는 '流'라고 적고 있다.
27 소학관본에서는 '大'자 앞에 '輕'자가 있다.
28 소학관본에서는 '是'라고 적고 있다.
29 소학관본에서는 '褒'라고 적고 있다.
30 소학관본에서는 '絆'이라고 적고 있다.
31 소학관본에는 없는 글자이다.

傍山. 則到琴引坂, 顧之曰, 宇泥咩巴椰, 彌彌巴椰. 是未習風俗之言語. 故訛畝傍山, 謂宇泥咩, 訛耳成山, 謂瀰瀰耳. 時倭飼部, 從新羅人, 聞是辭而, 疑之以爲, 新羅人通采女耳. 乃返之啓于大泊瀨皇子. 皇子則悉禁固新羅使者, 而推問. 時新羅使者啓之曰, 無犯采女. 唯愛京傍之兩山而言耳. 則知虛言, 皆原之[32]. 於是, 新羅人大恨, 更減貢上之物色及船數.

冬十月庚午朔己卯, 葬天皇於河內長野原陵.

穴穗天皇 安康天皇

穴穗天皇, 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第二子也[一云, 第三子也]. 母曰忍坂大中姬命. 稚渟毛二岐皇子之女也. 卌二年春正月, 天皇崩.

冬十月, 葬禮畢之. 是時 太子行暴虐, 淫于婦女. 國人謗之. 群臣不從. 悉隸穴穗皇子. 爰太子欲襲穴穗皇子, 而密設兵. 穴穗皇子, 復興兵將戰. 故穴穗括箭·輕括箭, 始起于此時也. 時太子知群臣不從, 百姓乖違, 乃出之, 匿物部大前宿禰之家. 穴穗皇子, 聞則圍之. 大前宿禰, 出門而迎之. 穴穗皇子歌之曰, 於朋摩幣, 烏摩幣輸區泥餓, 訶那杜加礙, 訶區多智豫[33]羅泥, 阿梅多知夜梅牟. 大前宿禰答歌之曰, 瀰椰比等能, 阿由臂能古輸孺, 於智珥岐等, 瀰椰比等等豫牟, 佐杜弭等茂由梅. 乃啓皇子曰, 願勿害太子. 臣將議. 由是, 太子自死于大前宿禰之家[一云, 流伊豫國].

十二月己巳朔壬午, 穴穗皇子, 卽天皇位. 尊皇后曰皇太后. 則遷都于石上. 是謂穴穗宮. 當是時, 大泊瀨皇子, 欲聘瑞齒別天皇之女等[女名不見諸記]. 於是,

---

32 소학관본에는 없는 글자이다.

33 소학관본에서는 '予'라고 적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皇女等皆對曰, 君王恆暴强也. 儵忽忿起, 則朝見者夕被殺. 夕見者朝被殺. 今妾等顔色不秀. 加以, 情性拙之. 若威儀言語, 如毫毛不似王意, 豈爲親乎. 是以, 不能奉命. 遂遁以不聽矣.

元年 春二月戊辰朔, 天皇爲大泊瀨皇子, 欲聘大草香皇子妹幡梭皇女. 則遣坂本臣祖根使主, 請於大草香皇子曰, 願得幡梭皇女, 以欲配大泊瀨皇子. 爰大草香皇子對言, 僕頃患重病, 不得愈. 譬如物積船以待潮者. 然死之命也. 何足惜乎. 但以妹幡梭皇女之孤, 而不能易死耳. 今陛下不嫌其醜, 將滿荇菜之數. 是甚之大恩也. 何辭命辱. 故欲呈丹心. 捧私寶名押木珠縵[一云, 立縵. 又云, 磐木縵], 附所使臣根使主, 而敢奉獻. 願物雖輕賤, 納爲信契. 於是, 根使主見押木珠縵, 感其麗美, 以爲盜爲己寶. 則詐之奏天皇曰, 大草香皇子者不奉命, 乃謂臣曰, 其雖同族, 豈以吾妹, 得爲妻耶. 旣而留縵, 入己而不獻. 於是, 天皇信根使主之讒言. 則大怒之, 起兵圍大草香皇子之家, 而殺之. 是時, 難波吉師日香蛟父子, 並仕于大草香皇子. 共傷其君無罪而死之, 則父抱王頸, 二子各執王足, 而唱曰, 吾君无罪以死之, 悲乎. 我父子三人, 生事之, 死不殉, 是不臣矣. 卽自刎之, 死於皇尸側. 軍衆悉流涕. 爰取大草香皇子之妻中蒂姬, 納于宮中. 因爲妃. 復遂喚幡梭皇女, 配大泊瀨皇子. 是年也, 太歲甲午.

二年 春正月癸巳朔己酉, 立中蒂姬命爲皇后. 甚寵也. 初中蒂姬命, 生眉輪王於大草香皇子. 乃依母以得免罪. 常養宮中.

三年 秋八月甲申朔壬辰, 天皇爲眉輪王見殺[辭具在大泊瀨天皇紀]. 三年後, 乃葬菅原伏見陵.

日本書紀卷第十三

일본서기 권 제14

日本書紀 卷第十四

제21대 **대박뢰유무천황**(大泊瀨幼武天皇) **웅략천황**(雄略天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서기 권 제14

대박뢰유무천황(大泊瀨幼武天皇 ; 오호하츠세와카타케루노스메라미코토) **웅략천황**(雄略天皇 ; 유랴쿠텐노)

대박뢰유무(大泊瀨幼武 ; 오호하츠세와카타케루)[1]천황은 웅조유치자숙녜천황(雄朝嬬稚子宿禰天皇 ; 워아사즈마와쿠고노스쿠네노스메라미코토)[2]의 다섯째 아들이다. 천황이 태어나자 신령스러운 빛이 건물에 가득 찼으며, 성장하자 강건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3년 8월에 혈수천황(穴穗天皇 ; 아나호노스메라미코토)[3]이 목욕을 하려고 산에 있는 궁[4]으로 행차하였다. 그리고 누각에 올라서 노닐었다. 혈수천황은 술을

---

1 泊瀨는 현재 奈良縣 櫻川市 初瀨町과 黑崎町의 주변이다. 泊瀨의 朝倉에 궁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에 泊瀨를 붙인 것이다. 安康卽位前紀 允恭 42년 12월조에 大泊瀨皇子, 『古事記』 允恭段에 大長谷命, 『古事記』 雄略段에 大長谷若建命, 『播磨風土記』에 大長谷天皇, 4년 2월조에는 「朕은 幼武王이다.」라고 하였다. 『宋書』, 『南齊書』, 『梁書』에서 477~502년 사이에 네 차례 南朝에 사신을 보낸 왜국왕 武와 같은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埼玉縣 稻荷山古墳에서 출토된 철검의 명문에 보이는 獲加多支鹵大王 및 熊本縣 江田船山고분에서 출토된 대도명의 獲□□□鹵大王을 '와카타케루대왕'으로 읽어 武(타케루), 즉 雄略으로 추정하고 있다.

2 允恭天皇이다.

3 安康天皇이다. 安康이 根臣의 무고한 말을 믿고 大草香皇子를 죽이고 그의 처인 中蒂姬皇女를 황후로 삼았는데, 그 후 대초향황자의 아들인 眉輪王에게 살해되었다.

가져오게 하여 성대하게 연회를 베풀었다. 그리하여 마음이 풀어져서 즐거움이 극에 달하자 잠깐 담소를 하다가 돌아보며 황후[거래수별천황(去來穗別天皇 ; 이자호와케노스메라미코토)[5]의 딸로 중체희황녀(中蒂姬皇女 ; 나카시히메노히메미코)[6]라고도 한다. 또한 장전대랑황녀(長田大娘皇女 ; 나가타노오호이라츠메노히메미코)라고도 한다. 대초료천황(大鷦鷯天皇 ; 오호사자키노스메라미코토)[7]의 아들 대초향황자(大草香皇子 ; 오호쿠사카노미코)가 장전황녀(長田皇女 ; 나가타노히메미코)를 맞이해서 미륜왕(眉輪王 ; 마요와노오호키미)[8]을 낳았다. 후에 혈수천황(穴穗天皇)이 근신(根臣 ; 네노오미)[9]의 참언을 듣고 대초향황자를 죽이고, 중체희황녀(中蒂姬皇女)를 세워서 황후로 삼았다. 이 일은 혈수천황기(穴穗天皇紀)에 있다.]에게 "내 누이여[아내를 누이[妹]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옛 습속인 것 같다[10].], 그대는 (나와) 친밀하다 하더라도 짐은 미륜왕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였다[11]. 어린[12] 미륜왕은 누각 아래에서 놀다가 얘기하는 것을 모두 들었다. 이윽고 혈수천황은 취해서 황후의 무릎을 베고 누워 낮잠이 들었다. 이때 미륜왕이 그가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찔러 죽였다. 이 날 대사인(大舍人)[13][이름은 알 수 없다.]이 달려가서 천황에게 "혈수천황이 미륜왕에게 살해되

---

4 원문은 山宮으로 되어 있다.

5 履中天皇이다.

6 中磯皇女라고도 한다.

7 仁德天皇이다.

8 『日本書紀』 安康天皇 2년 정월조 참조.

9 坂本臣의 선조로 根使主라고도 한다.

10 이 기사와 일본서기 歌謠의 음차 한자의 특성 등을 근거로 續守言·薩弘恪 등 당나라 포로들이 일본서기 편찬에 참여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11 『古事記』 安康天皇段에는 「내가 항상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대의 아들 目弱王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그 父王을 죽인 것을 알면 도리어 邪心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12 『古事記』 安康天皇段에는 이때의 나이가 7세로 되어 있다.

13 '토네리'라고 하여 율령제하에서 천황 및 황족 귀족에게 봉사하는 역할을 하였다. 養老令

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크게 놀라 곧 형들을 의심하여[14], 갑옷을 입고 칼을 찬 후 병사를 거느리고 스스로 장수가 되어 팔조백언황자(八釣白彦皇子 ; 야츠리노시로히코노미코)[15]에게 따져 물었다. 황자는 해치려 함을 알고, 묵묵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황은 이에 칼을 뽑아 목을 베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판합흑언황자(坂合黑彦皇子 ; 사카아히노쿠로히코노미코)[16]를 위협하였다. 황자도 역시 해치려 함을 알고, 묵묵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황은 분노가 극에 달하였다. 이에 그는 미륜왕도 죽이고자 하여, 자초지종을 조사하였다. 미륜왕은 "신은 원래 왕의 자리[17]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을 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판합흑언황자는 의심받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여 몰래 미륜왕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함께 틈을 타서 빠져나와 원대신(圓大臣 ; 츠부라노오호오미)[18]의 집으로 도망쳐 들어갔다[19].

軍防令의 규정에 따르면 內舍人은 5위 이상의 자손에서 선발하고, 大舍人은 5위 이상의 자손 및 內6위 이하 8위 이상의 적자 중에서 선발하였다. 대사인은 내사인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다른 사인들보다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내사인과 대사인의 구별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천황을 섬기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대사인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14 『古事記』 安康天皇段에는 형들을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異變을 알리고 대책을 물었는데 형들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아서 노하여 죽였다고 한다.

15 『古事記』 安康天皇段에는 白日子王으로 되어 있다. 雄略天皇의 同母兄이며 允恭天皇의 넷째 아들이다. 允恭 2년 2월조 참조.

16 『古事記』 安康天皇段에는 黑日子王으로 되어 있다. 웅략천황의 同母兄이며 允恭天皇의 둘째 아들이다. 『日本書紀』 允恭天皇 2년 2월조 참조.

17 원문에는 天位로 되어 있다.

18 『古事記』 安康天皇段에는 都夫良意富美로 되어 있으며, 葛城氏이다. 갈성씨는 미륜왕과 직접적인 계보관계는 없지만, 황위계승에 대해서 웅략천황과 대립하는 위치에 있는 市邊押磐皇子가 갈성씨 출신이므로 미륜왕은 갈성씨에게 의지하였고, 웅략천황도 또한 이를 구실로 갈성씨를 멸망시키고 시변압반황자를 고립시켰다고 보는 설이 있다.

19 『古事記』 安康天皇段에서는 圓大臣의 집으로 도망한 사람은 眉輪王 뿐이고 黑彦皇子는 小治田에 생매장되었다고 하였다.

천황은 사람을 시켜서 내어 놓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대신은 사람을 보내 "무릇 듣건대, 인신(人臣)은 일이 있을 때 도망쳐서 왕실(王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왕(君王)이 신하의 집에 숨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판합흑언황자와 미륜왕이 깊이 신의 마음에 의지하여 신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찌 차마 보내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천황은 더 많은 병사를 이끌고 가서 대신의 집을 포위하였다. 대신은 뜰로 나가 각대(脚帶)를 찾았다. 이때 대신의 처가 각대를 가지고 와서 마음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노래를 불렀다.

나의 지아비인 대신(大臣)이 흰 베로 짠 바지를 일곱 겹으로 입으시고[20], 뜰에 서서 각대를 어루만지고 계시네.

대신은 준비를 마치고 군문(軍門)[21]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절하며, "신이 죽게 된다 하더라도 결코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필부(匹夫)의 뜻도 빼앗기 어렵다고 한 것은 바로 신에게 해당하는 말인가 하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왕께 신의 딸 한원(韓媛 ; 카라히메)[22]과 갈성(葛城 ; 카즈라키)[23]의 집 7채를 바쳐[24] 속죄하기를 청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천황

---

20 고대 무인의 土偶에서 나타나는 바지 모양의 하카마에 잡힌 주름이 일곱 겹이란 뜻으로 생각된다.

21 軍營의 문을 말한다. 葛城圓大臣이 천황의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군영을 설치하였다.

22 『古事記』 安康天皇段에 訶良比賣, 雄略天皇段에 韓比賣로 되어 있다. 雄略天皇과의 사이에서 淸寧天皇과 稚足姬皇女를 낳았다. 『日本書紀』 雄略天皇 원년 3월 是月條 참조.

23 葛城山의 동북쪽 산록 지역으로, 지금의 奈良縣 御所市 서부에 해당한다.

24 『古事記』 安康天皇段에서는 '다섯 곳의 屯宅(미야케)'으로 기록하고, 「이른바 5村의 屯宅은 지금 葛城의 5村 苑人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日本書紀』 推古天皇 32년 10월조에

은 허락하지 않고 불을 질러 집을 태웠다[25]. 이에 대신과 흑언황자(黒彦皇子 ; 쿠로히코노미코)와 미륜왕은 함께 불타 죽었다. 이때 판합부련지숙녜(坂合部連贄宿禰 ; 사카아히베노무라지니헤노스쿠네)[26]가 황자의 시체를 감싸 안고 함께 불타 죽었다. 사인(舍人)[27] 등[이름을 알 수 없다.]이 불탄 것들을 모았으나, 누구의 뼈인지 가려내기 어려웠다. 그래서 관 하나에 넣어서 신한(新漢 ; 이마키노아야)[28] 의 본(槻本 ; 츠키모토)[29][槻라는 글자는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이것은 槻[30]인 것 같다.]의 남쪽 언덕에 합장하였다.

겨울 10월 계미삭에 천황은 혈수천황이 일찍이 시변압반황자(市邊押磐皇子 ; 이치노베노오시하노미코)[31]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후사를 부탁한 것[32]을 원망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시변압반황자에게 보내어 거짓으로 사냥[33]

서 蘇我馬子가 「葛城縣은 원래 臣의 本居이다. 그래서 그 현의 이름을 따서 姓名을 만들었다. 영구히 그 縣을 사여하여 臣의 封縣으로 삼기 바란다.」고 반환을 요구했지만, 推古天皇에게 거부당하였다. 葛城은 葛城山의 동북 산기슭에 있다. 지금 奈良縣 御所市 서부의 葛城 지역이다.

25 『古事記』 安康天皇段에는 韓媛과 屯宅을 천황이 요구한 대로 무조건 헌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6 『新撰姓氏錄』 左京神別에서는 「坂合部宿禰는 火明命의 八世孫인 邇倍足尼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坂合黒彦皇子의 壬生部를 管理하였던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27 黒彦皇子의 측근을 섬기던 사람이다. 앞에서 安康天皇의 죽음을 雄略天皇에게 알린 자는 大舍人으로 기록하여 구별하고 있다.

28 『大和志』 吉野郡 항목에서 「新漢南墓는 세간에서 天狗森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今木村(현재 奈良縣 吉野郡 大淀町 今木)에 있다고 하였으나, 지명사전 등에서는 曾我川의 今木보다도 하류 연안인 高市郡(舊名은 今來郡)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29 『日本書紀』 孝德天皇 大化 5년 3월조에 今來의 大槻가 보인다.

30 槻(츠키)는 欅(케야키)라고도 하며 느티나무를 뜻한다.

31 安康과 雄略 양 천황의 종형제이자 履中天皇의 장자이다.

32 『日本書紀』 顯宗天皇 卽位前紀에도 '市邊宮에서 천하를 다스린 天萬國萬押磐尊'이라는 존호가 보인다.

33 원문은 校獵으로 되어 있다. 卷狩, 즉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속에 짐승을 몰아넣고 사냥

하러 들로 나가자고 권하며 "근강(近江 ; 아후미)의 협협성산군한대(狹狹城山君韓帒 ; 사사키노야마노키미카라후쿠로)[34]가 '지금 근강 내전면(來田綿 ; 쿠타와타)의 문옥야(蚊屋野 ; 카야노)[35]에 멧돼지와 사슴이 많이 있습니다. 사슴 머리의 뿔은 마른 나뭇가지와 비슷하고, 모은 다리는 관목과도 같습니다. 또한 호흡하는 숨의 기운이 아침안개와 같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원컨대 황자와 함께 초겨울 바람이 쌀쌀한 새벽에 장차 멀리 교외의 들판으로 노닐어 잠시나마 정을 나누며 활을 쏘고 사냥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시변압반황자는 이에 따라가 사냥하였다. 이때 대박뢰천황이 활시위를 당기면서 빠르게 나아가 거짓으로 멧돼지가 있다고 크게 소리치고 곧 시변압반황자를 활로 쏘아 죽였다. 황자의 장내(帳內)[36] 좌백부매륜(佐伯部每輪 ; 사헤키베노우루와)[다른 이름은 중수자(仲手子 ; 나카테코)[37]이다.]이 주검을 안고 놀라 한탄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뒹굴고 소리치며 시신의 곁을 왔다 갔다 하였다. 천황은 그도 베어 죽였다.

이 달에 어마황자(御馬皇子 ; 미마노미코)[38]가 삼륜군신협(三輪君身狹 ; 미와노키미무사)과 이전부터 친하였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전하려고 찾아갔다. 그러나 뜻밖에 도중에 매복한 군사를 만나 삼륜(三輪 ; 미와)의 반정(磐井 ; 이하위)[39] 근

하는 것이다.

34 이 사건 때문에 市邊押磐皇子의 아들 顯宗天皇이 그를 陵戶로 삼았다고 한다. 『日本書紀』 顯宗天皇 원년 5월조 참조.

35 『日本書紀』 顯宗天皇 卽位前紀에 「蚊屋野」, 원년 2월조에 「近江國來田絓蚊屋野」, 『古事記』 安康天皇段에 「久多綿之蚊屋野」, 『播磨風土記』에 「近江國摧綿野」 등으로 보인다. 현재 滋賀縣 蒲生郡 蒲生町과 日野町 부근의 들판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愛智郡 蚊屋鄕, 오늘의 滋賀縣 愛智郡 秦莊町 上蚊野와 北蚊野 부근이다.

36 律令制에서 親王 및 內親王을 섬기는 하급 관인을 가리킨다. 고위 관인을 섬기는 자는 資人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웅략대에 그러한 구분은 없었을 것이다.

37 『日本書紀』 顯宗天皇 卽位前紀 원년 2월조와 仁賢天皇 5년 2월조에는 모두 仲子라고 하였다.

38 押磐皇子의 同母弟이다.

처에서 맞아 싸웠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그는 처형을 앞두고 우물을 가리키며 "이 물은 오직 백성만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왕이 되는 자는 결코 마실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주하였다.

11월 임자삭 갑자(13일)에 천황이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높은 단을 박뢰(泊瀨 ; 하츠세)의 조창(朝倉 ; 아사쿠라)[40]에 쌓고 즉위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궁을 정하였다. 또한 평군신진조(平群臣眞鳥 ; 헤구리노오미마토리)[41]를 대신(大臣)[42]으로 삼고, 대반련실옥(大伴連室屋 ; 오호토모노무라지무라야)과 물부련목(物部連目 ; 모노노베노무라지메)을 대련(大連)[43]으로 삼았다.

원년 봄 3월 경술삭 임자(3일)에 초향번사희황녀(草香幡梭姬皇女 ; 쿠사카노하타비히메노히메미코)[44]를 세워서 황후로 삼았다[다른 이름은 귤희황녀(橘姬皇女 ; 타치바나히메노히메미코)라 한다.].

이 달에 세 명의 비를 세웠다. 원비(元妃)[45]는 갈성원대신(葛城圓大臣 ; 카즈라

---

39 『大和志』에서는 「城上郡 岩坂村에 岩坂井이 있는데, 마을에 이 우물 하나밖에 없어서 모두가 이 물을 마시지만 마르지 않으니, 아마도 이 우물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40 『帝王編年紀』에 泊瀨朝倉宮은 「大和國 城上郡 磐坂谷也」라고 하였고 『大和志』에서는 黑崎와 岩坂 두 마을 사이에 있다고 하였다. 黑崎와 岩坂은 현재 櫻井市의 지명이다. 한편 『新撰姓氏錄』은 조창궁에 대해서 秦公酒가 웅략천황대에 여러 秦氏를 부려서 길이 8丈의 창고를 궁 옆에 만들고 공물을 바쳤으므로, 이곳을 조창궁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한편 倉(쿠라)은 座(쿠라)라는 뜻이며, 朝座란 마을의 동쪽에 있는 산을 뜻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41 木菟宿禰의 아들로 생각된다.

42 臣姓의 호족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大臣이라는 칭호를 얻어 천황의 정치를 보좌하였다. 성무천황대에 武內宿禰가 대신이 되었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대신제가 성립된 것은 5세기 후반 이후로 생각된다. 대신이 된 호족으로는 葛城, 平群, 許勢, 蘇我氏 등이 있다.

43 連姓 호족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大連이라는 칭호를 얻어 천황의 정치를 보좌하였다. 이 칭호를 얻은 호족으로는 大伴과 物部氏가 있으며 이 기사에서 大連이 처음 보인다.

44 仁德天皇의 皇女, 大草香皇子의 妹이다. 妃가 된 경과는 安康紀 원년 2월조에 보인다.

45 천황이 되기 이전부터 정식으로 혼인한 妃이다.

키노츠부라노오호오미)의 딸로 한원(韓媛 ; 카라히메)[46]이라 한다. 한원(韓媛)은 백발무광국압치일본근자천황(白髮武廣國押稚日本根子天皇 ; 시라카노타케히로쿠니오시와카야마토네코노스메라미코토)[47]과 치족희황녀(稚足姬皇女 ; 와카타라시히메노히메미코)[48]를 낳았다[또한 다른 이름을 고번희황녀(栲幡姬皇女 ; 타쿠하타히메노히메미코)라고 한다.]. 이 황녀는 (재궁이 되어) 이세대신사(伊勢大神祠)를 섬겼다[49]. 다음으로 길비상도신(吉備上道臣 ; 키비노카미츠미치노오미)[50]의 딸로 치희(稚姬 ; 와카히메)[51][어떤 책에서는 길비와옥신(吉備窪屋臣 ; 키비노쿠보야노오미)의 딸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데, 두 아들을 낳았다. 큰 아들은 반성황자(磐城皇子 ; 이하키노미코)라 하고, 작은 아들은 성천치궁황자(星川稚宮皇子 ; 호시카하노와카미야노미코)[52]라고 한다[아래 글에 보인다.], 다음으로 춘일화이신심목(春日和珥臣深目 ; 카스가노와니노오미후카메)[53]의 딸로 동녀군(童女君 ; 워미나기미)이라고 하는데, 춘일대낭황녀(春日大

---

46 『古事記』 雄略天皇段에는 都夫良意富美의 딸 韓比賣라고 하였다.

47 淸寧天皇이다.

48 『古事記』 雄略天皇段에 若帶比賣命이라고 하였다.

49 伊勢神宮의 제사를 담당하는 齋宮이 되었다는 뜻이다. 왕실의 계보가 거의 사실에 가깝게 기록된 이후 처음 보이는 사례이다. 이전의 사례로는 景行 20년조의 五百野皇女가 있고, 이후의 사례로는 繼體 원년 3월조의 荳角皇女가 있다.

50 上道臣은 下道臣들과 함께 吉備 지역의 호족 중 유력한 씨족이다. 『和名類聚抄』에서는 備前國에 上道郡이 있다고 하였다.

51 『日本書紀』 雄略天皇 7년 是歲條에 吉備上道臣田狹의 처였던 내용이 보이고, 거기에서 인용한 別本은 稚媛의 이름을 毛媛이라 하고, 吉備氏가 아니고 葛城氏의 玉田宿禰의 딸이라고 하였다. 淸寧 卽位前紀에 聖川皇子의 난으로 불에 타 죽었다고 되어 있다.

52 星川은 지명으로 생각된다. 『和名類聚抄』에 大和國 山邊郡 星川鄕이 보이는데, 현재 奈良縣 山邊郡 都祁村 針針別所 부근으로 추정된다. 淸寧 卽位前紀에 그가 일으킨 亂을 기록하고 있다.

53 다른 곳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古事記』에는 丸邇佐都紀臣의 딸인 袁杼比賣와 혼인하기 위해 천황이 春日에 행차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春日和珥臣은 添上郡 春日鄕, 현재의 奈良市街 주변을 본거로 한 和珥氏 중의 유력씨족이다.

娘皇女 ; 카스가노오호이라츠메노히메미코)를 낳았다[다른 이름은 고교황녀(高橋皇女 ; 타카하시노히메미코)이다.]. 동녀군은 본래 채녀(采女)[54]였다. 천황이 하룻밤을 함께 하였는데 임신하였다. 드디어 여자 아이를 낳았으나, 천황은 의심하여 키우지 않았다. 여자 아이가 걷기 시작할 무렵 천황이 대전에 나아갔다. 이때 물부목대련(物部目大連 ; 모노노베노메노오호무라지)이 모셨다. 여자 아이가 뜰을 지나가자 목대련이 돌아보며 여러 신하에게 "아름답구나. 여자 아이여! 옛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어머니를 닮았구나[55].'[이 고어는 아직 자세히 알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깨끗한 정원을 천천히 걷는 여자 아이는 누구의 딸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천황이 "어찌 그러한 것을 묻는가?"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목대련이 "신이 여자 아이가 걷는 것을 살펴보니 용모가 천황과 매우 비슷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천황은 "저 아이를 보고 모두 말하는 바가 경이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짐은 하룻밤을 같이 하였을 뿐인데 임신하여 여자 아이를 낳은 것이 이상하다. 이 때문에 의심이 생긴다."라고 말하였다. 대련(大連)이 "그렇다면 하룻밤에 몇 번 품으셨습니까?"라고 하였다. 천황은 "7번 품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대련이 "그 낭자(娘子)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써 함께 하였습니다. 어찌 가볍게 의심하시어 사람의 순결함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신이 듣기로, 쉽게 임신하는 여자는 남자의 옷깃만 스쳐도 곧 임신이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밤을 함께 보내셨으면서 함부로 의심하십니까?"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대련에게 명하여 여자 아이를 황녀(皇女)로 삼고 어머니를 비로 삼았다. 이 해의 간지는 정유(丁酉)이다.

---

54 采女는 지방호족 출신 여자를 중앙에 바친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大和의 유력호족 春日氏의 여자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채녀 중에는 중앙 유력호족 출신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5 '나히토야하하니.' 아이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아이에게 묻는 말로 생각된다.

2년 가을 7월에 백제 지진원(池津媛)[56]이 천황이 장차 행차하려는 데도 석천순(石川楯 ; 이시카하노타테)[옛 책[舊本]에서는 석하고합수(石河股合首 ; 이시카하노코무라노오비토)의 조상인 순(楯)이라고 하였다[57].]과 정을 통하였다. 천황이 크게 노하여 대반실옥대련(大伴室屋大連 ; 오호토모노무로야노오호무라지)에게 명하여 내목부(來目部 ; 쿠메베)로 하여금 남녀의 팔다리를 벌려 나무에 매달고 임시로 만든 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죽이도록 하였다[백제신찬(百濟新撰)[58]에서는 "기사년[59]에 개로왕[60]이 즉위하였다. 천황이 아례노궤(阿禮奴跪 ; 아레나코)[61]를 보내 여자[62]를 찾도록 하였다[63].

---

56 여기에서만 보인다. 『日本書紀』 應神天皇 39년조에 보이는 백제 直支王(腆支王)의 누이 新齊都媛으로 보기도 한다.

57 『日本書紀』 仁德天皇 41년 3월조에 백제 왕족 酒君이 石川錦織首許呂斯의 집에 도망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股合이라는 명칭은 石川楯과 池津媛 사이에 있었던 일에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58 『日本書紀』에 인용된 百濟三書 중의 하나로, 이 기사를 비롯하여 雄略天皇 5년 7월조와 武烈天皇 4년 是歲條 등 세 곳에서 인용되고 있다. 현재의 인용상태로 보아 干支로 紀年을 세운 편년체의 기록으로 생각되며, 개로왕·동성왕·무령왕 시대를 다루고 있다. 개로왕의 동생이자 동성왕과 무령왕의 아버지인 左賢王 昆支의 후예씨족이 편찬하여 『日本書紀』 편찬 당국에 제출한 本記의 성격을 가진 문헌으로 추정된다. 한편 6세기 후반 백제 위덕왕이 對倭정책의 필요상 특별히 편찬하여 왜왕에게 보낸 정치적 문서로 이해하는 연구도 있다.

59 『日本書紀』에서 雄略 2년(458)은 무술년이다. 기사년이 429년(百濟 毘有王 3년)이라고 하면 왜왕 讚(仁德으로 추정)의 시대에 해당하며, 왜왕 武(雄略)의 시대일 수 없다. 60년 후인 489년이라고 하면 백제에서는 末多王(東城王, 479~501)의 시대로 개로왕의 시대가 아니다. 『日本書紀』 應神天皇 39년조(428)에 보이는 백제 直支王(腆支王)의 누이인 新齊都媛에 대한 다른 전승일 가능성이 있다.

60 백제 제21대왕(재위 : 455~475)이다. 제20대왕 비유왕의 장자로 이름은 慶司(慶)이다.

61 여기에만 보인다. 奴跪를 공유하는 인명으로는 『日本書紀』 神功皇后 49년조의 「沙沙奴跪」, 欽明紀 5년조의 「津守連己麻奴跪」 등이 있다. 跪는 百濟三書에만 보이는 인명표기 한자이다.

62 원문에는 '女郎'이라고 적혀 있다. 일본 훈으로는 '에하시토'라고 읽는데, 백제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63 『삼국사기』 비유왕 2년(428) 기사에 왜왕의 사신이 왔는데 종자가 50인이었다고 하는

백제는 모니부인(慕尼夫人)[64]의 딸 적계녀랑(適稽女郎)[65]을 단장하여 천황에게 바쳤다."고 하였다[66].].

겨울 10월 신미삭 계유(3일)에 길야궁(吉野宮 ; 요시노노미야)[67]으로 행차하였다.

병자(6일)에 어마뢰(御馬瀨 ; 미마세)[68]로 행차하여 우인(虞人)[69]에게 마음껏 사냥하라고 명하였다. 여러 봉우리를 넘고 넓은 숲을 지나는 사이 해가 지기도 전에 많은 짐승을 잡았다. 사냥할 때마다 많이 잡아서 날짐승과 들짐승이 없어질 지경이었다. 드디어 돌아와 임천(林泉)[70]에서 쉬면서 수풀이 우거진 습지를 거닐었다[71]. 그리고 사냥꾼[72]을 쉬게 하고 수레와 말을 정비하였다. 이때 천황이 여러 신하들에게 "사냥터의 즐거움은 선부(膳夫)[73]로 하여금 고기를 베어

내용이 있는데, 이는 전지왕 때 왜국에서 백제의 왕녀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을 백제에서 받아들여 비유왕 때 백제왕녀가 파견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64 夫人을 '하시카시'라고 읽는데, 백제어일 것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責稽王이 帶方王女 寶菓를 夫人으로 삼았다고 한 기사와 腆支王의 비가 八須夫人이며 그녀가 久尒辛을 낳았다는 기사가 보인다. 신라본기에도 탈해왕의 비가 阿孝夫人이라고 하는 등 夫人을 妃로 삼은 예가 많이 보인다. 夫人은 귀족 여자에 대한 존칭으로 생각된다.

65 여기에만 보인다. 이름이 백제의 責稽王과 비슷하다.

66 『日本書紀』 편찬자는 己巳年에 백제에서 온 適稽女郎이 池津媛일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67 吉野宮은 7~8세기에 종종 이용되던 離宮으로, 齊明 2년 是歲條에 「又作吉野宮」이라고 보인다. 奈良縣 吉野郡 吉野町 宮瀧 주변으로 추측된다.

68 『大和志』에서는 吉野郡 麻志口村이라고 하였는데, 大淀町 大字 增口로 吉野川의 북쪽 기슭이며 北六田村의 동쪽이다. 이는 宍人部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古事記』에는 없다. 또한 7년 是歲條 分註의 或本에도 宍人部를 바치는 記事가 보인다.

69 고대 중국에서 산림소택을 관장하는 벼슬이다.

70 숲과 물이 있는 산속 또는 정원을 뜻한다.

71 이상은 『文選』 권1 西京賦에 의한 윤색이다.

72 원문에는 行夫로 되어 있다.

73 『養老令』 職員令 大膳職條와 內膳司條에 의하면 宮內省 大膳職에 膳部 160인, 內膳司

나누도록 하는 것인데, 스스로 고기를 베면 어떻겠는가?"라고 물었다. 여러 신하들은 갑작스러워 대답할 수 없었다. 이에 천황이 크게 노하여 칼을 뽑아 수레를 모는 시종[御者][74] 대진마사(大津馬飼 ; 오호츠노우마카히)[75]를 죽였다.

이 날에 천황[車駕]이 길야궁(吉野宮)에서 돌아왔는데, 나라 안에 사는 백성이 모두 무서워서 떨었다. 이로 인해 황태후[76]가 황후[77]와 더불어 그 사실을 듣고 매우 두려워, 왜(倭)[78]의 채녀인 일원(日媛 ; 히노히메)[79]에게 술을 들고 맞이하도록 보내었다. 천황은 채녀의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자태가 온순하고 우아한 것을 보고 얼굴빛이 밝아지고 기뻐하며 "짐이 어찌 너의 고운 미소를 보고 싶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하며 손을 잡고 후궁으로 들어갔다. 황태후에게는 "오늘 사냥을 했는데 짐승을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서 날고기를 베어서 들에서 잔치를 하고자 해서 여러 신하들에게 두루 물었으나 능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짐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황태후가 이 말의 뜻을 알고 천황을 위로하며 "폐하가 사냥터에 간 김에 육인부(宍人部 ; 시시히토베)[80]를 두고자 여러 신하들에게 하문한 것을 그들은 깨닫

에 膳部 40인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膳夫의 후신일 것이다.

74 원문에는 御者로 되어 있다.

75 大津은 河內의 和泉大津이나 攝津의 難波大津일 것이다. 馬飼, 즉 율령제의 飼戶는 『延喜式』 左馬式에 「左馬寮, 河內國 一百八烟」, 「右馬寮, 河內國 五十一烟」, 「右馬寮, 攝津國 十六烟」이라고 하여 河內와 攝津 두 곳에 모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 和泉大津은 和泉에 國府를 둔 이후에 성립된 용어이므로, 율령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76 雄略天皇의 母后로 忍坂大中姬이다.

77 幡梭姬皇女이다.

78 일본열도 전체가 아니라 야마토, 즉 大和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79 아래에 보이는 大倭國造吾子籠의 누이이다. 吾子籠이 日媛을 바친 일은 履中 卽位前紀에 보인다.

80 大和朝廷의 品部로 生鮮魚貝와 食肉의 조리를 담당하는 집단으로 생각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宍人部을 관리하는 집단으로 膳臣이 있으며, 그밖에도 宍人臣, 宍人造, 宍

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신하들이 잠잠하게 있었던 것도 당연합니다. 또한 알았다 하더라도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바쳐도 늦지 않다면 제가 처음으로 바치겠습니다. 선신장야(膳臣長野 ; 카시하데노오미나가노)는 육회(肉膾)를 잘 만듭니다. 원컨대 이 사람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이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어 받으며,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 마음을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이를 이르는 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황태후는 천황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쁘고 마음이 즐거워 다시 다른 사람을 바치고자 하여, "저의 요리사[81]인 토전어호부(菟田御戶部 ; 우다노미토베)[82]와 진봉전고천(眞鋒田高天 ; 마사키타노타카메) 이 두 사람을 더 바쳐서 육인부로 삼기를 청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에 대왜국조(大倭國造) 오자롱숙네(吾子籠宿禰 ; 아고코노스쿠네)[83]가 협수자조별(狹穗子鳥別 ; 사호노코토리와케)[84]을 바쳐서 육인부로 삼았다. 신(臣), 연(連), 반조(伴造), 국조(國造)도 또한 뒤를 이어서 바쳤다[85].

같은 달에 사호(史戶)[86]와 하상사인부(河上舍人部 ; 카하카미노토네리베)[87]를 두

人直 등이 보인다. 天武 2년 2월조에는 宍人臣의 여자가 天武의 황자를 낳았다는 기사가 보이고, 10년 4월에는 宍人造가 倭直 등과 함께 連姓을 받았다.

81 원문에는 厨人으로 되어 있다.

82 菟田은 지명으로 大和國 宇陀郡 부근이다. 御戶部는 三富部일 가능성이 있다. 『新撰姓氏錄』 山城神別에 "三富部는 火明命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83 倭直祖麻呂의 아우로 『日本書紀』 仁德天皇 卽位前紀, 仁德 62년 5월조, 履中 卽位前紀에 보인다.

84 狹穗는 지명으로 大和國 添上郡의 佐保(현재 奈良市 佐保川町)이다. 別은 시원적인 姓의 하나이다.

85 이들은 大和朝廷을 구성하는 여러 호족의 총칭으로, 이후에는 자주 보인다. 새로운 部가 황후와 군신들의 私民을 나누어서 설정되었음을 보여준다.

86 『書紀集解』나 『日本書紀通釋』에서 史戶와 史部를 같은 것으로 보고 朝廷의 史官이라고 한 것이나 史部를 資養하는 部民으로 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먼저 戶와 部는 서로

었다. 천황은 제멋대로[88] 사람을 잘못 죽이는 일이 많았다. 천하 사람들은 이를 비방하여 매우 나쁜 천황[89]이라고 하였다. 단지 총애하는 것은 사부(史部)[90]인 신협촌주청(身狹村主青 ; 무사노스구리아워)[91]과 회외민사박덕(檜隈民使博德 ; 히노쿠마노타미노츠카히하카토코)[92] 등이었다[93].

3년 여름 4월에 아폐신국견(阿閉臣國見 ; 아헤노오미쿠니미)[94][또한 기특우(磯特牛 ; 시코토히)라고도 한다.]이 고반황녀(栲幡皇女 ; 타쿠하타노히메미코)와 탕인(湯人)[95]

통용되지 않는다. 飛鳥戶와 春日戶의 경우와 같이, 한반도에서 건너온 집단을 戶로 편성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명을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 이들 중에서 史官인 史部로 발탁하였을 수 있다.

87 河上舍人을 資養하는 部民이다. 천황의 侍衛와 궁중의 잡무를 담당하는 舍人은 천황이나 지명을 冠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河上은 지명일 것이다. 河上(川上)이라는 지명은 大和, 近江, 越中 등 여러 곳에 있다.

88 자신의 판단이나 분별이 옳다고 믿는 것이다.

89 원문은 大惡天皇으로 되어 있다.

90 史部의 部는 예속민인 部民이라는 뜻이 아니고, 律令制의 하급관인을 의미하는 伴部의 部이다. 조정의 문필과 기록을 담당하는 관인이다.

91 『新撰姓氏錄』 山城諸蕃에 牟佐村主는 吳의 孫權의 아들 高에서 나왔다고 하여, 吳國에서 온 도래인이라고 하였다. 身狹(牟佐)은 大和國 高市郡의 지명이며 『延喜式』에 牟佐坐神社가 보인다.

92 檜隈는 『和名類聚抄』에 大和國 高市郡 檜前鄕이 보이는데, 현재의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의 지명이다. 『新撰姓氏錄』 山城諸蕃에 高向村主와 同祖라고 되어 있는 民使首(檜隈民使)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93 靑과 博德 두 사람은 雄略 8년 2월에 오나라(중국 南朝)에 사신으로 갔다가 10년 9월에 귀국하였고, 12년 4월에 다시 오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14년 정월에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둘 다 한반도계 漢人 출신으로 보인다.

94 여기에만 보인다. 종래 阿閉氏는 阿倍(阿部)의 支族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 본관지가 三重縣 上野(伊賀國 阿拝郡)이며 蘇我氏와 관련된 씨족으로, 元明天皇(阿閉皇女)의 이름에 보이는 것처럼 蘇我氏를 매개로 천황가의 乳母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95 皇族의 資養을 담당하는 사람 혹은 집단을 말하며, 湯坐라고도 한다. 특히 어릴 때 물을

인 여성부련무언(廬城部連武彦 ; 이호키베노무라지타케히코)[96]을 무고하여, "무언이 황녀를 더럽혀 임신을 시켰다."고 하였다[湯人은 유웨(臾衛)라고 읽는다.]. 무언의 아버지 지거유(枳莒喩 ; 키코유)는 이 소문을 듣고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무언을 꾀어 여성하(廬城河 ; 이호키노카하)로 데려가서 짐짓 가마우지를 물에 넣어 고기를 잡는 척하다가 방심한 틈을 타서 때려죽였다.

천황이 듣고 사자를 보내 황녀를 심문하게 하였다. 황녀는 "신첩을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갑자기 황녀는 신령스러운 거울을 가지고 오십령하(五十鈴河 ; 이스즈노카하) 물가로 가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틈을 타 거울을 묻고 목매어 죽었다. 천황은 황녀가 없는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하여 한밤중에 계속 이곳저곳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마침내 강가에 무지개가 나타났는데, 모양이 뱀과 같고 길이가 4~5장 정도였다. 이에 무지개가 걸려 있는 곳을 파보니 신령스러운 거울이 나왔다.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황녀의 시신을 찾았다. 시신의 배를 갈라서 봤더니 뱃속에 물과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안에 돌이 들어있었다. 지거유는 이 때문에 아들이 죄가 없음을 밝힐 수 있었다. 그는 도리어 아들을 죽인 것을 후회하여, 그 복수로 국견을 죽이고자 하였다. (국견은)[97] 석상신궁(石上神宮 ; 이소노카미노카미노미야)으로 도망가 숨었다[98].

4년 봄 2월에 천황이 갈성산(葛城山 ; 카즈라키야마)에서 사냥하였다[99]. 그런

데워 아이를 씻기는 일을 맡은 데서 비롯된 용어이다.

96 여기에만 보인다. 廬城部는 五百木部, 伊福部라고도 쓴다. 원래는 火吹部(히후키베), 즉 불을 피우는 일을 맡은 집단으로 보이며 廬城部連은 이들을 관리하는 씨족이다.

97 국견을 주어로 보는 견해와 지거유를 주어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지거유가 죽이려고 하자 국견이 석상신궁으로 피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98 도움을 받기 위하여 神域으로 도망쳐 숨은 예로서, 『續日本紀』 天平神護 원년 8월조에 和氣王이 率河社에 들어간 경우가 있다.

99 아래의 내용은 『古事記』와 『續日本紀』 天平寶字 8년 11월조에도 보이지만, 조금 다르

데 갑자기 키가 큰 사람이 나타나 다가와서 깊은 골짜기[100]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되었는데, 얼굴과 모습이 천황과 비슷하였다. 천황은 그가 신인 것을 알았으나 오히려 짐짓 "어디 사시는 분인가?"라고 물었다. 키 큰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이다. 먼저 왕의 이름을 말하라. 그런 다음에 말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천황은 "짐은 유무존(幼武尊 ; 와카타케노미코)이다."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키 큰 사람이 "저[101]는 일사주신(一事主神 ; 히토코토누시노카미)[102]입니다."라고 이름을 말하였다[103]. 마침내 함께 사냥[104]을 즐겼다. 이들은 사슴 한 마리를 쫓았는데, 활을 쏘는 것을 서로 사양하면서 말 머리를 나란히 하여 달렸다. 말을 공손히 하고 삼가하니 마치 선인(仙人)[105]을 만난 것과 같았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사냥이 끝났다. 신은 천황을 모셔 전송하여 내목수(來目水 ; 쿠메노카하)[106]에 이르렀다. 이때 백성들이 모두 덕이 있는 천황[107]이라고 하였다.

가을 8월 신묘삭 무신(18일)에 길야궁(吉野宮 ; 요시노노미야)[108]에 행차하였다.

다. 葛城山은 大阪府와 奈良縣 경계에 있는 산이다. 그 남쪽의 主峰인 금강산도 옛날에는 葛城木山이라고 불렀다. 『續日本紀』 文武 3년 5월조에 役小角이 살았던 산이라고 하여, 7세기 말 이미 신선사상 및 주술 수행과 결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0 원문은 丹谷으로 되어 있다. 『文選』 七命에 「登翠嶺臨丹谷」이라는 내용이 보인다. 丹은 丹藥·丹丘와 같이 신선과 관련된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101 원문은 僕으로 되어 있다. 『古事記』와 달리 『日本書紀』에는 일사주신보다 천황을 우위에 두고 서술하고 있다.

102 『延喜式』 神名上의 大和國 葛上郡에 「葛木坐 一言主神社」라고 보인다. 그밖에도 葛城山 일대에는 大穴持神社, 阿治須岐託彦根神社 등 出雲系 신들을 제사지내는 신사가 많다.

103 천황이 처음에 키 큰 사람에게 '公'이라고 하자 키 큰 사람은 '王'이라고 하였고, 다음에는 천황이 '朕'이라고 하자 키 큰 사람은 '僕'이라고 하였다. 이는 천황이 신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古事記』에서는 대등한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104 원문은 遊田으로 되어 있다. 田은 畋과 통하며 수렵 및 사냥한다는 뜻이다.

105 神仙을 말한다. 雄略 22년 7월조에도 蓬萊山의 신선들을 언급하고 있다.

106 畝傍山 서쪽을 북류하여 百濟川에 합류하는 강이다.

107 원문은 有德天皇이라고 되어 있다.

경술(18일)에 하상(河上 ; 카하카미)[109]의 소야(小野 ; 워노)에 행차하였다. 사냥꾼들에게 명하여 짐승을 쫓게 하고 직접 활을 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등에[110]가 날아와서 천황의 팔뚝을 물었다. 그러자 잠자리[111]가 갑자기 날아와서 등에를 물고 사라졌다. 천황은 자신을 섬기는 마음이 있음을 기뻐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짐을 위하여 잠자리를 찬미하여 노래부르라."고 명하였다. 여러 신하들 중 감히 노래 부르는 자가 없었다. 이에 천황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야마토의 여러 산봉우리[112]에 사슴과 멧돼지가 숨어있다고 누가 이를 존귀한 자[113]에게 아뢰었는가[어떤 책에서는 '존귀한 자에게 아뢰었는가.'를 '대군(大君)에게 아뢰었는가.'로 바꾸어 놓았다.]. 대군이 이를 들으시고 옥으로 장식한 호상(胡床)에 걸터 앉아서[어떤 책에서는 '걸터 앉아서'를 '앉아서'로 바꾸어 놓았다.] 아름다운 비단으로 장식한 호상에 걸터앉아서 사슴과 멧돼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멧돼지를 기다리면서 걸터앉아 계셨는데, 등에가 팔뚝을 물었다. 그런데 그 등에를 잠자리가 금방 잡아먹었다. 기어다니는 벌레까지도 대군을 섬기는구나. 청령도왜(蜻蛉島倭)라는 이름으로, 너의 흔적을 남기도록 하자[어떤 책에서는 '기어다니는 벌레까지도' 이하를 '이렇게 이름을 남기자. 왜국을 청령도(蜻蛉島)라고 하노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잠자리를 칭송하여 이곳의 이름을 청령야(蜻

108 현재 奈良縣 吉野郡 吉野町 지역에 있던 離宮을 말한다. 應神天皇 때도 이곳에 행행한 기사가 보이지만, 離宮의 존재가 확실한 것은 齊明天皇 2년(666)에 吉野離宮을 조영한 이후이다. 吉野川의 북쪽에 있는 宮瀧遺跡이 그 유구로 생각된다.

109 『大和志』 등은 川上莊 西河村(현재 奈良縣 吉野郡 川上村 西河)의 蜻蛉瀧 주변이라고 하였지만, 아래 문장의 蜻蛉野는 蜻蛉宮, 즉 吉野宮 주변의 들이라고 하였으므로, 지금의 奈良縣 吉野郡 吉野町 宮瀧의 주변이다.

110 원문은 虻이다.

111 원문은 蜻蛉이다.

112 원문은 鳴武羅能陀該(워무라노타케)이다. 여러 산봉우리라는 뜻이다.

113 원문은 飫哀麽陛(오호마헤), 즉 大前이다.

蛤野 ; 아키즈노워노)라고 하였다.

5년 봄 2월에 천황이 갈성산(葛城山)에서 사냥하였다. 그런데 홀연히 신비로운 새가 날아왔다. 크기는 참새와 같았고 꼬리는 길어서 땅에 끌렸다. 또한 "조심해, 조심해."라고 지저귀었다. 그러자 갑자기 쫓기던 성난 멧돼지가 풀 속에서 뛰쳐나와 난폭하게 사람들을 쫓아다녔다. 이에 사냥하던 무리들은 크게 놀라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 천황이 사인(舍人)에게 "맹수도 사람을 만나면 멈추게 된다. 가로막고 활을 쏘아 죽여라."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사인의 성품이 나약하여 나무에 올라 하얗게 질려서 정신 차리지 못했다. 성난 멧돼지는 곧바로 달려와 천황을 물려고 하였다. 그러자 천황이 활로 찔러 멈추게 하고 다리를 들어 밟아 죽였다. 천황은 사냥이 끝난 후 사인을 죽이고자 하였다. 사인은 형벌을 앞두고 노래를 지어 불렀다.

우리 대군[114]이 사냥하시던 성난 멧돼지 소리에 놀라, 내가 도망쳐 올라간 봉우리 위의 개암나무 가지여, 아아[115].

황후가 이를 듣고 슬퍼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천황이) "황후는 천황과 함께 하지 않고 사인을 걱정하는가?"라고 하였다. (황후는) "나라 백성이 모두

---

114 大君 앞에 '야스미시시'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이를 枕詞라고 한다. 보통은 이를 해석하지 않는다.

115 이 노래는 『古事記』에서는 천황 자신이 멧돼지를 두려워하여 개암나무 가지에 도망쳐 올라갔을 때의 노래라고 한다. 노래의 내용으로 봐서 『古事記』의 설명도 이상하고, 이 노래가 형벌에 임한 舍人의 노래라고 해도 이상하다. 오히려 목숨을 건진 舍人이 개암나무가 있어서 좋았다고 개암나무를 칭송해서 부른 노래라고 보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이야기는 韋名部의 工匠 이야기와 三重采女의 이야기와 함께 雄略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이다.

폐하를 일컬어 사냥을 즐기고[116] 짐승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는 오히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폐하는 성난 멧돼지 때문에 사인을 베려고 하십니다. 폐하를 비유하면 늑대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천황은 곧 황후와 수레를 타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자[117] 천황은 "즐겁도다. 사람은 모두 짐승을 사냥하였으나, 짐은 사냥와서 훌륭한 이야기를 얻어서 돌아간다."고 말하였다.

여름 4월[118]에 백제의 가수리군(加須利君)[119][개로왕(蓋鹵王)이다.]은 지진원(池津媛)[120]을 불태워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적계녀랑(適稽女郎)이다.] "과거에 여인을 바쳐 채녀로 삼았다. 그런데 이미 예의를 잃어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실추시켰다. 앞으로는 여인을 바치지 말라."고 의논하였다. 이에 그 아우 군군(軍君)[121][곤지(昆支)[122]이다.]에게 "너는 마땅히 일본으로 가서 천황을 섬기도록 하

---

116 원문은 安野로 되어 있다.

117 원문은 천황이 스스로 만세를 부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부자연스럽다. 사냥을 따라갔던 주변의 일행들이 만세를 부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8 아래 내용은 武寧王의 탄생담이다. 이 기사의 특징은 개로왕과 곤지를 대등하게 각각 가수리군과 군군이라고 부르고 있는 점이다. 또한 전체 내용도 곤지가 왜에 파견된 과정과 무령왕의 출생을 주로 다루고 있다.

119 개로왕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加須利君이라고 하고 곤지도 軍君이라고 한 것은, 두 사람을 대등하게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도 筑紫君磐井과 같이 유력한 지방호족을 君이라고 하였으나, 王보다는 낮은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120 『日本書紀』 雄略天皇 2년 7월조 참조.

121 『釋日本紀』 秘訓에 코키시, 코니키시 혹은 코무키시(軍君)라고 되어 있다. 코니키시는 백제에서 왕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일본음(『주서』 백제전에는 鞬吉支로 나온다.)으로, 큰 吉士와 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도 태자는 '세시무', 왕후는 '오로쿠' 등의 古訓이 전하고 있다.

122 『宋書』 夷蠻傳 百濟條에 보이는 征虜將軍 餘昆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文周王 3년조와 동성왕 즉위조에서 문주왕의 동생이자 개로왕의 아들로 나오고 있어, 개로왕의 동생으로 나오는 『日本書紀』와 다르다. 『新撰姓氏錄』에서도 河內諸蕃의 飛鳥部造가 百濟比有王의 아들 琨伎王의 후손이라고 적고 있어 『日本書紀』의 설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라."고 명하였다. 군군은 "왕[123]의 명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원컨대 왕의 부인[124]을 내려주신다면 명을 받들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가수리군은 임신한 부인을 군군에게 주면서 "나의 임신한 부인은 이미 산달이 되었다. 만일 가는 길에 출산하면, 바라건대 어디에 있든지 배 한 척에 실어 속히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이윽고 작별하여 왜의 조정으로 갔다.

6월 병술삭(1일)에 임신한 부인이 가수리군(加須利君)의 말처럼 축자(筑紫 ; 츠쿠시)의 각라도(各羅島 ; 카카라노시마)[125]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도군(島君)[126]이라 하였다. 이에 군군이 곧 배에 태워 도군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가 무령왕(武寧王)이다. 백제 사람들은 이 섬을 주도(主島)라 불렀다.

가을 7월에 군군이 왕경[127]에 들어왔다. 이윽고 다섯 아들을 두었다[백제신찬

수 있다. 『日本書紀』에서는 곤지가 백제로 돌아간 것은 기록하지 않았으나 『삼국사기』 백제본기 文周王 3년(477) 4월조에서 왕의 아우 昆支를 내좌평으로 삼은 사실과 동 7월조에 곤지가 죽은 사실이 보이므로 477년 이전에 귀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곤지가 왜국에 살면서 낳은 자식은 그가 귀국한 후에도 계속 왜국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중에서 동성왕은 479년에 삼근왕(재위 : 477~479)의 사망 후에 귀국하여 왕위에 올랐다. 『三代實錄』 貞觀 4년 7월조와 동 5년 8월조에 곤지는 飛鳥戶造 등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에는 곤지왕을 시조로 하는 飛鳥戶造라는 씨족이 있었고, 현재까지 곤지를 모시는 飛鳥戶造신사가 남아 있다.

123 원문은 上君으로 되어 있다.

124 원문은 君婦로 되어 있다.

125 현재 佐賀縣 東松浦郡 鎭西町의 加唐島로 보는 설이 있다. 무령왕이 태어났다는 바닷가 동굴과 아기를 씻었다는 작은 샘이 남아 있다.

126 『日本書紀』에 인용된 「百濟新撰」에서는 斯麻,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斯摩, 무령왕릉 묘지석에는 斯麻라고 표기하였으며, 武寧王의 諱이다. 무령왕이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섬왕(島君, 시마키시)'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편 『日本書紀』의 기록과는 달리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동성왕의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하였다. 무령왕릉의 발굴과 『日本書紀』에 보이는 백제왕계보, 인명표기, 출생연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무령왕을 곤지의 아들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127 원문에는 京으로 되어 있다. 倭國의 왕경을 뜻한다.

(百濟新撰)에 "신축년[128]에 개로왕(蓋鹵王)이 아우 곤지군(昆支君)을 대왜(大倭)[129]로 보내어 천황[天王][130]을 모시게 하였다. 형왕(兄王)[131]의 우호를 닦게 하기[132]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6년 봄 2월 임자삭 을묘(4일)에 천황이 박뢰(泊瀨 ; 하츠세)의 소야(小野 ; 워노)[133]에 놀러갔다. 그리고 산과 들의 형세를 살펴보고 감개무량하여 노래를 불렀다.

산에 둘러싸인 박뢰(泊瀨)의 산은 문 밖을 나서서 볼 수 있는 산, 달려 나가서 가까이에 있는 보기 좋은 산, 산으로 둘러싸인 박뢰의 산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구나,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구나.

이에 소야(小野)를 도소야(道小野 ; 미치노워노)라고 이름하였다.

---

128 蓋鹵王 7년(461)이다. 곤지가 왜로 데리고 간 개로왕의 부인이 무령왕을 낳은 해이다.

129 나라 이름인 倭에 대한 존칭으로 생각된다. 倭는 나라 분지 내의 지명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130 판본에 따라서 天皇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중국 北朝의 황제 중에 王, 天王, 天皇으로 칭호의 격을 높여간 사례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백제가 왜의 입장을 존중하여 天王이라고 표기한 것인지 天王과 天皇이 혼용된 결과인지 분명하지 않다.

131 昆支의 형인 개로왕을 말한다.

132 원문에는 結好로 되어 있다. 『日本書紀』 應神天皇 8년조 분주에 인용된 「百濟記」에도 같은 표현이 있다. 『삼국사기』 百濟本紀 및 『日本書紀』 繼體 10년 9월조에서도 '結好'가 보인다. 여기서 '結好'의 주체는 백제로 백제를 중심으로 한 표현이며, 『日本書紀』 편찬의 가필과 정정이 미치지 않은 부분으로 볼 수 있다.

133 『大和志』에서는 「城上郡 泊瀨小野는 初瀨村의 서쪽」이라고 하였으나, 다음 노래에 의하면 泊瀨의 산들을 바라보기에 좋은 初瀨川을 면한 평지를 가리키며, 특정한 지명은 아닐 것이다.

3월 신사삭 정해(7일)에 천황은 후비로 하여금 친상(親桑)[134]을 행하게 해서 양잠하는 일을 권하고자 하였다. 이에 과라(蜾蠃 ; 스가루)[135][蜾蠃는 인명이며, 스가루(須我屢)라고 읽는다.]에게 국내의 누에를 모으도록 명하였다. 이에 과라가 잘못하여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천황에게 바쳤다[136]. 천황이 크게 웃으며 어린아이들을 과라에게 주며 말하기를, "네가 스스로 길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과라가 곧 어린아이들을 궁의 담 근처에서 키웠다. 그래서 성을 내려서 소자부련(少子部連 ; 치히사코베노무라지)[137]이라고 하였다.

여름 4월, 오국(吳國 ; 쿠레노쿠니)이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다[138].

7년 가을 7월 갑술삭 병자(3일)에 천황이 소자부련과라[少子部連蜾蠃]를 불러 말하기를, "짐이 삼제악(三諸岳 ; 미모로노워카)의 신(神)[139]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어떤 책에서는 이 산의 신을 대물주신(大物主神 ; 오호모노누시노카미)[140]이라고 하였고,

---

134 천황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勸農하는 것처럼, 후비는 직접 親桑을 하여 勸蠶하였다. 뽕잎으로 누에를 먹이므로 親蠶이라고도 한다.

135 小子部栖輕 혹은 小子部雷라고도 한다. 雄略의 측근으로서 『日本書紀』 응략천황 6년 3월조와 같은 기사가 『新撰姓氏錄』에, 7년 7월조의 異傳이 『日本現報善惡靈異記』에, 15년조와 관계된 기사가 『新撰姓氏錄』에 각각 보인다.

136 일본어로 누에를 '코(카이코·오코)'라고 하고, 어린아이도 '코'라고 한다. 蜾蠃가 잘못 알아듣고 어린아이를 모은 것이다.

137 천황에게 봉사하는 童子·童女를 훈육하는 일을 맡은 씨족이다.

138 吳(南朝)와의 교섭은 應神 37년 2월조와 仁德 58년 10월조 등에 보이며, 雄略紀에서도 8년 2월, 10년 9월, 12년 4월, 14년 정월에 身狹村主靑 등의 파견 및 귀국관계 기사가 보인다. 吳 즉 南朝와의 교섭이 5세기에 많았던 것은 『宋書』가 기록하고 있지만, 본 조의 기사는 물론 구체적인 기록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身狹村主靑 등의 發見에 대한 伏線으로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139 奈良縣 櫻井市에 있는 三輪山의 신이다. 산의 모양이 원뿔형을 이루어 산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140 大國主神과 같은 신이며 大神神社의 祭神이다. 大物主神은 뱀의 형상을 한 신으로 물과

어떤 책에서는 토전(菟田 ; 우다)의 묵판신(墨坂神 ; 스미사카노카미)[141]이라고 하였다.]. 네가 완력이 남보다 뛰어나니 직접 가서 붙잡아 오라."고 하였다[142]. 과라가 "가서 그것을 붙잡아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삼제악에 올라 큰 뱀을 붙잡아서 천황에게 보였다. 그런데 천황은 재계(齋戒)를 하지 않았다. 뱀은 우렛소리를 냈으며, 눈동자를 번뜩였다. 천황은 두려워하여 눈을 가리고 보지 않았으며, 궁궐 안으로 물러나 숨으면서 산에 놓아주도록 하였다. 그래서 '뇌(雷 ; 이카즈치)'라는 이름으로 고치도록 하였다.

8월에 관자(官者)[143] 길비궁삭부허공(吉備弓削部虛空 ; 키비노유게베노오호조라)[144]이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다. 길비하도신전진옥(吉備下道臣前津屋 ; 키비노시모츠미치노오미사키츠야)[145][어떤 책에서 말하기를, 국조(國造) 길비신산(吉備臣

벼락을 관장한다고 한다. 농사, 질병퇴치, 양조 등의 신으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141 『日本書紀』 崇神天皇 9년 3월조에 천황의 꿈에 神人이 나타나 赤盾 8매, 赤矛 8자루를 墨坂神에게 바치고, 黑盾 8매와 黑矛 8자루를 大坂神에게 바치라고 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奈良盆地의 동쪽 입구에 해당하는 墨坂神과 서쪽 입구에 해당하는 大坂神에게 제사를 지내자 疫病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현재 奈良縣 宇陀市 榛原區 萩原에 墨坂神社가 있다.

142 이하의 내용은 『日本國現報善惡靈異記』에 다소 다른 기록이 보이는데, 그것은 飛鳥 雷岡의 지명 설화로 본 조가 4년 2월조와 마찬가지로 각지의 토착 신들에 대한 천황 권위를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 것과 성질이 다르다. 게다가 『釋日本紀』 述義가 인용한 「天書」에는 「詔하기를, '贏는 御衆山大神에게 바쳤는데, 贏는 7장 남짓 되는 뱀을 잡아서 살펴보도록 바쳤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143 후대의 舍人으로 견습관인이다. 舍人을 官者라고 쓴 유일한 예이다.

144 여기에만 보인다. 吉備弓削部는 吉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단으로 보인다. 岡山縣 久米郡 久米南町과 瀨戶町에 각각 弓削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145 여기에만 보인다. 下道臣은 吉備 지역의 대표적인 호족으로, 현재의 岡山縣 總社市·倉敷市 일대를 지배하였다. 『先代舊事本紀』에 의하면 應神天皇대에 원래 下道國을 지배하고 있던 兄彦命(稻速別命)을 國造로 삼았다고 한다. 『日本書紀』에서는 吉備津彦命의 후예이며 應神天皇의 皇妃인 兄媛의 오빠 御友別命의 長子인 兄彦이 下道國을 분여받아 吉備臣과 下道臣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였다.

山 ; 키비노오미야마)이라고 하였다]이 허공(虛空 ; 오호조라)을 머무르게 하여, 한 달이 지나도 상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천황은 신모군대부(身毛君大夫 ; 무케노키미마스라워)[146]를 보내어 불렀다. 허공이 부름을 받고 와서 "전진옥이 어린 여자를 천황의 사람으로 삼고, 큰 여자를 자기 사람으로 삼아서 다투어 서로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여자가 이기는 것을 보자 곧 칼을 뽑아서 죽였습니다. 또 작은 수탉을 천황의 닭이라고 부르면서 털을 뽑고 날개를 자르고, 큰 수탉을 자기 닭으로 삼아서 방울과 쇠로 된 며느리발톱을 붙여서 다투어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털이 뽑힌 닭이 이기는 것을 보고 또 칼을 뽑아서 죽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물부(物部)[147] 병사 30인을 보내어 전진옥과 아울러 일족 70인을 베어 죽였다.

이 해에 길비상도신전협(吉備上道臣田狹 ; 키비노카미츠미치노오미타사)[148]이 궁중에서 시중을 들었는데, 항상 치원(稚媛 ; 와카히메)[149]을 친구에게 자랑하기를 "천하의 어떤 아름다운 사람도 내 아내만 못하다. 빼어나고 너그러우며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갖추었다. 빛나고 온화하며 구석구석 예쁘다. 또한 화장도

---

146 여기에만 보인다. 身毛君은 美濃에 기반을 둔 호족으로 천황가와 관계가 깊으며, 그 일족 중에 舍人으로 천황을 섬긴 자가 많다. 壬申의 亂 때 활동한 身毛廣이 대표적이다.

147 物部連에 예속된 부민이다. 조정의 군사와 경찰을 담당하였다. 律令制에서는 衛門府에 물부 30인이 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물부는 물부련의 부민이 아니라 일반 백성 중에서 선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148 『先代舊事本紀』 國造本紀에 上道國造는 輕島豊明朝의 시대에 원래 中彦命兒多佐臣를 봉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日本書紀』의 이 기사의 내용은 吉備上道臣田狹이 천황을 원망하며 아들인 弟君을 꾀어 신라·백제와 함께 일본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弟君의 아내가 충절을 다하였다는 이야기다. 천황에 대해 배반하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점에서 앞의 기사와 공통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

149 『日本書紀』 雄略天皇 원년 춘3월조에 있는 雄略의 세 비 중 한 사람으로 보인다. 磐城皇子와 星川稚宮皇子의 母后이며, 淸寧天皇紀 즉위전기에는 星川皇子를 大藏의 권한을 장악하고 왕위를 노리도록 하였다가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하지 않고,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도 바르지 않는다. 세상에 드문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천황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였다. 그리고 친히 치원을 데려와서 여어(女御)[150]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전협에게 벼슬을 주어 임나국사(任那國司)[151]로 삼았다. 얼마 후에 천황은 치원을 가까이 하였다. 전협신(田狹臣 ; 타사노오미)[152]은 치원과 혼인해서 형군(兄君 ; 에키미)과 제군(弟君 ; 오토키미)을 낳았다[153][다른 책에서 말하기를, 전협신 아내의 이름은 모원(毛媛 ; 케히메)이다. 갈성습진언(葛城襲津彦 ; 카즈라키노소츠히코)의 아들인 옥전숙녜(玉田宿禰 ; 타마타노스쿠네)[154]의 딸이다. 천황이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을 듣고 남편을 죽이고 친히 총애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협이 부임한 곳에 갔을 때 천황이 자신의 아내를 총애한다는 것을 듣고 도움을 구하러 신라에 들어가고자 하였다. 이때 신라는 왜[155]를 섬기지 않았다. 천황은 전협신의 아들 제군과 길비해부직적미(吉備海部直赤尾 ; 키비노아마노아타히아카워)[156]를 불

---

150 율령제에서는 궁중에서 잡무에 종사하는 女官을 의미하였으나, 여기서는 後宮을 뜻한다.

151 후대의 國司는 國府의 官人으로 행정과 치안 등을 책임졌지만, 여기서의 國司는 그 훈이 '미코토모치(御言持)'인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해당지역에 천황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신이라는 뜻이다. 敏達 6년 5월조의 分注에서 「王人奉命, 爲使三韓, 自稱爲宰. 言宰於韓, 蓋古之典乎. 如今言使也.」라고 하여 한반도에 사신으로 간 왜의 사신이 자칭하여 宰(미코토모치)라고 하는 것이 관례였음을 밝히고 있다. 神功紀에 보이는 新羅宰의 宰, 6세기에 보이는 任那日本府의 府 역시 훈은 모두 '미코토모치'이다.

152 이하 弟君을 낳았다고 하는 부분까지는 分註로 보는 견해가 있다.

153 淸寧 卽位前紀는 兄君을, 이 기사에서는 弟君을 이름처럼 다루고 있지만, 다만 형과 아우라는 뜻일 것이다. 兄君은 후에 星川皇子의 모반에 가담하여 燒殺되었다.

154 『日本書紀』 允恭天皇 5년 7월 己丑條에는 葛城襲津彦의 손자로 反正天皇의 殯宮大夫를 맡았으나, 允恭天皇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155 원문에는 中國으로 되어 있다. 7세기 말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사상을 반영하여 倭(日本)를 中國이라고 한 것이다.

156 吉備海部直은 吉備 지방의 海部를 관리한 호족이다. 항해에 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 중에서 敏達 2년 5월조의 難波는 고구려에 사신으로 갔고, 12년 7월조의 羽島는 백제

러 "너희들이 신라에 가서 벌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서한재기(西漢才伎)[157]인 환인지리(歡因知利 ; 완인치리)[158]가 곁에 있었다. 이에 나아가, "저보다 재주가 있는 자가 한국(韓國 ; 카라노쿠니)[159]에 많이 있습니다. 불러서 부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천황이 군신을 불러서 "그렇다면 환인지리를 제군 등에 따르게 하여 백제로 가서 함께 칙서를 전하고, 재주 있는 자를 바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제군이 명을 받들어 무리를 이끌고 가서 백제에 이르러 그 나라[160]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신(國神)이 노파로 변해서 홀연히 길에 나타났다[161]. 제군이 가서 나라가 먼지 가까운지 물었다. 노파는 "다시 하루를 더 가야 도착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제군은 스스로 길이 먼 것을 생각하여 치지 않고 돌아왔다. 그리고 백제가 바친 금래재기(今來才伎)[162]를 큰 섬[163] 속에 모아

에 사신으로 갔다. 『古事記』 仁德天皇段에 吉備海部直의 딸인 黑日賣라는 이름이 보인다. 赤尾는 여기에만 보인다.

157 西漢才伎는 河內를 본거로 하는 대륙계의 諸種 工人으로, 漢氏가 관리하던 사람들이다. 『續日本紀』 養老 3년 11월조에 下譯이라고 賜姓되었던 잡호 河內手人大足, 양로 4년 6월조에 下村主라고 賜姓되었던 河內國 若江郡의 雜戶 河內手人刀子作廣麻呂가 보인다. 才伎의 종류는 아래 문장의 譯語 이외에 陶部, 鞍部, 畵部, 錦部가 보인다. 西漢은 河內漢이라고도 표기하며, 東漢(倭漢)에 대비되는 말이다.

158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159 新羅·百濟·加羅 등의 나라를 총칭하는 말로 생각된다. 韓은 '카라'라고 읽으며, 外國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사용되었다.

160 문맥으로는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신라로 생각된다.

161 신라의 수호신으로 女神이 등장하는 예가 자주 보인다. 仙桃山 聖母가 그런 예이다.

162 今來는 일본열도로 새로 온 도래인을 의미하며, 才伎는 기술이 뛰어난 자란 뜻이다. 그 중에는 도기 제작자, 안장 등 마구 제작자, 화가, 비단직조인, 통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후에는 今來가 지명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163 『日本書紀』 繼體天皇 23년 3월조에 보이는 백제와 관련된 큰 섬이 南海島일 가능성이 크므로, 여기서도 같은 섬일 것이다.

놓고, 바람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여러 달을 머물러 있었다. 임나국사 전협신은 제군이 (신라를) 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몰래 사람을 백제에 보내 "너의 목이 얼마나 튼튼하여 남을 치려고 하는가? 전해 듣건대 천황이 나의 처를 받아들여 이미 아이[아이는 앞의 내용에 보인다]도 있다고 한다. 지금 두려운 것은 화가 몸에 미치려고 하는데 발꿈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의 아들인 너는 백제를 근거로 하여 일본과 연락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임나에 근거하여 또한 일본과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군을 타일렀다.

제군의 부인 장원(樟媛 ; 쿠스히메)[164]은 나라에 대한 마음이 깊고, 군신의 의리가 간절하였다. 충성스러운 마음은 밝은 해보다도 낫고, 절개는 푸른 소나무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이 모반(謀叛)[165]을 미워하여 자기 지아비를 죽여 집안에 몰래 묻고, 곧 해부직적미와 함께 백제가 바친 수말재기(手末才伎)[166]를 이끌고 큰 섬에 머물렀다. 천황은 제군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일응길사(日鷹吉師 ; 히타카노키시)[167], 견반(堅磐 ; 카타시하)[堅磐은 카타시하(柯陀之波)라고 읽는다.][168], 고안전(固安錢 ; 코안젠)[169]을 보내어 함께 복명(復命)하도록 하였다. 마침내 왜국(倭國 ; 야마토노쿠니)의 오려(吾礪 ; 아토)[170] 광진읍(廣津邑 ; 히로키츠노무라)[廣津은 히로

---

164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165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를 말한다.

166 手末은 손끝, 즉 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를 말한다. 아래에 보이는 토기, 말안장, 회화, 비단직조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비롯하여 통역도 포함되어 있다.

167 難波日應吉士라고도 하며, 紀伊國 日高郡(日鷹) 지역을 본거지로 하면서 외교·수운 등에서 활약한 씨족이다.

168 日鷹吉士를 氏姓, 堅磐을 이름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169 日鷹을 인명으로 보고 堅磐은 筑前國 穗波郡 堅磐鄕이라는 지명으로 보아, 難波吉士日鷹과 堅磐固安錢으로 보는 설을 비롯하여, 堅磐과 固安錢을 두 사람으로 보는 견해, 堅磐의 본명을 固安錢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170 『日本書紀』 推古天皇 18년 10월조에 阿斗(아토) 강변의 숙소에 묵은 신라 사신이 다음 날 小墾田宮에 入宮하였으므로, 大和國 城下郡 阿刀村으로 추정할 수 있다(『大和志』).

키츠(比慮岐頭)라고 읽는다.]에 안치하였는데, 병들어 죽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천황은 대반대련실옥에게 명하여 동한직국(東漢直掬 ; 야마토노아야노아타히츠카)으로 하여금 신한도부고귀(新漢陶部高貴 ; 이마키노아야노스에츠쿠리카우쿠위)[171], 안부견귀(鞍部堅貴 ; 쿠라츠쿠리켄쿠위)[172], 화부인사라아(畵部因斯羅我 ; 에카키인시라가)[173], 금부정안나금(錦部定安那錦 ; 니시고리지야우안나코무)[174], 역어묘안나(譯語卯安那 ; 워사메우안나)[175] 등을 상도원(上桃原 ; 카미츠모모하라)[176] · 하도원(下桃原 ; 시모츠모모하라) · 진신원(眞神原 ; 마카미노하라)[177] 등 세 곳에 옮겨 살게 하였다[어떤 책에서는 길비신제군이 백제로부터 돌아와서 한수인부(漢手人部 ; 아야노테히토베), 의봉부(衣縫部 ; 키누누히베), 육인부(宍人部 ; 시시히토베)를 바쳤다고 하였다.].

8년 봄 2월에 신협촌주청(身狹村主靑 ; 무사노스구리아위)과 회외민사박덕(檜隈民使博德 ; 히노쿠마노타미노츠카히하카토코)을 사신으로 삼아 오국(吳國)으로 보냈다. 천황이 즉위하고 이 해에 이르기까지 신라국(新羅國)이 속이고 배반하며 포

광진읍도 그 부근을 흐르는 大和川 혹은 寺川의 나루로 생각된다.

171 新漢은 今來漢人과 같은 뜻이다. 陶部는 陶器, 즉 須惠器를 만들어 공납하는 品部이다. 高貴는 여기에만 보인다.

172 鞍部는 마구를 제작하는 品部로 鞍作 혹은 桉作이라고도 한다. 堅貴는 여기에만 보인다.

173 畵部는 畵工, 즉 그림을 그리는 일을 맡은 品部이다. 因斯羅我는 여기에만 보인다.

174 錦은 직조하는 데 많은 공이 들어 金과 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최고급 비단이며, 錦織은 그러한 고급직물을 생산하는 品部를 말한다. 定安那錦은 여기에만 보인다.

175 譯語는 통역을 뜻한다. 卯安那는 여기에만 보인다.

176 『日本書紀』 推古天皇 14년 5월조에 蘇我馬子를 桃原墓에 장사지냈다는 기사가 보인다. 그의 무덤은 高市郡 明日香村 島庄의 石舞臺古墳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므로, 이 지역이 도원으로 추정된다.

177 『日本書紀』 崇峻天皇 원년조에 처음으로 法興寺를 세우고, 이곳을 飛鳥의 眞神原이라고 이름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법흥사는 현재 高市郡 明日香村 飛鳥의 飛鳥寺이므로, 이 지역이 진신원으로 추정된다.

저(苞苴)[178]를 바치지 않은 지가 지금에 이르러 8년째였다. 그러나 중국(中國)[179]의 의도를 매우 두려워해서 고구려와 화의를 닦았다. 이로 인해 고구려 왕[180]이 정예병사 1백 인을 보내어 신라를 지키게 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고구려 군사 한 사람이 잠시 나라로 돌아갔는데, 이때 신라인을 전마(典馬)[181]로 삼았다[典馬는 우마카히(于麻柯比)라고 읽는다.]. 그가 돌아보며 "너희 나라는 우리나라에 의해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어떤 책에서는 "너희 나라가 마침내 우리의 땅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전마는 이를 듣고 거짓으로 배가 아프다고 하고 물러나서 뒤에 있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달아나 들은 바를 말하였다. 이에 신라왕이 고구려가 거짓으로 지켜주는 줄 알고, 사신을 보내 급히 나라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집안에서 기르는 수탉을 죽여라."라고 명하였다[182]. 나라 사람들이 곧 그 뜻을 알고 나라 안에 있는 고구려인을 모두 죽였는데, 다만 고구려인 한 사람이 틈을 타서 벗어나 도망쳐 자기 나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고구려왕은 곧 군사를 일으켜 축족류성(筑足流城)[183]에 모여서[어떤 책에서는 도구사기성(都久斯岐城)[184]이라고 하였다.] 드디어 노래와 춤으로 즐거움을 돋우었다.

이에 신라왕이 밤에 고구려군이 사방에서 춤추고 노래한다는 것을 듣고 적이 모두 신라 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이에 임나왕(任那王)[185]에게 사신을

---

178 억새나 갈대를 엮어서 생선을 싼 것으로 증정품 또는 예물이라는 의미이다.

179 倭·日本을 가리킨다.

180 시기적으로는 고구려 장수왕대에 해당한다.

181 말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는 馬夫에 해당한다.

182 고구려인들은 折風이라고 하여 새깃으로 머리를 장식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라인들도 닭깃을 머리에 꽂는 풍습이 있었다(『삼국유사』 歸竺諸師).

183 筑을 分註 속의 都久, 足流를 斯岐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都久는 達句, 足流는 스쿠루 즉 村으로 達句伐, 곧 현재의 대구 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184 여기에만 보이는 지명이다.

보내어 "고구려왕이 우리나라를 정벌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니 흔들리는 깃발과 같이 불안합니다. 나라의 위태로움이 달걀을 쌓은 것보다 더하고 목숨의 길고 짧음을 심히 헤아릴 수 없는 바입니다. 엎드려 일본부(日本府)의 행군원수(行軍元帥)[186] 등의 구원을 청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임나왕이 선신반구(膳臣斑鳩 ; 카시하데노오미이카루가)[187][斑鳩는 이카루가(伊柯屢俄)라고 읽는다.], 길비신소리(吉備臣小梨 ; 키비노오미워나시)[188], 난파길사적목자(難波吉士赤目子 ; 나니하노키시아카메코)[189]에게 신라를 구원하도록 권하였다. 선신(膳臣 ; 카시하데노오미) 등은 군영을 설치하고 머무르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으나[190], 고구려의 여러 장수들은 선신 등과 싸우기도 전에 모두 두려

---

185 『日本書紀』에서는 加羅, 安羅, 多羅 등 10국을 任那라고 총칭한 용례가 있다. 그밖에도 신라가 멸망시킨 卓淳, 喙己呑, 南加羅, 哆唎, 娑陀, 牟婁도 임나라고 불렀다. 그 중 유력한 나라의 王으로 생각되지만, 어느 나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86 『日本書紀』에서 '日本府'라는 용어가 처음 나타나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日本이라는 국호가 없었으므로, 倭府 혹은 倭臣이 원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古訓이 '야마토노미코토모치'이므로 왜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신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기사에서는 行軍元帥라고 하여 外征에 나선 장군에게 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5세기에는 왜가 신라를 빈번하게 침략하였으므로,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 왜의 장수를 뜻할 수 있다.

187 여기에만 보인다. 膳臣은 『日本書紀』에서는 孝元天皇의 皇子 大彦命이 시조라고 하였고, 『古事記』에서는 大彦命의 아들 比古伊那許士別命을 시조라고 하였다. 大彦命의 손자인 磐鹿六鴈命이 景行天皇의 東國巡幸 때 上總國에서 가다랑어와 대합 요리를 천황에게 바쳤고, 이후 천황의 음식을 조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188 여기에만 보인다. 吉備氏는 筑紫·出雲·毛野와 함께 가장 유력한 지방 호족이었다. 야마토 지역과 동맹을 맺고 북구주 세력을 억압 후 야마토 중심의 질서를 편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5세기 중엽에는 造山古墳·作山古墳 등 동시대의 최대 전방후원분을 축조하였다. 그러나 雄略天皇은 적극적으로 길비세력을 제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189 難波吉師라고도 표기하며(安康 원년 2월조), 외교·군사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였다. 5세기 중엽부터 日香蚊·赤目子·日鷹·熊成 등이 보인다.

190 원문의 未至營止를 「전장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야영을 하였다.」로 해석하기도 한다.

워하였다[191]. 선신 등은 직접 힘써 군대를 위로하고 나서 군사들에게 빨리 공격할 준비를 시켜 급히 진격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와 대치한 지 10여 일이 지나자, 밤에 험한 곳을 파서 땅굴을 만들어 군대의 무기와 식량을 모두 운반하고 매복병[192]을 배치하였다. 새벽에 고구려는 선신 등이 달아났다고 생각하여 병력을 모두 이끌고 추격해왔다. 그러자 매복병을 풀고, 보병과 기병이 협공하여 크게 깨뜨렸다[193]. 두 나라의 원한은 이로부터 생겼다[두 나라는 고구려와 신라를 말한다.]. 선신 등이 신라에게 "너희는 지극히 약한데도 지극히 강한 나라와 대적하였다. 관군(官軍)[194]이 구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번 싸움에서 하마터면 나라를 빼앗길 뻔하였다. 지금부터는 어찌 천조(天朝)를 배반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9년 봄 2월 갑자삭(1일)에 범하내직향사(凡河內直香賜 ; 오호시카후치노아타히카타부)[195]를 채녀와 함께 보내 흉방신(胸方神 ; 무나카타노카미)[196]에게 제사지내게 하였다. 그런데 향사가 제단[197]에 가서[香賜는 카타부(舸拕夫)라고 읽는다.] 제사를

---

191 이하 고구려와 교전한 내용을 기록한 문장은 『三國志』 魏書 武帝紀의 「未至營止. 諸將未與太祖相見皆怖. 太祖乃自力勞軍, 令軍中促爲攻具, 進復攻之. 與布相守百餘日.」, 「乃夜鑿險爲地道, 悉過輜重, 設奇兵. 會明賊謂, 公爲遁也. 悉軍來追. 乃縱奇兵, 步騎夾攻, 大破之.」 등의 문장에 의한 윤색이므로 사실 여부가 의심스럽다.

192 원문에는 奇兵으로 되어 있다.

193 5세기 중엽까지 신라·가야·왜에서는 기병에 의한 전투가 일반화되지 않았으므로 사실로 신뢰하기 어렵다.

194 왜의 군사력을 말한다.

195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天津彦根命을 시조로 하며 國造 가문이다. 天武 12년 9월 정미에 連이라는 姓, 동 14년 6월 갑오에 忌寸이라는 성을 받았다. 凡河內直의 세력 범위는 율령제하의 河內國뿐만 아니라 攝津國에도 미쳤다.

196 일반적으로 筑前國의 宗像大社에서 모시는 宗像三女神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현재 奈良縣 櫻井市에 있는 宗像神社로 보는 견해도 있다.

지내려고 할 때 그 채녀를 범하였다. 천황이 듣고 "신에게 제사지내고 복을 기원할 때에는 몸을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난파일응길사(難波日應吉士 ; 나니하노히타카노키시)[198]를 보내 주살하게 하였다. 이때 향사는 달아나고 없었다. 그리하여 천황이 다시 궁삭련풍수(弓削連豐穗 ; 유게노무라지토요호)[199]를 보내 널리 나라 안[200]에서 찾게 하였다. 드디어 삼도군(三嶋郡 ; 미시마노코호리)[201] 남원(藍原 ; 아위노하라)[202]에서 잡아서 목을 베었다.

3월에 천황이 친히 신라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신(神)[203]이 천황에게 "가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하였다. 천황이 이 때문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기소궁숙녜(紀小弓宿禰 ; 키노워유미노스쿠네)[204], 소아한자숙녜(蘇我韓子宿禰 ; 소가노카라코노스쿠네)[205], 대반담련(大伴談連 ; 오호토모노카타리노무라지)[206][談은 카타리(箇陀利)라고 읽는다], 소록화숙녜(小鹿火宿禰 ; 워카히노스쿠네)[207] 등에게 "신라는 본래 서

197 원문에는 檀所로 되어 있다. 신이 깃들어 있는 神域으로 생각된다.

198 『日本書紀』 雄略天皇 7년 是歲條에 보이는 日鷹吉士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199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弓削連은 弓削部를 관장하여 활의 제작을 담당하는 伴造氏族이다.

200 원문은 國郡縣으로 되어 있다.

201 攝津國의 동쪽 지역이다. 후에 島上, 島下 2군으로 나누어졌다.

202 『和名類聚抄』에 보이는 島下郡 安威鄕이다. 현재 大阪府 茨木市 安威이다. 繼體紀 25년 12월조에 천황을 藍野陵에 장사지냈다고 한 남야와 같은 곳으로 생각된다. 이곳에는 式內社 我爲神社가 있다.

203 『日本書紀』 雄略天皇 9년 2월조에 보이는 胸方神으로 생각된다. 흉방신은 항해의 안전 등을 관장하는 신이다.

204 신라 정벌군의 大將軍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며, 신라에서 전투 중에 병사하였다. 5월조에서는 大伴室屋과 같은 지역 이웃마을 사람이라고 하였다.

205 『公卿補任』에는 蘇我滿智의 아들이자 蘇我高麗의 아버지라고 하였다. 新羅에서 紀大磐宿禰와 내분을 일으켜 大磐에게 살해되었다.

206 大伴室屋의 아들이자 大伴金村의 아버지로, 신라에서 전사하였다.

207 5월조에서 角臣의 조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古事記傳』에서는 小弓宿禰의 아들이라

쪽 땅에 있는데, 대대로 신하를 칭하였다. 나를 조공하여 알현하는 일[208]을 어긴 적이 없으며 공직(貢職)도 정성껏 바쳤다. 짐이 천하의 왕이 되기에 이르러서 몸을 대마(對馬 ; 쓰시마)의 바깥에 두고, 자취는 잡라(匝羅)[209]의 바깥에 숨기면서 고구려의 공물을 막고, 백제의 성을 삼켰다. 이에 다시 전혀 조빙하지 않고, 공직(貢職)을 행하지 않는다. 이리 새끼와 같은 거친 마음[210]을 품고 배부르면 날아가고, 배고프면 붙는다[211]. 이에 너희들 네 사람을 대장으로 임명한다. 마땅히 왕사(王師)[212]로써 핍박하고 정벌하여 천벌(天罰)을 받들어 행하라."고 칙을 내렸다.

이에 기소궁숙녜는 근심하여 대반실옥대련(大伴室屋大連 ; 오호토모노무로야노오호무라지)[213]에게 "신은 비록 졸렬하고 약하지만 삼가 칙을 받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신의 처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의 시중을 들 사람이 없습니다. 공

고 하였으나 계보는 잘 알 수 없다.

208 원문은 朝聘으로 되어 있다.

209 草羅 혹은 畝良이라고도 표기하며 현재의 梁山을 가리킨다. 神功紀의 沙比新羅의 沙比도 畝과 음이 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산 지역은 朴堤上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라가 가야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곳이었고, 倭에서도 신라 방면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 방면의 바다 혹은 대한해협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鉏海의 鉏 역시 농기구인 '삽'이라는 음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畝·匝과 통한다.

210 원문에는 野心으로 되어 있다. 이리새끼는 길러서 길들이려 해도 마음은 늘 산에 있어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 '흉포하여 교화할 수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211 이 기사의 원문도 『三國志』 魏書 呂布傳을 인용한 것이다.

212 帝王의 군대를 말한다. 官軍과 같은 뜻이다.

213 『日本三代實錄』과 『伴氏系圖』 등에 大伴武持의 아들로 되어 있으며, 談과 御物의 아버지다. 『新撰姓氏錄』에는 天押日命의 十一世孫, 道臣命의 七世孫이라고 하였다. 『日本書紀』 允恭天皇 11년에는 衣通郎姬를 위하여 藤原部를 설치하였으며, 雄略天皇 즉위시에 物部連目과 함께 大連이 되었다. 雄略 2년에 百済가 바친 池津媛을 범한 石川楯을 붙잡아 來目部로 하여금 처형토록 하였으며, 雄略이 죽은 후 東漢直掬에 명하여 星川皇子의 난을 진압토록 하였다. 또한 清寧天皇 2년 각지역에 白髮部舍人, 白髮部膳夫, 白髮部靫負를 설치하였다. 武烈天皇까지 5대에 걸쳐 대련으로 정권을 장악한 인물이다.

(公)께서는 이 사정을 천황에게 자세히 말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반실옥대련이 자세하게 아뢰었다. 천황은 이를 듣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길비상도채녀대해(吉備上道采女大海 ; 키비노카미츠미치노우네메오호시아마)[214]를 기소궁숙녜에게 주어 그를 따르며 시중들게 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수레를 밀어서[215] 전장으로 보냈다. 기소궁숙녜 등은 신라로 들어가서 근처의 고을을 다니면서 공격하였다[216][행도(行屠)는 다니면서 공격하는 것이다.].

신라왕은 밤에 사방에서 관군의 북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 탁지(喙地)[217]가 모두 점령되었다고 생각하여, 수백 명의 군사와 더불어 도주하였다. 이에 크게 패하였다. 소궁숙녜(小弓宿禰 ; 워유미노스쿠네)는 쫓아가 적장을 진중에서 베었다. 그리고 탁지를 모두 평정하였는데, 남아있던 무리들은 항복하지 않았다. 기소궁숙녜는 또한 병사를 거두어 대반담련 등과 만났다. 병사들은 크게 떨쳐 일어나 남은 무리들과 함께 싸웠다. 이 날 저녁에 대반담련 및 기강전래목련(紀岡前來目連 ; 키노워카자키노쿠메노무라지)[218]은 모두 힘껏 싸우다 죽었다. 담련(談連 ; 카타리노무라지)의 시종이자 같은 성을 가진 진마려(津麻呂 ; 츠마로)[219]는 후에 군중(軍中)으로 들어가 그 주인을 계속 찾았다. 그러나 군중에서 보이

---

214 吉備地域의 豪族인 吉備上道臣이 바친 采女로 생각된다. 舒明紀에도 吉備國蚊屋采女가 보인다.

215 원문은 推轂이다. 임금이 출전하는 장군의 수레를 친히 밀어서 출발시키던 일을 가리킨다.

216 원문은 行屠로 되어 있다.

217 喙은 음이 '록'이지만 일본에서는 '토쿠'라고 읽고 있어, 탁이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喙은 啄의 誤字나 異表記로 생각되며, 신라의 육부 중 啄部, 沙啄部, 漸啄部의 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喙地는 경주 혹은 신라 전체를 뜻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18 淸寧紀의 城丘前來目과 이름이 유사하나 동일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紀伊國 名草郡 岡崎村을 본거지로 하는 來目氏로 보인다.

219 大伴津麻呂이다. 여기에만 보인다.

지 않자, "나의 주인 대반공(大伴公 ; 오호토모노키미)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물었다. 어떤 사람이 "그대의 주인들은 결국 적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면서, 시체가 있는 곳을 가리켰다. 진마려가 듣고는 발을 구르고 절규하며, "주인이 이미 돌아가셨다. 어찌 홀로 온전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뒤이어 다시 적에게 나아가 함께 죽었다. 얼마 후에 남은 무리들이 스스로 물러나자 관군 또한 마침내 물러났다. 대장군 기소궁숙녜는 병에 걸려 죽었다(薨).

여름 5월에 기대반숙녜(紀大磐宿禰 ; 키노오히하노스쿠네)[220]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것을 듣고 신라로 가서 소록화숙녜가 거느리는 병마(兵馬)와 선관(船官) 및 여러 소관(小官)을 맡아 마음대로 지휘하였다. 이에 소록화숙녜는 대반숙녜를 크게 원망하였다. 그리하여 한자숙녜에게 "대반숙녜가 나에게 '나는 마땅히 머지않아 다시 한자숙녜가 거느리는 병사들을 맡을 것이다.'라고 하였소. 원컨대 굳게 지키시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대반숙녜와 한자숙녜는 틈이 생겼다. 이에 백제왕은 일본의 여러 장군들이 작은 일로 인해 틈이 생겼다는 것을 듣고 사람을 한자숙녜 등에게 보내, "나라의 경계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청컨대 왕림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한자숙녜 등은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갔다. 강에 이르렀을 때 대반숙녜는 말에게 물을 먹였다. 이때 한자숙녜가 뒤에서 대반숙녜의 안장 뒷부분에 화살을 쏘았다. 대반숙녜가 이에 놀라서 뒤돌아보고 한자숙녜를 활로 쏘아 떨어뜨리니, 흐르는 강 속에 빠져 죽었다. 이 세 신하는 전부터 서로 다투어 가는 도중에 소란을 피우니, 백제왕의 궁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왔다.

채녀대해가 소궁숙녜의 관을 따라 일본으로 돌아왔다. 마침내 대반실옥대련에게 "첩은 장사 지낼 장소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컨대 좋은 땅을 정해주십시오."라고 조심스럽게 상의하였다. 대련(大連)은 이를 천황에게 아뢰었다. 천

220 紀小弓宿禰의 아들로 顯宗紀 3년조에 紀生磐宿禰로 보인다.

황은 대련에게 "대장군 기소궁숙녜는 용처럼 날래고 범과 같이 노려보아 두루 온 세상을 아울러 바라보았으며, 반하는 무리를 토벌하고 사해(四海)를 평정하였다. 그리하여 몸을 먼 곳에서 힘쓰다가 목숨을 삼한(三韓)에서 잃게 되었다. 마땅히 슬퍼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해서 장례를 치를 사람을 정하라. 또한 그대 대반경(大伴卿 ; 오호토모노마헤츠키미)[221]과 기경(紀卿 ; 키노마헤츠키미)[222] 등은 같은 지역에서 이웃한 유래가 오래되었다[223]."라고 명하였다. 이에 대련은 칙을 받들어 토사련소조(土師連小鳥 ; 하지노무라지워토리)[224]에게 무덤을 전신륜읍(田身輪邑 ; 타무와노무라)[225]에 만들어 장사지내게 하였다. 이 때문에 대해(大海 ; 오호아마)가 크게 기뻐하여 혼자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한노실(韓奴室 ; 카라노야츠코무라)[226], 형마려(兄麻呂 ; 에마로), 제마려(弟麻呂 ; 오토마로), 어창(御倉 ; 미쿠라), 소창(小倉 ; 워쿠라), 침(針 ; 하리)의 6인을 대련(大連)에게 보냈다. 길비상도(吉備上道 ; 키비노카미츠미치)[227] 문도전읍(蚊嶋田邑 ; 카시마다노무라)[228]의 가인부(家人部 ; 야케히토라)[229]가 이것이다.

---

221 大伴室屋大連을 말한다.

222 紀大磐宿禰를 말한다.

223 『日本書紀』 欽明天皇 원년 9월조에 大伴金村이 관직에서 물러나 住吉에 있는 집으로 갔다고 한 내용이나 『萬葉集』에 보이는 '大伴의 御津', '大伴의 高師의 濱'과 같은 지명으로 미루어, 攝津國에서 和泉에 걸친 해안지역에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奈良時代에 大伴氏 일족이 紀氏의 본거지인 紀伊國 名草郡과 那賀郡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료가 많다.

224 여기에만 보인다. 土師連은 土師器의 제작과 관련된 씨족이고, 장례에도 깊이 관계하였다.

225 和泉國 日根郡 淡輪村(현재의 大阪府 泉南郡 岬町 淡輪)이다. 니산자이古墳과 西陵古墳을 중심으로 하는 古墳時代 중기의 유력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226 한반도 출신의 奴라는 뜻으로, 采女大海가 紀小弓宿禰를 따라 신라에 갔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은 모두 일본식이다.

227 吉費 上道는 현재 岡山市 동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228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229 율령제에서는 陵戶, 官戶, 家人, 公私奴婢의 5등급의 賤人이 있었다. 가인은 사노비보다

소록화숙녜는 따로 기소궁숙녜의 관을 따라 왔다. 이때 홀로 각국(角國 ; 츠노쿠니)[230]에 머물렀다. 그리고 왜자련(倭子連 ; 야마토고노무라지)[231][연(連)은 어떤 성(姓)을 가진 사람인지 자세히 알수 없다.]을 시켜 팔지경(八咫鏡)[232]을 대반대련에게 바치고 "저는 기경(紀卿)과 함께 천조(天朝)를 받들어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각국에 머물러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청하였다. 이에 대련(大連)은 천황에게 아뢰어 각국에 머물러 살게 하였다. 이 각신(角臣 ; 츠노오미) 등이 처음으로 각국에 살게 되었으며, 각신(角臣)이라는 이름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가을 7월 임진삭(1일)에 하내국(河內國 ; 카후치노쿠니)이 "비조호군(飛鳥戶郡 ; 아스카베노코호리)[233] 사람 전변사백손(田邊史伯孫 ; 타나베노후비토하쿠손)[234]의 딸은 고시군(古市郡 ; 후루이치노코호리)[235] 사람 서수가룡(書首加龍 ; 후미노오비토카리요우)[236]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백손(伯孫)은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

는 상위에 있었지만 개인이 사유하는 하층민이었다.

230 周防國에 都濃라는 郡이 있으며, 『先代舊事本紀』에는 周防國造와 都怒國造가 보인다. 따라서 후대에 周防國에 소속된 지역으로 생각된다. 周防國이 세토나이카이 서쪽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오는 길에 그곳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231 『三代實錄』 貞觀 3년 11월조에 室屋大連公의 맏아들 御物宿禰의 자손으로 倭胡連公이 允恭天皇대에 처음으로 讚岐國造로 임명되었는데, 倭胡連公은 佐伯直豐雄 등의 시조라는 기록이 보인다.

232 큰 銅鏡을 뜻한다. 이를 大伴大連에게 바쳤다는 것은 朝政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팔지경으로 추정되는 직경 40cm가 넘는 대형 거울(내행화문경)이 발굴되고 있다.

233 『和名類聚抄』에 河內國 安宿郡 安須加倍(아스카베)가 보인다. 이전에는 나라분지 내의 飛鳥와 구분하기 위하여 安宿郡을 飛鳥戶郡이라고 하였을 수 있다. 大阪府 柏原市 남부와 羽曳野市 남동부에 해당한다. 백제 왕족 昆支를 모시는 飛鳥戶神社가 위치하고 있다.

234 『新撰姓氏錄』에 田邊史는 漢王의 후예인 知惣으로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고, 大阪府 柏原市에 田邊이라는 지명이 있으며, 田邊 廢寺遺蹟도 있다. 伯孫은 百尊이라고도 쓴다.

235 古市郡은 대체로 羽曳野市의 거의 중앙부이며 石川의 왼쪽 기슭이다. 이곳의 西琳寺가 書氏의 氏寺로 전한다.

236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書首는 文首로도 쓴다.

고, 사위집에 가서 축하하고 달밤에 돌아왔습니다. 봉류구(蓬藁丘 ; 이치비코노워카)[봉류는 이치비코(伊致寐姑)라고 읽는다.]의 예전릉(譽田陵 ; 호무타노미사사기)[237] 아래에서 붉은 준마를 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말이 때로 용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갑자기 높이 솟아오르고 갑자기 뛰어 올라 기러기처럼 놀랐습니다. 기이한 몸은 산봉우리처럼 생겼고, 특이한 모습은 빼어났습니다[238]. 백손은 나아가 살펴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에 타고 있는 푸른 빛을 띤 백마[239]를 채찍질해서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고삐를 나란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붉은 말이 뛰어올라 먼지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달려가서 사라졌습니다. 이에 푸른 빛을 띤 백마가 뒤처졌는데, 말이 늦어서 다시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탄 사람은 백손이 원하는 바를 알고 곧 멈추어 말을 바꾸고 서로 인사하며 헤어졌습니다. 백손은 준마를 얻어서 매우 기뻐하며 달려가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장을 풀고 말에게 먹이를 주고 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붉은 준마가 흙으로 빚은 말[240]로 변해 있었습니다. 백손이 이상하게 여겨 되돌아가서 다시 예전릉(譽田陵)에 찾아가니 그곳에서 흙으로 만든 말들의 사이에 자기 말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말과 바꿨던 흙으로 빚은 말을 그곳에 두었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하였다.

10년 가을 9월 을유삭 무자(4일)에 신협촌주청(身狹村主青 ; 무사노스구리아

237 應神天皇(譽田天皇)의 능으로 생각된다. 현재 大阪府 羽曳野市 譽田의 譽田御廟山古墳으로 추정되며, 등장인물의 소재지와도 가까운 위치에 있다.

238 말에 대한 묘사는 『文選』 권13 「赭白馬賦」에 「異體峰生, 殊相逸發」, 「欻聳以鴻驚, 時濩略而龍翥」 등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239 원문에는 驄馬로 되어 있다.

240 원문에는 土馬로 되어 있다. 일본 고대 古墳에 말 모양의 土偶가 부장되는 경우가 있었다. 應神陵의 外堤에서도 埴輪으로 사용된 土馬가 출토되었으며, 陪塚인 丸山古墳에서도 금동제 마구가 출토되었다.

워)[241] 등이 오나라가 바친 두 마리의 거위를 가지고 축자(筑紫 ; 츠쿠시)에 이르렀다[242]. 이 거위는 수간군(水間君 ; 미누마노키미)[243]의 개에 물려 죽었다[다른 책에서는 "이 거위는 축자의 영현주니마려(嶺縣主泥麻呂 ; 미네노아가타누시네마로)[244]의 개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수간군이 두렵고 걱정스러워 스스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고니[245] 10마리를 양조인(養鳥人)과 함께 바치고 속죄하기를 청하였다. 천황이 허락하였다.

겨울 10월 을묘삭 신유(7일)에 수간군이 바친 양조인 등을 경촌(輕村 ; 카루노후레)과 반여촌(磐余村 ; 이하레노후레) 두 곳에 안치하였다.

11년 여름 5월 신해삭(1일)에 근강국(近江國 ; 아후미노쿠니) 율태군(栗太君 ; 쿠루모토노코호리)[246]이 "흰 바다가마우지[247]가 곡상(谷上 ; 타나카미)의 물가에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명하여 천뢰사인(川瀨舍人 ; 카하세노토네리)[248]을 두었다.

---

241 주 91 참조.

242 雄略代에는 중국 南朝의 宋에 사신을 파견하였다(『宋書』).

243 景行天皇과 襲武媛 사이에서 태어난 國乳別皇子를 시조로 한다. 水沼氏는 大和政權의 일원으로 筑紫 지역에 파견되어 大陸에서 有明海·筑後川을 거쳐 筑紫에 이르는 사신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44 肥前國 三根郡으로 추정된다. 『肥前國風土記』에 의하면 三根郡은 원래 神埼郡의 三根鄕이었으며, 三根을 본거지로 하는 海部直鳥가 神埼郡을 나누어 三根郡을 분립할 때 그 본거지의 이름을 따서 삼근군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海部直鳥는 有明海 연안의 漁民 집단을 통솔하면서 해상교역에 종사하여 큰 세력을 떨친 호족으로 생각된다.

245 원문에는 鴻으로 되어 있다.

246 瀨田川의 동쪽에서 琵琶湖 남부의 동쪽 기슭에 걸친 군으로, 현재 大津市의 일부 및 草津市와 栗太郡 지역에 해당한다. 栗本郡이라고도 쓴다.

247 가마우지는 원래 검은색이므로 흰색 가마우지는 후대의 祥瑞에 해당한다.

248 『古事記』에서는 白髮太子(淸寧天皇)의 名代로 白髮部, 長谷部舍人, 河瀨舍人을 정하였다고 하였으므로 名代로 생각된다. 近江國 太上郡(慈賀縣 彦根市)에 川瀨라는 지명이 있다.

가을 7월에 백제국에서 도망쳐 귀화해 온 사람이 있었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이 귀신(貴信)이라고 하였다. 또 귀신은 오국(吳國)의 사람이라고도 하였다. 반여(磐余 ; 이하레)의 오금(吳琴)[249]을 연주하는 강수옥형마려(壇手屋形麻呂 ; 사카테노야카타마로)[250] 등은 그의 후손이다.

겨울 10월에 조관(鳥官)[251]의 새가 토전(菟田 ; 우다)[252] 사람의 개에 물려서 죽었다. 천황이 화가 나서 얼굴에 문신을 새기고 조양부(鳥養部 ; 토리카히베)[253]로 삼았다. 이에 신농국(信濃國 ; 시나노노쿠니) 직정(直丁)[254]과 무장국(武藏國 ; 무사시노쿠니) 직정이 숙직을 섰다. 서로 "아아. 우리나라에 있는 새를 모아서 쌓는다면 높이가 작은 묘와 같을 것이다. 아침저녁으로 먹어도 오히려 남을 것이다. 지금 천황이 새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의 얼굴에 묵형을 하였다. 크게 도리에 어긋난다. 악한 일을 하는 군주이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이 이를 듣고 새를 모아 쌓도록 하였다. 직정(直丁) 등은 갑자기 준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 (그들을) 조양부(鳥養部)로 삼았다.

12년 여름 4월 병자삭 기묘(4일)에 신협촌주청(身狹村主靑 ; 무사노스구리아워)[255]과 회외민사박덕(檜隈民使博德 ; 히노쿠마노타미노츠카히하카토)[256]을 오(吳 ; 쿠레)[257]

---

249 吳에서 건너와 琴을 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250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251 식용이나 관상용으로 새를 기르는 官司를 이렇게 부른 것인지, 그 일을 맡은 官人을 뜻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252 奈良縣 宇陀郡이다.

253 새를 기르는 일을 맡은 部로, 鳥官의 관인을 신분을 낮추어 鳥養部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254 율령제하에서는 50戶마다 2인씩 仕丁을 징발하였는데, 그 중에서 각 관사에 배속되는 자를 直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仕丁과 直丁이 존재하였는지, 또한 어떻게 징발했는지는 알 수 없다.

255 주 91 참조.

에 사신으로 보냈다[258].

겨울 10월 계유삭 임오(10일)에 천황이 목공(木工)인 투계어전(鬪鷄御田 ; 츠케노미타)[259][어떤 책에서는 저명부어전(猪名部御田 ; 이나베노미타)[260]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잘못일 것이다.]에게 처음으로 누각(樓閣)[261]을 세우게 하였다. 이에 어전이 누각에 올라 사방으로 빠르게 뛰어 다니는 것이 마치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이때 이세(伊勢 ; 이세)의 채녀[262]가 누각 위를 올려다보다가 그가 빠르게 다니는 것을 보고 뜰에서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천황의 찬(饌)을 뒤엎었다[찬(饌)은 천황이 드시는 음식이다.]. 천황은 문득 어전이 그 채녀와 간통하였다고 의심하고 벌을 주고자 하여 물부로 보냈다[263]. 이때 진주공(秦酒公 ; 하다노사케노키미)[264]이 천황의 곁에서 앉아서 모셨는데, 금(琴 ; 코토) 소리로 천황을 깨우치게 하고자 금(琴)을 타며 노래를 불렀다.

---

256 주 92 참조.

257 웅략천황이 사신을 보낸 나라는 중국 南朝의 宋이다. 따라서 남조를 吳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6세기대에 일본에 전래된 중국 남조의 한자 음가를 吳音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58 이 두 사람은 雄略 8년 2월에 吳國(宋)에 파견되었다가 10년 9월에 귀국하였다. 그리고 이때 다시 吳國에 파견되었는데, 14년 정월에 귀국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259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260 猪名은 지명으로는 『和名類聚抄』에 攝津國 河邊郡 爲奈가 보인다(兵庫縣 尼崎市 북동부). 여기에서는 木工을 담당하는 品部이다.

261 토대 등의 기단 위에 세운 건물로, 특히 다층 건물을 말한다.

262 『和名類聚抄』에는 伊勢國 三重郡 采女鄕이 보이고, 『古事記』에서는 '伊勢國之三重婇'라고 하였으므로, 현재의 三重縣 四日市市 采女町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63 여기에서의 物部는 刑吏라는 의미로 令制의 囚獄司의 伴部에 物部 40인이 있어, 죄인의 형벌을 집행하는 일을 맡고 있다. 또한 囚獄司에는 物部丁 20인이 속해 仗을 가지고 獄을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264 秦造酒의 전승은 雄略 15년조에 자세하다. 목공과 관련하여 秦酒公이 등장하는 것은 도래계 목공 관련 品部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신풍(神風)[265]이 부는 이세(伊勢), 이세의 들에 있는 울창한 나무의 가지를 수없이 꺾으며 그것이 다할 때까지 대왕[大君]을 굳게 모시려는데 내 목숨도 길면 좋으련만 하던 목수는 얼마나 원통해 할는지.

이에 천황이 금(琴) 소리에 깨닫고는 그 죄를 용서하였다.

13년 봄 3월에 협수언(狹穗彦 ; 사호비코)[266]의 현손(玄孫) 치전근명(齒田根命 ; 하타네노미코토)[267]이 몰래 채녀 산변소도자(山邊小嶋子 ; 야마노베노코시마코)[268]를 범하였다. 천황이 듣고 치전근명을 물부목대련에게 맡겨서 죄를 추궁하게 하였다. 이에 치전근명이 말 8필과 대도(大刀) 8자루로 죄과를 씻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

산변소도자(山邊小嶋子)로 인해 사람들이 탐내는 말 8마리를 내놓는 것은 조금도 애석하지 않구나.

목대련(目大連 ; 메노오호무라지)이 이를 듣고 천황에게 아뢰니 천황이 치전금명에게 재산[269]을 내어 이향(餌香 ; 에카)[270]의 저자거리에 있는 귤나무 아래에

---

265 신이 불러일으키는 격렬한 바람을 뜻한다. 伊勢灣에서 若狹으로 바람길이 있는데 그곳에 부는 센 바람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伊勢라는 말의 枕詞이다.

266 『日本書紀』 垂仁天皇 4년 7월 무신조 참조.

267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開化天皇의 아들 彦坐王의 5세손으로 전하기도 한다.

268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大和國의 山邊이나 伊勢國의 山邊 출신으로 采女로 바쳐진 것으로 생각된다.

269 원문에는 資財로 되어 있다. 율령의 용어로서는 田宅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 牛馬奴婢稻 등의 동산이라는 의미이다.

270 會賀, 惠賀, 惠我, 衛我 등으로도 표기한다. 大和川의 지류인 石川 하류 지역인 大阪部

두게 하였다. 마침내 이향의 장야읍(長野邑 ; 나가노노무라)[271]을 물부목대련에게 내렸다.

가을 8월에 파마국(播磨國 ; 하리마노쿠니)의 어정외(御井隈 ; 미위쿠마)[272] 사람 문석소마려(文石小麻呂 ; 아야시노워마로)[273]는 힘이 있고 마음이 억세었다. 그는 행동을 제멋대로 하고 포악하여 길 한가운데서 위협하고 빼앗아 통행할 수 없게 하였고, 상인들의 배가 가는 길을 끊어 모두 빼앗았다. 아울러 국법(國法)[274]을 어겨서 조부(租賦)를 내지 않았다. 이에 천황이 춘일소야신대수(春日小野臣大樹 ; 카스가노워노오미오호키)[275]로 하여금 죽음을 무릅쓴 군사 1백 명을 거느리게 하였다. 이들은 함께 횃불을 들고 집을 둘러싸고 불태웠다. 이때 화염 속에서 흰 개가 갑자기 뛰어나와 대수신(大樹臣 ; 오호키노오미)을 쫓아왔는데, 그 크기가 말과 같았다. 대수신은 동요하지도 않고 안색도 바꾸지 않으면서 칼을 빼어 베었다. 이는 곧 문석소마려로 변하였다.

가을 9월에 목공인 위나부진근(韋那部眞根 ; 위나베노마네)[276]이 돌을 가지고 나무를 괴는 받침대로 삼아, 도끼를 휘둘러 재목을 깎았다. 종일토록 깎아도 잘못해서 날을 상하는 일이 없었다. 천황이 그곳에 행차하여 이를 이상하게

藤井寺市 國府 주변으로 생각된다. 이 시장은 顯宗紀에도 보인다.

271 『和名類聚抄』에 河內國 志紀郡 長野鄕이 보인다. 藤井寺市 岡과 그 주변 지역이며, 式內寺 長野神社가 있다.

272 미상이다. 『播磨國風土記』 讚容郡條에 邑寶里 御井村이 보이지만, 내륙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기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73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274 大和朝廷에서 정한 법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75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小野妹子와는 다른 계통으로 大和國 添上郡 春日鄕을 본거지로 하는 씨족으로 생각된다.

276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韋那部는 신라에서 온 장인집단으로 생각되며, 推古天皇의 孫女 중에 韋那部橘王(橘大郎女)이라고 하여 韋那部를 冠稱한 인물이 보인다. 그밖에 임신의 난 때 大友皇子 측에서 활약한 韋那磐鍬가 있다.

여겨, "늘 돌을 잘못 때리는 일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진근(眞根 ; 마네)이 "아직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채녀를 불러 모아서 치마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잘 보이는 곳에서 씨름을 하게 하였다. 진근은 때때로 멈추고 쳐다보고 나무를 깎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잘못 놀려 도끼날이 상하였다. 천황이 이에 "어디 사는 놈이냐? 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함부로 대답을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그리고 물부(物部)[277]에 보내 들에서 형을 집행하게 하였다. 이때 같이 일하던 기술자[巧者]가 진근을 탄식하고 애석해하며 노래를 지어 불렀다.

아깝도다. 위나부[韋那部 ; 위나베]의 목수[工匠]가 치던 먹줄이여. 그가 없으면, 누가 치겠는가, 아까운 저 먹줄이여.

천황이 이 노래를 듣고 다시 뉘우치고 애석해 하는 마음이 생겨 탄식하고 한탄하며, "사람을 잃을 뻔 했구나."라고 하였다. 이에 사면하는 사자[278]로 하여금 갑비(甲斐 ; 카히)의 흑마[279]를 타고 달려가 형장에 가서 형을 중지하고 죄를 사하게 하였다. 또한 묶은 줄을 풀게 하였다. 그러자 (기술자가) 다시 노래를 지어 불렀다.

범부채 열매같이 검은 갑비(甲斐)의 검은 망아지에 만약 안장을 얹었더라면[280], 아마 위나부(韋那部)의 목수는 죽어 있었겠지[어떤 책에는 죽었을 것이라는 표현 대신에 때맞춰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277 刑部와 같다.

278 원문에는 赦使로 되어 있다.

279 甲斐國에서 좋은 말이 났다. 황실의 목장도 이 곳에 있었다.

280 사면을 알리는 사자가 말에 안장도 올리지 않고 달려간 것으로 생각된다.

14년 봄 정월 병인삭 무인(13일)에 신협촌주청(身狹村主青 ; 무사노스구리아워) 등이 오국(吳國)의 사신과 함께 오(吳)가 바친 수말재기(手末才伎)인 한직(漢織 ; 아야하토리)[281], 오직(吳織 ; 쿠레노하토리)[282] 및 의봉(衣縫)인 형원(兄媛 ; 에히메)[283]과 제원(第媛 ; 오토히메)[284]을 거느리고, 주길진(住吉津 ; 스미노에노츠)[285]에 머물렀다[286]. 이 달에 오의 사신을 위한 길을 만들어 기치진로(磯齒津路 ; 시하츠노미치)[287]와 통하게 하고, 오판(吳坂 ; 쿠레사카)[288]이라고 이름하였다.

3월에 신련(臣連)에게 명해서 오의 사신을 맞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오인(吳人)을 회외야(檜隈野 ; 히노쿠마노노)[289]에 거주하게 하였다. 따라서 오원(吳原 ; 쿠레하라)[290]이라고 이름하였다. 또한 의봉 형원에게 대삼륜신(大三輪神 ; 오호미와노카미)[291]을 받들게 하고, 제원을 한의봉부(漢衣縫部 ; 야야노키누누히베)[292]로 삼

---

281 吳織과 더불어 중국에서 건너온 직조기술자이다. 吳가 강남지역을 가리키는데 대하여, 漢은 황하 유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282 漢織과 함께 중국에서 건너온 직조기술자이다.

283 衣縫은 천으로 옷을 짓는 사람이다. 兄媛은 大三輪神에게 바쳐졌다고 하므로, 神社에 소속되어 옷을 지은 것으로 생각된다.

284 衣縫으로서 兄媛과 함께 왜에 온 弟媛은 漢衣縫部라는 집단을 구성하였다. 제원은 재봉기술을 지도하여 옷을 짓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285 大阪市 住吉區의 細江川 하구에 있는 나루로, 神功紀와 履中紀 등에도 보인다.

286 『日本書紀』 應神天皇 37년 2월, 41년 2월조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인다.

287 明治 19년의 지도를 통해 住吉神社의 남쪽에서 上町臺地를 넘어 동으로 나아가 東住吉區의 과거의 鷹合村을 거쳐 住吉郡과 丹北郡의 郡界를 지나 若江郡 八尾에 이르는 도로가 확인되었다. 근세의 八尾街道에 해당하는 이 도로가 磯齒津路일 것이다.

288 磯齒津路를 통해 볼 때 住吉에서 上町臺地의 남단을 넘어서 喜連으로 가는 곳을 吳坂으로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

289 『和名類聚抄』에 大和國 高市郡 檜前鄕이 보이며, 栗原, 大根田, 阿部山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생각된다.

290 明日香村의 檜前의 남동쪽 栗原 지역으로 생각된다.

291 三輪山을 神體로 하는 신이며, 大神神社가 모시는 신이다.

았다. 한직, 오직, 의봉은 비조의봉부(飛鳥衣縫部 ; 아스카노키누누히베)[293], 이세의봉(伊勢衣縫 ; 이세노키누누히라)[294] 등의 시조이다.

여름 4월 갑오삭(1일)에 천황이 오인(吳人)들을 접대하고자 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같이 음식을 먹을 사람[295]으로 누가 좋겠는가?"라고 두루 물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근사주(根使主 ; 네노오미)[296]가 좋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천황은 곧 근사주에게 명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삼고, 드디어 석상(石上 ; 이소노카미)[297]의 고발원(高拔原, 타카누키하라)[298]에서 오인을 접대하였다. 이때 몰래 사인(舍人)을 보내어 복장[299]을 살펴보게 하였다. 사인은 "근사주가 장식한 옥만(玉縵)[300]이 아주 귀하고 가장 좋았습니다."라고 복명하였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전에 사신을 맞이할 때도 또한 장식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천황이 직접 보고자 하여 신련(臣連)에게 명하여, 향응을 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꾸미고 대전 앞에 오도록 불렀다. 이때 황후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천황이 "무슨 까닭으로 우는

---

292 중국의 의복 재봉기술을 가진 品部를 말한다.

293 大和國 高市郡 飛鳥를 본거로 하는 衣縫 계통의 品部이다. 飛鳥衣縫造의 조상 樹葉의 집터에 法興寺(현재의 飛鳥寺)를 세웠다.

294 이세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던 중국계통의 비단 직조기술과 의복 재단기술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和名類聚抄』에는 伊勢國 壹志郡에 吳部鄕이 보이는데, 이곳을 근거지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295 共食은 賓客과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한다. 『延喜式』에 의하면 蕃客이 入朝하면 共食할 사람 2인을 정한다고 하였다.

296 坂本臣의 시조이다.

297 『和名類聚抄』에 大和國 山邊郡 石上鄕이 보인다.

298 石上穴穗宮 주변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石上町은 名阪國道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石上穴穗宮은 그보다 남쪽으로 추정된다.

299 원문에는 裝飾으로 되어 있다.

300 옥으로 만든 머리 장식이다. 나무 모양을 본 뜬 冠의 일종으로 생각된다.

가?”라고 물었다. 황후가 상(床)을 내려가서 말하길 “저 옥으로 만든 머리장식은 과거에 나의 오빠[301]인 대초향황자(大草香皇子 ; 오호쿠사카노미코)[302]가 혈수천황(穴穗天皇 ; 아나호노스메라미코토)의 명을 받아, 나를 폐하에게 바칠 때 나를 위해 준 물건입니다. 그 때문에 근사주를 의심하여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천황이 듣고 놀라서 크게 화를 내어 심하게 근사주를 질책하였다. 근사주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303]. 실로 신의 잘못입니다.”라고 말하였다.이에 천황은 “근사주는 지금부터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군신(群臣)의 지위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명하고 곧 목을 베어 죽이려고 하였다. 근사주는 도망가서 일근(日根 ; 히네)[304]에 이르러 도성(稻城)[305]을 쌓고 맞이하여 싸웠으나, 결국 관군에게 살해당하였다. 천황이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자손들을 둘로 나누어 한 쪽은 대초향부민(大草香部民 ; 오호쿠사카베노타미)[306]으로 삼아 황후에게 봉(封)하

---

301 실제로는 전남편이었다. 大草香皇子가 根使主의 참언으로 죽은 후 그의 처였던 中蒂姬皇女는 安康天皇의 황후가 되었다. 일본 고대에는 남편을 兄(세)이라고 하였다.

302 仁德天皇의 왕자로 어머니는 日向髮長媛이다. 妻인 中蒂姬命(履中天皇의 딸) 사이에 眉輪王을 두었다. 安康天皇이 자신의 아우인 大泊瀨稚武皇子(雄略天皇)와 大草香皇子의 여동생인 草香幡梭姬皇女를 혼인시키고자 하였을 때 大草香皇子는 혼인을 위한 징표로 寶冠과 押木珠縵을 바치고자 하였으나, 사자로 온 根使主가 이를 속여서 빼앗고자 하였다. 그래서 근사주는 安康天皇에게 大草香皇子가 혼인을 거부한다고 거짓으로 아뢰었다. 이 때문에 대초향황자는 죽임을 당하였고, 그 아들인 미륜왕이 다시 안강천황을 살해하게 된다.

303 원문은 ‘死罪死罪’이며 일본어 훈은 ‘우베나리’로 사죄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한다. 의미는 “말씀하신 바와 같으며 죄송합니다.”라는 뜻이다.

304 和泉國 日根郡에 해당하며, 현재의 大阪府 泉佐野市 日根野로 생각된다.

305 볏짚으로 만든 성으로 생각된다. 『日本書紀』 崇峻天皇 卽位前紀에서 蘇我馬子가 物部守屋을 공격했을 때 稻城을 쌓아 방어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임시로 급하게 방어시설을 만들 때 활용된 방법으로 보인다.

306 황후의 오빠로 근사주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大草香皇子을 기리기 위하여 설정된 部民

였으며, 한쪽은 모정현주(茅渟縣主 ; 치누노아가타누시)[307]에게 주어 자루를 짊어지는 사람[308]으로 삼았다. 그리고 난파길사일향향(難波吉士日香香 ; 나니하노키시히카카)의 자손을 찾아서, 대초향부길사(大草香部吉士 ; 오호쿠사카베노키시)[309]라는 성을 내렸다. 일향향(日香香 ; 히카카) 등의 이야기는 혈수천황기(穴穗天皇紀)에 있다. 일이 끝난 다음에 소근사주(小根使主 ; 워네노오미)[소근사주는 근사주의 아들이다.]가 밤에 누워서 사람들에게 "천황의 성은 견고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의 성이 견고하다."고 말하였다. 천황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사람을 시켜 근사주의 집을 보게 하였더니 실로 그 말과 같았다. 그래서 잡아서 죽였다. 근사주의 후예가 판본신(坂本臣 ; 사카모토노오미)[310]이 된 것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15년에 진민(秦民)[311]이 신련(臣連) 등에게 분산되어[312] 각각 (신련들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부렸으며, 진조(秦造 ; 하다노미야츠코)[313]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

이다.

307 茅渟은 允恭天皇이 衣通郎姬를 살도록 한 곳으로 유명하며, 현재의 泉佐野市 上之郷, 和泉市 府中町 등으로 비정하고 있으나 후대의 和泉府에 포함되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泉南市 樽井에 茅渟神社가 있다. 血沼·千沼·千渟·智努 등으로도 표기한다. 茅渟縣主는 和泉郡司를 지내는 등 이 지역의 유력호족으로 생각된다.

308 원문에는 負嚢者로 되어 있다. 물건을 운반하는 천한 일을 맡은 사람을 뜻한다.

309 難波吉士日香香이 大草香皇子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은 것을 기려서 그 일족들에게 大草香吉士를 부여한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天武天皇대에 國史 편찬에 참여한 草香部吉士大形(難波連大形)이 있다.

310 和泉國 和泉郡 坂本郷을 근거로 한 씨족으로 보인다. 원래는 紀臣과 조상이 같은 皇別氏族으로 建日을 시조로 한다. 坂本糠手臣, 坂本臣財 등의 인물을 배출하였다.

311 秦氏 성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漢氏와 더불어 도래인의 대표적인 두 계통 중 하나이다.

312 秦民은 비단직조 등 機織에 뛰어난 집단이었으므로 臣連 등의 유력 씨족이 그들을 부려서 비단을 짜게 하는 등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13 東漢直과 西文首 두 씨족이 大和와 河內에 거주하면서 조정의 재정 및 문필에 종사한 중앙의 씨족이었다면, 秦造는 山背를 본거지로 하면서 수리 개간 및 機織 및 鑄造 등에 종

았다. 이 때문에 진조주(秦造酒 ; 하다노미야츠코사케)는 매우 걱정하면서 천황을 섬겼다. 천황은 그를 총애하여 조를 내려 진민을 모아서 진주공(秦酒公 ; 하다노사케노키미)에게 주었다. 그래서 공은 180종류[種][314]의 승(勝)[315]을 거느리고 용(庸)[316]과 조(調)[317]로 비단[絹縑][318]을 바쳐 조정에 가득 쌓아두었다. 그래서 성을 내려 우두마좌(禹豆麻佐 ; 우츠마사)[319]라고 하였다[어떤 곳에서는 우두모리마좌(禹豆母利麻佐 ; 우츠모리마사)는 가득 채운 모습을 말한다고 한다.].

16년 가을 7월에 조를 내려 뽕나무가 자랄 수 있는 국현(國縣)에 뽕나무를 심게 하였다. 또 진민(秦民)을 흩어져 살게 하여 용(庸)과 조(調)를 바치게 하였다[320].

겨울 10월에 조를 내려 한부(漢部 ; 아야베)[321]를 모아 그 반조(伴造)를 정하고,

사한 지방의 씨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314 일반 部民의 경우는 그 종류가 많을 경우에 180部라고 하는데, 秦氏는 도래계이기 때문에 180種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勝은 '스구리'라고 읽는 설이 유력하다. 秦氏系는 '스구리'를 勝, 漢氏系는 村主라는 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설도 있다.

315 勝은 지명 등에 붙이는 姓(카바네)의 일종이다. 원래 각 지역의 작은 취락의 수장을 나타내는 고대 한국어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316 庸은 원래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부과되는 稅目이었다. 그러나 점차 布 등의 현물로 납부하게 되었다.

317 調는 원래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도록 부과되는 稅目이었으나, 점차 絹·布 등 현물로 납부하게 되었다.

318 絹은 두텁고 성글게 짠 비단이다. 이에 대해서 縑은 일본에서는 平織으로 촘촘하게 짠 명주를 뜻하며 '카타오리(固織)'를 줄여서 '카토리'라고 부른다. 반대로 성글게 짠 비단을 絁(아시기누)라고 한다. 縑의 원래 뜻은 일반 비단, 合絲한 실로 짠 비단, 가는 실로 촘촘하게 짠 비단, 종이처럼 글씨를 쓰는 비단 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秦民들이 다양한 비단을 직조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319 물건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것을 '우즈타카쿠(堆く)', 더하다를 '마스(益)'라고 한다. 비단을 여러 겹으로 높이 쌓아 올린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320 庸과 調를 바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公民이 되었음을 뜻한다.

성을 내려서 직(直)[322]이라고 하였다[어떤 책에서는 내린다는 것은 한사주(漢使主 ; 아야노오미) 등에게 성을 내려서 직(直)이라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17년 봄 3월 정축삭 무인(2일)에 토사련(土師連 ; 하지노무라지)[323] 등에게 조를 내려 아침저녁으로 천황이 드실 음식을 담는 정갈한 그릇을 올리게 하였다. 이에 토사련의 조상 오사(吾笥 ; 아케)[324]가 섭진국(攝津國 ; 세츠노쿠니)의 내협협촌(來狹狹村 ; 쿠사사노무라)[325], 산배국(山背國 ; 야마시로노쿠니)의 내촌(內村 ; 우치노무라)[326]과 부견촌(俯見村 ; 후시미노무라)[327], 이세국(伊勢國 ; 이세노쿠니)의 등형촌(藤形村 ; 후지카타노무라)[328] 및 단파(丹波 ; 타니하), 단마(但馬 ; 타치마), 인번(因播 ; 이나바)의 자신의 민부(民部)를 바쳤다. 이를 지토사부(贄土師部 ; 니헤노하지베)[329]라고 이름하였다.

---

321 漢氏의 部民이다. 應神天皇 때 왜로 건너온 阿知使主의 자손으로 河內에 거주하는 西漢氏와 大和에 거주하는 東漢氏로 나뉜다. 綾織을 비롯하여 각종 선진 技術을 보유하고 있었다.

322 天武天皇代까지 漢氏를 통솔하는 伴造氏族은 모두 直이었다. 7세기까지 금석문에는 直을 費直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323 장례와 관련된 토기를 만드는 部民을 관리하는 土師連에게 청정한 그릇을 만들어 진상하라고 명함으로써, 土師連이 일반적인 용도의 토기도 만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324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다만 吾笥(오케)라는 이름은 식기라는 뜻으로 실제 인명인지는 의문스럽다.

325 『續日本紀』 和銅 6년 9월조에 河邊郡 久左佐村(쿠사사노무라)을 분리하여 能勢郡에 속하게 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大阪府 서북부에 해당하며 明治 29년에 豐島郡과 통합되어 豐能郡이 되었다.

326 『和名類聚抄』에 山城國 綴喜郡 有智鄕(京都府 八幡市 內里)이 보인다.

327 京都市 伏見區로 추정된다. 伏見도 '후시미'라고 읽는다.

328 伊勢國 一志郡 藤形村이다. 현재는 三重縣 津市 남부에 해당한다.

329 贄는 신이나 천황에게 올리는 음식을 말한다. 그런 음식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品部로 생각된다.

18년 가을 8월 기해삭 무신(10일)에 물부토대숙녜(物部菟代宿禰 ; 모노노베노우시로노스쿠네)[330]와 물부목련(物部目連 ; 모노노베노메노무라지)을 보내어 이세(伊勢 ; 이세)의 조일랑(朝日郎 ; 아사케노이라츠코)[331]을 정벌하게 하였다. 조일랑은 관군이 온다는 것을 듣고, 곧 이하(伊賀 ; 이가)의 청묘(靑墓 ; 아워하카)[332]에서 맞이하여 싸웠다. 그는 스스로 활을 잘 쏘는 것을 뽐내면서 관군에게 "조일랑의 화살에 누가 맞고 싶으냐?"라고 물었다[333]. 그리고 그가 쏜 화살이 두 겹의 갑옷을 뚫었다. 이에 관군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토대숙녜(菟代宿禰 ; 우시로노스쿠네)는 감히 나아가 공격하지 못하였다. 서로 버틴 지 이틀 밤이 지나자 물부목련이 스스로 큰 칼을 잡고 축자(筑紫)의 물부대부수(物部大斧手 ; 키쿠노모노노베오호워노테)[334]로 하여금 방패를 잡게 하고 무리를 꾸짖은 후 함께 나아갔다. 조일랑이 이에 멀리 보고 대부수의 방패와 두 겹의 갑옷을 활로 쏘아 뚫었다. 그러자 화살이 몸 속으로 1촌가량 들어갔다. 대부수는 방패로 물부목련을 가렸다. 목련은 곧 조일랑을 잡아서 베었다. 이 때문에 토대숙녜는 이기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7일 동안 복명(服命)하지 않았다. 천황이 시신(侍臣)에게 "토대숙녜가 어찌 복명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찬기전충별(讚岐田蟲別 ; 사누키노타무시노와케)[335]이 나아가 "토대숙녜는 겁이 나서 이틀 동안 조일랑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부목련이 축자의 문물부대부수를 이끌고 조일랑을 잡아 베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이 이를 듣고 노하여, 곧 토대숙

330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331 朝日은 伊勢國의 지명이다. 朝日郎은 그 지역의 유력 호족으로 생각된다.

332 三重縣 上野市 佐那具町에 전장 180m의 전방후원분 御廟山古墳이 있다.

333 朝日郎의 상대로 누가 대적할 사람이 있느냐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334 聞(키쿠)은 지명으로 『和名類聚抄』에 豐前國 企救郡이 보인다. 福岡縣 北九州市 小倉南區 및 門司區 주변이다.

335 여기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녜가 소유한 저사부(猪使部 ; 위츠카히베)[336]를 빼앗아 물부목련에게 내렸다.

19년 봄 3월 병인삭 무인(13일)에 조를 내려 혈수부(穴穗部 ; 아나호베)[337]를 두게 하였다.

20년 겨울에 고구려 왕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쳐서 없앴다[338]. 그런데 몇몇의 남은 무리들이 창고 아래[339]에 모여 있었다. 무기와 양식이 이미 다 떨어지고 근심하여 우는 소리가 매우 심하였다. 이때 고구려의 여러 장수들이 왕에게 "백제의 마음가짐이 범상치 않습니다. 신들이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 정신을 잃습니다. 다시 덩굴이 뻗어 자라듯 되살아날까 두렵습니다. 뒤쫓아 가서 제거하기를 청합니다[340]."라고 말하였다. 이에 왕이 "그럴 수 없다. 과인이 듣기에 백제국은 일본국의 관가(官家)[341]가 된 것이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또한 그 왕이 들어가서 천황을 섬긴 것은 사방에서 모두 아는 바이다[342]."라고 말하니, 그만두었다[『백제기(百濟記)』에서는 개로왕(蓋鹵王) 을묘년[343]

---

336 猪名部(위나베)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저명부는 木工을 관장하는 부민으로 특히 造船에도 참여하였다. 한편 猪使部는 멧돼지나 돼지를 사육하는 일을 맡은 부민으로 宍人部와 유사한 성격으로 생각된다.

337 安康天皇의 名代로 생각된다. 穴太部, 孔王部라고 한다.

338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장수왕 63년(475) 9월조, 동 백제본기 개로왕 21년 9월조에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킨 기사가 보인다.

339 원문에는 倉下로 되어 있다. 倉下의 古訓은 '헤스오토'인데, 百濟語로 추정되고 있다. 高床式 倉庫 아래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340 이 내용은 『隋書』 高祖紀의 내용(「齊王憲言於帝, 普六茹堅相貌非常, 臣每見之, 不覺自失, 恐非人下. 請早除之.」)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341 '미야케'라고 읽는다. 御宅, 三宅, 屯倉으로도 표기하는데,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모두 官家로 표기하고 있다. 천황의 직할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임나일본부설의 논거가 되기도 하였다.

겨울, 고구려[狛][344]의 대군이 와서 대성(大城)[345]을 7일 낮 7일 밤을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왕성이 함락되고 마침내 위례(尉禮)[346]를 잃었다. 국왕과 대후(大后), 왕자 등이 모두 적의 손에 죽었다고 적고 있다.].

21년 봄 3월에 천황이 백제가 고구려에게 멸망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구마나리(久麻那利)[347]를 문주왕(汶洲王)[348]에게 주어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을 도왔다. 이때 사람들이 모두 "백제국이 비록 무리들은 이미 죽거나 창고 아래에 모여 근심하였는데도 오로지 천황에 의지하여 다시 그 나라를 세웠다."고 말하였다 [문주왕은 개로왕(蓋鹵王)의 모제(母弟)[349]이다. 일본의 구기(舊記)에서 이르기를, 구마나리를 말다왕(末多王)[350]에게 주었다고 하였으나 아마도 잘못일 것이다. 구마나리는 임나국(任

---

342 阿莘王이 태자 腆支를 왜에 파견하거나 蓋鹵王이 아우인 昆支를 왜에 파견한 예가 있으나, 직접 왕이 왜에 간 적은 없다.

343 475년이다. 『日本書紀』 웅략천황 20년은 476년이므로 전년도의 일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344 『日本書紀』에서는 「高麗」(高句麗)와 「狛」을 모두 '코마'라고 읽고 있다. 이는 백제에서 고구려를 비하하여 부르는 호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45 大城의 古訓은 '코니사시'인데, 이는 '큰 성'(漢城 혹은 大城)이라는 뜻의 백제어로 추정된다.

346 王都 漢城을 가리키는 말이며 동시에 백제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神功紀의 意流村도 음이 통한다.

347 熊州 또는 熊津이라고도 한다. '나리'는 나루 또는 하천이라는 의미의 고대 한국어이며, 熊은 곰이다. 熊津은 충청남도 公州의 옛 지명으로 한성을 상실한 후 백제의 도읍이 되었다.

348 백제 22대 文周王(재위 : 475~477)이다. 『삼국사기』에서는 개로왕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나, 『日本書紀』에서는 母弟, 즉 同母弟라고 하였다. 외삼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349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文周王[또는 汶洲라고도 한다.]은 개로왕의 아들이다.」라고 하였다. 웅진에 도읍하여 백제왕실을 이었지만, 2년 후인 477년에 암살되었다.

350 백제의 제24대 東城王(재위 : 479~501)이다. 『삼국사기』에서는 동성왕의 諱가 牟大라고 적고 있는데, 『日本書紀』의 末多와 음이 통한다.

那國)의 하다호리현(下哆呼唎縣 ; 아루시타코리노코호리)[351]의 별읍(別邑)[352]이다.].

22년 봄 정월 기유삭(1일)에 백발황자(白髮皇子 ; 시라카노미코)[353]를 황태자로 삼았다.

가을 7월에 단파국(丹波國 ; 타니하노쿠니) 여사군(餘社郡 ; 요사노코호리) 관천(管川 ; 츠츠카와)[354] 사람인 서강포도자(瑞江浦嶋子 ; 미즈노에노우라시마노코)[355]가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때 큰 거북이를 얻었는데, 갑자기 변하여 여자가 되었다. 이에 포도자(浦嶋子 ; 우라시마노코)가 반해서 부인으로 삼고 뒤따라서 함께 바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봉래산(蓬萊山)[356]에 이르러 두루 신선들을 만났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권(別卷)[357]에 있다.

23년 여름 4월에 백제 문근왕(文斤王)[358]이 죽었다[薨]. 천왕(天王)[359]은 곤지왕(昆支王)[360]의 다섯 아들 중 둘째인 말다왕(末多王)이 어린데도 총명하므로 내리

---

351 下哆呼唎는 『日本書紀』 繼體天皇 2년 12월조의 下呼唎와 같다. 哆唎는 금강의 상류, 즉 전북 동북부에서 충남 동남부에 이르는 지방(鮎貝房之進)이나 전남 서남부 영산강 동안 일대(末松保和)로 추정하고 있다.

352 소속 현의 구획에서 떨어져서 다른 구획 안에 있는 읍을 말한다.

353 후에 淸寧天皇이 된다.

354 餘社는 與謝라고도 표기하며, 원래 丹波國 관할이었으나 和銅 6년 4월에 丹後國이 되었다. 丹後半島의 동쪽이다. 管川은 그 북부로 京都府 與謝郡 伊根町 筒川村에 해당한다.

355 후대 설화 속의 浦嶋太郎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丹後國風土記』, 『萬葉集』, 『御伽草子』 등에 보인다.

356 方丈山·瀛州山과 함께 三神山의 하나이며 신선이 산다고 하는 仙境이다.

357 용어상으로는 『日本書紀』에 직접 싣지 않은 내용을 담은 별도의 책으로 보인다. 『丹後國風土記』에 실려있는 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원전일 가능성도 있다.

358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三斤王[혹은 壬乞이라고 한다.]」이라고 하였다. 文周王의 장자로 13세 때인 477년에 즉위하여 479년에 죽었다.

359 倭의 大王을 말한다.

(內裏)[361]로 불러 친히 머리와 얼굴을 어루만지며 은근하게 훈계하고, 그 나라의 왕으로 삼았다. 이에 병기를 주고 축자국(筑紫國 ; 츠쿠시노쿠니)의 군사 5백 인을 함께 보내어 나라까지 호송하게 하였다. 이가 동성왕(東城王)이 되었다.

이 해에 백제가 바친 조부(調賦)가 평소보다 많았다. 축자의 안치신(安致臣 ; 아치노오미)[362]과 마사신(馬飼臣 ; 우마카히노오미)[363] 등이 선사(船師)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쳤다.

가을 7월 신축삭에 천황이 병으로 자리에 누웠다. 상벌을 내리는 일은 크고 작음의 구별 없이 모두 황태자에게 보내라고 명하였다[364].

8월 경오삭 병자(7일)에 천황의 병이 오랫동안 심하였다. 백료(百寮)와 더불어 이별의 말을 나누고, 서로 손을 잡으며 흐느껴 울었다. 그런 후에 대전(大殿)에서 죽었다(崩). 천황은 대반실옥대련과 동한국직(東漢掬直 ; 야마토노아야노츠카노아타히)[365]에게 "바야흐로 지금 천하[366]는 한 집과 같으며 밥 짓는 연기가 만리(萬里)에 피어오르니, 백성이 또한 편안하며 사방의 오랑캐들이 와서 복종

---

360 昆支(崐支)는 정식으로 백제의 왕이 된 적이 없는데, 『日本書紀』에서는 王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백제기』의 기록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東城王과 武寧王이 모두 昆支의 아들이므로, 후에 추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361 천황이 일상적으로 거처하는 공간을 말하며, 전통적인 건축 방식은 掘立柱 건물로 지었다.

362 『先代舊事本紀』 天孫本紀에서 「饒速日命九世孫, 物部竺志連公, 奄智藤連等之祖.」라고 하였다.

363 馬飼는 말을 먹이는 일을 말하며, 천한 신분에 속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馬飼臣이라고 한 것은 직업과 신분이 어울리지 않으며 대체로 馬飼首로 나타난다. 5세기 초 乘馬 풍습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말을 먹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364 『日本書紀』 雄略天皇 23년 7월과 8월조의 雄略天皇의 遺詔는, 『隋書』 高祖紀 仁壽 4년 정월조의 문장을 따온 것이다.

365 『日本書紀』 應神天皇 20년에 阿智使主와 함께 왜로 건너 온 都加使主와 동일인물로 보기도 한다. 雄略天皇 7년에는 도래인들을 上桃原, 下桃原, 眞神原에 집주하도록 하였다.

366 원문은 區宇이다.

한다.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 온 나라[367]를 편안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조심하고 자신을 격려하며 나날이 하루를 삼간 것은 대개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신(臣), 연(連), 반조(伴造)는 매일 조회에 참석하고, 국사(國司)와 군사(郡司)[368]는 때에 따라서 조정에 모인다. 어찌 마음을 다해서[369] 경계하는 칙(勅)이 은근하지 않겠는가? 의리로는 곧 군신이고, 마음에 있어서는 부자와 같다. 바라건대 신련(臣連)들의 지혜에 의지하여 안팎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늘 아래 영원히 안락을 보전토록 하고자 한다. 생각지도 못하게 병을 만난 지 오래 되어서 죽음[370]에 이르려고 한다. 이는 곧 인생의 변함없는 이치이다.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다만 조야(朝野)의 의관(衣冠)이 아직 아름답지 못하며, 교화(教化)와 정형(政刑)도 역시 아직 훌륭하지 못하다. 말을 꺼내어 이를 생각하니, 오직 한스러움만 남는다. 지금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으니[371] 일찍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력과 정신이 한꺼번에 힘을 다하였다[372]. 이와 같이 된 까닭은 본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편안히 기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자기가 낳은 자손에게 누군들 마음을 의지하지 않겠는가. 이제 천하를 위해서 상황을 잘 판단해야만 한다. 지금 성천왕(星川王 ; 호시카하노미코)[373]이 마음으로 패악(悖惡)을 품고, 행동은 우애[374]가 모자란다. 옛 사람의 말이 있기를 신하를 아는 데는 군주만한 자가 없고,

---

367 원문은 區夏이다.

368 國司와 郡司는 후대의 관념에 의한 윤색이다.

369 원문은 罄竭이다.

370 원문은 大漸이다.

371 당시 나이는 62세였다.

372 원문은 勞竭이다.

373 雄略天皇과 稚媛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로 雄略 사후에 大藏을 장악하고 왕권을 차지하려다가 살해당하였다. 성천왕이 살해되는 사건의 복선으로 생각된다.

374 원문은 友于이다. 형제 간의 우애를 말한다.

자식을 아는 데는 그 아비만한 자가 없다고 하였다. 만약 성천이 뜻을 얻어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반드시 살육을 행하여 신련(臣連)에게 두루 미치고, 혹독함이 백성들에게 흐를 것이다. 무릇 악한 자손은 백성들이 꺼리는 바가 되고, 좋은 자손은 족히 대업을 등에 지고도 견딜 수 있다. 이는 비록 짐의 집안 일이라 해도, 이치는 숨길 수 없다. 대련(大連) 등은 민부(民部)[375]가 넓고 커서 온 나라에 가득 찼다[376]. 황태자는 왕위를 잇는 지위[377]에 있으며, 인효(仁孝)가 드러나 소문이 자자하다. 그 행동과 업적이 짐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하였다. 이로써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면 짐이 비록 눈을 감는다 해도 어찌 다시 원통해하는 바가 있겠는가!"라고 유조를 내렸다[어떤 책에서는 "성천왕은 속이 악하고 마음이 거친 것이 천하에 소문으로 드러났다. 불행하게도 짐이 죽은 후에 분명히 황태자를 해칠 것이다. 너희들 민부(民部)는 매우 많다. 노력하여 서로 협조하라. 얕보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때 정신라장군(征新羅將軍)[378] 길비신미대(吉備臣尾代 ; 키비노오미워시로)[379]가 길비국(吉備國 ; 키비노쿠니)에 이르러 집을 지나갔다. 그가 거느리고 있던 5백 명의 하이(蝦夷)[380]들이 천황이 돌아가신 것을 듣고, "우리나라를 통괄하

---

375 유력호족의 지배하에 있는 사유민을 말한다. 家部보다는 예속도가 낮았으며, 율령제하에서는 公民으로 편제되었다. 본질적으로는 名代·子代도 천황가에 예속된 사유민이다. 名代·子代·民部와 같은 사유민을 公民으로 만드는 과정이 율령제적 인민지배가 성립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76 大連 등 중앙호족들이 사유민인 民部를 많이 보유하도록 허락한 것은 왕실이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377 원문은 儲君이다.

378 『日本書紀』 웅략천황 8년 2월조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吉備臣小梨가 군사를 동원한 기사가 보인다. 征新羅將軍은 신라를 공격하기 위한 군사력의 사령관으로 생각되며, 길비지역이 빈번하게 신라의 공격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379 여기에만 보인다. 吉備臣은 吉備 지역의 유력호족이다.

380 大化改新 이전에는 佐伯部에 편성되어 궁정 경호를 담당하였다.

여 다스리는 천황이 이미 죽었다. 이때를 놓칠 수 없다."라고 서로 말하였다. 이에 서로 모여서 이웃 군(郡)을 침략하였다. 그러자 미대가 집에서 나와서 사파(娑婆 ; 사하)[381]의 수문(水門)에서 하이와 만나서 맞붙어 싸우며 활을 쏘았다. 하이들은 어떤 자는 뛰고 어떤 자는 엎드리며, 화살을 잘 피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활을 쏠 수 없었다. 이에 미대가 빈 활시위를 당겼다[382]. 그러자 바닷가에서 뛰고 엎드리던 자들 두 무리를 쏘아 죽일 수 있었다. 이윽고 두 개의 활집에 있던 화살을 모두 썼다. 곧 뱃사람을 불러서 화살을 찾으니 뱃사람이 두려워하며 스스로 물러났다. 미대가 이에 활을 세워 그 끝을 잡고 노래 불렀다.

길에서 전투를 하는 미대(尾代)라는 아이, 어머니에게는 들리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귀에는 전해지면 좋으련만.

노래 부르기를 마치고 스스로 여러 사람을 베었다. 다시 추격해서 단파국(丹波國 ; 타니하노쿠니) 포괘(浦掛 ; 우라카케)[383]의 수문에 이르러서 모두 공격하여 죽였다[어떤 책에서는 "추격하여 포괘(浦掛)에 이르러 사람을 보내어 다 죽였다."고 하였다.].

일본서기 권 제14

---

381 備後國 沼隈郡 佐波村 및 山波村으로 비정된다. 현재의 廣島縣 福山市 佐波町이다.

382 鳴弦이라고 하여, 빈 활을 쏘아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주술적인 행위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383 京都府 熊野郡 久美濱町 浦明(우라케)으로 비정된다.

日本書紀 卷第十四

大泊瀨幼武天皇 雄略天皇

大泊瀨幼武天皇, 雄朝嬬[1]稚子宿禰天皇第五子也. 天皇產而, 神光滿殿. 長而伉健過人.

三年八月, 穴穗天皇, 意將沐浴, 幸于山宮. 遂登樓兮遊目. 因命酒兮肆宴. 爾乃情盤樂極, 間以言談, 顧謂皇后[去來穗別天皇女曰中蒂姬皇女. 更名長田大娘皇女也. 大鷦鷯天皇子大草香皇子, 娶長田皇女, 生眉輪王也. 於後, 穴穗天皇用根臣讒, 殺大草香皇子, 而立中蒂姬皇女爲皇后. 語在穴穗天皇紀也.]曰, 吾妹[稱妻爲妹, 蓋古之俗乎.]汝雖親昵, 朕畏眉輪王. 眉輪王, 幼年遊戲樓下, 悉聞所談. 旣而穴穗天皇, 枕皇后膝, 晝醉眠臥. 於是, 眉輪王伺其熟睡, 而刺殺之. 是日, 大舍人[闕姓字也.]驟言於天皇曰, 穴穗天皇, 爲眉輪王見殺. 天皇大驚, 卽猜兄等, 被甲帶刀, 率兵自將, 逼問八釣白彦皇子. 皇子見其欲害, 嘿坐不語. 天皇乃拔刀而斬. 更逼問坂合黑彦皇子. 皇子亦知將害, 嘿坐不語. 天皇忿怒彌盛. 乃復幷爲欲殺眉輪王, 案劾所由. 眉輪王曰, 臣元不求天位. 唯報父仇而已. 坂合黑彦皇子, 深恐所疑, 竊語眉輪王. 遂共得間, 而出逃入円大臣宅. 天皇使使乞之. 大臣以使報曰, 蓋聞, 人臣有事, 逃入王室. 未見君王隱匿臣舍. 方今坂合黑彦皇子與眉輪王,

---

1 소학관본에는 '嬬'가 '津間'으로 되어 있다.

深恃臣心, 來臣之舍. 詎[2]忍送歟. 由是, 天皇復益興兵, 圍大臣宅. 大臣出立於庭, 索脚帶. 時大臣妻, 持來脚帶, 愴矣傷懷而歌曰, 飫瀰能古簸, 多倍能波[3]伽摩鳴, 那那陛鳴純, 儞播 陀陀始諦, 阿遙比那陀須暮. 大臣裝束已畢, 進軍門跪拜曰, 臣雖被戮, 莫敢聽命. 古人有云, 匹夫之志, 難可奪, 方屬乎臣. 伏願, 大王奉獻臣女韓媛與葛城宅七區, 請以贖罪. 天皇不許, 縱火燔宅. 於是, 大臣與黑彦皇子眉輪王, 俱被燔死. 時坂合部連贄宿禰, 抱皇子屍而見燔死. 其舍人等[闕名.], 收取所燒, 遂難擇骨. 盛之一棺, 合葬新漢槻本南丘[字未詳. 蓋是槻乎.].

冬十月癸未朔, 天皇, 恨穴穗天皇曾欲以市邊押磐皇子, 傳國而遙付囑後事, 乃使人於市邊押磐皇子, 陽期校獵, 勸遊郊野曰, 近江狹狹城山君韓岱言, 今於近江來田綿蚊屋野, 猪鹿多有. 其戴角類枯樹末. 其聚脚, 如弱木株[4]. 呼吸氣息, 似於朝霧. 願與皇子, 孟冬作陰之月, 寒風肅殺[5]之晨, 將逍遙於郊野, 聊娛情以騁射. 市邊押磐皇子, 乃隨馳獵. 於是, 大泊瀨天皇, 彎弓驟馬, 而陽呼, 曰猪有, 卽射殺市邊押磐皇子. 皇子帳內佐伯部賣輪[更名仲手[6]子.], 抱屍駭惋, 不解所由. 反側呼號, 往還頭脚. 天皇尙誅之.

是月, 御馬皇子, 以曾善三輪君身狹故, 思欲遣慮而往. 不意, 道逢邀軍, 於三輪磐井側逆戰. 不久被捉. 臨刑指井而詛曰, 此水者百姓唯得飮焉. 王者獨不能飮矣.

十一月壬子朔甲子, 天皇命有司, 設壇於泊瀨朝倉, 卽天皇位. 遂定宮焉. 以平群臣眞鳥爲大臣. 以大伴連室屋物部連目爲大連.

---

2 소학관본에서는 '誰'라고 적고 있다.
3 소학관본에서는 '婆'라고 적고 있다.
4 소학관본에서는 '林'이라고 적고 있다.
5 소학관본에서는 '然'이라고 적고 있다.
6 소학관본에는 '手'가 없다.

元年 春三月庚戌朔壬子, 立草香幡梭姬皇女爲皇后[更名橘姬皇女[7].].

是月, 立三妃. 元妃葛城円大臣女曰韓媛. 生白髮武廣國押稚日本根子天皇與稚足姬皇女[更名 幡姬皇女.]. 是皇女侍伊勢大神祠. 次有吉備上道臣女稚姬[8][一本云, 吉備窪屋臣女.]. 生二男. 長曰磐城皇子. 少曰星川稚宮皇子[見下文.]. 次有春日和珥臣深目女. 曰童女君. 生春日大娘皇女[更名高橋皇女.]. 童女君者本是采女. 天皇與一夜而脹. 遂生女子. 天皇疑不養. 及女子行步, 天皇御大殿. 物部目大連侍焉. 女子過庭. 目大連顧謂群臣曰, 麗哉, 女子. 古人有云. 娜毗[9]騰耶皤麼珥[此古語未詳也[10].]. 徐步淸庭者, 言誰女子. 天皇曰, 何故問耶. 目大連對曰, 臣觀女子行步, 容儀能似天皇. 天皇曰, 見此者咸言, 如卿所道. 然朕與一宵而脹. 産女殊常. 由是生疑. 大連曰, 然則一宵喚幾廻乎. 天皇曰, 七廻喚之. 大連曰, 此娘子, 以淸身意, 奉與一宵. 安輒生疑, 嫌他有潔. 臣聞, 易産腹者, 以褌觸體, 卽便懷脹. 況與終宵而, 妄生疑也. 天皇命大連, 以女子爲皇女, 以母爲妃.

是年也, 大歲丁酉.

二年 秋七月, 百濟池津媛, 違天皇將幸, 婬於石川楯[舊本云, 石河股合首祖楯.]. 天皇大怒, 詔大伴室屋大連, 使來目部張夫婦四支於木, 置假庋上, 以火燒死[百濟新撰云, 己巳年, 蓋鹵王立. 天皇遣阿禮奴跪, 來索女郎. 百濟莊飾慕尼夫人女, 曰適稽女郎. 貢進於天皇.].

冬十月辛未朔癸酉, 幸于吉野宮.

丙子, 幸御馬瀨. 命虞人縱獵. 凌重巘赴長莽. 未及移影, 獲什七八. 每獵大

---

7 소학관본에는 '皇女'가 없다.

8 소학관본에서는 '媛'이라고 적고 있다.

9 소학관본에서는 '毗'라고 적고 있다.

10 소학관본에는 '也'가 없다.

獲. 鳥獸將盡. 遂旋憩乎林泉. 相羊乎藪澤, 息行夫展車馬. 問群臣曰, 獵場之樂, 使膳夫割鮮. 何與自割. 群臣忽莫能對. 於是, 天皇大怒, 拔刀斬御者大津馬飼. 是日, 車駕至自吉野宮. 國內居民, 咸皆振怖. 由是, 皇太后與皇后, 聞之大懼. 使倭采女日媛擧酒迎進. 天皇見采女面貌端麗, 形容溫雅, 乃和顔悅色曰, 朕豈不欲覩汝妍唉, 乃相携手, 入於後宮. 語皇太后曰, 今日遊獵, 大獲禽獸. 欲與群臣割鮮野饗, 歷問群臣, 莫能有對. 故朕嗔焉. 皇太后知斯詔情, 奉慰天皇曰, 群臣不悟陛下因遊獵場, 置宍人部, 降問群臣. 群臣嘿然, 理. 且難對. 今貢未晚. 以我爲初. 膳臣長野, 能作宍膾. 願以此貢. 天皇跪禮而受曰, 善哉. 鄙人所云, 貴相知心, 此之謂也. 皇太后觀[11]天皇悅, 歡喜盈懷. 更欲貢人曰, 我之廚人菟田御戶部眞鋒田高天, 以此二人, 請將加貢, 爲宍人部. 自玆以後, 大倭國造吾子籠宿禰, 貢狹穗子鳥別, 爲宍人部. 臣連伴造國造又隨續貢.

是月, 置史戶河上舍人部. 天皇以心爲師. 誤殺人衆. 天下誹謗言, 大惡天皇也. 唯所愛寵, 史部身狹村主青檜隈民使博德等.

三年 夏四月, 阿閉臣國見[更名磯特牛.], 譖栲幡皇女與湯人廬城部連武彦曰, 武彦奸[12]皇女而使任身[湯人, 此云臾衛.]. 武彦之父枳宮喩, 聞此流言, 恐禍及身. 誘率武彦於廬城河, 僞使鸕鷀, 沒水捕魚, 因其不意而打殺之. 天皇聞遣使者, 案問皇女. 皇女對言, 妾不識也. 俄而皇女齎持神鏡, 詣於五十鈴河上, 伺人不行, 埋鏡經死. 天皇疑皇女不在, 恆使闇夜東西求覓. 乃於河上虹見如蛇, 四五丈者. 掘虹起處, 而獲神鏡. 移行未遠, 得皇女屍. 割而觀之, 腹中有物如水. 水中有石. 枳宮喩, 由斯, 得雪子罪. 還悔殺子, 報殺國見. 逃匿石上神宮.

---

11 소학관본에서는 '視'라고 적고 있다.

12 소학관본에서는 '汙'라고 적고 있다.

四年 春二月, 天皇射獵於葛城山. 忽見長人. 來望丹谷. 面貌容儀, 相似天皇. 天皇知是神, 猶故問曰, 何處公也. 長人對曰, 現人之神. 先稱王諱. 然後應導. 天皇答曰, 朕是幼武尊也. 長人次稱曰, 僕是一事主神也. 遂與盤于遊田, 駈逐一鹿, 相辭發箭, 竝轡馳騁. 言詞恭恪, 有若逢仙. 於是, 日晩田罷. 神侍送天皇, 至來目水. 是時, 百姓咸言, 有德天皇也.

秋八月辛卯朔戊申, 行幸吉野宮.

庚戌, 幸于河上小野. 命虞人駈獸. 欲躬射而待. 虻疾飛來, 噆天皇臂. 於是, 蜻蛉忽然飛來, 囓虻將去. 天皇嘉厥有心, 詔群臣曰, 爲朕讚蜻蛉歌賦之. 群臣莫能敢賦者. 天皇乃口號曰, 野麼[13]等能, 鳴武羅能陀該儞. 之之符須登, 拖例柯擧能居登, 飫哀磨陛儞麻鳴須[一本, 以飫哀磨陛儞麼鳴須, 易飫哀枳彌儞麻鳴須.], 飫哀枳瀰箇, 賊據鳴枳舸斯題, 拖磨磨枳能, 阿娛羅儞陀陀伺[一本, 以陀陀伺, 易伊麻伺也.], 施都魔枳能, 阿娛羅儞陀陀伺, 斯斯磨都登, 倭我伊麻西麼, 佐謂麻都登, 倭我陀陀西麼, 陀俱符羅爾, 阿武柯枳都枳[14], 曾能阿武鳴, 婀枳豆波野俱譬, 波賦武志謀, 飫哀枳瀰儞麼[15]都羅符, 儺我柯陀播, 於柯武, 婀岐豆斯麻野麻登[一本, 以婆賦武志謀以下, 易舸矩能御等, 儺[16]儞於婆武登, 蘇羅瀰豆, 野麻[17]等能矩儞鳴, 阿岐豆斯麻登以符.]. 因讚蜻蛉, 名此地爲蜻蛉野.

五年 春二月, 天皇校獵于葛城山. 靈鳥忽來. 其大如雀. 尾長曳地. 而且鳴曰, 努力努力. 俄而見逐嗔猪, 從草中暴出逐人. 獵徒緣樹大懼. 天皇詔舍人曰, 猛獸逢人則止. 宜逆射而且刺. 舍人性懦弱, 緣樹失色, 五情無主. 嗔猪直來, 欲噬

13 소학관본에서는 '磨'라고 적고 있다.
14 소학관본에는 '枳'가 '枳都'로 되어 있다.
15 소학관본에서는 '磨'라고 적고 있다.
16 소학관본에서는 '難'이라고 적고 있다.
17 소학관본에서는 '磨'라고 적고 있다.

天皇. 天皇用弓刺止, 擧脚踏殺. 於是, 田罷, 欲斬舍人. 舍人臨刑, 而作歌曰, 野須瀰斯志, 倭我飫哀枳瀰能, 阿蘇麽斯志, 斯斯能, 宇拖枳舸斯固瀰, 倭我尼导能哀利志, 阿理嗚能宇倍能, 婆利我曳陀, 阿西嗚. 皇后聞悲, 興感止之. 詔曰, 皇后不與天皇, 而顧舍人. 對曰, 國人皆謂陛下, 安野而好獸. 無乃不可乎. 今陛下以嗔猪故, 而斬舍人. 陛下譬無異於豺狼也. 天皇乃與皇后上車歸. 呼萬歲曰, 樂哉. 人皆獵禽獸. 朕獵得善言而歸.

夏四月, 百濟加須利君[蓋鹵王也.], 飛聞池津媛之所燔殺[適稽女郎也.], 而籌議曰, 昔貢女人爲采女. 而旣無禮, 失我國名. 自今以後, 不合貢女. 乃告其弟軍君[昆[18]支也.]曰, 汝宜往日本以事天皇. 軍君對曰, 上君之[19]命不可奉違. 願賜君婦, 而後奉遣. 加須利君則以孕婦, 嫁[20]與軍君曰, 我之孕婦, 旣當産月. 若於路産, 冀載一船, 隨至何處, 速令送國. 遂與辭訣, 奉遣於朝.

六月丙戌朔, 孕婦果如加須利君言, 於筑紫各羅島産兒. 仍名此兒曰嶋君. 於是, 軍君卽以一船, 送嶋君於國. 是爲武寧王. 百濟人呼此島曰主島也.

秋七月, 軍君入京. 旣而有五子[百濟新撰云, 辛丑年, 蓋鹵王遣弟[21]昆[22]支君, 向大倭, 侍天王[23]. 以脩兄王之好也.].

六年 春二月壬子朔乙卯, 天皇遊乎泊瀨小野. 觀山野之體勢, 慨然興感歌曰, 擧暮利矩能, 播都制能野麽[24]播, 伊底拖智能, 與慮斯企野麽[25], 和斯里底能, 與

---

18 소학관본에서는 '崐'이라고 적고 있다.
19 소학관본에는 '之'가 없다.
20 소학관본에는 '嫁' 앞에 '旣'가 있다.
21 소학관본에서는 '王弟'라고 적고 있다.
22 소학관본에서는 '崐'이라고 적고 있다.
23 소학관본에서는 '皇'이라고 적고 있다.
24 소학관본에서는 '磨'라고 적고 있다.
25 소학관본에서는 '磨'라고 적고 있다.

慮斯企夜麼[26]能, 據暮利矩能, 播都制能夜麼[27]播, 阿野儞于羅虞波斯, 阿野儞于羅虞波斯. 於是, 名小野, 曰道小野.

三月辛巳朔丁亥, 天皇欲使后妃親桑, 以勸蠶事. 爰命蜾蠃[蜾蠃, 人名[28]. 此云須我屢.], 聚國內蠶. 於是, 蜾蠃, 誤聚嬰兒, 奉獻天皇. 天皇大唉, 賜嬰兒於蜾蠃曰, 汝宜自養. 蜾蠃卽養嬰兒於宮墻之[29]下. 仍賜姓, 爲少子部連.

夏四月, 吳國遣使貢獻也[30].

七年 秋七月甲戌朔丙子, 天皇詔少子部連蜾蠃曰, 朕欲見三諸岳神之形[或云, 此山之神爲大物主神也. 或云, 菟田墨坂神也.]. 汝膂力過人. 自行捉來. 蜾蠃答曰, 試往捉之. 乃登三諸岳, 捉取大蛇, 奉示天皇. 天皇不齋戒. 其雷虺虺, 目精赫赫. 天皇畏, 蔽目不見, 却入殿中. 使放於岳. 仍改賜名爲雷.

八月, 官者吉備弓削部虛空, 取急歸家. 吉備下道臣前津屋[或本云, 國造吉備臣山.], 留使虛空. 經月不肯聽上京都. 天皇遣身毛君大夫召焉. 虛空被召來言, 前津屋, 以小女爲天皇人, 以大女爲己人, 競令相鬪. 見幼女勝, 卽拔刀而殺. 復以小雄鷄, 呼爲天皇鷄, 拔毛剪翼, 以大雄鷄, 呼爲己鷄, 著鈴金距, 競令鬪之. 見禿鷄勝, 亦拔刀而殺. 天皇聞是語, 遣物部兵士卅人, 誅殺前津屋幷族七十人.

是歲, 吉備上道臣田狹, 侍於殿側, 盛稱稚媛於朋友曰, 天下麗人, 莫若吾婦. 茂矣綽矣, 諸好備矣. 曄矣溫矣, 種相足矣. 鉛花弗御, 蘭澤無加. 曠世罕儔. 當時獨秀者也. 天皇, 傾耳遙聽, 而心悅焉. 便欲自求稚媛爲女御. 拜田狹, 爲任那國司. 俄而, 天皇幸稚媛. 田狹臣娶稚媛, 而生兄君弟君[31][別本云, 田狹臣婦名毛媛

---

26 소학관본에서는 '磨'라고 적고 있다.

27 소학관본에서는 '麻'라고 적고 있다.

28 소학관본에는 '也'가 한 자 더 있다.

29 소학관본에는 '之'가 없다.

30 소학관본에는 '也'가 없다.

者. 葛城襲津彦子, 玉田宿禰之女也. 天皇聞體貌閑麗, 殺夫自幸焉.]. 田狹旣之任所, 聞天皇之幸其婦, 思欲求援而入新羅. 于時, 新羅不事中國. 天皇詔田狹臣子弟君與吉備海部直赤尾曰, 汝宜往罰新羅. 於是, 西漢才伎歡因知利在側. 乃進而奏曰, 巧於奴者, 多在韓國. 可召而使. 天皇詔群臣曰, 然則宜以歡因知利, 副弟君等, 取道於百濟, 幷下勅書, 令獻巧者. 於是, 弟君銜命, 率衆, 行到百濟, 而入其國. 國神化爲老女, 忽然逢路. 弟君就訪國之遠近. 老女報言, 復行一日, 而後可到. 弟君自思路遠, 不伐而還. 集聚百濟所貢今來才伎於大島中, 託稱候風, 淹留數月. 任那國司田狹臣, 乃喜弟君不伐而還, 密使人於百濟, 戒弟君曰, 汝之領項, 有何牢鎖而伐人乎. 傳聞, 天皇幸吾婦, 遂有兒息[兒息已見上文.]. 今恐, 禍及於身, 可蹻足待. 吾兒汝者, 跨據百濟, 勿使通於日本. 吾者據有任那, 亦勿通於日本. 弟君之婦樟媛, 國家情深, 君臣義切. 忠踰白日, 節冠靑松. 惡斯謀叛, 盜殺其夫, 隱埋室內, 乃與海部直赤尾將百濟所獻手末才伎, 在於[32]大島. 天皇聞弟君不在, 遣日鷹吉士堅磐固安錢[堅磐, 此云柯陀之波.], 使共復命. 遂卽安置於倭國吾礪廣津[廣津, 此云比慮岐頭.]邑. 而病死者衆. 由是, 天皇詔大伴大連室屋, 命東漢直掬, 以新漢陶部高貴, 鞍部堅貴, 畫部因斯羅我, 錦部定安那錦, 譯語卯安那等, 遷居于上桃原, 下桃原, 眞神原三所[或本云, 吉備臣弟君, 還自百濟, 獻漢手人部, 衣縫部, 宍人部.].

八年 春二月, 遣身狹村主靑, 檜隈民使博德使於吳國. 自天皇卽位, 至于是歲, 新羅國背誕, 苞苴不入, 於今八年. 而大懼中國之心, 脩好於高麗. 由是, 高麗王, 遣精兵一百人守新羅. 有頃, 高麗軍士一人, 取假歸國. 時以新羅人爲典馬[典馬, 此云于麻柯比.]. 而顧謂之曰, 汝國爲吾國所破非久矣[一本云, 汝國果成吾

31 소학관본에는 '也'가 있다.

32 소학관본에는 '於'가 없다.

土非久矣.]. 其典馬聞之, 陽患其腹, 退而在後. 遂逃入國, 說其所語. 於是, 新羅王乃知高麗僞守, 遣使馳告國人曰, 人殺家內所養鷄之雄者. 國人知意, 盡殺國內所有高麗人. 惟有遣高麗一人, 乘間得脫, 逃入其國, 皆具爲說之. 高麗王卽發軍兵, 屯聚筑足流城[或本云, 都久斯岐城.]. 遂歌儛興樂. 於是, 新羅王, 夜聞高麗軍四面歌儛, 知賊盡入新羅地. 乃使人於任那王曰, 高麗王征伐我國. 當此之時, 若綏旒然. 國之危殆, 過於累卵. 命之脩短, 太所不計. 伏請救於日本府行軍元帥等. 由是, 任那王勸膳臣斑鳩[斑鳩, 此云伊柯屢俄.]吉備臣小梨 難波吉士赤目子, 往救新羅. 膳臣等, 未至營止. 高麗諸將, 未與膳臣等相戰皆怖. 膳臣等乃自力勞軍. 令軍中, 促爲攻具, 急進攻之. 與高麗相守十餘日. 乃夜鑿險, 爲地道, 悉過輜重, 設奇兵. 會明, 高麗謂膳臣等爲遁也. 悉軍來追. 乃縱奇兵, 步騎夾攻, 大破之. 二國之怨, 自此而生[言二國者, 高麗新羅也.]. 膳臣等謂新羅曰, 汝以至弱, 當至强. 官軍不救, 必爲所乘. 將成人地, 殆於此役. 自今以後, 豈背天朝也.

九年 春二月甲子朔, 遣凡河內直香賜與采女, 祠胸方神. 香賜旣至壇所[香賜, 此云舸陀夫.]及將行事, 姧其采女. 天皇聞之曰, 祠神祈福, 可不愼歟. 乃遣難波日鷹吉士將誅之. 時香賜退[33]逃亡不在. 天皇復遣弓削連豐[34]穗, 普求國郡[35]縣, 遂於三島郡藍原, 執而斬焉.

三月, 天皇欲親伐新羅. 神戒天皇曰, 無往也. 天皇由是, 不果行. 乃勅紀小弓宿禰 蘇我韓子宿禰 大伴談連[談, 此云箇陀利.] 小鹿火宿禰等曰, 新羅自居西土. 累葉稱臣. 朝聘無違. 貢職允濟. 逮乎朕之王天下, 投身對馬之外, 竄跡匝羅

33 소학관본에는 '退'가 없다.

34 소학관본에서는 '豐'이라고 적고 있다.

35 소학관본에서는 '內'라고 적고 있다.

之表, 阻高麗之貢, 呑百濟之城. 況復朝聘旣缺, 貢職莫脩. 狼子野心, 飽飛, 飢附. 以汝四卿, 拜爲大將. 宜以王師薄伐, 天罰襲行. 於是, 紀小弓宿禰, 使大伴室屋大連, 憂陳於天皇曰, 臣雖拙弱, 敬奉勅矣. 但今, 臣婦命過之際. 莫能視養臣者. 公冀將此事具陳天皇. 於是, 大伴室屋大連, 具爲陳之. 天皇聞悲頹歎, 以吉備上道采女大海, 賜於紀小弓宿禰, 爲隨身視養. 遂推轂以遣焉. 紀小弓宿禰等, 卽入新羅, 行屠傍郡[行屠, 竝行竝擊.]. 新羅王, 夜聞官軍四面鼓聲, 知盡得喙地, 與數百騎[36]亂走. 是以, 大敗. 小弓宿禰, 追斬敵將陣中. 喙地悉定, 遺衆不下. 紀小弓宿禰亦收兵, 與大伴談連等會. 兵復大振, 與遺衆戰. 是夕, 大伴談連及紀岡前來目連, 皆力鬪而死. 談連從人同姓津麻呂, 後入軍中, 尋覓其主. 從軍不見出問曰, 吾主大伴公, 何處在也. 人告之曰, 汝主等果爲敵手所殺, 指示屍處. 津麻呂聞之, 踏叱曰, 主旣已陷. 何用獨全. 因復赴敵, 同時殞命. 有頃, 遺衆自退. 官軍亦隨而却. 大將軍紀小弓宿禰, 値病而薨.

夏五月, 紀大磐宿禰, 聞父旣薨, 乃向新羅, 執小鹿火宿禰所掌兵馬船官及諸小官, 專用威命. 於是, 小鹿火宿禰, 深怨乎大磐宿禰. 乃詐告於韓子宿禰曰, 大磐宿禰, 謂僕曰, 我當復執韓子宿禰所掌之官不久也. 願固守之. 由是, 韓子宿禰與大磐宿禰有隙. 於是, 百濟王, 聞日本諸將, 緣小事有隙. 乃使人於韓子宿禰等曰, 欲觀國堺. 請, 垂降臨. 是以, 韓子宿禰等, 竝轡而往. 及至於河, 大磐宿禰, 飮馬於河. 是時, 韓子宿禰, 從後而射大磐宿禰鞍几[37]後橋. 大磐宿禰愕然反視, 射墮韓子宿禰. 於中流而死. 是三臣由前相競, 行亂於道, 不及百濟王宮而却還矣. 於是, 采女大海, 從小弓宿禰喪, 到來日本. 遂憂諮於大伴室屋大連曰, 妾不知葬所. 願占良地. 大連卽爲奏之. 天皇勅大連曰, 大將軍紀小弓宿禰, 龍驤虎視, 旁眺八維. 掩討逆節, 折衝四海. 然則身勞萬里, 命墜三韓. 宜致

---

36 소학관본에는 '騎' 아래 '馬'가 있다.

37 소학관본에서는 '瓦'라고 적고 있다.

哀矜, 充視葬[38]者. 又汝大伴卿與紀卿等, 同國近隣之人, 由來尙矣. 於是, 大連奉勅, 使土師連小鳥, 作冢墓於田身輪邑, 而葬之也. 由是, 大海欣悅, 不能自默, 以韓奴室兄麻呂弟麻呂御倉小倉針, 六口送大連. 吉備上道蚊島田邑家人部是也. 別小鹿火宿禰, 從紀小弓宿禰喪來. 時獨留角國. 使倭子連[連, 未詳何姓人.]奉八咫鏡於大伴大連, 而祈請曰, 僕不堪共紀卿奉事天朝. 故請, 留住角國. 是以, 大連爲奏於天皇, 使留居于角國. 是角臣等, 初居角國. 而名角臣, 自此始也.

秋七月壬辰朔, 河內國言, 飛鳥戶郡人田邊史伯孫女者, 古市郡人書首加龍之妻也. 伯孫聞女産兒, 往賀賛家, 而月夜還. 於蓬菜丘譽田陵下[蓬菜, 此云伊致寐姑.], 逢騎赤駿者. 其馬時濩略, 而龍翥. 欻聳擢, 而鴻驚. 異體蓬[39]生, 殊相逸發. 伯孫就視, 而心欲之. 乃鞭所乘驄馬, 齊頭竝轡. 爾乃, 赤駿超攄絶於埃塵, 驅騖迅於滅沒. 於是, 驄馬後而怠足, 不可復追. 其乘駿者, 知伯孫所欲, 仍停換馬, 相辭取別. 伯孫得駿甚歡, 驟而入廐. 解鞍秣馬眠之. 其明旦, 赤駿變爲土馬. 伯孫心異之, 還覓譽田陵, 乃見驄馬, 在於土馬之間. 取[40]代而置所換土馬也.

十年 秋九月乙酉朔戊子, 身狹村主青等, 將吳所獻二鵝, 到於筑紫. 是鵝爲水間君犬所囓死[別本云, 是鵝爲筑紫嶺縣主泥麻呂犬所囓死.]. 由是, 水間君恐怖憂愁, 不能自默, 獻鴻十隻與養鳥人, 請以贖罪. 天皇許焉.

冬十月乙卯朔辛酉, 以水間君所獻養鳥人等, 安置於輕村磐餘村, 二所.

---

38 소학관본에서는 '喪'이라고 적고 있다.

39 소학관본에서는 '峰'이라고 적고 있다.

40 소학관본에는 '取' 다음에 '而'가 있다.

十一年 夏五月辛亥朔, 近江國栗太郡言, 白鷴鷁居于谷上浜. 因詔置川瀨舍人.

秋七月, 有從百濟國逃化來者. 自稱名曰貴信. 又稱貴信吳國人也. 磐餘吳琴彈壜手屋形麻呂等, 是其後也.

冬十月, 鳥官之禽, 爲菟田人狗所囓死. 天皇瞋, 黥面而爲鳥養部. 於是, 信濃國直丁與武藏國直丁侍宿. 相謂曰, 嗟乎, 我國積鳥之高, 同於小墓. 旦暮而食, 尙有其餘. 今天皇由一鳥之故, 而黥人面. 太無道理. 惡行之主也. 天皇聞而使聚積之. 直丁等, 不能忽備. 仍詔爲鳥養部.

十二年 夏四月丙子朔己卯, 身狹村主靑與檜隈民使博德, 出使于吳.

冬十月癸酉朔壬午, 天皇命木工闘鷄御田[一本云猪名部御田. 蓋誤也.], 始起樓閣. 於是, 御田登樓, 疾走四面[41], 有若飛行. 時有伊勢采女, 仰觀樓上, 怪彼疾行, 顚仆於庭, 覆所擎饌[饌者, 御膳之物也.]. 天皇便疑御田 其采女, 自念將刑, 而付物部. 時秦酒公侍坐. 欲以琴聲, 使悟於天皇. 横琴彈曰, 柯武柯笠能, 伊制能, 伊制能奴能, 娑柯曳鳴, 伊袁甫流柯枳底, 志我都矩屢麻泥爾, 飫哀枳瀰爾, 柯拕俱, 都柯陪麻都羅武騰, 倭我伊能致謀, 那我俱母鵝騰, 伊比志拕俱彌播夜, 阿拕羅陀俱彌播夜. 於是, 天皇悟琴聲, 而赦其罪.

十三年 春三月, 狹穗彦玄孫齒田根命, 竊奸采女山邊小嶋子. 天皇聞, 以齒田根命, 收付於物部目大連, 而使責讓. 齒田根命, 以馬八匹大刀八口, 祓除罪過. 旣而歌曰, 耶麼能謎能, 故思麼古喩衛爾, 比登涅羅賦, 宇麼能耶都擬播, 鳴思稽矩謀那斯. 目大連聞而奏之. 天皇使齒田根命, 資財露置於餌香市邊橘本之土. 遂以餌香長野邑, 賜物部目大連.

---

41 소학관본에서는 '方'이라고 적고 있다.

秋八月, 播磨國御井隈人文石小麻呂, 有力强心. 肆行暴虐. 路中抄刼, 不使通行. 又斷商客艖跗, 悉以奪取. 兼違國法, 不輸租賦. 於是, 天皇遣春日小野臣大樹, 領敢死士一百, 竝持火炬, 圍宅而燒. 時自火炎中, 白狗暴出, 逐大樹臣. 其大如馬. 大樹臣神色不變, 拔刀斬之. 卽化爲文石小麻呂.

秋九月, 木工韋[42]那部眞根, 以石爲質, 揮斧斲材. 終日斲之, 不誤傷刃. 天皇遊詣其所, 而怪問曰, 恆不誤中石耶. 眞根答曰, 竟不誤矣. 乃喚集采女, 使脫衣裙, 而著犢鼻, 露所相撲. 於是, 眞根暫停, 仰視而斲. 不覺手誤傷刃. 天皇因嘖讓曰, 何處奴. 不畏朕, 用不貞心, 妄輒輕[43]咎. 仍付物部, 使刑於野. 爰有同伴巧者, 歎惜眞根, 而作歌曰, 婀拕羅斯枳, 偉儺謎能陀倶彌, 柯該志須彌儺皤, 旨我那稽麽, 拕[44]例柯柯該武預, 婀拕[45]羅須彌儺皤. 天皇聞是歌, 反生悔惜, 喟然頽歎曰, 幾失人哉. 乃以赦使, 乘於甲斐黑駒, 馳詣刑所, 止而赦之. 用解徽纏. 復作歌曰, 農播拖磨能, 柯彼能矩盧古磨, 矩羅枳制播, 伊能致志儺磨志, 柯彼能倶盧古磨[一本, 換伊能致志儺磨志, 而云伊志歌孺阿羅麻志也.].

十四年 春正月丙寅朔戊寅, 身狹村主青等, 共吳國使, 將吳所獻手末才伎, 漢織, 吳織及衣縫兄媛, 弟媛等, 泊於住吉津.

是月, 爲吳客道, 通磯齒津路. 名吳坂.

三月, 命臣連迎吳使. 卽安置吳人於檜隈野. 因名吳原. 以衣縫兄媛, 奉大三輪神. 以弟媛爲漢衣縫部也. 漢織吳織衣縫, 是飛鳥衣縫部, 伊勢衣縫之先也.

夏四月甲午朔, 天皇欲設吳人, 歷問群臣曰, 其共食者誰好乎. 群臣僉曰, 根使主可. 天皇卽命根使主, 爲共食者. 遂於石上高抜原, 饗吳人. 時密遣舍人, 視

---

42 소학관본에서는 '猪'라고 적고 있다.

43 소학관본에는 '輕'이 없다.

44 소학관본에서는 '拖'라고 적고 있다.

45 소학관본에서는 '拖'라고 적고 있다.

察裝飾. 舍人服[46]命曰, 根使主所著玉縵, 太貴最好. 又衆人云, 前迎使時, 又亦著之. 於是, 天皇欲自見, 命臣連, 裝如饗之時, 引見殿前. 皇后仰天獻欷, 啼泣傷哀. 天皇問曰, 何由泣耶. 皇后避床而對曰, 此玉縵者, 昔妾兄大草香皇子, 奉穴穗天皇勅, 進妾於陛下時, 爲妾所獻之物也. 故致疑於根使主, 不覺涕垂哀泣矣. 天皇聞驚大怒. 深責根使主. 根使主對言, 死罪死罪, 實臣之愆. 詔曰, 根使主, 自今以後, 子子孫孫八十聯綿, 莫預群臣之例. 乃將欲[47]斬之. 根使主逃匿, 至於日根, 造稻城而待戰. 遂爲官軍見殺. 天皇命有司, 二分子孫, 一分爲大草香部民, 以封皇后. 一分賜茅渟縣主, 爲負囊者. 卽求難波吉士日香香子孫, 賜姓爲大草香部吉士. 其日香香等語, 在穴穗天皇紀. 事平之後, 小根使主[小根使主, 根使主子.], 夜臥謂人曰, 天皇城不堅. 我父城堅. 天皇傳聞是語, 使人見根使主宅. 實如其言. 故收殺之. 根使主之後爲坂本臣, 自是始焉.

十五年, 秦民分散臣連等, 各隨欲駈使. 勿委秦造. 由是, 秦造酒甚以爲憂, 而仕於天皇. 天皇愛寵之. 詔聚秦民, 賜於秦酒公. 公仍領率百八十種勝, 奉獻庸調絹縑, 充積朝庭. 因賜姓曰禹豆麻佐[一云, 禹豆母利麻佐, 皆盈積之貌也.].

十六年 秋七月, 詔, 宜桑國縣殖桑. 又散遷秦民, 使獻庸調.

冬十月, 詔, 聚漢部, 定其伴造者. 賜姓曰直[一[48]云, 賜, 漢使主等, 賜姓曰直也.].

十七年 春三月丁丑朔戊寅, 詔土師連等, 使進應盛朝夕御膳淸器者. 於是, 土師連祖吾笥, 仍進攝津國來狹狹村, 山背國內村俯見村, 伊勢國藤形村及丹波但

---

46 소학관본에서는 '復'이라고 적고 있다.

47 소학관본에는 '欲'이 없다.

48 소학관본에는 '一本'으로 되어 있다.

馬因播[49]私民部. 名曰贄土師部.

十八年 秋八月己亥朔戊申, 遣物部菟代宿禰物部目連, 以伐伊勢朝日郎. 朝日郎聞官軍至, 卽逆戰於伊賀靑墓. 自矜能射, 謂官軍曰, 朝日郎手, 誰人可中也. 其所發箭, 穿二重甲. 官軍皆懼. 菟代宿禰, 不敢進擊. 相持二日一夜. 於是, 物部目連, 自執大刀, 使筑紫聞物部大斧手, 執楯叱於軍中, 俱進. 朝日郎乃遙見, 而射穿大斧手楯二重甲. 幷入身肉一寸. 大斧手以楯翳物部目連. 目連卽獲朝日郎斬之. 由是, 菟代宿禰, 羞愧不克, 七日不服[50]命. 天皇問侍臣曰, 菟代宿禰, 何不服[51]命. 爰有讚岐田蟲別, 進而奏曰, 菟代宿禰怯也, 二日一夜之間, 不能擒執朝日郎. 而物部目連, 率筑紫聞物部大斧手, 獲斬朝日郎矣. 天皇聞之怒. 輒奪菟代宿禰所有猪使[52]部, 賜物部目連.

十九年 春三月丙寅朔戊寅, 詔置穴穗部.

廿年 冬, 高麗王大發軍兵, 伐盡百濟. 爰有小[53]許遺衆, 聚居倉下. 兵粮旣盡, 憂泣茲深. 於是, 高麗諸將, 言於王曰, 百濟心許非常. 臣每見之, 不覺自失. 恐更蔓生. 請逐[54]除之. 王曰, 不可矣. 寡人聞, 百濟國者爲[55]日本國之官家, 所由來遠久矣. 又其[56]王入仕天皇. 四隣之所共識也. 遂止之[百濟記云, 蓋鹵王乙卯年

---

49 소학관본에서는 '幡'이라고 적고 있다.
50 소학관본에서는 '復'이라고 적고 있다.
51 소학관본에서는 '復'이라고 적고 있다.
52 소학관본에서는 '名'이라고 적고 있다.
53 소학관본에서는 '少'라고 적고 있다.
54 소학관본에서는 '遂'라고 적고 있다.
55 소학관본에는 '爲'가 없다.
56 소학관본에는 '其'가 없다.

冬, 狛大軍來, 攻大城七日七夜. 王城降陷, 遂失尉禮. 國王及大后, 王子等, 皆沒敵手.].

廿一年 春三月, 天皇聞百濟爲高麗所破, 以久麻那利賜汶洲王, 救興其國. 時人皆云, 百濟國, 雖屬旣亡, 聚憂倉下, 實賴於天皇, 更造其國[汶洲王蓋鹵王母弟也. 日本舊記云, 以久麻那利, 賜末多王. 蓋是誤也. 久麻那利者, 任那國下哆呼利縣之別邑也.].

廿二年 春正月己酉朔, 以白髮皇子爲皇太子.

秋七月, 丹波國餘[57]社郡管川人瑞[58]江浦嶋子, 乘舟而釣. 遂得大龜. 便化爲女. 於是, 浦嶋子感以爲婦. 相逐入海. 到蓬萊山, 歷覩仙衆. 語在別卷.

廿三年 夏四月, 百濟文斤王薨. 天王[59], 以昆支王五子中, 第二末多王, 幼年聰明, 勅喚內裏. 親撫頭面, 誡勅慇懃, 使王其國. 仍賜兵器, 幷遣筑紫國軍士五百人, 衛送於國. 是爲東城王.

是歲, 百濟調賦, 益於常例. 筑紫安致臣馬飼臣等, 率船師以擊高麗.

秋七月辛丑朔, 天皇寢疾不預. 詔, 賞罰支度, 事無巨細, 竝付皇太子.

八月庚午朔丙子, 天皇疾彌甚. 與百寮辭訣, 竝握手歔欷. 崩于大殿. 遺詔於大伴室屋大連與東漢掬直曰, 方今區宇一家, 煙火萬里. 百姓乂安, 四夷賓服. 此又天意, 欲寧區夏. 所以小心勵己, 日愼一日, 蓋爲百姓故也. 臣連伴造, 每日朝參, 國司郡司, 隨時朝集. 何不磬竭心府, 誠勅慇懃. 義乃君臣, 情兼父子. 庶藉臣連智力, 內外歡心, 欲令普天之下, 永保安樂. 不謂, 遘疾彌留, 至於大漸.

---

57 소학관본에서는 '余'라고 적고 있다.

58 소학관본에서는 '水'라고 적고 있다.

59 소학관본에서는 '皇'이라고 적고 있다.

此乃人生常分. 何足言及. 但朝野衣冠, 未得鮮麗. 敎化政刑, 猶未盡善. 興言念此, 唯以留恨. 今年踰若干. 不復稱夭. 筋力精神, 一時勞竭. 如此之事, 本非爲身. 止欲安養百姓. 所以致此. 人生子孫, 誰不屬念. 旣爲天下, 事須割情. 今星川王, 心懷悖惡, 行缺友于. 古人有言. 知臣莫若君. 知子莫若父. 縱使星川得志, 共治國家[60], 必當戮辱, 遍於臣連, 酷毒流於民庶. 夫惡子孫, 已爲百姓所憚. 好子孫, 足堪負荷大業. 此雖朕家事, 理不容隱. 大連等, 民部廣大, 充盈於國. 皇太子, 地居儲君[61]上嗣, 仁孝著聞. 以其行業, 堪成朕志. 以此, 共治天下, 朕雖瞑目, 何所復恨[一本云, 星川王, 腹惡心麤, 天下著聞. 不幸朕崩之後, 當害皇太子. 汝等民部甚多. 努力相助. 勿令侮慢也.]. 是時, 征新羅將軍吉備臣尾代, 行至吉備國過家. 後所率五百蝦夷等, 聞天皇崩, 乃相謂之曰, 領制吾國天皇旣崩. 時不可失也. 乃相聚結, 侵寇傍郡. 於是, 尾代從家來, 會蝦夷於娑婆水門, 合戰而射. 蝦夷等, 或踊或伏. 能避脫箭. 終不可射. 是以, 尾代空彈弓弦. 於海浜上, 射死踊伏者二隊. 二囊之箭旣盡. 卽喚船人索箭. 船人恐而自退. 尾代乃立弓執末而歌曰, 瀰致儞阿賦耶, 鳴之慮能古, 阿母儞擧曾, 杞擧曳儒阿羅每, 矩儞儞播, 杞擧曳底那. 唱訖自斬數人. 更追至丹波國浦掛水門, 盡逼殺之[一本云, 追至浦掛, 遣人盡殺之[62].].

日本書紀卷第十四

60 소학관본에는 '國家'가 '家國'으로 되어 있다.

61 소학관본에는 '儲君'이 없다.

62 소학관본에는 '之'가 없다.

일본서기 권 제15

日本書紀 卷第十五

제22대 **백발무광국압치일본근자천황**(白髮武廣國押稚日本根子天皇) **청녕천황**(淸寧天皇)

제23대 **홍계천황**(弘計天皇) **현종천황**(顯宗天皇)

제24대 **억계천황**(億計天皇) **인현천황**(仁賢天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서기 권 제15

백발무광국압치일본근자천황(白髮武廣國押稚日本根子天皇 ; 시라카노타케히로쿠니오시와카야마토네코노스메라미코토) **청녕천황**(淸寧天皇 ; 세이네이텐노)[1]

백발무광국압치일본근자(白髮武廣國押稚日本根子 ; 시라카노타케히로쿠니오시와카야마토네코)[2]천황은 대박뢰유무천황(大泊瀨幼武天皇 ; 오호하츠세와카타케루노스메라미코토)의 셋째 아들이다[3]. 어머니는 갈성한원(葛城韓媛 ; 카즈라키노카라히메)이라고

---

1 22대 천황(480~484)이다. 雄略天皇과 갈성한원 사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었기 때문에 백발황자라고 불렸다. 백색증 환자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고대에는 유전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증거로 여겼다. 웅략의 또 다른 비인 吉備稚媛이 그의 아들 星川皇子을 부추겨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大藏을 장악하고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자, 大伴室屋과 東漢直掬을 보내 星川皇子 등을 불태워 죽였다. 淸寧紀의 주요내용은 그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딴 白髮部舍人, 白髮部膳夫, 白髮部靫負를 설치한 사실과, 市邊押磐皇子의 아들이자 履中天皇의 손자에 해당하는 弘計와 億計 두 사람을 播磨에서 찾아서 그 중 弘計를 황태자로 삼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는 군주로서 수행해야 할 형식적인 행사에 대한 설명만 나열되어 있고 특별한 치적이 보이지 않는다.

2 『古事記』 淸寧天皇段에는 白髮大倭根子命, 雄略天皇段에는 白髮命, 『日本書紀』 雄略天皇 22년 정월조에는 白髮皇子로 되어 있다. 천황이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어서 지은 이름일 것이다. 武廣國押은 美稱이다. 廣國押武金日(安閑) 및 武小廣國押盾(宣化)과 유사하다.

3 대박뢰유무천황은 雄略天皇이다. 셋째 아들이라는 사실은 다른 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吉備稚媛이 낳은 磐城皇子가 그의 형 중 한 사람이었던 사실이 아래 내용에 보인다.

한다[4]. 천황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었다. 장성해서는 백성을 사랑하였다. 대박뢰천황(大泊瀨天皇)은 여러 아들 중에 특히 영묘하고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22년에 황태자로 삼았다. 23년 8월에 대박뢰천황이 죽었다[崩]. 길비치원(吉備稚媛 ; 키비노와카히메)[5]은 은밀히 어린 아들 성천황자(星川皇子 ; 오시카하노미코토)[6]에게, "천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거든 먼저 대장관(大藏官)[7]을 차지하여라."라고 말하였다. 장자 반성(磐城 ; 이하키노미코)[8] 황자는 모부인(母夫人)[9]이 어린 아들에게 가르치는 말을 듣고는 "황태자는 내 아우지만 어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성천황자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곧 모부인의 뜻을 따랐다. 마침내 대장관을 차지하여 바깥 문[外門]을 닫고 자물쇠로 잠그고 난에 대비하였으며, 권세를 마음대로 하고 관물(官物)을 함부로 낭비하였다.

그러자 대반실옥대련(大伴室屋大連 ; 오호토모노무로야노오호무라지)은 동한국직(東漢掬直 ; 야마토노아야노츠카노아타히)에게 "대박뢰천황의 유조(遺詔)를 지금 실천하고자 한다. 유조에 따라 황태자를 받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 대장(大藏)을 에워싸고, 바깥에서 엄중하게 지키면서 불을

---

4 『日本書紀』 雄略天皇 원년 3월 是月條에 葛城圓大臣의 딸이라고 보인다.

5 『日本書紀』 雄略天皇 원년 3월 是月條에 '吉備上道臣女稚姬가 있었다[한 책에서 말하기를 吉備窪屋臣女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같은 해 7년 是歲條에 의하면, 원래 吉備上道臣田狹의 아내였다고 한다.

6 稚媛의 두 아들은 雄略 원년 3월 是月條에 의하면 '장자는 磐城皇子라고 하며, 작은 아들은 星川稚宮皇子라고 한다.'고 하였다.

7 『古語拾遺』와 『新撰姓氏錄』 등에 '雄略朝에 大藏을 세웠다.'고 하였다. 조정의 財庫로, 율령제에서 諸國의 租와 貢獻物 등을 보관하는 곳이다.

8 吉備稚媛과 雄略 사이에서 태어난 장자이며 星川皇子의 형이다. 어머니가 동생에게 천황의 자리에 오르려면 大藏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를 말렸다고 전한다.

9 吉備稚媛을 말한다. 율령제에서는 천자의 처첩으로 3위 이상인 자를 夫人이라고 한다.

질러 (성천황자를) 태워 죽였다. 이때 길비치원과 반성황자의 아버지가 다른[10] 형 형군(兄君 ; 에키미)[11]과 성구전래목(城丘前來目 ; 키노워카사키노쿠메)[12][이름이 없다.]이 성천황자를 따라 불에 타 죽었다. 오직 하내삼야현주소근(河內三野縣主小根 ; 카후치노미노노아가타누시워네)[13]이 두려움에 떨며 불을 피해 도망쳐 나왔다. 그는 초향부길사한언(草香部吉士漢彦 ; 쿠사카베노키시아야히코)[14]의 다리를 붙잡고 대반실옥대련에게 살려달라고 빌며 "소인 현주소근(縣主小根 ; 아가타누시오네)이 성천황자를 모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황태자에게 등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제발 큰 은혜를 내려 이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한언(漢彦 ; 아야히코)은 대반대련(大伴大連)에게 상세히 아뢰었으므로 처벌의 대상에 넣지 않았다. 소근은 한언을 통해 대련에게 "대반대련이여, 나의 주군이시여. 큰 자비를 베풀어서 죽을 뻔한 목숨을 다시 연장하여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난파(難波 ; 나니하) 내목읍(來目邑 ; 쿠메노무라) 대정호(大井戶 ; 오호위노헤)[15]의 논[田] 10정(町)[16]을 대련에게 보냈다. 또한 전지(田地)를

---

10 稚媛의 전 남편은 吉備上道臣田狹였다. 稚媛은 田狹과의 사이에 兄君과 弟君을 두었다.

11 兄君은 이름이 아니라 성천황자 등이 배다른 형들에게 사용한 호칭일 가능성이 있다.

12 『日本書紀』 雄略天皇 9년 3월조에 보이는 紀岡前來目連(키노오카사키노쿠메노무라지)과 이름이 유사하나 동일인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3 天武天皇 13년 정월조에 三野縣主에게 連이라는 성을 내렸다고 하였으며, 『新撰姓氏錄』의 河內神別에 '美努連은 같은 神(角凝魂命) 4세손 天湯川田奈命의 후손이다.'라고 하였다. 『延喜式』 神名式에 따르면 河內國 若江郡에 御野縣主神社가 있는데, 근거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4 漢彦은 다른 곳에는 보이지 않는다. 草香部吉士는 天武 12년 10월조에 '連이라는 성을 내렸다.'고 하였고, 또 同10년 정월조에 草香部吉士大形에게 '難波連이라는 성을 내렸다.'는 기사가 보인다. 『新撰姓氏錄』 右京諸番에는 '難波連은 고려국 好太王에서 나왔다.'라고 하였다.

15 다른 곳에는 보이지 않는다. 『攝津志』에 '住吉郡 遠里小野의 옛 이름은 難波 來目 大井戶이다.'라고 하였다. 후에 阿閉久米庄이 있었다.

16 大化改新 이전의 田積 단위는 代(시로)이다. 여기서는 율령제의 단위를 차용한 것이다.

한언에게 주어 그 은혜에 보답하였다. 같은 달 길비상도신(吉備上道臣 ; 키비노카미츠미치노오미) 등이 조정에 난리가 난 것을 듣고 길비치원이 낳은 성천황자를 구하려는 생각에 선사(船師) 40척을 이끌고 왔다. 그러나 이미 불타 죽었다는 것을 듣고 해로로 돌아갔다. 천황[17]이 사신을 보내어 상도신(上道臣 ; 카미츠미치노오미) 등을 책망하고 그가 거느리고 있던 산부(山部 ; 야마베)[18]를 빼앗았다. 겨울 10월 기사삭 임신에 대련이 신(臣)과 연(連) 등을 이끌고 국새[璽][19]를 황태자에게 바쳤다.

원년 봄 정월 무술삭 임자(壬子)에 유사(有司)로 하여금 단장(壇場)을 반여(磐余 ; 이와레)의 옹율(甕栗 ; 미카쿠리)[20]에 설치하게 하고,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드디어 궁을 정하였다. 갈성한원을 높여서 황태부인(皇太夫人)[21]으로 삼았다. 대반실옥대련을 대련(大連)으로 삼고, 평군진조대신(平群眞鳥大臣 ; 헤구

『양로령』 田令 田長條에 '무릇 논[田]은 길이 30보, 너비 12보를 段으로 한다. 10段을 町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1段은 50代이며, 10町은 5,000代에 상당한다. 1町은 1ha가 조금 넘는 면적이다.

17 정확하게는 (白髮)皇子, 皇太子라고 해야 한다.

18 國마다 山部를 정한 것은 『日本書紀』 應神 5년 8월조에 보인다. 吉備上道臣이 山部를 관장하였다는 사실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日本書紀』 顯宗 원년 4월조에는 "(來目部) 小楯이 삼가 말하기를 '山官은 오래된 소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山官에 임명하고, 성을 山部連이라고 고쳐 내렸다. 吉備臣을 부관[副]으로 삼고, 山守部를 民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19 『日本書紀』 允恭天皇 원년 12월조에 璽符라고 하였다.

20 『古事記』에 '伊波禮의 甕栗宮에서 천하를 다스렸다.'고 하였고, 『帝皇編年紀』에 '磐余甕栗宮은 大和國 十市郡 白香谷이다.'라고 하였다. 『大和志』에 '甕栗宮 옛터는 池內御厨子邑이다.'라고 하였으나 명확하지 않다.

21 『養老令』 公式令 義解에 '천자의 어머니가 后位에 오르면 皇太后로 삼는다. 妃位에 있으면 皇太妃로 삼는다. 夫人이라는 지위에 있으면 皇太夫人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그에 따른 표현이다.

리노마토리노오호오미)을 대신(大臣)으로 삼는 것이 모두 전과 같았다. 신(臣), 연(連), 반조(伴造) 등은 각각의 직위(職位)에 따르도록 하였다.

겨울 10월 계사삭 신축(辛丑), 대박뢰천황을 단비고취원릉(丹比高鷲原陵 ; 타지히노타카와시하라노미사자키)[22]에 장사지냈다. 이때 준인(隼人)[23]이 밤낮으로 슬프게 통곡하며 음식을 주어도 먹지 않다가 7일 만에 죽었다. 유사(有司)가 묘를 능의 북쪽에 만들어서 예로써 장사지냈다[24]. 이 해의 간지[太歲]는 경신(庚申)이다.

2년 봄 2월에 천황이 아들이 없는 것이 한이 되어서 대반실옥대련을 제국(諸國)에 보내어 백발부사인(白髮部舍人)[25], 백발부선부(白髮部膳夫), 백발부채부(白髮部靫負)를 두었다. 흔적을 남겨서 후대에 보여주기를 바란 것이다[26].

---

22 『延喜式』 諸陵式에 '泊瀨朝倉宮御宇雄略天皇이다. 河內國 丹比郡에 있으며, 무덤이 있는 지역[兆域]은 동서 3町, 남북 3町이다. 능호는 4烟이다.'라고 하였다. 『河內志』에는 '丹北郡 島泉村에 있다.'라고 하였으며, 『陵墓要覽』은 大阪府 南河內郡 南大阪町(지금의 大阪府 羽曳野市) 내의 大字 島泉字高鷲原과 大字 南島 原字丸山에 걸쳐 있다고 하였다.

23 雄略天皇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신하인 隼人일 것이다. 『日本書紀』 履中 卽位前紀에 '近習隼人'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日本書紀』 神代紀 제10단 제2의 一書에서는 '여러 隼人들이 지금에 이르러 천황 宮墻의 옆을 떠나지 않고 짖는 개를 대신하여 받들었다.'고 하였다.

24 『河內志』에 '隼人墓는 高鷲原陵 북쪽에 있다.'라고 하였는데 확실하지 않다.

25 白髮天皇을 섬기던 舍人으로, 주로 東國의 國造 자제 중에 선발하였고, 그 비용은 白髮部에 속한 백성들이 부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의 膳夫, 靫負도 마찬가지이다. 白髮部는 山城, 攝津, 和泉, 遠江, 駿河, 武藏, 常陸, 美濃, 上野, 下野, 美作, 備中, 岩見, 周防, 肥後 등 여러 지역에 분포하였다.

26 『日本書紀』 繼體天皇 원년 2월조에도 '白髮天皇이 후사가 없었다. (중략) 州마다 三種白髮部를 안치하였다[三種이라고 말한 것은 첫째 白髮部舍人, 둘째 白髮部供膳, 셋째 白髮部靫負이다.].'라고 하였으며, 『古事記』 淸寧天皇段에도 '이 천황은 황후가 없으며, 역시 아들도 없었다. 그러므로 御名代를 白髮部라고 정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淸寧天皇이 자신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白髮部라는 名代를 두었던 셈이다. 한편 雄略天皇段에는 '白髮太子의 御名代로서 白髮部를 정하였다.'라고 하여, 雄略天皇이 황태자 淸寧을 위하여 白髮部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겨울 11월에 대상(大嘗)[27]에 바칠 물품[料]을 거두기 위해서 파마국(播磨國 ; 하리마노쿠니)에 파견한 사신[司][28]인 산부련(山部連 ; 야마베노무라지)의 조상 이예래목부소순(伊豫來目部小楯 ; 이요노쿠메베노워다테)[29]이 적석군(赤石郡 ; 아카시노코호리)[30]의 축견둔창수(縮見屯倉首 ; 시지미노미야케노오비토)[31]인 인해부조세목(忍海部造細目 ; 오시누베노미야츠코호소메)[32]의 새 집에서 시변압반황자(市邊押磐皇子 ; 이치노헤노오시하노미코)의 아들 억계(億計 ; 오케)[33]와 홍계(弘計 ; 워케)[34]를 찾

---

27 新嘗은 천황이 매년 햇곡식으로 皇祖를 제사지내는 의식이고, 大嘗은 천황이 즉위한 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新嘗祭이다. 처음에는 양자에 구별이 없었던 듯하며 그 구별은 『日本書紀』 天武 2년조에서 나타난다. 여기서는 大嘗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古事記』나 『播磨風土記』의 美囊郡 志深里條에서는 山部連을 大嘗, 新嘗을 위해 보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28 『日本書紀』 顯宗 卽位前紀에 '播磨國司', 『古事記』에서 '針間國의 사신[宰]', 『播磨風土記』에 '針間國의 山門領에 파견한 山部連少楯'이라고 하였듯이 임시로 파견되었던 관인으로, 후세와 같이 상주하는 國宰(國司)는 아닐 것이다.

29 『古事記』와 『播磨風土記』의 美囊郡 志深里條에서도 山部連小(少)楯이라고 하였다. 山部連은 山部를 관장하며, 산림의 관리와 産物의 貢上을 담당하는 씨족이다. 天武 13년 12월에 宿禰가 되었으며, 小楯에게 山部連이라는 성을 내린 것은 顯宗 원년 4월조에 보인다. 『播磨風土記』의 賀毛郡 玉野村條에는 두 왕이 志深里의 高野宮에 있으면서 山部小楯을 보내어 國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구혼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伊豫國에 久米郡이 있다. 또 『先代舊事本紀』, 『國造本紀』에 久味國造가 보인다. 來目部가 많은 지역일 것이다. 小楯은 顯宗 원년 4월조에 '고친 이름은 磐楯'이라고 하였다.

30 明石郡이라고도 한다. 다만 『播磨風土記』에서는 美囊郡 志深里라고 하였다. 이 군은 이후의 明石郡 북쪽에 접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후의 明石郡보다도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듯하다.

31 직명이다. 『播磨風土記』에는 '志深村首'라고 하였다. 『古事記』에서 '그 國의 백성으로, 이름이 志自牟이다.'라고 한 것은 지명을 인명으로 오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32 『播磨風土記』에는 '志深村首, 伊等尾이다.'라고 하였다. 忍海部造는 雜工의 品部로, 忍海部의 伴造이다. 『古事記』 開化段에 '開化天皇 皇子 建豐波豆羅和氣王을 조상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역시 『新撰姓氏錄』의 河內皇別에서도 '忍海部는 開化天皇 皇子 比古由牟須美命의 후손이다.'라고 하였다.

33 仁賢天皇이다.

34 顯宗天皇이다.

았다[35]. 두려워하고 공경하여 군주[君]로 받들려고 생각하였다. 아주 공손하게 모시고 사사로이 공급(供給)하였다. 그리하여 곧 시궁(柴宮)[36]을 지어서 임시로 편히 거처하게 하였다. 그리고 역마를 타고 달려가 아뢰었다[37]. 천황이 깜짝 놀라 한탄하고 진실로 슬퍼하며 "아아. 기쁘구나. 하늘에서 널리 사랑을 베푸셔서 두 아이를 주셨구나."라고 말하였다[38].

같은 달에 소순(小楯 ; 워다테)으로 하여금 절(節)을 가지고 좌우사인(左右舍人)을 거느리고 적석(赤石 ; 아카시)에 가서 맞이하여 받들게 하였다. 이 이야기는 홍계천황기(弘計天皇紀)[39]에 있다.

3년 봄 정월 병진삭에 소순 등이 억계와 홍계를 모시고 섭진국(攝津國 ; 세츠노쿠니)[40]에 이르렀다. 그리고 신련(臣連)에게 절(節)을 들고 가서 왕의 청개거(靑蓋車)[41]로 궁중에 맞아들이도록 하였다.

여름 4월 을유삭 신묘(辛卯)에 억계왕(億計王)을 황태자로 삼고 홍계왕(弘計王)을 황자로 삼았다.

가을 7월에 반풍황녀(飯豐皇女 ; 이히도요노히메미코)[42]는 각자궁(角刺宮 ; 츠노사

---

35 두 왕이 새 집에서 연회를 베풀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일은 『古事記』와 『播磨風土記』에도 보인다.

36 나무로 지은 소박한 궁이다.

37 원문은 乘驛馳奏이다. 驛制는 大化改新 때 정해졌으므로, 이 시기에 驛馬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38 『古事記』에서는 천황이 죽은 후의 일로 되어 있으며, 이 보고를 받은 사람은 飯豐王이라고 하였다.

39 『日本書紀』 顯宗천황즉위전기를 가리킨다.

40 옛날에는 이 글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津國 혹은 難波라고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1 『後漢書』 靈帝紀에 '寶武로 하여금 節을 가지고 王靑蓋車로 殿의 가운데로 맞이하여 들였다.'라고 하였다. 靑蓋車는 청색의 덮개가 있는 수레로 중국에서 皇子가 타는 수레를 말한다.

시노미야)[43]에서 남편과 처음으로 교합하고, 사람들에게 "일단 여자의 도를 알았으나,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더 이상 남자와 교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여기에 남편이 있다고 한 것은 자세히 알 수 없다.].

9월 임자삭 계축(癸丑)에 신련(臣連)을 보내어 풍속을 순시하게 하였다.

겨울 10월 임오삭 을유(乙酉)에 "개, 말, 기완(器翫)은 헌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11월 신해삭 무진(戊辰)에 신련(臣連)에게 대정(大庭)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그리고 명주솜[綿]과 비단[帛]을 내렸다. 모두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게 하였다.

이 달에 바다 건너 제번(諸蕃)이 모두 사신을 보내 조(調)를 바쳤다.

4년 봄 경술삭 병진(丙辰)에 바다 건너 제번(諸蕃)의 사신에게 조당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물품을 내리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여름 윤 5월에 큰 연회[大餔]를 연 것이 5일이었다.

가을 8월 정미삭 계축에 천황이 친히 죄인들을 심문하였다. 이 날 하이(蝦夷)와 준인(隼人)이 모두 복속하였다.

9월 병자삭에 천황이 사전(射殿)에 나아갔다. 백료(百寮) 및 외국[海表]의 사신들에게 명하여 활을 쏘게 하고 물품을 내렸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5년 봄 정월 갑술삭 기축(己丑)에 천황이 궁에서 돌아가셨다[崩]. 이때 나이

---

42 履中天皇의 딸 또는 손녀. 『日本書紀』 이중천황 원년 7월 기유삭 임자조 참조.

43 『日本書紀』 顯宗天皇 卽位前記에서 '忍海角刺宮에서 조정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고 하였으며, 이때 사람들의 노래에 '忍海의 높은 성인 角刺宮.'이라 하였다. 『古事記』에는 '葛城忍海의 高木角刺宮에서 다스렸다[坐].'고 하였는데, 忍海는 奈良縣 南葛城郡 忍海村 大字忍海의 땅(지금의 北葛城郡 新庄町 忍海)이다.

는 알 수 없다[44].

겨울 11월 경오삭 무인(戊寅)에 하내판문원릉(河內坂門原陵 ; 카후치노사카토노하라노미사자키)[45]에 장사지냈다.

홍계천황(弘計天皇 ; 워케노스메라미코토) 현종천황(顯宗天皇 ; 켄조텐노)[46]

홍계천황(弘計天皇 ; 워케노스메라미코토)[47][또한 내목치자(來目稚子 ; 쿠메노와쿠고)라고도 한다[48].]은 대형거래수별천황(大兄去來穗別天皇 ; 오호에노이자호와케노스메라미코

---

44 『神皇正統記』에는 39세, 『水鏡』 등에는 41세, 『皇代記』 등에는 42세라고 되어 있다.

45 『延喜式』 諸陵式에 '河內國 坂門原陵[磐余甕栗宮御宇淸寧천황은 河內國 古市郡에 있다. 무덤이 있는 곳은 동서 2町이고 남북 2町이며, 능호는 4烟이다.]'이라고 하였다. 古市郡 尺度鄕 지역이다. 『陵墓要覽』에 의한 소재지는 大阪府 南河內郡 南大阪町(지금의 羽曳野市) 大字西浦字白髮이다.

46 23대 천황(재위 : 485~487)이다. 이중천황의 손자이며 시변압반황자의 둘째 아들이다. 홍계왕은 아버지인 시변압반황자가 웅략에게 살해당하자, 형인 억계왕과 더불어 丹波國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었다. 후에 다시 播磨國으로 가서 縮見屯倉의 관리자였던 忍海部造細目 밑에서 오랫동안 말 먹이는 일을 맡았다. 481년에 인해부조세목이 새로운 집을 지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왕족임을 밝혔으며, 자식이 없었던 청녕천황은 억계왕을 황태자로 삼아 왕위를 잇고자 하였다. 청녕이 죽은 후에 억계왕은 동생인 홍계왕에게 왕위를 양보하였으며, 그 사이에 잠시 飯豐靑皇女가 집정하였고, 결국 홍계왕이 즉위하였다. 현종기의 주요 내용으로는 파마국에서 왕족의 신분을 드러내는 과정, 형인 억계왕이 왕위를 양보한 이야기, 아버지인 시변압반황자의 유골을 찾는 과정과 이에 공을 세운 노파를 존중한 이야기, 웅략천황의 능을 파헤치려고 하였으나 형인 억계가 만류하여 그만둔 이야기 등이 있다.

47 卽位前紀에 弘計天皇은 다른 이름이 來目稚子이며, 그 분주에 인용된 譜第에서 市邊押磐皇子의 셋째 아들이라고 하였다. 『古事記』는 袁祁之石巢別命, 『播磨風土記』의 賀毛郡 및 美囊郡條에서는 袁奚天皇이라고 했다. 計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오(オ)와 워(ヲ)는 大小를 나타내며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48 『書紀集解』는 來目은 伊與來目部小楯이 그를 맞이한 일에 기인한 이름으로 추정하였다.

토)[49]의 손자이고, 시변압반황자(市邊押磐皇子 ; 이치노헤노오시하노미코)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이원(黃媛 ; 하에히메)이다[黃는 하에(波曳)라고 읽는다. 보제(譜第)[50]에 이르기를, 시변압반황자는 의신(蟻臣 ; 아리노오미)[51]의 딸 이원[52]과 결혼해서 드디어 3남 2녀를 낳았다. 첫째는 거하희(居夏姬 ; 위나츠히메)라고 하고, 둘째는 억계왕(億計王 ; 오케노미코)이다. 다른 이름은 도치자(鴟稚子 ; 시마노와쿠고)[53], 또 다른 이름은 대석존(大石尊 ; 오호이시노미코토)[54]이라 하였다. 셋째는 홍계왕(弘計王 ; 워케노미코)인데, 내목치자(來目稚子)로 이름을 고쳤다. 넷째는 반풍여왕(飯豐女王 ; 이히도요노히메미코)인데, 또한 인해부여왕(忍海部女王 ; 오시누미베노히메미코)[55]이라고도 한다. 다섯째는 귤왕(橘王 ; 타치바나노미코)인데, 어떤 책에서는 반풍여왕을 억계왕보다 위에 두었다. 의신은 위전숙녜(葦田宿禰 ; 아시타노스쿠네)[56]의 자식이다.]. 천황은 오랫동안 변방[57]에 있으면서, 백성의 근심과 고통을 모두 알았다. 항상 억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몸이 도랑에 빠진 듯이 괴로워 하였다. 덕을 펴고 은혜를 베풀어서 정치가 잘 행

---

49 履中天皇이다.

50 「帝王日繼」라고도 불렸던 「帝紀」 또는 그 異本일 가능성이 있다. 欽明 2년 3월조 주에는 「帝王本紀」가 보인다.

51 아래 문장에 葦田宿禰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葦田宿禰는 『古事記』 履中段에 葛城曾都毘古의 아들로 되어 있다.

52 押磐皇子의 어머니 黑媛은 『日本書紀』 履中 원년조에 葦田宿禰의 딸로 나타나므로, 黃媛과는 숙모와 질녀의 관계이다.

53 『日本書紀』 仁賢天皇 卽位前紀에 字는 島郎이라고 하였다. 島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세히 알 수 없다. 大和 高市郡島의 지명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54 『日本書紀』 仁賢天皇 卽位前紀에 휘는 大脚, 다른 이름은 大爲라고 하였다. 이름의 의미는 알 수 없다.

55 아래 문장에서 '大和의 忍海角刺宮에 머물면서 스스로 忍海飯豐淸寧이라고 칭했다.'고 하였다. 『古事記』에는 忍海郎女로 나타난다.

56 葛城襲津彦의 아들이다. 葦田은 大和國 葛下郡의 지명으로 현재의 奈良縣 北葛城郡 王寺町이다.

57 원문은 邊裔이다.

해졌다. 가난한 자를 가엾게 여기고 과부를 봉양하니 천하가 친근감을 가지고 따랐다.

혈수천황(穴穗天皇 ; 아나호노스메라미코토) 3년 10월[58] 천황의 아버지 시변압반황자 및 장내(帳內)[59] 좌백부중자(佐伯部仲子 ; 사헤키베노나카치코)[60]는 문옥야(蚊屋野 ; 카야노)에서 대박뢰천황(大泊瀨天皇 ; 오호하츠세노스메라미코토)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 때문에 같은 곳에 매장했다[61]. 이때 천황과 억계왕(億計王)은 아버지가 활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두렵고 무서워서 함께 도망가서 숨었다. 장내 일하부련사주(日下部連使主 ; 쿠사카베노무라지오미)[62][사주(使主)는 일하부련(日下部連)의 이름이다. 사주는 오미(於瀰)라고 읽는다.]는 오전언(吾田彦 ; 아타히코)[63][오전언은 사주의 아들이다.]과 함께 천황과 억계왕을 몰래 모시고, 단파국(丹波國 ; 타니하노쿠니) 여사군(余社郡 ; 요자노코호리)[64]으로 피난했다. 사주(使主)는

---

58 이하의 내용은 顯宗과 仁賢의 아버지인 市邊押磐皇子의 불행한 최후와 두 사람이 난을 피해 播磨의 縮見屯倉에서 사역되기에 이른 사정을 서술하고, 이어서 11월조 이하의 두 왕을 조정으로 맞이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市邊押磐皇子의 최후는 雄略 卽位前紀 10월조와 『古事記』 安康段 및 『播磨風土記』 美囊郡 志深里條에 보인다.

59 천황(황후·황태자)·황족·귀족을 호위하고 한편으로 잡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을 '토네리'라고 하는데, 율령제하에서는 각각 舍人·帳內·資人으로 표기하였다. 황족인 시변압반황자를 섬기는 사람이므로 帳內라고 한 것이다.

60 『日本書紀』 雄略天皇 즉위전기에는 '賣輪(다른 이름은 仲手子)'이라고 하였다.

61 『古事記』 安康天皇段에는 '말구유에 넣어 흙과 함께 묻었다.'고 하였다. 후에 천황들이 이 묘를 열어서 두 개의 시신을 분별하도록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顯宗天皇 원년 2월 是月條에 보인다.

62 『古事記』 開化天皇段에 '沙本毗古王은 日下部連의 조상이다.'라고 하였으며, 『新撰姓氏錄』 河內皇別에 '日河部連은 彦坐命子狹穗彦命의 후손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開化天皇의 皇子 建豐葉頰別命이 忍海部造의 조상이며, 飯豐青尊은 一名 忍海部女王이라고 하였으므로 세 사람 사이에 어떤 혈연관계가 있는 것 같다. 使主는 『播磨風土記』에서는 意美라고 하였다.

63 大和國 宇智郡의 지명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64 『釋日本紀』에서 인용한 『丹後國風土記』에 '與謝郡 日置里이며, 이 里는 筒川村에 있다.

마침내 이름을 고쳐 전질래(田疾來 ; 타토쿠)라 하였다. 그렇게 하고도 그는 살해될까 두려워서 여기에서 파마(播磨 ; 하리마)의 축견산(縮見山 ; 시지미노야마) 석실(石室)[65]로 도망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66]. 천황은 사주(使主)가 간 곳을 몰랐다. 형 억계왕(億計王)에게 권하여 파마국(播磨國 ; 하리마노쿠니) 적석군(赤石郡 ; 아카시노코호리)으로 가서 함께 단파소자(丹波小子 ; 타니하노와라하)라고 이름을 고쳤다. 그리고 축견둔창수(縮見屯倉首)[縮見屯倉首는 인해부조세목(忍海部造細目 ; 오시누베노미야츠코호소메)이다.]에게 나아가 섬겼다. 오전언은 여기에서도 떠나지 않고 신하의 예를 지켰다.

백발천황(白髮天皇) 2년 겨울 11월[67]에 파마국사(播磨國司) 산부련(山部連 ; 야

이곳의 人夫는 日下部首 등의 선조이며, 이름은 筒川嶼子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古事記』 安康천황단에는 '山代苅羽井에 이르러 양식을 먹을 때, 얼굴에 묵형을 한[面黥] 노인이 와서 그 양식을 빼앗았다. 그러나 두 왕은 말하기를 "양식은 아깝지 않다. 그런데 너는 누구인가?"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저는 山代의 猪甘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玖須婆之河를 도망쳐 건너서 針間國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으로 이름이 志自牟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말과 소를 기르는 일을 하였다.'고 하였다. 『播磨國風土記』에서는 곧 播磨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다. 이름의 의미는 알 수 없다.

65 三木市 志染町 窟屋 窟屋山 기슭에 석실(높이 3간, 너비 8간, 깊이 6간)이 있는데, 바로 그 장소라고 전한다.

66 『播磨風土記』에 '그 후 意美는 스스로 중죄임을 알고, 타는 말의 재갈을 잘라내고 쫓아보냈다. 또한 가지고 있던 책상 등의 물건을 모두 태워 없애고 목매어 죽었다(亦持物桉等尽燒廢之卽經死之).'고 하였다.

67 이하의 내용은 山部連小楯이 億計와 弘計 두 왕을 播磨國 縮見屯倉에서 조정으로 맞이하여 弘計王이 즉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같은 이야기가 淸寧 2년과 3년조 및 仁賢 즉위전기에도 보이며, 『古事記』에서는 淸寧段, 『播磨風土記』에서는 美囊郡 志深里條에 보인다. 한편 『日本書紀』에서는 淸寧天皇 때의 일로 이 이야기를 실었지만, 『古事記』에서는 淸寧이 죽은 후인 飯豊王(書紀의 飯豊青尊)이 조정을 다스리던 시기의 일로 되어 있다. 그밖에 『日本書紀』에서는 仁賢이 죽은 후의 일로서 武烈 즉위전기에 平群眞鳥臣과 鮪 부자의 횡포와 주살을 기록하였으나, 『古事記』는 두 왕이 귀환한 직후의 일로 기록하고 志毗臣(鮪)을 죽이고 이후 顯宗天皇이 즉위하는 등, 두 왕의 이야기 전후에는 『記紀』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마베노무라지)의 선조 이예래목부소순(伊豫來目部小楯 ; 이요노쿠메베노워다테)이 적석군에서 신상제[68]에 쓸 물품을 직접 골랐다[어떤 책에서는 "군현(郡縣)을 돌아다니며[69], 전조(田租)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마침 축견둔창수(縮見屯倉首)가 새로 집을 지은 것을 축하하는 연회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었다[70]. 천황이 형 억계왕에게 "여기에서 난을 피한 지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름을 밝혀 귀한 신분임을 드러낼 때가 바로 오늘 밤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71]. 억계왕이 슬피 탄식하며 "스스로 신분을 밝혀 해를 입는 것이 몸을 온전히 하여 재앙을 면하는 것보다 어찌 낫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우리는 거래수별천황(去來穗別天皇 ; 이자호와케노스메라미코토)[72]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겨 힘들게 소와 말을 기르고 있으니, 차라리 이름을 드러내어 해를 입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억계왕과 함께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니 스스로 멈출 수가 없었다. 억계왕이 "그렇다면 동생이 아니면 누가 이 큰 일을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천황이 굳이 사양하며,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어찌 감히 덕업(德業)을 널리 떨치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억계왕은 "아우는 재주가 뛰어나고 현명하고 어지니 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서로 여러 차례 양보하였다.

결국 천황이 신분을 밝히도록 하고, 함께 집 밖으로 나아가 아랫자리[73]에 있

---

68 원문은 新嘗이다.

69 원문은 巡行이다.

70 『播磨風土記』에 '伊等尾가 새 집을 짓고 연회를 벌였을 때 두 황자가 촛불을 들었다.'고 하였다. 이는 새 집을 축하하는 것이다. 『古事記』 景行천황단에는 「言動爲御室樂設備食物.」이라고 하였다.

71 아우인 弘計王이 적극적으로 이름을 밝히려고 했다는 모티브는 아래의 기술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 점은 『古事記』 淸寧天皇段도 마찬가지이다. 또 『記紀』에서는 후에 동생이 먼저 왕위에 오른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하였다.

72 履中天皇이다.

었다. 둔창수(屯倉首)가 두 사람에게 부뚜막의 좌우에서 횃불을 들고 있도록 하였다. 밤이 깊어 술자리가 무르익자 춤도 끝이 났다. 둔창수는 소순(小楯 ; 워다테)에게 "내가 이 횃불을 들고 있는 자를 보니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을 앞에 세우고 자기를 뒤에 둔다. 또한 삼가 공경하여 법도를 지킨다[撙節]. 물러나며 양보하여 예를 밝히니[撙은 달린다[趍]는 뜻이다. 서로 따른다, 멈춘다는 뜻이다.] 가히 군자라 할 만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소순이 금(琴)을 연주하며 횃불을 든 자에게 "일어나서 춤을 추라."고 명하였다. 이에 형제가 서로 양보해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74]. 소순이 "어찌 오래 머뭇거리는가. 속히 일어나 춤을 추라."고 꾸짖었다. 그러자 억계왕이 일어나서 춤을 다 추었다.

천황이 다음으로 일어나서 자신의 의대(衣帶)를 가지런히 하고 새 집을 지은 것을 축하하며 말하였다. "새 집의 칡뿌리, 집을 받치는 기둥은 이 집 주인 마음의 편안함이다. 베어서 올린 들보는 이 집 주인 마음의 번성함이다. 베어서 올린 서까래는 이 집 주인 마음의 가지런함이다. 베어서 올린 갈대풀[蘆葦]은 이 집 주인 마음의 평안함이다[蘆葦은 에츠리(哀都利)라 읽는다. 葦의 음은 之와 潤을 反切한다[75].]. 베어서 다진 칡밧줄[76]은 이 집 주인 마음의 견고함이다. 베어서 올린 이엉은 이 집 가장이 가진 재산[77]의 넉넉함이다. 출운전(出雲田)은 새로 개간한 땅, 새로 개간한 땅에서 난 열 줌의 벼로 얕은 항아리에 빚은 술을 맛있게

---

73 원문은 下風이다. 상석인 座長에 대하여 아랫자리인 座後를 말한다.

74 『古事記』 淸寧天皇段에서는 '그 아이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였다. 그러나 한 아이가 말하기를, "형이 먼저 추십시오."라고 하였다. 그 형이 역시 말하기를, "아우가 먼저 추거라."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서로 양보하니, 모인 사람들이 그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고 하였다. 『播磨國風土記』에서는 '이에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詠辭]. 그런데 형과 아우가 각각 서로 사양하였다.'라고 하였다.

75 之의 'ㅈ'와 潤의 'ᄉᆞᆫ'을 합쳐서 '쥰'으로 읽으라는 뜻이다. 葦은 물억새이다.

76 원문은 繩葛이다.

77 원문은 御富이다.

마셔라[美飮喫哉][美飮喫哉는 우마라니오야라후루가네(云于麼羅儞烏野羅甫柯倭)라고 읽는다.]. 젊은이들이여[吾子等][子는 남자의 통칭이다.], 각일목(脚日木)의[78] 이 산자락[79]의 수사슴[80]의 뿔[牡鹿은 사오시카(左烏子加)라고 읽는다.]을 들고 내가 춤추면[81], 이 맛있는 술은 이향(餌香 ; 에카)[82]의 저자에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손뼉을 치는 소리도 청아하게[83][手掌慘亮은 타나소코모야라라니(陀那則擧謀耶羅羅儞)라고 읽는다.] 박자를 맞춰주시오, 장로들이여[84].”

축하하는 말을 마치고 곧 가락에 맞춰서[85] 노래를 불렀다.

볏집으로 만든 자리[稻蔣][86] 강가에 서있는 버드나무, 물이 흐르면 휩쓸렸다가 일어났다 하지만, 그 뿌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소순이 “재미있구나. 또 부르거라.”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특별한 춤[87]을 추었다[殊儛를 옛날에는 타츠즈노마이(立出儛)라고 하였다. 立出은 타츠즈(陀豆豆)라고 읽는

78 산자락에 대한 枕詞이다.

79 원문은 傍山이다.

80 원문은 牡鹿이다.

81 수사슴의 뿔이 달린 가면을 쓰고 사슴춤을 추는 것이다. 사슴이 논을 망치지 않겠다고 인간에게 맹서하는 내용을 담은 예능으로, 연회석에서 추었음을 알 수 있다.

82 大和川의 지류인 石川 하류의 左岸. 『日本書紀』 웅략천황 13년 춘3월조 참조.

83 원문은 手掌慘亮이다. 慘亮은 맑고 경쾌한 소리를 뜻한다. 훈으로 보이는 ‘야라라’는 ‘야라야라’에서 온 것으로 금속이나 옥이 서로 부딪치면서 나는 소리, 파도 소리, 박수 소리 등을 나타낸다.

84 원문은 常世等이다. 불로장생할 수 있는 常世國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연회 자리에 앉아 있는 연장자를 지칭한 것이다.

85 축하하는 말을 마친 다음에 琴을 연주하면서 노래한 것이다.

86 枕詞로 ‘강가에 서있는 버드나무’에 걸린다.

87 원문은 殊儛이다. 殊를 껑충껑충 뛰어간다는 뜻을 가진 跋의 오자로 보기도 한다.

다. 춤추는 모습은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추는 것이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

왜(倭 ; 야마토)는 살랑살랑 소리나는 띠[茅]가 자라는 들, 키 작은 띠가 자라는 들판, 그곳의 제왕(弟王)[88]이다. 나는.

그러자 소순은 매우 기이하게 여겨, 다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천황이 목청 높여 노래하였다.

석상(石上 ; 이소노카미)[89]의 진(振 ; 후루)의 신령스러운 삼나무[楹은 스기(須擬)라고 읽는다.] 밑동을 베고, 가지를 자르고[伐本截末은 모토키리스웨오시하라이(謨登岐利須衛於茲波羅比)라고 읽는다.], 시변궁(市邊宮 ; 이치노헤노미야)에서 천하를 다스린 천만국만압반존(天萬國萬押磐尊 ; 아메요로즈쿠니요로즈오시하노미코토)[90]의 후예이다. 나는.

소순이 크게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 아파하며 거듭 절하였다. 그리고 받들어 섬기며 물건을 바치고, 일족을 거느리고 공경하며 복종하였다. 이에 군(郡)의 백성을 모두 동원해서 궁을 지어 곧 임시로 거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곧 왕경[91]에 나아가서 두 왕을 맞이하라고 요청하였다. 백발천황(白髮天皇)[92]

---

88 원문은 弟日이다. '오토히'는 오토히메(弟姬), 오토히코(弟彦)를 생략한 표현으로 자신이 弟王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89 '振'의 침사이다. 石上은 석상신궁으로 유명하며 物部氏의 거점이기도 하다. 振은 石上 지역 안의 지명이다.

90 履中天皇의 맏아들인 市邊押磐皇子를 말한다.

91 원문에는 京都로 되어 있다.

92 淸寧天皇이다.

이 듣고 기뻐하고 탄식하며 "짐은 아들이 없다. 마땅히 그들을 후사로 삼아야 겠다."고 말하고 궁중에서 대신(大臣), 대련(大連)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파마국사(播磨國司) 내목부소순(來目部小楯)으로 하여금 절(節)을 가지고 좌우 사인(舍人)을 이끌고 적석(赤石)에 가서 맞이하게 하였다.

3년 봄 정월에 천황은 억계왕(億計王)을 따라서 섭진국(攝津國)에 이르렀다. 신(臣)과 연(連)이 절을 가지고 가서 왕의 청개거(靑蓋車)로 궁중에 맞아들였다.

여름 4월에 억계왕을 세워서 황태자로 삼고, 천황을 세워서 황자로 삼았다.

5년 봄 정월에 백발천황(白髮天皇)이 죽었다(崩).

이 달에 황태자 억계왕과 천황이 서로 자리를 양보하여, 오랫동안 천황의 자리가 비어있었다. 이 때문에 천황의 누나 반풍청황녀(飯豐靑皇女 ; 이히도요노아워노히메미코)가 인해각자궁(忍海角刺宮 ; 오시누미노츠노사시노미야)에서 조정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고[臨朝秉政], 스스로 인해반풍청존(忍海飯豐靑尊 ; 오시누미노이히도요노아워노미코토)이라 칭하였다. 당시 세간에서 사인(詞人)[93]이 노래를 불렀다.

야마토 주변에서 보고 싶은 것은 인해(忍海 ; 오시누미)의 높은 성인 각자궁(角刺宮 ; 츠노사시노미야).

겨울 11월에 반풍청존(飯豐靑尊 ; 이히도요노아워노미코토)이 죽었다[崩]. 갈성(葛城 ; 카즈라키) 식구구릉(埴口丘陵 ; 하니쿠치노워카노미사자키)[94]에 장사지냈다.

---

93 노래를 짓는 사람(歌人)을 말한다.

94 『延喜式』 諸陵式에 '埴口墓[飯豐皇女. 大和國 葛下郡에 있다. 묘가 있는 곳은 동서 1町이고 남북 1町이며, 守戶 3烟이다.]'라고 하였고, 『大和志』에 '埴口墓이며, 葛下郡 北花內村에 있다(奈良縣 北葛城郡 新庄町 北花內).'라고 하였다. 또 '天和 중에 桑山氏는 묘를 무너뜨리고 八幡神祠를 지었다.'고 하였는데, 明治時代에 이르러 八幡社를 다른 데로 옮기고 묘를 수복했다고 한다. 『陵墓要覽』도 같은 곳을 들고 있다. 그리고 『續日本紀』 天平 6년 6월조에 '大倭國 葛下郡 사람인 백정 花口宮麻呂.'라는 인명이 보인다.

12월에 백관(百官)이 모두 모였다. 황태자 억계가 천황의 신기[璽]를 가져다 천황의 자리에 두고 신하들의 자리에 가서 두 번 절하고 "천자의 자리는 공(功)이 있는 자가 있어야 하는 곳이다[95]. 귀한 신분을 드러내서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모두 동생이 꾀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천하를 천황에게 양보하였다. 천황은 자신이 동생이라는 이유로 사양하며, 감히 즉위하지 않았다. 또한 백발천황이 먼저 형에게 황위를 물려주고자 생각해서 황태자로 세운 뜻을 받들어 여러 차례 완고하게 사양하며, "해와 달이 나왔는데 등불을 켜둔다고 하면 그 빛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때맞춰 비가 내렸는데 다시 물을 준다고 하면 역시 수고스러울 따름이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의 동생으로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형을 받들어서 어려움을 벗어나는 일을 도모하고, 형의 덕을 빛나게 하고 어지러움을 풀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96]. 만약 드러내는 일이 있다면 아우가 공손한 뜻이 없는 것이다. 나[97]는 드러나는 일을 원치 않는다. 형이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가 형을 공경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법이다. 나는 이것을 고로(古老)에게 들었는데 어떻게 내 스스로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황태자 억계가 "백발천황은 내가 형이기 때문에 천하의 일을 먼저 나에게 관할하게 하였다. 나는 그것이 부끄럽다. 생각건대 대왕이 처음에 재빨리 도망갈 계획을 세웠을 때, 듣는 자가 탄식하였다. 천황의 손자임을 드러냈을 때도 보는 자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매우 근심하던 대신들은[98] 기쁘게 하늘을 이는 경사로움을 맛보았고, 몹시 슬퍼하던 백성들은 땅을

---

95 播磨의 새로운 집에서 연회를 베풀 때, 아우인 顯宗이 과감히 신분을 밝힌 것을 가리킨다. 『古事記』 淸寧천황단에도 '針間의 志自牟의 집에서 살 때 그대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다시 천하에 군림하는 군주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그대의 공로이다.'라고 하였다.

96 왕위에 오르는 것을 뜻한다.

97 원문은 弘計이다.

98 원문은 憪憪搢紳이다.

밟는 은혜로움을 누렸다. 이로써 나라의 사방을 잘 지키고[99] 영구히 만세토록 융성하게 되어 공(功)은 만물을 만드는 신에 가깝고, 청명한 계획[淸猷]이 세상을 밝혔다. 탁월하고 뛰어나도다! 이를 표현할 말이 없구나. 형이라도 어찌 먼저 왕위에 오를 것인가! 공이 없이 즉위하면 반드시 책망과 후회에 이르게 된다. 내가 듣건대, 천황의 자리는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다고 한다. 천명(天命)은 양보하거나 막을 수 없다. 대왕은 사직(社稷)을 헤아리고, 백성에게 마음을 쓰시오."라고 말하였다. 말을 하는데 감정이 복받쳐 눈물이 흘렀다. 천황은 이에 끝내 즉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100] 형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마침내 허락하였다. 그러나 어좌에는 오르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이 진실로 사양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겨 "훌륭하도다. 형제가 화합하니 천하에 덕(德)이 행해질 것이다. 친족에게 도타우니, 곧 백성들에게 어진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원년 춘정월 기사삭(1일)에 대신(大臣)과 대련(大連) 등이 "황태자 억계는 성덕이 밝고 무성하여 천하를 양보하였습니다. 폐하는 정통이니 마땅히 즉위하셔서 교묘(郊廟)[101]의 주재가 되셔서 조상들의 무궁한 위업을 계승하십시오. 그리하여 위로는 천심(天心)에 합치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바람을 채우십시오. 그런데 천황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셔서 금은(金銀)을 바치는 번국(蕃國)들과 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신하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천명이 정해져 있어서 황태

---

99 원문은 四維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근간이 되는 禮義廉恥를 말한다. 형제 사이에 왕위를 양보한 내용으로 보면 공간적인 의미보다 관념적인 가치로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100 동생인 弘計가 끝까지 즉위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형인 億計가 끝까지 즉위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번역하였다.

101 郊는 郊祀로서 동지에는 남교에서 하늘에 제사지내고 하지에는 북교에서 땅에 제사지내는 천지의 제사를 말하며, 廟는 조상제사를 이른다.

자가 폐하에게 양보하였으니, 성스러운 덕이 더욱 성하고 복이 더욱 밝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면하셨고, 겸손하고 공경하며 자애롭고 온순하셨습니다. 마땅히 형님의 명을 받들어 대업을 이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이 "좋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공경백료를 근비조(近飛鳥 ; 치카츠아스카)의 팔조궁(八釣宮 ; 야츠리노미야)[102]에 불러 모아 천황 자리에 올랐다. 그 자리에 참석한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였다[어떤 책(或本)에서는 홍계천황(弘計天皇)의 궁은 두 곳이 있는데 한 궁은 소교(小郊 ; 워노)에 있고, 나머지 한 궁은 지야(池野 ; 이케노)에 있다고 하였다. 또 어떤 책에서는 옹율(甕栗 ; 미카쿠리)[103]에 궁을 세웠다고도 하였다.].

같은 달에 난파소야왕(難波小野王 ; 나니하노워노노미코)[104]을 황후로 세웠다. 그리고 천하에 대사하였다[難波小野王은 웅조진간치자숙네천황(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 ; 워아사츠마와쿠고노스쿠네노스메라미코토)[105]의 증손이자 반성왕(磐城王 ; 이하키노미코)[106]의 손녀이고 구치자왕(丘稚子王 ; 워카노와쿠고노미코)의 딸이다.].

2월 무술삭 임인(5일)에 "선왕(先王)[107]이 많은 어려움을 만나[108] 황량한 들에

---

102 『古事記』에는 「近飛鳥宮.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大字八釣」라고 보이는데, 여기의 飛鳥宮을 大和國 高市郡 飛鳥라고 보는 설이 있다. 이 경우 遠飛鳥宮이 大和飛鳥이기 때문에 서로 모순된다. 따라서 近飛鳥宮을 河內 安宿郡 飛鳥로 보아야 하며, 八釣도 이 지역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03 淸寧天皇의 궁지이다.

104 『古事記』에서는 '천황은 石木王의 딸 難波王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105 允恭天皇이다.

106 允恭의 皇子로는 이런 사람이 없다. 雄略 원년 3월조에 吉備稚媛의 소생인 磐城皇子가 있다.

107 죽은 아버지 市邊押磐皇子를 말한다. 이하 2월조까지와 2년 9월조는 일련의 기사로 ① 두 왕(顯宗天皇과 皇太子 億計)이 비참한 최후를 마친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老女置女의 인도로 찾아낸 이야기, ② 아버지를 죽인 狹狹城山君의 조상인 倭帒宿禰가 누이 置目의 공으로 용서를 받고 원래의 성을 회복한 이야기, ③ 置目을 궁정에 출입하게 하여 총애한 이야기 등이다. ②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이야기가 『古事記』에도 보인다.

서 운명하셨다. 짐은 어렸을 때라 도망가서 스스로 숨었는데 외람되이 맞아들여져 대업을 이어 받았다. 널리 유골을 찾았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였다. 말을 마치자 황태자 억계와 더불어 울면서 애통함을 견디지 못하였다.

이 달에 덕망 있는 노인[耆宿]을 불러 모아 천황이 친히 차례차례 물었다. 한 노파가 "치목(置目 ; 오키메)이 유골이 묻힌 곳을 알고 있습니다. 보여 드리기를 청합니다."라고 말하였다[置目은 노파의 이름이다. 근강국(近江國 ; 아후미노쿠니) 협협성산군(狹狹城山郡 ; 사사키야마노키미)의 조상인 왜대숙녜(倭帒宿禰 ; 야마토후쿠로노스쿠네)[109]의 누이이다. 이름은 치목이라고 한다. 아래의 글에 보인다.]. 이에 천황이 황태자 억계와 함께 노파를 따라 근강국 내전서(來田絮 ; 쿠타와타) 문옥야(蚊屋野 ; 카야노)에 행차하였다. 땅을 파서 나온 것을 보니 과연 노파의 말과 같았다. 구덩이 앞에서 슬피 부르짖으니, 그 말이 간절하고 비통하였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심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중자(仲子 ; 나카치코)[110]의 시신이 시변압반황자(市邊押磐皇子)의 유골과 뒤섞여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반판황자(磐坂皇子 ; 이하사카노미코)의 유모(乳母)[111]가 "중자는 윗니가 빠졌습니다. 그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비록 유모 덕분에 머리뼈는 서로 구별할 수

108 웅략천황에게 살해당한 것을 말한다.

109 倭帒宿禰의 일족으로 韓帒宿禰가 있는데, 이름 및 일의 형적이 대조적이다. 즉 韓帒宿禰는 雄略과 함께 市邊押磐皇子를 죽인 사람으로 陵戶로 배속되었는데, 이 사실은 『古事記』의 安康段과 顯宗段에도 보인다. 이에 반해 倭帒宿禰는 참살된 황자의 시신의 소재를 가르쳐 준 置目의 형으로, 누이의 공으로 원래의 성을 회복했다고 한다. 『古事記』에는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으며, 置目은 다만 '淡海國에 있는 천한 노파(『古事記』 顯宗天皇段).'라고 하였을 뿐이다.

110 시변압반황자의 시종으로 그의 시신에 매달려 울고 있다가 웅략천황에게 살해당했다. 그래서 시변압반황자와 함께 묻혔다.

111 유모가 처음 보인다. 율령제에도 皇子女에게 유모를 두는 규정이 있다. 『양로령』 後宮職員令 親王及子條에 '무릇 親王과 그 자식에게는 모두 유모를 둔다. 친왕은 3인, 자식은 2인이다.'라고 하였다.

있었지만, 끝내 사지와 여러 뼈를 구별하기는 어려웠다. 이로 인해 문옥야에 쌍릉(雙陵)을 만들어 세웠는데[112], 서로 닮아 하나와 같았고 장례의식도 다르지 않았다. 노파 치목에게 명해서 궁의 근처에 거처하게 하였다[113]. 우대하고 존중하여 은혜를 내려 궁핍하지 않게 했다.

이 달에 "노파[老嫗]는 외롭고 쓸쓸하며[114] 허약해서 걷는 것도 불편하다. 줄을 길게 쳐서 그것에 의지하여 출입하도록 하라. 또한 줄의 끝에 방울을 매달아서 손님을 모셔오는 이[115]에게 수고로움을 끼치지 말도록 하라. 들어와서는 곧(방울을) 울려라. 짐이 그대가 도착함을 알 것이다."라고 명하였다. 이에 노파는 명을 받들어 방울을 울리면서 나아갔다. 천황이 멀리 방울소리를 듣고 노래하였다.

키 작은 띠가 자라는 들판[淺茅原], 척박한 땅을 지나는 방울소리가 멀리서 들리는구나. 치목(置目)이 오는 것 같구나.

3월 상사일[116]에 후원(後苑)에 행차하여 곡수(曲水)의 연(宴)[117]을 베풀었다.

---

112 『古事記』 安康天皇段에서는 처음부터 仲子를 함께 묻은 것이 아니라, '그 蚊屋野의 동산에 御陵을 만들어서 장사지냈다.'고 하였다.

113 近飛鳥宮이다. 『古事記』에도 "그리하여 궁내에 불러 들여 도타움을 넓게 하고 자애로움을 다하였다. 그래서 그 노파가 사는 집은 궁 주변에 만들어서 날마다 반드시 불렀다."라는 기사가 있다.

114 원문은 伶俜이다.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다니는 모습을 말한다. 杜甫의 「宿府」라는 시에 '외롭고 쓸쓸한 일을 견딘 것이 이미 10년(已忍伶俜十年事)'이라는 용례가 있다.

115 원문은 謁者이다.

116 원문은 上巳이다. 3월의 上旬 중에 첫 번째 뱀의 일진이 든 날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3월 3일을 뜻한다. 이 날엔 건강을 기원하고 제액을 쫓는 행사를 벌였다.

117 3월 3일에 거행한 曲水의 宴이 처음 보인다. 2년조와 3년조에 연속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 『續日本紀』 文武 5년 3월 병자조 이후 다시 六國史에 보이기

여름 4월 정유삭 정미(11일)에 "무릇 임금[人主]이 백성을 좋아하는 방법은 오직 관직을 주는 것이다. 나라를 흥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공(功)을 세우면 상을 내리는 것이다. 무릇 이전에 파마국사(播磨國司) 내목부소순(來目部小楯 ; 쿠메베노워다테)은[다른 이름은 반순(磐楯 ; 이하다테)이다.] 짐을 맞이하여 받들었다. 그 공이 매우 크다. 뜻하고 원하는 바를 어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조를 내렸다. 소순(小楯)이 감사해하며 "산관(山官)[118]이 오래된 소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산관(山官)에 임명하고, 성을 고쳐 산부련(山部連 ; 야마베노무라지)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길비신(吉備臣 ; 키비노오미)을 부관으로 삼고[119], 산수부(山守部 ; 야마모리베)를 부민[120]으로 삼았다. 선행을 포상하여 공을 드러내고 은혜를 갚아 후하게 보답하였다. 총애(寵愛)가 남달라서 부(富)를 비할 자가 없었다.

5월에 협협성산군한대숙녜(狹狹城山君韓帒宿禰 ; 사사키노야마노키미카라후쿠로노스쿠네)가 황자 압반(押磐 ; 오시하)을 모살하려고 한 일에 연루되었다. 죽기 직전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말이 매우 슬펐다. 그래서 천황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능호(陵戶)로 삼아 산을 지키는 일을 겸하게 하였다. 또한 장적[籍帳][121]에서 삭제하여, 산부련에 예속시켰다. 오직 왜대숙녜(倭帒宿禰)만이 누이 치목의 공으로 원래의 성(姓)인 협협성산군이라는 씨(氏)를 받았다.

6월에 피서전(避暑殿)에 행차하여 음악을 연주하였다. 군신(群臣)을 모아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시작한다. 이 무렵 曲水宴이 실제로 행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118 山守部를 관장하는 伴造이다. 같은 부류로 近江狹狹城山君, 山首, 山直, 山部阿弭古 등이 있다.

119 『日本書紀』 淸寧天皇 卽位前紀에 "천황이 곧 사신을 보내어 上道臣 등을 책망하고 그가 다스리는 山部를 빼앗았다."라고 하였다. 吉備上道臣을 小楯의 副官으로 삼은 것이다.

120 원문은 民이다. 여기서는 部民, 즉 山守部에 예속된 사람들을 말한다.

121 戶籍과 計帳을 뜻한다. 다만 이 시기에는 호적·계장이 제도화되지 않았으므로, 율령제가 시행된 이후의 관념에 입각한 표현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알 수 없다.

이 해의 간지는 을축이다.

2년 봄 3월 상사일에 후원(後苑)에 행차하여 곡수(曲水)의 연(宴)을 베풀었다. 이때 기쁜 마음으로 공경대부(公卿大夫)[122], 신(臣), 연(連), 국조(國造), 반조(伴造)를 모아서 연회를 베풀었다. 군신이 자주 만세(萬歲)를 불렀다.

가을 8월 기미삭(1일)에 천황이 황태자 억계에게 "우리 아버지 선왕은 죄가 없었다. 그러나 대박뢰천황(大泊瀨天皇 ; 오호하츠세노스메라미코토)이 쏘아 죽여서 뼈를 교외의 들에 버리니,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습하지 못하였다. 분개하고 한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누워 있어도 눈물이 나고, 일어나도 통곡을 그칠 수 없으니, 원수에게 복수하여 치욕을 풀고자 한다. 내가 들으니 아버지의 원수와는 함께 하늘을 이지 않으며, 형제의 원수에게는 무기를 거두어 들이지 않으며, 친구의 원수와는 나라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필부의 자식도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거적에 누우며, 방패를 베개로 하고 벼슬하지 않으며, 나라를 함께 하지 않는다. 또한 시장이나 관아[123]에서 만나면,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바로 싸운다. 하물며 내가 즉위하여 천자가 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바라건대 그 능을 파헤쳐서 뼈를 부수어 던져서 흩어버리고자 한다. 이렇게 보복하면 역시 효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황태자 억계는 흐느끼며 울면서 대답하지 못하다가, 곧 "안 됩니다. 대박뢰천황은 만기를 정통으로 이어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화이(華夷)가 기뻐하며 우러러본 것은 천황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선왕은 비록 천황의 아들이었지만, 곤란한 상황을 만나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존비(尊卑)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

122 大化改新 직전 무렵부터 사용된 용어로, 중앙과 지방의 호족 전체를 가리킨다. 이 당시 사용되었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23 원문은 朝이다.

러니 능묘를 부순다면 누가 제왕[人主]으로서 하늘의 영을 섬기겠습니까? 그것이 부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천황과 억계가 일찍이 백발천황의 두터운 총애와 특별한 은총을 입지 않았다면, 어찌 보위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대박뢰천황은 백발천황의 아버지입니다. 억계는 여러 노현(老賢)에게 들었는데, 노현이 말하기를 '말은 응수하지 않는 바가 없고, 덕은 보답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은총을 입었는데 보답하지 않는 것은 풍속을 심하게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폐하가 나라를 다스려 덕행이 널리 천하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능을 허물고 파 뒤집어서 천하[124]에 보인다면, 억계는 필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키울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허물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라고 간하였다. 천황이 "옳다."고 하며 그 일을 그만두었다.

9월에 치목이 늙고 지쳐서 돌아가기를 청하며 "기력이 너무 쇠하고, 늙어서 수척해졌습니다. 비록 줄의 도움을 빌려도 나아가 걸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고향[125]에 되돌아가서 여생을 보내려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듣고 마음 아파하며 물품 1천 단(段)[126]을 주었다. 그리고 미리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다시 만나기 어려운 것을 탄식하였다. 이에 노래하였다.

치목(置目)이여, 근강(近江)의 치목이여, 내일부터는 산에 숨어 볼 수 없겠구나.

겨울 10월 무오삭 계해(6일)에 군신(群臣)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이때 천하가 평안해서 백성이 요역(徭役)[127]하는 일이 없고, 곡식이 풍성하게 여물어서

---

124 원문은 華裔이다. 화는 도성, 예는 시골이라는 뜻으로 곧 천하를 가리킨다.

125 원문은 桑梓로 향리를 뜻한다. 옛날에는 뽕나무와 가래나무를 담 아래에 심고 자손에게 남겨서 생계의 자본으로 삼았다. 부모의 유물이기 때문에, 향리라는 뜻을 나타낸다.

126 段은 논의 면적으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布를 헤아리는 단위로 썼다. 律令制에서는 『속일본기』 和銅 6년 2월 19일에 2丁의 庸布 2장 6척을 1段으로 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백성이 부유해졌으며, 벼 10말[斛][128]에 은전(銀錢)[129] 1문(文)이었다. 말이 (번식하여) 들을 덮었다.

3년 봄 2월 정사삭(1일)에 아폐신사대(阿閉臣事代 ; 아헤노오미코토시로)[130]가 명을 받들어 임나(任那)에 사신으로 갔다. 이에 월신(月神 ; 츠키노카미)[131]이 사람에게 붙어서[132] 이르기를, "나의 선조인 고황산령(高皇産靈 ; 타카미무스히노미코토)[133]은 일찍이 천지를 만드신 공이 있으시다. 마땅히 백성의 땅[134]을 우리 월신에게 바쳐라. 만약 요구한 대로 나에게 바친다면, 복과 경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사대(事代 ; 코토시로)가 이에 따라 왕경[135]으로 돌아가 자세하게 아뢰었다. 그래서 가황소전(歌荒樔田)[136]을 바쳤다[歌荒樔田은 산배국(山背國 ; 야마시로쿠니)의 갈야군(葛野郡 ; 카즈노노코호리)에 있다.]. 일기현주(壹伎縣主 ; 이키노아가타누시)의 선조 압견숙녜(押見宿禰 ; 오시미노스쿠네)가 사당[祠]을 모셨다.

---

127 율령 용어에 의한 표현이다. 徭는 잡요이며, 役은 歲役이다.

128 10말이라는 뜻으로 隨·唐代에는 약 59리터에 해당하였다.

129 이때는 아직 銀錢이 없었다.

130 阿閉臣은 『日本書紀』 孝元紀에서 '大彦命阿閉臣의 선조'라고 하였다.

131 여기의 月神은 아래 문장에서 壹伎縣主의 선조가 신으로 받들어 모셨다고 하는데, 다음의 4월조에서 對馬下縣直이 日神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다. 『延喜式』 神名式의 壹岐島 壹岐郡 月讀神社 祭神이 이에 해당한다. 『先代舊事本紀』 天神本紀에 '月神命이 壹岐縣主 등의 조상이다.'라고 하였다.

132 신이 인간에게 憑依된 것을 말한다.

133 『延喜式』 神名式에 壹岐郡 高御祖神社가 있다.

134 원문은 民地이다.

135 원문에는 京으로 되어 있다.

136 分注에 山城國 葛野郡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歌는 葛野郡 宇太村(나중에 平安京이 조영된 땅)을 가리킨다. 그리고 荒樔(아라스)는 신의 탄생을 뜻한다. 壹岐島의 縣主가 제사지내는 신을 山背(야마시로) 지역에 分祠하고, 그 백성의 땅을 바쳐서 神田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3월 상사일에 후원(後苑)에 행차해서 곡수연(曲水宴)을 베풀었다.

여름 4월 병진삭 경신(5일)에 일신(日神 ; 히노카미)이 사람에게 붙어서 아폐신사대에게 일러 말하길, "반여(磐余)의 논을 나의 선조 고황산령에게 바쳐라."라고 하였다. 사대(事代)가 곧 아뢰었다. 그리하여 신(神)이 말한 바에 의거해서 논 40정(町)을 바쳤다. 대마하현직(對馬下縣直 ; 쓰시마노시모츠아카타노아타히)이 사당을 모셨다[137].

무진(13일)에 복초부(福草部 ; 사키쿠사베)[138]를 두었다.

경진(25일)에 천황이 팔조궁에서 죽었다(崩)[139].

이 해에 기생반숙녜(紀生磐宿禰 ; 키노이쿠하노스쿠네)가 임나(任那)에 웅거하여 고구려와 교통하였다. 그리고 서쪽으로 삼한(三韓)[140]의 왕이 되고자 하여 관부(官府)를 정비하고 수리해서 스스로 신성(神聖)이라고 칭하였다. 그는 임나의 좌로나기타갑배(左魯那奇他甲背)[141] 등의 계책을 써서 백제의 적막이해(適莫爾解)를 이림성(爾林城)[142]에서 죽였다[爾林은 고구려의 땅이다.]. 그리고 대산성(帶山城)

---

137 『釋日本紀』는 『延喜式』 神名式의 山城國 葛野郡 木島坐 天照御魂神社로 추정하고 있는데, 『延喜式』 神名式의 對馬島 下縣郡 阿麻氐留神社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先代舊事本紀』 天神本紀에서는 '天日神命은 對馬縣主 등의 선조이다.'라고 하였다. 본조에도 나의 조상 高皇産靈에게 바치라고 하였는데, 『延喜式』 神名式의 對馬島 下縣郡에 高御魂神社가 보인다.

138 福草는 행운이 따르는 풀이라는 뜻으로 특정한 풀 이름은 아니다. 福草部는 三枝部라고도 하는데, 顯宗天皇의 名代部이다.

139 『古事記』는 천황의 나이가 38세이고 '천하를 다스린 지 8년'이라고 하여 『日本書紀』와 전하는 바가 다르다. 또한 『古事記』는 '御陵은 片岡之石坏岡上에 있다.'고 하였으나, 『日本書紀』는 다음의 仁賢紀에 기록했다.

140 여기에서 삼한은 백제, 신라, 가야 등 한반도 남부 지역을 가리킨다.

141 欽明 5년 2월조에 인용된 『百濟本記』에 那干陀甲背(那奇他甲背)라는 이름이 보인다.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 좌로와 나기타갑배 두 사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左魯가 동 2년 7월조의 『백제본기』에 보이는 佐魯麻都처럼 城長 등을 뜻하는 칭호라면, 좌로나기타갑배는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을 쌓아서 동도(東道)를 막고 식량을 운반하는 나루를 차단하여 군사를 굶주리고 곤핍하게 하였다. 백제왕(百濟王)은 이에 크게 노하여 영군(領軍)[143] 고이해(古爾解)[144]와 내두(內頭)[145] 막고해(莫古解) 등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대산(帶山)을 침공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생반숙녜(生磐宿禰 ; 이쿠하노스쿠네)가 군사를 내어 역습하였다. 기력이 더욱 강해져서 가는 곳마다 모두 깨뜨렸으며 하나가 백을 상대하는 기세였다. 그러다 갑자기 병사가 다하고 힘이 다하였다. (생반숙녜는) 일이 원만히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임나로 돌아왔다. 그러자 백제국(百濟國)은 좌로나기타갑배 등 3백여 인을 죽였다.

억계천황(億計天皇 ; 오케노스메라미코토) 인현천황(仁賢天皇 ; 닌켄텐노)[146]

억계천황(億計天皇 ; 오케노스메라미코토)[147]은 휘(諱)는 대각(大脚 ; 오호시)이고

---

142 應神 16년 是歲條에 爾林城이 보인다.

143 백제의 軍制에는 中東南西北의 5方에 각각 領軍이 있었다.

144 『삼국사기』 개로왕 21년조에 古爾萬年이 보인다. 古爾는 백제의 複姓이다.

145 『삼국사기』에 '內頭佐平은 창고와 재정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라고 하였다. 六佐平 중 하나이다.

146 24대 천황(488~498)이다. 이중천황의 손자이고 시변압반황자의 큰아들이다. 어머니는 荑媛이며 웅략천황의 딸인 春日大娘皇女를 황후로 삼았다. 웅략천황에게 아버지가 살해당하자 동생인 홍계왕과 함께 단파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파마국 둔창에서 말 기르는 일을 하면서 숨어 있었다. 그후 동생인 홍계왕의 권유로 왕족의 신분을 드러내자 청녕천황이 황태자로 삼았다. 그러나 청녕천황이 죽은 후 왕위를 홍계왕(현종천황)에게 양보하였고, 현종천황이 죽자 왕위에 올랐다. 인현기의 주요 내용으로는 石上部舍人의 설치, 전국의 佐伯部를 모아 佐伯造로 하여금 통솔하게 한 것, 日鷹吉士을 고구려에 파견하여 가죽을 다루는 기술자를 불러오게 한 것, 이 시대에 나라 안이 평안하고 곡식이 넉넉함을 칭송한 이야기 등이 있다.

147 顯宗 즉위전기 분주에 인용된 譜第에는 市邊押磐皇子의 둘째 아들이며, 嶋稚子(시마노

[또는 대위(大爲 ; 오호스)라고도 한다. 나머지 다른 천황들은 휘(諱)와 자(字)를 말하지 않았는데, 이 천황에 이르러서 홀로 쓴 이유는 구본(舊本)에 의거했기 때문이다.], 자(字)는 도랑(嶋郎 ; 시마노이라츠코)[148]이다. 홍계천황(弘計天皇 ; 워케노스메라미코토)[149]의 친형[150]이다. 어려서는 총명함이 빼어났고 재주가 있고 영민하여 아는 바가 많았다. 장성해서는 어질고 은혜로웠으며, 겸손하고 자애로웠다. 혈수천황(穴穗天皇 ; 아나호노스메라미코토)[151]이 죽자 단파국(丹波國 ; 타니하노쿠니) 여사군(餘社郡 ; 요자노코호리)으로 난을 피하였다. 그러다가 백발천황(白髮天皇 ; 시라카노스메라미코토)[152] 원년 겨울 11월, 파마국사(播磨國司) 산부련소순(山部連小楯 ; 야마베노무라지워다테)이 왕경[153]으로 나아가 맞이하기를 청했다. 백발천황은 소순(小楯 ; 워다테)을 보내 찾게 한 후 절(節)을 가지고 좌우사인(左右舍人)을 거느리고 가서 적석(赤石 ; 아카시)에서 맞이하였다.

2년 여름 4월에 드디어 억계천황을 세워 황태자로 삼았다[그 사실은 홍계천황기(弘計天皇紀)에 자세하다.]. 5년에 백발천황이 죽고(崩), 천황이 천하를 홍계천황에게 양보하여 황태자가 된 것이 앞의 기록과 같다[그 사실은 홍계천황기에 자세하다.]. 3년 여름 4월에 홍계천황이 죽었다(崩).

원년 봄 정월 신사삭 을유(5일)에 황태자가 석상광고궁(石上廣高宮 ; 이소노카

와쿠고), 大石尊 등의 이름이 있었다고 하였다. 『古事記』는 意祁王이라고 하였으며, 『播磨風土記』 賀毛郡과 美嚢郡의 조에 於奚天皇이라고 하였다.

148 顯宗 卽位前紀에 嶋稚子라고 하였다.

149 顯宗天皇이다.

150 원문은 同母兄이다.

151 安康天皇이다. 안강천황이 眉輪王에게 살해되자, 雄略이 顯宗과 仁賢의 아버지인 市邊押磐皇子를 죽였다.

152 淸寧天皇이다.

153 원문에는 京이다.

미노히로타카노미야)[154]에서 천황 자리에 올랐다[어떤 책(或本)에서는 억계천황의 궁은 두 곳으로 한 궁은 천촌(川村 ; 타무라)에 있었고 다른 한 궁은 축견(縮見 ; 시지미)의 고야(高野 ; 타카노)에 있었는데, 그 궁전의 기둥이 지금까지 썩지 않았다고 적었다.].

2월 신사삭 임자(2일)에 원래의 비[前妃]인 춘일대랑황녀(春日大娘皇女 ; 카스가노오호이라츠메)[155]를 황후로 삼았다[春日大娘皇女는 대박뢰천황(大泊瀨天皇 ; 오호하츠세노스메라미코토)이 화이신심목(和珥臣深目 ; 와니노오미후카메)의 딸 동녀군(童女君 ; 와라하키미)에게 장가들어 낳았다.]. 드디어 1남 6녀를 낳았다. 첫째는 고교대랑황녀(高橋大娘皇女 ; 타카하시노오호이라츠메)이고, 둘째는 조유황녀(朝嬬皇女 ; 아사즈마노히메미코), 셋째는 수백향황녀(手白香皇女 ; 타시라카노히메미코)[156], 넷째는 장빙황녀(樟氷皇女 ; 쿠스히노히메미코)[157], 다섯째는 귤황녀(橘皇女 ; 타치바나노히메미코)[158]이다. 여섯째는 소박뢰치초료천황(小泊瀨稚鷦鷯天皇 ; 워하츠세와카사자키노스메라미코토)[159]으로 천하를 다스리실 때 백뢰(泊瀨 ; 하츠세)의 열성(列城 ; 나미키)에 도읍하였다. 일곱째는 진치황녀(眞稚皇女 ; 마와카노히메미코)[160]이다[어떤 책(一

---

154 石上은 大和의 지명이다(지금의 奈良縣 天理市 石上의 부근). 廣高는 美稱이다. 神代紀 제9단 제2의 한 책에서 '궁을 만드는 제도는 기둥은 즉 높고 크며, 판자는 곧 넓고 두껍다.'고 하였다. 그 소재지에 대해서 『帝皇編年記』는 山邊郡 石上左大臣家 北邊田原(지금의 天理市 田部 부근의 지역이라고 하였고, 『大和志』는 山邊郡 嘉幡村(지금의 天理市 嘉幡)이라고 하였다.

155 『日本書紀』 雄略천황 원년 3월 是月條에 '다른 이름은 高橋皇女이다.'라고 보인다. 『古事記』 雄略천황단에는 보이지 않지만, 仁賢段에 春日大郎女라고 있다.

156 『古事記』에 手白髮郎女라고 있다. 繼體의 皇后이다. '타시라카'는 『延喜式』 主計式에 「多志良加, 多志羅加, 手白髮瓶」 등으로 보이며, 물을 담은 큰 그릇을 말하는 듯하다.

157 『古事記』에서 久須毗郎女라고 하였다. 手白香과의 순서는 『古事記』에서는 반대로 나타난다.

158 『日本書紀』 선화천황 원년 3월조에 橘仲황녀라고 보인다. 『古事記』 仁賢천황단에는 보이지 않지만, 宣化천황단에는 '意祁천황의 자식 橘之中比賣命'이 보인다.

159 武烈天皇이다.

160 『古事記』에는 眞若王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 왕일 수 있다. 眞稚는 미칭으로 남녀

本)에서는 장빙황녀를 세 번째에, 수백향황녀는 네 번째에 열거하여 다르다.]. 다음은 화이신일조(和珥臣日爪 ; 와니노오미히츠메)[161]의 딸 강군랑(糠君娘 ; 누카키미노이라츠메)[162]에게서 딸을 낳았는데 그가 춘일산전황녀(春日山田皇女 ; 카스가노야마타노히메미코)[163]이다[어떤 책(一本)에서는 화이신일촉(和珥臣日觸 ; 와니노오미히후레)[164]의 딸 대강랑(大糠娘 ; 오호누카노이라츠메)에게서 딸을 낳았는데, 그가 산전대랑황녀(山田大娘皇女 ; 야마다노오호이라츠메노히메미코)인데 적견황녀(赤見皇女 ; 아카미노히메미코)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글에서 비록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주된 내용은 같다.].

겨울 10월 정미삭 기유(3일)에 홍계천황을 방구(傍丘 ; 카타워카)의 반배구릉(磐杯丘陵 ; 이하츠키노워카노미사자키)[165]에 장사지냈다. 이 해의 간지[太歲]는 무진이다.

2년 가을 9월에 난파소야황후(難波小野皇后 ; 나니하노워노노키사키)가 오랫동안 억계천황에게 공손하지 못했던 것을 두려워하여 자살했다[홍계천황 때에 황태자 억계가 연회에 참석하였는데 참외(瓜)를 먹으려고 하였으나 손칼이 없었다. 홍계천황

모두 사용한다.

161 欽明天皇 2년 3월조에는 仁賢이 아니라 欽明이 春日日抓臣의 딸 糠子를 아내로 맞이하고, 春日山田皇女를 낳았다고 하였다.

162 欽明天皇 2년 3월조에는 糠子, 『古事記』에는 糠若子郎女로 보인다.

163 『古事記』에는 春日山田郎女로, 繼體紀 7년 9월조에는 春日皇女가 보이며, 勾大兄皇子(安閑)의 구혼과 관련된 노래가 있다. 安閑紀 원년 3월조에는 황후 春日山田皇女가 나온다. 고친 이름은 山田赤見황녀라고 하며, 欽明紀 卽位前紀에 백관들이 그 등극을 청하였는데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고 한다. 春日은 지명이며, 母家인 和珥氏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164 應神天皇 2년 3월조에 和珥臣祖日觸使主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다.

165 『延喜式』 諸陵式에 '傍丘磐杯丘南陵[近飛鳥八釣宮御宇顯宗天皇. 大和國 葛下郡에 있다. 묘가 있는 곳은 동서 2정 남북 3정이고, 능호는 1烟, 守戶는 3烟이다.]'이라고 하였고, 『大和志』에 '옛날에 葛下郡 今市村이 있었는데, 寶永 연간에 능이 붕괴되어 백성의 거주지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 친히 손칼을 들고 그 부인(夫人)인 소야(小野 ; 워노)에게 명하여 억계에게 전해주게 하였다. 부인이 앞으로 나아가 선채로 손칼을 참외 그릇에 두었다. 또한 이 날 다시 술을 따르는데 서서 황태자를 불렀다. 이렇게 공손하지 못했으므로 주살될 것이 두려워 자살한 것이다.].

3년 봄 2월 기사삭(1일), 석상부사인(石上部舍人 ; 이소노카미베노토네리)[166]을 두었다.

4년 여름 5월에 적신문도(的臣蚊嶋 ; 이쿠하노오미카시마)[167]와 수옹군(穗瓮君 ; 호헤노키미)[168][瓮은 헤(倍)라고 읽는다.]이 죄가 있어서 모두 옥에 내려 보내 죽였다.

5년 봄 2월 정해삭 신묘(5일)에 널리 국(國)과 군(郡)에 흩어져 있는 좌백부(佐伯部 ; 사헤키베)를 모으고, 좌백부중자(佐伯部仲子 ; 사헤키베노나카치코)의 후손으로 하여금 좌백조(佐伯造 ; 사헤키노미야츠코)로 삼았다[좌백부중자에 대한 사실은 홍계천황기(弘計天皇紀)에 있다.].

6년 가을 9월 기유삭 임자(4일)에 일응길사(日鷹吉士 ; 히타카노키시)[169]를 고구려에 사신으로 보내서 기술을 가진 사람[170]을 불렀다.

---

166 일반적으로 舍人은 5세기 말부터 주로 6세기 중반 무렵까지 東國國造들이 중앙으로 보낸 자제들이 천황이나 황족의 근시와 호위를 담당하였다. 石上部舍人은 石上廣高宮이라는 궁 이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67 여기에만 보인다.

168 여기에만 보인다.

169 雄略 7년 是歲條에서는 日鷹吉士堅磐이 大島에 머물고 있던 백제가 바친 기술자들을 데려왔다고 하였다.

170 원문은 巧手者이다.

이 가을에 일응길사가 사신으로 파견된 이후 여인이 난파(難波 ; 나니하)의 어진(御津 ; 미츠)에서 "어머니에게도 형(兄 ; 세)이며, 나에게도 형. 젊고 풋풋한 나의 남편이여. 아아."라고 통곡하였다[於母亦兄, 於吾亦兄은 오모니모세(於慕尼慕是), 아레니모세(阿例尼慕是)라고 읽는다. 吾夫怜矣는 아가츠마하야(阿我圖摩播耶)라고 읽는다. 약초(弱草)[171]란, 옛적에 부부를 약초로 비유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약초는 남편을 나타낸다.]. 우는 소리가 매우 슬퍼서 사람들이 대단히 애통해했다. 능성읍(菱城邑 ; 히시키노무라)[172] 사람 녹부(鹿父 ; 카카소)[鹿父는 사람 이름이다. 세간에서 아버지를 카소(柯曾)라고 불렀다.]가 듣고 다가가서, "어찌 이렇게 매우 슬퍼하는가?"라고 물었다. 여인이 "가을 파 속에 두 줄기가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녹부가 "알겠다."고 말하였다. 즉 여인이 말하는 바를 이해한 것이다. 이때 동행이 있었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여 "어떻게 알았는가?"라고 물었다. 답하여 말하기를 "난파옥작부즉어녀(難波玉作部鯽魚女 ; 나니하노타마스리베노후나메)[鯽魚女는 후나메(浮儺謎)라고 읽는다.]가 한백수랑한(韓白水郎嘆 ; 카라마노하타케)에게 시집가서[韓白水郎嘆은 카라마노하타케(柯羅摩能波陀該)라고 읽는다. 한(嘆)은 보리를 경작하는 밭이다.] 곡녀(哭女 ; 나쿠메)를 낳았다. 곡녀[哭女는 나쿠메(儺倶謎)라고 읽는다.]는 주도(住道 ; 스무치)[173] 사람 산저(山杵 ; 야마키)에게 시집가서 포전녀(飽田女 ; 아쿠타메)를 낳았다. 그런데 한백수랑한과 그 딸 곡녀가 모두 일찍 죽자 주도 사람 산저가 먼저 옥작부즉어녀를 범해서 추촌(麤寸 ; 아라키)을 낳았고 추촌은 포전녀에게 장가들었다. 그런데 추촌은 일응길사를 따라서 고구려로 떠

---

171 弱草는 若草, 즉 갓 돋아난 풀을 말한다.

172 『和泉志』에 大鳥郡菱木이 있다.

173 『和名類聚抄』에 攝津國 住吉郡 住道鄕[須無知](지금의 大阪市 東住吉區 矢田住道町 부근)이 있다. 『新撰姓氏錄』 攝津未定雜姓에 '住道首는 伊裝諾命의 아들 素戔嗚命의 후세이다.'라고 하였고, 『延喜式』 神名式에 따르면 住吉郡에 中臣須牟地神社, 神須牟地神社, 須牟地曾禰神社가 있다고 하였다.

났다. 그래서 그 아내 포전녀는 배회하며 그리워하고, 실망하고 상심하여 우는 소리가 매우 간절하여 사람들을 애끓게 하였다[옥작부즉어녀가 한백수랑한과 부부가 되어 곡녀를 낳았다. 주도 사람인 산저가 곡녀에게 장가들어 포전녀를 낳았다. 산저의 아내의 아버지인 한백수랑한과 그 아내 곡녀가 모두 이전에 함께 죽었다. 주도 사람인 산저는 처음 아내의 어머니 옥작부즉어녀를 범하여 추촌을 낳았다. 추촌은 포전녀에게 장가들었다. 어떤 책(或本)에서는 '옥작부즉어녀는 전 남편 한백수랑한과 결혼하여 곡녀를 낳았다. 다시 다음 남편인 주도 사람 산저와 결혼하여 추촌을 낳았다. 그래서 곡녀와 추촌은 아버지가 다른 남매 사이이므로 곡녀의 딸 포전녀가 추촌을 일컬어 '어머니에게도 역시 형'이라고 한 것이다. 곡녀는 산저에게 시집가서 포전녀를 낳았다. 산저는 또 즉어녀와 간음하여 추촌을 낳았다. 포전녀는 추촌과는 배다른 남매이므로 포전녀는 남편 추촌을 일컬어 '나에게도 형'이라고 하였다. 옛날에는 형제 관계나 나이를 따지지 않고, 여자는 남자를 형(兄 ; 세)이라 칭하고, 남자는 여자를 누이(妹 ; 이모)라 칭했다. 그러므로 어머니에게도 형이고, 나에게도 형이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해에 일응길사는 고구려에서 돌아와 기술자[174] 수류지(工匠須流枳)와 노류지(奴流枳) 등을 바쳤다. 지금 대왜국(大倭國 ; 야마토노쿠니) 산변군(山邊郡 ; 야마베노코호리) 액전읍(額田邑 ; 누카타노무라) 숙피고려(熟皮高麗 ; 카하워시노코마)[175]는 그 후손이다.

7년 봄 정월 정미삭 기유(3일)에 소박뢰치초료존(小泊瀨稚鷦鷯尊 ; 오하츠세와카사자키노미코토)[176]을 세워서 황태자로 삼았다.

---

174 원문은 工匠이다.

175 『和名類聚抄』에 「韋柔皮也. 和名乎之加波」라고 하였다. 『養老令』 職員令 大藏省條에서는 '典革 1인[여러 가지 가죽을 물들이고 만드는 일과 狛部를 檢校하는 일을 관장한다.], 狛部 6인[여러 가지 가죽을 물들이고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 狛戶'라고 하였다.

176 武烈天皇이다.

8년 겨울 10월에 백성이 "요즘 온 나라에 일이 없으며 관리는 그 관직을 잘 수행한다. 온 세상이 인(仁)으로 되돌아가고 백성은 그 생업을 편안하게 영위한다."라고 말하였다. 이 해에 오곡이 넘쳐나고 누에와 보리를 넉넉히 거두어 들였다. 국내가 모두 평안하고, 호구(戶口)는 더욱 늘어났다.

11년 가을 8월 경술삭 정사(8일)에 천황이 정전[正寢]에서 죽었다(崩).

겨울 10월 기유삭 계축(5일)에 식생판본릉(埴生坂本陵 ; 하니후노사카모토노미사자키)[177]에 장사지냈다.

일본서기 권 제15

177 『延喜式』 諸陵式에 '埴生坂本陵[石上廣高宮御宇仁賢天皇은 河內國 丹比郡에 있다. 묘가 있는 곳은 동서 2정 남북 2정이며, 守戶는 5烟이다.].'이라고 하였고, 『河內志』에 '丹南郡 黑山村이 있는데, 관내 능이 경계에 두 개가 있다.'라고 하였다.

日本書紀 卷第十五

白髮武廣國押稚日本根子天皇 淸寧天皇

白髮武廣國押稚日本根子天皇, 大泊瀨幼武天皇第三子也. 母曰葛城韓媛. 天皇生而白髮. 長而愛民. 大泊瀨天皇, 於諸子中, 特所靈異. 廿二年, 立爲皇太子.

廿三年八月, 大泊瀨天皇崩. 吉備稚媛, 陰謂幼子星川皇子曰, 欲登天下之位, 先取大藏之官. 長子磐城皇子, 聽[1]母夫人敎其幼子之語曰, 皇太子雖是我弟, 安可欺乎. 不可爲也. 星川皇子, 不聽, 輒隨母夫人之意. 遂取大藏官. 鏁閉外門, 式備于難. 權勢自由, 費用官物. 於是, 大伴室屋大連, 言於東漢掬直曰, 大泊瀨天皇之遺詔, 今將至矣. 宜從遺詔, 奉皇太子. 乃發軍士圍繞大藏. 自外拒閉, 縱火燔殺. 是時, 吉備稚媛磐城皇子異父兄兄君城丘前來目[闕名.] 隨星川皇子, 而被燔殺焉. 惟河內三野縣主小根, 慄然振怖, 避火逃出. 抱草香部吉士漢彦脚, 因使祈生於大伴室屋大連曰, 奴縣主小根, 事星川皇子者信. 而無有背於皇太子. 乞, 降洪恩, 救賜他命. 漢彦乃具爲啓於大伴大連, 不入刑類. 小根仍使漢彦啓於大連曰, 大伴大連, 我君, 降大慈愍, 促短之命, 旣續延長, 獲觀日色. 輒以難波來目邑大井戶田十町, 送於大連. 又以田地, 與于漢彦, 以報其恩.

是月, 吉備上道臣等, 聞朝作亂, 思救其腹所生星川皇子, 率船師卌艘, 來浮

---

1 소학관본에서는 '聞'이라고 적고 있다.

於海. 旣而聞被燔殺, 自海而歸. 天皇卽遣使, 嘖讓於上道臣等, 而奪其所領山部.

冬十月己巳朔壬申, 大伴室屋大連, 率臣連等, 奉璽於皇太子.

元年 春正月戊戌朔壬子, 命有司, 設壇場於磐余甕栗, 陟天皇位. 遂定宮焉. 尊葛城韓媛, 爲皇太夫人. 以大伴室屋大連爲大連, 平群眞鳥大臣爲大臣, 竝如故. 臣連伴造等, 各依職位焉.

冬十月癸巳朔辛丑, 葬大泊瀨天皇于丹比高鷲原陵. 于時, 隼人晝夜哀號陵側. 與食不喫. 七日而死. 有司造墓陵北, 以禮葬之.

是年也, 太歲庚申.

二年 春二月, 天皇恨無子, 乃遣大伴室屋大連於諸國, 置白髮部舍人白髮部膳夫白髮部靫負. 冀垂遺跡, 令觀於後.

冬十一月, 依大嘗供奉之料, 遣於播磨國司, 山部連先祖伊豫[2]來目部小楯, 於赤石郡縮見屯倉首忍海部造細目新室, 見市邊押磐皇子子億計弘計. 畏敬兼抱, 思奉爲君. 奉養甚謹, 以私供給. 便起柴宮, 權奉安置. 乘驛馳奏. 天皇愕然驚歎, 良以愴懷曰, 懿哉, 悅哉, 天垂溥愛, 賜以兩兒.

是月, 使小楯持節, 將左右舍人, 至赤石奉迎. 語在弘計天皇紀.

三年 春正月丙辰朔, 小楯等奉億計弘計, 到攝津國. 使臣連持節, 以王靑蓋車, 迎入宮中.

夏四月乙酉朔辛卯, 以億計王爲皇太子. 以弘計王爲皇子.

秋七月, 飯豐皇女, 於角刺宮, 與夫初交. 謂人曰, 一知女道. 又安可異. 終不

---

2 소학관본에서는 '與'라고 적고 있다.

願交於男[此曰有夫, 未詳也.].

九月壬子朔癸丑, 遣臣連, 巡省風俗.

冬十月壬午朔乙酉, 詔, 犬馬器翫, 不得獻上.

十一月辛亥朔戊辰, 宴臣連於大庭. 賜綿帛. 皆任其自取, 盡力而出.

是月, 海表諸蕃, 竝遣使進調.

四年 春正月庚戌朔丙辰, 宴海表諸蕃使者於朝堂. 賜物各有差.

夏閏五月, 大餔五日.

秋八月丁未朔癸丑, 天皇親錄囚徒. 是日, 蝦夷隼人竝內附.

九月丙子朔, 天皇御射殿. 詔百寮及海表使者射. 賜物各有差.

五年 春正月甲戌朔己丑, 天皇崩于宮. 時年若干.

冬十一月庚午朔戊寅, 葬于河內坂門原陵.

弘計天皇 顯宗天皇

弘計天皇[更名來目稚子.] 大兄去來穗別天皇孫也. 市邊押磐皇子子也. 母曰荑媛[荑, 此云波曳. 譜第曰, 市邊押磐皇子, 娶蟻臣女荑媛. 遂生三男二女, 其一曰居夏姬. 其二曰億計王. 更名嶋稚子. 更名大石尊. 其三曰弘計王. 更名來目稚子. 其四曰飯豐女王. 亦名忍海部女王. 其五曰橘王. 一本以飯豐女王. 列敘於億計王之上. 蟻臣者葦田宿禰子也.]. 天皇久居邊裔, 悉知百姓憂苦. 恆見枉屈, 若納四體溝隍. 布德施惠, 政令流行. 鄙貧養孀, 天下親附.

穴穗天皇三年十月, 天皇父市邊押磐皇子及帳內佐伯部仲子, 於蚊屋野, 爲大泊瀨天皇見殺. 因埋同穴. 於是, 天皇與億計王, 聞父見射, 恐懼皆逃亡自匿.

帳內日下部連使主[使主日下部連之名也. 使主, 此云於瀰.] 與吾田彦[吾田彦, 使主之子也.] 竊奉天皇與億計王, 避難於丹波國余社郡. 使主遂改名字, 曰田疾來. 尙恐見誅, 從茲遁入播磨縮見山石室, 而自經死. 天皇尙不識使主所之. 勸兄億計王, 向播磨國赤石郡, 俱改字曰丹波小子. 就仕於縮見屯倉首[縮見屯倉首, 忍海部造細目也.]. 吾田彦, 至此不離, 固執臣禮.

白髮天皇二年冬十一月, 播磨國司山部連先祖伊豫[3]來目部小楯, 於赤石郡, 親辯(辯→辨)新嘗供物[一云, 巡行郡縣, 收斂田租也.]. 適會縮見屯倉首, 縱賞新室, 以夜繼晝. 爾乃, 天皇謂兄億計王曰, 避亂於斯, 年踰數紀. 顯名著貴, 方屬今宵. 億計王惻然歎曰, 其自遭揚見害, 孰與全身免厄也歟. 天皇曰, 吾是去來穗別天皇之孫. 而困事於人飼牧牛馬, 豈若顯名被害也歟. 遂與億計王, 相抱涕泣. 不能自禁. 億計王曰, 然則非弟, 誰能激揚大節, 可以顯著. 天皇固辭曰, 僕不才. 豈敢宣揚德業. 億計王曰, 弟英才賢德. 爰無以過. 如是相讓再三. 而果使天皇, 自許稱述, 俱就室外, 居于下風. 屯倉首命居竈傍, 左右秉燭. 夜深酒酣, 次第儛訖. 屯倉首語小楯曰, 僕見此秉燭者, 貴人而賤己, 先人而後己. 恭敬撙節. 退讓以明禮[撙者[4]猶趍也. 相從也. 止也.]. 可謂君子. 於是, 小楯撫絃, 命秉燭者曰, 起儛. 於是, 兄弟相讓, 久而不起. 小楯嘖之曰, 何爲太遲. 速起儛之. 億計王起儛旣了. 天皇次起, 自整衣帶, 爲室壽曰, 築立稚室葛根, 築立柱者, 此家長御心之鎭也. 取擧棟梁者, 此家長御心之林也. 取置椽橑者, 此家長御心之齊也. 取置蘆萑者, 此家長御心之平也[蘆萑, 此云哀都利. 萑音之潤反.]. 取結繩葛者, 此家長御壽之堅也. 取葺草葉者, 此家長御富之餘也. 出雲者新墾, 新墾之十握稻, 於淺甕釀酒, 美飮喫哉[美飮喫哉, 此云于魔羅儞烏野羅甫屢柯倭.]. 吾子等[子者, 男子之通稱也.]. 脚日木此傍山, 牡鹿之角[牡鹿, 此云左烏子加.] 擧而吾儛者, 旨酒餌香

3 소학관본에서는 '與'라고 적고 있다.

4 소학관본에는 '者'가 없다.

市不以直買, 手掌慘亮[手掌慘亮, 此云陀那則擧謀耶羅羅儞.] 拍上賜, 吾常世等. 壽畢乃赴節歌曰, 伊儺武斯盧, 呵[5]簸泝比野儺擬, 寐逗喩[6]凱麽, 儺弭企於己陀智, 曾能泥播宇世儒. 小楯謂之曰, 可怜. 願復聞之. 天皇遂作殊[殊儛, 古謂之立出儛. 立出, 此云陀豆豆. 儛狀者乍起乍居而儛之.]. 誥之曰, 倭者彼彼茅原, 淺茅原弟日, 僕是也. 小楯由是, 深奇異焉. 更使唱之. 天皇誥之曰, 石上振之神楹[7][楹, 此云須擬.], 伐本截末[伐本截末, 此云謨登岐利須衛於茲波[8]羅比.], 於市邊宮治天下, 天萬國萬押磐尊御裔, 僕是也. 小楯大驚, 離席悵然再拜, 承事供給, 率屬欽伏. 於是, 悉發郡民造宮. 不日權奉安置. 乃詣京都, 求迎二王. 白髮天皇, 聞憙咨歎曰, 朕無子也. 可以爲嗣, 與大臣大連, 定策禁中. 仍使播磨國司來目部小楯, 持節, 將左右舍人, 至赤石奉迎.

白髮天皇三年春正月, 天皇隨億計王, 到攝津國. 使臣連, 持節, 以王靑蓋車, 迎入宮中.

夏四月, 立億計王爲皇太子, 立天皇爲皇子.

五年春正月, 白髮天皇崩.

是月, 皇太子億計王與天皇讓位. 久而不處. 由是, 天皇姉飯豐靑皇女, 於忍海角刺宮, 臨朝秉政. 自稱忍海飯豐靑尊. 當世詞人歌曰, 野麻登陛儞, 瀰我保指母能婆, 於尸農瀰能, 莒能陀[9]哿紀儺(厦), 都奴娑之能瀰野.

冬十一月, 飯豐靑尊崩. 葬葛城埴口丘陵.

十二月, 百官大會. 皇太子億計, 取天子[10]之璽, 置之天皇之坐. 再拜從諸臣

---

5 소학관본에서는 '哿'라고 적고 있다.

6 소학관본에서는 '愈'라고 적고 있다.

7 소학관본에서는 '楫'이라고 적고 있다.

8 소학관본에서는 '婆'라고 적고 있다.

9 소학관본에서는 '拖'라고 적고 있다.

10 소학관본에서는 '皇'이라고 적고 있다.

之位曰, 此天子[11]之位, 有功者可以處之. 著貴蒙迎, 皆弟之謀也. 以天下讓天皇. 天皇顧讓以弟, 莫敢卽位. 又奉白髮天皇, 先欲傳兄, 立皇太子, 前後固辭曰, 日月出矣, 而爝火不息. 其於光也, 不亦難乎. 時雨降矣, 而猶浸灌. 不亦勞乎. 所貴爲人弟者, 奉兄, 謀逃脫難, 照德解紛, 而無處也. 卽有處者, 非弟恭之義. 弘計不忍處也. 兄友弟恭, 不易之典. 聞諸古老. 安自獨輕. 皇太子億計曰, 白髮天皇, 以吾兄之故, 奉[12]天下之事, 而先屬我. 我其羞之. 惟大王, 首建利遁. 聞之者歎息. 彰顯帝孫, 見之者殞涕. 憫憫搢紳, 忻荷戴天之慶. 哀哀黔首, 悅逢履地之恩. 是以, 克固四維, 永隆萬葉. 功隣造物, 淸猷映世. 超哉, 邈矣, 粤無得而稱. 雖是曰兄, 豈先處乎. 非功而據, 咎悔必至. 吾聞, 天皇不可以久曠. 天命不可以謙拒. 大王以社稷爲計, 百姓爲心. 發言慷慨, 至于流涕. 天皇於是, 知終不處, 不逆兄意, 乃聽. 而不卽御坐. 世嘉其能以實讓曰, 宜哉, 兄弟怡怡, 天下歸德. 篤於親族, 則民興仁.

元年 春正月己巳朔, 大臣大連等奏言, 皇太子億計, 聖德明茂, 奉讓天下. 陛下正統. 當奉鴻緖, 爲郊廟主. 承續祖無窮之烈[13], 上當天心, 下厭民望. 而不肯踐祚. 遂令金銀蕃國群僚, 遠近莫不失望. 天命有屬. 皇太子推讓. 聖德彌盛, 福祚孔章. 在孺而勤, 謙恭慈順. 宜奉兄命, 承統大業. 制曰, 可. 乃召公卿百寮於近飛鳥八釣宮, 卽天皇位. 百官陪位者, 皆忻忻焉[或本云, 弘計天皇之宮, 有二所焉. 一宮於小[14]郊, 二宮於池野. 又或本云, 宮於甕栗.].

是月, 立皇后難波小野王. 赦天下[難波小野王, 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曾孫, 磐城王孫, 丘稚子王之女也.].

---

11 소학관본에서는 '皇'이라고 적고 있다.

12 소학관본에서는 '擧'라고 적고 있다.

13 소학관본에서는 '列'이라고 적고 있다.

14 소학관본에서는 '少'라고 적고 있다.

二月戊戌朔壬寅, 詔曰, 先王遭離多難, 殞命荒郊. 朕在幼年, 亡逃自匿. 猥遇求迎, 升纂大業. 廣求御骨, 莫能知者. 詔畢, 與皇太子億計, 泣哭憤惋, 不能自勝.

是月, 召聚耆宿, 天皇親歷問. 有一老嫗進曰, 置目知御骨埋處. 請, 以奉示[置目老嫗名也. 近江國狹狹城山君祖倭侶宿禰之妹, 名曰置目. 見下文.]. 於是, 天皇與皇太子億計, 將老嫗婦, 幸于近江國來田絮[15]蚊屋野中, 掘出而見, 果如婦語. 臨穴哀號, 言深更慟. 自古以來, 莫如斯酷. 仲子之尸, 交橫御骨, 莫能別者. 爰有磐坂皇子之乳母. 奏曰, 仲子者上齒墮落. 以斯可別. 於是, 雖由乳母, 相別髑髏, 而竟難別四支諸骨. 由是, 仍於蚊屋野中, 造起雙陵, 相似如一. 葬儀無異. 詔老嫗置目, 居于宮傍近處. 優崇賜邨, 使無乏少.

是月, 詔曰, 老嫗伶俜羸弱, 不便行步. 宜張繩引絙, 扶而出入. 繩端懸鐸, 無勞謁者. 入則鳴鳴之. 朕知汝到. 於是, 老嫗奉詔, 鳴鐸而進. 天皇遙聞鐸聲, 歌曰, 阿佐賦簸囉, 鳴贈禰鳴須擬, 謨謀逗 拕甫, 奴底喩羅俱慕與, 於岐每俱羅之慕.

三月上巳, 幸後苑, 曲水宴.

夏四月丁酉朔丁未, 詔曰, 凡人主之所以勸民者, 惟授官也. 國之所以興者, 惟賞功也. 夫前播磨國司來目部小楯[更名磐楯.], 求迎舉朕. 厥功茂焉. 所志願勿難言. 小楯謝曰, 山官宿所願. 乃拜山官, 改賜姓山部連氏. 以吉備臣爲副, 以山守部爲民. 哀善顯功, 酬恩答厚. 寵愛殊絶, 富莫能儔.

五月, 狹狹城山君韓侶宿禰, 事連謀[16]殺皇子押磐. 臨誅叩頭言詞極哀. 天皇不忍加戮, 充陵戶兼守山. 削除籍帳, 隸山部連. 惟倭侶宿禰, 因妹置目之功, 仍賜本姓狹狹城山君氏.

---

15 소학관본에서는 '綿'이라고 적고 있다.

16 소학관본에서는 '謨'라고 적고 있다.

六月, 幸避暑殿, 奏樂. 會群臣, 設以酒食.

是年也, 太歲乙丑.

二年 春三月上巳, 幸後苑曲水宴. 是時, 喜集公卿大夫臣連國造伴造, 爲宴. 群臣頻稱萬歲.

秋八月己未朔, 天皇謂皇太子億計曰, 吾父先王無罪. 而大泊瀨天皇射殺, 棄骨郊野, 至今未獲. 憤歎盈懷. 臥泣, 行號, 志雪讎恥. 吾聞, 父之讎不與共戴天. 兄弟之讎不反兵. 交遊之讎不同國. 夫匹夫之子, 居父母之讎, 寢苫枕干不仕. 不與共國. 遇諸市朝, 不反兵而便鬪. 況吾立爲天子, 二年于今矣. 願壞其陵, 摧骨投散. 今以此報, 不亦孝乎. 皇太子億計, 歔欷不能答. 乃諫曰, 不可. 大泊瀨天皇, 正統萬機, 臨照天下. 華夷欣仰, 天皇之身也. 吾父先王, 雖是天皇之子, 遭遇迍邅, 不登天位. 以此觀之, 尊卑惟別. 而忍壞陵墓, 誰人主以奉天之靈. 其不可毁, 一也. 又天皇與億計, 曾不蒙遇白髮天皇厚寵殊恩, 豈臨寶位. 大泊瀨天皇, 白髮天皇之父也. 億計聞諸老賢. 老賢曰, 言無不訓, 德無不報. 有恩不報, 敗俗之深者也. 陛下饗國, 德行廣聞於天下. 而毁陵, 飜見於華裔, 億計恐, 其不可以莅國子民也. 其不可毁, 二也. 天皇曰, 善哉, 令罷役.

九月, 置目老困, 乞還曰, 氣力衰邁, 老耄虛羸. 要假扶繩, 不能進步. 願歸桑梓, 以送厥終. 天皇聞惋痛, 賜物千段. 逆傷岐路, 重感難期. 乃賜歌曰, 於岐每慕與, 阿甫瀰[17]能於岐每, 阿須用利簸, 瀰[18]野磨我俱利底, 彌曳孺哿謨阿羅牟.

冬十月戊午朔癸亥, 宴群臣. 是時, 天下安平, 民無徭役. 歲比登稔, 百姓殷富. 稻斛銀錢一文. 馬被野.

---

17 소학관본에서는 '彌'라고 적고 있다.

18 소학관본에서는 '彌'라고 적고 있다.

三年 春二月丁巳朔, 阿閉臣事代銜命, 出使于任那. 於是, 月神著人謂之曰, 我祖高皇産靈, 有預鎔造天地之功. 宜以民地, 奉我月神. 若依請獻我, 當福慶. 事代由是, 還京具奏. 奉以歌荒樔田[歌荒樔田者[19], 在山背國葛野郡也[20].]. 壹伎縣主先祖押見宿禰侍祠.

三月上巳, 幸後苑, 曲水宴.

夏四月丙辰朔庚申, 日神著人, 謂阿閉臣事代曰, 以磐余田, 獻我祖高皇産靈. 事代便奏. 依神乞獻田十四町. 對馬下縣直侍祠.

戊辰, 置福草部.

庚辰, 天皇崩于八釣宮.

是歲, 紀生磐宿禰, 跨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脩官[21]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背等計, 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爾林高麗地也.]. 築帶山城, 距守東道. 斷運粮津, 令軍飢困. 百濟王大怒, 遣領軍古爾解內頭莫古解等, 率衆趣于帶山攻. 於是, 生磐宿祢, 進軍逆擊. 膽[22]氣益壯, 所向皆破. 以一當百. 俄而兵盡力竭. 知事不濟, 自任那歸. 由是, 百濟國殺佐魯那奇他甲背等三百餘人.

億計天皇 仁賢天皇

億計天皇, 諱大脚[更名大爲. 自餘諸天皇, 不言諱字. 而至此天皇, 獨自書者, 據舊本耳.]. 字嶋郎. 弘計天皇同母兄也. 幼而聰穎, 才敏多識. 壯而仁惠, 謙恕溫慈.

---

19 소학관본에는 '者'가 없다.

20 소학관본에는 '也'가 없다.

21 소학관본에서는 '宮'이라고 적고 있다.

22 소학관본에서는 '胆'이라고 적고 있다.

及穴穗天皇崩, 避難於丹波國余社郡.

白髮天皇元年冬十一月, 播磨國司山部連小楯, 詣京求迎. 白髮天皇, 尋遣小楯, 持節, 將左右舍人, 至赤石奉迎.

二年夏四月, 遂立億計天皇, 爲皇太子[事具弘計天皇紀也[23].].

五年, 白髮天皇崩. 天皇以天下讓弘計天皇. 爲皇太子, 如故[事具弘計天皇紀也.].

三年夏四月, 弘計天皇崩.

元年 春正月辛巳朔乙酉, 皇太子, 於石上廣高宮, 卽天皇位[或本云, 億計天皇之宮, 有二所焉. 一宮於川村, 二宮於縮見高野. 其殿柱至今未朽.].

二月辛亥朔壬子, 立前妃春日大娘皇女爲皇后[春日大娘皇女, 大泊瀨天皇, 娶和珥臣深目之女童女君所生也.]. 遂産一男六女. 其一曰高橋大娘皇女. 其二曰朝嬬皇女. 其三曰手白香皇女. 其四曰樟氷皇女. 其五曰橘皇女. 其六曰小泊瀨稚鷦鷯天皇. 及有天下, 都泊瀨列城. 其七曰眞稚皇女[一本, 以樟氷皇女列于第三, 以手白香皇女列于第四, 爲異焉.]. 次和珥臣日爪女糠君娘, 生一女. 是爲春日山田皇女[一本云, 和珥臣日觸女大糠娘, 生一女. 是爲山田大娘皇女. 更名赤見皇女. 文雖稍異, 其實一也.].

冬十月丁未朔己酉, 葬弘計天皇于傍丘磐杯丘陵.

是歲也, 太歲戊辰.

二年 秋九月, 難波小野皇后, 恐宿不敬自死[弘計天皇時, 皇太子億計侍宴. 取瓜將喫, 無刀子. 弘計天皇, 親執刀子, 命其夫人小野傳進. 夫人就前, 立置刀子於瓜盤. 是日, 更酌酒, 立喚皇太子. 緣斯不敬, 恐誅自死.].

---

23 소학관본에는 '也'가 없다.

三年 春二月己巳朔, 置石上部舍人.

四年 夏五月, 的臣蚊嶋穗瓮君[瓮, 此云倍.] 有罪, 皆下獄死.

五年 春二月丁亥朔辛卯, 普求國郡散亡佐伯部. 以佐伯部仲子之後, 爲佐伯造[佐伯部仲子, 事見弘計天皇紀.].

六年 秋九月己酉朔壬子, 遣日鷹吉士, 使高麗, 召巧手者.

是秋, 日鷹吉士, 被遣使後, 有女人, 居于難波御津, 哭之曰, 於母亦兄, 於吾亦兄. 弱草吾夫何怜矣[言於母亦兄, 於吾亦兄, 此云於慕尼慕是, 阿例尼慕是. 言吾夫何怜矣, 此云阿我圖摩播耶. 言弱草, 謂古者以弱草喩夫婦. 故以弱草爲夫.]. 哭聲甚哀, 令人斷腸. 菱城邑人鹿父[鹿父, 人名也. 俗呼父爲柯曾.] 聞而向前曰, 何哭之哀, 甚若此乎. 女人答曰, 秋葱之轉雙[雙, 重也.] 納, 可思惟矣. 鹿父曰, 諾. 卽知所言矣. 有同伴者, 不悟其意, 問曰, 何以知乎. 答曰, 難波玉作部鯽魚女[言鯽魚女, 此云浮儞謎.] 嫁於韓白水郎曠[言韓白水郎曠, 此云柯羅摩能波陀該. 曠耕麥田之也.] 生哭女. 哭女[言哭女, 此云儞俱謎.] 嫁於住道人山杵[24], 生飽田女. 韓白水郎曠與其女哭女, 曾旣俱死. 住道人山杵[25], 上釿玉作部鯽魚女, 生雹寸. 雹寸娶飽田女. 於是, 雹寸從日鷹吉士, 發向高麗. 由是, 其妻飽田女, 徘徊顧戀, 失緒傷心. 哭聲尤切, 令人腸斷[玉作部鯽魚女與韓白水郎曠, 爲夫婦生哭女. 住道人山杵[26]娶哭女, 生飽田女. 山杵[27]妻父韓白水郎曠與其妻[28]哭女, 曾旣俱死. 住道人山杵[29], 上釿妻母玉作部鯽魚女, 生

---

24 소학관본에서는 '寸'이라고 적고 있다.
25 소학관본에서는 '寸'이라고 적고 있다.
26 소학관본에서는 '寸'이라고 적고 있다.
27 소학관본에서는 '寸'이라고 적고 있다.
28 소학관본에서는 '子'라고 적고 있다.

麁寸. 麁寸娶飽田女. 或本云, 玉作部鯽魚女, 共前夫韓白水郎嘆, 生哭女. 更共後夫住道人山杵[30], 生麁寸. 則哭女與麁寸, 異父兄弟之故, 哭女之女飽田女, 呼麁寸, 曰於母亦兄也. 哭女嫁於山杵[31], 生飽田女. 山杵又淫鯽魚女, 生麁寸. 則飽田女與麁寸, 異母兄弟之故, 飽田女呼夫麁寸, 曰於吾亦兄也. 古者不言兄弟長幼, 女以男稱兄. 男以女稱妹. 故云於母亦兄, 於吾亦兄耳.].

是歲, 日鷹吉士, 還自高麗, 獻工匠須流枳奴流枳等. 今大[32]倭國山邊郡額田邑熟皮高麗, 是其後也.

七年 春正月丁未朔己酉, 立小泊瀨稚鷦鷯尊, 爲皇太子.

八年 冬十月, 百姓言, 是時, 國中無事, 吏稱其官. 海內歸仁, 民安其業.
是歲, 五穀登衍, 蠶麥善收. 遠近淸平, 戶口滋殖焉.

十一年 秋八月庚戌朔丁巳, 天皇崩于正寢.
冬十月己酉朔癸丑, 葬埴生坂本陵.

日本書紀卷第十五

29 소학관본에서는 '寸'이라고 적고 있다.
30 소학관본에서는 '寸'이라고 적고 있다.
31 소학관본에서는 '寸'이라고 적고 있다.
32 소학관본에는 '大'가 없다.

일본서기 권 제16

日本書紀 卷第十六

제25대 **소박뢰치초료천황**(小泊瀬稚鷦鷯天皇) **무열천황**(武烈天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서기 권 제16

소박뢰치초료천황(小泊瀨稚鷦鷯天皇 ; 오하츠세노와카사자키노스메라미코토) **무열천황**(武烈天皇 ; 부레츠텐노)

소박뢰치초료(小泊瀨稚鷦鷯 ; 오하츠세노와카사자키)[1]천황은 억계천황(億計天皇 ; 오케노스메라미코토)[2]의 태자다. 어머니는 춘일대랑(春日大娘 ; 카스가노오호이라츠메) 황후라고 한다. 억계천황 7년에 황태자가 되었다. 장성하여서는 죄인을 다스리고 비리를 판정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법령에도 밝아 해질 무렵까지 정사를 돌보고, 숨겨져 있는 억울한 죄는 반드시 통찰하여 밝혔으며 소송의 심리에 매우 능하였다. 또 자주 여러 나쁜 일을 하였고, 하나도 좋은 일을 하지 않았다. 무릇 모든 혹형을 몸소 주관하였다. 국내의 인민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11년 8월에 억계천황이 죽었다. 대신 평군진조신(平群眞鳥臣 ; 헤구리노마토리노오미)이 국정을 마음대로 하여 일본(日本 ; 야마토)[3]의 왕이 되려고 하였다.

---

1 『日本書紀』의 계보상 제25대 천황이다. 아버지는 仁賢天皇(億計天皇), 어머니는 雄略天皇의 딸인 春日大郎皇后이다. 『日本書紀』에는 인덕천황이 聖帝로 비유되고 있고, 武烈天皇은 폭군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인덕천황의 계통이 武烈朝에 와서 단절된 것과 관계가 깊으며, 聖帝의 마지막 후에는 폭군이라는 중국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이 武烈天皇이 실존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한다.

2 仁賢天皇이다.

3 大和 지역을 말한다.

거짓으로 태자의 궁을 짓는다 하고, 완성되자 자신이 살았다. (그는) 모든 일에 교만하여 도무지 신하로서의 예의가 없었다. 그런데 태자는 물부추록화대련(物部麤鹿火大連 ; 모노노베노아라카히노오호무라지)[4]의 딸 영원(影媛 ; 카게히메)을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중매인을 보내 영원의 집에 가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영원은 이전에 진조대신(眞鳥大臣)의 아들 유(鮪 ; 시비)에게 강간당하였다[鮪는 시비(玆賚)라고 읽는다.]. 태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첩은 해석류시(海拓榴市 ; 츠바키이치)[5]의 거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태자는 약속한 곳으로 가려고 생각하여 시중드는 사인(舍人 ; 토네리)을 평군대신의 집에 보내, 태자의 명으로 관마(官馬)를 구해 오게 하였다. 대신은 "관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명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농담으로 거짓말하면서 오랫동안 대령하지 않았다. 태자는 내심 원망하였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이윽고 약속한 장소에 가서 태자는 가장(歌場)의 사람들 속에 서서[歌場은 우타가키(宇多我岐)라고 읽는다.], 영원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멈추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돌아다녔다. 잠시 후 유신(鮪臣 ; 시비노오미)이 와서 태자와 영원 사이를 밀치고 들어갔다. 이 때문에 태자는 영원의 소매를 놓고, 돌아서 앞으로 나아가 유(鮪)의 앞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

조수의 흐름이 빠른 여울[潮瀨]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면, 헤엄치는 유의 곁에 나의 처가 서 있는 것이 보인다[어떤 책에서는 조뢰(潮瀨)를 수문(水門)으로 쓰고 있다.].

유신이 답하여 노래 불렀다.

---

4 『日本書紀』 繼體天皇 23년 11월조에 筑紫의 수장 磐井이 중앙의 왜왕권에 대항해서 난을 일으켰을 때, 대장군으로서 참가하여 磐井의 난을 평정하였다.

5 奈良縣 櫻井市 부근으로, 奈良분지의 남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교통상의 요지이다.

신(臣)의 아들[6]의 몇 겹으로 된 한식(韓式) 담장 안에 함부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인가, 태자여.

태자가 노래하였다.

나는 큰 칼을 허리에 차고 있으나 지금은 이것을 빼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생각한 대로 하며 영원을 만나려고 한다.

유신이 답하여 노래하였다.

대군(大君 ; 오호키미)이 여러 겹의 담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대는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 좋은 담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태자가 노래로 답하였다.

신의 아들 유의 담쌓는 기술이 훌륭해도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 무너져 버릴 나무 담이다[어떤 책에는 팔절(八節)의 시원(柴垣)을 팔중한원(八重韓垣)으로 쓰고 있다.].

태자가 영원에게 노래를 하였다.

금(琴 ; 코토) 소리에 끌려 금의 곁에 신(神)이 그림자가 되어 다가온다고 하는 영원은 옥(玉)에 비유한다면 내가 갖고 싶은 전복의 진주와 같다.

---

6 유신이 자신을 '臣의 아들'이라 3인칭 표현을 한 것이다.

유신이 영원을 대신해서 답하여 노래하였다.

대군(大君) 허리띠의 왜문직(倭文織)의 매듭이 늘어져 있지만, 저는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진 않아요.

태자는 비로소 유신이 이미 영원을 얻은 것을 알았다. 그 부자가 모두 무례한 것을 깨닫고 얼굴을 붉히고 몹시 노하였다.

이 날 밤에 즉시 대반금촌련(大伴金村連 ; 오호토모노카나무라노무라지)[7]의 집에 가서 군사를 모으고 계책을 세웠다. 대반련은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길을 막고서 유신을 내락산(乃樂山 ; 나라야마)[8]에서 죽였다[어떤 책(一本)에서는 유(鮪)는 영원의 집에 머물렀고, 그날 밤에 살해당했다고 적었다.]. 이때 영원은 (유신이) 살해당하는 곳에 쫓아와 죽은 것을 보았다. 놀라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픈 눈물이 눈에 가득하였다. 드디어 노래를 불렀다.

포류(布留 ; 후루)를 지나, 고교(高橋 ; 타카하시)를 지나, 물건이 많은 저택을 지나, 춘일(春日 ; 카스가)을 지나, 소좌보(小佐保 ; 워사호)를 지나, 아름다운 식기에는 밥을 담고 아름다운 주발에는 물을 담아 울면서 간다. 영원은. 아아.

영원이 시신을 장사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슬픔에 잠겨 "괴롭구나, 오늘 나의 사랑하는 님을 잃었다."라고 말하였다.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

7 大伴金村連은 武烈~欽明의 5朝에 걸쳐 大連의 지위에서 봉사한 인물로, 특히 繼體가 왕위에 오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8 奈良市 平城宮跡의 북쪽으로 이어진 구릉을 가리킨다. 仁德紀 30년 가을 9월조에는 那羅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락산 골짜기에 사슴이나 멧돼지같이 물에 잠겨 구석에 쳐박혀 있는 유신 서방님을 찾아내지 말아라, 멧돼지여.

겨울 11월 무인삭 무자(11일)에 대반금촌련이 태자에게 "진조(眞鳥 ; 마토리)라는 놈을 쳐야 합니다. 청컨대 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태자가 "천하가 어지러워지려고 한다. 세상에 훌륭한 영웅이 아니면, 능히 해내지 못 할 것이다. 능히 이것을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대 대련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즉시 같이 계책을 세웠다. 드디어 대반대련은 병력을 이끌고 스스로 대장이 되어 대신[眞鳥]의 저택을 포위하고 불을 질러 태웠다. 이때 지휘에 따르는 자가 구름처럼 많았다. 진조대신(眞鳥大臣 ; 마토리노오호오미)은 일[9]의 성취가 어렵게 된 것을 분하게 여기고, 피신하기 어려움을 깨달았다. 계획은 좌절되고 절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널리 소금을 가리켜 저주하였다. 드디어 살해당하여 그 자제들에게까지 미쳤다. 저주할 때 오직 각록(角鹿 ; 츠누가)의 소금만은 잊어 저주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각록의 소금은 천황이 먹는 물건이 되고, 다른 바다의 소금은 천황이 꺼리는 것이 되었다.

12월에 대반금촌련은 적을 평정하고 정사를 태자에게 되돌렸다. 그리고 존호를 올리기를 청하여 "지금 억계천황의 아들은 오직 폐하뿐입니다. 백성들이 받드는 곳은 일찍이 두 곳은 없었습니다. 또 하늘의 가호를 받아 흉악한 무리들을 제거했습니다. 훌륭한 계략과 용감한 판단은 천황의 위광과 천황의 자리를 성하게 했습니다. 일본에는 반드시 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왕이 될 사람은 폐하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엎드려 원하옵건대, 폐하는 천지신명을 받들어 답하시고 천명을 세상에 널리 펴시고 일본을 통치하고 크게 은향(銀鄕 ; 타카라노쿠니)[10]을 받으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이에 태자는 유사(有司)에게 명

9 日本의 王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여 단장(壇場 ; 타카미쿠라)[11]을 박뢰열성(泊瀨列城 ; 하츠세노나미키)에 설치하고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 드디어 도읍을 정하였다. 그리고 이 날 대반금촌련을 대련(大連 ; 오호무라지)으로 삼았다.

원년 봄 3월 정축삭 무인(2일)에 춘일낭자(春日娘子 ; 카스가노이라츠메)를 황후로 세웠다[娘子의 아버지는 미상이다.]. 이 해의 간지는 기묘(499)이다.

2년 가을 9월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 그 태아를 보았다.

3년 겨울 10월에 사람의 손톱을 뽑고 참마를 캐게 하였다.

11월에 대반금촌대련에게 "신농국(信濃國 ; 시나노노쿠니)의 장정을 징발하여 성을 수파읍(水波邑 ; 미마타노무라)에 쌓아라."라고 명하였다. 따라서 성상(城上 ; 키노헤)이라 하였다.

이 달에 백제의 의다랑(意多郞 ; 오타라)[12]이 죽었다. 고전(高田 ; 다카타)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4년 여름 4월에 사람의 머리털을 뽑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였다. 그리고 나무의 밑동을 베어 쓰러뜨려 올라가 있는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이 해에 백제의 말다왕(末多王)이 무도하여 백성에게 포악한 짓을 하였다.

---

10 『日本書紀』 顯宗天皇 元年 정월조에 「金銀蕃國」이라 하여 한반도를 지칭하고 있다.

11 천황 즉위의 場이다.

12 백제 意多郞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왜국 출생의 전승을 갖고 있는 백제 동성왕대에 파견되어 왜국에 체재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국인(國人)[13]이 드디어 제거하고, 도왕(嶋王 ; 시마키시)을 세웠다[14]. 이를 무령왕(武寧王)이라고 한다[백제신찬(百濟新撰)에서 말하길, 말다왕이 무도하여 백성들에게 포악한 짓을 하였다. 그리하여 국인이 함께 제거하였다. 이후 무령왕이 섰다. 휘는 사마왕(斯麻王)이라 한다. 그는 곤지왕(琨支王)의 아들이다. 즉 말다왕의 이모형(異母兄)이다. 곤지가 왜로 향할 때, 축자도(筑紫嶋)에 이르러 사마왕을 낳았다. 섬에서 돌려보냈고 왕경에 이르기 전에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었다. 지금도 각라(各羅 ; 가카라)[15]의 바다에는 주도(主嶋 ; 니리무세마)가 있다. 왕이 탄생한 섬이다. 그래서 백제인은 주도(主嶋)라 이름 붙였다. 지금 생각하니 도왕(嶋王)은 개로왕의 아들이다. 말다왕은 곤지왕의 아들이다. 이를 이모형(異母兄)이라 함은 분명하지 않다.].

5년 여름 6월에 사람을 연못 도랑의 통 속에 들어가게 하여 물에 휩쓸려 나오는 것을 삼지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을 쾌락으로 삼았다.

6년 가을 9월 을사삭(1일)에 "나라를 전하는 정사는 황태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짐은 후사가 없다. 무엇으로 이름을 전하면 좋겠는가. 천황의 옛 관례에 따라 소박뢰사인(小泊瀨舍人 ; 오하츠세노토네리)을 두어 짐의 치세의 이름으로 삼아 만세에 잊지 않게 하라."고 명하였다.

---

13 國人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해당 사료가 『百濟新撰』 등 백제계통 사료를 참고했다고 보면 『三國史記』에서 보이듯이 國人은 지배층을 가리킨다.

14 末多王이 포학하여 국인에 의해 제거당했다는 기사는 무령왕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령왕계가 윤색했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사기』 동성왕 23년조에 衛士佐平 苩加의 사적인 원한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고 했듯이, 동성왕의 사망은 불의의 사태였다. 동성왕과 무령왕은 곤지를 父로 하는 이복형제인데, 동생인 동성왕이 먼저 즉위하였다. 이 사건은 무령왕 측에 의한 정변일 가능성이 있다.

15 『日本書紀』 雄略天皇 5년 6월조 해당 각주 참조.

겨울 10월에 백제국이 마나군(麻那君)[16]을 보내어 조(調)를 바쳤다. 천황이 백제가 몇 년 동안 조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자를 억류하여 돌려보내지 않았다.

7년 봄 2월에 사람을 나무 위에 올라가게 하고, 활을 쏘아 떨어뜨리고 웃었다.

여름 4월에 백제왕이 사아군(斯我君)[17]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별도로 "지난번에 조공한 사신 마나는 백제국주의 골족(骨族)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가 사아(斯我)를 보내어 조정에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표를 올렸다. 이윽고 자식이 생겨 법사군(法師君)이라 하였다. 이가 곧 왜군(倭君 ; 야마토노키미)[18]의 선조다.

8년 봄 3월에 여자를 발가벗겨 판자 위에 앉혀놓고, 그 앞에 말을 끌고 가서 교접을 시켰다. 여자의 음부를 보고 젖어 있는 자는 죽였으며, 젖지 않은 자는 포박하여 관비로 삼았다. 이를 낙으로 삼았다. 이때에 못을 파고 정원을 만들어 새와 짐승을 많이 길렀다. 사냥하기를 좋아하여 개를 달리게 하고 말을 경주시켰다. 때를 가리지 않고 드나들며 큰 바람과 폭우를 피하지 않았다. 따뜻한 옷을 입어 백성들이 추위에 어는 것을 잊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 천

---

16 『日本書紀』 繼体天皇 23년 3월조에 麻那甲背, 『日本書紀』 欽明天皇 4년(543) 12월조에 中佐平木劦麻那라는 인명이 나온다. 마나군은 왕족의 신분이고 양자의 활동기간도 최장 40여 년의 차이가 있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적다.

17 斯我君은 『日本書紀』 繼體天皇 7년조의 백제의 純陀太子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 『續日本紀』 延曆 8년 12월조에는 桓武천황의 생모인 高野新笠의 출자에 대해 무령왕의 아들 純陀태자로부터 나왔다는 전승이 있다. 한편 斯我君을 무령왕 4년에 칠지도를 지참하고 대왜외교의 일선에 활동한 인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18 『新撰姓氏錄』 左京諸蕃下 百濟條에 「和朝臣은 백제국 都慕王의 18世孫으로부터 나왔다」는 전승이 있다. 和氏는 환무천황의 생모인 高野新笠의 본가로 본성은 和史이다. 倭君은 후의 冒稱이라고 보이는데, 和와 倭는 모두 '야마토'로 훈독한다.

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잊었다. 난쟁이와 배우를 많이 불러들여 화려한 음악을 연주시키고 기괴한 놀이를 벌이며, 망국의 노래를 마음대로 하였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궁인(宮人)과 술에 빠지고, 수놓은 비단으로 깔개를 하였다. 무늬있는 비단이나 흰 비단 옷을 입은 자가 많았다.

겨울 12월 임진삭 기해(8일) 천황이 열성궁(列城宮 ; 나미키노미야)에서 죽었다(崩).

일본서기 권 제1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日本書紀 卷第十六

小泊瀨稚鷦鷯天皇 武烈天皇

小泊瀨稚鷦鷯天皇, 億計天皇太子也. 母曰春日大娘皇后. 億計天皇七年, 立爲皇太子. 長好刑理. 法令分明. 日晏坐朝, 幽枉必達. 斷獄得情. 又頻造諸惡. 不修一善. 凡諸酷刑, 無不親覽. 國內居人, 咸皆震怖.

十一年八月, 億計天皇崩. 大臣平群眞鳥臣, 專擅國政, 欲王日本. 陽爲太子營宮. 了卽自居. 觸事驕慢, 都無臣節. 於是, 太子思欲聘物部麁鹿火大連女影媛, 遣媒人, 向影媛宅期會. 影媛會釿眞鳥大臣男鮪[鮪, 此云茲賣]. 恐違太子所期, 報曰, 妾望, 奉待海柘榴市巷. 由是, 太子欲往期處. 遣近侍舍人, 就平群大臣宅, 奉太子命, 求索官馬. 大臣戲言陽進曰, 官馬爲誰飼養, 隨命而已, 久之不進. 太子懷恨, 忍不發顔. 果之所期, 立歌場衆[歌場, 此云宇多我岐.], 執影媛袖, 躑躅從容. 俄而鮪臣來, 排太子與影媛間立. 由是, 太子放影媛袖, 移廻向前, 立直當鮪. 歌曰, 之哀世能, 儺鳴理鳴彌黎麼, 阿蘇寐俱屢, 思寐我簸多泥儞, 都摩陀氐理彌喩[一本, 以之哀世易彌儺斗.]. 鮪答歌曰, 飫瀰能古能, 耶陛耶哿羅哿杼, 瑜屢世登耶瀰古. 太子歌曰, 飫哀陀掇鳴, 多黎播杼多掇氐, 農哿儒登慕, 須衛婆陀志氐謀, 阿波夢登茹於謀賦. 鮪臣答歌曰, 飫哀杼瀰能, 耶陛能矩瀰哿杼, 哿哿梅膽謀, 儺鳴阿摩之耳彌, 哿哿農俱彌柯杼. 太子歌曰, 於彌能姑能, 耶賦能之魔柯杼, 始陀騰余瀰, 那爲我與釐據魔, 耶黎夢之魔柯杼[一本, 以

耶賦能之魔柯枳易耶陛哿羅哿枳.]. 太子贈影媛歌曰, 擧騰我瀰儞, 枳謂屢箇皚比謎, 抏[1]摩儷羅磨, 婀我哀屢柁[2]摩能, 婀波寐之羅陀魔. 鮪臣爲影媛答歌曰, 於哀枳瀰能, 瀰於寐能之都波抏[3], 夢須寐陀黎, 陀黎耶始比登謀, 阿避於謀婆儷俱儞. 太子甫知鮪曾得影媛. 悉覺父子無敬之狀, 赫然大怒. 此夜, 速向大伴金村連宅, 會兵計策. 大伴連, 將數千兵, 儆之於路, 戮鮪臣於乃樂山[一本云, 鮪宿影媛舍, 卽夜被戮.]. 是時, 影媛逐行戮處, 見是戮已. 驚惶失所, 悲淚盈目. 遂[4]作歌曰, 伊須能箇瀰, 賦屢嗚須擬底, 擧慕摩矩羅, 柁[5]箇播志須擬, 慕能娑幡儞, 於哀野該須擬, 播屢比[6], 箇須我嗚須擬, 逗摩御慕屢, 嗚佐哀嗚須擬, 抏[7]摩該儞播, 伊比佐倍母理, 抏[8]摩慕比儞, 瀰逗佐倍母理, 儷岐曾哀遲喩俱謀, 柯导比謎阿婆例. 於是, 影媛收埋旣畢, 臨欲還家, 悲鯁而言, 苦哉, 今日, 失我愛夫. 卽便灑涕愴矣, 纏心歌曰, 婀嗚儞與志, 乃樂能婆娑摩儞, 斯斯貳慕能, 瀰豆[9]矩陛御暮梨, 瀰儷曾曾矩, 思寐能和俱吾嗚, 阿娑理逗那偉能古.

冬十一月戊寅朔戊子, 大伴金村連謂太子曰, 眞鳥賊, 可擊. 請討之. 太子曰, 天下將亂. 非希世之雄, 不能濟也. 能安之者, 其在連乎. 卽與定謀. 於是, 大伴大連, 率兵自將, 圍大臣宅. 縱火燔之. 所攜雲靡. 眞鳥大臣, 恨事不濟, 知身難免[10], 計窮望絶. 廣指鹽詛. 遂被殺戮. 及其子弟. 詛時唯忘角鹿海鹽, 不以爲

---

1 소학관본에서는 '拖'라고 적고 있다.
2 소학관본에서는 '柂'라고 적고 있다.
3 소학관본에서는 '柂'라고 적고 있다.
4 소학관본에서는 '逐'이라고 적고 있다.
5 소학관본에서는 '拖'라고 적고 있다.
6 소학관본에서는 '比能'이라고 적고 있다.
7 소학관본에서는 '拖'라고 적고 있다.
8 소학관본에서는 '柂'라고 적고 있다.
9 소학관본에서는 '逗'라고 적고 있다.
10 소학관본에서는 '免'이라고 적고 있다.

詛. 由是, 角鹿之鹽, 爲天皇所食, 餘海之鹽, 爲天皇所忌.

十二月, 大伴金村連, 平定賊訖, 反政太子. 請上尊號曰, 今億計天皇子, 唯有陛下. 億兆攸歸, 曾無與二. 又賴皇天翼戴, 淨除凶黨. 英略雄斷, 以盛天威天祿. 日本必有主. 主日本者, 非陛下而誰. 伏願, 陛下仰答靈祇, 弘宣景命, 光宅日本. 誕受銀鄕. 於是, 太子命有司, 設壇場於泊瀨列城, 陟天皇位. 遂定都焉. 是日, 以大伴金村連爲大連.

元年 春三月丁丑朔戊寅, 立春日娘子爲皇后[未詳娘子父.]. 是年也, 太歲己卯.

二年 秋九月, 刳孕婦之腹, 而觀其胎.

三年 冬十月, 解人指甲, 使掘暑預. 十一月, 詔大伴室屋大連, 發信濃國男丁, 作城像於水派邑. 仍曰城上也. 是月, 百濟意多郎卒. 葬於高田丘上.

四年 夏四月, 拔人頭髮, 使昇樹巔. 斬倒樹本, 落死昇者爲快. 是歲, 百濟末多王無道, 暴虐百姓. 國人遂除, 而立嶋王. 是爲武寧王[百濟新撰云, 末多王無道, 暴虐百姓. 國人共除. 武寧王立. 諱斯麻王. 是琨支王子之子. 則末多王異母兄也. 琨支向倭. 時至筑紫嶋, 生斯麻王. 自嶋還送, 不至於京, 産於嶋. 故因名焉. 今各羅海中有主嶋. 王所産嶋. 故百濟人號爲主嶋. 今案, 嶋王是蓋鹵王之子也. 末多王, 是琨支王之子也. 此曰異母兄, 未詳也.].

五年 夏六月, 使人伏入塘槭, 流出於外, 持三刃矛, 刺殺爲快.

六年 秋九月乙巳朔, 詔曰, 傳國之機, 立子爲貴. 朕無繼嗣. 何以傳名. 且依天皇舊例, 置小泊瀨舍人, 使爲代號, 萬歲難忘者也. 冬十月, 百濟國遣麻那君

進調. 天皇以爲, 百濟歷年不脩貢職. 留而不放.

七年 春二月, 使人昇樹, 以弓射墜而唉. 夏四月, 百濟王遣斯我君進調. 別表曰, 前進調使麻那者, 非百濟國主之骨族也. 故謹遣斯我, 奉事於朝. 遂有子, 曰法師君. 是倭君之先[11]也.

八年 春三月, 使女躶形, 坐平板上, 牽馬就前遊牝. 觀女不淨, 沾濕者殺. 不濕者沒爲官婢. 以此爲樂. 及是時, 穿池起苑, 以盛禽獸. 而好田獵, 走狗試馬. 出入不時. 不避大風甚雨. 衣溫而忘百姓之寒, 食美而忘天下之飢. 大進侏儒倡優, 爲爛漫之樂, 設奇偉之戲, 縱靡靡之聲. 日夜常與宮人沈湎于酒. 以錦繡爲席. 衣以綾紈者衆. 冬十二月壬辰朔己亥, 天皇崩于列城宮.

日本書紀卷第十六

11 소학관본에서는 '祖'라고 적고 있다.

일본서기 권 제17

日本書紀 卷第十七

제26대 **남대적천황**(男大迹天皇) **계체천황**(繼體天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서기 권 제17

남대적천황(男大迹天皇 ; 워호도노스메라미코토) **계체천황**(繼體天皇 ; 케이타이텐노)

남대적천황(男大迹天皇 ; 워호도노스메라미코토)[1][다른 이름은 언태존(彦太尊 ; 히코후토

---

1 제26대 천황(재위 : 507~531)이다. 應神天皇의 5대손이며 彦主人王과 振媛命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한다(『釋日本紀』에 인용된 「上宮記」). 원래 近江國 高嶋郷 三尾野(滋賀縣 高島市)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나서 어머니의 고향인 越前國 高向(福井縣 坂井市 丸岡町 高椋)에서 자랐으며, 越前·近江 지역의 유력세력으로 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506년에 武烈天皇이 죽은 후 大伴金村이 그를 천황으로 추대하였으나 사양하다가 다음해 河內國 樟葉宮에서 즉위하였고, 仁賢天皇의 딸이자 무열천황의 누이인 手白香皇女를 황후로 삼았다고 한다. 그런데 507년에 즉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11년에 筒城宮, 518년 弟國宮 등 나라분지 바깥을 전전하였고, 526년에 비로소 磐餘의 玉穗宮(奈良縣 櫻井市)으로 옮겼다. 그의 불분명한 계보와 遷宮 등을 근거로 응신천황의 혈통을 부정하기도 하고 지방의 유력호족으로서 왕위를 찬탈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현천황의 딸인 수백향황녀를 황후로 맞아들인 한편 8명의 비를 정한 일, 백제가 이른바 임나 4현을 청하자 이를 허락한 일, 백제가 오경박사 단양이를 파견하고 이후 오경박사를 교대로 파견한 일, 백제에 기문과 대사의 지배권을 인정한 일, 백제가 伴跛(大加羅)와 대립한 일, 백제의 무령왕이 죽고 성왕이 즉위한 일, 신라에 멸망한 南加羅를 재건하기 위하여 近江毛野臣을 파견하려고 하였으나 磐井이 반란을 일으켜 이를 진압한 일, 근강모야신을 安羅에 파견하였으나 백제 및 신라와 갈등을 일으킨 일 등이 있다. 繼體紀에는 백제삼서 중 하나인 「百濟本記」가 인용되어 있고 한반도 관계 기사가 급증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가야 여러 나라의 멸망 과정에 대한 기사가 많아서 한국 고대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식 시호인 繼體에 대한 일본식 시호(和風諡號) 袁本杼命(『古事記』), 男太跡天皇(『新撰姓氏錄』), 乎富等大公王

노미코토)이다.]은 예전천황(譽田天皇 ; 호무타노스메라미코토)[2]의 5세손[3]이며, 언주인왕(彦主人王 ; 히코우시노오호키미)[4]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진원(振媛 ; 후루히메)이라고 한다. 진원은 활목천황(活目天皇 ; 이쿠메노스메라미코토)[5]의 7세손이다. 천황의 아버지는 진원의 용모가 단정하고 아주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근강국(近江國 ; 아후미노쿠니) 고도군(高嶋郡 ; 타카시마노코호리) 삼미(三尾 ; 미워)[6]의 별

(『釋日本紀』에 인용된 『上宮記』의 逸文), 雄大迹天皇(同 「筑後風土記」 逸文) 등으로 표기된다.

2 제15대 應神天皇이다. 실재한 최초의 천황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4세기 후반 또는 5세기 초의 倭王으로 생각된다.

3 문맥상 應神의 5세손인 彦主人王의 아들로 볼 수 있다. 『古事記』에서도 品太王(應神)의 5세손 袁本杼命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례적으로 그 사이 2대의 계보가 누락되어 있어서 武烈天皇까지의 應神王朝가 사실상 혈연적으로 단절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釋日本紀』 述義에 인용되어 있는 「上宮記」의 逸文에서는 凡牟都和希王(應神)–若野毛二俣王–大郎子(意富富等王)–乎非王–汙斯王–乎富等大公王에 이르는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 「上宮記」의 표기법이 「推古朝遺文」(7세기 초)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應神과 繼體 사이의 계보를 사실로 인정하는 주장도 있다. 현재는 繼體가 비록 應神의 5세손인지는 의문스럽지만,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야마토 지역 유력호족의 지지를 얻어 왕위에 즉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혈통상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雄略의 손녀이자 仁賢의 딸이고 武烈의 누이인 手白香皇女를 맞이하였고, 현재 천황가로 이어지는 欽明을 낳았다고 본다.

4 汙斯王으로도 표기하며, 應神天皇의 4세손으로 乎非王과 久留比賣命 사이에서 태어났다(『釋日本紀』). 滋賀縣 高島市 安曇川町에 있는 田中王塚古墳이 彦主人王의 무덤으로 추정되어 현재 陵墓參考地로 지정되어 있다.

5 『釋日本紀』에 인용된 「上宮記」에는 垂仁天皇으로부터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으나, 『古事記』나 『日本書紀』에 따르면 繼體는 부계와 모계가 동시에 垂仁天皇에 출자를 두고 있으므로, 모계만을 垂仁에서 계산하고 있는 점에 의문이 있다. 또 垂仁보다 실재성이 높은 應神에게는 대왕이 아닌 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6 현재 滋賀縣 高島郡 高島町이다. 여기서 보이는 國郡의 명칭은 8세기 이후 율령제하에서 정비되므로, 이는 『日本書紀』 편찬자가 편찬 당시의 지식에 근거하여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郡의 訓은 코호리(こほり)로, 우리 말의 '고을'과 동일한 어원으로 생각된다. 또

장[7]에 사람을 보내어, 삼국(三國 ; 미쿠니)의 판중정(坂中井 ; 사카나위)[8]으로부터 맞아들여 비로 삼았다. 비는 천황을 낳았으나, 천황이 아직 어릴 때 부왕(父王)이 죽었다. 진원이 탄식하여 "내가 지금 고향을 멀리 떠나 있으니 어찌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겠는가. 나는 고향(高向 ; 타카무코)[고향은 월전국(越前國 ; 에치젠노쿠니)의 읍명이다.][9]으로 돌아가 부모를 모시면서, 천황을 기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천황은 성장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어진 이를 예우하였으며, 마음이 관대하였다. 천황이 57세가 되던 (무열천황) 8년 겨울 12월 기해(8일)에 소박뢰천황(小泊瀨天皇 ; 워하츠세노스메라미코토)[10]이 죽었다(崩). 원래 자식이 없어서 후사가 끊어졌다.

임자(21일), 대반금촌대련(大伴金村大連 ; 오호토모노카나무라노오호무라지)[11]이 의논하기를, "지금 자손이 없어서 후사를 이을 수 없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화는 이로부터 일어났다[12]. 이제 족중언천황(足仲彦天皇 ; 타라시나카츠히코노스메라미코토)[13]의 5세손인

한 7세기 말까지는 郡 대신 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이 木簡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7 원문은 別業으로 別邸·別莊이라는 뜻이다. 주로 농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건물을 말하며 田宅·田家라고도 한다.

8 현재 福井縣 坂井市 三國町 지역이다.

9 현재 福井縣 坂井市 丸岡町 高田 부근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에는 振媛의 아버지인 오하치노키미를 모시는 高向神社가 있다

10 제25대 武烈天皇이다.

11 大伴氏는 고대 畿內의 대호족으로 大和政權의 성립, 발전과 더불어 來目部·靫負部·佐伯部 등을 이끌고 왕실의 호위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중앙의 군사력을 통솔하는 유력한 씨족이었다. 物部氏와 함께 일본 율령제 이전의 최고관직이었던 大連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金村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중엽에 걸쳐 武烈·繼體·安閑·宣化·欽明 5대의 大連이었다. 繼體의 영입, 임나4현의 할양, 磐井의 亂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欽明에 이르러 이른바 '任那문제'의 실패와 관련하여 실각한 것으로 전한다.

12 『漢書』 成帝紀 권10 '至今未有繼嗣, 天下無所係心. 觀于往古, 近事之戒, 禍亂之萌, 皆由斯焉'의 인용으로 보기도 한다.

왜언왕(倭彦王 ; 야마토히코노오호키미)이 단파국(丹波國 ; 타니하노쿠니) 상전군(桑田郡 ; 쿠하타노코호리)[14]에 계시니, 청컨대 의장(儀仗)을 갖추고 수레를 호위해, 나아가 맞아들여 왕으로 세웁시다."라고 하였다. 대신과 대련 등이 모두 따르므로 계획대로 맞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런데 왜언왕은 멀리 자신을 맞으러 오는 군사를 보고 놀라 안색이 변하여 산중으로 도망치니,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원년 봄 정월 신유삭 갑자(4일)에 대반금촌대련이 다시 도모하여, "남대적천황은 성품이 어질고 부모에게 순종하시니, 왕위를 계승할 만하다[15]. 바라건대 은근히 권하여 제업(帝業)의 융성함을 잇도록 합시다."라고 말하였다. 물부추록화대련(物部麤鹿火大連 ; 모노노베노아라카히노오호무라지)[16]과 허세남인대신(許勢男人大臣 ; 코세노오히토노오호오미) 등이 모두 "천황의 자손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어진 사람은 오직 남대적천황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병인(6일), 신련(臣連) 등을 파견하여 절(節)을 들고[17] 법가(法駕)[18]를 갖추어 삼

---

13 제14대 仲哀天皇이다.

14 현재 京都府 北桑田郡 및 龜岡市이다.

15 『漢書』 成帝紀 권10 「慈仁孝順, 可以承天序」의 인용으로 보기도 한다.

16 物部氏는 物部의 伴造로서 군사와 형벌 등을 관장하였으며, 大伴氏와 더불어 大連의 직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교 수용문제를 계기로 蘇我氏와 대립하여 세력을 잃었다. 武烈과 繼體 양 시기의 大連이었으며, 특히 繼體 21년에 大將軍이 되어 筑紫에서 일어난 磐井의 난을 진압하였다. 男人은 繼體期의 大臣이었으며, 두 딸이 安閑의 妃가 되었다.

17 원문은 持節이다. 節은 군주의 명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깃발이나 칼이 주로 사용되었다.

18 천자가 타는 수레의 한 종류이다. 천자가 타는 수레에는 大駕, 法駕, 小駕가 있는데, 법가는 6마리의 말이 끄는 금은으로 장식한 수레를 중심으로 이를 호위하는 수레 36대를 거느린다. 여기서는 남대적왕을 맞이 하기 위한 수레를 미화하기 위하여 『史記』·『漢書』 혹은 『藝文類聚』와 같은 類書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국(三國)으로 맞으러 갔다. 병장(兵仗)으로 호위하고 위의(威儀)를 갖추어 길잡이를 앞세워 급히 도착하니, 이때 남대적천황은 평온한 자세를 흩트리지 않고[19] 호상(胡床)[20]에 앉아서[21] 배신(陪臣)[22]을 정렬시키니 이미 제왕이 앉은 것과 같았다. 절을 든 사신들은 이에 황공하고 삼가하여, 정성을 기울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천황은 마음속에 여전히 미심쩍은 바가 있어 오래토록 나아가지 않았다. 그때 마침 하내마사수황롱(河內馬飼首荒籠 ; 카후치노우마카히노오비토아라코)[23]을 알고 지냈는데, (황롱이)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대신과 대련들이 맞아들이려는 참뜻을 자세히 전하였다. 그래서 이틀 밤 삼일 낮을 머무른 후에야 드디어 출발하였다. 이때 (천황은) 찬탄하여 "훌륭하도다,

---

19 『三國志』 吳志 孫堅傳 권1 「晏然自若」의 인용으로 보기도 한다.

20 한 사람이 앉는 접이식 의자를 말한다. 앉는 부분은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원래 胡族이 쓰던 것으로 이동 중 야외에서 사용하였다. 隋代에 이르러 胡라는 말을 피하여 交床이라고 하였다(『太平御覽』 演繁露).

21 원문은 踞坐이다. 据坐라고도 하며 걸터앉는다는 뜻이다. 古墳時代의 土偶를 통하여 수장이나 무녀가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2 천자에 대한 제후, 제후에 대한 家臣을 모두 陪臣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원래 男大迹王이 거느리고 있던 가신들을 말한다.

23 河內馬飼首는 河內馬飼部를 통솔하는 씨족을 말한다. 河內馬飼部는 難波를 중심으로 말의 사육 및 마구의 제작에 종사한 도래계 씨족으로 생각된다. 5세기에 河內의 古市郡과 讚良郡 지역에 말의 사육을 담당하는 집단이 있었으며, 荒籠은 讚良郡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한 大阪府 四條畷市 蔀屋北遺跡에서는 마구·제염토기를 비롯하여 말의 유골 등 말의 사육을 관장한 집단과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지역은 고대 河內湖에 인접한 곳으로, 해상교통이 원활한 곳인 동시에 말의 사육에 필수적인 제염도 용이한 곳이었다. 이곳을 하내마사수 집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도 河內馬飼首御狩(『日本書紀』 繼體天皇 23년 4월, 24년 9월)·河內馬飼首押勝(『日本書紀』 欽明천황 22년) 등이 『日本書紀』에 보인다.
하내마사수 집단은 사육한 말을 유력 호족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말을 이용한 물자의 운송에도 종사하였을 것이므로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을 것이다. 황롱이 이전부터 男大迹王과 알고 지냈고 또한 大伴金村大連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던 점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사수(馬飼首)여. 만일 네가 사람을 보내어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뻔하였다. 세간에서 귀천을 따지지 말고 단지 그 마음을 중시할 일이다라고 한 말은 무릇 황롱의 일을 일컬음이다."라고 하였다. 즉위함에 이르러 황롱을 두텁게 대우하였다.

갑신(12일), 천황이 장엽궁(樟葉宮 ; 쿠스하노미야)[24]에 이르렀다.

2월 신묘삭 갑오(4일), 대반금촌대련이 무릎을 꿇고 천황의 신분을 표시하는 거울과 칼을 올리고 두 번 절하니, 남대적천황이 사양하기를 "백성을 자식처럼 거느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중대한 일이다. 과인은 재능이 없어서 천황이 될 자격이 없으니, 원컨대 생각을 바꾸어 어진 이를 택하라. 과인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반대련(大伴大連)은 땅에 엎드려 간절히 청하였으나 남대적천황은 서쪽으로 앉아 세 번 사양하고, 남쪽을 향하여 두 번 사양하였다. 대반대련 등이 모두 말하기를 "신들이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왕은 백성을 자식처럼 거느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합당한 분입니다. 신들이 종묘사직을 위하여 일을 도모할 때 가벼이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남대적천황은 "대신과 대련, 장상(將相)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과인을 추천하니 과인은 감히 어길 수가 없다."고 하고, 마침내 새부(璽符)를 받았다[25]. 이 날, 천황의 자리에 올랐

---

24 현재 大阪府 枚方市 楠葉이다. 奈良과 京都 쪽에서 흘러오는 桂川·宇治川·木津川이 합류하여 淀川이 되는 지역으로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繼體는 5년 10월에 山背 筒城, 12년 3월 弟國을 거쳐 20년 9월에야 磐余 玉穗, 즉 大和地域에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사들로 보아 繼體 즉위 당시 大和地域 호족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繼體紀의 기년 자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遷宮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에는 男大迹王이 大和·河內 지역을 봉쇄하는 형태로 大和 외곽지역에 포위망을 형성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5 『漢書』 文帝紀 권4의 「代王曰, '奉高帝宗廟重事也. 寡人非敢當.' 群臣皆伏固請, 代王西鄉讓者三, 南鄉讓者再. 丞相平等皆曰, '臣伏計之, 大王奉高祖宗廟最宜稱, 雖天下諸侯萬民, 皆以爲宜, 臣等爲宗廟社稷, 計不敢忽. 願大王幸聽臣等, 臣謹奉天下璽符.' 再拜上. 代王

다. 그리고 대반금촌대련을 대련으로, 허세남인대신을 대신으로, 물부추록화대련을 전과 같이 대련으로 삼았다. 그래서 대신과 대련 등 각각의 지위가 정해졌다.

경자(10일) 대반대련(大伴大連)이 주청하기를 "신이 듣건대 과거의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후계자[26]가 확실하지 않으면 천하를 다스릴 수 없고, 의좋은 왕비[27]가 없으면 좋은 자손[28]을 얻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백발천황(白髮天皇 ; 시라카노스메라미코토)[29]은 후사가 없었으므로 신의 조부 대반대련실옥(大伴大連室屋 ; 오호토모노오호무라지무로야)[30]을 보내어 각 지역에 세 가지의 백발부(白髮部 ; 시라카베)[세 가지라고 한 것은 첫째 백발부사인[31](白髮部舍人 ; 시라카베노토네리), 둘째 백발부공선[32](白髮部供膳 ; 시라카베노카시하데), 셋째 백발부차부[33](白髮部靫負 ; 시라카베노유케히)이다.][34]를 두어,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曰, '宗室將相王列侯以爲其宜寡人, 寡人不敢辭.' 遂卽天子位.」의 인용으로 보기도 한다.

26 維城은 宗子, 즉 왕위를 계승할 황태자를 말한다.

27 掖庭은 中宮, 혹은 황후의 거처를 말한다.

28 扶蘡은 꽃받침이다. 전하여 형제가 함께 번성함을 뜻한다.

29 제23대 淸寧天皇이다.

30 允恭代에 이름이 처음 보이며 雄略代에 大連이 되었다. 武以의 아들, 金村의 조부로 전하며, 大伴氏로서 실재가 거의 확실한 최초의 인물이다. 雄略에서 武烈의 5대에 걸쳐 大連을 지내면서 雄略 사후에 일어난 星川皇子의 반란을 진압하고, 淸寧代에는 白髮部 舍人, 膳部, 靫負를 설치하고, 武烈代에는 水派邑에 성을 쌓는 등 다방면에 걸쳐 활동하였으며, 大伴氏 전성기의 기초를 쌓았다.

31 舍人은 일본 고대 율령제하에서 천황, 황후, 황태자의 측근에서 잡역 및 호위숙직 등을 담당한 하급관료이며, 중국 진대에 궁중에서 숙직과 잡역을 담당하는 관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본에서는 5세기대에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기사 중의 淸寧天皇 단계에서는 部民制로 파악되는 皇室私有民이었을 것이나, 『日本書紀』 편찬 당시 율령제의 지식으로 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2 供膳은 膳夫와 같다. 궁중에서 食膳을 담당한 하급관리로 원래 조리를 담당한 伴部였으나, 伴造制의 확립과 더불어 品部로서의 膳部로 변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어찌 애처롭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수백향황녀(手白香皇女 ; 타시라카노히메미코)[35]를 황후로 맞아들이고, 신기백(神祇伯)[36] 등을 보내어 세상의 온갖 귀신에게 제사지내고 황자를 기원하여 백성의 소망에 답하소서."라고 하였다. 천황이, "좋다[37]."고 하였다.

3월 경신삭(1일), 조를 내려 "귀신을 제사지내는 데는 신주(神主)가 없을 수 없고, 천하에는 군주(君主)가 없을 수 없다. 하늘은 백성을 낳고, 우두머리를 세워 그들을 도와 기르도록 하였고, 그 본성과 천명을 온전히 하도록 하였다[38]. 대련은 짐에게 자식이 없음을 진심으로 걱정하고[39], 국가를 위하여 대대로 충

---

33 채부는 활통을 지고 궁정의 경호를 담당한 무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점차 의미가 확대되어 율령제하의 衛府 관인을 총칭하게 되었다. 특히 궁성문을 지키는 衛門府를 靫負司라고 하였다. 5~6세기 단계에서는 왕족을 근시하는 名代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丹比靫負部와 刑部靫負部 등도 있었다.

34 『日本書紀』 淸寧天皇 2년 2월조에 「天皇恨無子, 乃遣大伴室屋大連於諸國, 置白髮部舍人白髮部膳夫白髮部靫負. 冀垂遺跡, 令觀於後.」라는 기사가 보인다. 이들 部는 白髮天皇에게 봉사하는 천황 및 황족의 사유민적 성격을 가진 御名代및 子代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이나, 名代와 子代를 구별하고자 하는 견해 및 『日本書紀』 편찬자가 皇居의 소재지 등 지명을 부명으로 하는 부를 名代와 子代로 부회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35 제24대 仁賢天皇의 皇女이다. 『古事記』에서는 手白髮命으로 나온다. 어머니는 雄略天皇의 皇女 春日大娘이다. 繼體天皇이 應神天皇의 5세손이라는 기록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手白香皇女를 매개로 繼體가 應神 및 仁德王朝와 혈연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이해한다.

36 율령제하에서의 神祇官의 장관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신지관 등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율령제 관념에 의한 文飾이다.

37 원문은 可이다. 養老 公式令 詔書式에 의하면 천황의 명령대로 詔書를 작성하면 年月日 다음에 '可'라고 써 넣어 시행하도록 하였다.

38 『藝文類聚』 권13 帝王部 晋元帝의 「晋劉琨勸進元帝表曰,"臣聞, 天生蒸民, 樹之以君, ~ 司牧黎元 ~天地不可以無響 ~ 黎元不可以無主」 및 권52 治政部 論政의 「晋潘岳九品議曰, 天生蒸民, 以樹之君, 使司牧之, 勿失其性」에 의한 문식이다.

39 男大迹王이 천황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이미 尾張連草香의 딸인 目子媛과 혼인하여 두 아들이 있었고, 이들이 각각 安閑·宣話天皇으로 즉위하였다. 자식이 없다고 한 것은 천황가의 여자 사이에 둔 아들이 없다는 뜻이다. 手白香皇女와 혼인한 것은 천황가와의 혈

성을 다하고 있다. 어찌 짐의 재위기간뿐이겠는가. 예의를 갖추어 수백향황녀를 맞아들이도록 하라."고 하였다.

갑자(5일), 수백향황녀를 황후로 세우고 내전(內)의 일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마침내 아들을 낳으니, 이가 천국배개광정존(天國排開廣庭尊 ; 아메쿠니오시하라키히로니하노미코토)[40]이다[開는 하라키(波羅企)라고 읽는다.]. 이가 적자(嫡子)이나 나이가 어렸으므로, 두 형이 다스린 후에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다[두 형은 광국배무금일존(廣國排武金日尊 ; 히로쿠니오시타케카나히노미코토)[41]과 무소광국압순존(武小廣國押盾尊 ; 타케워히로쿠니오시타테노미코토)[42]이다.].

무진(9일), 조를 내려 "짐이 듣건대 남자가 해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세상에 기근이 들 수 있으며, 여자가 해마다 베를 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추위에 떠는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제왕은 몸소 농사지어 농업을 권장하고, 후비(后妃)는 친히 누에를 길러 뽕잎을 제때 주도록 격려한다[43]고 한다. 하물며 백료(百寮)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농사와 베짜기를 그만둔다면 어찌 윤택해질 수 있겠는가. 유사(有司)들은 천하에 널리 포고하여 짐의 뜻을 알리도록 하라."고 하였다.

계유(14일), 여덟 명의 비(妃)를 맞아들였다[8비를 맞아들인 시기에는 비록 그 선후가 있으나, 여기에서 계유에 맞아들였다고 한 것은 천황이 즉위하자 좋은 날을 택하여 비로소 후궁으로 배수(拜授)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경우도 이에 따랐다[44].]. 원비(元妃)는 미

연적인 관계를 보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40 제29대 欽明天皇(재위 : 539~571)이다. 연령상으로는 繼體의 셋째 아들이다.

41 제27대 安閑天皇이다. 繼體의 장자이며 어머니는 目子媛이다.

42 제28대 宣化天皇이다. 繼體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目子媛이다.

43 『藝文類聚』 권11 帝王部 神農氏의 「呂氏春秋曰, 神農教曰, 士有當年不耕者, 則天下或受其飢矣. 女有當年不績者, 則天下或受其寒矣. 故夫親耕, 妻親績」에 의한 문식으로 보기도 한다.

44 이 分註는 여러 비를 맞아들인 날은 다르지만, 천황이 즉위한 후 일괄해서 특정한 날에

장련초향(尾張連草香 ; 워하리노무라지쿠사카)의 딸로 목자원(目子媛 ; 메노코히메)[45]이라 한다[다른 이름은 색부(色部 ; 시코후)이다.]. 두 아들을 낳으니, 모두 천하를 다스렸다. 그 첫째는 구대형황자(勾大兄皇子 ; 마가리노오호에노미코)[46]로, 이가 광국배무금일존이다. 둘째는 회외고전황자(檜隈高田皇子 ; 히노쿠마노타카타노미코)로, 이가 무소광국압순존이다. 차비(次妃)는 삼미각절군(三尾角折君 ; 미워노츠노오리노키미)의 누이로 치자원(稚子媛 ; 와카코히메)이라 한다. 대랑황자(大郎皇子 ; 오호이라츠코노미코)와 출운황녀(出雲皇女 ; 이즈모노히메미코)를 낳았다. 다음은 판전대과왕(坂田大跨王 ; 사카타노오호마타노오호키미)의 딸로 광원(廣媛 ; 히로히메)이라 한다. 세 딸을 낳으니 맏이는 신전황녀(神前皇女 ; 카무사키노히메미코)라 하고, 둘째는 자전황녀(茨田皇女 ; 마무타노히메미코)라 하고, 막내는 마래전황녀(馬來田皇女 ; 우마구타노히메미코)라 한다. 다음은 식장진수왕(息長眞手王 ; 오키나가노마테노오호키미)의 딸로 마적낭자(麻績娘子 ; 워미노이라츠메)라 한다. 두각황녀(荳角皇女 ; 사사케노히메미코)[荳角은 사사케(娑佐碍)라고 읽는다.]를 낳으니, 이 황녀는 이세대신(伊勢大神 ; 이세노오호미카미)의 제사를 받들었다. 다음은 자전련소망(茨田連小望 ; 마무타노무라지노워모치)의 딸[혹은 누이라 한다.]로, 관원(關媛 ; 세키히메)이라 한다. 세 딸을 낳으니 맏이는 자전대낭황녀(茨田大娘皇女 ; 마무타노오호이라츠

기록한다는 범례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이미 安康天皇 3년조 이후 여러 곳에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최초의 사례에서 범례를 밝히는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日本書紀』에서 나타나는 체제상의 통일성 결여의 한 예이다.

45 『古事記』 繼體天皇段에서는 「尾張連等之祖, 凡連之妹 目子娘女」라고 하였다. 繼體가 尾張地域의 호족세력을 배경으로 大和地域 호족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天皇이 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 繼體를 近江 및 越前을 중심으로 한 息長氏 세력으로 보고, 도래계 씨족의 철제기술 등을 바탕으로 畿內의 大王이 된 것으로 파악하는 주장도 있다.

46 제27대 安閑天皇의 즉위 이전의 칭호이다. 勾는 현재의 橿原市 曲川町의 지명으로 추정되며, 大兄은 皇子 중 적장자 또는 유력 황자에 대한 용어이다. 대형은 天智天皇 이후 사용되지 않으며, 황태자제가 정착되기 이전 시기에 가장 유력한 왕위계승자와 황후 및 정비의 장자를 지칭하였다.

메노히메미코), 둘째는 백판활일희황녀(白坂活日姬皇女 ; 시라사카이쿠히노히메미코), 막내는 소야치랑황녀(小野稚郎皇女 ; 워노노와카이라츠메노히메미코)[다른 이름은 장석희(長石姬 ; 나가이하히메)라고 한다.]라 한다. 다음은 삼미군견위(三尾君堅槭 ; 미워노키미카타히)의 딸로 왜원(倭媛 ; 야마토히메)이라 한다. 2남 2녀를 낳으니 첫째는 대낭자황녀(大娘子皇女 ; 오호이라츠메노히메미코), 둘째는 완자황자(椀子皇子 ; 마로코노미코)로, 삼국공(三國公 ; 미쿠니노키미)의 선조이다. 셋째는 이황자(耳皇子 ; 미미노미코), 넷째는 적희황녀(赤姬皇女 ; 아카히메노히메미코)라 한다. 다음은 화이신하내(和珥臣河內 ; 와니노오미카후치)의 딸로 이원(荑媛 ; 하에히메)이라 한다. 1남 2녀를 낳으니 첫째는 치릉희황녀(稚綾姬皇女 ; 와카야히메노히메미코), 둘째는 원랑황녀(圓郎皇女 ; 츠부라노이라츠메노히메미코), 셋째는 후황자(厚皇子 ; 아츠노미코)라 한다. 다음은 근왕(根王 ; 네노오호키미)의 딸로, 광원(廣媛 ; 히로히메)이라고 한다. 두 아들을 낳으니 맏이는 토황자(兎皇子 ; 우사기노미코)로 주인공(酒人公 ; 사카히토노키미)의 선조이며, 아우는 중황자(中皇子 ; 나카츠미코)로 판전공(坂田公 ; 사카타노키미)의 선조이다. 이 해의 간지[47]는 정해이다.

2년 겨울 10월 신해삭 계축(3일), 소박뢰치초료천황(小泊瀨稚鷦鷯天皇 ; 워하츠세노와카사자키노스메라미코토)을 방구반배구(傍丘磐杯丘 ; 카타워카노이와츠키노워카)의 능에 장사지냈다.

12월, 남해(南海)[48]의 탐라인이 처음으로 백제국과 통교하였다.

---

47 원문에는 太歲로 되어 있다. 원래는 木星을 의미하였으나, 목성이 12년을 주기로 天球를 순행하므로 12支와 결부되어 어떤 해의 간지를 표시하게 되었다. 간지로 기년을 표시하는 방법은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한반도에서 고대의 일정 기간 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日本書紀』에서 태세 간지로 기년을 표시한 것은 백제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日本書紀』 繼體天皇 25년조 참조.

48 현재의 제주도인 탐라를 남쪽 바다에 있다고 본 이 기사는 『日本書紀』 繼體紀와 欽明紀에 다수 인용되어 있는 『백제본기』를 출전으로 하였을 것이다. 일본과 직접 관련이 없는

3년 봄 2월, 사신을 백제에 보냈다[『백제본기(百濟本記)』[49]에서는 "구라마치지미(久羅麻致支彌 ; 쿠라마치키미)[50]가 일본으로부터 왔다."고 하였으나, 자세하지 않다.]. 임나의 일본현읍(日本縣邑)에 사는 백제 백성 중에 본관지로부터 부랑 도망하여 호적에서 삭제된 지 3·4대가 지난 자를 조사하여 백제로 보내어 관(貫)에 올렸다[51].

5년 겨울 10월, 도읍을 산배(山背 ; 야마시로)의 통성(筒城 ; 츠츠키)[52]으로 옮겼다.

백제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예는 백제왕과 태자의 사망 및 즉위기사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용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기년의 확정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에서는 백제본기 문주왕 2년(476) 및 동성왕 2년(498)에 각각 탐라 관계기사가 보인다.

49 『日本書紀』에 인용되어 있는 백제삼서 중 하나이며, 주로 繼體紀와 欽明紀를 중심으로 보인다. 分註의 형태로 18개소에 보이며, 실제로 계체기와 흠명기의 한반도관계기사의 대부분이 『백제본기』에 의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백제의 무령왕 및 성왕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며, 그 원형은 편년체의 실록류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편찬주체에 대해서는 크게 왜의 군사 원조를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제에서 편찬하였다는 설과 백제 멸망 후 왜에 망명한 백제인들 중 특정씨족이 자신의 유래를 밝히기 위해 편찬하였다는 설, 원래 백제에서 편찬된 사서를 바탕으로 후대에 윤색과정을 거쳐 『日本書紀』에 인용되었다는 설 등 세 가지 설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 백제유민 편찬설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백제본기』 자체에도 통일된 체제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 기술체계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점이 있다.

50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百濟本記』의 원문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車持君으로 보는 설이 있다.

51 浮逃는 일정하게 사는 곳 없이 떠돌아 다니거나[浮浪], 피하거나 쫓겨 달아남[逃亡]을 말한다. 貫은 戶籍이다. 백제로부터 임나로 도망해 들어 와서 백제의 호적에서 빠진 것이 3~4대가 지난 사람들을 백제로 돌려보냈다는 뜻이다. 여기에 보이는 浮逃, 絶貫, 括出, 附貫 등은 모두 律令制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고구려의 침략으로 한강 유역을 상실한 백제가 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인구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이들을 推刷하기 위하여 道使를 파견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6년 여름 4월 신유삭 병인(6일), 수적신압산(穗積臣押山 ; 호츠미노오미오시야마)[53]을 백제에 사신으로 보냈다. 이에 축자국(筑紫國 ; 츠쿠시노쿠니)의 말 40필을 하사하였다.

겨울 12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조(調)를 바치고 따로 표를 올려[54] 임나국(任那國)의 상다리(上哆唎)[55], 하다리(下哆唎)[56], 사타(裟陀)[57], 모루(牟婁)[58] 4현을 청하였다. 다리국수인 수적신압산이 아뢰기를, "이 4현은 백제에 근접해 있고, 일본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백제와 4현은) 아침저녁으로 교통하기 용이하고 닭과 개의 소리도 어느 쪽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59]. 이제 백제에 주어 같은 나라로 합치게 한다면, 굳게 지키는 대책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를 합쳐도 후세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데[60], 하물며 따로 떨

---

52 山城國 綴喜郡으로 현재 京都府 綴喜郡 田邊町 普賢寺 일대로 추정된다. 12년 3월에 弟國으로 천도하였고, 다시 20년 9월에 磐余玉穗宮으로 천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3 穗積臣은 物部氏에서 갈라져 나온 支族이다. 『日本書紀』 開化天皇 卽位前紀 참조. 天武 13년 11월에 朝臣이라는 성을 하사받았다. 押山은 6년 12월조나, 23년 3월조에 哆唎國守 및 下哆唎國守 등으로 나타나므로 단순한 使者가 아니라 백제의 왜계관료로서 해당 지역에 파견된 地方官으로 볼 수도 있다. 혹은 일본의 蕃國觀에 의한 윤색일 가능성이 크다.

54 별도로 이른바 임나 할양과 관계된 상표문을 바쳤다는 뜻이다.

55 哆는 현재의 한자 음가가 '치'이지만, 과거에는 '다'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옛 음에 따랐다. 哆唎는 전라남도의 榮山江 東岸, 혹은 섬진강 서안, 구체적으로는 여수(猿村縣)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56 전라남도 여수 突山縣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57 전라남도 구례군 沙等 또는 沙等村 혹은 欵平郡(현재의 순천)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58 전라남도의 서부 靈光, 高敞, 務安, 光陽(馬老縣) 지방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상의 4현은 전라남도 모든 전역에 이르는 지역이다. 『梁職貢圖』의 麻連과 연관시켜 보는 견해도 있다.

59 哆唎는 백제와는 아침저녁으로 교통하기에 쉽고, 닭과 개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로 가까운 나라이다. '雞犬相聞'이라는 말은 『老子』및 陶潛의 『桃花源記』에서 '人家가 근접하여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60 설령 백제에 합병해도 후세의 안전은 보증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백제와 분리해 둔다면

어져 있다면 몇 년도 제대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대반금촌대련(大伴大連金村)도 이 말을 믿고 뜻을 같이하여 상주(上奏)하였다. 이에 물부대련추록화(物部大連麤鹿火)를 조칙을 전하는 사신으로 삼았다. 물부대련(物部大連)이 백제 사신에게 칙을 전하기 위하여 난파관(難波館)[61]으로 막 떠나려고 할 때 그 처가 간곡히 청하기를[62], "무릇 주길대신(住吉大神 ; 스미노에노오호카미)[63]이 처음으로 바다 저쪽[64]의 금은이 가득한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등을 태중(胎中)에 있던 예전천황(譽田天皇)[65]에게 주셨습니다[66]. 그러므로 대후(大后)[67]식장족희존(息長足姬尊 ; 오키나가타라시히메노미코토)[68]과 대신(大臣) 무내숙녜(武內宿禰 ; 타케우치노스쿠네)가 나라마다 처음으로 관가(官家 ; 미야케)[69]를 설치하

아무래도 몇 년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백제 중심으로 표현이므로, 『백제본기』에서 인용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61 難波館은 이곳에 처음 나타나는데, 여기서 외국의 사신을 宿泊시켰다. 옛 터는 大阪 시내에 있다.

62 『漢書』 文帝紀에는 '황태후가 완고하게 청했다(皇太后固要).'고 되어 있다.

63 住吉神社의 祭神을 말한다. 表筒男, 中筒男, 底筒男의 3신을 모신다. 뒤에 神功皇后를 合祀하였다. 『延喜式』 神名式 攝津國 住吉郡에는 '住吉이라는 곳에 진좌해 있는 신사의 4좌(住吉坐神社四座)'라고 되어있다. 현재 大阪市 住吉區이다.

64 바다의 바깥, 바다 밖(海外)을 말한다.

65 應神天皇이다. 이 부분은 神功皇后의 三韓 정벌 전설을 언급하고 있다.

66 원문은 授記이다. 梵語 vyakarana의 번역어로 預言이라는 의미이다. 불교 용어로 장래에 成佛을 증명한다는 뜻이다. vyakarana는 授記, 受別, 受決이라고도 하며, 和伽羅那라고 음역되기도 한다. 부처가 어떤 사람들에게 성불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다.

67 應神天皇의 母后이므로 후대의 皇太后와 같은 뜻이다.

68 神功皇后이다. 大后라고도 한다. 천황은 많은 妻를 거느렸으며 妻의 신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율령제도의 도입과 함께 후궁 제도도 갖추어져 養老令, 儀制令과 後宮職員令에는 正妻를 皇后라고 하고 妻인 內親王을 妃, 이 이외를 夫人 혹은 嬪이라 하고 있다. 『日本書紀』에서는 神武 이래 황후라는 칭호를 사용하였고, 그 후 妃 이하의 호칭을 점차 많이 사용하지만, 이것들은 『日本書紀』 편찬 당시의 令의 관념에 의해서 구분하여 쓴 것일 것이다.

고 바다 저쪽의 번병[70]으로 삼았으니,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할하여 다른 나라에 주면 원래의 영토와 다르게 됩니다. 후세까지 비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71].”라고 하였다. 대련이 답하여 “이치에 합당한 말이나, 천황의 칙명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처는 간청하여 “병을 핑계 삼아 칙

---

69 『日本書紀』에서는 한반도 관계기사에는 전부 官家라고 써서 일본열도의 屯倉과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같은 ‘미야케’이다.
屯倉 및 官家의 뜻은 천황에 속한 건물(御宅), 즉 屋舍와 倉庫에 대한 敬稱이기 때문에 郡家나 正倉 혹은 개인적인 莊園의 시설 등도 일반적으로 미야케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日本書紀』의 屯倉은 國家制度로서의 미야케로, 大化改新 이전의 조정 직할의 농업경영지 혹은 직할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초기의 둔창은 仁德 11년, 13년조의 茨田屯倉과 같이 대부분 治水灌漑 공사에 의한 대규모 水田 개발의 결과로 성립한 것으로, 5세기에 들어가는 무렵부터 畿內 지방에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류의 둔창에는 농민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시키고, 倉庫와 관리시설이 설치되고 屯倉首 등의 현지관리자가 배치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농민에 대한 수취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또 보통은 이러한 둔창 내의 농민을 田部라고 불렀다고 하고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미야케라는 명칭으로부터 이러한 둔창을 창고를 중심으로 出擧에 의한 농민지배방식이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倉庫 등의 시설이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미야케라고 불린 것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므로 둔창의 본질을 특히 창고라는 기능에서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초기의 둔창에 대하여 繼体 22년 12월조의 糟屋屯倉처럼 國造 등의 지방호족이 그 소유지의 일부를 贖罪 등의 목적으로 조정에 헌상한 결과 성립된 것이 6세기에 들어가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종류의 둔창에는 나중에 하나의 군에 상당하는 것도 적지 않고, 종래의 주민이 그대로 둔창의 백성이 되어 국조의 일족 등이 현지관리자에 임명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새롭게 창고 등의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주민에 대한 수취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의 점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둔창이 되기 전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세금을 걷기 위한) 과세지구적 둔창 등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또 6세기에는 良田만을 占定하여 중앙으로부터 田令이라는 감독자를 파견하여 외부 농민의 徭役勞動으로 경영하는 둔창이 나타난다. 安閑 원년 10월조의 小墾田, 桜井, 難波屯倉, 12월조의 竹村屯倉 등이 그런 예이다.

70 해외의 속국으로서 유래는 오래되었다. 藩屛은 울타리, 가려서 막는다는 뜻이다.

71 명주솜이 가늘고 길게 이어진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후세에 언제까지나 비난(非難)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을 알리는 일을 그만두십시오."라고 하였다. 대련은 그 청에 따라서 사자를 바꾸어 칙을 알렸다. 하사품과 칙명의 뜻을 전하고, 상표에 따라[72] 임나 4현을 주었다. 대형황자(大兄皇子 ; 오호에노미코)[73]는 그전에 사정이 있어 영토의 할양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그러한 칙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놀라 이를 고치고자 하였다. "태중지제(胎中之帝)[74] 이래 관가를 설치하였던 나라를 가볍게 이웃 나라[75]가 요구하는 대로 주어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일응길사(日鷹吉師 ; 히타카노키시)[76]를 보내어, 백제 사신에게 칙을 바꾸어 알렸다. 사신은 대답하여 "아버지인 천황이 사정을 살펴서 칙명을 내렸는데, 아들인 황자[77]가 어찌 천황의 칙명을 어기고 함부로 고쳐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이는 반드시 거짓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78] 몽둥이의 굵은 쪽으로 때리는 것과 가는 쪽으로 때리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아프겠는가."라고 하고, 돌아가 버렸다. 이에 "대반대련(大伴大連)과 다리국수 수적신압산이 백제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

72 백제의 상표문에 응하였다는 뜻이다.

73 勾大兄皇子로 후의 安閑天皇이다.

74 應神天皇을 말한다. 神功皇后가 임신한 상태로 三韓을 정벌하였다는 전승 때문에 생긴 명칭이다.

75 원문은 蕃國이다.

76 이름이 없다. 仁賢 6년조에도 보인다. 吉士는 姓이다.

77 천황의 아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勾大兄皇子이다.

78 만약 황자의 명령이 사실이라면 몽둥이의 큰 쪽 끝으로 치는 것과 가는 끝으로 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아프겠냐는 뜻이다. 천황의 勅은 무겁고, 황자의 命은 가벼운 것을 비유한 말이다. 4현 할양문제 기사는 전해지는 이야기와 같은 전승적인 기록에 의거하였다고 생각되는 바가 많다. 또한 穗積臣押山은 7년 6월조와 같이 『百濟本記』에 의거하여 記事를 작성하고 '意斯移麻岐彌'라고 注記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아무 주기가 없으므로, 일본 측의 기록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 같다. 한편 4현이라는 名稱이나 押山이 아뢴 말 등은 『百濟本記』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즉 4현 할양의 사건은 일본의 기록과 『百濟本記』 두 기록을 합하여 사건의 경과를 정리해서 12월의 한 기사로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7년 여름 6월, 백제가 저미문귀(姐彌文貴)[79] 장군(將軍)[80]과 주리즉이(州利卽爾)[81] 장군을 수적신압산[『백제본기』는 위(委)[82]의 의사이마기미(意斯移麻岐彌 ; 오시야마키미)[83]라고 하였다.]에 딸려 보내어 오경박사(五經博士)[84] 단양이(段楊爾)[85]를 바쳤다. 그리고 따로 "반파국(伴跛國)[86]이 신의 나라의 기문(己汶)[87]이라는 땅을 약탈하

---

79 姐彌는 백제성으로 眞牟氏 혹은 眞氏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저미문귀는 繼體 9년 2월에 백제로 귀국하였다.

80 백제의 장군으로 처음 보이는 것은 『日本書紀』의 木羅斤資와 『삼국사기』 근초고왕대의 莫古解가 있다. 이들은 백제의 최고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左將 휘하에서 군사작전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비시대에는 方과 郡에 소속된 지방군이 있었는데, 이 기사에서 두 명의 將軍이 동시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方令의 휘하에 있는 郡將 혹은 郡의 長官인 郡將(郡令)일 것이다. 『周書』에서는 郡將 3인(德率)을 두었다고 하였으나, 『翰苑』에서는 郡將은 恩率이 맡는다고 하여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郡將은 德率이나 恩率이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81 州利卽次로도 보인다. 繼體 10년 9월에 다시 왜국에 파견되었다.

82 委는 倭와 통용되는 글자이다. 奴國王印에서도 倭를 委로 쓴 예가 보인다.

83 穗積臣押山의 押山을 '오시야마'라고 읽은 것으로 보인다.

84 五經은 『詩經』, 『書經』, 『易經』, 『春秋』, 『禮記』이며 博士는 이들 경전을 硏究 敎授하는 官人을 말한다. 6세기 전반에 백제는 여러 차례 왜에 五經博士를 교대제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들 五經博士 중에는 당시 南朝 梁의 관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의 漢字音 중 吳音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85 백제가 왜에 파견한 최초의 五經博士(513)이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오경박사 漢高安茂와 교체되었다. 『삼국사기』에는 백제가 梁에 毛詩博士의 파견을 요청한 것이 보이고, 중국 사서에도 梁의 講禮博士 陸詡가 백제에 파견된 것이 보인다.

86 경상북도 고령에 있던 小國의 이름이다. 후에 大加羅로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本波, 『양직공도』의 叛波도 동일한 지명으로 생각되며, 성주로 보는 견해도 있다.

87 전라북도 남원·임실지역에 있던 小國의 이름이다. 『梁職貢圖』에도 上己文이 보이고, 『翰苑』에 인용된 『括地志』에 基汶河가 보인다. 이는 섬진강으로 보이며 기문 역시 섬진강 유역으로 있었던 소국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지역도 가야문화권에 속한 곳이므로 기문이 백제의 영토였다는 것은 백제의 주장이고, 실제로는 백제가 이 지역을 공격하여 점령한 것으로 보인다. 기문과 관련된 기사들은 고령의 반파국 등 가야의 여러 나라들이 반발하여 백제에 대항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문을 장수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바르게 판단하여 원래 속한 곳에 돌려 주십시오."라고 아뢰었다.

가을 8월 계미삭 무신(26일), 백제태자 순타(淳陀)[88]가 죽었다(薨)[89].

9월, 구대형황자(勾大兄皇子 ; 마가리노오호에노미코)가 친히 춘일황녀(春日皇女 ; 카스가노히메미코)를 찾아갔다. (둘은) 달밤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날이 샜다. 풍류가 절로 말이 되어 나오니 이에 노래하였다.

팔도국(八島國 ; 야시마쿠니)[90]에서 처를 얻지 못하였는데, 춘일국(春日國 ; 카스가노쿠니)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훌륭한 회나무 문을 열고 들어와, 여인의 다리 쪽 옷 끝과 머리 쪽 옷 끝을 잡고, 여인의 손은 나를 안고, 나의 손은 여인을 안고, 안은 채로 함께 잠이 든 사이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 꿩도 울고 있다. 아름답다고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밤이 새어 버렸구나, 나의 여인이여.

비(妃)는 이에 화답하였다.

박뢰천(泊瀨川 ; 하츠세노카하)을 흘러내려온 대나무여. 무성한 대나무여. 마디마

---

88 『日本書紀』의 기록에 따르면 무령왕의 태자이지만, 『삼국사기』 등에는 보이지 않는다. 후대에 『續日本紀』에서는 桓武天皇의 母后인 高野新笠이 純陁의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日本書紀』에는 그러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高野新笠은 원래 和史乙繼의 딸인데, 和史는 문필을 담당하는 집안이다.

89 백제 태자의 죽음을 薨이라고 한 것은 『百濟本記』의 기사를 인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령왕릉 묘지석에서 무령왕의 죽음을 崩이라고 하였으므로, 태자의 죽음은 薨으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日本書紀』 편찬자의 입장이라면 백제 태자의 죽음을 卒로 표기했을 것이다.

90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 즉 日本을 말한다.

디 빼어난 대나무여. 뿌리 쪽이 굵은 곳은 금(琴 ; 코토)을 만들고, 꼭대기 가는 곳은 피리를 만들어 타고 붑니다. 어제산[91] 위에 올라가 제가 내려다보니, 반여(磐余 ; 이하레) 연못의 고기도 물 위에 나와 찬미합니다. 우리 대군(大君)이 매고 있는 가는 모양의 띠가 드리워져 있으니, 누구나 찬탄하고 있습니다[92].

겨울 11월 신해삭 을묘(5일), 조정에 백제의 저미문귀 장군, 사라(斯羅)의 문득지(汶得至)[93], 안라(安羅)의 신이해(辛已奚) 및 분파위좌(賁巴委佐), 반파(伴跛)의 기전해(既殿奚)[94]와 죽문지(竹汶至) 등을 불러 칙명을 알리고, 기문(己汶)과 대사(滯沙)[95]를 백제국에 주었다.

같은 달, 반파국이 집지(戢支)를 보내어 진보를 바치고 기문의 땅을 청하였으나, 결국 주지 않았다.

12월 신사삭 무자(8일), 조를 내려 "짐이 제위를 이어 종묘를 지키게 되니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였다. 요즈음 나라가 안정되고 천하가 태평하며 계속 풍년이 들어 나라가 풍요하게 되었다. 마려고(摩呂古 ; 마로코)야, 나의 마음을 온 세상에 보이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지금 일본은 평화로우며 나의 명성은 천하에 알려져 있고, 추진(秋津 ; 아키즈시마)의 세력은 번성하고 있으며 나의 영예가 왕기(王畿)에 가득 차 있다. 오로지 어진 이를 귀하게 여기고 선을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성화(聖化)가 이에 멀리까지 미치게 되며, 현공(玄

---

91 원문은 御諸山이다. 三輪山을 가리킨다.

92 남자가 여자의 집을 찾아가는 결혼형태인 妻問婚과 관련된 노래와 의식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古事記』와 『만엽집』에도 이와 유사한 노래가 실려있다.

93 汶得至 이하 辛已奚, 賁巴委佐, 竹汶至는 여기에서만 보인다.

94 『日本書紀』 欽明天皇 2년 4월조의 加羅 上首位 古殿奚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95 帶沙라고 표기된 寫本도 있어서 滯沙는 오기로 보인다. 음이 섬진강 하류 河東의 古名인 韓多沙와 통한다. 뒤에도 帶沙로 보이므로 滯를 '대'로 읽어둔다.

功)이 이에 오랫동안 전해지게 된다. 이를 행하는 데 네가 힘이 된다. 마땅히 춘궁(春宮)에 거처하는 이로서 짐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일을 도우고, 나를 보필하여 부족함을 채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8년 봄 정월, 태자비 춘일황녀(春日皇女)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 평소와 달랐다. 태자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어전에 들어가 보았다. 비는 침상에 누워 울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태자가 이상히 여겨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울고 있으니, 무슨 슬픈 일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비가 "별다른 일이 아닙니다. 첩이 오직 슬퍼하는 바는 하늘을 나는 새도 새끼를 아름답게 키우기 위하여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틀며, 땅을 기는 벌레도 새끼를 지키기 위하여 땅속에 굴을 파니, 그 지키려는 마음이 두텁다고 하겠습니다. 하물며 사람으로서 어찌 생각이 없겠습니까? 지금 태자에게 후사가 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첩의 이름이 마침내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태자가 슬프게 여기고 천황에게 알렸다. 그러자 천황은 조를 내려 "짐의 아들 마려고야, 너의 비의 말이 참으로 이치에 닿는다. 어찌 그에 답하여 위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갑포둔창(匣布屯倉 ; 사호노미야케)[96]을 주어, 비의 이름이 만대까지 전하도록 하라."고 하였다[97].

---

96 屯倉은 大和政權의 직할 지배지 및 그곳에 설치된 관리시설, 창고 등을 일컫는 말이다. 大阪 평야와 같은 농업경영의 요지나 吉備와 筑紫 등의 군사 및 교통상의 거점에 설정되었으며, 곡물과 무기를 비축하는 창고를 세웠다. 농경지는 현지의 농민을 田部로 설정하여 경작토록 하였다. 6세기에 들면, 지방호족들이 지배하던 영역의 일부를 중앙에 바치게 하여 둔창으로 삼는 예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匣布는 佐保로도 표기하며 大和國 添上郡의 지명으로 현재 奈良市 佐保川町이며 春日과 가까운 곳이다. 佐保川의 상류 일대를 뜻하며, 沙本(『古事記』 開化段)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97 屯倉과 함께 이를 경작하는 田部를 春日皇女의 이름을 딴 사유민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처럼 천황이나 황족의 이름이 후대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한 部民을 名代라고 한다. 645년 大化改新에 이르러 名代 등의 사유민을 폐지한다.

3월, 반파가 자탄(子呑)[98]과 대사(帶沙)에 성을 쌓고, 만해(滿奚)[99]와 연합하여 봉수와 저각(邸閣)[100]을 설치하여 일본에 대비하였다. 또 이열비(爾列比)[101]와 마수비(麻須比)[102]에 성을 쌓고 마차해(麻且奚)[103] 추봉(推封)[104]과 연합하여, 군사와 병기를 모아 신라를 핍박하였다. 남녀를 포로로 삼고 마을을 노략질하니, 습격을 받은 곳은 살아남은 자가 드물었다. 포악하고 사치스러우며 사람을 괴롭히고 마구 학살하니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9년 봄 2월 갑술삭 정축(4일), 백제 사자 문귀장군 등이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이에 칙을 내려 물부련(物部連 ; 모노노베노무라지)[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105]을 돌아가는 사신에 딸려 보냈다[『백제본기』에서는 물부지지련(物部至至連 ; 모노노베노치치노무라지)이라고 하였다.].

같은 달, 사도도(沙都嶋)[106]에 이르러 반파의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강한 힘에 의지하여 잔혹한 짓을 일삼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물부련은 수군 5백 명을 이끌고 바로 대사강(帶沙江)[107]으로 나아갔다. 문귀장군은 신라를 거

---

98 子呑은 子他, 즉 경상남도 晉州(고명 居陁)로 추정된다.

99 滿奚는 섬진강의 서안인 광양으로 추정된다. 섬진강을 따라 남하하는 백제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하여 하동–광양, 진주 등에 있던 소국들이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100 무기와 양식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

101 경북 慈仁(古名 奴斯火), 경남 義寧(古名 獐含), 경남 부림(古名 辛爾縣)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102 경남 三嘉(고명은 三支 및 麻杖), 경남 창녕군 영산면 등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103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고명 推浦縣), 창녕 남지 등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104 경북 현풍(고명 推良火), 경남 밀양(고명 推火)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105 『日本書紀』 繼體天皇 23년 3월조의 物部伊勢連父根와 동일인물로 보인다.

106 거제도를 말한다. 거제도의 서북쪽에 위치한 沙等面 沙等里에 유사한 지명이 보인다. 섬진강 쪽으로 항해하기 위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사등면에는 신라 신문왕 때 쌓았다고 전하는 沙等城址가 남아 있다.

쳐 백제로 들어갔다.

여름 4월, 물부련이 대사강에서 머문 지 6일 되었을 때 반파가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왔다. 이에 옷을 빼앗기고 가진 것을 약탈당하고 막사[108]는 모두 불탔다. 물부련 등은 두려워 도망가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 문모라(汶慕羅)[汶慕羅는 섬이름이다.][109]에 머물렀다.

10년 여름 5월, 백제가 전부목리불마갑배(前部木刕不麻甲背)[110]를 보내어 기문에서 물부련을 맞이하여 위로하고, 백제로 인도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각자 의복과 무기와 천을 내어 나라에서 내린 물품[111]에 더하여 조정에 쌓아놓았다. 위로하는 바가 간절하였으며, 평상시보다 상록(賞祿)이 많았다.

가을 9월, 백제가 주리즉차(州利卽次) 장군을 물부련에게 딸려 보내어 기문의 땅을 준 것에 감사하였다. 그리고 따로 오경박사 한고안무(漢高安茂)[112]를 바쳐 박사 단양이와 교체해 줄 것을 청하였다. 청하는 바에 따라 교체시켰다.

무인(14일), 백제가 작막고(灼莫古)[113] 장군과 일본의 사나노아비다(斯那奴阿比

---

107 섬진강의 옛 이름으로 생각된다.

108 원문은 帷幕이다.

109 남해도 등으로 추정되지만 분명하지 않다. 慕羅는 모라 즉 일본어에서 村을 뜻하는 '무라'의 어원이며, 우리 말의 '마을'이란 뜻이다.

110 前部는 백제 도성을 구획하는 五部 중 하나이며 五部는 上部, 前部, 中部, 下部, 後部이다. 部名은 五方과 혼용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木刕는 木劦으로도 표기된 경우가 있으나, 이는 木羅의 異表記로 생각되므로 木刕가 옳다. 木羅氏로는 木羅斤資, 木劦滿致(木滿智) 등을 들 수 있다. 甲背는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로 갑옷을 입은 자라는 뜻으로 생각된다.

111 원문은 國物이다.

112 단양이와 교체된 오경박사이다. 高라는 성은 고구려 계통에도 있지만, 여기서 특히 漢을 冠稱한 것은 그가 중국 계통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113 여기에서만 보인다. 姐彌文貴 將軍과 마찬가지로 郡將으로서 외교 사절로 파견된 것으

多 ; 시나노아히타)[114]를 고구려[115]의 사신 안정(安定)[116] 등에 딸려 보내어 내조하고 우호를 맺었다.

12년 봄 3월 병신삭 갑자(9일), 제국(弟國 ; 오토쿠니)[117]으로 천도하였다.

17년 여름 5월, 백제 무령왕(武寧王)이 죽었다[118].

18년 봄 정월, 백제태자 명(明)이 즉위하였다[119].

20년 가을 9월 정유삭 을유(13일), 반여(磐余)[120]의 옥수(玉穗 ; 타마호)[어떤 책

로 보인다. 灼은 백제의 성씨 중 燕 혹은 適·嫡의 이표기로 보기도 한다. 『日本書紀』 顯宗天皇 3년 是歲條에 適莫爾解, 『日本書紀』 安閑天皇 원년 5월조에 嫡德孫이 보인다.

114 斯那奴는 氏, 阿比多는 이름 혹은 直(아타이)이라는 姓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日本書紀』 欽明天皇 5년 2월조 및 14년 정월과 8월조에 백제 사신으로 斯那奴次酒와 科野次酒가 보이므로 斯那奴는 科野로도 썼음을 알 수 있다. 日本이라고 冠稱한 점으로 미루어 倭人으로서 백제 관인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倭系 百濟官僚로 생각된다.

115 원문은 高麗이다.

116 고구려가 왜에 파견한 최초의 사신이지만, 달리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117 山城國 乙訓郡을 가리키며, 현재 京都府 長岡京市 今里 부근으로 추정된다. 繼體가 이처럼 야마토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 지역으로 遷宮을 계속한 이유에 대하여 그가 應神天皇의 5세손이 아니라 越前 등 奈良盆地 외부의 호족세력이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118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도 무령왕 23년(523) 5월에 왕이 죽으므로(薨) 시호를 무령이라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무령왕릉 묘지석에서도 계묘년(523) 5월 丙戌朔 7일 壬辰에 寧東大將軍 百濟 斯麻王이 죽으므로(崩), 을사년(525) 8월 12일에 장사지냈다고 하였다.

119 백제의 제26대 聖王(聖明王, 재위 : 523~554)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諱가 明襛 혹은 明穠이라고 하였다. 무령왕의 아들이며 재위 32년에 관산성전투 과정에서 신라군의 기습을 받아 죽었다.

120 奈良縣 櫻井市 池之內 일대로 생각된다. 天香久山의 북쪽, 櫻井市의 남부지역으로 神

에서는 7년이라고 하였다.]로 천도하였다.

21년 여름 6월 임신삭 갑오(3일), 근강모야신(近江毛野臣 ; 오후미노케나노오미)[121]이 무리 6만을 거느리고 임나에 가서 신라에 의해 멸망당한 남가라(南加羅)[122]와 탁기탄(喙己呑)[123]을 다시 일으켜 세워 임나에 합치고자 하였다[124]. 이때 축자(筑紫 ; 츠쿠시)의 국조(國造) 반정(磐井 ; 이하위)[125]이 은밀히 반역을 도모한 지 수년이 지났다. 그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항상 틈을 보고 있었다. 신라가 이를 알고 몰래 뇌물을 반정에게 보내어 모야신의 군사를 막아주기를 권유하였다. 이에 반정은 화국(火國 ; 히노쿠니)[126]과 풍국(豊

功皇后와 履中天皇의 磐余稚櫻宮, 淸寧天皇의 磐余甕栗宮, 用明天皇의 磐余池邊雙槻宮 등이 조영된 곳이다. 현재까지 宮의 자취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稚櫻神社 서남쪽 300m에 위치한 낮은 구릉을 磐余玉穗宮 터로 추정하고 있다. 繼體는 즉위한 지 20년 만에 奈良盆地 내부로 들어온 셈이며, 이곳에서 죽었다고 한다.

121 『古事記』에는 建內宿禰(武內宿禰)의 후손으로 波多臣 및 淡海臣이 있다고 하였는데, 近江臣은 淡海臣의 이표기로 생각된다. 近江毛野臣에 관한 내용은 그의 죽음과 관련된 가요 등의 일본 측 전승과 가야, 신라의 인명·지명을 담은 한반도 계통의 자료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122 金海의 加羅國을 가리킨다. 高靈의 大加羅가 성장하면서 加羅國을 南加羅로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

123 가야 소국 중 하나로 생각되며 경산, 낙동강 동안의 영산 주변, 영산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124 近江毛野臣이 6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은 『日本書紀』 편찬자의 윤색으로 보인다. 繼體 23년 3월 是月條에 보이는 것처럼 安羅에 파견된 사신이었던 것이다. 만약 그 정도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다면 磐井의 방해나 반란을 얼마든지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신라의 공격으로 곤경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125 『古事記』 繼體段에서는 竺紫君 石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筑後風土記』 逸文에는 磐井의 무덤에 관한 기록이 있고, 현재 福岡縣 八女市의 岩戶山古墳이 磐井의 묘로 추정되고 있다.

126 九州의 활화산인 阿蘇山 주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肥國으로도 표기하였다. 율령제에서는 肥前國과 肥後國으로 분리되었다.

國 ; 토요노쿠니)[127]의 두 지역을 점거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밖으로는 해로를 막아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국의 연공을 바치는 배를 끌어들이고, 안으로는 임나에 파견하는 모야신의 군사를 차단하고 함부로 큰소리치기를, "지금 사신은 전에는 나의 동료로서 몸을 서로 부비고 한 그릇에 밥을 나누어 먹었는데, 어찌 갑자기 사신이 되었다고 나로 하여금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가."라고 하고 싸움을 일으켜 따르지 않으며, 교만하고 기세등등하였다[128]. 이에 모야신은 방해를 받아 중도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천황은 대반대련금촌(大伴大連金村 ; 오호토모노오호무라지카나무라)과 물부대련추록화(物部大連麤鹿火)와 허세대신남인(許勢大臣男人 ; 코세노오호오미워히토) 등에게 조를 내려, "축자의 반정이 반란을 일으켜 서쪽의 변방을 점거하고 있으니, 누가 가히 장군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대반대련 등이 입을 모아 "정직하고 어질고 용감하며 병법에 달통한 바가 지금 추록화(麤鹿火)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천황이 "좋다."고 하였다.

가을 8월 신묘삭(1일), 조를 내려 "대련이여, 반정이 복종하지 않고 있다. 그대가 가서 정벌하라."고 하였다. 물부대련추록화가 두 번 절하고, "무릇 반정은 서융(西戎)의 간교한 자로서 물이 막힌 것을 믿고 복종하지 않고, 산이 험한 것을 의지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덕을 등지고 도를 어기면서 교

127 九州의 동북부 지역으로, 현재 福岡縣의 동부 및 大分縣 전역에 해당한다. 7세기 말에 豊前國과 豊後國이 설치되었다.

128 磐井의 난에 대해서는 大和政權의 한반도 출병으로 인한 군사적·경제적인 부담에 築紫 지역 수장층이 반발한 것으로 보는 견해를 비롯하여, 大和政權의 지방에 대한 직접지배를 강화하는 데 대한 불만, 九州 지역이 大和政權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전쟁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磐井의 동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新羅가 磐井과 결탁 혹은 지원하여 大和政權과 대립토록 하고 있는 점이다. 신라가 김해 등 가야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가야와 大和政權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磐井과 제휴했을 개연성이 높다.

만하게 우쭐거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도신(道臣 ; 미치노오미)[129]으로부터 실옥(室屋 ; 무로야)[130]에 이르기까지 천황을 도와 나쁜 무리들을 벌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구해온 바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늘의 도움만은 신이 항상 중히 여기는 바입니다. 삼가 명을 받들어 정벌에 나서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를 내려 "좋은 장수가 군사를 일으킴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며, 자신을 미루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다. 공격하면 강물이 터지는 것과 같이 하고, 싸우면 바람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거듭 조를 내려 "대장은 백성의 생명을 좌우하며, 사직의 존망이 걸려있다. 분발하여 삼가 천벌을 실행하라."고 하고, 천황이 친히 부월(斧鉞)을 잡아 대련에게 내리면서 "장문(長門 ; 나가토)[131] 동쪽은 짐이 다스린다. 축자(筑紫) 서쪽은 그대가 다스려서 상벌을 스스로 시행하고 일일이 보고하지 말라."고 하였다.

22년 겨울 12월 갑인삭 갑자(11일), 대장군 물부대련추록화가 친히 적의 우두머리 반정과 축자의 어정군(御井郡 ; 미위노코호리)[132]에서 교전하였다. 깃발과 북소리가 마주하니, 먼지가 자욱이 일어났다. 양 군사 사이에 승기를 잡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쓴 전투가 벌어졌으나, 마침내 반정을 참하고 반란을 완전히 평정하였다.

12월 축자군갈자(筑紫君葛子 ; 츠쿠시노키미쿠즈코)가 아버지의 죄에 연좌되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조옥둔창(糟屋屯倉 ; 카스야노미야케)[133]을 바치고 용서해

---

129 神武天皇을 섬겼다고 전하는 道臣命을 가리킨다. 그는 大伴氏의 시조로 전한다.

130 大伴大連金村의 조부이다. 道臣과 室屋이 모두 大伴氏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麤鹿火의 발언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다만 大伴氏를 대신하여 物部氏가 그 일을 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131 일본열도 本州의 서쪽 끝으로 현재의 山口縣 북동부에서 서반부를 말한다.

132 筑後國 御井郡으로 현재의 福岡縣 三井郡이다.

줄 것을 청하였다.

23년 봄 3월, 백제왕이 하다리의 국수(國守) 수적신압산에게, "조공하는 사자들이 항상 해안의 험한 절벽[134][해안의 들쑥날쑥한 험한 절벽을 말한다. 세간에서 미사키(美佐祁)라고 한다.]을 피해 다니며, 바람과 파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물품들이 물에 젖어 모두 망가지고 못쓰게 된다. 청컨대 가라의 다사진(多沙津)[135]을 신(臣)이 조공하는 통로로 삼게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압산신(押山臣)이 청에 따라 (천황에게) 주상하였다.

같은 달, 물부이세련부근(物部伊勢連父根 ; 모노노베노이세노무라지치치네)[136]과 길사로(吉士老 ; 키시노오키나)[137] 등을 보내어 진을 백제왕에게 주었다. 이에 가라왕이 칙사에게 "이 진은 관가(官家)를 둔 이래 신이 조공하는 나루였는데, 어찌 갑자기 이웃 나라에 줄 수 있습니까. 원래 분봉받은 영토와 다릅니다."라고 하였다. 칙사인 부근(父根) 등은 이에 그 자리에서 주기가 어렵다고 여기고 큰 섬으로 돌아가서, 따로 녹사(錄史)[138]를 보내어 마침내 부여(扶余)[139]에 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가라는 신라와 우호를 맺고 일본을 원망하였다. 가라왕은 신라

---

133 筑前國 糟屋郡으로 현재의 福岡縣 糟屋郡이다.

134 원문은 島曲이다. 이를 '미사키'라고 한다.

135 帶沙 및 滯沙로도 보인다. 加羅의 多沙라고 한 것은 任那의 滯沙라고 한 기록과 다른 계통의 사료로 생각된다. 전자가 백제 계통의 사료라면 후자는 가야 계통의 사료로 생각된다.

136 『日本書紀』 繼體天皇 9년 2월조의 物部至至連과 동일인물로 생각된다.

137 吉士는 수장을 뜻하는 고대어이다. 일본 고대에도 氏名과 姓으로 쓰였다. 氏名으로는 『新撰姓氏錄』에 吉志氏는 大彦命을 시조로 하는 難波忌村과 同祖라고 하였다. 吉士老는 다른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138 문서 기록 등을 담당하는 하급 관인을 말한다.

139 백제를 뜻한다. 538년에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였다.

의 왕녀와 혼인하여 드디어 자식을 낳았다[140]. 신라가 처음 왕녀를 보낼 때, 아울러 1백 명을 시종으로 보냈다[141]. 이들을 받아들여 각 현에 나누어 배치하고 신라의 의관을 착용토록 하였다[142]. 아리사등(阿利斯等)[143]은 그들이 옷을 바꾸어 입은 것에 분개하여 사자를 보내어 모두 모아 돌려보냈다. 이에 신라가 크게 부끄러워하고[144] 다시 왕녀를 불러오고자 하여 "전에 그대의 청혼을 받아들여 내가 혼인을 허락하였으나, 이제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왕녀를 돌려보내줄 것을 청한다."고 하였다. 가라의 기부리지가(己富利知伽)[145][잘 알 수 없다.]가 "짝을 지어 부부가 되었는데 어찌 다시 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자식이 있는데 어찌 버리고 갈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마침내 신라는 지나가는 길에 도가(刀伽), 고파(古跛), 포나모라(布那牟羅)[146]의 세 성을 함락시켰으며, 또한 북쪽 변경의 다섯 성을 쳤다[147].

---

140 『三國史記』 新羅本紀에 의하면 법흥왕 9년(522)에 가라의 국왕이 신라에 통혼을 청하므로 신라는 伊湌 比助夫의 누이를 보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신라와 통혼한 加羅에 대해서는 고령의 大加羅로 보는 설과 김해의 加羅國으로 보는 설로 나누어져 있으나 고령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41 1백 명의 종자를 가라를 침략하기 위해 파견한 잘 훈련된 공작원이나 첩자로 보인다.

142 각 지역에 신라 왕녀의 종자를 배치한 주체에 대하여 가라왕과 신라왕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원문의 착란이 있는 것 같다.

143 4월조에 任那王 己能末多干岐가 보이며, 『日本書紀』 편찬자는 阿利斯等과 동일인물로 보고 있다. 아리사등이라는 이름은 垂仁紀 都怒我羅斯等, 敏達紀 12년 7월조의 火葦北國造 阿利斯登이 보인다. 아리사등을 位號로, 기능말다를 인명으로 보아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가라국왕, 탁순국왕 등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144 부끄러워 하였다기보다는 분노하였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145 己富里는 '고을'의 고대어로 '고후리', '고훌' 등으로 읽혔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자로는 評이라고 표기하였고, 村(무라, 마을)보다 상위의 지방 단위이다. 따라서 己富利知伽는 고을의 수장 혹은 그의 이름으로 생각된다.

146 가야지역의 지명으로 생각되지만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布那牟羅는 5城 속에도 다시 보인다.

147 『日本書紀』 繼體天皇 24년 9월조의 5城으로 생각된다.

같은 달, 근강모야신을 안라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신라에 천황의 칙을 전하여 남가라와 탁기탄을 재건토록 권하였다. 백제는 장군 군윤귀(君尹貴)[148], 마나갑배(麻那甲背)[149], 마로(麻鹵) 등을 파견하여, 안라에 가서 조칙을 들었다. 신라는 번국(蕃國)[150]에 있는 관가를 멸망시켰으므로 두려워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자[151]를 보내지 않고, 부지나마례(夫智奈麻禮)[152]와 해나마례(奚奈麻禮) 등을 안라에 보내어 조칙을 듣게 하였다. 이때 안라는 새로 고당(高堂)을 만들어 칙사를 오르게 하였다. 안라의 국주는 그 뒤를 따라 계단을 올랐으며, 안라의 관위가 높은 자도 한두 사람이 당에 올랐으나 백제의 사신 장군 군(君) 등은 당 아래에 있었다[153]. 여러 달 동안 당 위에서 회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장군 군 등은 당 아래에 있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여름 4월 임자삭 무자(7일), 임나왕(任那王) 기능말다간기(己能末多干岐)[154]가

148 이하 세 사람은『日本書紀』欽明天皇 2년 4월조, 4년 12월조에도 보인다.

149 『日本書紀』武烈天皇 6년 10월조에도 백제에서 왜로 파견되었다. 흠명 2년 4월조의 城方甲背味奴도 동일인물로 생각된다.

150 蕃國은『養老令』公式令에 보이는 용어로 신라와 발해를 지칭하며, 당을 지칭하는 隣國과 대비된다. 8세기에 일본은 관념적으로 蕃國을 하위로 보고, 隣國은 대등한 관계로 파악하였다. 이 기사 속의 蕃國도 그러한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

151 원문은 大人으로, 대인은 국정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층 인물을 말한다. 신라의 경우 干 혹은 飡이란 관등을 가진 관인들이 가야 소국의 왕인 旱岐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奈末은 10등 이하의 관위로, 실무관료라고 할 수 있다.

152 달리 보이지 않는다. 奈麻禮는 奈麻 및 奈末과 마찬가지로 신라 17관등 중 11번째 관등의 이표기이다. 신라어로는 '나말'인 것으로 생각되며 奈麻禮의 禮는 'ㄹ' 받침을 나타내기 위한 글자로, 奈麻는 받침을 생략한 형태로 볼 수 있다.

153 將軍 君尹貴 등도 高堂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將軍이라는 지위는 안라국왕 및 안라의 고위관인인 旱支보다 낮았음을 알 수 있다.

154 己를 已의 誤記로 보고『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인용된『釋順應傳』의 大加羅 9대왕인 異腦王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異腦王은 신라 比枝輩의 딸과 결혼하여 月光太子를 낳았다고 한다.

내조하였다[기능말다라고 함은 아마 아리사등(阿利斯等)일 것이다.]. 그리고 대반대련 금촌에게 "무릇 바다 건너 여러 나라는 태중천황(胎中天皇)[155]이 내관가(內官家)를 둔 이래, 원래의 국왕에게 그 통치를 위임한 것은 참으로 도리에 합당한 일이었다. 이제 신라가 원래 주어진 영토를 무시하고 빈번하게 국경을 넘어 내침하고 있다. 청컨대 천황에게 주상하여 신의 나라를 구원해 주시오."라고 알렸다. 대반대련은 청에 따라 주상하였다.

같은 달, 사신을 파견하여 기능말다간기를 전송하고, 아울러 임나에 있는 근강모야신(近江毛野臣)에게 "보고된 바를 조사하고, 서로 의심하고 있는 바를 화해시키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모야신은 웅천(熊川)[156]에 머물면서[어떤 책에서는 임나의 구사모라(久斯牟羅)[157]에 머물렀다고 하였다.], 신라와 백제 두 나라의 왕을 소집하였다. 신라왕 좌리지(佐利遲)[158]는 구지포례(久遲布禮)[159][어떤 책에서는 구례이사지우나사마리(久禮爾師知于奈師磨利)[160]라고 하였다.]를 보내고 백제는 은솔(恩率)[161] 미등리(彌騰利)를 보내어 모야신이 있는 곳에 가게 하였으며, 두 왕이 직접 오지 않았다. 모야신은 크게 노하여 두 나라의 사신을 문책하여,

---

155 應神天皇이다. 神功皇后가 應神을 임신한 상태로 삼한 정벌에 나섰다고 하는 『日本書紀』의 기록에 따라 그를 胎中天皇이라고도 한다. 앞에서는 胎中之帝라고 하였다.

156 경상남도 진해시 웅천동 일대로 생각된다. 웅천 앞의 薺浦는 조선 전기에 왜관이 설치된 곳으로도 유명하며, 임진왜란 당시에는 웅천 앞 남산에 웅천왜성이 축조되었다. 웅천은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왕래하는 데 편리한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157 현재의 창원과 마산 지역의 고명이었던 屈自郡과 연관시키는 견해가 있다. 합포만을 중심으로 포상팔국의 한 나라인 骨浦國이 있었고, 그 중심이 己叱己利城(현재 城山貝塚으로 추정)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骨浦國이 후에 卓淳國으로 국명을 바꾼 것으로 보기도 한다

158 法興王의 이름인 原宗 혹은 당시 신라의 중신이었던 哲夫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159 居柒夫(荒宗)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60 한 사람의 인명으로 보고 있으나, 久禮爾師知와 于奈師磨利의 두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161 백제의 16관등 중 네 번째 관등이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이 정한 도리이다[어떤 책에서는 큰 나무의 끝은 큰 나무로 잇고, 작은 나무의 끝은 작은 나무로 잇는다고 하였다.]. 무슨 까닭으로 두 나라의 왕이 직접 와서 천황의 칙명을 받지 않고 함부로 사자를 보내는가. 지금 만일 너희 왕이 몸소 칙명을 들으러 온다고 해도, 내가 칙명을 전하지 않고 반드시 물리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구지포례와 은솔 미등리는 두려운 마음을 품고 각자 돌아가 왕에게 알렸다. 이로 말미암아 신라는 다시 상신(上臣) 이질부례지간기(伊叱夫禮智干岐)[162][신라는 대신(大臣)을 상신이라고 한다. 어느 책에서는 이질부례지나말(伊叱夫禮知奈末)이라고 하였다.]를 파견하였으며, 무리 3천 명을 이끌고 칙명을 듣기를 청하러 왔다. 모야신은 멀리 무장을 갖춘 무리 수천 명을 보고 웅천으로부터 임나의 기질기리성(己叱己利城)[163]으로 들어갔다. 이질부례지는 다다라원(多多羅原)[164]에 머물면서 귀복하지 않고 석 달을 기다리면서 번번이 칙명을 듣기를 청하였으나, 끝내 칙명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질부례지가 거느린 병사들이 마을에서 구걸을 하며 모야신의 종자 하내직마사수어수(河內直馬飼首御狩 ; 카후치노우마카히노오비토미카리)[165]가 있는 곳을 지나갔다. 어수는 다른 사람의 집에 숨어서 구걸하는 병사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주먹을 휘두르며 멀리서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걸식하던 자들이 이를 보고 "삼가 석 달이나 기다리며 칙지를 듣기를 고대하였는데, 아직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칙명을 듣고자 하는 사신을 괴롭혔다. 이제 속임수를

---

162 6세기를 대표하는 신라의 장군인 異斯夫를 가리킨다. 伊叱夫禮+智+干岐로 구성되어 있으며, 智는 수장 혹은 존칭으로 사용된 말이다. 干岐는 旱岐 혹은 旱支로도 표기되며 역시 수장을 뜻하는 말이다. 가야 소국의 왕들은 旱岐라고 불렀다.

163 창원 시내에 위치한 城山貝塚으로 생각된다. 城山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성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낮은 독립 구릉으로 방어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久斯牟羅와 동일한 곳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164 낙동강 하구 동안의 多大浦, 혹은 낙동강 하구에 형성된 삼각주로 생각된다.

165 『日本書紀』 繼體天皇 24년 9월조에는 河內母樹馬飼首御狩로 보인다. 주 23 참조.

써서 상신을 주륙하려고 함을 알겠다."고 하면서, 본 바를 상신에게 자세히 일렀다. 상신은 네 촌[금관(金官)[166], 배벌(背伐)[167], 안다(安多), 위타(委陁)[168]가 그 네 촌이다. 어떤 책에서는 다다라(多多羅), 수나라(須那羅), 화다(和多), 비지(費智)의 네 촌이라고 하였다.]을 초략하여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어떤 사람은 "다다라 등 네 촌이 공격을 받은 것은 모야신의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가을 9월에 거세남인대신(巨勢男人大臣 ; 코세노워히토노오호오미)[169]이 죽었다.

24년 봄 2월 정미삭(1일), 조를 내려 "반여언제(磐余彦帝 ; 이하레비코노스메라미코토)[170]와 수간성왕(水間城王 ; 미마키노키미)[171] 이래로 천하를 다스리는 데 모두 박식한 신하와 명철한 보좌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므로 도신(道臣)이 방책을 올려 신일본(神日本 ; 카무야마토)[172]의 시대가 번성하였으며, 대언(大彦 ; 오호히코)[173]이 계략을 올려 첨경식(瞻瓊殖 ; 이니웨)[174]의 시대가 융성하였다. 황위를 이은 자로서 중흥의 공을 세우고자 하는 자라면, 현철의 모책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소박뢰천황(小泊瀨天皇)[175]이 세상을 다스림에 이르러 과거 성

---

166 金官은 아래에 보이는 須那羅(쇠나라)에 대한 訓表記로 보인다. 김해 가라국의 중심지일 것이다.

167 背伐은 背評(能備己富里)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168 委陁는 和多의 異表記로 생각된다.

169 『續日本紀』 天平勝寶 3년 2월 기묘조에 雀部朝臣眞人의 奏狀에 의하면 巨勢男人은 繼體와 安閑 양 조정의 大臣이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繼體 23년 9월에 죽었다면 安閑 때 大臣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繼體紀의 紀年을 의심하기도 한다.

170 神武天皇이다.

171 崇神天皇이다. 崇神紀에 御間城入彦五十瓊殖天皇이라고 하였다.

172 神武天皇의 시대를 말한다.

173 孝元天皇의 아들로 四道將軍의 한 사람이다.

174 崇神天皇이다.

175 武烈天皇이다.

인들의 공적에 힘입어 태평함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백성들은 점차 폐단에 빠져 깨어날 줄 모르고, 정치도 점점 쇠퇴하여 고쳐지지 않게 되었다. 다만 적당한 인물이 각각의 재능에 따라 천거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큰 계략이 있는 자는 그 단점을 묻지 않으며, 뛰어난 재능이 있는 자는 그 부족한 점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종묘를 능히 받들 수 있고, 사직을 위태롭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현명한 신하의 보좌가 없을 수 없다. 짐이 제업을 이은 지 이제 24년이 되어 천하가 태평하여 안팎으로 우환이 없으며, 토지가 비옥하여 곡식이 잘 여물고 있다. 짐이 근심하는 바는 이로 말미암아 타성에 젖어 교만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렴한 이를 발탁하여 대도를 선양하고 홍화를 널리 펴도록 하는데, 인재를 적절하게 기용하는 일은 예로부터 어려운 것이었다. 짐에 이르러서도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176].

가을 9월, 임나의 사신이 "모야신(毛野臣)이 구사모라에 택사를 짓고 머문 지 이미 2년[어떤 책에서는 3년이라고 하였으니, 왕복하는 데 걸린 햇수를 합한 것이다.]이 되었으나, 정사는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인과 임나인이 자주 자식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래 쉽게 판결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모야신은 즐겨 서탕(誓湯)[177]을 설치하여 '사실을 말하는 자는 데이지 않을 것이며, 거짓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데일 것이다'라고 하며 끓는 물 속에 던져 넣으니, 죽는 자가 많습니다. 또 길비한자나다리(吉備韓子那多利 ; 키비노카라코나타리)와 사포리(斯布利 ; 시후리)[일본인[178]이 이웃 나라의 여자를 취하여 낳은 자를 한자(韓子)[179]

176 이 詔는 『藝文類聚』 治政部 論定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윤색한 것이다.

177 盟神探湯을 말한다.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하여 신에게 맹서하고 뜨거운 물 속에 손을 넣는 神判을 말한다.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손을 데인다고 믿었다.

178 원문은 大日本人이다.

179 韓子는 한반도 주민과 왜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吉備韓子那多利 이외에도 蘇我韓子宿禰의 사례가 있다.

라고 한다.]를 죽이고, 항상 백성을 괴롭히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천황은 그 행적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불러들였으나 (모야신은) 가지 않았다. (이때 모야신은) 몰래 하내모수마사수어수(河內母樹馬飼首御狩 ; 카후치노오모노키노우마카히노오비토미카리)[180]를 도읍에 보내어 "신이 아직 칙지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니, 도읍에 돌아간다면 수고롭게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국명을 완수한 다음 입조하여 사죄하기를 기다려주십시오."라고 아뢰었다. 사자를 보낸 다음 (모야신은) 다시 혼자 탄식하며 "조길사(調吉士 ; 츠키노키시)[181]는 천황의 사자이다. 만약 내가 보낸 사자보다 먼저 돌아가서 사실대로 보고한다면 나의 죄가 반드시 무거워질 것이다."라고 하고, 조길사를 보내어 무리를 이끌고 이사지모라성(伊斯枳牟羅城)[182]을 지키게 하였다. 이때 아리사등은 (모야신이) 사소한 일에만 집착하고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음을 알고 빈번히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였으나,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행적을 모두 알고 등을 돌릴 마음을 품었다. 드디어 구례사기모(久禮斯己母)를 신라에 사신으로 보내어 군사를 청하였다. 또 노수구리(奴須久利)를 백제에 사신으로 보내어 군사를 청하였다. 모야신은 백제병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배평(背評)[183][背評은 지명이다. 또한 능비기부리(能備己

---

180 인명 중의 母樹(오모노키)는 지명으로 생각된다.

181 백제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가 정착한 씨족이다. 『新撰姓氏錄』에 의하면 동족인 調曰佐와 調連은 百濟國 奴理使主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欽明紀 23년 7월조에 調吉士伊企儺가 보인다.

182 伊斯枳라는 자연 촌락에 牟羅라는 행정단위 명칭이 붙어서 만들어진 지명이다. 또한 牟羅의 주변에는 城이 둘러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야시대 마을 주변에 土城 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木柵을 둘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183 背評은 가야 4촌 중 하나인 背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能備己富利라고도 하였는데, 背가 能備, 評이 己富利에 대응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己富利의 음은 '고후리'나 '코오리'로 '고을'의 고대어다. 일본 고대에도 評이라고 표기하고 '코오리'라고 하였다.

富利)라고도 한다.]에서 맞아 싸웠으나 사상자가 절반이나 되었다. 백제는 노수구리를 포로로 잡아 여러 가지 형구로 묶고 신라와 함께 성을 포위한 다음 아리사등을 꾸짖으며 "모야신을 내어 놓으라."고 하였다. 모야신은 성을 굳게 지키므로 사로 잡을 수 없었다. 이에 두 나라는 유리한 지역을 점령하고 한 달간 머무르다가, 성을 쌓고 돌아갔다. 이를 구례모라성(久禮牟羅城)[184]이라고 하였다. 돌아가는 길에 등리지모라(騰利枳牟羅), 포나모라(布那牟羅), 모자지모라(牟雌枳牟羅), 아부라(阿夫羅), 구지파다지(久知波多枳)[185] 다섯 성을 함락시켰다[186].

겨울 10월, 조길사가 임나로부터 돌아와서 "모야신은 사람됨이 오만하고 정사에도 익숙하지 못하여 포용하는 마음이 없어, 가라를 혼란케 하고 환란을 막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그래서 목협자(目頰子 ; 메즈라코)를 보내어 불러 들였다[목협자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같은 해, 모야신이 부름을 받아 대마(對馬 ; 쓰시마)에 이르러 병에 걸려 죽었다. 장송을 위한 배는 강을 거슬러 올라 근강에 이르렀다. 그 처가 노래하였다.

매방(枚方 ; 히라카타)을 거쳐 피리를 불며 배가 올라오네. 근강의 모야(毛野)라는 젊은 서방님이 피리를 불며 올라오네.

---

184 久禮山戍와 같은 곳으로 보이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서남부 비슬산 서남록, 경남 칠원, 경남 영산, 김해 창녕 사이의 낙동강 북안, 창녕·밀양 사이의 낙동강 동안, 함안 구성리 산성 등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18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城山洞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때 문제가 된 지역은 近江毛野臣이 도착한 곳이 熊川이고 창원으로 비정되는 己叱己利城에 들어가 농성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김해와 창원 주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86 이상의 지명은 阿夫羅, 久知波多枳와 같은 자연 촌락, 騰利枳牟羅, 布那牟羅, 牟雌枳牟羅와 같이 자연 촌락에 牟羅가 붙은 지명, 伊斯枳牟羅城, 久禮牟羅城과 같이 모라 다음에 다시 城이 붙은 세 등급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목협자가 처음 임나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 있는 일본인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한국(韓國 ; 카라쿠니)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목협자는 왔는가. 저 멀리 일기(壹岐 ; 이키)로부터 목협자가 건너왔네.

25년 봄 2월, 천황의 병이 심해졌다.

정미(7일), 천황이 반여옥수궁(磐余玉穗宮 ; 이하레노타마호노미야)에서 죽으니(崩), 이때 나이 82세였다.

겨울 12월 병신삭 경자(5일), 남야릉(藍野陵 ; 아위노노미사자키)[187]에 장사지냈다[어떤 책에서는 천황 28년 이 해의 간지 갑인[188]에 죽었다(崩)고 하였다. 여기서 25년 이 해의 간지 신해에 죽었다(崩)고 한 것은 『백제본기』를 취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 기록에서는 '이 해의 간지 신해[189] 3월, 군사가 안라로 나아가 걸탁성(乞乇城)[190]을 쌓았다. 같은 달, 고

187 『延喜式』에서는 攝津國 島上郡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大阪府 茨木市의 茶臼山古墳(墳丘長 227m, 5세기 중엽)이 繼體陵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大阪府 高槻市의 今城塚古墳(墳丘長 190m, 6세기 초)을 繼體陵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大和政權의 王陵은 5세기 후반까지 일관되게 大和川 유역에 조영되었으나, 앞의 두 고분은 왕릉급 고분으로는 처음으로 淀川 유역에 조영된 것이다.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에는 大和川 유역에 왕릉으로 볼 수 있는 고분이 없다. 능의 위치나 전승으로 보아 繼體는 淀川 유역 및 近江, 尾張, 越前 등의 세력이 옹립한 大王으로 생각된다.

188 534년(甲寅)이다. 繼體의 뒤를 이은 安閑 元年을 「是年也, 太歲 甲寅.」이라고 하였다. 반면 『古事記』에는 527년(丁未)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日本書紀』의 본문처럼 繼體가 재위 25년 신해에 죽었다면, 安閑의 즉위까지 2년 이상의 공백이 생긴다. 한편 『上宮聖德法王帝說』과 『元興寺伽藍緣起』 등은 欽明이 신해년(531)에 즉위한 것으로 기록하였다(재위기간 41년). 그렇다면 安閑과 宣化의 즉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서로 다른 기록을 근거로 繼體 사후에 安閑, 宣化를 지지하는 尾張目子媛 쪽 세력과 欽明을 지지하는 手白香皇女 쪽 세력이 대립하여 내란 상태에 빠졌으며, 두 왕조가 병립한 것으로 보는 설이 제기되어 있다.

구려는 그 왕 안(安)[191]을 시해하였다. 또한 일본 천황 및 태자 황자가 모두 죽었다고 한다.' 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신해년은 25년에 해당한다. 후에 교감하는 자가 어느 것이 옳은지 알 것이다.].

일본서기 권 제1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9 531년(辛亥)으로 고구려 安藏王 13년, 백제 聖王 9년, 신라 法興王 18년에 해당한다.

190 安羅國(咸安) 주변으로 생각되나 자세하지 않다. 경상남도 진주로 보는 설과 함안의 飽德山城으로 보는 설, 함안의 서쪽 지역으로 보는 설 등이 있다.

191 『三國史記』에서는 531년 5월에 고구려 제22대왕 安藏王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3월과 차이를 보인다.

日本書紀 卷第十七

男大迹天皇 繼體天皇

男大迹天皇[更名彦太尊.] 譽田天皇五世孫, 彦主人王之[1]子也. 母曰振媛. 振媛, 活目天皇七世之[2]孫也. 天皇父聞振媛顔容姝妙甚有嫩色, 自近江國高島嶋郡三尾之別業, 遣使聘于三國坂中井[中, 此云那.], 納以爲妃. 遂産天皇. 天皇幼年, 父王薨. 振媛迺歎曰, 妾今遠離桑梓. 安能得膝養. 余歸寧高向[高向者, 越前國邑名.], 奉養天皇. 天皇壯大, 愛士禮賢, 意豁如也.

天皇年五十七歲, 八年冬十二月己亥, 小泊瀨天皇崩. 元無男女, 可絶繼嗣.

壬子, 大伴金村大連議曰, 方今絶無繼嗣. 天下何所繫心. 自古迄今, 禍由斯起. 今足仲彦天皇五世孫倭彦王, 在丹波國桑田郡. 請, 試設兵仗, 夾衛乘輿, 就而奉迎, 立爲人主. 大臣大連等, 一皆隨焉, 奉迎如計. 於是, 倭彦王, 遙望迎兵, 懼然失色. 仍遁山壑, 不知所詣.

元年 春正月辛酉朔甲子, 大伴金村大連, 更籌議曰, 男大迹王, 性慈仁孝順. 可承天緒. 冀慇懃勸進, 紹隆帝業. 物部麁鹿火大連許勢男人大臣等, 僉曰, 妙

---

1 소학관본에서는 '王'이라고 적고 있다.

2 소학관본에는 '之'가 없다.

簡枝孫, 賢者唯男大迹王也.

丙寅, 遣臣連等, 持節以備法駕, 奉迎三國. 夾衛兵仗, 肅整容儀, 警蹕前駈, 奄然而至. 於是, 男大迹天皇, 晏然自若, 踞坐胡床. 齊列陪臣, 旣如帝坐. 持節使等, 由是敬憚, 傾心委命, 冀盡忠誠. 然天皇, 意裏尙疑, 久而不就. 適知河內馬飼首荒籠. 密奉遣使, 具述大臣大連等所以奉迎本意. 留二日三夜, 遂發. 乃喟然而歎曰, 懿哉, 馬飼首. 汝若無遣使來告, 殆取蚩於天下. 世云, 勿論貴賤. 但重其心, 蓋荒籠之謂乎. 及至踐祚, 厚加荒籠寵待.

甲申, 天皇行至樟葉宮.

二月辛卯朔甲午, 大伴金村大連, 乃跪上天子鏡劒璽符再拜. 男大迹天皇謝曰, 子民治國重事也. 寡人不才, 不足以稱. 願請, 廻慮擇賢者. 寡人不敢當. 大伴大連, 伏地固請. 男大迹天皇, 西向讓者三. 南向讓者再. 大伴大連等皆曰, 臣伏計之, 大王子民治國, 最宜稱. 臣等, 爲宗廟社稷, 計不敢忽. 幸藉衆願, 乞垂聽納. 男大迹天皇曰, 大臣大連, 將相諸臣, 咸推寡人. 寡人敢不乖, 乃受璽符. 是日, 卽天皇位. 以大伴金村大連爲大連. 許勢男人大臣爲大臣, 物部麁鹿火大連爲大連, 並如故. 是以, 大臣大連等, 各依職位焉.

庚子, 大伴大連奏請曰, 臣聞, 前王之宰世也, 非維城之固, 無以鎭其乾坤. 非掖庭之親, 無以繼其趺蓼. 是故, 白髮天皇無嗣, 遣臣祖父大伴大連室屋, 每州安置三種白髮部[言三種者, 一白髮部舍人, 二白髮部供膳, 三白髮部靫負也.], 以留後世之名. 嗟夫, 可不愴歟. 請, 立手白香皇女, 納爲皇后, 遣神祇伯等, 敬祭神祇, 求天皇息, 允答民望. 天皇曰, 可矣.

三月庚申朔, 詔曰, 神祇不可乏主. 宇宙不可無君. 天生黎庶, 樹以元首, 使司助養, 令全性命. 大連憂朕無息, 披誠款, 以國家, 世世盡忠. 豈唯朕日歟. 宜備禮儀, 奉迎手白香皇女.

甲子, 立皇后手白香皇女, 修敎于內. 遂生一男. 是爲天國排開廣庭尊[開, 此云波羅企.]. 是嫡子而幼年. 於二兄治後, 有其天下[二兄者, 廣國排武金日尊, 與武小

廣國押盾尊也. 見下文.].

戊辰, 詔曰, 朕聞, 士有當年而不耕者, 則天下或受其飢矣. 女有當年而不績者, 天下或受其寒矣. 故, 帝王躬耕, 而勸農業, 后妃親蠶, 而勉桑序. 況厥百寮, 暨于萬族, 廢棄農績, 而至殷富者乎. 有司普告天下, 令識朕懷.

癸酉, 納八妃[納八妃, 雖有先後, 而此曰癸酉納者, 據卽天位, 占擇良日, 初拜後宮, 爲文. 他皆放此.]. 元妃, 尾張連草香女曰目子媛[更名色部.]. 生二子. 皆有天下. 其一曰勾大兄皇子. 是爲廣國排武金日尊. 其二曰檜隈高田皇子. 是爲武小廣國排盾尊. 次妃, 三尾角折君妹曰稚子媛. 生大郎皇子, 與出雲皇女. 次, 坂田大跨王女曰廣媛. 生三女. 長曰神前皇女. 仲曰茨田皇女. 少曰馬來田皇女. 次, 息長眞手王女曰麻績娘子. 生荳角皇女[荳角, 此云婆佐礙.]. 是侍伊勢大神祠. 次, 茨田連小望女[或曰妹.]曰關媛. 生三女. 長曰茨田大娘皇女. 仲曰白坂活日姬皇女. 少曰小野稚郎[3]皇女[更名長石姬.]. 次, 三尾君堅(槭)女曰倭媛. 生二男二女. 其一曰大娘子皇女. 其二曰椀子皇子. 是三國公之先也. 其三曰耳皇子. 其四曰赤姬皇女. 次, 和珥臣河內女曰黃媛. 生一男二女. 其一曰稚綾姬皇女. 其二曰圓娘皇女. 其三曰厚皇子. 次, 根王女曰廣媛. 生二男. 長曰免皇子. 是酒人公之先也. 少曰中皇子. 是坂田公之先也.

是年也, 太歲丁亥.

二年 冬十月辛亥朔癸丑, 葬小泊瀨稚鷦鷯天皇于傍丘磐杯丘陵.

十二月, 南海中耽羅人, 初通百濟國.

三年 春二月, 遣使于百濟[百濟本記云, 久羅麻致支彌, 從日本來. 未詳也.]. 括出在任那日本縣邑, 百濟百姓, 浮逃絶貫, 三四世者, 並遷百濟附貫也.

---

3 소학관본에서는 '娘'이라고 적고 있다.

五年 冬十月, 遷都山背筒城.

六年 夏四月辛酉朔丙寅, 遣穗積臣押山, 使於百濟. 仍賜筑紫國馬卅匹.

冬十二月,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 四縣.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 近連百濟, 遠隔日本. 旦暮易通, 鷄犬難別. 今賜百濟, 合爲同國, 固存之策, 無以過此. 然縱賜合國, 後世猶危. 況爲異場, 幾年能守. 大伴大連金村, 具得是言, 同謨而奏. 迺以物部大連麁鹿火, 宛宣勅使. 物部大連, 方欲發向難波館, 宣勅於百濟客. 其妻固要曰, 夫住吉大[4]神, 初以海表金銀之國, 高麗百濟新羅任那等, 授記胎中譽田天皇. 故大后息[5]長足姬尊, 與大臣武內宿禰, 每國初置官家, 爲海表之蕃屛, 其來尙矣. 抑有由焉. 縱削賜他, 違本區域. 綿世之刺, 詎離於口. 大連報曰, 敎示合理, 恐背天勅. 其妻切諫云, 稱疾莫宣. 大連依諫. 由是, 改使而宣勅. 付賜物幷制旨, 依表賜任那四縣. 大兄皇子, 前有緣事, 不關[6]賜國, 晩知宣勅. 驚悔欲改. 令曰, 自胎中之帝, 置官家之國, 輕隨蕃乞, 輒爾賜乎. 乃遣目鷹吉士, 改宣百濟客. 使者答啓, 父天皇, 圖計便宜, 勅賜旣畢. 子皇子, 豈違帝勅, 妄改而令. 必是虛也. 縱是實者, 特杖大頭打, 孰與特杖小頭打痛乎, 遂罷. 於是, 或有流言曰, 大伴大連, 與哆唎國守穗積臣押山, 受百濟之賂矣.

七年 夏六月, 百濟遣姐彌文貴將軍州[7]利卽爾將軍, 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 委意斯移麻岐彌.], 貢五經博士段楊爾. 別奏云, 伴跛國略奪臣國己汶之地. 伏願[8],

---

4 소학관본에는 '大'가 없다.

5 소학관본에서는 '氣'라고 적고 있다.

6 소학관본에서는 '聞'이라고 적고 있다.

7 소학관본에서는 '洲'라고 적고 있다.

8 소학관본에서는 '請'이라고 적고 있다.

天恩判還本屬.

秋八月癸未朔戊申, 百濟太子淳陀薨.

九月, 勾大兄皇子, 親聘春日皇女. 於是, 月夜淸談, 不覺天曉. 斐然之藻, 忽形於言. 乃口唱曰, 野絁磨俱儞, 都磨磨祁哿泥底, 播屢比能, 哿須我能俱儞儞, 俱波[9]絁謎鳴, 阿利[10]等枳枳底, 與慮志謎鳴, 阿利[11]等枳枳底, 莽紀佐俱, 避能伊陀圖鳴, 飫斯毗[12]羅枳, 倭例以梨魔志, 阿都圖唎, 都麽[13]怒唎絁底, 魔俱囉圖唎, 都麽[14]怒唎絁底, 伊慕我堤鳴, 倭例儞魔柯斯[15]每, 倭我堤鳴麽, 伊慕儞魔柯絁每, 麽[16]左棄逗囉, 多多企阿藏播梨, 矢洎矩矢慮[17], 于魔伊禰矢度儞, 儞播都等唎, 柯稽播儺俱儺梨, 奴都等利[18], 枳蟻矢播等余武, 婆絁稽矩謨, 伊麻娜以播孺底, 阿開儞啓梨倭蟻慕. 妃和唱曰, 莒母唎矩能, 簸覩[19]細能哿波[20]庾, 那峨例俱屢, 馱開能, 以矩美娜開余嚢開, 謨等陛鳴麽, 莒等儞都俱唎, 須衛陛鳴麽, 府曳儞都俱唎, 符[21]企儺須, 美母慮[22]我紆陪儞, 能朋梨陀致, 倭我彌細麽, 都奴

9 소학관본에서는 '婆'라고 적고 있다.
10 소학관본에서는 '唎'라고 적고 있다.
11 소학관본에서는 '唎'라고 적고 있다.
12 소학관본에서는 '毘'라고 적고 있다.
13 소학관본에서는 '磨'라고 적고 있다.
14 소학관본에서는 '磨'라고 적고 있다.
15 소학관본에서는 '絁'라고 적고 있다.
16 소학관본에서는 '磨'라고 적고 있다.
17 소학관본에서는 '廬'라고 적고 있다.
18 소학관본에서는 '唎'라고 적고 있다.
19 소학관본에서는 '都'라고 적고 있다.
20 소학관본에서는 '婆'라고 적고 있다.
21 소학관본에서는 '府'라고 적고 있다.
22 소학관본에서는 '廬'라고 적고 있다.

娑播符, 以簸例能伊開能, 美那[23]矢馱府, 紆鳴謨, 紆陪儞堤堤那嗌矩, 野須美矢矢, 倭我於朋枳美能, 於魔細屢, 娑佐羅能美於寐能, 武須彌陀例, 馱例夜矢比等母, 紆陪儞泥堤那嗌矩.

冬十一月辛亥朔乙卯, 於朝庭, 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及賁巴委佐, 伴跛旣殿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滯[24]沙, 賜百濟國.

是月, 伴跛國, 遣戢支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25].

十二月辛巳朔戊子, 詔曰, 朕承天緒, 獲保宗廟, 兢兢業業. 間者, 天下安靜, 海內淸平, 屢致豊年, 頻使饒國. 懿哉, 摩呂古, 示朕心於八方. 盛哉, 勾大兄, 光吾風於萬國. 日本邕邕, 名擅天下. 秋津赫赫, 譽重王畿. 所寶惟賢, 爲善最樂. 聖化憑茲遠扇, 玄功藉此長懸. 寔汝之力. 宜處春宮, 助朕施仁, 翼吾補闕.

八年 春正月, 太子妃春日皇女, 晨朝晏出, 有異於常. 太子意疑, 入殿而見. 妃臥床涕泣, 惋痛不能自勝. 太子怪問曰, 今旦涕泣, 有何恨乎. 妃曰, 非餘事也. 唯妾所悲者, 飛天之鳥, 爲愛養兒, 樹巓作櫟. 其愛深矣. 伏地之蟲, 爲護衛子, 土中作窟. 其護厚焉. 乃至於人, 豈得无慮. 無嗣之恨, 方鍾太子. 妾名隨絶. 於是, 太子感痛, 而奏天皇. 詔曰, 朕子麻呂古, 汝妃之詞, 深稱於理. 安得空爾無答慰乎. 宜賜匝布屯倉, 表妃名於萬代.

三月, 伴跛築城於子呑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復築城於爾列比麻須比, 而絚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 以逼新羅. 駈略子女, 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

---

23 소학관본에서는 '儺'라고 적고 있다.

24 소학관본에서는 '帶'라고 적고 있다.

25 소학관본에는 '國' 한 글자가 더 있다.

九年 春二月甲戌朔丁丑, 百濟使者文貴將軍等請罷. 仍勅, 副物部連[闕名.], 遣罷歸之[百濟本記云, 物部至至連.].

是月, 到于沙都嶋, 傳聞伴跛人, 懷恨銜毒, 恃强縱虐. 故物部連, 率舟師五百, 直詣帶沙江. 文貴將軍, 自新羅去.

夏四月, 物部連於帶沙江停住六日. 伴跛興師往伐. 逼脫衣裳, 劫掠所齎, 盡燒帷幕. 物部連等, 怖畏逃遁. 僅存身命, 泊汶慕羅[汶慕羅嶋名也.].

十年 夏五月, 百濟遣前部木劦不麻甲背, 迎勞物部連等於己汶, 而引導入國. 群臣各出衣裳斧鐵帛布, 助加國物, 積置朝庭. 慰問慇懃. 賞祿優節.

秋九月, 百濟遣州利卽次將軍, 副物部連來, 謝賜己汶之地. 別貢五經博士漢高安茂, 請代博士段楊爾. 依請代之.

戊寅, 百濟遣灼莫古將軍日本斯那奴阿比多, 副高麗使安定等, 來朝結好.

十二年 春三月丙辰朔甲子, 遷都弟國.

十七年 夏五月, 百濟王武寧薨.

十八年 春正月, 百濟太子明卽位.

廿年 秋九月丁酉朔己酉, 遷都磐余玉穗[一本云,七年也.].

廿一年 夏六月壬辰朔甲午, 近江毛野臣, 率衆六萬, 欲住任那, 爲復興建新羅所破南加羅喙己呑, 而合任那. 於是, 筑紫國造磐井, 陰謨叛逆, 猶預經年. 恐事難成, 恆伺間隙. 新羅知是, 密行貨賂于磐井所, 而勸防遏毛野臣軍. 於是, 磐井掩據火豊二國, 勿使修職. 外邀海路, 誘致高麗百濟新羅任那等國年貢職船, 內

遮遣任那毛野臣軍, 亂語揚言曰, 今爲使者, 昔爲吾伴, 摩肩觸肘, 共器同食. 安得率[26]爾爲使, 俾余自伏儞前, 遂戰而不受. 驕而自矜. 是以, 毛野臣, 乃見防遏, 中途淹滯. 天皇詔大伴大連金村物部大連麁鹿火許勢大臣男人等曰, 筑紫磐井反掩, 有西戎之地. 今誰可將者. 大伴大連等僉曰, 正直仁勇通於兵事, 今無出於麁鹿火右. 天皇曰, 可.

秋八月辛卯朔, 詔曰, 咨, 大連, 惟茲磐井弗率. 汝徂征. 物部麁鹿火大連再拜言, 嗟, 夫磐井西戎之豺猾. 負川阻而不庭. 憑山峻而稱亂. 敗德反道. 侮嫚自賢. 在昔道臣, 爰及室屋, 助帝而罰. 拯民塗炭, 彼此一時. 唯天所贊, 臣恆所重. 能不恭伐. 詔曰, 良將之軍也, 施恩推惠, 恕己治人. 攻如河決. 戰如風發. 重詔曰, 大將民之司命. 社稷存亡, 於是乎在. 勗哉. 恭行天罰. 天皇親操斧鉞, 授大連曰, 長門以東朕制之. 筑紫以西汝制之. 專行賞罰. 勿煩頻奏.

廿二年冬十一月甲寅朔甲子, 大將軍物部大連麁鹿火, 親與賊帥磐井, 交戰於筑紫御井郡. 旗鼓相望, 埃塵相接. 決機兩陣之間, 不避萬死之地. 遂斬磐井, 果定疆場.

十二月, 筑紫君葛子, 恐坐父誅, 獻糟屋屯倉, 求贖死罪.

廿三年 春三月, 百濟王謂下哆唎國守穗積押山臣曰, 夫朝貢使者, 恆避嶋曲[謂海中嶋曲崎[27]岸也. 俗云美佐祁.], 每苦風波. 因茲, 濕所齎, 全壞无色. 請, 以加羅多沙津, 爲臣朝貢津路. 是以, 押山臣爲請聞奏.

是月, 遣物部伊勢連父根吉士老等, 以津賜百濟王. 於是, 加羅王謂勅使云, 此津, 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涉. 安得輒改賜隣國. 違元所封限地. 勅使父根等, 因斯, 難以面賜, 却還大島嶋. 別遣錄史, 果賜扶余. 由是, 加羅結儻新

---

26 소학관본에서는 '卒'이라고 적고 있다.

27 소학관본에서는 '碕'라고 적고 있다.

羅, 生怨日本. 加羅王娶新羅王女, 遂有兒息. 新羅初送女時, 幷遣百人, 爲女從. 受而散置諸縣, 令着新羅衣冠. 阿利斯等, 嗔其變服, 遣使徵還. 新羅大羞, 飜欲還女曰, 前承汝聘, 吾便許婚. 今旣若斯, 請, 還王女. 加羅己富利知伽[未詳.]報云, 配合夫婦, 安得更離. 亦有息兒, 棄之何往. 遂於所經, 拔刀伽古跛布那牟羅, 三城. 亦拔北境五城.

是月, 遣近江毛野臣, 使于安羅. 勅勸新羅, 更建南加羅喙己呑. 百濟遣將軍君尹貴麻那甲背麻鹵等, 往赴安羅, 式聽詔勅. 新羅, 恐破蕃國官家, 不遣大人, 而遣夫智奈麻禮奚奈麻禮等, 往赴安羅, 式聽詔勅. 於是, 安羅新起高堂, 引昇勅使. 國主隨後昇階. 國內大人, 預昇堂者一二. 百濟使將軍君等, 在於堂下. 凡數月再三, 謨謀乎堂上. 將軍君等, 恨在庭焉.

夏四月壬午朔戊子, 任那王己能末多干岐來朝[言己能末多者, 蓋阿利斯等也.]. 啓大伴大連金村曰, 夫海表諸蕃, 自胎中天皇, 置內官家, 不棄本土, 因[28]封其地, 良有以也. 今新羅, 違元所賜封限, 數越境以來侵. 請, 奏天皇, 救助臣國. 大伴大連, 依乞奏聞.

是月, 遣使送己能末多干岐. 幷詔在任那近江毛野臣, 推問所奏, 和解相疑. 於是, 毛野臣, 次于熊川[一本云, 次于任那久斯牟羅.], 召集新羅百濟, 二國之王. 新羅王佐利遲遣久遲布禮[一本云, 久禮爾師知于奈師磨里.], 百濟遣恩率彌騰利, 赴集毛野臣所, 而二王不自來參. 毛野臣大怒, 責問二國使云, 以小事大, 天之道也[一本云, 大木端者以大木續之. 小木端者以小木續之.]. 何故二國之王, 不躬來集受天皇勅, 輕遣使乎. 今縱汝王, 自來聞勅, 吾不肯勅. 必追逐退. 久遲布禮恩率彌滕利, 心懷怖畏, 各歸召王. 由是, 新羅改遣其上臣伊叱夫禮智干岐[新羅, 以大臣爲上臣. 一本云, 伊叱夫禮知奈末.], 率衆三千, 來請聽勅. 毛野臣, 遙見兵仗圍繞, 衆數千人, 自熊川, 入任那己叱己利城. 伊叱夫禮智干岐, 次于多多羅原, 不

28 소학관본에는 '因'이 없다.

敬[29]歸待三月. 頻請聞勅. 終不肯宣. 伊叱夫禮智所將士卒等, 於聚落乞食. 相過毛野臣傔人河內馬飼首御狩. 御狩入隱他門, 待乞者過, 捲手遙擊. 乞者見云, 謹待三月, 佇聞勅旨, 尙不肯宣. 惱聽勅使. 乃知欺誑, 誅戮上臣矣. 乃以所見, 具述上臣. 上臣抄掠四村[金官背伐安多委陀, 是爲四村. 一本云, 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爲四村也.], 盡將人物, 入其本國. 或曰, 多多羅等四村之所掠者, 毛野臣之過也.

秋九月, 巨勢男人大臣薨.

廿四年 春二月丁未朔, 詔曰, 自磐余彦之帝水間城之王, 皆賴博物之臣, 明哲之佐. 故道臣陳謨, 而神日本以盛. 大彦申略, 而膽瓊殖用隆. 及乎繼體之君, 欲立中興之功者, 曷嘗不賴賢哲之謨謀乎. 爰降小泊瀨天皇之王天下, 幸承前聖, 隆[30]平日久. 俗漸蔽而不寤. 政浸衰而不改. 但須其人各以類進. 有大略者, 不問其所短. 有高才者, 不非其所失. 故獲奉宗廟, 不危社稷. 由是觀之, 豈非明佐. 朕承帝業, 於今廿四年, 天下淸泰, 內外無虞. 土地[31]膏腴, 穀稼有實. 竊恐元元, 由斯生俗, 藉此成驕. 故令人學廉節, 宣揚大道, 流通鴻化, 能官之事, 自古爲難. 爰暨朕身, 豈不愼歟.

秋九月, 任那使奏云, 毛野臣, 遂於久斯牟羅, 起造舍宅, 淹留二歲[一本云, 三歲者, 連去來歲數也.], 懶聽政焉. 爰以日本人與任那人, 頻以兒息, 諍訟難決, 元無能判. 毛野臣樂置誓湯曰, 實者不爛. 虛者必爛. 是以, 投湯爛死者衆. 又殺吉備韓子那多利斯布利[大日本人, 娶蕃女所生, 爲韓子也.], 恆惱人民, 終無和解. 於是, 天皇聞其行狀, 遣人徵入. 而不肯來. 顧以河內母樹馬飼首御狩, 奉詣於京而奏曰, 臣未成勅旨, 還入京鄕, 勞往虛歸. 慙恧安措. 伏願, 陛下, 待成國命,

---

29 소학관본에서는 '敢'이라고 적고 있다.

30 소학관본에서는 '降'이라고 적고 있다.

31 소학관본에서는 '脉(脈)'이라고 적고 있다.

入朝謝罪. 奉使之後, 更自謨曰, 其調吉士, 亦是皇華之使. 若先吾取歸, 依實奏聞, 吾之罪過, 必應重矣. 乃遣調吉士, 率衆守伊斯枳牟羅城. 於是, 阿利斯等, 知其細碎爲事, 不務所期, 頻勸歸朝, 尙不聽還. 由是, 悉知行迹, 心生飜背. 乃遣久禮斯己母, 使于新羅請兵. 奴須久利, 使于百濟請兵. 毛野臣聞百濟兵來, 迎討背評[背評地名. 亦名能備己富里也.]. 傷死者半. 百濟, 則捉奴須久利, 杻械枷鏁, 而共新羅圍城. 責罵阿利斯等曰, 可出毛野臣. 毛野臣, 嬰城自固. 勢不可擒. 於是, 二國圖度便地, 淹留弦晦. 築城而還. 號曰久禮牟羅城. 還時觸路, 拔騰利枳牟羅布那牟羅牟雌枳牟羅阿夫羅久知波多枳, 五城.

冬十月, 調吉士至自任那, 奏言, 毛野臣爲人傲佷, 不閑治體. 竟無和解, 擾亂加羅. 倜儻任意, 而思不防患. 故遣目頰子. 徵召[目頰子未詳也.].

是歲, 毛野臣, 被召到于對馬, 逢疾而死. 送葬尋河, 而入近江. 其妻歌曰, 比攞哿馱喩, 輔曳輔枳能朋樓, 阿符美能野, 愷那能倭俱吾伊, 輔曳符[32]枳能朋樓. 目頰子, 初到任那時, 在彼鄉家等, 贈歌曰, 柯羅屨儞鳴, 以柯儞輔居等所, 梅豆羅古枳馱樓, 武哿左屨樓, 以祇能和馱咧鳴, 梅豆羅古枳馱樓.

廿五年 春二月, 天皇病甚.

丁未, 天皇崩于磐余玉穗宮. 時年八十二.

冬十二月丙申朔庚子, 葬于藍野陵[或本云, 天皇, 廿八年歲次甲寅崩. 而此云廿五年歲次辛亥崩者, 取百濟本記爲文. 其文云, 太歲辛亥三月, 軍進至于安羅, 營乞乇城. 是月, 高麗弑其王安. 又聞, 日本天皇及太子皇子, 俱崩薨. 由此而言, 辛亥之歲, 當廿五年矣. 後勘校者, 知之也.].

日本書紀卷第十七

32 소학관본에서는 '府'라고 적고 있다.

일본서기 권 제18

日本書紀 卷第十八

제27대 **광국압무금일천황**(廣國押武金日天皇) **안한천황**(安閑天皇)

제28대 **무소광국압순천황**(武小廣國押盾天皇) **선화천황**(宣化天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서기 권 제18

광국압무금일천황(廣國押武金日天皇 ; 히로쿠니오시타케카나히노스메라미코토) **안한천황**(安閑天皇 ; 안칸텐노)

구대형광국압무금일(勾大兄廣國押武金日 ; 마가리노오호에히로쿠니오시타케카나히) 천황[1]은 남대적천황(男大迹天皇 ; 워호도노스메라미코토)[2]의 장자다. 어머니는 목자원(目子媛 ; 메노코히메)[3]이라 한다. 이 천황의 사람됨은 기량이 빼어나 헤아릴 수가 없었다. 용감하고 관대하여 임금이 될 만한 도량이 있었다.

25년 봄 2월 신축삭 정미(7일)에 남대적천황이 대형(大兄 ; 오호에)을 천황으로 삼았다[4]. 그날 남대적천황이 죽었다(崩).

---

1 『日本書紀』 계보상 제27대 천황(446~536, 재위 : 531~535)이다. 아버지는 繼體天皇이고, 어머니는 尾張連草香의 딸 目子媛이다. 勾大兄이라고도 하며 제28대 천황인 宣化天皇의 同母兄이다. 계체천황이 사망하고 난 뒤 3년 후(2년 공위)에 즉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安閑, 宣化 두 천황과 異母弟인 欽明天皇(제29대 천황) 사이에 황위계승을 둘러싸고 양 조가 대립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이른바 '辛亥의 變'이다(계체천황 25년 동12월조 참조). 안한기는 일본 도처에 屯倉을 설치했다는 기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2 제26대 繼體天皇을 가리킨다.

3 繼體天皇의 부인으로, 尾張連草香의 딸이다.

4 大兄은 勾大兄皇子, 즉 安閑天皇을 가리킨다. 그런데 안한천황은 계체가 辛亥年(531)에 죽은 3년 뒤인 甲寅年(534)에 즉위한다(원년조 말미에 「이 해는 太歲 甲寅年(534)이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음). 따라서 같은 『日本書紀』 내에서도 안한 즉위전기와 원년

이 달에 대반대련(大伴大連 ; 오호토모노오오무라지)과 물부추록화대련(物部麁鹿火大連 ; 모노노베노아라카히노오호무라지)을 대련으로 삼은 것은 모두 전과 같았다.

원년 봄 정월에 대왜국(大倭國 ; 야마토노쿠니)의 구금교(勾金橋 ; 마가리노카나하시)[5]로 천도하고 이를 궁의 이름으로 하였다.

3월 계미삭 무자(6일)에 유사(有司)가 천황을 위하여, 억계천황(億計天皇 ; 오케노스메라미코토)의 딸 춘일산전황녀(春日山田皇女 ; 카스가노야마다노히메미코)[6]에게 납채하여 황후로 삼았다[이름을 산전적견황녀(山田赤見皇女 ; 야마타노아카미노히메미코)라고도 한다.]. 따로 3인의 비를 두었다. 허세남인대신(許勢男人大臣 ; 코세노오히토노오호키미)의 딸인 사수원(紗手媛 ; 사테히메), 사수원의 동생 향향유원(香香有媛 ; 카카리히메), 물부목련자대련(物部木蓮子大連 ; 모노노베노이타비노오호무라지)[木蓮子는 이타비(伊施寐)라고 읽는다.]의 딸 택원(宅媛 ; 야카히메)을 비로 삼았다.

여름 4월 계축삭에 내선경(內膳卿)[7]인 선신대마려(膳臣大麻呂 ; 카시하데노오오마로)[8]가 칙명을 받들어, 사자를 보내 이심(伊甚 ; 이지미)[9]에서 진주를 구하도록 하였다. 이심국조(伊甚國造 ; 이지미노쿠니노미야츠코) 등이 왕경에 오는 것이 지체되어 기한이 지났는데도 진상하지 않았다. 선신대마려는 크게 노하여 국조 등을 체포하고, 그 까닭을 추궁하였다. 국조 치자직(稚子直 ; 와쿠코노아타히) 등은

의 기년이 서로 모순된다.

5 현재 奈良縣 橿原市 曲川町으로 비정된다.

6 仁賢天皇이 和珥臣日爪의 딸 糠君娘을 비로 삼아 낳은 딸이다.

7 율령제에서 內膳司의 장관으로 천황의 음식을 관장하며 식사를 올리기 전에 미리 맛보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내선경이라는 용어가 없었으므로 후대의 지식에 의한 윤색이다.

8 여기에서만 보인다.

9 『和名類聚抄』에는 「上總國 夷灊郡 伊志美」로 나온다. 현재 千葉縣 夷隅郡 및 勝浦市 지역이다.

두려워서 후궁의 침전으로 도망갔다. 춘일황후(春日皇后 ; 카스가노키사키)는 치자직이 들어온 것을 모르고 놀라서 넘어져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치자직 등은 후궁의 침전에 난입한 죄에 연루되어 죄가 더 무거워졌다. 그리하여 삼가 오로지 황후를 위하여 이심둔창(伊甚屯倉 ; 이지미노미야케)[10]을 바치고, (궁에) 난입한 죄를 속죄받기를 청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심둔창을 정하였다. 지금 나누어 군으로 삼고 상총국(上總國)에 속하게 하였다.

5월에 백제가 하부(下部) 수덕(脩德) 적덕손(嫡德孫)[11]과 상부(上部) 도덕(都德) 기주기루(己州己婁)[12] 등을 보내어 상조(常調)를 바쳤다. 따로 표를 올렸다.

가을 7월 신사삭에 "황후는 신분이 천자와 같은데도 안팎으로 이름이 특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둔창의 땅으로 초정(椒庭)[13]을 세워, 후대에 흔적을 남기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곧 칙사를 보내어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하였다. 칙사가 칙을 받들어 대하내직미장(大河內直味張 ; 오호시카후치노아타히아지하리)[14][이름을 흑사(黑梭 ; 쿠로히)라고도 한다.]에게 "지금 그대는 기름진 자치전(雌雉

---

10 둔창은 屯家, 官家, 御宅, 三宅이라고도 하며 율령국가 이전에 보이는 대왕가의 영유지를 일컫는다. 5세기대 畿內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6세기에 들어서부터이다. 『日本書紀』 屯倉 초출기사는 수인천황 27년 시세조이다.

11 下部는 백제 5부 가운데 하나이며, 脩德은 『周書』에 기록된 백제 16관등에는 보이지 않는다. 施德 혹은 將德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嫡德孫은 嫡이 성이고, 이름이 德孫으로 볼 수 있다. 현종천황 3년 시세조의 適莫爾解, 계체천황 10년 9월조의 灼莫古, 흠명천황 11년 4월조의 灼干那 등과 같은 성씨의 인물로 추정된다.

12 上部는 백제 5부 가운데 하나이며, 都德도 脩德과 마찬가지로 『周書』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己州己婁는 『日本書紀』 흠명천황 4년(544) 9월에 왜국에 왔을 때 관등이 護德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護德도 백제 16계에 보이지 않지만, 護德보다 낮은 관등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己州己婁는 그 성을 확실히 알 수 없다.

13 皇后의 궁전을 가리킨다. 산초나무(椒)는 그 향기가 사악한 기운을 쫓고 열매가 많이 열리므로 왕비가 많은 자식을 낳기를 바라며 벽을 산초나무로 칠했다고 한다.

14 河內國의 國造이다.

田 ; 키기시타)[15]을 바치라."고 말하였다. 미장(味張)이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어 칙사에게 "이 논은 가뭄에 물대기가 힘들고, 물이 넘치면 침수되기 쉽습니다. 공을 아주 많이 들여도 수확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라고 거짓으로 말하였다. 칙사는 들은 말 그대로 숨김없이 복명하였다.

겨울 10월 경술삭 갑자(15일)에 천황이 대반대련금촌에게 칙을 내려 "짐은 네 사람의 처를 들였으나 아직까지 후사가 없다. 만대 후에는 짐의 이름이 끊어질 것이다. 대반백부(大伴伯父)[16]여,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를 생각할 때면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대반대련금촌이 "저 또한 근심하는 바입니다. 무릇 우리나라에서 천하의 왕이 된 분은 후사가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반드시 사물(物)로써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황후와 다음 비(妃)를 위하여 둔창의 땅을 정하여 후대에 남게 하여 전대의 흔적을 나타내도록 하십시오."라고 아뢰었다. (이에) "좋다, 속히 두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대반대련금촌이 "소간전둔창(小墾田屯倉 ; 위하리타노미야케)과 각 국(國)의 전부(田部 ; 타베)[17]를 사수원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앵정둔창(櫻井屯倉 ; 사쿠라이노미야케)[18][어떤 책(一本)에서는 모정산둔창(茅渟山屯倉 ; 치누야마노미야케)[19]을 더 주었다고 한다.]과 각 국의 전부(田部)를 향향유원에게 주십시오. 또한 난파둔창(難波屯倉 ; 나니하노미야케)과 각 군(郡)의 곽정(鑊丁)[20]을 택원에게 주십시오. 이것을

---

15 雌雉가 많은 알을 품는다는 뜻이 있으므로 곡식이 잘 익는 기름진 땅이라는 의미이다.

16 백부는 아버지의 형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친근한 감정을 담아 나이 든 사람에게 경칭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7 『日本書紀』 경행천황 57년 동10조 田部 참조.

18 『和名類聚抄』에 「河內國 河內郡 櫻井鄕」이라고 나온다. 현재 東大阪市 六萬寺町 혹은 富田林市 喜志에 설치된 둔창으로 추정된다.

19 『和名類聚抄』에 「和泉國 和泉郡 山直鄕」이라고 나온다. 현재 大阪府 岸和田市 三田町 일대에 설치된 둔창으로 추정된다.

20 田部와 마찬가지로 屯倉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지만, 계절별로 사역되는 것을 보면 둔창

후대에 보이시어 옛날을 알도록 하십시오."라고 아뢰었다. "주상한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윤12월 기묘삭 임오(4일)에 삼도(三嶋 ; 미시마)[21]에 행차하였다. 이때 대반대련금촌이 따라갔다. 천황은 대반대련(大伴大連)을 보내 좋은 땅[22]을 현주(縣主)인 반립(飯粒 ; 이이보)[23]에게 물었다. 현주 반립이 몹시 기뻐하여 정성을 다하였다. 그래서 상어야(上御野 ; 카미노미노)[24], 하어야(下御野 ; 시모노미노), 상상원(上桑原 ; 카미노쿠하하라)[25], 하상원(下桑原 ; 시모노쿠하하라)과 죽촌(竹村 ; 타카후)[26]의 땅 등 모두 합해서 40정(町)[27]을 삼가 바쳤다. 대반대련이 칙을 받들어 "모든 땅 위에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넓은 하늘 아래에 왕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다. 그래서 선대 천황[28]은 뚜렷한 이름[29]를 세우고 큰 이름[30]을 드리워 광대함이 천지에 미치고, 밝은 빛이 일월과 같았다. 그리고 긴 행렬이 먼 곳을 어루만지고, 도성 밖까지 은혜가 베풀어졌다. 또한 나라 안을 밝게 비추고 멀

에 예속된 部民이 아니고 주변지역의 농민들이 일정시기에 소집되어 사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鑊은 큰 호미, 괭이라는 뜻이므로 철제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일을 돌보는 사람들일 것이다.

21 현재 大阪府 茨木市, 高槻市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22 원문은 良田이다.

23 攝津國 島上郡, 현재 大阪府 高槻市 三島郡 島本町 일대의 호족이다.

24 攝津國 西成郡 三野鄕으로 보는 설이 있으나 島下郡 耳原村(현재 大阪府 茨木市 耳原)으로 보기도 한다.

25 攝津國 島下郡 桑原村(현재 茨木市 桑原)이다.

26 攝津國 島下郡 耳原·桑原 일대이다.

27 1町은 500代이며, 代는 '시로'라고 하여 벼 1束을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이다. 그러나 町은 대보령에서 정해진 면적 단위이므로 후대의 지식에 의한 윤색이다.

28 제26대 繼體天皇을 가리킨다.

29 원문은 顯號이다.

30 원문은 鴻名이다.

리까지 충만토록 하였다. 위로는 천지의 끝까지 미치고, 널리 팔방에 이르렀다. 그리고 예를 제정하여 공이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음악을 지어 정치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참으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경사가 과거와 부합하였다. 지금 그대 미장은 나라 안의 미미한 백성이다. 홀연 왕의 땅을 아까워하고, 사신이 알린 뜻을 가벼이 여기고 저버렸다. 미장이여, 지금부터는 군사(郡司)[31]가 될 수 없다."고 알렸다. 그러자 현주 반립은 기쁨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하여 곧 아들 조수(鳥樹 ; 토리키)를 대련(大連)에게 보내어 시동(僮竪)[32]으로 삼았다. 이에 대하내직미장이 두려워하고 후회하며 땅에 엎드려 땀을 흘렸다. 그리고 대련에게 "어리석고 몽매한 백성의 죄가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군마다 봄·가을로 곽정(鑊丁)을 5백 명씩 천황에 바치는 것이 자손 대대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의하여 살기를 빌며, 영원히 후세의 경계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따로 협정전(狹井田) 6정(町)을 대반대련에게 뇌물로 주었다. 무릇 삼도의 죽촌둔창(竹村屯倉 ; 타카후노미야케)에서 하내현(河內縣 ; 카후치노아가타)의 부곡(部曲)[33]을 전부(田部)로 삼는 것은 여기서 생겨났다.

이 달에 여성부련지거유(廬城部連枳莒喩 ; 이호키베노무라지키코유)[34]의 딸 번원(幡媛 ; 하타히메)이 물부대련미여(物部大連尾輿 ; 모노노베노오호무라지오코시)[35]의

---

31 郡司는 율령제의 용어로 후대의 지식에 의한 윤색이다.

32 나이 어린 從者를 가리킨다.

33 部曲이라는 표현이 처음 보인다. 部曲이란 中國南北朝에서는 私家의 下僕을 의미하고, 新羅에서는 賤民의 居住구역을 가리킨다. 그런데 고대 일본에서는 部民 가운데 豪族이 사유한 民을 총칭한 말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각 호족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대부분 농사에 종사하였다. 大化改新 이후 거의 공민이 되었지만, 天武朝까지 호족의 私民的 支配는 계속된다.

34 『日本書紀』 웅략기에도 枳莒喩가 보이는데 그로부터 76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동일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구슬 목걸이[36]을 훔쳐서 춘일황후에게 바쳤다. 일이 발각되자 지거유(枳莒喩 ; 키코유)는 딸 번원을 채녀정(采女丁)[37]으로 바치고[이것이 춘일부채녀(春日部采女 ; 카스가베노우네메)이다.], 아울러 안예국(安藝國 ; 아기노쿠니)의 과호(過戶)[38]인 여성 부둔창(廬城部屯倉 ; 이호키베노미야케)[39]을 헌상하여 딸의 죄를 속죄하였다. 물부대련미여는 일이 자기에서 비롯된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 또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십시부(十市部 ; 토워치베)[40], 이세국(伊勢國 ; 이세노쿠니)[41]의 내협협(來狹狹 ; 쿠사사)·등이(登伊 ; 토이)[42][내협협과 등이는 두 읍의 이름이다.]의 지토사부(贄土師部 ; 니에노하지베), 축자국(筑紫國 ; 츠쿠시노쿠니)의 담협산부(膽狹山部 ; 이사야마베)[43]를 바쳤다.

무장국조(武藏國造 ; 무사시노쿠니노미야츠코) 입원직사주(笠原直使主 ; 카사하라노아타히오미)[44]는 동족 소저(小杵 ; 워키)와 서로 국조(國造)가 되려고 싸웠으나[使主

---

35 생몰연대 및 大連이 된 시기는 알 수 없다. 欽明天皇 때에 大連으로 재임되었고, 大伴金村이 이른바 '任那 4縣'을 백제에게 할양한 것을 비난하며 금촌을 정계에서 퇴출시켰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13년(552) 백제 성왕이 불상 및 경전 등을 보낼 때(이른바 '불교공전')에는 中臣鎌子와 함께 廢佛을 주장하면서 숭불파인 蘇我稻目과 대립하였다.

36 원문은 瓔珞으로 구슬이나 옥을 꿰어 만든 목걸이를 말한다.

37 采女를 보좌하는 사람이다. 『日本書紀』 '大化改新條'에 따르면 채녀 한 사람에게 從丁 1인, 從女 2인이 있었다. 采女에 대해서는 인덕천황 40년 시세조 采女 참조.

38 1里는 50戶로 구성하는데, 里를 만들고 남은 戶를 餘戶라고 한다. 過戶 또한 같은 의미로 생각되지만, 이 시기에 율령제적인 지방편제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39 현재 廣島市 安佐南區 祇園町 부근이다.

40 大和國 十市郡, 즉 현재 奈良縣 磯城郡 및 櫻井市 지역이다.

41 아래에 보이는 來狹狹은 『日本書紀』 웅략천황 17년 3월조에도 보이는데 攝津國에 있는 지역이므로 伊勢國은 攝津國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42 여기에서만 보인다.

43 『和名類聚抄』에 豊前國 下毛郡과 京都郡 기록에 모두 諫山鄕이 보인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현재 大分縣 下毛郡 三光村 諫山, 후자는 福岡縣 京都郡 勝山町 북부이다.

44 『和名抄』에 「武藏國 埼玉郡 笠原鄕」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현재 埼玉縣 鴻巢市 笠原町

와 小杵는 모두 이름이다.], 해가 지나도 결판이 나지 않았다[45]. 소저는 성품이 과격하고 사람들과 불화하며 교만하고 불순하였다. 그는 몰래 상모야군소웅(上毛野君小熊)에게 구원을 청하여 사주(使主 ; 오미)를 죽이려고 하였다. 사주가 이것을 알고 도망쳤다. 그리고 상경하여 상황을 아뢰었다. 이에 조정이 단죄하기에 나서 사주를 국조로 삼고, 소저를 죽였다. 국조인 사주는 두렵고 기쁜 마음이 교차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삼가 천황[46]를 위하여 횡정(横渟 ; 요코누)[47], 귤화(橘花 ; 타치바나)[48], 다빙(多氷 ; 오호히)[49], 창소(倉樔 ; 쿠라스)[50] 네 곳의 둔창을 바쳤다. 이 해의 간지는 갑인(甲寅)이다[51].

2년 춘정월 무신삭 임자(5일)에 "근년에 해마다 풍년이 들고 변경에는 근심이 없다. 온 백성은 생업을 즐기고 부지런하여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다. 어진 바람이 우주에 뻗고 칭송하는 소리가 천지에 찼다. 내외가 평온하고 국가는 부유하다. 짐이 크게 기쁘다. 5일 동안 연회를 열어 함께 기뻐하라."고 명하였다.

여름 4월 정축삭(1일)에 구사인부(勾舍人部 ; 마가리노토네리베)[52]와 구인부(勾靭

이다.

45 武藏國造의 지위를 두고 지방호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자 대화정권이 개입한 사건이다. 東國 지역 최대의 國造家가 대화정권에게 지위 계승의 판단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대화정권의 지방 지배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6 원문은 國家이다.

47 『和名類聚抄』의 武藏國 横見郡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埼玉縣 比企郡 吉見町 일대이다.

48 『和名類聚抄』에 보이는 武藏國 橘樹郡에 해당하며, 현재 神奈川縣 川崎市와 横濱市 일대이다.

49 『和名類聚抄』의 武藏國 多摩郡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多摩郡은 현재 東京都의 三多摩이다.

50 『和名類聚抄』의 武藏國 久良郡으로 비정되는데 久良郡은 현재 横濱市 중남부 지역이다.

51 安閑天皇의 즉위 기년에 대해서는 안한 즉위전기 참조.

52 安閑(勾大兄)의 이름을 따서 붙인 部이다. 이러한 部는 왕실의 사유재산으로 상속되는 경

部 ; 마가리노유키베)[53]를 두었다.

5월 병오삭 갑인(9일)에 축자(筑紫 ; 츠쿠시)의 수파둔창(穗波屯倉 ; 호나미노미야케)[54]과 겸둔창(鎌屯倉 ; 카마노미야케)[55], 풍국(豊國 ; 토요노쿠니)의 주기둔창(膝碕屯倉 ; 미사키노미야케)[56], 상원둔창(桑原屯倉 ; 쿠하하라노미야케)[57], 간등둔창(肝等屯倉 ; 카토노미야케)[58][音으로 읽는다.], 대발둔창(大拔屯倉 ; 오호누쿠노미야케)[59], 아록둔창(我鹿屯倉 ; 아카노미야케)[60][我鹿은 아카(阿柯)라고 읽는다.], 화국(火國 ; 히노쿠니)의 춘일부둔창(春日部屯倉 ; 카스가베노미야케)[61], 파마국(播磨國 ; 하리마노쿠니)의 월부둔창(越部屯倉 ; 코시베노미야케)[62], 우록둔창(牛鹿屯倉 ; 우시카노미야케)[63], 비후국(備後國 ; 키비노미치노시리노쿠니)의 후성둔창(後城屯倉 ; 시츠키노미야케)[64], 다녜둔

우도 있었다. 舍人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인덕천황 16년 추7월조 舍人 참조.

53 靭部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경행천황 40년 시세조 靭部 참조.

54 『和名類聚抄』에 筑前國 穗浪郡 穗波鄕이 보인다. 현재 福岡縣 嘉穗郡 穗波町에 있었다.

55 현재 福岡縣 嘉穗郡 稻築町에 鴨生이라는 지명, 혹은 福岡 평야 북측의 嘉麻市와 관련이 있는 둔창으로 여겨진다.

56 豊前國 企救郡 門司(현재 福岡縣 北九州市 門司區)에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57 『和名類聚抄』에 豊前國 築城郡 桑原鄕(현재 福岡縣 築上郡 築上町)에 설치되었다.

58 『和名類聚抄』의 豊前國 京都郡 刈田鄕(현재 福岡縣 京都郡 刈田町)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59 『和名類聚抄』의 豊前國 企救郡에 해당하는 현재 北九州市 小倉南區 貫 지역에 설치된 둔창이다.

60 현재 福岡縣 田川郡 赤村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61 『和名類聚抄』의 備後國 託林郡 三宅鄕(현재 熊本縣 熊本市 出水) 일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62 『和名類聚抄』의 播磨國 揖保郡 越部里(현재 兵庫縣 揖保郡 神宮町의 남부)에 설치된 둔창이다.

63 『播磨國內神社記』 餠磨郡條에 牛壁神社가 보인다. 牛壁(우시카베)이 우록부로 생각되며, 현재 兵庫縣 姬路市 四鄕町 本鄕에 '미아케'라는 지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64 『和名類聚抄』에 備中國 後月이 보인다. 備前國을 備中國의 잘못으로 보고 현재 岡山縣

창(多禰屯倉 ; 타네노미야케)[65], 내리둔창(來履屯倉 ; 쿠쿠츠노미야케)[66], 엽치둔창(葉稚屯倉 ; 하와카노미야케)[67], 하음둔창(河音屯倉 ; 카하토노미야케)[68], 아나국(婀娜國 ; 아나노쿠니)[69]의 담식둔창(膽殖屯倉 ; 이니웨노미야케)[70], 담년부둔창(膽年部屯倉 ; 이토시베노미야케)[71], 아파국(阿波國 ; 아하노쿠니)의 춘일부둔창(春日部屯倉 ; 카스가베노미야케)[72], 기국(紀國 ; 키노쿠니)의 경단둔창(經湍屯倉 ; 후세노미야케)[73][經湍은 부세(俯世 ; 후세)라고 한다.], 하변둔창(河邊屯倉 ; 카하헤노미야케)[74], 단파국(丹波國 ; 타니하노쿠니)의 소사기둔창(蘇斯岐屯倉 ; 소시키노미야케)[75][音으로 읽는다.], 근강국(近江國 ; 아후미노쿠니)의 위포둔창(葦浦屯倉 ; 아시우라노미야케)[76], 미장국(尾張國 ; 워

井原市 高屋町으로 비정하고 있다.

65 『和名類聚抄』의 備中國 後月郡 種(현재 岡山縣 井原市 芳田町 種)에 설치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66 『和名類聚抄』의 備中國 後月郡 出部村 九履(현재 岡山縣 井原市 上出部町 일대)에 설치되었다.

67 『和名類聚抄』의 備中國 小田郡 大江村(현재 岡山縣 井原市 小田郡 일대)의 波良加로 비정된다.

68 『和名類聚抄』의 備中國 後月郡 江原村(현재 岡山縣 井原市)의 加夫登으로 비정된다.

69 『和名類聚抄』의 備後國 安那郡(현재 廣島縣 福山市)이다.

70 『和名類聚抄』의 備後國 安那郡 大家鄕(현재 福山市 加茂町)에 설치된 둔창이다.

71 『和名類聚抄』의 備後國 深津郡 三鄕(현재 福山市 吉津町, 千田町 일대)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2 『和名類聚抄』의 阿波國 那賀郡 羽ノ浦(현재 德島縣 阿南市 羽ノ浦町) 宮倉으로 보기도 한다.

73 『和名類聚抄』의 紀伊國 名草郡 大屋鄕(현재 和歌山縣 和歌山市 和佐村)에 설치된 둔창으로 추정된다.

74 『和名類聚抄』의 紀伊國 名草郡 川邊村(현재 和歌山縣 海草郡 川永村)에 설치된 둔창으로 추정된다.

75 『和名類聚抄』의 丹波國 丹波郡 周枳鄕(현재 京都府 京丹後市 大宮町) 또는 桑田郡 桑田鄕(현재 龜岡市 美山, 京北町)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76 현재 滋賀縣 草津市 芦浦町, 三宅町 일대에 설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와리노쿠니)의 간부둔창(間敷屯倉 ; 마시키노미야케)[77], 입록둔창(入鹿屯倉 ; 이루카노미야케)[78], 상모야국(上毛野國 ; 카미츠케노노쿠니)의 녹야둔창(綠野屯倉 ; 미도노노미야케)[79], 준하국(駿河國 ; 스루가노쿠니)의 치지둔창(稚贄屯倉 ; 와카니헤노미야케)[80]을 두었다.

가을 8월 을해삭(1일)에 국(國)마다 견양부(犬養部 ; 이누카히베)[81]를 두도록 명하였다.

9월 갑진삭 병오(3일)에 앵정전부련(櫻井田部連 ; 사쿠라이노타베노무라지)[82], 현견양련(縣犬養連 ; 아가타노이누카히노무라지)[83], 난파길사(難波吉士 ; 나니하노키시)[84] 등에게 둔창의 세를 관장[85]하도록 명하였다.

병진(13일)에 특별히 대련에게 칙을 내려, "소를 난파의 대우도(大隅嶋 ; 오호스미노시마)[86]와 원도(媛嶋 ; 히메시마)[87]의 송원(松原 ; 마츠하라)에 방목하라. 이름

---

77 『和名類聚抄』의 尾張國 春部郡 安食鄕(현재 愛知縣 春日井市 南西部 혹은 西春日井郡 南東部)에 설치된 둔창이다.

78 『和名類聚抄』의 丹羽郡 入鹿村(현재 愛知縣 犬山市 入鹿 지역)의 남동단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9 『和名類聚抄』의 上野國 綠野郡(현재 群馬縣 藤岡市 및 高崎市) 일대에 설치된 둔창으로 보인다.

80 현재 靜岡縣 富士市 吉原의 赤淵川(生贄川) 주변에 설치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81 狩獵이나 守衛를 위한 개의 사육을 담당한 부민이다. 위 기사의 문맥상 둔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犬養部는 개를 이용하여 둔창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다. 犬養部는 이후 군사씨족으로 성장하는데 縣犬養氏, 稚(若)犬養氏, 阿(安)曇犬養氏, 海犬養氏 4씨의 반조씨족이 있다. 『日本書紀』에는 蘇我入鹿 暗殺에 참여한 海犬養連勝麻呂나 葛城稚犬養(若犬養)連網田 등의 관련 인물들이 보인다.

82 櫻井屯倉(현재 東大阪市 六萬寺町 혹은 富田林市 喜志)의 田部를 통솔하는 우두머리이다.

83 縣犬養部를 통솔하는 우두머리이다.

84 『日本書紀』 안강천황 원년 2월조 難波吉士 참조.

85 田租를 수납하고 보관·운영하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86 『日本書紀』 응신천황 22년 춘3월조에 응신천황이 大隅宮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후세에 드리워지기를 바란다[88]."고 하였다.

겨울 12월 계유삭 기축(17일)에 천황이 구금교궁(勾金橋宮 ; 마가리노카나하시노미야)[89]에서 죽었다(崩). 이때 나이 70세였다.

이 달에 천황을 하내의 구시고옥구(舊市高屋丘 ; 후루이치노타카야)의 능[90]에 장사지냈다. 황후 춘일산전황녀 및 천황의 누이 신전황녀(神前皇女 ; 카무사키노히메미코)[91]를 이 능에 합장하였다.

무소광국압순천황(武小廣國押盾天皇 ; 타케워히로쿠니오시타테노스메라미코토) **선화천황**(宣化天皇 ; 센카텐노)

무소광국압순천황[92]은 남대적천황(男大迹天皇 ; 워호도노스메라미코토)[93]의 둘째

大隅는 현재 大阪市 東淀川區 東大道町 일대이다.

87 西成郡 稗島村(현재 大阪市 西淀川區 姫島)을 가리킨다. 『續日本紀』 靈龜 2년(716)에 大隅島, 媛島의 목장을 파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88 안한천황의 名代(대왕직속 집단)를 일컫는다. 다만 大隅島와 媛島의 목장 이름이 천황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89 현재 奈良縣 橿原市 曲川町 지역에 있었다.

90 현재 大阪府 羽曳野市 高屋丘陵의 북단에 축조된 前方後圓墳(高屋城山古墳)이다. 전체 길이 122m이고, 높이는 약 13m(후원부가 약간 높음)이다. 중세 때 高屋城의 축조 등으로 인해 고분 본래의 형태가 크게 변형되었다. 고분주변에서는 埴輪나 須恵器, 正倉院 소장품과 같은 유리 그릇 등이 출토되었다.

91 安閑天皇의 異母妹이다.

92 『日本書紀』 계보상 제28대 천황(467~539년, 재위 : 536~539년)이다. 계체천황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는 尾張目子媛이다. 檜隈高田皇子라고도 하며, 안한천황의 친동생이자 흠명천황의 배다른 형이다. 안한천황이 사망했을 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즉위하였다. 고령의 나이로 즉위했고 재위가 3년 남짓으로 짧기 때문에 별다른 업적은 없다.

93 제26대 계체천황을 가리킨다.

아들이다. 구대형광국압무금일천황[94]의 동모제(同母弟)이다.

2년 12월에 구대형광국압무금일천황이 죽었는데 후사가 없었다. 군신(群臣)들이 검과 거울[95]을 무소광국압순존에게 바쳐 천황으로 즉위하도록 하였다. 이 천황의 성격은 맑고 깨끗하였으며 마음이 명랑하였다. 재능과 지위를 사람들에게 과시하여 왕의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았다. 군자(君子)들이 감복하는 바가 되었다.

원년 봄 정월에 회외(檜隈 ; 히노쿠마)의 여입야(廬入野 ; 이오리노)[96]로 천도하였다. 이로써 궁호를 삼았다.

2월 임신삭(1일)에 대반금촌대련(大伴金村大連 ; 오호토모노카나무라노오호무라지)[97]과 물부추록화대련(物部麤鹿火大連 ; 모노노베노아라카히노오호무라지)[98]을 대련으로 삼았는데, 모두 이전 그대로였다. 또 소아도목숙녜(蘇我稻目宿禰 ; 소가노이나메노스쿠네)[99]를 대신(大臣)으로 삼고 아배대마려신(阿倍大麻呂臣 ; 아헤노오호

---

94 제27대 안한천황을 가리킨다.

95 천황이 가져야 할 권위의 상징이다. 칼과 거울이라고 하였지만 璽符였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96 『古事記』에서는 檜坰(히노쿠마)의 廬入野宮, 「威奈大村墓誌銘」에서는 檜前(히노쿠마) 五百野宮이라고 하였다. '히노쿠마'는 大和國 高市郡 檜前鄕을 나타내는 지명인데 한자로 다양하게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현재 明日香村 檜前으로 飛鳥의 남쪽이다. 東漢氏 등 도래계 씨족들이 많이 거주한 곳이기도 하다. 선화천황의 이름이 檜隈高田皇子이므로 이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97 『日本書紀』 무열천황 즉위전기 大伴金村連 참조.

98 『日本書紀』 무열천황 즉위전기 物部麤鹿火大連 참조.

99 宣化, 欽明朝의 大臣을 지냈으며 蘇我馬子의 아버지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31년(570) 3월조에 薨去한 기사가 보인다. 蘇我氏는 武內宿禰의 아들 石川宿禰를 시조로 하며, 大和國 高市郡 蘇我지역(현재의 橿原市 曾我町)을 본거지로 삼고 크게 세력을 떨쳤던 대씨족이었다. 『公卿補任』에서는 蘇我麻智宿禰의 증손인 韓子의 손자 高麗의 아들이 稻目이라고 하였다.

마로노오미)[100]을 대부(大夫)[101]로 삼았다.

3월 임인삭(1일)에 유사(有司)가 황후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

기유(8일)에 "정비(正妃)인 억계천황(億計天皇 ; 오케노스메라미코토)의 딸 귤중황녀(橘仲皇女 ; 타치바나노나카츠히메미코)를 황후로 삼아라."라고 명하였다. 황후는 1남 3녀를 낳았다. 맏이를 석희황녀(石姬皇女 ; 이시히메노히메미코)[102]라고 한다. 다음을 소석희황녀(小石姬皇女 ; 코이시히메노히메미코)[103]라 한다. 다음을 창치릉희황녀(倉稚綾姬皇女 ; 쿠라노와카야히메미코)[104]라 한다. 다음은 상식엽황자(上殖葉皇子 ; 카미츠우웨하노미코)라 하는데 다른 이름은 완자(椀子 ; 마로코)[105]이다. 이는 단비공(丹比公 ; 타지히노키미)[106]과 위나공(偉那公 ; 이나노키미)[107] 두 성(姓)의 선조다. 그리고 서비(庶妃)[108]인 대하내치자원(大河內稚子媛 ; 오오시코우치노와쿠고히메)은 1남을 낳았다. 이를 화염황자(火焰皇子 ; 호노오노미코)[109]라 한다.

---

100 후손 가운데 大化改新 때 활약한 左大臣 阿倍內麻呂와 이름이 비슷하여 실존 여부가 의심스럽지만, 阿倍內麻呂의 할아버지로 보기도 한다.

101 大夫는 '마에츠키미'라고 읽으며, 大臣·大連의 하위에 위치하는 관인으로 朝政에 參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율령제에서는 대체로 4~5위에 해당하였으며 12계 冠位에서는 大德 혹은 小德에 해당하였다. 대부라는 용어는 일찍부터 『日本書紀』에 보이지만 조정의 유력자라는 일반적인 뜻으로 사용하였고, 6세기 중엽경부터 일정한 정치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阿倍大麻呂는 최초로 임명된 大夫일 가능성이 높다.

102 뒤에 欽明天皇의 황후가 된다.

103 『古事記』에는 欽明天皇이 처로 맞아들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104 뒤에 欽明天皇의 비가 된다.

105 麻呂古, 丸高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106 丹比는 현재 大阪府 南河內郡 美原町 북동부 지역이다. 『日本書紀』 인덕천황 14년 시세조 丹比邑 참조.

107 偉那는 『和名類聚抄』에 攝津國 河邊郡 爲奈鄕(현재 兵庫縣 尼崎市)이라고 나온다.

108 宣化가 즉위하기 전에 혼인한 부인 중에서 두 번째 부인이라는 뜻이다.

109 『三代實錄』에서는 火焰王이 偉那公의 시조라고 하였다.

이는 추전군(椎田君 ; 시이타노키미)[110]의 선조다.

여름 5월 신축삭(1일)에 "먹는 것은 천하의 근본이다. 황금 만 관이 있더라도 배고픔을 낫게 할 수 없다. 백옥이 천 상자가 있더라도 어찌 추위를 막을 수 있겠는가. 무릇 축자국(筑紫國)은 원근의 나라가 내조(來朝)하는 곳이며 오고 가는 관문이 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바다 바깥의 나라[111]는 바닷물을 살펴 방문[112]하고 하늘의 구름을 보고 공헌(貢獻)한다. 태중지제(胎中之帝)[113]로부터 짐의 치세에 이르기까지 곡식을 수장하고 양식을 비축하여 멀리 흉년에 대비하고, 좋은 객에게 향응을 두텁게 베풀어 주었다. 나라를 편안케 하는 방법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짐은 아소잉군(阿蘇仍君 ; 아소노키미)[114][잘 알 수 없다.]을 보내 하내국(河內國 ; 카후치노쿠니) 자전군(茨田郡 ; 마무타노코오리)[115] 둔창의 곡물도 운반하도록 하겠다. 소아대신도목숙녜는 미장련(尾張連)을 보내어 미장국 둔창의 곡물을 운반하게 하라. 물부대련추록화는 모름지기 신가련(新家連 ; 니이노미노무라지)[116]을 보내어 신가둔창(新家屯倉)의 곡물을 운반하게 하라. 아배신(阿倍臣)은 모름지기 이하신(伊賀臣)을 보내어 이하국(伊賀國) 둔창의 곡물을 운반하게 하라. 관가(官家)를 나진(那津 ; 나노츠)[117]의 포구에 수조(修造)

---

110 椎田은 『和名類聚抄』의 攝津國 河邊郡 椎堂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111 원문은 海表之國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가리킨다. 『日本書紀』 계체천황 6년 12월조 海表金銀之國 참조.

112 원문은 來賓이다.

113 제15대 應神天皇을 가리킨다.

114 阿蘇君. 즉 阿蘇 지역의 유력호족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阿蘇 지역이 현재 熊本縣 阿蘇地方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115 현재 大阪府 枚方市 남서부 지역에 있던 郡으로 『日本書紀』 인덕천황 11년 1월조에 茨田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116 『先代舊事本紀』에는 物部竺志連公이 新家連의 시조로 나온다. '新家'는 『和名類聚抄』에 一志郡 新家村이 나오는데, 현재 三重縣 久居市 新家町이다.

117 현재 福岡市 博多港의 옛 이름이다. 원래 『삼국지』 위서 동이전 왜인조에 보이는 奴國의

하라. 또한 축자(筑紫), 비(肥), 풍(豊) 삼국(三國)의 둔창은 흩어져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운반하는 것도 멀고 어려움이 있어 만약 그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바로 대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 군에 명령하여 각각 나누어 옮겨서 나진의 포구에 모아두어 비상에 대비하고, 길이 백성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도록 하라. 빨리 군현에 하달하여 짐의 마음을 알리라."고 명하였다.

가을 7월에 물부추록화대련이 죽었다(薨). 이 해의 간지는 병진(丙辰)이다.

2년 겨울 10월 임진삭(1일)에 천황은 신라가 임나(任那)를 침략하였으므로 대반금촌대련에게 명하여 그 아들 반(磐 ; 이하)[118]과 협수언(狹手彦 ; 사네히코)[119]을 보내 임나를 돕게 하였다. 이때 반은 축자에 머물며 국정을 장악하여 삼한(三韓)[120]에 대비하였으며, 협수언은 가서 임나를 평정하고 또 백제를 구원하였다.

4년 봄 2월 을유삭 갑오(10일)에 천황이 회외의 여입야궁에서 죽었다(崩). 이때 나이 73세였다.

겨울 11월 경술삭 병인(17일)에 천황을 대왜국(大倭國 ; 야마토노쿠니) 신협(身狹 ; 무사)의 도화조판상(桃花鳥坂上 ; 츠키사카노우에)의 능[121]에 장사지냈다. 그리

영역이었다. 선화천황대에 관가를 두어 '那津官家'로 불렸다. 『日本書紀』 제명천황 7년(661) 3월조에는 천황이 백제구원을 위해 '娜大津'에 이르러 가까운 磐瀨行宮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때의 娜大津이 那津을 가리킨다. 那津官家는 일반적으로 후대 九州의 대외교섭을 통괄한 大宰府의 전신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 그 위치는 창고유적과 목책이 발견된 比惠유적(현재 福岡縣 福岡市 博多區 比惠町)이 유력시되고 있다.

118 여기에서만 보인다.

119 생몰연은 알 수 없다. 다만 『日本書紀』 흠명천황 23년(562) 8월조에 대장군으로서 고구려를 공격하여 왕궁까지 들어가 珍寶와 미녀를 얻어 천황과 大臣蘇我稻目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나온다.

120 『日本書紀』의 三韓은 일반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리킨다.

121 신협은 현재 奈良縣 橿原市의 畝傍山 남동쪽 일대를 가리킨다. 『日本書紀』나 『延喜式』

고 황후 귤황녀(橘皇女)와 그 어린 아들[孺子]을 이 능에 합장하였다[122][황후가 죽은 해를 전하는 기록은 없다. 유자(孺子)는 아마도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것 같다.].

일본서기 권 제1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보이는 선화천황릉인 桃花鳥坂上陵은 현재 見三才古墳(橿原市 鳥屋町 所在, 전체 138m, 전방부 폭 78m, 후원부 높이 17m)으로 비정되고 있다.

122 『日本書紀』 안한천황 2년(535) 12월조에도 합장의 예가 있는데, 이와 함께 위 기사는 계체 말년에 내란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기사로 이해되기도 한다.

日本書紀 卷第十八

廣國押武金日天皇 安閑天皇

勾大兄廣國押武金日天皇. 男大迹天皇長子也. 母曰目子媛. 是天皇爲人墻宇嶷岐不可得窺. 桓桓寬大. 有人君之量. 廿五年春二月辛丑朔丁未. 男大迹天皇立大兄爲天皇. 卽日男大迹天皇崩.

是月. 以大伴金村大連爲大連. 物部麁鹿火大連爲大連並如故.

元年 春正月, 遷都于大倭國勾金橋. 因爲宮號.

三月癸未朔戊子, 有司爲天皇納采億計天皇女春日山田皇女爲皇后[更名山田赤見皇女.]. 別立三妃. 立許勢男人大臣女紗手媛, 紗手媛弟香香有媛, 物部木蓮子[木蓮子, 此云伊陀寐.] 大連女宅媛.

夏四月癸丑朔, 內膳卿膳臣大麻呂奉勅, 遣使求珠伊甚. 伊甚國造等, 詣京遲晩, 踰時不進. 膳臣大麻呂大怒, 收縛國造等, 推問所由. 國造稚子直等恐懼, 逃匿後宮內寢. 春日皇后不知直入, 驚駭而顚. 慚愧無已. 稚子直等兼坐闚入罪當科重. 謹專爲皇后獻伊甚屯倉請贖闚入之罪. 因定伊甚屯倉. 今分爲郡屬上總國.

五月, 百濟遣下部脩德嫡德孫·上部都德己州己婁等, 來貢常調. 別上表.

秋七月辛巳朔, 詔曰, 皇后雖體同天子, 而內外之名殊隔. 亦可以充屯倉之地, 式樹椒庭, 後代遺迹. 廼差勅使, 簡擇良田. 勅使奉勅. 宣於大河內直味張

[更名黑棱.] 曰. 今汝宜奉進膏腴雌雉田. 味張忽然恪惜, 欺誑勅使曰, 此田者, 天旱難漑. 水潦易浸. 費功極多. 收穫甚少. 勅使依言, 服命無隱.

冬十月庚戌朔甲子, 天皇勅大伴大連金村曰, 朕納四妻, 至今無嗣. 萬歲之後, 朕名絶矣. 大伴伯父, 今作何計. 每念於茲, 憂慮何已. 大伴大連金村奏曰, 亦臣所憂也. 夫我國家之王天下者, 不論有嗣無嗣, 要須因物爲名. 請爲皇后次妃, 建立屯倉之地, 使留後代, 令顯前迹. 詔曰, 可矣. 宜早安置. 大伴大連金村奏稱, 宜以小墾田屯倉. 與每國田部, 給貺紗手媛. 以櫻井屯倉[一本云, 加貺茅渟山屯倉也.] 與每國田部, 給賜香香有媛. 以難波屯倉與每郡钁丁, 給貺宅媛. 以示於後, 式觀乎昔. 詔曰, 依奏施行.

閏十二月己卯朔壬午, 行幸於三嶋. 大伴大連金村從焉. 天皇使大伴大連, 問良田於縣主飯粒. 縣主飯粒, 慶悅無限. 謹敬盡誠. 仍奉獻上御野· 下御野· 上桑原· 下桑原, 幷竹村之地, 凡合肆拾町. 大伴大連, 奉勅宣曰, 率土之上, 莫匪王封. 普天之下, 莫匪王域. 故先天皇建顯號垂鴻名, 廣大配乎乾坤, 光華象乎日月. 長駕遠撫, 横逸乎都外, 瑩鏡區域, 充塞乎無垠. 上冠九垓, 旁濟八表. 制禮以告成功, 作樂以彰治定. 福應允致, 祥慶符合於往歲矣. 今汝味張, 率土幽微百姓. 忽爾奉惜王地, 輕背使乎宣旨. 味張自今以後, 勿預郡司. 於是, 縣主飯粒, 喜懼交懷. 迺以其子鳥樹獻大連, 爲僮竪焉. 於是, 大河內直味張, 恐畏永悔, 伏地汗流. 啓大連曰, 愚蒙百姓, 罪當萬死. 伏願, 每郡, 以钁丁春時五百丁, 秋時五百丁, 奉獻天皇, 子孫不絶. 藉此祈生, 永爲鑒戒. 別以狹井田六町, 賂大伴大連. 盖三嶋竹村屯倉者, 以河內縣部曲爲田部之元, 於是乎起.

是月, 廬城部連枳莒喩女幡媛, 偸取物部大連尾輿瓔珞, 獻春日皇后. 事至發覺, 枳莒喩, 以女幡媛, 獻采女丁[是春日部采女也.], 幷獻安藝國過戶廬城部屯倉, 以贖女罪. 物部大連尾輿, 恐事由己, 不得自安. 乃獻十市部, 伊勢國來狹狹·登伊[來狹狹·登伊, 二邑名也.] 贄土師部, 筑紫國膽狹山部也. 武藏國造笠原直使主與同族小杵, 相爭國造[使主·小杵, 皆名也.], 經年難決也. 小杵性阻有逆. 心高無

順. 密就求授於上毛野君小熊. 而謀殺使主. 使主覺之走出. 詣京言狀. 朝庭臨斷, 以使主爲國造. 而誅小杵. 造使主, 悚憙交懷, 不能黙已. 謹爲國家, 奉置横渟· 橘花· 多氷· 倉樔, 四處屯倉. 是年也, 太歲甲寅.

二年 春正月戊申朔壬子, 詔曰, 間者連年登穀, 接境無虞. 元元蒼生, 樂於稼穡, 業業黔首, 免於飢饉. 仁風圖乎宇宙, 美聲塞乎乾巿. 內外淸通, 國家殷富. 朕甚欣焉. 可大酺五日, 爲天下之歡.

夏四月丁丑朔, 置勾舍人部· 勾靱部.

五月丙午朔甲寅, 置筑紫穗波屯倉· 鎌屯倉, 豊國朶碕屯倉· 桑原屯倉· 肝等[取音讀.]屯倉· 大抜屯倉· 我鹿屯倉[我鹿, 此云阿柯.], 火國春日部屯倉, 播磨國越部屯倉· 牛鹿屯倉, 備後國後城屯倉· 多禰屯倉· 來履屯倉· 葉稚屯倉· 河音屯倉, 婀娜國膽殖屯倉· 膽年部屯倉, 阿波國春日部屯倉, 紀國經湍屯倉[經湍, 此云俯世.] 河邊屯倉, 丹波國蘇斯岐屯倉[皆取音.], 近江國葦浦屯倉, 尾張國間敷屯倉· 入鹿屯倉, 上毛野國綠野屯倉, 駿河國稚贄屯倉.

秋八月乙亥朔, 詔置國國犬養部.

九月甲辰朔丙午, 詔櫻井田部連· 縣犬養連· 難波吉士等, 主掌屯倉之稅.

丙辰, 別勅大連云. 宜放牛於難破大隅嶋與媛嶋松原. 冀垂名於後.

冬十二月癸酉朔己丑, 天皇崩于勾金橋宮. 時年七十.

是月, 葬天皇于河內舊市高屋丘陵. 以皇后春日山田皇女及天皇妹神前皇女, 合葬于是陵.

武小廣國押盾天皇 宣化天皇

武小廣國押盾天皇, 男大迹天皇第二子也. 勾大兄廣國押武金日天皇之同母弟

也. 二年十二月, 勾大兄廣國押武金日天皇崩無嗣. 群臣奏上劒鏡於武小廣國押盾尊, 使卽天皇之位焉. 是天皇爲人, 器宇淸通, 神襟朗邁. 不以才地, 矜人爲王. 君子所服.

元年 春正月, 遷都于檜隈廬入野. 因爲宮號也.

二月壬申朔, 以大伴金村大連爲大連, 物部麁鹿火大連爲大連, 並如故. 又以蘇我稻目宿禰爲大臣. 阿倍大麻呂臣爲大夫.

三月壬寅朔, 有司請立皇后.

己酉, 詔曰, 立前正妃億計天皇女橘仲皇女爲皇后. 是生一男三女. 長曰石姬皇女. 次曰小石姬皇女. 次曰倉稚綾姬皇女. 次曰上殖葉皇子. 亦名椀子. 是丹比公·偉那公, 凡二姓之先也. 前庶妃大河內稚子媛生一男. 是曰火焰皇子. 是椎田君之先也.

夏五月辛丑朔, 詔曰, 食者天下之本也. 黃金萬貫, 不可療飢. 白玉千箱, 何能救冷. 夫筑紫國者, 遐邇之所朝屆, 去來之所關門. 是以, 海表之國, 候海水以來賓, 望天雲而奉貢. 自胎中之帝, 洎于朕身, 收藏穀稼, 蓄積儲粮. 遙設凶年, 厚饗良客. 安國之方, 更無過此. 故, 朕遣阿蘇仍君[未詳也.], 加運河內國茨田郡屯倉之穀. 蘇我大臣稻目宿禰, 宜遣尾張連, 運尾張國屯倉之穀, 物部大連麁鹿火, 宜遣新家連, 運新家屯倉之穀, 阿倍臣, 宜遣伊賀臣, 運伊賀國屯倉之穀. 修造官家, 那津之口. 又其筑紫肥豊, 三國屯倉, 散在縣隔. 運輸遙阻. 儻如須要, 難以備卒. 亦宜課諸郡分移, 聚建那津之口, 以備非常, 永爲民命. 早下郡縣, 令知朕心.

秋七月, 物部麁鹿火大連薨. 是年也, 太歲丙辰.

二年 冬十月壬辰朔, 天皇, 以新羅寇於任那, 詔大伴金村大連, 遣其子磐與狹手彦, 以助任那. 是時, 磐留筑紫, 執其國政, 以備三韓. 狹手彦往鎭任那, 加救百濟.

四年 春二月乙酉朔甲午, 天皇崩于檜隈廬入野宮. 時年七十三.

冬十一月庚戌朔丙寅, 葬天皇于大倭國身狹桃花鳥坂上陵. 以皇后橘皇女及其孺子, 合葬干是陵[皇后崩年, 傳記無載. 孺子者, 盖未成人而葬歟.].

日本書紀卷第十八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서기 권 제19

日本書紀 卷第十九

제29대 **천국배개광정천황**(天國排開廣庭天皇) **흠명천황**(欽明天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서기 권 제19

천국배개광정천황(天國排開廣庭天皇 ; 아메쿠니오시하라키히로니와노스메라미코토) **흠명천황**(欽明天皇 ; 킨메이텐노)

천국배개광정천황[1]은 남대적천황(男大迹天皇 ; 워호도노스메라미코토)[2]의 적자이다. 어머니는 수백향황후(手白香皇后 ; 타시라카노키사키)[3]라 한다. (계체)천황이 그를 예뻐하여 늘 곁에 두었다. 천황이 어릴 적에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천황께서 진대진부(秦大津父 ; 하다노오호츠치)[4]라는 자를 총애하시면, 커서 반드시 천하를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꿈에서 깨어 사자를 보내 찾게 하니

---

1 欽明天皇은 『日本書紀』 계보상 제29대 천황(재위 : 540~571)이다. 아버지는 繼體, 어머니는 인현천황의 황녀인 手白香이다. 敏達, 用明, 崇峻, 推古 4대 천황의 아버지이다. 계체천황 말년에 異母兄인 安閑, 宣化와 황위계승을 둘러싸고 병립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치세 중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해졌으며, 고구려와 교류가 시작되었다. 한편 欽明紀는 대외관계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계체기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이 한반도 관계 기사로 메워져 있다. 흠명천황 재위 32년간 전체 기사 가운데 국내기사가 기록된 곳은 14년에 불과하며, 나머지 18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대외관계기사는 23년에 걸쳐 풍부하게 나오는데, 국내기사보다 훨씬 자세하고 사실성도 높다.

2 제26대 계체천황이다.

3 계체천황의 황후로 『古事記』에는 手白髮郎女로 나온다.

4 秦氏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응신천황 14년 시세조 弓月君 참조.

산배국(山背國 ; 야마시로노쿠니) 기군(紀郡 ; 키노코오리)의 심초리(深草里 ; 후카쿠사노사토)[5]에서 찾을 수 있었다. 씨명[6]이 과연 꿈에서 본 바와 같았다. 이에 매우 기뻐하며 이제까지 꿔 본 적이 없는 꿈이라고 찬탄했다. 그리고는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묻자, (진대진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이세(伊勢)로 가서 장사하고 돌아올 때, 산에서 늑대 두 마리가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 입과 손을 씻고 기도하며 청하여 '당신은 귀한 신(神)인데 거친 행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만약 사냥꾼을 만난다면, 반드시 잡힐 것입니다[7].'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는 것을 그치게 하고 피 묻은 털을 닦아준 후에 놓아 주어 모두 생명을 보전하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천황이 "반드시 이 보답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즉시 근시하도록 하여 나날이 총애를 더하니 매우 유복하게 되었다. 천황이 제위에 오르자[8] 대장성(大藏省)[9]을 맡게 하였다.

4년 겨울 10월에 무소광국압순천황(武小廣國押盾天皇 ; 타케워히로쿠니오시타테노스메라미코토)[10]이 죽었다(崩). 황자인 천국배개광정천황은 군신에게 명하여 "나는 어리고 학식이 미천하며 아직 정사에 능통하지 못하다. 산전황후(山田皇后 ; 야마다노키사키)[11]는 모든 정무에 능통하시다. 즉위하여 결재하시도록 (황후

---

5 紀伊郡은 현재 京都市 伏見區, 南區 지역이며, 深草里는 伏見區 심초의 稻荷町에서 大龜谷町에 걸친 지역이다.

6 원문은 姓字이다.

7 원문은 見禽尤速이다.

8 원문은 踐祚이다.

9 일본 고대 大藏省은 율령제에서 규정된 8省 가운데 하나로 재정, 특히 출납과 관련된 사무를 보았다. 구체적으로 大藏과 관련된 조정의 창고를 관할하고 錢貨, 調, 공물의 출납관리, 도량형이나 매매가까지 결정하였다. 장관인 大藏卿은 正四位下 상당의 자리이지만, 보통 종3위 이상의 공경이 겸임했다.

10 제28대 선화천황이다.

에게) 청하라."고 말했다. 산전황후는 놀라 사양하며 "첩은 은총을 입은 바가 산과 바다와 같습니다. 어려운 국정을 어찌 부녀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황자는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 자에게 인자하시며, 현자에게는 예로 대하십니다. 해가 높이 오른 정오까지도 식사하지 않고 어진 인물을 기다리신다 합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뛰어나 일찍부터 칭송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성정이 관대하시어 힘써 주위를 안정시키신다 하십니다. 청컨대 여러 신하들은 빨리 (황자를) 제위에 오르시게 하여 천하에 군림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겨울 12월 경진삭 갑신(5일)에 천국배개광정황자가 천황으로 즉위하였다. 이때 나이 약간[12]이다. 황후를 높여서 황태후라 하였다. 대반금촌대련(大伴金村大連)과 물부미여대련(物部尾與大連)을 대련으로 삼고, 소아도목숙네대신(蘇我稻目宿禰大臣)을 대신으로 삼은 것은 모두 예전과 같다.

원년 봄 정월 경술삭 갑자(15일)에 유사(有司)가 황후를 세우기를 청했다. "정비인 무소광국압순천황의 딸 석희(石姬 ; 이시히메)를 황후로 삼아라."라고 명하였다. 황후는 2남 1녀를 낳았다. 맏이는 전전주승대형황자(箭田珠勝大兄皇子 ; 야타노타마카츠노오호에노미코)[13]이고, 둘째는 역어전정중창태주부존(譯語田渟中倉太珠敷尊 ; 오사타노누나쿠라노후토타마시키노미코토)[14]이라 하며, 막내는 입봉황

11 제24대 인현천황의 딸이자 제27대 안한천황의 황후이다.

12 천황이 되기에는 어린 나이라는 의미, 혹은 즉위시 나이를 모른다는 의미이다.

13 『古事記』에는 八田王으로 나오며 『日本書紀』 흠명천황 13년 4월조에 사망기사가 보인다. 大兄制는 6세기 전반부터 7세기 중엽에 걸친 기간에 황위계승상 유력한 황자 이름에 붙은 칭호로 여겨진다. 그런데 천황의 각 后妃의 장자에게 모두 붙기도 하므로 대형제는 황태자제가 성립되기 이전의 황자계승법으로 보는 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4 뒤에 제30대 敏達天皇으로 즉위한다. 譯語田은 궁전의 소재지로 현재 奈良縣 櫻井市 戒重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녀(笠縫皇女 ; 카자누히노히메미코)[15]라 한다[또는 협전모황녀(狹田毛皇女 ; 사타케노히메미코)라 한다.].

2월에 백제인 기지부(己知部)[16]가 귀화[17]하였다. 왜국(倭國 ; 야마토노쿠니)[18] 첨상군(添上郡 ; 소후노카미노코오리)의 산촌(山村 ; 야마무라)[19]에 안치하였다. 지금의 산촌기지부(山村己知部)의 조상이다.

3월에 하이(蝦夷 ; 에미시)와 준인(隼人 ; 하야토)이 나란히 무리를 이끌고 귀부(歸附)하였다[20].

가을 7월 병자삭 기축(14일)에 왜국의 기성군(磯城郡 ; 시키노코오리) 기성도(磯城嶋 ; 시키시마)로 도읍을 옮기고 이름을 기성도금자궁(磯城嶋金刺宮 ; 시키시마노카나사시노미야)[21]이라 하였다.

8월에 고구려[22], 백제, 신라, 임나가 나란히 사신을 보내 물건을 바치고 아울러 공직을 닦았다[23]. 진인(秦人 ; 하다히토)[24], 한인(漢人 ; 아야히토)[25] 등 제번(諸

---

15 『古事記』에는 笠縫王으로 나오며 笠縫은 지명이다. 현재 奈良縣 磯城郡 田原本町을 가리킨다.

16 『新撰姓氏錄』 大和國 諸蕃에 己智를 비롯한 그 동족 집단의 이름이 보인다. 여기서 己智는 중국 진시황의 아들 胡亥太子의 후예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17 원문은 投化이다.

18 大和를 가리킨다.

19 『和名類聚抄』에 大和國 添上郡 山村鄕이 보인다. 현재 奈良縣 奈良市 帶解本町과 田中町 부근이다.

20 『日本書紀』 각 천황기 치세 시작단계에서 주변국이 귀부했다거나 조공해 왔다는 등의 표현은 대부분이 윤색된 것으로, 형식적으로 자주 나온다. 이후 8월조의 한반도 4국이 조공해 왔다는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21 磯城嶋는 현재 奈良縣 櫻町市 金屋 부근이다. 金屋은 일반적으로 鍛冶師, 鑄物師 등의 작업장을 일컫는데 여기서는 金刺의 작업장을 의미하는 듯하다.

22 원문은 高麗이다.

23 물건을 바친 것(獻)과 공직을 닦은 것(脩貢職)은 같은 의미이다.

蕃)의 투화자(投化者)를 불러 모아 국(國)과 군(郡)에 안치하고, 호적(戶籍)을 작성하였다[26]. 진인의 호수(戶數)는 총 7,053호였다. 대장연(大藏掾 ; 오호쿠라노마츠리고토히토)[27]을 진반조(秦伴造 ; 하다노도모노미야츠코)[28]로 임명하였다.

9월 을해삭 기묘(5일)에 난파 축진궁(祝津宮 ; 하후리츠노미야)[29]으로 행차하였다. 대반대련금촌, 허세신도지(許勢臣稻持 ; 코세노오미이나모치)[30], 물부대련미여

---

24 秦氏에 속하여 견직물의 생산을 담당한 도래인 집단 혹은 그 후예이다.

25 漢氏에 속하여 수공업, 기술 등을 담당한 도래인 집단 혹은 그 후예이다.

26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일본의 본격적인 호적 작성은 6세기 중반 도래계 사람들에 대한 호적 작성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日本書紀』 흠명천황 30년(569) 춘정월에 왕진이의 조카 膽津에게 田部의 丁籍을 검정하도록 했다는 기록과 민달천황 3년(574) 10월조에 蘇我馬子를 吉備로 보내 白猪屯倉과 田部를 자세히 조사토록 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일본 최초의 호적 작성자는 胆津이라는 백제계 도래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최초의 전국적인 호적은 천지천황 9년(670)에 작성된 '庚午年籍'이다. 647년부터 664년 사이에 일괄적으로 폐기된 飛鳥京의 목간 가운데는 「白髮部五十戶, ■十口.」라는 기록이 새겨져 있다. 즉 50호를 기본 단위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호적 작성에는 체계적인 법이 필요하다. 『弘仁格式』 序에는 「天智天皇元年에 이르러 令22卷을 제정하니 近江朝廷令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日本書紀』 천지천황 10년 춘정월에 佐平 餘自信, 沙宅紹明이 法官大輔였다는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7 椽은 원래 율령제에서 國司의 제3등관을 말하며, 大藏省의 3등관에는 椽職이 없다. 『日本書紀』 편찬단계에서 삽입된 표현이다.

28 秦部를 관장한 자로서 『日本書紀』 흠명천황 즉위전기에 보이는 秦大津父를 가리키는 듯하다.

29 祝津宮이 있던 지명은 현재 미상이나, 攝津國 河邊郡 難波村으로 보는 견해와 攝津國 西成郡 難波村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30 巨勢男人大臣의 아들이다. 許勢氏는 巨勢氏로도 나오고, 姓은 臣이다. 『日本書紀』 천무천황 13년(684) 11월에 朝臣姓을 하사받는다. 『新撰姓氏錄』 右京 皇別에 의하면 武內宿禰의 후예로 기록되어 있다. 본거지는 大和國 高市郡 巨勢鄕으로 현재 奈良縣 南葛城郡 지역을 중심으로 한 大和지방의 남부 일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는 약 4백여 기의 후기 횡혈식 고분으로 이루어진 大和남부 지역의 최대 군집분인 巨勢山고분군이 있다. 이 고분군의 조사 보고와 문헌사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許勢氏는 6세기 이후 세력을 얻어 등장한 신흥씨족이었으며, 그 실존이 확인되는 최초의 인물이 許勢奈率哥麻였다

(物部大連尾輿 ; 모노노베노오호무라지오코시)[31] 등이 따랐다. 천황이 여러 신하들에게 "어느 정도의 군졸이면 신라를 칠 수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물부대련 미여 등은 "소수의 군졸로는 쉽게 정벌할 수 없습니다. 옛날 남대적천황(男大迹天皇)[32] 6년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임나의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下哆唎), 사타(娑陀), 모루(牟婁) 4현[33]을 청하였습니다. 대반대련금촌이 청하는 대로 그 구하는 바를 쉽게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라가 오랫동안 원망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칠 수 없습니다."라고 주상하였다. 이때 대반금촌은 주길(住吉 ; 스미요시)[34]에 있는 집에서 지내며 병을 칭하고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 천황이 청해부인(青海夫人 ; 아오미노오호토지) 구자(勾子 ; 마가리코)[35]를 보내 정중하게 위문하였다. 대련은 황송해하며 "신이 걱정하는 바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신하들이 신이 임나를 멸망시켰다고 말하는지라 두려워 조정에 나아가지 않은 것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좋은 말[36]을 사인(청해부인)에게 주어

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1 『日本書紀』 안한천황 원년 윤12월 시월조에 처음 나온다. 物部大連守屋의 아버지로서 大連이 된 시기는 『日本書紀』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宣化紀에도 그의 이름은 보이지 않다가 欽明紀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불교 도입문제를 둘러싸고 蘇我氏와 대립하는 物部氏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32 제26대 계체천황이다.

33 『日本書紀』 계체기에 나오는 이른바 '임나 4현'이다. '임나 4현'의 위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크게 전남 방면(영산강 혹은 섬진강), 전남 해안(여수, 광양), 낙동강 중하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日本書紀』 계체천황 6년 동12월조 上哆唎 등 참조.

34 현재 大阪市 住吉區 지역이다. 物部守屋과 蘇我蝦夷가 각각 難波의 宅(『日本書紀』 용명천황 2년 4월조)과 難波大津의 宅(『日本書紀』 황극천황 3년 3월조)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大伴金村도 당시 大津이라고 불리는 住吉津에 宅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5 여기에서만 보인다. 다만 夫人이란 칭호는 율령제의 용어이므로 당시 이런 칭호를 가진 후궁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36 원문은 鞍馬이다. 여러 가지 마구로 호화롭게 장식한 말을 가리킨다.

후하게 경의를 나타내었다. 청해부인은 실제 그대로 주상하였다. 천황은 "오래도록 충성을 다해 왔다. 사람들의 입을 두려워 말라."고 명하였다. 끝내 죄를 묻지 않고 총애함이 더욱 깊었다. 이 해의 간지는 경신(庚申)이다.

2년 봄 3월에 다섯 비(妃)를 들였다. 원비(元妃)는 황후[37]의 동생으로 치릉희황녀(稚綾姬皇女 ; 와카아야히메미코)라 하는데 석상황자(石上皇子 ; 이소노카미노미코)를 낳았다. 다음은 황후의 동생으로 일영황녀(日影皇女 ; 히카케노히메미코)라 한다[여기에서 황후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회외고전천황(檜隈高田天皇 ; 히노쿠마노타카타노스메라미코토)[38]의 딸이다. 그러나 후비로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모비(母妃)의 성과 황녀의 이름은 보이지 않으므로 어느 책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후에 교감하는 자가 명확히 할 것이다.]. 창황자(倉皇子 ; 쿠라노미코)를 낳았다. 다음은 소아대신도목숙녜의 딸로 견염원(堅鹽媛 ; 기타시히메)이라 한다[堅鹽은 기타지(岐施志 ; 기타시)라고 한다.]. 7남 6녀를 낳았다. 첫째는 대형황자(大兄皇子 ; 오호에노미코)[39]라고 하는데 귤풍일존(橘豐日尊 ; 타치바나노토요히노미코토)이다. 둘째는 반외황녀(磐隈皇女 ; 이하쿠마노히메미코)라 한다[혹은 몽황녀(夢皇女 ; 이메노히메미코)라고 한다.]. 처음에 이세대신(伊勢大神 ; 이세노오미카미)을 섬겨 제사지냈으나, 후에 황자 자성(皇子茨城 ; 미코우마라키)[40]과 간음한 것에 연좌되어 해임되었다. 셋째는 납취조황자(蠟嘴鳥皇子 ; 아토리노미코)라 한다. 넷째는 풍어식취옥희존(豐御食炊屋姬尊 ; 토요미케카시키야히메노미코토)[41]이라 한다. 다섯째는 완자황자(椀子皇子 ; 마로코노미코)라 한다. 여섯째는 대택황녀(大宅皇女 ; 오호야케노히메미코)라 한다. 일곱째

37 선화천황의 딸인 石姬를 가리킨다.

38 제28대 宣化天皇이다.

39 뒤의 제31대 用明天皇이다.

40 견염원의 同母妹 小姉君의 장자로 반외황녀의 형이다.

41 뒤의 제33대 推古天皇이다.

는 석상부황자(石上部皇子 ; 이소노카미베노미코), 여덟째는 산배황자(山背皇子 ; 야마시로노미코), 아홉째는 대반황녀(大伴皇女 ; 오호토모노히메미코), 열째는 앵정황자(櫻井皇子 ; 사쿠라위노미코), 열 한째는 견야황녀(肩野皇女 ; 카타노노히메미코), 열 두째는 귤본치황자(橘本稚皇子 ; 타치바나노모토노와카미코), 열셋째는 사인황녀(舍人皇女 ; 토네리노히메미코)라 한다. 다음은 견염원의 동모제(同母弟)로 소자군(小姉君 ; 오아네노키미)이라 한다. 4남 1녀를 낳았다. 첫째는 자성황자, 둘째는 갈성황자(葛城皇子 ; 카즈라키노미코), 셋째는 이부혈수부황녀(穴部穴穗部皇女 ; 하시히토노아나호베노히메미코)[42], 넷째는 이부혈수부황자(穴部穴穗部皇子 ; 하시히토노아나호베노미코)[43][다른 이름은 천향자황자(天香子皇子 ; 아마츠카코노미코)이다. 어느 책(一書)에서 이르기를 주적황자(住迹皇子 ; 스미토노미코)라 한다.], 다섯째는 박뢰부황자(泊瀨部皇子 ; 하츠세베노미코)[44]라 한다[어느 책(一書)에서는 첫째는 자성황자, 둘째는 이부혈수부황녀이며, 셋째는 이부혈수부황자로 다른 이름으로 주적황자이며, 넷째는 갈성황자, 다섯째는 박뢰부황자라 한다. 또 다른 책(一書)에서는 첫째는 자성황자, 둘째는 주적황자, 셋째는 이부혈부황녀이며, 넷째는 이부혈수부황자로 다른 이름으로 천향자라 하며, 다섯째는 박뢰부황자라 한다. 『제왕본기(帝王本紀)』[45]에서는 옛 글자가 많이 있고, 찬집(撰集)하는 사람이 여러 번 바뀌었다. 후세 사람이 읽을 때 고의로 개삭하기도 하고, 전사(傳寫)하는 일이 많았다. 드디어 착란되어 전후 순서가 혼란해지고 형제가 뒤바뀌었다. 지금 고금을 상고하여 바르게 되돌렸다. 알기 어려운 것은 일단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은 상세하게 주기(注記)하

---

42 용명천황의 황후이자 聖德太子의 어머니이다. 『日本書紀』 용명천황 원년조에는 穴穗部間人皇女로 나온다.

43 『日本書紀』 崇峻즉위전기 2년 6월조에 蘇我馬子에게 살해되는 기사가 보인다.

44 뒤의 제32대 崇峻천황이다.

45 『古事記』 서문에 보이는 「帝紀」와 비슷한 내용의 책으로 여겨지며 현존하지 않는다. 御名, 皇居, 在位年數, 后妃, 皇子, 皇女, 崩年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王曆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였다. 다른 경우도 모두 이에 따른다.]. 다음은 춘일일고신(春日日柧臣 ; 카스가노히츠메노오미)의 딸 강자(糠子 ; 아라코)라 한다. 춘일산전황녀(春日山田皇女 ; 카스가노야마타노히메미코)와 귤마려황자(橘麻呂皇子 ; 타치바나노마로노미코)를 낳았다.

여름 4월에 안라(安羅)의 차한기(次旱岐)[46] 이탄해(夷呑奚), 대불손(大不孫), 구취유리(久取柔利) 등과 가라(加羅)의 상수위(上首位) 고전해(古殿奚)[47], 졸마한기(卒麻旱岐)[48], 산반해한기(散半奚旱岐)[49]의 자식, 다라(多羅)의 하한기(下旱岐) 이타(夷他), 사이기한기(斯二岐旱岐)[50]의 자식, 자타한기(子他旱岐)와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 ; 미마나야마토노미코토모치)[51]의 길비신(吉備臣 ; 키비노오미)[52][이름이 빠졌다.]이

---

46 旱岐 다음가는 지위에 있었던 자에 대한 칭호로서 下旱岐와 같다. 大不孫과 久取柔利는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544) 11월조에 下旱岐로 나온다.

47 上首位을 旱岐의 가신집단 우두머리에 대한 칭호로 보는 견해가 있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 11월조에는 上首位 다음의 지위에 있었던 자의 칭호로 여겨지는 二首位란 칭호가 보인다. 古殿奚는 『日本書紀』 계체천황 7년(513) 冬11월조에 伴破의 旣殿奚로 나온다.

48 卒麻는 현 경남 함양 지역에 있었던 나라로 『삼국사기』 지리지의 '速含郡'에 해당한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 11월조에는 卒麻君이 나온다.

49 散半奚는 현 경남 합천군 草溪 일대 지역이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 11월조에는 散半奚君이 나온다.

50 多羅는 현 경남 陜川 지역에 비정된다. 下旱岐는 次旱岐와 같다. 夷他는 이름이다. 斯二岐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辛爾縣으로 현 경남 富林面 新反里를 가리킨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 11월조에는 斯二岐君이 나온다.

51 任那日本府의 初出이다. 安羅에 있었기 때문에 安羅日本府로도 나온다. 『日本書紀』에서 임나일본부 기사는 흠명천황 2년조(541)부터 15년조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임나일본부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흠명천황 2년 4월조에서 성명왕이 계체천황대의 일을 회고하면서 근강모야신을 임나일본부라 부르고 있다. 즉 백제 측은 근강모야신을 임나일본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흠명 14년 일본부경 적신이 사망한 후 일본부경은 다시 임명되지 않았으며, 同 15년의 '在安羅諸倭臣'을 최후로 임나일본부 기사는 보이지 않아 임나일본부의 하한은 554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日本府'라는 명칭은 6세기 중엽에 실재한 명칭은 아니다. '日本'과 '府'는 7세기 말 이후의 것으로 후대 왜에서 일본으로 국호가 바뀐 후에 가필 수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日本府'의 '府'자 때문에 종래 일본

백제에 가서 함께 조서(詔書)를 들었다. 백제의 성명왕(聖明王)[53]이 임나의 한기들에게 "일본 천황이 조를 내린 바는 오로지 임나를 재건하라는 것이다. 이제 어떤 책략으로 임나를 재건할 수 있겠는가. 모두 각자 충성을 다하여 천황의 뜻이 펼쳐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임나 한기들은 "이전에 두세 차례 신라와 의논하였으나 회답이 없었습니다. 의도하는 바를 다시 신라

학계에서는 이를 기관적인 성격으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현존 최고의 『日本書紀』 주석서인 『釋日本紀』에서는 임나일본부를 일본음으로 '미마나노야마토노미코토모치'로 읽고, '任那之倭宰'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 '야마토'는 왜를 의미하여, '미코토모치'는 천황의 의지를 전달하는 사람 즉 사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나일본부'는 임나에 파견된 '왜의 사신'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에 흠명천황 15년 12월조 보이는 '在安羅諸倭臣(안라에 주재한 왜신들)'이 임나일본부의 실태에 가깝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임나일본부의 실체 및 성격규정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시대적으로 보면 왜왕권의 가야지배설, 백제의 가야지배설(백제군사령부설), 왜왕권이 파견한 사신설, 외교기관설, 가야의 독립를 위한 기관설, 교역설 등이 등장하였다. 임나일본부 문제는 6세기 전반대 가야제국이 자국에 침투해 오는 주변제국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먼저 가야제국의 정치외교사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52 日本府의 중심인물로 나온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 3월조에 吉備弟君臣이란 인물이 보이는데 吉備臣이 이 吉備弟君臣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日本書紀』에는 吉備氏의 활약상이 여러 곳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한반도에서 활약한 내용을 담고 있다. 任那國司였던 吉備上道臣田狹이나 신라정토에 파견된 田狹의 아들 弟君(『日本書紀』 웅략천황 7년 시세조), 日本府行軍元帥의 한 사람인 吉備臣小梨(웅략천황 8년조), 신라정토의 장군이었던 吉備臣尾代(웅략천황 23년조) 등이 보인다. 吉備氏는 5세기대에 현재 岡山縣과 廣島縣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철과 소금 교역 등 瀨戶內海의 해상교통을 장악하여 세력을 넓혔고, 大王家와 혼인관계를 맺고 국내 군사행동에도 깊이 관여함으로써 번영을 누린 씨족이다. 5세기 중엽 이후 길비씨의 반란전승 및 둔창 설치는 이전에 길비씨가 갖고 있었던 한반도 남부와의 외교 교섭권을 大和政權이 장악해가는 과정의 사건들로 이해해 볼 수 있다.

53 백제의 제26대 왕인 聖王(재위 : 523~554)을 가리킨다. 『日本書紀』에는 주로 聖明王으로 나오는데 『삼국사기』·『삼국유사』에는 明王·聖王·聖明 등의 호칭도 보인다. 聖王의 즉위연대에 대해서는 『日本書紀』가 계체천황 18년, 즉 524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 『삼국사기』는 무령왕이 죽은 후인 523년에 즉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日本書紀』의 踰年稱元法에 따라 기록된 것으로 실재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차이가 없다.

에 알린다고 해도 여전히 대답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함께 사신을 천황에게 보내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무릇 임나를 재건하는 것은 대왕(大王)[54]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삼가 교지를 받드는 것에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임나의 국경이 신라와 접해있기 때문에 탁순[55] 등이 화를 입을까 두렵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등이라는 것은 탁기탄(喙己呑)[56], 가라(加羅)[57]를 말한다. 탁순 등의 나라처럼 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성명왕은 "옛날 우리 선조 속고왕(速古王), 귀수왕(貴首王)[58]의 치세 때에 안라, 가라, 탁순의 한기 등이 처음 사신을 파견하여 통교하고 두텁고 친밀한 우호관계를 맺어 자제(子弟)가 되어 항상 번영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지금 신라에 속아 천황의 분노를 사고 임나의 원한을 산 것은 과인의 잘못이다. 나는 깊이 후회하고 하부(下部) 중좌평(中佐平) 마로(麻鹵)[59], 성방(城方) 갑배매노(甲背昧奴)[60] 등을

---

54 성왕을 가리킨다.

55 대구 혹은 창원에 있던 가야제국 가운데 하나이다. 『日本書紀』 신공황후 섭정 46년 춘3월조 卓淳國 참조.

56 喙國을 가리킨다. 경산 혹은 대구지역으로 보거나 창녕군 영산면 지역으로 보기도 있다.

57 『日本書紀』에서 加羅는 보통 高靈의 大加耶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뒷 기사내용을 참조할 때 남가라(김해)로 볼 수도 있다.

58 速古王은 백제 제23대 近肖古王(재위 : 346~375), 貴首王은 백제 제24대 近仇首王(재위 : 375~384)을 가리킨다.

59 下部는 백제의 5部 가운데 하나이며, 中佐平은 『日本書紀』 흠명기에 보이는 3佐平 가운데 하나이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4년(543) 11월조에 三佐平이란 말이 보이고, 同 12월조에는 上佐平·中佐平·下佐平이 함께 등장한다. 이렇게 좌평이 세분화되는 것은 단지 행정업무의 세분화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6세기 백제 성왕대 지배귀족의 신분서열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麻鹵는 『日本書紀』 계체천황 23년(529) 3월 시월조에도 나온다.

60 城方은 관직으로 方의 장군인 方領 혹은 부장 方佐일 것으로 추측된다. 甲背는 칭호이며, 昧奴란 인물은 『日本書紀』 계체천황 23년 3월 시월조에 麻鹵와 함께 麻那로 나온다. 흠명천황 4년 12월조에는 중좌평 木劦麻那라는 인물로 등장한다.

보내 가라[61]에 가서 임나의 일본부를 만나 서로 맹세하게 하였다. 이후 이 일을 계속 염두에 두어 임나를 세우는 계획을 조석으로 잊지 않았다. 지금 천황이 조를 내려 '속히 임나를 세워라'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그대들과 함께 모의하여 임나 등의 나라를 수립하고자 한다. 마땅히 잘 계획해야 한다. 또한 임나의 국경에 신라를 불러 조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묻겠다. 동시에 사자를 보내 천황에게 주상하여 삼가 교시를 받겠다. 만약 사자가 돌아오기 전에 신라가 틈을 엿보아 임나를 침공하면 나는 반드시 가서 구할 것이다. 걱정할 바가 못 된다. 그러나 방비를 잘하고 조심하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대들이 탁순 등이 화를 입은 것이 두렵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신라가 스스로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탁기탄은 가라와 신라의 경계에 있어서 해마다 공격을 받아 패망한 것이다. 임나도 구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멸망한 것이다. 남가라는 땅이 협소하여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비할 수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탁순은 임금과 신하가 나뉘어 뿔뿔이 흩어져 왕 스스로가 귀부하려는 생각으로 신라에 내통하였다. 이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삼국이 패망한 것은 모두 이유가 있었다. 옛날에 신라는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하여 임나와 백제를 공격했지만, 이길 수 없었다. 그러니 신라가 어찌 홀로 임나를 멸망시키겠는가? 지금 과인이 그대들과 힘과 마음을 합쳐 천황의 힘을 빌리면 임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물건을 각각 차등있게 주었다. 모두 기뻐하며 돌아갔다.

가을 7월에 백제는 안라일본부(安羅日本府)[62]와 신라가 통모한다는 말을 듣고 전부(前部) 나솔(奈率) 비리막고(鼻利莫古)[63], 나솔 선문(宣文)[64], 중부(中部) 나

61 『日本書紀』 계체천황 23년 3월 시월조에는 회의 장소가 安羅로 기록되어 있다.

62 『日本書紀』 흠명천황 2년 하4월 任那日本府 참조.

63 前部는 백제의 5部 가운데 하나이다. 奈率은 관위 16계 가운데 제6위에 해당한다. 鼻利는 백제의 복성이고, 莫古는 이름이다. 흠명천황 4년(543) 12월조에는 德率로 나온다.

솔 목리미순(木刕眯淳)[65], 기신 나솔 미마사(紀臣奈率彌麻沙)[66][기신 나솔은 아마 기신(紀臣)이 한(韓)의 부인을 얻어 낳았을 것이다. 백제에 머물러 나솔이 된 사람이다. 그 아버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른 경우도 모두 이에 준한다.] 등을 안라에 보내 신라에 간 임나집사(任那執事)[67]를 소환하여 임나를 세우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따로 안라의 일본부의 하내직(河內直)[68]이 신라와 통모하고 있는 것을 심하게 꾸짖었다[『백제본기(百濟本記)』에서는 "가부직비직(加不至費直)[69], 아현이나사(阿賢移那斯)[70], 좌

---

64 『日本書紀』 흠명천황 8년(547) 4월조에는 前部德率眞慕宣文으로 나온다.

65 『日本書紀』 흠명천황 8년 4월조에는 德率木刕眯淳으로 나온다.

66 흠명천황 5년 2월, 同 3월, 11월조에도 보인다. 분주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흠명기에는 倭人과 韓人여자 사이에서 태어나 백제의 관료가 되어 외교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많이 보인다. 이들을 학계에서는 '倭系百濟官僚'라 부르고 있다. 기존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왜계백제관료로는 紀臣奈率弥麻沙, 物部奈率用歌多, 許勢奈率哥麻, 物部奈率哥非, 上部奈率科野新羅, 上部德率科野次酒, 上部奈率物部烏, 物部施德麻帶牟 등이 있다. 이들은 백제관등과 함께 고대 일본의 氏姓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왜국의 紀, 許勢, 物部, 科野氏 출신으로 백제의 관료가 되어 외교 분야에서 활약한 사람들이다.

67 『日本書紀』에 의하면 임나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일본부의 관인과 협의하던 任那諸國의 대표자들로 이해된다. 즉 흠명천황 2년 4월과 同 5년 11월조 등에 보이는 任那諸國의 旱岐 등이 이에 해당된다.

68 이름은 알 수 없다. 河內直氏는 『新撰姓氏錄』 河內諸蕃에 의하면 백제계 도래집단(河內連. 出自百濟國都慕王男陰太貴首王也)으로 河內國 河內郡(현재 東大阪市와 八尾市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日本書紀』 흠명기에는 日本府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 백제가 대화정권에게 원래의 본거지로 송환해 줄 것을 몇 차례에 걸쳐 요구했는데, 그 중에도 河內直은 移那斯·麻都와 함께 송환이 거론되고 있는 핵심인물이다. 그런데 河內直氏의 출자에 대해서는 선조전승의 혼란과 『日本書紀』에서 반백제적인 행동 등에 주목하여 가야로부터 이주한 씨족으로 보기도 한다. 나아가 백제와 인접해 있던 서부가야의 소국이 백제에 패한 뒤에 일본열도(특히 河內지방)로 이주한 뒤 河內直이 되고, 大和政權에 의하여 하내지역이 통합된 이후에는 다시 安羅에 파견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흠명 5년 2월조에 하내직의 선조인 나간타갑배, 가랍직기갑배 등의 인명이 보인다.

69 河內直이다. 加不至(카우치)는 河內(카와치)와 음이 통하고, 費直은 直의 옛 표기이다.

70 佐魯麻都와 함께 일본부의 실권을 잡고 있었던 인물로 나온다. 阿賢은 칭호로 추측되며,

로마도(佐魯麻都)[71] 등이다."라고 말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성명왕은) 임나에게 "옛날 나의 선조인 속고왕과 귀수왕은 당시 한기 등과 처음으로 화친을 맺어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을 자제(子弟)로 삼고, 그대들은 나를 부형(父兄)으로 삼아 함께 천황을 섬기며 힘을 합쳐 강적을 막아내어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 오늘에 이르렀다. 나의 선조와 당시 한기와 화친할 때 한 말을 생각하면 밝은 해와 같이 분명하다. 앞으로 부지런히 이웃과 우호를 닦아 이웃나라와 돈독해지면 은혜가 골육보다 더할 것이다. 처음의 좋은 관계를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과인이 항상 바라는 바이다. 어찌 가벼이 떠도는 말에 이끌려 몇 해 사이에 유감스럽게 뜻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 옛 사람이 '후회막급'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두고 말한 것인가. 위로는 하늘에 이르고, 아래로는 땅에 이르기까지 지금 신에게 맹세하여 과거의 과오를 고치고자 한다. 하나도 숨김없이 할 바를 밝혀서 정성이 신령에게 통하게 하여 스스로 깊이 반성하는 것이 또한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할 바이다. 무릇 뒤를 잇는 자는 선조의 규칙을 귀하게 이어 받아 부조(父祖)의 업을 성대하게 하여 성공시키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들었다. 따라서 지금 선대의 화친의 우호를 존중하여, 삼가 천황의 조칙에 따라 신라가 빼앗은 남가라, 탁기탄 등을 빼앗아 본관[72]에 되돌려 임나로 옮기고 영원토록 부형으로 삼아 항상 일본을 섬기고자 한다. 이것이 과인이 먹어도 맛을 모르고, 자도 편안하지 않은 바이다. 지난 일을 후회하고 지금을 경계하며 언제나 고뇌하고 있는 바이다. 무릇 신라가 감언으로 주위를 속이는 것은 다 아는 바이다. 너희들은 신라를 맹신하여 이미 계략

移那斯가 이름이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544) 3월조에서는 聖明王이 그를 佐魯麻都와 함께 친신라파로 보고 천황에게 日本府에서 추방하기를 요청한 바 있다. 同 10년 하6월조에는 延那斯로 나온다.

71 佐魯는 칭호로 추측되며 麻都는 이름이다. 좌로를 城長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72 임나를 가리킨다.

에 빠져버렸다. 지금 임나의 경계는 신라와 접하고 있다. 마땅히 항상 방비를 해야 할 것이다. 어찌 경계를 게을리 하는가. 두려운 것은 간계에 빠져 나라를 잃고 집이 망하여 포로로 되는 것이다. 과인이 이를 생각하면 걱정되어 편안할 수가 없다. 들리는 소문에 임나와 신라가 함께 계략을 꾸밀 때에 벌과 뱀의 괴이한 징조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것 또한 여러 사람들이 아는 바이다. 무릇 흉조는 행동을 경계하기 위해 나타나고, 재이(災異)현상은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나타난다. 이는 바로 하늘의 경계이고 선령(先靈)의 징표이다. 화를 입은 후 후회하거나 멸망한 후에 일으키고자 해도 어림없는 일이다. 지금 너희들은 나를 따라 천황의 칙을 받들어 임나를 세워야 한다. 어찌 성공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가. 만약 오래토록 본래의 땅을 보존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그 계략은 여기에 있다. 신중히 생각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성명왕이 다시 임나의 일본부에 "천황이 조에서 '임나가 만약 멸망하면 그대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 임나가 만약 일어난다면 너희들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임나를 옛날과 같이 일으켜 너희들을 돕게 하여 백성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명하였다. 삼가 조칙을 받드니 송구스러운 마음이 가득하다.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임나의 융성을 바랄 뿐이다. 옛날처럼 천황을 영원히 섬기고 싶다. 우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 이후를 안락하게 지낼 수 있다. 지금 일본부가 조에 따라 임나를 구조한다면 반드시 천황이 칭찬할 것이고 너희들 자신에게도 당연히 상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경(日本卿)[73] 등은 오랫동안 임나의 나라에 머물면서 신라와 경계를 가까이 접하고 있다. 신라의 실상은 잘 알 것이다. 임나를 해하고 일본을 막으려고 한 것은 이

73 日本府의 卿이라는 의미이다. '卿'은 후대에 윤색된 표현이다. 여기서는 일본부의 상급관인 즉 的臣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的氏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응신천황 16년 8월조 的戶田宿禰 참조.

미 오래된 일이다. 단지 올해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감히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가깝게는 백제가 훌륭한 것을 알아채고 백제를 두려워하고, 멀게는 천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조정을 섬기는 척하며 임나와 거짓으로 화친했다. 이렇게 임나의 일본부를 격려한 것은 임나를 공략하기 전에 거짓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바라건대 그 틈을 엿보아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를 노려 한 번에 군사를 일으켜 공략해야 할 것이다. 천황이 조칙을 내려 남가라, 탁기탄을 일으키라고 권유한 것은 비단 수십 년 동안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신라가 전혀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 또한 경들도 아는 바이다. 천황을 믿고 받들어 임나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경 등이 쉽게 감언을 믿고, 가볍게 거짓말을 믿어 임나국을 멸망케하여 천황을 욕되게 할까 나는 두렵다. 경들은 경계하여 타인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였다.

(3년) 가을 7월에 백제가 기신(紀臣) 나솔(奈率) 미마사(彌麻沙), 중부(中部) 나솔(奈率) 기련(己連)[74]을 보내서 하한(下韓)[75]의 임나의 정무[76]를 아뢰고 아울러 표를 올렸다.

---

74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544) 11월조, 同 7년 정월조에도 나온다. 同 6년 5월조의 奈率其悛과 동일인이다.

75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 11월조의 '南韓'과 같다. 여기서 韓은 가야 지역을 가리키기 때문에 下韓이란 가야의 남부지역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섬진강 중하류 지역일 것으로 추정된다.

76 임나의 정무[任那之政]란 이른바 '任那復興會議' 혹은 '任那再建會議'를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신라에게 멸망당한 南加羅, 喙己呑, 卓淳 등의 부흥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임나부흥'의 당사자인 '임나'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백제와 왜왕권의 의지만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서술태도는 일본 측에 영합하는 내용으로 윤색된 『백제본기』의 가야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4년 여름 4월에 백제의 기신 나솔 미마사 등이 돌아갔다.

가을 9월에 백제 성명왕이 전부(前部) 나솔(奈率) 진모귀문(眞牟貴文)[77], 호덕(護德) 기주기루(己州己婁)[78], 물부(物部) 시덕(施德) 마가모(麻奇牟)[79] 등을 보내어 부남(扶南)의 보물[80]과 노(奴) 2구를 바쳤다.

겨울 11월 정해삭 갑오(8일)에 진수련(津守連 ; 츠모리노무라지)[81]을 보내 "임나의 하한에 있는 백제의 군령(郡令), 성주(城主)[82]를 일본부에 귀속시켜라."라고 백제에 명령하였다. 아울러 조서를 가지고 가게 하여 "그대는 누차 표를 올려 마땅히 임나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 지 10여 년이 되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하였다. 임나는 그대 나라의 동량(棟梁)이다. 만일 동량이 부러지면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짐이 걱정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대

---

77 『주서』 백제전에 따르면 백제의 왕도는 前部, 後部, 中部, 上部, 下部의 5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眞牟는 백제 대성8족의 하나인 眞씨의 복성표기로 眞慕 혹은 姐彌라고도 한다. 文貴는 이름이다. 『日本書紀』 계체천황 7년(513) 6월조에 보이는 姐彌文貴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

78 『日本書紀』 안한천황 원년(534) 5월조에 上部都德己州己婁로 나온다. 都德과 護德 모두 백제 16계 관등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都德은 護德보다 낮은 관등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護德은 제9위인 固德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79 왜계백제관료(『日本書紀』 흠명천황 2년 추7월조 紀臣奈率彌麻沙 참조)의 한 사람이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15년(554) 12월조에 東方令 物部莫哥武連으로 나온다.

80 扶南은 인도차이나반도의 캄보디아 크메르지역에 있던 국가다. 백제가 남조 梁과의 교류를 통해 부남의 재물을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81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 2월조에 인용된 『백제본기』에는 津守連己麻奴跪로 나온다. 『백제본기』를 통해서 己麻奴跪라는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奴'와 '跪'자는 백제계 사료에 주로 보인다. 津守連氏는 攝津지역의 씨족으로 천무천황 13년(684) 12월에 宿禰姓으로 개성되었다.

82 郡令과 城主는 각각 郡과 城의 장관을 일컫는다. 백제는 지방을 5개의 方으로 나누었으며, 方 아래는 郡을 두었고, 郡 아래는 城이 있었다. 『翰苑』 蕃夷部 百濟條에 보이는 方領 아래의 軍將과 道使를 가리킨다. 여기서 郡令은 일본 율령제하에서 사용된 직명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는 빨리 세우라. 그대가 만일 속히 임나를 세우면 하내직 등[하내직은 이미 윗글에 나와 있다.]은 자연히 물러날 것이다. 어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이 날에 성명왕이 칙(勅)을 다 듣고 삼좌평(三佐平)과 내두(內頭)[83] 및 여러 신하에게 차례로 "조칙이 이와 같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세 좌평이 "하한에 있는 우리 군령, 성주 등을 내보내면 안 됩니다.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빨리 조칙[聖勅]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답하였다.

12월에 백제의 성명왕이 다시 이전의 조서를 군신에게 두루 보이며 "천황의 조칙이 이와 같다. 어찌하면 좋은가."라고 물었다. 상좌평(上佐平) 사택기루(沙宅己婁)[84], 중좌평(中佐平) 목리마나(木刕麻那)[85], 하좌평(下佐平) 목윤귀(木尹貴)[86], 덕솔 비리막고(德率鼻利莫古), 덕솔 동성도천(德率東城道天)[87], 덕솔 목리미순(德率木刕眯淳), 덕솔 국수다(德率國雖多)[88], 나솔 연비선나(奈率燕比善那)[89] 등이 의논하여 "신들은 품성이 우매하고 어리석어 모두 지략이 없습니다. 임나를 세우라는 조칙은 속히 받들어야 합니다. 지금 임나의 집사와 각 국의 한기들을 소집하여 같이 모의하여 표를 올려 뜻을 전하십시오. 또한 하내직, 이나사, 마도 등이 계

---

83 三佐平은 상좌평, 중좌평, 하좌평을 일컫는다. 內頭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에서는 6좌평제 가운데 內頭佐平이 보인다. 만약 백제의 좌평제가 3좌평제에서 6좌평제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543년(흠명 4, 성왕 21) 단계에는 아직 백제가 3좌평제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84 沙宅은 백제의 대성8족 중의 하나인 沙씨에서 분화된 성이다. 己婁는 이름이다.

85 『日本書紀』 무열천황 6년(504) 동10월조의 麻那君, 계체천황 23년(529) 3월 시월조의 麻那甲背와 동일인이다.

86 『日本書紀』 계체천황 23년 3월 시월조에는 將軍君尹貴로 나온다.

87 東城은 백제의 성, 道天은 이름이다.

88 國은 백제의 대성8족 중의 하나이며, 雖多는 이름이다.

89 燕比는 燕씨의 복성이며, 善那는 이름이다.

속 안라에 머물러 있으면[90] 아마도 임나를 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울러 표를 올려 본거지로 옮기도록 부탁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성명왕이 "군신들이 의논한 것이 실로 과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 달에 (백제는) 시덕(施德) 고분(高分)[91]을 보내어 임나의 집사와 일본부의 집사(日本府執事)[92]를 소집하였다. 이들은 다같이 "정월 초하루 지나서 가서 듣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5년 봄 정월에 백제국이 사신을 보내어 임나의 집사와 일본부의 집사를 소집하였다. 모두 "제사 지낼 시절이 왔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가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 달에 백제가 다시 사신을 보내어 임나의 집사와 일본부의 집사를 불렀다. 일본부와 임나는 모두 집사를 보내지 않고 신분이 낮은 자를 보냈다. 그래서 백제는 임나국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지 못하였다.

2월에 백제가 시덕(施德) 마무(馬武)[93], 시덕 고분옥(高分屋), 시덕 사나노차주(斯那奴次酒)[94] 등을 임나로 보내 일본부와 임나 한기 등에게 "내가 기신나솔미

---

90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544) 2월조에는 河內直, 移那斯, 麻都의 선조로서 那干陀甲背, 加羅直岐甲背가 나온다. 그리고 同 3월조에는 麻都가 韓腹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3인의 본거지는 모두 한반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安羅 이외의 가야지역으로 생각된다.

91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 2월조에는 施德高分屋으로 나온다. 高는 姓, 分(分屋)은 이름이다.

92 日本府卿 또는 日本府臣과 같이 일본부 내에서 일정한 상하관계를 나타낸 지위 내지는 직명으로 볼 수 있다. 欽明천황 2년 추7월조 日本卿 참조.

93 『日本書紀』 흠명천황 11년(550) 2월조에는 奈率馬武로 나온다. 馬가 姓, 武는 이름으로 추측된다.

94 斯那奴氏는 科野氏로도 나오며 信濃, 즉 현재 長野 지방이 본거지이다. 次酒가 이름이며 왜계 백제관료의 한 사람이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14년(553) 춘정월 乙亥條에는 上部

마사(紀臣奈率彌麻沙), 나솔 기련(奈率己連), 물부련나솔용가다(物部連奈率用歌多)[95] 등을 보내 천황에게 조알하도록 하였다. 미마사 등이 일본에서 돌아와 '너희들은 그곳에 있는 일본부와 함께 조속히 좋은 방책을 세워 짐이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하라. 삼가 조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조서의 내용을 말하였다. 또 진수련(津守連)[『백제본기』에는 진수련기마노궤(津守連己麻奴跪)[96]라 한다. 그러나 말이 변하여 바르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이 일본에서 와서 조칙을 전하고 임나의 정무에 대해 물었다. 그래서 일본부와 임나의 집사와 같이 임나의 정무 문제를 논의하여 천황에게 보고하고자 세 번이나 불렀으나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래서 임나의 정무를 함께 협의하여 천황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 지금 진수련에게 머무르도록 요청하고, 따로 빠른 사자를 보내어 상세한 사정을 천황에게 보고하고자 한다. 그래서 3월 10일에 일본에 사자를 보내겠다. 이 사자가 도착하면 천황은 반드시 그대들에게 물을 것이다. 그대 일본부경과 임나의 한기들은 각자 사자를 보내어 내가 보내는 사자와 같이 (일본으로) 가서 천황이 내린 조칙을 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별도로 하내직[『백제본기』에는 하내직, 이나사, 마도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말이 변하여 올바른 것은 잘 알 수 없다.]에게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직 너의 악평만 들어 왔다. 너의 선조들도[『백제본기』에는 너의 선조 나간타갑배(那干陀甲背)[97], 가랍직기갑배(加臘直岐甲背)[98]라고 한다. 또 나기타갑배(那奇陀甲背), 응가기미(鷹

德率科野次酒로 나온다.

95 왜계 백제관료 중의 한 사람으로 이름은 用歌多이다. 흠명천황 3년(542) 7月에 왜국에 건너온 百濟使臣 중에는 보이지 않는다.

96 『日本書紀』 흠명천황 4년 동11월조 津守連 참조.

97 『日本書紀』 현종천황 3년(487) 시세조에 보이는 任那左魯那奇他甲背의 那奇他甲背와 같다. 혹은 那奇陀甲背라고도 한다.

98 加臘은 加羅를 일컫고 直岐는 이름으로 추정된다. 甲背는 존칭이다. 鷹哥岐彌라고도 하는데, 岐彌는 존칭인 君(키미)과 음이 통한다. 鷹哥는 이름으로 추정된다.

哥岐彌)라고도 한다. 말이 변하여 확실하지 않다.] 다 같이 간계를 품고 거짓을 말하였다. 위가가군(爲哥可君)[99][『백제본기』에서 위가기미(爲哥岐彌), 이름은 유비기(有非岐 ; 우히키)라 하였다.]이 그 말을 믿고 국난을 걱정하지 않고 내 뜻에 반하여 방자하게 포악한 짓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쫓겨났으니 전적으로 너의 책임이다. 너희들은 임나에 머물면서 항상 나쁜 짓을 하였다. 임나가 나날이 쇠퇴해 간 것은 오로지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은 비록 하찮을 지라도 작은 불이 산야를 태우고 마을로 번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너희의 악행 때문에 임나가 패망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해외의 서쪽에 있는 여러 나라의 관가(官家)는 오랫동안 천황을 섬기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 천황에게 진상하여 너희들을 본거지로 돌려보내고자 요청할 것이다. 너희들도 와서 들어라."라고 말하였다.

또한 일본부의 경과 임나의 한기 등에게 "무릇 임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천황의 위엄을 빌리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천황에게 가서 군사를 청하여 임나의 나라를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군량은 내가 운반하겠다. 군사의 수는 아직 정확히 모르고, 군량을 운반할 곳도 역시 결정하기 어렵다. 모두 한 곳에 모여 함께 가부를 의논하여 좋은 것을 택해서 천황에게 주상하고자 한다. 그래서 자주 소집했는데 너희가 좀처럼 오지 않아 협의할 수도 없었다."고 말하였다.

일본부가 "임나의 집사가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황에게 상주하러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이 돌아와서 '짐이 인가신(印哥臣 ; 이카노오미)[100][말이 변하여 잘 알 수 없다.]을

---

99 분주로 인용된 『백제본기』에 의하면 爲哥岐彌라고도 하며 이름은 有非岐이다. 『日本書紀』 현종천황 3년 시세조의 紀生磐宿禰이다. 生磐(오히하)과 有非岐(우히키), 北野本의 有非破(우히하)는 음이 통한다.

100 『日本書紀』 선화천황 4년(539) 5월조에는 伊賀臣으로 나온다. 伊賀臣은 『日本書紀』 효원천황 7년 2월조에 의하면 阿倍(臣) 등 7씨족과 함께 大彦命의 후손으로 나온다.

신라에 보내고 진수련을 백제에 보낼 것이다. 너는 조칙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스스로 신라와 백제에 가지 말라.'는 명을 전하였습니다. 칙은 이와 같았습니다. 때마침 인가신이 신라에 사신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곧 뒤쫓아가 천황이 말씀하신 바를 물었습니다. 조는 '일본의 신과 임나의 집사는 신라로 가서 천황의 칙을 들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제에 가서 명령을 들으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진수련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지금 내가 백제에 파견되는 것은 하한(下韓)에 있는 백제의 군령(郡令), 성주(城主)를 물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직 이 말만 들었고 임나와 일본부가 백제에 모여서 천황의 칙을 들으라는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가지 않은 것은 임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였다. 임나의 한기들은 "사신이 와서 소집하기에 바로 가서 참가하고자 해도, 일본부의 경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왕(大王)은 임나를 세우려는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보고 기뻐하는 마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3월에 백제가 나솔 아탁득문(奈率阿乇得文)[101], 허세 나솔 기마(許勢奈率奇麻)[102], 물부 나솔 가비(物部奈率哥非)[103] 등을 보내서 표를 올려 "나솔 미마사, 나솔 기련 등이 신의 나라에 와서 조서를 바치며 '그대들은 거기에 있는 일본부와 함께 좋은 계책을 내어 하루빨리 임나를 세워라. 신중히 진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진수련 등이 신의 나라에 와서

---

101 阿乇을 지명에서 유래한 백제의 복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得文은 이름이다. 흠명천황 5년(544) 10월에 귀국한다.

102 奇麻가 이름이며 왜계 백제관료이다. 흠명천황 5년 10월에 귀국한 후 同 8년(547) 4월에 다시 왜국에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건너간다. 許勢氏와 韓婦 사이에 태어난 韓子로 여겨진다.

103 哥非가 이름이며 왜계 백제관료이다. 흠명천황 5년 10월에 귀국한다.

칙서를 바치며 임나를 세우는 일을 물었습니다. 삼가 칙서를 받들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협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 일본부[『백제본기』에는 오호파신(烏胡跛臣 ; 우코하노오미)[104]을 불렀다고 한다. 아마 이는 적신(的臣)일 것이다.]와 임나(의 한기)를 소집했습니다. 모두 '새해가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지나고 나서 가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신을 보내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함께 '제사 때가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지내고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사신을 보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위가 낮은 자를 보냈기 때문에 같이 계책을 논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릇 임나를 불러도 오지 않은 것은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현이나사, 좌로마도[두 사람의 이름이다. 이미 위에서 언급했다.]의 간계에 의한 것입니다. 무릇 임나는 안라를 형(兄)으로 여기고 오로지 그 뜻을 따릅니다. 안라인은 일본부를 하늘[天]처럼 여기고 오직 그 뜻을 따릅니다[『백제본기』에는 안라를 부(父)로, 일본부를 본(本)으로 여긴다고 한다.]. 지금 적신(的臣), 길비신(吉備臣), 하내직(河內直) 등은 모두 이나사, 마도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이나사, 마도는 비록 집안과 신분이 낮은 자이지만 일본부의 정사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나를 통제하여 사신을 보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이 협의할 수도 없었고, 천황에게 답신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로 기마노궤(己麻奴跪)[아마 이는 진수련일 것이다.]를 머무르게 하고, 별도로 빨리 나는 새 같은 사람을 보내 천황에 주상합니다. 만약 둘[둘이라는 것은 이나사와 마도를 말한다.]이 안라에 머물면서 많은 간계를 부리면 임나를 세우는 것은 어렵고, 해서(海西)의 제국(諸國)[105]도 반드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이 두

104 후문에 나온대로 的臣을 가리킨다. 烏胡跛(우코하)와 的(이쿠하)은 음이 통한다.

105 여기서는 백제와 임나를 가리킨다.

사람을 본거지로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칙을 내려 일본부와 임나를 타일러 임나를 세우도록 도모하십시오. 그래서 신은 나솔 미마사와 나솔 기련 등에게 기마노궤를 딸려 보내 표를 올려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천황은) 조에서 '적신 등[등이라 함은 길비제군신(吉備弟君臣), 하내직(河內直) 등을 말한다.]이 신라에 왕래한 것은 짐의 본의가 아니다. 이전에 인기미(印支彌 ; 이키미)[106][잘 알 수 없다.]와 아로한기(阿鹵旱岐)[107]가 있을 때 신라에 핍박당하여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백제는 멀리 있어 위급함을 구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적신 등이 신라와 왕래하면서 경작하고 있다는 것을 짐이 일찍이 들은 바 있다. 만약 임나를 세우면 이나사와 마도는 말할 것도 없이 저절로 물러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 이 조를 받고 나서 기쁨과 황송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조정을 속이는 것이지 천황의 칙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신라가 봄에 탁순을 침공해서 구례산(久禮山)[108]의 우리 수비병을 쫓아내고 마침내 점거해버렸습니다. 안라에 가까운 곳은 안라가 경작을 하고, 구례산에 가까운 곳은 신라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신들이 있는 곳을 경작하며 서로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나사와 마도가 남의 경계를 넘어 경작을 하고 6월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인기미 다음의 허세신(許勢臣 ; 코세노오미)[109]의 때[『백제본기』에는 우리가 인기미를 머무르게 한 후에 온 기주신(旣酒臣 ; 코세노오미)의 때에 이르러라고 한다. 모두 잘 알 수 없다.]에는 신라가 다시 남의 경계[110]를 침략한 일이 없었습니다. 안라도 신라가 핍박하여 경작을 못한다고 말한 적이

106 許勢臣의 전임자로 여겨지는데 자세히 알 수 없다.

107 阿鹵가 인명인지 지명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108 현재 경남 함안군의 칠원면 일대로 추정된다.

109 許勢氏는 巨勢氏로도 나오며, 姓은 臣이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원년 9월조 許勢臣稻持 참조.

110 여기서 '남의 경계'란 안라와 신라의 경계로 안라의 영역을 이른다.

없었습니다. 신이 일찍이 신라는 해마다 많은 병사와 무기를 모아서 안라와 하산(荷山)[111]을 습격하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은 가라를 습격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사신이 왔습니다. 군사를 보내 임나를 지키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날쌘 군사를 보내어 때맞춰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나는 계절에 따라 경작하고, 신라는 감히 침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멀리 있어 위급함을 구원할 수 없어서 적신 등이 신라에 왕래하면서 경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상한 것은 천조(天朝)를 속이고 더욱 간계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조차 천조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허위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적신 등이 안라에 있으면 임나는 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땅히 속히 물러나게 하십시오. 신이 몹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좌로마도가 본래 한부(韓婦)의 소생이지만, 지위가 대련(大連)[112]이라는 것입니다. 일본부의 집사들과 교제하여 번영하고 귀한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신라의 나마(奈麻)의 예관(禮冠)을 쓰고 있습니다. 즉 신심(身心)이 어디에 귀부하고 있는지는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행위를 조용히 살피건대, 전혀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에 그의 악행을 주상할 때 자세히 기록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의 옷을 입고, 매일같이 신라의 영지에 이르러 공사 구분 없이 전혀 꺼리는 바 없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무릇 탁국이 망한 것도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탁국의 함파한기(函跛旱岐)[113]가 가라국에 딴 마음을 먹고 신라에 내응하니, 가라는

---

111 현재 경북 고령군 斗谷面 荷山을 가리킨다. 두곡면은 낙동강 본류와 지류인 會川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112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 11월조에 的臣이 日本府의 大臣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 的臣과 麻都는 실제 大臣, 大連이었던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호칭에 불과하다.

113 函跛는 喙國旱岐의 이름으로 여겨지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바깥으로부터 싸움을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탁국은) 멸망한 것입니다. 만약 함파한기가 내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탁국은 비록 소국이지만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탁순의 경우도 또한 그렇습니다. 만약 탁순국의 왕이 신라와 내통하여 적을 불러들이지 않았더라면, 어찌 멸망에 이르렀겠습니까. 여러 나라가 패망한 화근을 두루 살펴보면 모두 내응하거나 딴 마음을 품은 자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마도 등이 신라와 마음이 통하여 그 옷을 입고 밤낮으로 왕복하면서 은밀히 나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나가 영원히 망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임나가 만일 망하면 신의 나라도 고립되어 위태롭게 됩니다. 조공하고자 마음을 먹어도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엎드려 원하옵건대 천황은 깊이 생각하시고 널리 살펴서 속히 그들을 본거지로 보내 임나를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겨울 10월에 백제의 사인 나솔 득문(奈率得文)과 나솔 기마(奈率奇麻) 등이 돌아갔다[『백제본기』에는 겨울 10월 나솔 득문과 나솔 기마 등이 일본에서 돌아와서 "하내직, 이나사, 마도 등의 일을 주상했지만 이에 관해서는 아무런 칙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11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일본부의 신과 임나의 집사를 불러 "천황에게 보낸 나솔 득문과 허세 나솔 기마, 물부 나솔 가비 등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지금 일본부의 신과 임나국의 집사는 마땅히 와서 칙명을 듣고 함께 임나의 일을 협의하라."고 말하였다. 일본의 길비신(吉備臣), 안라의 하한기(下旱岐) 대불손(大不孫), 구취유리(久取柔利), 가라의 상수위(上首位) 고전해(古殿奚), 졸마군(卒麻君), 사이기군(斯二岐君), 산반해군(散半奚君)의 아들, 다라의 이수위(二首位) 흘건지(訖乾智), 자타한기(子他旱岐), 구차한기(久嵯旱岐)[114]가 백제에 이르렀다.

---

114 久嵯는 현재 경남 고성지역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23년(562) 정월조에 인용된 '一本'에는 古嵯로 나온다. 『삼국사기』 지리지1에 「固城郡. 本古自郡」이라는 기록

이에 백제의 성명왕이 조서의 개요를 알리며 "나는 나솔 미마사, 나솔 기련, 나솔 용기다 등을 일본에 보냈다. 그러자 (천황이) 조를 내려 '빨리 임나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또 진수련이 칙을 받들어 임나를 세웠는가에 대해서 물었다. 따라서 모두를 부른 것이다. 어찌하면 다시 임나를 세울 수가 있을 것인가. 각자의 계책을 말하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길비신, 임나한기 등이 "무릇 임나국을 세우는 것은 오로지 대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왕을 따라 함께 주상하여 칙을 듣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성명왕이 "임나국은 우리 백제와 예부터 지금까지 자제와 같이 되겠다고 약속하였다. 지금 일본부의 인기미(印岐彌)[임나에 있던 일본의 신하의 이름이다.]는 이미 신라를 쳤고 이번에는 우리를 치려고 한다. 또 기꺼이 신라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무릇 인기미를 임나에 보낸 것은 본래 그 나라를 침해하려 한 것이 아니다[잘 알 수 없다.]. 예부터 신라는 무도하다. 약속을 어기고 신의를 깨고 탁순을 멸망시켰다. 신뢰하는 나라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면 오히려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를 불러 같이 은조(恩詔)를 받들어 임나국을 일으키고 계승시켜, 옛날과 같이 영원히 형제가 되기를 바란다. 듣건대 신라와 안라 양국의 국경지역에 큰 강[115]이 있는데 요해의 땅이라고 한다. 나는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6성[116]을 쌓으려 한다. 삼가 천황에게 3천 명의 병사를 요청하여 성마다 5백 명씩 두고, 이곳을 우리 병사와 함께 신라가 경작하는 것을 막으면 구례산의 5성[117]은 자

이 보이는데, 여기서 '古自'와 '古嵯'는 음이 통한다.

115 낙동강을 가리킨다.

116 신라와 대치하기 위해서 낙동강 하류 서쪽에 쌓고자 한 백제의 군사적 거점이다.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117 久禮山은 현 경남 함안의 칠원 지역에 있던 산이다. 5성은 『日本書紀』 계체천황 24년(530) 추9월조에 보이는 騰利枳牟羅, 布那牟羅, 雌枳牟羅, 阿夫羅, 久知波多枳의 5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확실하지 않다.

연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할 것이다. 탁순국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요청한 병사에게는 내가 의복과 식량을 제공할 것이다. 이것이 천황에 주상하려는 첫 번째 계책이다. 남한[118]에 군령과 성주를 두는 것이 어찌 천황의 뜻을 거스르고 조공하는 길을 막는 것이 되겠는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강적을 물리치는 것이다. 무릇 저 흉악한 무리는 누구와도 손잡으려 할 것이다. 북적(北敵)[119]은 강하고 우리나라는 미약하다. 만일 남한에 군령과 성주를 두어 수리하고 방어하지 않으면 이 강적을 막을 수가 없다. 또한 신라도 누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을 두어 신라를 공격하여 임나를 보존하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멸망하여 조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천황에 주상하고자 하는 두 번째 계책이다. 또 길비신, 하내직, 이나사, 마도가 계속 임나에 머문다면 천황이 임나를 세우라는 조를 내리더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바라건대 이 네 명을 이주시켜 각각 본읍(本邑)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120]. 이것이 천황에게 주상하려 하는 세 번째 계책이다. 일본의 신(臣)과 임나의 한기 등과 함께 사자를 보내 같이 천황에게 주상하여 조를 받들겠다고 청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길비신과 한기 등이 "대왕이 말씀하신 세 가지 계책은 우리의 마음과도 맞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일본의 대신(大臣)[임나에 있는 일본부의 대신[121]을 말한다.]과 안라왕과 가라왕에게 삼가 보고하고 함께 사신을 보내어 같이 천황에게 주상하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천재일우의 기회이니 심사숙고하여 계책을 세워야만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

118 『日本書紀』 흠명천황 3년 추7월조의 下韓과 같다.

119 앞에 보이는 强敵과 함께 고구려를 가리킨다. 『송서』 왜국전에도 고구려를 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20 本邑은 흠명 4년 11월조의 '本據'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吉備臣, 河內直, 移那斯, 麻都는 안라 이외의 지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121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 3월조 大連 참조.

12월에 월국(越國 ; 코시노쿠니)이 "좌도도(佐渡嶋 ; 사도노시마)[122]의 북쪽 어명부(御名部 ; 미나베)[123] 해안가에 숙신인(肅愼人)[124]이 배 한 척에 타고 와 머물고 있습니다. 봄, 여름에 고기를 잡아서 식량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섬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며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섬 동쪽의 우무읍(禹武邑 ; 우무노사토)[125] 사람이 추자(椎子)[126]를 주워서 익혀 먹으려고 재 속에 넣어 구웠습니다. 그런데 그 껍질이 두 사람으로 변해 불 위로 한 척 이상 뛰어 올라 한참 동안 서로 싸웠습니다. 읍의 사람들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 뜰에 두었는데, 또 전처럼 뛰어 올라 서로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가 점을 쳐 '이 읍의 사람들이 반드시 귀신에 홀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한 바와 같이 초략당했습니다. 그러자 숙신인은 뇌파하포(瀨波河浦 ; 세나카하노우라)[127]로 옮겨 갔습니다. 나루의 신의 영위는 대단하여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목이 말라 그 물을 먹은 뒤 죽은 자가 반에 이르렀으며, 뼈가 바위 틈에 쌓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숙신외(肅愼隈 ; 미시하세노쿠마)라고 부릅니다."라고 보고하였다.

---

122 현재 新潟縣에 속한 佐渡를 가리킨다.

123 『地名辭書』에서는 좌도북단의 加茂郡 鷲崎, 願浦의 옛 이름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124 숙신은 중국 선진문헌에서부터 종종 등장하는 만주 일대에 살던 퉁구스계 수렵민족이자 이 민족이 살던 지역명칭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동북 변방지역 이민족의 보통명칭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제명천황 4년 시세조와 6년 3월조에 숙신은 蝦夷와 다른 종족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열도 북방에는 하이 이외에도 숙신이 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日本書紀』에 등장하는 숙신이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숙신과 같은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고대 일본에서도 중국과 같이 북방의 이민족을 숙신이라고 불렀거나, 중국 동북방의 숙신이 北海道를 통해 일본열도까지 건너갔을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이다.

125 『地名辭書』에는 加茂郡 加茂村의 梅津으로 나온다.

126 모밀잣밤나무의 열매로 추정된다.

127 여기에만 보인다.

6년 봄 3월에 선신파제편(膳臣巴提便 ; 카시하데노오미하스히)[128]을 백제에 사신으로 보냈다.

여름 5월에 백제가 나솔(奈率) 기릉(其倰)[129], 나솔 용가다(用哥多)[130], 시덕(施德) 차주(次酒)[131] 등을 보내어 표를 올렸다.

가을 9월에 백제는 중부(中部) 호덕(護德) 보제(菩提)[132] 등을 임나에 사신으로 보내어 오(吳)의 재물[133]을 일본부의 신과 여러 한기에게 차등있게 주었다.

이 달에 백제가 장육불상(丈六佛像)[134]을 만들었다. 원문(願文)을 지어 "무릇 듣건대 장육불을 만들면 공덕이 매우 크다고 하니 이에 삼가 만듭니다. 이 공덕으로 천황이 매우 높은 덕을 얻으셔서 천황이 다스리는 미이거국(彌移居國 ; 미야케노쿠니)[135]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 아래 모든 중생들이 모두 해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듭니다."라고 말하였다.

겨울 11월에 선신파제편이 백제에서 돌아와 "신이 사신으로 파견될 때 처자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백제의 해안가[濱은 바닷가이다.]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어 거기에 머물러 숙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 어디로

---

128 膳臣은 膳夫를 거느리고 宮廷의 음식물 조리를 담당한 씨족이다. 巴提便은 이름이다.

129 『日本書紀』 흠명천황 3년 추7월조 中部奈率己連 참조.

130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 2월조 物部連奈率用哥多 참조.

131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 2월조 施德斯那奴次酒 참조.

132 菩提가 이름이다. 여기에서만 보인다.

133 吳는 중국 남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시기는 梁武帝의 말년에 해당된다. 즉 吳의 재물은 중국 梁나라의 재물을 의미한다.

134 1丈 6尺 높이의 석가불상이다. 좌상이라면 8尺에 해당된다. 『觀佛三昧經』에 「釋迦牟尼佛身長丈六. 圓光七尺」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백제에서 석가불이 유행했던 시기는 위덕왕대로 보고 있는데 위 기사를 신뢰한다면 성왕대에 이미 석가불이 전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5 彌移居는 官家의 字音表記이다. 官家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신공황후 섭정전기 內官家 참조. 여기서 彌移居國은 백제와 임나를 가리킨다.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큰 눈이 내렸습니다. 새벽녘에야 비로소 찾아 나섰는데 호랑이 발자국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신이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발자국을 따라 바위 동굴에 이르렀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삼가 천칙(天勅)을 받들어 육지와 바다를 비바람을 맞으며 고생하며 나아가, 풀을 베개 삼고 가시를 깔고 잤던 것은 자식을 사랑하여 아비의 업을 잇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 생각컨대 네가 영위있는 신일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오늘 밤 아이가 없어져서 추적하여 이곳에 이르렀다. 목숨을 잃는 것을 겁내지 않고 원수를 갚으러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호랑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입을 벌려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파제편은 갑자기 왼손을 뻗어 그 호랑이의 혀를 잡고 오른손으로 찔러 죽이고 가죽을 벗겨 가지고 돌아왔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 해에 고구려에 대란(大亂)이 있었다.[136] 많은 사람이 살해당하였다[『백제본기』에는 "12월 갑오(20일)에 고려국의 세군(細群)과 추군(麁群)이 궁문에서 싸웠다[137]. 북을 치면서 전투를 벌였다. 세군이 패하였으나 사흘 동안 군사를 해산하지 않았다. 세군의 자손을 모두 사로잡아 죽였다. 무술(24일)에 박국(狛國)의 향강상왕(香岡上王)이 죽었다(薨)[138]."고 한다.].

---

136 『日本書紀』는 고구려의 대란에 대해서 『백제본기』를 참고로 『日本書紀』 흠명천황 6년(545) 是年條와 同 7년 是歲條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대란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137 『日本書紀』 흠명천황 7년 시세조에 따르면 細群은 小夫人의 집안, 麁群은 中夫人의 집안이다. 細群과 麁群은 여기에만 보인다.

138 狛國은 백제계 사료에 나타난 고구려에 대한 멸칭(『日本書紀』 응략천황 20년조에 인용된 『백제기』에 처음 보인다)이다. 香岡上王은 고구려 제23대 왕인 安原王(재위 : 531~545)을 가리킨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安原王의 시호가 보이지 않지만 제24대 陽原王에게 陽岡上好王, 제25대 平原王에게는 平岡上好王 등의 시호가 붙은 예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 安原王의 사망시기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도 545년(안원왕 15)으로 전하고 있다. 『新撰姓氏錄』 左京諸蕃에는 安原王의 후예씨

7년 봄 정월 갑진삭 병오(3일)에 백제의 사신 중부(中部) 나솔(奈率) 기련(己連) 등이 돌아갔다. 양마 70필과 배 10척을 하사하였다.

여름 6월 임신삭 계미(12일)에 백제가 중부 나솔 약엽례(掠葉禮)[139] 등을 보내 조를 바쳤다.

가을 7월에 왜국(倭國 ; 야마토노쿠니) 금래군(今來郡 ; 이마키노코오리)[140]에서 "5년 봄에 천원민직궁(川原民直宮 ; 가와라노타미노아타히미야)[141][궁은 이름이다.] 누대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좋은 말을 발견하였습니다[기이국 어부들의 지(贄)[142]를 나르는 암말의 새끼이다.]. 그 말은 그림자를 보고 소리 높여 울며[143], 가볍게 어미 말의 등을 넘었습니다. 가서 (그 말을) 사들여 여러 해 동안 길렀습니다. 성장하자 기러기처럼 날고, 용처럼 뛰어 올라 무리 중에서도 특히 뛰어났습니다. 마음 먹은대로 부리기 쉽고, 생각하는 대로 빨리 달렸습니다. 대내구(大內丘 ; 오호치노워카)[144]의 18장(丈)이나 되는 골짜기를 뛰어 넘었습니다. 천원민직궁은 회외읍(檜隈邑 ; 히노쿠마노사토)[145]의 사람입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족으로 狛首가 보인다.

139 掠은 성이고 葉禮는 이름이다. 이후 귀국 기사는 보이지 않지만 흠명천황 9년(548) 4월에 中部杆率로서 다시 왜국에 파견되어 그 해 閏7月에 귀국한 것을 보면 이번 사행의 귀국은 同 9년 4월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40 今來는 今木이라고도 한다. 금래군은 웅략 7년 시세조에 '新漢陶部' 등 백제에서 건너온 '今來才伎' 등이 거주한 지역으로 나온다. 현재 奈良縣 明日香村 檜前, 栗原에서 高取町, 大淀町, 御所市 古瀨 일부 지역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141 川原은 현재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의 川原을 가리키며, 民直은 東漢氏의 일족이다. 동한씨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응신천황 20년 추9월조 阿知使主 참조.

142 천황에게 바치는 소금과 해산물을 의미한다.

143 원문은 「睨影高鳴」이다. 이 표현은 『文選』에 나오며 좋은 말이라는 의미이다.

144 현재 奈良縣 明日香村 野口 지역으로 천무, 지통천황의 檜隈大內陵이 있는 주변의 구릉으로 추정된다.

145 檜隈는 檜前이라고도 하며 檜隈邑은 율령제의 檜前鄕 또는 檜隈鄕의 전신으로 여겨진다. 여러 기록에 의하면 檜隈鄕은 백제계 도래인들이 다수 거주했다고 한다. 현재 奈良

이 해에 고구려에 대란이 있었다. 무릇 싸우다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었다[『백제본기』에서 "고구려에서 정월 병오에 중부인(中夫人)의 아들[146]을 왕으로 세웠다. 나이가 8살이었다. 박왕(狛王)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다. 정부인(正夫人)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중부인(中夫人)이 세자(世子)를 낳았다. 그의 외할아버지가 추군(麁群)이었다. 소부인(小夫人)도 아들을 낳았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세군(細群)이었다. 박왕이 병에 걸려 위독해지자 세군과 추군이 각각 부인이 낳은 아들을 즉위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세군 측에서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었다."고 한다.].

8년 여름 4월에 백제가 전부(前部) 덕솔(德率) 진모선문(眞慕宣文)과 나솔(奈率) 가마(哥麻) 등을 보내어 구원병을 청하였다. 그래서 하부(下部) 동성자언(東城子言)[147]을 보내어 덕솔 문휴마나(汶休麻那)[148]와 교대하게 하였다.

9년 봄 정월 계사삭 을미(3일)에 백제의 사신 전부 덕솔 진모선문 등이 돌아갈 것을 청하였다. 그래서 조를 내려 "요청한 구원병은 반드시 보내서 구원할 것이다. 속히 왕에게 가서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여름 4월 임술삭 갑자(3일)에 백제는 중부(中部) 간솔(杆率) 약엽례(杆率掠葉

縣 明日香村 檜前 지역에 해당한다.

146 후문에는 世子로 나오며 고구려 제24대 陽原王(재위 : 545~559)을 가리킨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平成(陽原王의 諱)은 안원왕 3년(533) 정월에 태자로 책봉되었기 때문에 이때 1세라고 하더라도 즉위할 때는 적어도 13세 이상이 된다. 그런데 본조의 『백제본기』에는 8세에 즉위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삼국사기』의 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147 東城子는 성씨, 言은 이름으로 추정된다. 흠명천황 15년(554) 2월에 德率東城子莫古와 교대한다.

148 汶休는 백제의 성, 麻那는 이름이다. 汶休를 백제 대성8족 가운데 하나인 木氏에서 갈라져 나간 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汶休麻那가 백제에서 언제 파견되었는지 알 수 없다.

禮)[149] 등을 보내 "덕솔 선문 등이 칙을 받들어 신의 나라에 이르러 '구원병은 때에 맞춰 파견할 것이다.'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삼가 은조(恩詔)를 받으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마진성(馬津城)[150] 전투[정월 신축에 고구려가 군사를 이끌고 마진성을 포위하였다.]에서 사로잡은 포로가 '안라국과 일본부가 (고구려를) 불러들여 (백제를) 정벌하기를 권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참으로 그럴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세 번이나 사신을 보내 불렀으나 모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공하신 천황께서[서번(西蕃)들은 일본 천황을 모두 황공하신 천황이라 칭한다.] 먼저 조사하여 주십시오. 요청한 원군을 잠시 보류하시고 신의 보고를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상주하였다. 천황은 조를 내려 "상주한 내용을 듣고 우려하는 바를 살펴보니 일본부와 안라가 이웃의 어려움을 구하지 않은 것은 짐도 또한 괴롭다. 또 고구려에 몰래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짐이 명하였다면 보냈을 것이다. 명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맘대로 보낼 수 있겠는가. 원하건대 왕은 옷깃을 열고 허리띠를 풀고 편안한 태도로 평정심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너무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임나와 함께 전에 명한 대로 힘을 합쳐서 북적을 막고 각각 봉토를 지켜라. 짐은 사람을 보내 안라인이 도망가 버린 공지(空地)를 채우도록 하겠다."고 명하였다.

6월 신유삭 임술(2일)에 백제에 사신을 보내 조를 내려 "덕솔 선문(德率宣文)이 돌아간 후에 잘 도착하였는가? 소식은 어떠한가? 짐이 듣건대 너희 나라는 박적(狛賊)[151]의 침해를 받았다고 한다. 임나와 함께 잘 논의하여 전과 같이[152]

---

149 『日本書紀』 흠명천황 7년 하6월조의 中部奈率掠葉禮 참조.

150 현재 충남 예산지역(馬津縣)의 성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본기 성왕 26년(548) 정월조에서는 백제의 獨山城이 고구려와 예의 침략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이 독산성을 마진성과 같은 곳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경기도 포천이나 황해도 장단군에 있던 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막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윤7월 경신삭 신미(12일)에 백제의 사신 약엽례 등이 사행을 마치고 돌아갔다.

겨울 10월에 백제에 370명을 보내어 득이신(得爾辛)[153]에 성을 쌓는 것을 도왔다.

10년 여름 6월 을유삭 신묘(7일)에 장덕(將德) 구귀(久貴)[154]와 고덕(固德) 마차문(馬次文)[155] 등이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이에 조서를 내려 "연나사(延那斯)와 마도(麻都)가 몰래 사사로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낸 것은 짐이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허실을 물을 것이다. 요청한 군사는 바라는 바에 따라 중지시키겠다."라고 하였다.

11년 봄 2월 신사삭 경인(10일)에 백제에 사신을 보내어[『백제본기』에는 "3월 12일 신유에 일본의 사신 아비다(阿比多 ; 아히타)[156]가 배 3척을 이끌고 도성 아래에

---

151 狛賊은 고구려에 대한 멸칭이다. 「광개토왕비」에서 고구려는 적대적이었던 백제와 왜를 각각 '百殘', '倭賊'이라고 칭했는데 참고가 된다.

152 백제와 임나가 고구려를 막은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광개토왕비」에 보면 백제－가야제국－왜가 연합하여 고구려－신라에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53 현재 충남 논산군 恩津지역에 있던 성이다. 『三國史記』 地理志에서는 德殷郡은 원래 백제의 德近郡으로 경덕왕대에 개명되어 지금의 德恩郡으로 되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恩津縣은 원래 德恩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德爾는 德恩과 음이 통한다. 辛은 邑城, 邑里를 가리키는 말이다.

154 久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후문에는 관등이 將德(제7위)이 아닌 施德(제8위)으로 나온다.

155 馬가 성이고 次文을 이름이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11년 2월조에는 馬進文으로 나오며, 固德은 백제 관위 16계 가운데 제9위이다.

156 『日本書紀』 계체천황 10년(516) 9월조에 백제사신의 일원으로 같은 이름이 보이는데

이르렀다."고 하였다.] 조를 내려 "짐이 장덕 구귀와 고덕 마진문(馬進文) 등이 올린 표의 뜻에 따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하나하나 교시하겠다. 심정을 자세하게 드러내고 생각하는 것을 다 말하겠다. 대시두(大市頭)[157]가 돌아온 뒤로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자세히 대답하고자 사신을 보낸다. 또한 짐이 듣건대 나솔 마무(奈率馬武)는 왕이 신뢰하는 신하이다. 위에 아뢰고 아래에 전하는 것이 매우 왕의 마음에 들어 왕을 보필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만일 국가가 무사하고 오랫동안 관가가 되어 길이 천황을 받들고자 한다면 마무를 대사로 삼아 조정에 보내라."고 명하였다. 거듭해서 조를 내려 "짐이 듣건대 북적은 강하고 포악하다고 한다. 그래서 화살 30구[158]를 내리니 바라건대 한 곳을 방어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여름 4월 경진삭(1일)에 백제에 있는 일본의 사자[159]가 바야흐로 돌아가고자 하였다[『백제본기』에는 4월 1일 경진에 일본(日本) 아비다(阿比多)가 돌아갔다고 한다.]. 백제왕 성명이 사자[王人]에게 "임나의 일은 칙을 받들어 굳게 지키겠다. 연나사와 마도의 일은 문책할 것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칙에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고구려 노(奴) 6구를 바치고, 별도로 사자에게 노(奴) 1구를 주었다[모두 이림(爾林)[160]을 공격하여 사로잡은 노예이다.].

(斯那奴阿比多) 동일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日本書紀』 계체기에는 백제의 사신으로, 흠명기에는 왜국의 사신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157 장덕 구귀의 관직명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히 알 수 없다.

158 1具는 50本이다.

159 원문은 日本王人이다. 『日本書紀』에서 王人이란 표현은 민달천황 6년 5월조의 분주와 이곳 두 군데에서만 보인다. 왕인은 왜왕의 사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日本書紀』 편찬방침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즉 『日本書紀』 본문에서는 왜왕을 모두 천황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천황과 왕인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왕인의 경우는 아마도 백제 측 기록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듯하다.

160 현재 전북 任實이나 金堤郡 利城, 혹은 충북 괴산이나 음성 지역, 청원의 미호천 일대 등으로 보고 있다. 『日本書紀』 응신천황 16년 시세조 爾林城 참조.

을미(16일)에 백제가 중부(中部) 나솔 피구근(皮久斤)[161]과 하부(下部) 시덕(施德) 작간나(灼干那)[162] 등을 보내어 고구려[163]의 포로 10구를 바쳤다.

12년 봄 3월에 보리 씨앗 1천 곡(斛)[164]을 백제왕에게 주었다.

이 해에 백제 성명왕이 친히 백제의 군사[衆]와 두 나라[두 나라는 신라와 임나를 말한다.]의 병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쳐서 한성(漢城)[165]의 땅을 차지하였다. 또한 진군하여 평양(平壤)[166]을 쳤다. 모두 6군(郡)[167]의 땅은 고지를 회복한 것이다[168].

13년 여름 4월에 전전주승대형(箭田珠勝大兄 ; 야타노타마카츠노오호에)[169]이 죽

161 皮가 성이고 久斤을 이름으로 보기도 한다. 귀국 시기는 알 수 없다.

162 灼이 성이고 干那을 이름으로 보기도 한다. 中部奈率皮久斤과 마찬가지로 귀국 시기는 알 수 없다.

163 원문은 狛이다.

164 1斛은 10斗이다.

165 웅략천황 20년조에 인용된 『百濟記』에는 尉禮로 나온다. 漢城은 현 서울지역으로 백제의 초기 도읍지가 있던 곳이다. 현재 백제의 초기 도읍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강동구 풍납토성, 송파구 몽촌토성 등이 있는데, 풍납토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런데 본조의 한성에 대해서는 몽촌토성 또는 몽촌토성을 포함한 한강 이남지역 일대를 통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166 平壤은 오늘날의 평양이 아닌 서울 북한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 南平壤을 가리킨다. 한편 최근 발굴조사된 아차산의 보루들이 바로 남평양의 외곽을 방어하던 시설로 이해되기도 한다.

167 漢城과 平壤(남평양)을 중심으로 한 옛 백제의 영역이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13년(552) 시세조에 의하면 백제는 다시 이곳을 신라에 빼앗긴다.

168 백제의 한성 수복 관련기사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보이지 않고, 고구려본기와 신라본기에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551년 백제의 한성 수복은 신라와 연합작전을 통해서 실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9 『古事記』에는 八田王으로 나오며 흠명천황의 장자이다.

었다(薨).

5월 무진삭 을해(8일)에 백제, 가야, 안라가 중부(中部) 덕솔 목리금돈(木刕今敦)[170]과 하내부(河內部) 아사비다(阿斯比多)[171] 등을 보내어 "고구려와 신라가 화친하고 세력을 합쳐 신의 나라와 임나를 멸하려고 합니다[172]. 따라서 삼가 원병을 요청하여 먼저 불시에 공격하고자 합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은 천황의 칙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천황이) 조를 내려 "지금 백제왕, 안라왕, 가라왕과 일본부의 신 등이 함께 사신을 보내 상주한 상황은 잘 들었다. 또한 임나와 함께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하여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늘이 지켜주는 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황공하신 천황의 영위에 의한 가호가 있을 것이다."라고 명하였다.

겨울 10월에 백제 성명왕[다른 이름은 성왕이다.]이 서부(西部) 희씨(姬氏) 달솔(達率) 노리사치계(怒唎斯致契)[173] 등을 보내어 석가불금동상(釋迦佛金銅像) 1구

---

170 木刕는 木씨 또는 刕씨에서 갈라져 나간 성으로 보이며 今敦은 이름이다. 흠명천황 14년(585) 정월에 귀국한다.

171 왜계 백제관료로 보는 견해도 있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14년 정월조에서는 中部德率 木刕今敦과 함께 백제사신으로 나온다.

172 백제의 성왕은 왜에게 원병을 요청하는 중요한 이유로 신라와 고구려가 화통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와 신라의 우호관계는 464년경에 결렬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왕이 왜의 원병을 끌어들이기 위해 고구려를 들먹였던 것에 불과한 것인지, 실제로 이 기간에 고구려와 신라의 내통이 있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고구려와 신라의 밀약이 552년이나 553년 초에 성립되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 『日本書紀』의 기사를 신빙하여 552년 5월 이전에 백제가 양국의 내통을 알고 있었다는 견해, 551년 고구려 혜량법사와 거칠부의 관계, 그리고 혜량법사의 신라투항을 밀약의 계기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173 西部는 백제 5部 가운데 하나인 下部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흑치상지전에 의하면 흑치상지가 서부인으로 나온다. 姬氏라고 표기한 것은 중국 주나라 왕실의 姬姓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怒唎斯致契는 이름이다. 『新撰姓氏錄』 右京諸蕃下와 山城國諸蕃에 調達과 民首가 선조로 칭하는 '努理使主'가 바로 그이다. 여기서 使主는 백제의 인명어미에 자주 등장하는 경칭의 의미이다. 불교를 전한 노리사치계가 왜국에 영주하였다면 그

(軀), 약간의 번개(幡蓋)[174]와 약간의 경론(經論)을 바쳤다[175]. 따로 표를 올려 (불법을) 유포시키고 예배하는 공덕을 찬양하여 "이 법[176]은 여러 법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만, 이해하기도 어렵고 입문하기도 어렵습니다. 주공(周公)[177]과 공자(孔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무한한 복덕(福德)과 과보(果報)를 만들고, 무상(無上)의 보리(菩提)[178]로 이끕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수의보(隨意寶)[179]를 품고 사용하면 뜻하는 바대로 되는 것과 같이, 이 오묘한 법보(法寶)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원한 것이 뜻대로 되어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또 멀리 천축(天竺)으로부터 삼한에 전해지기까지 모두 가르침에 따르고 받들어 존경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왕 신(臣) 명(明)은 삼가 부신(陪臣)[180] 노리사치계를 보내 제국(帝國)에 받들어 전하니 기내(畿內)에 유포시키십시오. 부처가 '나의 법이 동쪽으로 전해질 것이다[181]'라고 적고 있는 바대로 이루어지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날에 천황은 듣고 나서 뛸 듯이 기뻐하며 사신에게 조를 내려 "짐이 예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이 미묘한 법은 들은 적이 없다. 그러나 짐이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래

후손이 노리사주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174 幡은 불교의 장엄구로서 사용되는 깃발을 말하며, 蓋는 日傘을 의미한다.

175 백제가 왜국에 불교를 전해 준(일본학계에서는 이른바 '佛教公傳'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日本書紀』의 흠명천황 13년(552)인 壬申年설과 『元興寺伽藍緣起幷流記資財帳』(이하 『元興寺緣起』로 약칭함)과 『上宮聖德法王帝說』의 戊午年설(538)이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76 이하의 내용은 주로 『金光明最勝王經』의 如來壽量品과 四天王護國品 등에 보이는 표현과 같다.

177 유교에서 孔子가 理想으로 삼은 聖人이다.

178 道, 覺, 知를 일컫는다. 번뇌에서 벗어나 바른 지혜를 얻어 깨달음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179 如意寶珠를 말하며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영험한 구슬을 말한다.

180 원래 고대 중국에서 諸侯의 신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81 『大般若經』 難聞功德品에 나오는 표현과 같다.

서 여러 신하들에게 일일이 "서쪽의 번국(蕃國)이 바친 불상의 용모는 장엄하고 눈부시다. 지금까지 전혀 본 적이 없던 것이다. 이것을 예배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소아대신도목숙녜(蘇我大臣稻目宿禰 ; 소가노오호키미이나메노스쿠네)[182]가 "서쪽의 번국 여러 나라가 하나같이 모두 예배합니다. 풍추일본(豐秋日本)만 어찌 홀로 등지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물부대련미여(物部大連尾輿 ; 모노노베노오호무라지오코시)[183]와 중신련겸자(中臣連鎌子 ; 나카토미노무라지가마코)[184]가 함께 "우리나라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항상 천지사직(天地社稷)의 180신을 춘하추동으로 제사지내고 섬겨 왔습니다. 이제 번신(蕃神)으로 바꾸어 받든다면 국신(國神)의 노여움을 살까 두렵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천황이 "원하고 있는 도목숙녜에게 (불상을) 맡겨 시험 삼아 예배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대신(大臣)은 무릎 꿇고 받으며 매우 기뻐하고 소간전(小墾田 ; 워하리다) 집[185]에 안치하였다. 부지런히 불도를 닦고 이를 위해 향원

---

182 宣化. 欽明朝의 大臣으로 馬子의 아버지이다. 『日本書紀』 선화천황 원년(536) 2월조에 처음 나오며 흠명천황 31년(570) 3월에 사망한다. 여기서 宿禰는 姓이 아닌 존칭이다. 蘇我氏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大臣으로 취임하여 大王家와 인척관계를 맺고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였다. 蘇我氏는 武內宿禰의 자식인 石川宿禰의 후손으로 大和國 高市郡의 蘇我(현재 橿原市 曾我町)지역을 본거지로 세력을 형성했던 씨족이다.

183 『日本書紀』 안한천황 원년(534) 12월 시월조에 처음 보일 때부터 大連으로 나온다. 守屋의 아버지이다.

184 中臣氏는 天兒屋命의 후손으로 대화정권의 제사를 담당한 씨족이다. 『中臣氏系圖』에는 흠명조에 常磐이 처음으로 中臣連을 사성받았다고 나오고, 中臣이라는 씨명은 신과 인간을 중개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鎌子라는 이름은 『中臣氏系圖』에도 보이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中臣氏의 유명한 인물로는 大化改新 때에 활약한 中臣鎌足이 있다. 中臣鎌足은 천지천황 8년(669)에 '大織冠 內大臣'이라는 직위와 '藤原氏'라는 씨명을 받았다. 이에 일족도 藤原氏를 칭했지만 문무천황 2년(698) 겸족의 아들인 不比等만 藤原氏를 계승하고 그 외에는 다시 中臣氏를 칭하게 되었다. 中臣連은 천무천황 13년(684)에 朝臣姓을 사성받는다.

185 현재 奈良縣 高市郡 明日鄕村 북부의 大字豐浦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向原 ; 무쿠하라)[186]의 집을 희사하여 절로 삼았다. 그 후 나라에 돌림병이 돌아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해져서 치료할 수가 없었다. 물부대련미여와 중신련겸자가 함께 "지난 날 신들의 계책을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원래대로 되돌린다면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속히 (불상을) 던져 버리고 열심히 후일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천황이 "주상한 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유사(有司)가 불상을 난파(難波 ; 나니와)의 굴강(掘江 ; 호리에)[187]에 던져 버리고, 가람에 불을 놓았다. 전부 타버려 남은 것이 없었다. 이때 하늘에는 바람과 구름도 없었는데 갑자기 대전[188]에 불이 났다.

이 해에 백제가 한성과 평양을 포기하였다. 그래서 신라가 한성으로 들어갔다. 현재 신라의 우두방(牛頭方), 니미방(尼彌方)[189]이다[지명이지만 자세히 알 수 없다.].

14년 봄 정월 갑자삭 을해(12일)에 백제가 상부(上部) 덕솔(德率) 과야차주(科野次酒)[190]와 간솔(杆率) 예색돈(禮塞敦)[191] 등을 보내 군병을 청하였다.

무인(15일)에 백제의 사신 중부 간솔 목리금돈과 하내부 아사비다 등이 돌

---

186 『元興寺緣起』에서는 牟久原에 櫻井道場을 만들었다고 하며, 『上宮聖德法王帝說』에서 櫻井寺가 지금의 豊浦寺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 볼 때 小墾田家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187 大阪灣에서 가까운 大川(天滿川)을 가리킨다. 大和의 向原에 있었던 불상을 難波까지 가서 버린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위의 기사를 부정하기도 한다. 한편 廢佛의 방침을 선언하기 위해 일부러 도래인이 많이 거주하던 難波에 버렸다는 견해도 있다.

188 磯城島의 金刺宮 大殿을 가리킨다.

189 牛頭方과 비슷한 牛首州란 지명이 『삼국사기』에 보이지만, 牛首州는 현 강원도 춘천에 비정되기 때문에 같은 곳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尼彌方은 경기도 동두천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190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 2월조 施德斯那奴次酒 참조.

191 杆率은 德率로 추정된다. 禮는 성이고 塞敦은 이름이다.

아갔다.

여름 5월 무진삭(1일)에 하내국(河內國)이 "천군(泉郡 ; 이즈미노코오리)[192]의 모정해(茅渟海 ; 치누노우미)[193]에서 불교음악[194]이 들립니다. 음향이 번개 소리와 같습니다. 광채가 해의 빛과 같이 빛납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천황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구변직(溝邊直 ; 이케헤노아타히)[195][여기에서 단지 직(直 ; 아타히)이라고만 적고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은 전사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범한 것인가.]에게 바다로 들어가 찾아보게 하였다. 이때에 구변직이 바다로 들어가 바다 위에 장목(樟木 : 녹나무)이 떠서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침내 (장목을) 가져다 천황에게 바치니, 천황이 화공(畫工)에게 명하여 불상 2구를 만들도록 명하였다[196]. 지금의 길야사(吉野寺 ; 요시노노테라)[197]에서 빛을 발하는 장목 불상이 그것이다.

6월에 내신(內臣 ; 우치노오미)[198][이름이 빠졌다.]을 백제에 사신으로 보냈다. 그

---

192 율령제의 河內國 和泉郡으로 현재 大阪府 和泉市 일대이다.

193 和泉郡과 淡路 사이의 바다를 일컫는다. 현재 大阪만 일대이다.

194 원문은 梵音이다.

195 溝邊直은 東漢氏의 일족이다. 기사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日本書紀』 민달천황 13년 시세조의 池邊直氷田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196 『日本靈異記』에 蘇我馬子가 氷田에게 三尊佛을 만들도록 했다는 비슷한 기사가 보인다.

197 『日本靈異記』에 吉野의 比蘇寺에 안치한 아미타상에서 빛이 났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때 비소사가 바로 길야사이다. 현재 奈良縣 吉野郡 大淀町의 世尊寺가 그 후신일 것으로 생각된다.

198 『日本書紀』에서 內臣은 주로 왕의 측근으로서 집정관적인 성격을 가진 자에게 붙는 직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효덕천황 즉위전기에 中臣鎌子連이 취임한 바 있고, 奈良시대에는 藤原房前이 內臣에 올랐다. 흠명천황 6년 7월조에 인용된 『日本世記』에는 蓋金(개소문)을 內臣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사의 경우는 직위가 아닌 씨명으로 同15년(554) 동12월조의 '有至臣'을 가리킨다. 有至臣, 즉 內臣은 『新撰姓氏錄』 大和皇別에 의하면 효원천황의 아들 彦太忍信命의 후손으로 나오며, 또 建內宿禰의 동생으로 나오는 甘美內宿禰가 山代內臣의 조상이라는 전승도 있다. 大和國 宇智郡(현재 奈良縣 五條市 부근)이 본거지이며, 山城國 綴喜郡 有智鄕(현재 京都 八幡市 內里 부근)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大和분지에서 紀ノ川 유역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宇智郡에는 한반도

리고 양마 2필, 동선(同船)[199] 2척, 활 50장(張), 화살 50구(具)를 하사하였다. 그리고 칙을 내려 "요청한 군대는 왕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명하였다. 또한 따로 칙을 내려 "의박사(醫博士), 역박사(易博士), 역박사(曆博士) 등은 순번에 따라 교대시켜라. 지금 위에 열거한 직종의 사람들은 바야흐로 교대할 시기가 되었다. 돌아오는 사신에 딸려 보내 교대시키도록 하라. 또한 복서(卜書), 역본(曆本)과 여러 가지 약물(藥物)도 함께 보내라."고 명하였다.

가을 7월 신유삭 갑자(4일)에 장구궁(樟勾宮 ; 쿠스노마가리노미야)[200]에 행차하였다. 소아대신도목숙녜가 칙을 받들어 왕진이(王辰爾)[201]를 보내 선박세[202]를 부과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왕진이를 선장(船長 ; 후네노츠카사)으로 삼고 그에 따라 선사(船史 ; 후네노후비토)[203]라는 성을 내려주었다. 오늘날 선련(船

의 영향을 강하게 남기고 있는 北宇智고분군이 있는데 有至臣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內臣의 파견은 흠명천황 14년(553) 정월에 백제가 上部德率科野次酒와 杆率禮塞敦을 파견해 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사로 여겨진다.

199 많은 목재를 조립하여 만든 큰 배를 일컫는다. 『日本書紀』 황극천황 원년(642) 8월조에 「同船. 母慮紀舟.」라고 나온다.

200 樟勾宮은 淀川의 川津(현재 枚方市 楠葉)에 있었다고 한다. 목선의 재료인 녹나무와 하천의 굴곡을 의미하는 勾를 명칭에 사용했다는 것은 물자의 집적지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지역 수장들이 淀川 수계를 이용하여 대왕가에 물자를 공납할 때 궁 가까이에 있는 津에서 공납물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왕진이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201 왕진이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민달천황 원년조(572)에도 보인다. 민달천황이 蘇我馬子大臣에게 명령하여 고구려 사신이 가져온 까마귀 깃털에 쓰여진 고구려의 국서('烏羽의 表')를 諸史에게 해독시켰으나 어느 누구도 읽지 못하였는데 왕진이가 능히 해냈다고 한다.

202 원문은 船賦이다.

203 船史氏는 대화정권에서 문필관계 일을 담당하던 씨족으로 『新撰姓氏錄』 右京諸蕃 菅野朝臣條에 의하면 近仇首王의 후예인 王辰爾의 후예씨족으로 나온다. 船史씨의 동족으로는 津史, 白猪史씨가 있다. 모두 河內國 丹比郡(현재 松原市, 大阪狹山市 전역과 大阪市 東住吉區를 비롯한 八尾市 등의 일부) 野中鄕을 거점으로 하던 백제계 씨족이다. 구체적

連 ; 후네노무라지)의 선조이다.

8월 신묘삭 정유(7일)에 백제가 상부(上部) 나솔 과야신라(奈率科野新羅)[204]와 하부(下部) 고덕(固德) 문휴대산(汶休帶山)[205] 등을 보내 표를 올려 "지난해 신들이 함께 의논하여 내신(內臣)[206] 덕솔 차주(德率次酒)와 임나의 대부(任那大夫) 등을 보내[207] 바다 밖 여러 미이거(彌爾居)의 일을 아뢰고, 엎드려 은조를 기다리기를 봄에 돋은 풀이 단비를 기다리듯 하였습니다. 올해 문득 듣자니 신라와 박국(狛國)이 통모하여 '백제와 임나가 자주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고 있다. 생각컨대 이것은 군사를 청하여 우리나라를 치려는 것이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나라의 패망을 발꿈치를 들고 기다리는 꼴이 된다. 일본의 군사가 출발하기 전에 안라를 공격해 빼앗고 일본에서 오는 길을 막자.'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 계략이 이와 같습니다. 신 등이 이를 듣고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빠른 배로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아뢰는 것입니다. 천황께서 자애로운 마음으로 속히 전군과 후군을 계속 파견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가을까지는 해외[海表][208] 미이거(彌移居)를 굳게 지키겠

으로 선사씨가 현재의 野中寺 부근, 진사씨가 高鴈의 大津神社 부근, 백저사씨가 藤井寺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船史씨는 천무천황 12년(683) 10월에 동족인 津史씨와 함께 連姓을 받은 후, 延曆 10년(791) 정월에 宮原宿禰로 改姓되었다.

204 왜계 백제관료로서 科野는 斯那奴라고도 하며 新羅가 이름이다.

205 汶休는 백제의 성이고 帶山은 이름이다.

206 內臣을 흠명천황 15년 동12월조의 有至臣으로 보고 內臣과 德率次酒 두 사람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위 기사에서는 단순히 백제왕의 신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207 德率 (科野)次酒가 왜국에 건너간 것은 흠명천황 14년으로 위 기사와 같은 해이며, 杆率禮塞敦이 동행했다. 전 해인 흠명천황 13년조에는 次酒의 왜국파견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일본에서 大夫란 용어는 大臣, 大連 다음의 고급관인을 가리키며, 이러한 고급관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6세기 후반 이후이다. 율령제가 시행된 이후는 5위 이상의 관인에 대한 경칭으로 사용되었다.

208 바다의 바깥, 바다 밖(海外)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한반도제국을 가리킨다.

습니다. 만약 지체하여 늦는다면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파견군이 신의 나라에 도착하면 옷과 식량 비용은 신이 충당할 것입니다. 임나에 도착하여도 역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일 (임나가) 지급할 수 없다면 신이 반드시 충당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적신(的臣)이 삼가 천칙을 받고 와서 신의 나라[臣蕃]를 위무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태만하지 아니하고 정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해외[海表]의 여러 번(蕃)들은 모두 그의 선정을 칭송하여 영원히 해표의 여러 나라에 선정을 베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죽었다 하니 깊이 추도하는 바입니다. 이제 임나의 일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천황의 자애로운 마음으로 속히 그를 대신할 사람을 보내 임나를 다스리시길 엎드려 바랍니다. 또한 바다 밖의 여러 나라들은 활과 말이 매우 부족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천황에게 지급받아 강한 적을 막았습니다. 천황께서 자애로운 마음으로 활과 말을 많이 내려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겨울 10월 경인삭 기유(20일)에 백제 왕자 여창(餘昌)[209][명왕[210]의 아들 위덕왕(威德王)이다.]이 나라 안의 군대를 모두 징발하여 고구려로 향하였다. 그는 백합(百合)의 들판에 요새를 쌓고 군사들과 함께 먹고 잤다. 그런데 이 날 저녁 바라보니 넓은 들은 비옥하고 평원은 끝없이 넓은데, 사람의 자취는 거의 없고 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때 갑자기 북과 피리 소리가 들렸다. 여창이 크

---

209 백제 제27대 威德王(재위 : 554~598)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그가 성왕 32년(554)에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흠명천황 15년(554) 동12월에 聖明王이 전사한 후 威德王이 흠명천황 18년(557) 춘3월에 즉위할 때까지 3년간 공위가 생긴다. 567년에 만들어진 창왕명화강석제사리감의 명문 「百濟昌王十三季太歲在 丁亥妹兄公主供養舍利」와 최근 백제 왕흥사지에서 출토된 577년에 만들어진 청동함 사리기에는 「丁酉年二月十五日百濟王昌爲亡王子立刹本舍利二枚葬時神化爲三」이라고 하여 '창왕'으로 나온다.

210 성왕을 가리킨다.

게 놀라 북을 쳐서 맞대응하면서 밤새 굳게 지켰다. 새벽녘에 일어나 넓은 들판을 보니 마치 푸른 산과 같이 군기가 가득하게 덮고 있었다. 날이 밝자 목에 경개(頸鎧)[211]를 입은 자 1기(騎), 작은 징[뇨(鐃)자는 잘 알 수 없다.]을 꼽은 자 2기, 표범 꼬리로 장식한 자 2기 등 모두 합해 5기[212]가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와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들판에 손님이 와 있다[213].'고 말하였다. 어찌 예를 갖춰 맞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속히 우리와 더불어 예로써 문답할 만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 관위를 알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여창이 "성은 동성(同姓)이고 관위는 간솔(杆率)이며 나이는 29세이다[214]."라고 대답하였다. 백제에서 반문하니 또한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였다. 드디어 군기[標]를 세우고 싸우기 시작하였다[215]. 백제는 고구려의 용사를 창으로 찔러 말에서 떨어뜨려 머리를 베고 머리를 창끝에 꽂아 들고 돌아와서 군사들에게 보였다. 고구려군 장수들은 격노하였다. 이때 백제의 환호하는 소리가 천지를 가르는 듯하였다. 또 부장이 북을 치며 속공하여 고구려왕[216]을 동성산(東聖山)[217] 위에

---

211 목 주위까지 두른 札甲을 일컫는다.

212 고구려 군사 儀杖과 관련하여 귀중한 자료다. 경갑을 두른 이가 5인 가운데 우두머리일 것이고, 표범꼬리를 꽂은 2인이 부장이고, 징을 가진 2인은 진군과 퇴각 등 군대진퇴와 연락을 담당하는 부관으로 보인다.

213 어린아이는 고구려 병졸을 일컫는 것이고, 손님이란 외부인인 여창 등 백제군사 일행을 가리킨다.

214 동성, 즉 같은 성이란 餘씨를 의미한다. 위 기사는 즉위 전 백제 왕자(태자)의 관등이 제5등인 간솔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해(553)에 여창의 나이가 29세였다면, 여창은 525년에 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15 고구려에서는 나라 간에 서로 싸울 때 이처럼 성명, 관등, 나이를 밝히고 표를 세운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의례였음을 알려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216 이 시기 고구려왕은 제24대 陽原王(재위 : 545~559)이다. 다만 이 시기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고구려왕이 백제와의 전투에 출장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아 전쟁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까지 쫓아버렸다.

15년 봄 정월 무자삭 갑오(7일)에 황자 정중창태주부존(渟中倉太珠敷尊 ; 누나쿠라노후토타마시키노미코토)[218]을 황태자로 삼았다.

병신(9일)에 백제가 중부 목리 시덕 문차(木刕施德文次)[219]와 전부 시덕 왈좌분옥(施德曰佐分屋)[220] 등을 축자(筑紫 ; 츠쿠시)에 보내 내신(內臣)과 좌백련(佐伯連 ; 사에키노무라지)[221] 등에게 "덕솔 차주와 간솔 색돈 등이 지난해 윤달 4일에 와서 '신(臣) 등[신 등은 내신을 말한다.]은 내년 정월에 도착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였지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또한 군대의 수는 얼마입니까. 대강이나마 듣고 미리 군영의 성벽을 쌓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별도로 "이제 듣자니 황공하신 천황의 조서를 받들어 축자에 가서 보내 줄 군대를 환송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올해의 싸움은 전에 없이 매우 위태로우

---

217 평양 동북쪽에 있는 大聖山을 가리킨다.

218 후에 제30대 敏達天皇으로 즉위한다.

219 木刕는 백제의 복성이고 文次가 이름이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15년(543) 3월에 귀국한다. 『日本書紀』에서는 '부+성+관등+이름'의 표기와 '부+관등+성+이름'의 두 계열의 백제인명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220 曰佐를 백제의 성으로 보고 前部施德曰佐分屋을 백제인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으나, 曰佐氏는 도래계 씨족으로서 왜국에도 있었으므로 그는 왜계 백제관료였을 가능성이 높다. 曰佐는 대화정권에서 통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씨족이었기 때문에 '譯語'라고도 한다. 『新撰姓氏錄』에 의하면 紀氏와 동족관계로서 建內宿禰의 후예라고 되어 있으나, 曰佐라는 이름이 고대 韓語에 유래를 두고 있는 점 등에서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주민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曰佐氏의 거주지는 近江國(현재 志賀縣)과 山城國(현재 京都의 相樂郡), 그리고 大和國 등 여러 곳에 걸쳐 확인된다.

221 大和政權 내에서 군사를 담당한 유력씨족으로 천무천황 13년(684) 12월에 宿禰를 사성받는다. 『新撰姓氏錄』 左京 神別 大伴宿禰條에 大伴室屋의 아들 談에서 갈라져 나왔고, 大伴氏와 함께 靭部를 이끌고 궁문을 호위했다고 한다.

니 보내주실 군사를 정월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내신이 명령을 받들어 "바로 구원군 1천, 말 1백 필, 배 40척을 보내도록 하겠다[222]."라고 대답하였다.

2월에 백제가 하부 간솔 장군 삼귀(杆率將軍三貴)[223]와 상부 나솔 물부오(奈率物部烏)[224] 등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덕솔 동성자막고(東城子莫古)[225]를 바치면서 이전의 번(番)인 나솔 동성자언(東城子言)과 교대시키고, 오경박사 왕류귀(王柳貴)[226]를 고덕(固德) 마정안(馬丁安)[227]과 교대하도록 하였다. 승려 담혜(曇慧) 등 9인은 승려 도침(道深) 등 7인과 교대시켰다. 그리고 따로 칙을 받들어 역박사(易博士) 시덕(施德) 왕도량(王道良)[228], 역박사(曆博士) 고덕(固德) 왕보손(王保孫)[229], 의박사(醫博士) 나솔(奈率) 왕유릉타(王有悛陀)[230], 채약사

---

222 왜의 백제 군사원조의 규모는 군대 1천 명, 말 1백 필, 배 40척이었으며, 이들은 畿內가 아니라 큐슈지역에서 조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배 40척으로 군대 1천 명과 말 1백 필을 운송한 것으로 본다면, 배 1척당 군사 250명, 말 25필을 태운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223 杆率의 관위를 가진 將軍으로 이름은 三貴이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이후의 기사 내용은 이전에는 오경박사와 승려만 보냈지만 이번에는 易박사, 曆박사, 채약사, 약인 등 9인을 더 추가 파견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즉 문물사절단의 규모와 유형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4 물부씨계 왜계 백제관료로 이름은 烏이다.

225 東城子에 대해서는 흠명천황 8년 하4월조 東城子言 참조. 莫古는 이름이다. 흠명천황 8년(547) 4월에 왜국에 건너왔다.

226 王은 성이고 柳貴는 이름이다. 여기에만 보인다.

227 馬는 성이고 丁安은 이름이다. 여기에만 보인다.

228 王은 성이고 道良은 이름이다. 『宋書』 列傳 百濟國條에 의하면 백제의 역학은 중국에서 도입되었다고 한다.

229 王이 성이고 保孫은 이름이다. 『周書』 列傳 百濟條에는 백제는 宋의 元嘉曆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230 王有는 복성이고 悛陀는 이름이다. 『周書』 列傳 百濟條에 백제는 醫藥을 알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採藥師) 시덕(施德) 반량풍(潘量豐), 고덕(固德) 정유타(丁有陀)[231], 악인(樂人)[232] 시덕(施德) 삼근(三斤), 계덕(季德) 기마차(己麻次), 계덕 진노(進奴), 대덕(對德) 진타(進陀)를 바쳤다. 모두 요청에 따라 교대시켰다.

3월 정해삭(1일)에 백제의 사신 중부 목리 시덕 문차(木劦施德文次) 등이 돌아갔다[233].

여름 5월 병술삭 무자(3일)에 내신이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로 갔다.

겨울 12월[234]에 백제가 하부 간솔(扞率) 문사간노(汶斯干奴)[235]를 보내 표를 올려 "백제왕 신(臣) 명(明)과 안라의 여러 왜신들, 임나의 여러 나라의 한기들이 아룁니다. 사라(斯羅)[236]가 무도하여 천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狛)과 마음을 같이하여 바다 북쪽의 미이거(彌移居)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신들이 함께 의논하여 유지신(有至臣 ; 우치노오미)[237] 등을 보내 군사를 요청하여 신라를 정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천황이 보낸 유지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6월

---

231 採藥師는 2인으로 施德 潘量豐과 固德 丁有陀이다. 潘과 丁은 각자의 성이다.

232 『隋書』 列傳 百濟條에 의하면 백제악기로 鼓角, 箜篌, 箏 등의 악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하 三斤, 己麻次, 進奴, 進陀는 모두 이름이다. 백제에서 파견된 4인의 악사는 일본 율령관제인 雅樂寮에 설치되어 있었던 백제악사 4인과 명 수가 일치하고 있다. 양자의 계승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백제의 연주체계가 일본율령국가의 궁중음악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다.

233 흠명천황 15년 봄 정월에 시덕 문차와 시덕 왈좌분옥 등이 축자에 갔다는 기록이 있다. 3월에 왜국을 떠났으므로 2개월간 왜국에서 머문 것이 된다.

234 일자는 표기하지 않았지만 이 기사 중에 9일 백제의 신라 공격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2월 9일보다 이후로 볼 수 있다.

235 汶斯는 백제의 복성이고, 干奴는 이름이다. 여기에서만 보인다.

236 斯羅란 신라의 비칭이다. 『양직공도』 백제국사조에서는 백제사신이 梁나라에 가서 백제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열거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에서도 신라를 斯羅라 칭하고 있다.

237 有至를 우치(うち), 즉 '內'로 볼 수 있기 때문에 內臣과 동일인물이 된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14년 6월조 內臣 참조.

에 도착하였습니다. 신들이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12월 9일에 신라를 공격하도록 보냈습니다. 신이 먼저 동방령(東方領) 물부막가무련(物部莫哥武連 ; 모모노베노마카루노무라지야)[238]을 보내 그 방(方)의 군사를 거느리고 함산성(函山城)[239]을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지신이 거느리고 온 죽사물부막기위사기(竹斯物部莫奇委沙奇 ; 츠쿠시노모노노베노마카와사카)[240]는 불화살을 잘 쏘았습니다. 천황의 위령(威靈)으로 이 달 9일 유시(酉時)에 성을 빼앗아 불태워버렸습니다. 단출한 사신을 배로 급히 파견하여 아룁니다."라고 말하였다. 별도로 "만약 신라뿐이라면 유지신이 데리고 온 군사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박(狛)과 신라가 함께 힘을 합하였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죽사도(竹斯島 ; 츠쿠시노시마)[241] 근처에 있는 여러 군사들을 보내 신의 나라를 도와주시기를 엎드려 청합니다. 또한 임나를 도울 수 있다면 일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주상하였다. 그리고 "신이 따로 군사 만 명을 보내 임나를 돕겠습니다. 아울러 아룁니다. 이번 일은 정말 급해서 한 척의 배를 보내 아뢰는 것입니다. 좋은 비단[錦] 2필, 탑등(韃靼)[242] 1령, 도끼 3백 구, 사로잡은 성의 백성 남자 2명과 여자 5명을 바칩니다. 변변치 않아서 죄송할 따름입니다."라고 주상하

---

238 東方領은 백제의 지방행정구획의 하나인 東方의 장관으로 관등은 達率이다. 『周書』 列傳 百濟條에 의하면 東方은 得安城에 해당된다고 한다. 得安城은 오늘날 충남 恩津으로 비정된다. 物部莫哥武連은 왜계 백제관료의 한 사람으로 『日本書紀』 흠명천황 4년(543) 추9월조에는 物部施德麻奇牟로 나온다. 이 시기 백제의 동방령을 왜계 백제관료로 임명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日本書紀』 편찬단계에서 물부씨 家傳을 토대로 윤색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239 현재 충북 옥천의 管山城을 일컫는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5년조(554)에 백제성왕이 가라와 함께 공격한 곳이다.

240 竹斯는 筑紫이다. 이름은 莫奇委沙奇이다. 여기에서만 보인다.

241 현재 일본 九州를 가리킨다. 『隋書』 列傳 倭國條에 大業 3年(608) 隋使 裴世淸이 竹斯國에 이르렀다는 기사가 있다.

242 모직 덮개이다.

였다[243].

여창이 신라를 정벌할 것을 모의하니 기로(耆老)[244]가 "하늘이 아직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라고 간언하였다. 여창이 "늙었구려, 무엇을 겁내는가. 우리는 대국(大國)을 섬기고 있는데 어찌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드디어 신라국에 들어가 구타모라(久陀牟羅)[245]에 성책을 쌓았다. 그 아버지 명왕은 여창이 계속된 전쟁에 오랫동안 쉬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어버이의 자애로움도 펼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으면 아들도 효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몸소 가서 그 노고를 위로하고자 하였다. 신라는 명왕이 친히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 안의 모든 군사를 징발하여 길을 차단하고 격파하였다. 또한 이때 신라에서는 좌지촌(佐知村)[246]의 사마노(飼馬奴) 고도(苦都)[247][다른 이름은 곡지(谷智)이다.]에게 "고도는 천한 놈[248]이다. 명왕은 유명한 군주이다. 이제 비천한 노비에게 유명한 군주를 죽이게 하자. 후세에 전해져 사람들의 입에서 잊혀지지 않기

---

243 『日本書紀』 흠명천황 15년 5월조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상까지가 전반부인데 백제사신의 외교문서를 채록한 것으로 백제 측은 추가 군사지원을 독촉하고 있다. 이하 후반부에서는 백제 성왕의 전사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흠명천황 16년 봄 2월 백제에서 간 사신이 성왕의 죽음을 알리면서 전한 내용을 편집하여 실은 것으로 보인다.

244 당시 백제 조정의 원로 대신들을 가리킨다.

245 현재 충북 옥천군 군서면의 한 촌으로 추정된다. 牟羅는 村의 의미이다.

246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5년조(554)에 보이는 三年山郡(현 충북 보은군)의 한 촌일 것이다.

247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군 裨將인 삼년산군의 高于都刀의 습격으로 백제성왕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苦都는 都刀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高于는 신라 외위 11등 가운데 제3등에 해당하는 高干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천민인 飼馬奴와 신분상 큰 차이를 보인다.

248 원문은 奴이다. 「신라촌락문서」를 보면 신라에 奴 계층이 보인다. 6세기 중엽 자료인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에는 奴人, 524년에 세운 「봉평신라비」에도 奴人, 奴人法, 大奴村이라는 용어가 보인다.

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얼마 후 고도가 명왕을 사로잡아 두 번 절하고 "왕의 머리를 베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명왕은 "왕의 머리를 노비의 손에 건네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고도는 "우리나라의 법에는 맹약을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할지라도 노비의 손에 죽습니다."라고 말하였다[어떤 책에는 "명왕이 호상(胡床)에 허리를 기대고 앉아 곡지(谷智)에게 차고 있던 칼을 풀어 주며 베도록 하였다."고 한다.]. 명왕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허락하기를 "과인이 생각할 때마다 늘 고통이 골수에까지 사무쳤다. 돌이켜 헤아려 보아도 구차하게 살 수는 없다."고 하면서 머리를 내밀어 베도록 하였다. 고도는 목을 베어 죽이고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어떤 책에는 "신라는 명왕의 두골을 남겨 매장하고 나머지 뼈는 예를 갖춰 백제에 보냈다. 지금 신라왕이 명왕의 뼈를 북청(北廳) 계단 아래에 묻었다. 이름하여 그 관청을 도당(都堂)이라 한다."고 한다.]. 여창은 마침내 포위당하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사졸들은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축자국조(筑紫國造 ; 츠쿠시노쿠니노미야츠코)[249]라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활시위를 당겨 신라의 기병 중 가장 용감한 자를 쏘아 떨어뜨렸다. 쏜 화살은 예리하여 말안장 앞의 전륜(前輪)과 후륜(後輪)을 관통하여 갑옷의 옷깃까지 다다랐다. 계속해서 쏜 화살은 비 오듯이 줄기차게 이어져 포위한 군대를 퇴각시켰다. 여창과 여러 장수들은 샛길로 도망하여 돌아갈 수 있었다. 여창은 국조가 활로 포위한 군대를 물리친 것을 칭찬하며 안교군(鞍橋君 ; 쿠라지노키미)이라 높여 불렀다[안교는 여기서는 구라니(矩羅膩 ; 쿠라지)[250]라고 한다.]. 이때 신라 장수들은 백제가 피로하고 지쳤음을 알고 드디어 전멸시키고자 하였다. 그러자 한 장수가 "안 된다. 일본 천황이 임나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우리나라를 책망하였다. 하물며 다시 백제 관가를 멸망시킨다면 반드

249 『日本書紀』 흠명천황 15년 5월조에 內臣이 이끌고 온 수군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250 矩羅膩는 鞍橋를 활로 관통시켜서 붙여진 이름이다.

시 후환이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만 중지하였다.

16년 봄 2월에 백제 왕자 여창이 왕자 혜(惠)[251][왕자 혜는 위덕왕(威德王)의 동생이다.]를 보내어 "성명왕이 적에게 살해당했습니다."라고 아뢰었다[15년에 신라에게 살해당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아뢴 것이다.]. 천황이 듣고서 상심하고 슬퍼하였다. 곧 사자를 보내어 나루[252]에서 맞이하고 위문하였다. 이때 허세신(許勢臣 ; 코세노오미)[253]이 왕자 혜에게 "이곳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라고 물었다. 혜가 "천황의 덕에 의지하여 돌아가신 부왕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만약 불쌍히 여겨 병기를 많이 주신다면 치욕을 씻고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신이 돌아갈지 머무를지는 오직 명에 따를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얼마 후에 소아신(蘇我臣 ; 소가노오미)[254]이 방문하여 "성왕은 천지의 도리에 통달하였고 명성은 널리 두루 퍼졌습니다. 길이 정국을 안정시키고 바다 서쪽 번국을 통솔하여 천년만년 천황을 받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갑자기 승천하시어 흐르는 물처럼 되돌아오지 못하고 묘실에서 쉬시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찌 이보다 아프고 슬픈 것이 있겠습니까. 무릇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애도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잘못으로 이러한 화를 불렀단 말입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려 하

---

251 백제의 제28대 왕인 惠王(재위 : 598~599)이다. 聖王의 아들이며 餘昌威德王의 동생이다. 諱는 季이다.

252 여기서는 難波津을 가리킨다. 인덕천황 62년 하5월조에 처음 보인다. 원래 難波津이란 한 곳이 아니라 堀江입구와 河內湖 근처 등 여러 곳에 있었던 津을 모두 가리키는 명칭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御津으로 이후 難波津이라고 할 경우 御津만을 가리키게 되었다. 御津의 위치는 현재 大阪市 中央區 心齋橋 혹은 高麗橋 부근으로 추정된다.

253 이름을 알 수 없다. 이전에 許勢臣을 칭하는 인물로는 『日本書紀』 흠명천황 원년 9월조에 許勢臣稻持가 있다.

254 蘇我大臣稻目으로 추측된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13년 동10월조 蘇我大臣稻目 참조.

십니까."라고 말하였다. 혜는 "신은 원래 성품이 어리석어 큰 계책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물며 화복의 원인과 국가의 존망에 대해서 알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소아경(蘇我卿 ; 소가노마에츠키미)[255]이 "옛날 천황 대박뢰(大泊瀨 ; 오호하츠세)[256] 때에 당신 나라가 고구려에게 핍박을 받아 위험하기가 계란을 쌓아 놓은 것보다 더했습니다. 이때 천황이 신기백(神祇伯 ; 칸츠카사노카미)[257]에게 명하여 천신지기부터 삼가 계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축자(祝者 ; 하후리)[258]가 곧 신탁을 받아 '건국의 신을 모셔 가서 멸망하려는 군주를 구하면 반드시 국가는 안정되고 백성들은 편안해질 것이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을 초청하여 가서 구원하여 사직이 평안해졌습니다. 무릇 나라를 세운 신은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고 풀과 나무가 말을 할 때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를 세웠습니다. 요즈음 당신 나라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신궁을 수리하여 신령을 받들어 제사지내면 나라가 크게 번영할 것입니다. 저의 말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가을 7월 기묘삭 임오(4일)에 소아대신도목숙녜와 수적반궁신(穗積磐弓臣 ; 호즈미노이와유미노오미)[259] 등을 보내어 길비(吉備)의 다섯 개 군에 백저둔창(白猪屯倉 ; 시라이노미야케)[260]을 두도록 하였다.

---

255 여기서 卿은 율령제하에서 8省의 장관 혹은 納言, 參議 등 3위 이상의 자를 말한다. 따라서 蘇我卿이라는 표기는 후대의 윤색이다.

256 제22대 웅략천황이다.

257 율령제하에서 神祇의 제사를 담당한 책임자로 神祇官의 장관이다. 蘇我卿과 마찬가지로 율령제 관념에 의한 표현이다.

258 신사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259 여기에서만 보인다. 穗積臣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계체천황 6년 하4월조 穗積臣押山 참조.

260 吉備지역에 설치된 둔창이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30년(569) 1월조에는 길비지역 둔창에 田部를 둔 후 몇 년이 지난 후 일정 연령에 이른 자들 가운데 호적에서 누락되어 과역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을 조사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때 호적 관련 업무를 진

8월, 백제 여창은 여러 신하들에게 "나[少子]는 이제 돌아가신 부왕을 받들기 위해 출가하여 불도를 닦고자 한다."라고 말하였다. 여러 신하와 백성들이 "지금 군왕(君王)께서 출가하여 불도를 닦고자 하신다면 일단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아! 미리 잘 생각하지 못해 후환을 입었으니 누구의 잘못입니까? 무릇 백제국은 고려와 신라가 경쟁적으로 멸망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개국한 이래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종묘사직을 장차 어느 나라에게 주려고 하십니까? 모름지기 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만약 기로의 말을 들었다면 어찌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앞의 잘못을 뉘우치시고 속세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백성을 출가시키면 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여창이 "좋다"라고 대답하고, 곧 신하들과 방법을 의논하였다. 신하들은 마침내 상의하여 1백 명을 득도시키고 번개(幡盖)를 많이 만들어 여러 가지 공덕을 쌓았다[261]. 운운(云云).

17년 봄 정월에 백제의 왕자 혜가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병기와 좋은 말을 매우 많이 주었다. 또한 빈번하게 상으로 물품을 많이 하사하여 여러 사람들이 찬탄하였다. 이때 아배신(阿倍臣 ; 아베노오미)[262]·좌백련(佐伯連 ; 사에키노무라지)·파마직(播磨直 ; 하리마노아타히)[263]을 파견하여 축자국의 수군(水軍)을 이끌고 그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호위하도록 하였다. 별도로 축자화군(筑紫

행한 인물이 왕진이의 조카인 胆津이다. 천황은 胆津의 일을 높이 평가하여 '白猪史'라는 성을 하사했다고 한다.

261 백제 조정은 신라와의 전쟁에서 진 뒤 국내 민심수습을 위해 승려출가 및 공덕수행 등 불교정책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62 6~8세기 大和國 十市郡 阿倍 지역(현재 櫻井市 阿倍)을 중심으로 활약한 씨족이다. 『日本書紀』 효원천황 7년 2월조에 의하면 阿倍臣은 伊賀臣(印哥臣) 등 7씨족과 함께 大彦命의 후손이라고 한다.

263 播磨(현재 兵庫縣 서남부 지역) 지방의 호족이다.

火君 ; 츠쿠시노히노키미)[264][『백제본기』에는 축자군의 아들 화중군(火中君 ; 히노나카노키미)의 아우라고 한다.]을 파견하여 용감한 군사 1천 명을 이끌고 미저(彌弖)[265][彌弖는 나루터의 이름이다.]까지 호위하도록 하고 뱃길의 요충지를 지키게 했다.

가을 7월 갑술삭 기묘(6일)에 소아대신도목숙녜 등을 비전(備前 ; 키비노미치노쿠치)의 아도군(兒嶋郡 ; 코지마노코오리)[266]에 보내어 둔창[267]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갈성산전직서자(葛城山田直瑞子 ; 카즈라키노야마다노아타히미츠코)[268]를 전령(田令 ; 타츠카이)[269]으로 삼았다[田令은 타두가비(陀豆歌毘 ; 타츠카이)라 한다.].

겨울 10월에 소아대신도목숙녜 등을 왜국(倭國)의 고시군(高市郡)에 보내어 한인대신협둔창(韓人大身狹屯倉 ; 카라히토노오호무사노미야케)[270][여기에서 한인이란 백제를 이른다.], 고려인소신협둔창(高麗人小身狹屯倉 ; 코마비토노워무사노미야케)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국(紀國 ; 키노쿠니)에 해부둔창(海部屯倉 ; 아마노미야케)[271]을 두도록 하였다[어떤 책(一本)에서는 "각지의 한인을 대신협둔창의 전부(田部 ; 타베)[272]로 삼았다. 고려인을 소신협둔창의 전부로 삼았다. 한인, 고려인을 전부로 삼은 것

---

264 火(肥)國의 호족이다. 『日本書紀』 계체천황 21년 하6월조 참조.

265 '弖'는 '氐'와 통용되는 글자이다. 현재 음가는 '호'이지만, 고대 음가는 '저'이다. 현재 경남 남해도의 彌助里로 추정되지만 정확히 알 수 없다.

266 7세기 후반 吉備國이 備前, 備中, 備後國으로 나뉘면서 등장하는 지역명이다. 현재 岡山縣 동남부, 香川縣 小豆郡, 直島諸島 및 兵庫縣의 赤穗市 일부를 포함한 지역이다. 兒嶋郡은 현재 岡山市, 倉敷市, 玉野市에 해당하는 兒島半島의 옛 군명이다.

267 『日本書紀』 민달천황 12년(583) 시세조에 보이는 吉備兒島屯倉을 가리킨다.

268 『日本書紀』 흠명천황 30년(569) 4월조에도 보이는데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山田直이 성이며 瑞子가 이름이다.

269 대화정권에서 파견한 둔창 관리 및 세금 거두는 일을 담당하던 관리이다.

270 身狹은 옛 高市郡의 한 지역으로 현재 奈良縣 橿原市 畝傍山 남동쪽 일대로 비정된다.

271 紀伊國 북서부의 海部郡(현재 和歌山市 서부와 海草郡 下津町 지역)에 있던 屯倉을 가리킨다.

272 대화정권이 직접 지배한 인민 가운데 둔창에서 경작을 하던 부민을 말한다. 일본 古墳時代에 성립된 토지나 인민 지배제도의 하나이다.

을 가지고 둔창의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18년 봄 3월 경자삭(1일)에 백제 왕자 여창이 왕위를 이었다. 이 사람이 위덕왕이다[273].

21년 가을 9월에 신라가 미지기지(彌至己知) 나말(奈末)을 보내어[274] 조부(調賦)를 바쳤다. 향응과 하사물이 평상시보다 많았다.

나말이 기뻐하며 물러나면서 "조부를 바치는 사자는 나라에서 귀중하게 여기지만 사람들은 뒤에서 경멸합니다. 사자에게 백성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도 뽑아 쓰는 것은 비천하고 낮은 사람이어서 왕정의 폐해가 이로 말미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좋은 집안의 자제를 뽑아 사자로 삼으시고, 비천한 사람을 사자로 삼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22년에 신라가 구례질급벌간(久禮叱及伐干)[275]을 보내어 조부(調賦)를 바쳤다. 그런데 이때 사빈(司賓)[276]이 베푼 향응의례의 횟수가 평상시보다 적었다. 급벌간은 분해하며 돌아갔다.

---

273 『日本書紀』 흠명천황 14년 동10월조 餘昌 주 참조.

274 이 시기는 신라 진흥왕 21년(560)으로 『삼국사기』에는 왜국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彌至己知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나말은 신라 17관등 중 제11위에 해당한다.

275 久禮는 이름, 급벌간은 제9위인 급찬, 급벌찬에 해당된다. 『三國史記』 列傳 斯多含傳에 보이는 사다함의 아버지 仇梨知 급찬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 「황초령비」, 「마운령비」의 未知 대나마를 『日本書紀』에서는 未叱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久禮叱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신라에서 知로 표기하는 음을 『日本書紀』에서는 叱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久禮叱의 귀국기사는 보이지 않지만, 흠명천황 22년(561) 시세조의 내용을 통해 그 해에 귀국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76 사신을 접대하는 관리를 말한다.

이 해에 다시 노저대사(奴氐大舍)[277]를 보내 지난번의 조부를 바쳤다[278]. 난파(難波)의 대군(大郡)[279]에서 여러 번국들의 서열을 매겼는데 장객(掌客) 액전부련(額田部連 ; 누카타베노무라지)[280]과 갈성직(葛城直 ; 카즈라키노아타이)[281] 등이 백제의 아래에 신라 사신을 세워 인도하였다. 대사(大舍)는 화가 나서 돌아갔다. 관사에도 들어가지 않고 배를 타고 혈문(穴門 ; 아나토)[282]에 이르렀다. 이때 혈문관(穴門館)은 수리 중이었다. 대사가 "어떤 손님을 위해 짓는가?"라고 묻자, 공장(工匠) 하내마사수압승(河內馬飼首押勝 ; 가후치노우마카이노오비토오시카츠)[283]이 거짓으로 "서방(西方)의 무례를 문책하러 보낼 사자가 머무를 숙소다."라고 말하였다. 대사가 나라로 돌아가 그 말을 보고했다. 그리하여 신라는 아라(阿羅) 파사산(波斯山)[284]에 성을 쌓고 일본에 대비하였다.

---

277 奴氐는 이름, 大舍는 신라 17관등 중 제12위에 해당된다. 이곳에만 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278 이전 久禮叱가 분해하며 조부를 바치지 않은 채 귀국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279 大郡은 외국 사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日本書紀』에는 추고천황 16년(608) 9월조에 隋使를 難波大郡에서 향응했다는 기록과 서명천황 11년(639) 시세조에 難波大郡과 三韓館을 수리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천무천황 2년(673) 11월조에는 '筑紫大郡'이 나온다.

280 掌客은 외국 사신의 접대를 담당하는 관직이다. 額田部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신공황후 섭정 47년 춘4월 額田部槻本首 참조.

281 『日本書紀』 흠명천황 31년(570) 4월조에 葛城直難波가 보인다. 葛城直은 葛城氏의 일족으로 4세기에서 5세기 전반에 大和國 葛城지방(현재 奈良縣 御所市 서남부)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배경으로 대두한 씨족이다.

282 『日本書紀』 수인천황 2년 시세조에 처음 보인다. 關門해협 연안에 위치(長門國 서남부)한다. 穴門館은 외국 사신접대 시설인데 『延喜式』 兵部省 驛馬條에 의하면 長門國 臨門驛 부근에 설치되었다고 한다. 후에 臨海館으로 바뀐다.

283 河內馬飼首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계체천황 23년 하4월조 河內馬飼首荒籠 참조. 押勝은 이름으로 이곳에만 보인다.

284 阿羅는 안라, 즉 현재 함안지역의 가야국이며, 波斯山은 巴山을 가리킨다.

23년 봄 정월에 신라가 임나관가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어떤 책에서는 21년에 임나가 멸망하였다고 한다[285]. 통틀어 말하면 임나이고[286], 개별적으로 말하면 가라국(加羅國), 안라국(安羅國), 사이기국(斯二岐國), 다라국(多羅國), 졸마국(卒麻國), 고차국(古嵯國), 자타국(子他國), 산반하국(散半下國), 걸손국(乞飡國)[287], 임례국(稔禮國)[288] 등 모두 열 나라이다.].

여름 6월에 조를 내려[289] "신라는 서쪽의 오랑캐로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이다. 하늘을 거스르고 무례하다. 우리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의 관가를 무너뜨려 우리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고 우리의 군현을 멸망시켰다. 우리 기장족희존(氣長足姬尊 ; 오키나가타라시히메노미코토)[290]은 거룩하고 총명하여,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시며 인민을 보살피고 기르셨다. 신라가 궁지에 빠져 귀의한 것을 불쌍히 여겨서 목이 베어지려던 신라왕을 온전하게 하고, 신라에게 요충의 땅을 주어 신라로 하여금 유달리 번영하게 해주었다. 우리 기장족희존이 신라에 대해서 무엇을 박하게 했겠는가? 우리 백성이 신라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겠는가? 그러나 신라는 긴 창과 강한 활로 임나를 침공해 멸망시켰고, 거대한 이빨과 갈고리 같은 손톱으로 사람들에게 잔학한 일을 하였다. 간을 가르

---

285 '임나'의 멸망 시기에 대해 흠명 23년과 흠명 21년 기록을 함께 들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日本書紀』 흠명천황 23년에 해당하는 진흥왕 23년(562) 9월조에 가야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사부와 사다함이 이를 평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86 이하 10국 가운데 『日本書紀』 흠명천황 2년 4월조에는 안라, 가라, 졸마, 산반해, 다라, 사이기, 자타 7국이 보이고, 同 5년 11월조에는 안라, 가라, 졸마, 사이기, 산반해, 다라, 자타, 구차 8국이 보인다.

287 『삼국사기』 지리지에 '闕支郡'이 나오는데 현 경남 산청 단성지역으로 비정된다. 궐지와 걸손은 음이 통하지만 명확히 같은 지명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288 현재 경남 의령(옛 이름은 獐含)으로 비정되기도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289 이하의 조칙 내용은 『梁書』 列傳 王僧弁傳에 나오는 承聖 원년(552) 2월조의 왕승변과 陳霸先의 맹서문을 참고로 개작된 내용이다.

290 신공황후를 일컫는다.

고 발목을 끊고도 만족하지 않고, 뼈를 드러내고 주검을 태우고도 잔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임나의 귀족과 백성을 칼과 도마를 써서 죽이고 젓갈을 담았다. 나라의 왕의 신하로서 사람의 곡식을 먹고 사람의 물을 마시면서 누가 차마 이것을 듣고 마음으로 슬퍼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태자와 대신은 그 자손인 연유로 피눈물을 흘리고 원한을 품고 있다. 번병을 지키는 임무를 맡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입는 것이다. 대대로 전조(前朝)의 덕을 받아 후대에 지위를 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충성을 다하여 함께 간악한 역적을 죽여 천지의 큰 아픔을 씻고 군부(君父)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죽어서도 신하의 도리를 이루지 못한 한이 남을 것이다."라고 명하였다.

이 달에 어떤 사람이 마사수가의(馬飼首歌依 ; 우마카히노오비토우타요리)[291]에 대해 "가의의 처인 봉신찬기(逢臣讚岐 ; 아호노오미사누키)[292]의 안장 깔개가 이상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황후의 안장[293]이었습니다."라고 참언하였다. 이에 즉시 잡아서 정위(廷尉 ; 히토야츠카사)[294]에게 데려가 죄상을 엄중히 물었다. 마사수가의는 큰 소리로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천재(天災)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결국 고문에 의해 땅에 쓰러져 죽었다.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궁전에 화재가 일어났다. 정위는 그의 아들 수석(守石 ; 모리시)과 명뢰빙(名瀨氷 ; 나세히)[295][수석과 명

291 馬飼首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계체천황 23년 하4월조 河內馬飼首荒籠 참조. 歌依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292 『日本書紀』 천무천황 원년(672) 6월조에 逢臣志摩란 같은 씨족 인물이 보인다. 逢臣氏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293 원문은 御鞍이다.

294 정위는 『漢書』 백관공경표에 의하면 원래 중국 진나라의 9卿 중 하나로 司法官을 말한다. 당시 일본에는 정위라는 관직은 없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형벌을 담당하는 관인 정도로 이해된다.

295 수석과 명뢰빙 모두 자세히 알 수 없다.

뢰빙은 모두 이름이다.]을 잡아 불 속에 던지려 하면서[불에 던지는 형벌은 옛 법일 것이다.] "내 손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다. 축(祝)의 손으로 던지는 것이다"라고 저주하였다. 저주가 끝나자 불에 던지려고 하였다[296]. 수석의 어머니가 "아들을 불 속에 던지면 천재가 일어날 것입니다. 청컨대 축인(祝人)에게 주어 신노(神奴)로 삼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빌었다. 그래서 그 모친의 청에 따라 용서하여 신노로 삼았다.

가을 7월 기사삭(1일)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조부(調賦)를 바쳤다. 그 사인은 신라가 임나를 멸망시켰다는 것을 알고 나라의 은혜를 저버린 것을 부끄럽게 여겨 감히 돌아가기를 청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머물러 본토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 후 국가의 백성과 같이 대우하였는데, 지금 하내국 경황군(更荒郡 ; 사라라노코호리) 노자야읍(鷋鷯野邑 ; 우노노사토)[297] 신라인의 선조이다.

이 달에 대장군(大將軍) 기남마려숙네(紀男麻呂宿禰 ; 키노워마로노스쿠네)[298]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다리(哆唎)에서 출발하도록 하고, 부장군(副將軍) 하변신경부(河邊臣瓊罐 ; 카하베노오미니헤)[299]는 거증산(居曾山)[300]에서 출발하도록 해서 신라가 임나를 공격한 것에 대해 문책하고자 하였다. 드디어 임나에 도착하여 천집부수등미(薦集部首登弭 ; 코모츠메베노오비토토미)[301]를 백제에 보내 군

296 焚刑을 의미한다. 『日本書紀』 웅략천황 2년 7월조에 처음 나온다.

297 更荒郡은 현재 大阪 북쪽의 四條畷市와 寢屋川市 동남쪽과 大東市 대부분에 걸친 지역이다. 鷋鷯野邑은 경황군의 하나의 촌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298 『日本書紀』 용명천황 2년(587) 7월에 物部氏 토벌군으로 참가하였고, 숭준천황 4년(591) 11월에 대장군으로서 축자에 출전하였다가 추고천황 3년(595) 7월에 돌아왔다.

299 河邊臣은 蘇我氏와 동족으로 천무 13년(684) 11월에 朝臣姓을 하사받는다. 瓊罐는 이름이다.

300 현재 전북 장수의 번암 또는 하동 고소성 지역으로 추정된다.

301 薦集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日本書紀』에는 천무천황 12년(683) 9월에 薦集造가 連을 사성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登弭는 이름이다.

사 계략을 약속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등미는 처가에 묵었는데, 봉인한 서신과 활과 화살을 길에 떨어뜨렸다. 신라는 군사 계략을 모두 알고 갑자기 대병을 일으켰지만, 계속 패하여 투항하기를 빌었다. 기남마려숙녜는 승리하고 군사를 돌려 백제의 군영으로 돌아갔다. 군중에 명을 내려 "무릇 이겨도 패하는 것을 잊지 말고 편안할 때도 반드시 위험할 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옛날의 훌륭한 교훈이다. 지금 있는 곳은 승냥이와 이리같은 적과 접해 있으니, 경솔하게 행동하면 변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물며 평안한 시대에도 칼을 몸에서 떼어 놓아서는 안 된다. 무릇 군자(君子)는 무기를 갖추는 일을 그칠 수 없다. 잘 경계하고 이 명령을 힘써 받들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군사들은 모두 신뢰하고 복종하였다. 하변신경부는 홀로 나아가 싸워서 싸우는 곳마다 모두 함락시켰다. 신라가 다시 백기를 들고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였다. 하변신경부는 원래 병법을 알지 못하여 신라를 향해 백기를 들고 쓸데없이 홀로 나아갔다. 그러자 신라 장군이 "장군 하변신이 지금 항복하려고 한다."고 말하고는 진군하여 역공하였다. 정예의 병사로 날래고 빠르게 공격하여 격파하였다. 선봉대의 피해가 매우 심했다. 왜국조수언(倭國造手彦 ; 야마토노쿠니노미야츠쿠테히코)[302]은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군사를 버리고 달아났다. 신라 장군은 손에 갈고리창을 쥐고 성 주위의 못까지 뒤쫓아 와서 창을 휘두르며 공격하였다. 수언은 날랜 말을 타고 성 주위의 못을 뛰어 넘어가 간신히 도망갔다. 신라 장군이 성 주위의 못에서 탄식하며 "구수니자리(久須尼自利)[303][이 신라 말은 잘 알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하변신은 군사를 이끌고 퇴각해서 급히 들에 군영을 만들었다. 이때 사졸들은 모두 업신여기며 명령을 따르려 하

302 倭國造는 大和國 城下郡 大和鄕의 씨족이다. 姓은 直이다. 倭國直은 천무천황 12년(683) 9월에 連, 同 14년 6월에 忌寸성을 사성받는다. 手彦은 이름으로 이곳에만 보인다.

303 여기에서만 보인다.

지 않았다. 신라 장군은 군영으로 가서 하변신경부 등과 그를 따라 왔던 부인을 모두 사로잡았다. 이때는 부자도 부부도 서로 도울 수가 없었다. 신라 장군이 하변신에게 "너의 목숨과 부인 가운데 어느 쪽이 중요한가?"라고 물으니 "어찌 한 여자를 사랑하여 화를 얻겠는가. 어느 것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대답하여, (부인을) 첩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였다. 신라 장군이 마침내 그 부인을 노지에서 강간하였다. 부인이 후에 돌아오자 하변신은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부인은 매우 부끄럽고 한스럽게 여겨 따르지 않고 "이전에 당신이 나의 몸을 쉽게 팔았는데, 지금 무슨 낯으로 만나려 하십니까."라고 말하고는 끝내 승낙하지 않았다. 이 부인은 판본신(坂本臣 ; 사카모토노오미)[304]의 딸로서 감미원(甘美媛 ; 우마시히메)[305]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포로가 되었던 조길사이기나(調吉士伊企儺 ; 츠키노키시이키나)[306]는 용맹한 사람으로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다. 신라 장군이 칼을 빼서 목을 베고자 하였다. 억지로 잠방이를 벗기고 엉덩이를 일본으로 향하게 하고, "일본 장군은 내 엉덩이를 깨물어라."라고 크게 소리치며[규(叫)는 부르짖다는 뜻이다.] 협박하였다. 그러자 (이기나는) "신라왕은 나의 엉덩이나 먹어라."라고 크게 소리 질렀다. 몹시 괴롭힘을 당했으나 여전히 전과 같이 소리쳤다. 이 때문에 죽었다. 그의 아들 구자(舅子 ; 오지코)[307]도 그 아버지를 안고서 죽었다. 이기나의 말은 이렇게 빼앗기 어려웠다. 그래서 여러 장수들이 특히 애석해 하였다. 그의 아내 대엽자(大葉子 ; 오호바코)[308]도

---

304 『日本書紀』 숭준천황 즉위전기(587) 7월조에 나오는 '坂本臣糠手'란 인물로 추정된다. 坂本臣은 천무천황 13년(684) 11월에 朝臣姓을 하사받는다. 『新撰姓氏錄』 攝津皇別, 和泉皇別, 左京皇別에 의하면 坂本臣은 建內宿禰의 아들 紀角宿禰의 후예로서 紀朝臣과 동족이다. 坂本臣의 坂本은 지명으로 『和名類聚抄』에 和泉國 和泉郡 坂本鄕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현재 大阪府 和泉市 坂本町 부근으로 추정된다.

305 여기에만 보인다.

306 伊企儺가 이름이다. 調吉士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계체천황 24년 9월조 調吉士 참조.

307 여기에만 보인다.

함께 사로잡혔는데, "가라구이(柯羅俱爾 ; 카라쿠니)[309]의 성 위에 서서 대엽자는 영건(領巾)[310]을 흔들고 있네요. 일본을 향해서."라고 슬프게 노래하였다. 어떤 이가 "가라구이의 성 위에 서서 대엽자가 영건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인다. 난파를 향해서."라고 화답하였다.

8월에 천황이 대장군 대반련협수언(大伴連狹手彦 ; 오호토모노무라지사데히코)[311]을 파견하여 군사 수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를 치도록 하였다[312]. 협수언은 백제의 계책을 써서 고구려를 격파하였다. 그 왕[313]은 담을 넘어 도망하였다. 협수언은 드디어 승세를 타고 왕궁으로 들어가 갖가지 진귀한 보물, 칠직장(七織帳), 철옥(鐵屋)을 모두 빼앗아 돌아왔다[옛 책(舊本)에는 철옥은 고구려 서쪽의 높은 누각 위에 있었으며, 직장은 고구려왕의 내전 침실에 쳐 있었다고 한다.]. 칠직장은 천황에게 바치고 갑옷 두 벌, 금으로 장식한 칼 두 자루, 구리종 세 개, 오색 번(五色幡) 두 간(竿), 미녀 원(媛)[원은 이름이다.]과 그의 시녀 오전자(吾田子)는 소아도목숙녜대신(蘇我稻目宿禰大臣)에게 보냈다. 이때 대신은 두 여자를 처로 삼고 경(輕 ; 카루)[314]의 곡전(曲殿)에 살도록 하였다[철옥은 장안사(長安寺)에 있다. 이 절이 어느 국(國)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315]. 어떤 책(一本)에서는 "11년에 대반협수언련이 백제

---

308 여기에만 보인다.

309 韓國, 즉 여기서는 신라를 가리킨다.

310 여자가 목부터 어깨까지 걸치는 가는 장식용 천을 말한다.

311 大伴大連金村의 아들이다. 『日本書紀』 선화천황 2년(537) 동10월조에 大伴磐과 함께 任那에 쳐들어 온 신라를 격퇴시키는 인물로 처음 나온다.

312 왜왕권의 고구려 침공 기사는 大伴氏의 家傳에서 나온 기록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와의 교섭에 관계한 씨족으로서 무훈을 강조한 조작된 필법이다.

313 흠명천황 23년은 서기 562년에 해당되므로 이때의 고구려왕은 제25대 平原王(재위 : 559~590)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平原王〈或云平崗上好王〉. 諱陽成. 陽原王長子. 有膽力. 善騎射.」라고 기록되어 있다.

314 현재 奈良縣 橿原市 大輕町 부근이다. 曲殿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315 『日本書紀』에는 그 위치에 대해 모른다고 적고 있지만, 『扶桑略記』 흠명천황 13년(552)

국과 함께 고구려와 양향(陽香)[316]을 비진류도(比津留都)[317]에서 쫓아냈다."고 한다.].

겨울 11월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물건을 바치고 아울러 조부를 바쳤다. 사신은 신라가 임나를 멸망시킨 것을 분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고 감히 돌아가기를 청하지 못하였다.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 본국에 돌아가지 않았다. 백성과 같이 취급하였다. 지금의 섭진국(攝津國 ; 츠노쿠니) 삼도군(三嶋郡 ; 미시마노코호리) 식려(埴廬 ; 하니로)[318]에 있는 신라인의 선조이다.

26년 여름 5월에 고구려인 두무리야폐(頭霧唎耶陛)[319] 등이 축자(筑紫 ; 쓰쿠시)에 투화하였으므로 산배국(山背國 ; 야마시로노구니)에 살게 하였다. 지금의 무원(畝原 ; 우네하라)[320], 나라(奈羅 ; 나라)[321], 산촌(山村 ; 야마무라)[322]의 고구려인의 선조이다.

조에 「以鐵屋置長安寺.」라는 기록에 이어서 그 분주에 「長安寺者. 在近江國栗太郡多侈郎寺是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近江國 栗太郡은 현재 滋賀縣 남서부에 있었던 郡이다.

316 흠명천황 11년은 서기 550년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고구려왕은 제24대 陽原王(재위 : 545~559)으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陽原王〈或云陽崗上好王〉. 諱平成. 安原王長子.」라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와 『日本書紀』에서는 이 시기 백제와 고구려가 자주 전투를 치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317 여기에만 보인다.

318 埴廬는 현재 大阪府 高槻市 上土室지역이다. 이곳에서 조사된 新池埴輪製作유적에서는 실제 신라계 도래인들의 추정주거지 및 토기가 다수 발견된 바 있다.

319 『新撰姓氏錄』 右京諸藩 고려조에 의하면 고구려왕 鄒牟(주몽)의 후손인 長背連이 흠명조에 왜국에 건너 왔다는 기록이 나온다. 여기서 두무리야폐란 인물이 장배련의 선조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세히 알 수 없다.

320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321 『和名類聚抄』에 「山城國 久世郡 那羅鄕.」이란 기록이 나온다. 현재 京都府 八幡市 上奈良과 下奈良 지역이다.

322 『新撰姓氏錄』 山城皇別 曰佐條에 「山代國 相樂郡 山村曰佐.」란 기록이 있다. 상락군은 京都府 大津川市의 옛 지명이다. 山村鄕의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다.

28년에 군국(郡國)에 홍수가 나서 기근이 들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었다. 인접한 군의 곡식을 가져다가 구휼하였다.

30년 봄 정월 신묘삭(1일)에 조를 내려 "전부(田部 ; 타베)[323]를 설치한지 오래되었다. 연령이 10여 세에 달했는데도 호적에서 빠져 과역을 면한 자가 많다. 담진(膽津 ; 이츠)[324][膽津은 왕진이의 조카이다.]을 보내어 백저전부(白猪田部)의 정적(丁籍)[325]을 조사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여름 4월에 담진이 백저전부의 정(丁)[326]의 수를 조사하여 조에 따라 호적을 작성하였다. 드디어 전호(田戶)[327]가 갖추어졌다. 천황은 담진이 적을 정비한 공을 기려 백저사(白猪史 ; 시라이노후비토)[328]라는 성을 내렸다. 그리고 즉시 전령(田令)[329]에 임명하고 서자(瑞子)[330]의 부관으로 삼았다[서자는 위에 보인다.].

31년 봄 3월 갑신삭(1일)에 소아대신도목숙녜가 죽었다(薨).

여름 4월 갑신삭 을유(2일)에 박뢰시리궁(泊瀨柴籬宮 ; 하쓰세노시바카키노미

---

323 『日本書紀』 흠명천황 17년 추7월조 田部 참조.

324 『日本書紀』 흠명천황 원년 8월조 戶籍 참조.

325 壯丁(丁男)의 호적을 말한다.

326 丁은 율령제하에서 21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역 대상자이다.

327 둔창을 경작하던 戶를 의미한다. 즉 田部에 속한 부민들이 구성한 호를 말한다.

328 王辰爾의 후예씨족으로 船史·津史氏와 동족이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14년 추7월조 船史 참조. 선사씨가 천무천황 12년(683)에 連성을 받는데 비해 백저사씨는 그보다 한참 늦은 720년 4월에 葛井連으로 改姓된다. 720년은 『日本書紀』가 완성된 시기로, 白猪史骨이 『日本書紀』 편찬에 공이 있고, 그 일족인 白猪史(葛井連)廣成이 719년 외교관으로 활약한 것이 인정되어 개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329 『日本書紀』 흠명천황 17년 추7월조 田令 참조.

330 『日本書紀』 흠명천황 17년 추7월조 葛城山田直瑞子 참조.

야)[331]에 행차하였다. 월인(越人) 강정신군대(江渟臣裙代 ; 에누노오미모시로)[332]가 도읍에 와서 "고구려 사신이 바람과 파도에 시달려 배 댈 곳을 잃고 헤매다가 물결 따라 떠다니던 중 홀연히 해안에 다다랐습니다[333]. 군사(郡司)[334]가 숨겨 두었으므로 제가 보고하는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조를 내려 "내가 즉위한 지 수년[若干年]이 되었다. 고구려인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처음으로 월국(越國)의 해안에 도착하였다. 비록 물에 빠지고 떠다니는 고생은 하였지만, 목숨은 온전하다.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훌륭한 계책이 멀리 미치고 지극한 덕이 높고 커서, 감화가 주변까지 통하여 은혜가 널리 미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담당관서는 마땅히 산성국(山城國 ; 야마시로노쿠니) 상락군(相樂郡 ; 사가라카노고호리)[335]에 객관(客館)을 세워 깨끗이 정돈하여 후히 베풀고 돌보라."고 명하였다. 이 달에 천황이 수레를 타고 박뢰시리궁에서 돌아왔다. 동한씨직강아(東漢氏直糠兒 ; 야마토노아야노우지노아타히아라코)[336]과 갈성직

---

331 武烈天皇이 조영한 泊瀨列城宮과 함께 泊瀨의 初瀨谷 근처로 비정된다. 박뢰는 현재 대화천 상류에서 초뢰천 연안 지역까지 걸친 지역이다. 5세기 후반부터 6세기에 걸쳐 조영된 박뢰지역의 궁전 유적에 대해서는 최근 脇本遺跡 發掘調査의 성과 등이 참고된다.

332 江渟臣은 江沼臣이라도 하며 裙代는 이름이다. 加賀國 江沼郡(현재 石川縣 加賀市 大聖寺 부근) 지역의 수장이다. 越前, 加賀, 能登 지역은 후대 중국이나 발해로부터 상인 및 사절이 종종 도착한 지역이다.

333 고구려와 왜국 간의 교섭은 흠명천황 31년(570) 4월조부터 민달 3년조(574)에 걸친 고구려 사신 방문 기사를 최초의 사실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구려와 왜국 교섭 개시는 570년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시기 고구려는 평원왕대인데 『삼국사기』에는 대중국 교섭 내용만 보일 뿐 왜국에 사신을 보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기 고구려는 국내외적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왜국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맺고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추측된다.

334 郡司制는 701년 大寶律令에 의해 제정된 지방 직제이다. 군사는 大領, 少領, 主政, 主帳의 4등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335 현재 相樂郡(笠置·精華·和束町, 南山城村)과 京都府의 大津川市를 포함한 지역이었다.

336 東漢氏直은 民直의 오기이다. 동한민직씨는 동한씨의 일족이다.

난파(葛城直難波 ; 카즈라키노아타히나니와)[337]를 보내 고구려 사신을 맞이하였다.

5월에 선신경자(膳臣傾子 ; 카시하데노오미카타부코)[338]를 월(越)에 보내어 고구려 사신을 대접했다[傾子는 카타부코(舸拕部古)라고 읽는다.]. 고구려 대사(大使)가 자세히 살펴보고는 선신이 바로 천자의 사신인 것을 알고 도군(道君 ; 미치노키미)[339]에게 "네가 천황이 아니라는 것은 과연 내가 의심한 대로구나. 네가 선신에게 엎드려 절하였으니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충분하다. 그런데 전에 나를 속여 조를 네가 가졌다. 당장 그것을 되돌려 달라. 번잡하게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선신이 듣고 사람을 시켜 그 조를 찾아서 모두 그에게 주고 도읍으로 돌아가 복명하였다.

가을 7월 임자삭(1일)에 고구려 사신이 근강(近江 ; 오후미)에 도착했다.

이 달에 허세신원(許勢臣猿 ; 코세노오미사루)[340]과 길사적구(吉士赤鳩 ; 키시노아카하토)[341]를 보내, 난파진(難波津 ; 나니와노츠)에서 출발하여 협협파산(狹狹波山 ; 사사나미야마)[342]까지 배를 끌고 가서 배를 장식하고[343] 근강의 북쪽 산에서 (고구려 사신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마침내 산 뒤쪽의 고위관(高槻館 ; 코마히노무로쓰미)[344]에 인도하여 들이고 동한판상직자마려(東漢坂上直子麻呂 ; 야마토노아야

---

337 葛城直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흠명천황 22년 시세조 葛城直 참조.

338 膳臣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효원천황 7년 춘2월조 膳臣 참조.

339 『日本書紀』 흠명천황 31년(570) 4월조의 郡司를 가리킨다. 越前國 加賀郡(현재 石川縣 石川郡 鶴来町)의 國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40 『日本書紀』 숭준천황 4년(591) 동11월조에는 巨勢臣猿으로 나오는데 네 명의 대장군 가운데 한 사람으로 筑紫에 출정갔다는 내용이다.

341 吉士는 주로 외교 사무 및 항해 등의 일에 종사하는 집단에게 주어진 姓이다. 赤鳩는 이름이다. 吉士에 대해서는 『日本書紀』 계체천황 23년 3월조 吉士老 참조.

342 현재 滋賀縣 大津市의 逢坂山을 가리킨다.

343 『日本書紀』 추고천황 16년(608) 6월조에도 隋使를 영접하는 데 '飾船' 30척을 준비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344 후문의 相樂館(현재 京都府 相樂郡 木津町 일대)과 가까운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노사카노우에노아타히코마로)[345]와 금부수대석(錦部首大石 ; 니시코리노오비토오호이시)[346]을 보내어 지키게 하였다. 또 상락관(相樂館 ; 사가라카노무로츠미)[347]에서 고구려 사신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32년 봄 3월 무신삭 임자(5일)에 판전이자랑군(坂田耳子郎君 ; 사카타노미미코노이라츠키미)[348]을 신라에 사신으로 보내어 임나를 멸망시킨 이유를 물었다.

이 달에 고구려의 물품을 바치고 표문을 읽는 (의례를) 거행하지 못하였다. 수십 일 동안 좋은 날을 점쳐 기다렸다.

여름 4월 무인삭 임진(15일)에 천황이 병환으로 자리에 누웠다[349]. 황태자는 밖에 나가 없었으므로 역마로 불러 내전에 들였다. 천황이 그 손을 잡고 "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여기서 高槻의 高를 고구려의 일본식 발음인 '고마'로 읽고, 槻는 '히'로 읽으며 요강 혹은 水路 등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345 東漢坂上直은 동한씨의 일족이며, 子麻呂는 이름이다. 坂上直은 응신대에 왜국에 건너온 阿智王(阿知使主)의 후예라고 하는데 신빙성은 떨어진다. 판상직씨의 본거지는 大和國 添上郡 坂上지역이었다. 천무천황 11년 5월에 連성을 받고 同 14년 6월에 忌寸으로 개성된다.

346 錦部首씨는 三善씨라고도 하며 『新撰姓氏録』 右京諸蕃에는 백제 速古大王(근초고왕)의 후예로 나온다. 본거지는 河內國 錦部郡, 현재 大阪府 富田林市 남부지역으로 추정된다.

347 현재 京都府 相樂郡 木津町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348 『日本書紀』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坂田公氏 인물로 이름이 耳子郎이다. 판전이자랑군의 후예씨족은 坂田君(公)이다. 판전공은 『日本書紀』와 『新撰姓氏錄』에 의하면 계체천황이 8번째 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후예이다. 흠명천황은 계천천황이 인현왕의 딸을 맞아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므로 판전이자랑군은 흠명천황의 이복동생일 가능성이 크다.

349 『三國志』 魏書 明帝紀 景初 2년(238) 2월조 「帝寢疾不豫」의 기록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하의 기사도 대부분 위서 명제기 내용 및 표현을 빌어서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병이 중하여 이후의 일을 너에게 맡긴다. 너는 반드시 신라를 쳐서 임나를 세워라. 옛날과 같이 화합하여 다시 부부와 같은 사이가 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말하였다.

이 달에 천황이 마침내 내전에서 죽었다(崩). 이때 나이는 약간[350]이다. 5월에 하내고시(河內古市 ; 가후치노후루이치)[351]에 빈궁[352]을 마련하였다.

가을 8월 병자삭(1일)에 신라 조문사 미질자실소(未叱子失消)[353] 등을 보내어 빈소에서 천황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이 달에 미질자실소 등이 돌아갔다.

9월에 회외판합릉(檜隈坂合陵 ; 히노쿠마노사카히노미사자키)[354]에서 장사지냈다.

일본서기 권 제19

---

350 '향년불명'이라는 의미이다. 『神皇正統記』에는 81세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351 『續日本紀』 天平 17년(745) 10월 28일조에 河內國 古市郡 古市里가 보이는데 이곳은 현재 大阪府 羽曳野市 古市지역으로 비정된다.

352 원문은 殯이다.

353 未叱子失消를 모두 인명으로 보기에는 조문사의 관등이나 관직이 표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부자연스럽다(『日本書紀』 흠명천황 21년 추9월조의 彌至己知 奈末 참조). 그러나 『日本書紀』 민달천황 9년(580) 6월조에 失消奈末이란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失消는 인명이 분명하다. 암파서적 『日本書紀』 역주본에서는 未叱子를 경칭적인 의미가 담긴 관직명으로 추정하였다.

354 일본 궁내청에서는 현재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에 위치한 梅山古墳을 흠명천황의 능으로 비정하고 있다. 梅山古墳은 고분시대 후기의 전방후원분으로 전체 길이가 140m, 후원부 길이가 72m이다. 분구를 둘러싼 해자는 幕末인 文久연간에 개축되어 원래의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다. 한편 1991년에 어느 민간인이 촬영한 見瀨丸山古墳의 석실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 고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석실구조나 家形石棺의 형태 등을 통해 몇몇 고고학자들이 見瀨丸山古墳을 흠명천황릉으로 비정하고 있기도 하다. 見瀨丸山古墳은 현재 奈良縣 橿原市 見瀨町, 五條野町, 大輕町에 걸쳐 위치해 있는 전방후원분이다(전체 318m, 전방부 폭 210m, 후원부 높이 21m). 6세기 후반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欽明天皇과 堅塩媛의 합장묘로 보기도 한다.

日本書紀 卷第十九

天國排開廣庭天皇 欽明天皇

天國排開廣庭天皇, 男大迹天皇嫡子也. 母曰手白香皇后. 天皇愛之, 常置左右. 天皇幼時, 夢有人云, 天皇寵愛秦大津父者, 及壯大, 必有天下. 寐驚遣使普求, 得自山背國紀郡深草里. 姓字果如所夢. 於是, 忻[1]喜遍身, 歎夫曾夢. 乃告之曰, 汝有何事. 答云, 無也. 但臣向伊勢, 商價來還, 山逢二狼相鬪汗[2]血. 乃下馬洗漱口手, 祈請曰, 汝是貴神, 而樂傷行. 儻逢獵士, 見禽尤速. 乃抑止相鬪, 拭洗血毛, 遂遣放之, 俱令全命. 天皇曰, 必此報也. 乃令近侍, 優寵日新. 大致饒富. 及至踐祚, 拜大藏省.

四年冬十月, 武小廣國押盾天皇崩. 皇子天國排開廣庭天皇, 令群臣曰, 余, 幼年淺識, 未閑政事. 山田皇后, 明閑百揆. 請就而決. 山田皇后怖謝曰, 妾蒙恩寵, 山海詎同. 萬機之難, 婦女安預. 今皇子者, 敬老慈少, 禮下賢者. 日中不食以待士. 加以幼而穎脫, 早擅嘉聲, 性是寬和, 務存矜宥. 請諸臣等, 早令[3]登位光臨天下. 冬十二月庚辰朔甲申, 天國排開廣庭皇子, 即天皇位. 時年若干. 尊

1 소학관본에서는 '所'라고 적고 있다.
2 소학관본에서는 '汚'라고 적고 있다.
3 소학관본에서는 '令臨'이라고 적고 있다.

皇后曰皇太后. 大伴金村大連·物部尾與大連爲大連, 及蘇我稻目宿禰大臣爲大臣, 並如故.

元年 春正月庚戌朔甲子, 有司請立皇后. 詔曰, 立正妃武小廣國押盾天皇女石姬爲皇后. 是生二男一女. 長曰箭田珠勝大兄皇子. 仲曰譯語田渟中倉太珠敷尊. 少曰笠縫皇女[更名狹田毛皇女.].

二月, 百濟人己知部投化. 置倭國添上郡山村. 今山村己知部之先也.

三月, 蝦夷·隼人, 並率衆歸附.

秋七月丙子朔己丑, 遷都倭國磯城郡磯城嶋. 仍號爲磯城嶋金刺宮.

八月, 高麗·百濟·新羅·任那, 並遣使獻, 並脩貢職. 召集秦人·漢人等, 諸蕃投化者, 安置國郡, 編貫戶籍. 秦人戶數, 總七千五十三戶. 以大藏掾, 爲秦伴造.

九月乙亥朔己卯. 幸難波祝津宮. 大伴大連[4]金村·許勢臣稻持·物部大連尾輿等從焉. 天皇問諸臣曰, 幾許軍卒, 伐得新羅. 物部大連尾輿等奏曰, 少許軍卒, 不可易征. 曩者, 男大迹天皇六年, 百濟遣使, 表請任那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 四縣. 大伴大連金村, 輒依表請, 許賜所求. 由是, 新羅怨嚮積年. 不可輕爾而伐. 於是, 大伴大連金村, 居住吉宅, 稱疾不朝. 天皇遣靑海夫人勾子, 慰問慇懃. 大連怖謝曰, 臣所疾者, 非餘事也. 今諸臣等謂臣滅任那. 故恐怖不朝耳. 乃以鞍馬贈使, 厚相資敬. 靑海夫人, 依實顯奏. 詔曰, 久竭忠誠. 莫恤衆口. 遂不爲罪, 優寵彌深. 是年也, 太歲庚申.

二年 春三月, 納五妃. 元妃, 皇后弟曰稚綾姬皇女. 是生石上皇子. 次有皇后弟. 曰日影皇女[此曰皇后弟. 明時檜隈高田天皇女. 而列后妃之名, 不見母妃姓與皇女名字, 不知出何書. 後勘者知之.]. 是生倉皇子. 次蘇我大臣稻目宿禰女曰堅鹽媛[堅鹽.

4 소학관본에는 '大連'이 생략되어 있다.

此云岐拕[5]志.]. 生七男六女. 其一曰大兄皇子. 是爲橘豐日尊. 其二曰磐隈皇女[更名夢皇女.]. 初侍祀於伊勢大神. 後坐姧皇子茨城解. 其三曰膳嘴鳥皇子. 其四曰豐御食炊屋姬尊. 其五曰椀子皇子. 其六曰大宅皇女. 其七曰石上部皇子. 其八曰山背皇子. 其九曰大伴皇女. 其十曰櫻井皇子. 其十一曰肩野皇女. 其十二曰橘本稚皇子. 其十三曰舍人皇女. 次堅鹽媛同母弟曰小姉君. 生四男一女. 其一曰茨城皇子. 其二曰葛城皇子. 其三曰渥部穴穗部皇女. 其四曰泥[6]部穴穗部皇子[更名天香子皇子. 一書云, 更名住迹皇子.]. 其五曰泊瀨部皇子[一書云, 其一曰茨城皇子. 其二曰泥[7]部穴穗部皇女. 其三曰泥[8]部穴穗部皇子. 更名住迹皇子. 其四曰葛城皇子. 其五曰泊瀨部皇子. 一書云, 其一曰茨城皇子. 其二曰住迹皇子. 其三曰泥[9]部穴穗部皇女. 其四曰泥部穴穗部皇子. 更名天香子. 其五曰泊瀨部皇子. 帝王本紀, 多有古字, 撰集之人, 屢經遷易. 後人習讀, 以意刊改. 傳寫旣多, 遂致舛雜. 前後失次, 兄弟參差. 今則孝覈古今, 歸其眞正. 一往難識者, 且依一撰, 而注詳其異. 他皆效此.]. 次春日日抓臣女曰糠子. 生春日山田皇女. 與橘麻呂皇子.

夏四月. 安羅次旱岐夷呑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旱岐, 散半奚旱岐兒, 多羅下旱岐夷他, 斯二岐旱岐兒, 子他旱岐等, 與任那日本府吉備臣[闕名字.], 往赴百濟, 俱聽詔書. 百濟聖明王謂任那旱岐等言, 日本天皇所詔者, 全以復建任那. 今用何策, 起建任那. 盍各盡忠, 奉展聖懷. 任那旱岐等對曰, 前再三廻, 與新羅議. 而無答報. 所圖之旨, 更告新羅, 尙無所[10]報. 今宜俱遣使, 往奏天皇. 夫建任那者, 爰在大王之意. 祇承敎旨. 誰敢間言. 然任那

5 소학관본에서는 '拖'라고 적고 있다.
6 소학관본에서는 '埿'라고 적고 있다.
7 소학관본에서는 '埿'라고 적고 있다.
8 소학관본에서는 '埿'라고 적고 있다.
9 소학관본에서는 '埿'라고 적고 있다.
10 소학관본에는 '所'가 생략되어 있다.

境接新羅. 恐致卓淳等禍[等謂喙己呑·加羅. 言卓淳等國, 有敗亡之禍.]. 聖明王曰,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之世, 安羅·加羅·卓淳旱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 冀可恆[11]隆. 而今被誑新羅, 使天皇忿怒, 而任那憤恨, 寡人之過也. 我深懲悔, 而遣下部中佐平麻鹵·城方甲背昧奴等, 赴加羅, 會于任那日本府相盟. 以後, 繫念相續, 圖建任那, 旦夕無忘. 今天皇詔稱, 速建任那. 由是, 欲共爾曹謨計, 樹立任那等國. 宜善圖之. 又於任那境, 徵召新羅, 問聽與不. 乃俱遣使, 奏聞天皇, 恭承示敎. 儻如使人未還之際, 新羅候隙, 侵逼任那, 我當往救. 不足爲憂. 然善守備, 謹警無忘. 別汝所遣, 恐致卓淳等禍, 非新羅自强故, 所能爲也. 其喙己呑, 居加羅與新羅境際, 而被連年攻敗. 任那無能救援. 由是見亡. 其南加羅, 蕞爾狹小, 不能卒備, 不知所託. 由是見亡. 其卓淳, 上下携貳. 主欲自附, 內應新羅. 由是見亡. 因斯而觀, 三國之敗, 良有以也. 昔新羅請援於高麗, 而攻擊任那與百濟, 尙不剋之. 新羅安獨滅任那乎. 今寡人, 與汝戮力幷心, 翳賴天皇, 任那必起. 因贈物各有差. 忻忻而還.

秋七月, 百聞安羅日本府與新羅通計, 遣前部奈率鼻利莫古·奈率宣文·中部奈率木刕眛[12]淳·紀臣奈率彌麻沙等[紀臣奈率者, 蓋是紀臣娶韓婦所生, 因留百濟, 爲奈率者也. 未詳其父. 他皆效此也.]. 使于安羅, 召到新羅任那執事, 謨建任那. 別以安羅日本府河內直, 通計新羅, 深責罵之[百濟本記云, 加不至費直·阿賢移那斯·佐魯麻都等. 未詳也.]. 乃謂任那曰,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 與故旱岐等, 始約和親, 式爲兄弟. 於是, 我以汝爲子弟, 汝以我爲父兄. 共事天皇, 俱距强敵. 安國全家, 至于今日. 言念先祖, 與舊旱岐, 和親之詞, 有如皎日. 自玆以降, 勤修隣好, 遂敦與國. 恩踰骨肉. 善始有終, 寡人之所恆[13]願. 未審, 何緣輕用浮辭, 數

11 소학관본에서는 '恒'이라고 적고 있다.

12 소학관본에서는 '昧'라고 적고 있다.

13 소학관본에서는 '恒'이라고 적고 있다.

歲之間, 慨然失志. 古人云, 追悔無及, 此之謂也. 上達雲際, 下及泉中, 誓神乎今, 改咎乎昔. 一無隱匿, 發露所爲. 精誠通靈, 深自克責, 亦所宜取. 蓋聞, 爲人後者, 貴能負荷先軌, 克昌堂構, 以成勳業也. 故今追崇先世和親之好, 敬順天皇詔勅之詞, 拔取新羅所折之國南加羅·喙己呑等, 還屬本貫, 遷實任那, 永作父兄, 恆朝日本. 此寡人之所食不甘味, 寢不安席. 悔往戒今之, 所勞想也. 夫新羅甘言希誑, 天下之所知也. 汝等妄信, 旣墮人權. 方今任那境接新羅. 宜常設備. 豈能弛柝. 爰恐, 陷罹誣欺網穽, 喪國亡家, 爲人繫虜. 寡人念玆, 勞想而不能自安矣. 竊聞, 任那與新羅運策席際, 現蜂蛇怪. 亦衆所知. 且夫妖祥, 所以戒行. 災異所以悟人. 當是, 明天告戒, 先靈之徵表者也. 禍至追悔, 滅後思興, 孰云及矣. 今汝遵余, 聽天皇勅, 可立任那. 何患不成. 若欲長存本土, 永御舊民, 其謨在玆. 可不愼也. 聖明王更謂任那日本府曰, 天皇詔稱, 任那若滅, 汝則無資. 任那若興, 汝則有援. 今宜興建任那, 使如舊日, 以爲汝助, 撫養黎民. 謹承詔勅, 悚懼塡胸. 誓效丹誠, 冀隆任那. 永事天皇, 猶如往日. 先慮未然, 然後康樂. 今日本府, 復能依詔, 救助任那, 是爲天皇, 所必褒讚, 汝身所當賞祿. 又日本卿等, 久住任那之國, 近接新羅之境. 新羅情狀, 亦是所知. 毒害任那, 謨防日本, 其來尙矣. 匪唯今年. 而不敢動者, 近羞百濟, 遠恐天皇. 誘事朝庭, 僞和任那. 如斯感激任那日本府者, 以未禽任那之間, 僞示伏從之狀. 願今候其間隙, 佔其不備, 一擧兵而取之. 天皇, 以[14]詔勅, 勸立南加羅·喙己呑, 非但數十年. 而新羅一不聽命, 亦卿所知. 且夫信敬天皇, 爲立任那, 豈若是乎. 恐卿等輒信甘言, 輕被謾語, 滅任那國, 奉辱天皇. 卿其戒之, 勿爲他欺.

秋七月. 百濟遣紀臣奈率彌麻沙·中部奈率己連, 來奏下韓·任那之政, 幷上表之.

---

14 소학관본에는 '以'가 생략되어 있다.

四年 夏四月, 百濟紀臣奈率彌麻沙等罷之.

秋九月, 百濟聖明王遣前部奈率眞牟貴文·護德己州己婁與物部施德麻奇[15]牟等, 來獻扶南財物與奴二口.

冬十一月丁亥朔甲午, 遣津守連, 詔百濟曰, 在任那之下韓, 百濟郡令城主, 宜附日本府. 幷持詔書, 宣曰, 爾屢抗表, 稱當建任那, 十餘年矣. 表奏如此, 尙未成之. 且夫任那者, 爲爾國之棟梁. 如折棟梁, 詎成屋宇. 朕念在玆. 爾須早[16]建. 汝若早建任那, 河內直等[河內直已見上文.], 自當止退. 豈足云乎. 是日, 聖明王, 聞宣勅已, 歷問三佐平內頭及諸臣曰, 詔勅如是. 當復何如. 三佐平等答曰, 在下韓之, 我郡令城主, 不可出之. 建國之事, 宜早聽聖勅.

十二月, 百濟聖明王, 復以前詔, 普示群臣曰, 天皇詔勅如是. 當復何如. 上佐平沙宅己婁·中佐平木劦麻那·下佐平木尹貴·德率鼻利莫古·德率東城道天·德率木劦眛[17]淳·德率國雖多·奈率燕比善那等, 同議曰, 臣等稟性愚闇, 都無智略. 詔建任那. 早須奉勅. 今宜召任那執事·國國旱岐等, 俱謀同計, 抗表述志. 又河內直·移那斯·麻都等, 猶住安羅, 任那恐難建之. 故亦幷表, 乞移本處也. 聖明王曰, 群臣所議, 甚稱寡人之心.

是月, 乃遣施德高分, 召任那執事與日本府執事. 俱答言, 過正旦而往聽焉.

五年 春正月, 百濟國遣使, 召任那執事與日本府執事. 俱答言, 祭神時到. 祭了而往.

是月, 百濟復遣使, 召任那執事與日本府執事. 日本府·任那, 俱不遣執事, 而遣微者. 由是, 百濟不得俱謀建任那國.

---

15 소학관본에서는 '哥'라고 적고 있다.

16 소학관본에서는 '早早'라고 적고 있다.

17 소학관본에서는 '昧'라고 적고 있다.

二月, 百濟遣施德馬武·施德高分屋·施德斯那奴次酒等, 使于任那, 謂日本府與任那旱岐等曰, 我遣紀臣奈率彌麻沙·奈率己連·物部連奈率用奇[18]多, 朝謁天皇. 彌麻沙等, 還自日本, 以詔書宣曰, 汝等, 宜共在彼日本府, 早建良圖, 副朕所望. 爾其戒之. 勿被他誑. 又津守連, 從日本來[百濟本記云, 津守連己麻奴跪. 而語訛不正. 未詳.], 宣詔勅, 而問任那之政. 故將欲共日本府·任那執事, 議定任那之政, 奉奏天皇, 遣召三廻, 尙不來到. 由是, 不得共論圖計任那之政, 奉奏天皇矣. 今欲請留津守連, 別以疾使, 具申情狀, 遣奏天皇. 當以三月十日, 發遣使於日本. 此使便到, 天皇必須問汝. 汝日本府卿·任那旱岐等, 各宜發使, 共我使人, 往聽天皇所宣之詔. 別謂河內直[百濟本記云, 河內直·移那斯·麻都. 而語訛未詳其正也.], 自昔迄今, 唯聞汝惡. 汝先祖等[百濟本記云, 汝先那干陀甲背·加獵[19]直岐甲背. 亦云那奇陀甲背·鷹奇[20]岐彌. 語訛未詳.], 俱懷奸僞誘說. 爲哥[21]可君[百濟本記云, 爲哥[22]岐彌, 名有非岐.], 專信其言, 不憂國難. 乖背吾心, 縱肆暴虐. 由是見逐. 職汝之由. 汝等來住任那, 恆[23]行不善. 任那日損, 職汝之由. 汝是雖微, 譬猶小火燒焚山野, 連延村邑. 由汝行惡, 當敗任那. 遂使海西諸國官家, 不得長奉天皇之闕. 今遣奏天皇, 乞移汝等, 還其本處. 汝亦往聞. 又謂日本府卿·任那旱岐等曰, 夫建任那之國, 不假天皇之威, 誰能建也. 故我思欲就天皇, 請將士, 而助任那之國. 將士之粮[24], 我當須運. 將士之數, 未限若干. 運粮[25]之處, 亦難自決. 願居一處, 俱論可不, 擇從其善, 將奏天皇. 故頻遣召, 汝猶不來, 不得議也. 日

18 소학관본에서는 '歌'라고 적고 있다.
19 소학관본에서는 '臘'이라고 적고 있다.
20 소학관본에서는 '歌'라고 적고 있다.
21 소학관본에서는 '歌'라고 적고 있다.
22 소학관본에서는 '歌'라고 적고 있다.
23 소학관본에서는 '恒'이라고 적고 있다.
24 소학관본에서는 '糧'이라고 적고 있다.
25 소학관본에서는 '糧'이라고 적고 있다.

本府答曰, 任那執事, 不赴召者, 是由吾不遣, 不得往之. 吾遣奏天皇, 還使宣曰, 朕當以印奇[26]臣[語訛未詳.], 遣於新羅, 以津守連, 遣於百濟. 汝, 待聞勅際. 莫自勞往新羅百濟也. 宣勅如是. 會聞印奇[27]臣使於新羅, 乃追遣問天皇所宣. 詔曰, 日本臣與任那執事, 應就新羅, 聽天皇勅. 而不宣就百濟聽命也. 後津守連, 遂來過此. 謂之曰, 今余被遣於百濟者, 將出在下韓之, 百濟郡令城主. 唯聞此說. 不聞任那與日本府, 會於百濟, 聽天皇勅. 故不往焉, 非任那意. 於是, 任那旱岐等曰, 由使來召, 便欲往參, 日本府卿, 不肯發遣. 故不往焉. 大王, 爲建任那, 觸情曉示. 覩玆忻喜, 難可具申.

三月, 百濟遣奈率阿乇得文·許勢奈率奇[28]麻·物部奈率奇[29]非等, 上表曰, 奈率彌麻沙·奈率己連等, 至臣蕃, 奉詔書曰, 爾等宜共在彼日本府, 同謀善計, 早建任那. 爾其戒之. 勿被他誑. 又津守連等, 至臣蕃奉勅書, 問建任那. 恭承來勅, 不敢停時, 爲欲共謀. 乃遣使召日本府[百濟本記云, 遣召烏胡跛臣. 蓋是的臣也.] 與任那. 俱對言, 新年旣至. 願過而往. 久而不就. 復遣使召. 俱對言, 祭時旣至. 願過而往. 久而不就. 復遣使召. 而由遣微者, 不得同計. 夫任那之, 不赴召者, 非其意焉. 是阿賢移那斯·佐魯麻都[二人名也. 已見上文.], 奸佞之所作也. 夫任那者, 以安羅爲兄. 唯從其意. 安羅人者, 以日本府爲天. 唯從其意[百濟本記云, 以安羅爲父. 以日本府爲本也.]. 今的臣·吉備臣·河內直等, 咸從移那斯·麻都指撝而已. 移那斯·麻都, 雖是小家微者, 專擅日本府之政. 又制任那, 障而勿遣. 由是, 不得同計, 奏答天皇. 故留己麻奴跪[蓋是津守連也.], 別遣疾[30]使迅如飛鳥, 奉奏天皇. 假使二人[二人者, 移那斯與麻都也.], 在於安羅, 多行奸佞, 任那

---

26 소학관본에서는 '歌'라고 적고 있다.
27 소학관본에서는 '歌'라고 적고 있다.
28 소학관본에서는 '歌'라고 적고 있다.
29 소학관본에서는 '歌'라고 적고 있다.
30 소학관본에는 '疾'이 생략되어 있다.

難建, 海西諸國, 必不獲事. 伏請, 移此二人, 還其本處. 勅喩日本府與任那, 而圖建任那. 故臣遣奈率彌麻沙·奈率己連等, 副己麻奴跪, 上表以聞. 於是, 詔曰, 的臣等[等者, 謂吉備弟君臣·河內直等也.], 往來新羅, 非朕心也. 曩者, 印支彌[未詳.] 與阿鹵旱岐在時, 爲新羅所逼, 而不得耕種. 百濟路迥, 不能救急. 由的臣等往來新羅, 方得耕種, 朕所曾聞. 若已建任那, 移那斯·麻都, 自然却退. 豈足云乎. 伏承此詔, 喜懼兼懷. 而新羅誑朝, 知匿天勅. 新羅春取喙淳. 仍擯出我久禮山戍, 而遂有之. 近安羅處, 安羅耕種. 近久禮山處, 斯羅耕種. 各自耕之, 不相侵奪. 而移那斯·麻都, 過耕他界, 六月逃去. 於印支彌後來, 許勢臣時[百濟本記云, 我留印支彌之後, 至旣迺臣時. 皆未詳.], 新羅無復侵逼他境. 安羅不言爲新羅逼不得耕種. 臣嘗聞, 新羅每春秋, 多聚兵甲, 欲襲安羅與荷山. 或聞, 當襲加羅. 頃得書信. 便遣將士, 擁守任那, 無懈息也. 頻發銳兵, 應時往救. 是以, 任那隨序耕種. 新羅不敢侵逼. 而奏百濟路迥, 不能救急, 由的臣等, 往來新羅, 方得耕種, 是上欺天朝, 轉成奸佞也. 曉然若是, 尙欺天朝. 自餘虛妄, 必多有之. 的臣等, 猶住安羅, 任那之國, 恐難建立. 宜早退却. 臣深懼之, 佐魯麻都, 雖是韓腹, 位居大連. 厠日本執事之間, 入榮班貴盛之例. 而今反着[31]新羅奈麻禮冠. 卽身心歸附, 於他易照. 熟觀所作, 都無怖畏. 故前奏惡行, 具錄聞訖. 今猶着[32]他服, 日赴新羅域, 公私往還, 都無所憚. 夫喙國之滅, 匪由他也. 喙國之函跛旱岐, 貳心加羅國, 而內應新羅, 加羅自外合戰. 由是滅焉. 若使函跛旱岐, 不爲內應, 喙國雖少, 未必亡也. 至於卓淳, 亦復然之. 假使卓淳國主, 不爲內應新羅招寇, 豈至滅乎. 歷觀諸國敗亡之禍, 皆由內應貳心人者. 今麻都等, 腹心新羅, 遂着其服, 往還旦夕, 陰構奸心. 乃恐, 任那由玆永滅. 任那若滅, 臣國孤危. 思欲朝之, 豈復得耶. 伏願天皇, 玄鑒遠察, 速移本處, 以安任那.

---

31 소학관본에서는 '著'라고 적고 있다.

32 소학관본에서는 '著'라고 적고 있다.

冬十月, 百濟使人奈率得文·奈率奇麻等罷歸[百濟本記云, 冬十月, 奈率得文·奈率奇麻等, 還自日本曰, 所奏河內直·移那斯·麻都等事, 無報勅也.].

十一月, 百濟遣使, 召日本府臣·任那執事曰, 遣朝天皇, 奈率得文·許勢奈率奇[33]麻·物部奈率奇[34]非等, 還自日本. 今日本府臣及任那國執事, 宜來聽勅, 同議任那. 日本吉備臣, 安羅下旱岐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卒麻君·斯二岐君·散半奚君兒, 多羅二首位訖乾智, 子他旱岐, 久嗟旱岐, 仍赴百濟. 於是, 百濟王聖明, 略以詔書示曰, 吾遣奈率彌麻佐·奈率己連·奈率用奇[35]多等, 朝於日本. 詔曰, 早建任那. 又津守連奉勅, 問成任那. 故遣召之. 當復何如, 能建任那. 請各陳謀. 吉備臣·任那旱岐等曰, 夫建任那國, 唯在大王. 欲冀遵王, 俱奏聽勅. 聖明王謂之曰, 任那之國, 與吾百濟, 自古以來, 約爲子弟. 今日本府印岐彌[謂在任那日本臣名也.], 旣討新羅, 更將伐我. 又樂聽新羅虛誕謾語也. 夫遣印岐彌於任那者, 本非侵害其國[未詳.]. 往古來今, 新羅無道. 食言違信, 而滅卓淳. 股肱之國, 欲快返悔. 故遣召到, 俱承恩詔, 欲冀, 興繼任那之國, 猶如舊日, 永爲兄弟[36]. 竊聞, 新羅安羅, 兩國之境, 有大江水. 要害之地也. 吾欲據此, 修繕六城. 謹請天皇三千兵士, 每城充以五百, 幷我兵士, 勿使作田, 而逼惱者, 久禮山之五城, 庶自投兵降首. 卓淳之國, 亦復當興. 所請兵士, 吾給衣粮[37]. 欲奏天皇, 其策一也. 猶於南韓, 置郡令·城主者, 豈欲違背天皇, 遮斷貢調之路. 唯庶, 剋濟多難, 殲撲强敵. 凡厥凶黨, 誰不謀附. 北敵强大, 我國微弱. 若不置南韓, 郡領·城主, 修理防護, 不可以禦此强敵. 亦不可以制新羅. 故猶置之, 攻逼新羅, 撫存任那. 若不爾者, 恐見滅亡, 不得朝聘. 欲奏天皇, 其策

33 소학관본에서는 '哥'라고 적고 있다.
34 소학관본에서는 '哥'라고 적고 있다.
35 소학관본에서는 '哥'라고 적고 있다.
36 소학관본에서는 '妹'라고 적고 있다.
37 소학관본에서는 '糧'이라고 적고 있다.

二也. 又吉備臣·河內直·移那斯·麻都, 猶在任那國者, 天皇雖詔建成任那, 不可得也. 請, 移此四人, 各遣還其本邑. 奏於天皇, 其策三也. 宜與日本臣·任那旱岐等, 俱奉遣使, 同奏天皇, 乞聽恩詔. 於是, 吉備臣·旱岐等曰, 大王所述三策, 亦協愚情而已. 今願, 歸以敬諮日本大臣[謂在任那日本府之大臣也.] 安羅王·加羅王, 俱遣使同奏天皇. 此誠千載一會之期, 可不深思而熟計歟.

十二月. 越國言, 於佐渡嶋北御名部之碕岸, 有肅愼人, 乘一船舶而淹留. 春夏捕魚充食. 彼嶋之人, 言非人也. 亦言鬼魅, 不敢近之. 嶋東禹武邑人, 採拾椎子, 爲欲熟喫. 著灰裏炮. 其皮甲化成二人, 飛騰火上, 一尺餘許. 經時相鬪. 邑人深以爲異, 取置於庭. 亦如前飛, 相鬪不已. 有人占云, 是邑人, 必爲魅鬼所迷惑. 不久如言, 被其抄掠. 於是, 肅愼人移就瀨波河浦. 浦神嚴忌. 人不敢近. 渴飮其水, 死者且半. 骨積於巖岫. 俗呼肅愼隈也.

六年 春三月, 遣膳臣巴提便, 使于百濟.

夏五月. 百濟遣奈率其悛·奈率用奇多·施德次酒等上表.

秋九月. 百濟遣中部護德菩提等, 使于任那, 贈吳財於日本府臣及諸旱岐, 各有差.

是月, 百濟造丈六佛像, 製願文曰, 蓋聞, 造丈六佛, 功德甚大. 今敬造. 以此功德, 願天皇獲勝善之德, 天皇所用, 彌移居國, 俱蒙福祐. 又願, 普天之下一切衆生, 皆蒙解脫. 故造之矣.

冬十一月, 膳臣巴提便, 還自百濟言, 臣被遣使, 妻子相逐去. 行至百濟濱[濱海濱也.], 日晩停宿. 小兒忽亡, 不知所之. 其夜大雪. 天曉始求, 有虎連跡. 臣乃帶刀擐甲, 尋至巖岫. 拔刀曰, 敬受絲綸, 劬勞陸海, 櫛風沐雨, 藉草班荊者, 爲愛其子, 令紹父業也. 惟汝威神, 愛子一也. 今夜兒亡. 追蹤覓至. 不畏亡命, 欲報故來. 旣而其虎進前, 開口欲噬. 巴提便, 忽申左手, 執其虎舌, 右手刺殺, 剝取皮還.

是年. 高麗大亂, 被誅殺者衆[百濟本記云, 十二月甲午, 高麗國細群與麁群, 戰于宮

門. 伐鼓戰鬪. 細群敗不解兵三日. 盡捕誅細群子孫. 戊戌, 狛國香岡上王薨也.].

七年 春正月甲辰朔丙午, 百濟使人中部奈率己連等罷歸. 仍賜以良馬七十匹·船一十隻.

夏六月壬申朔癸未, 百濟遣中部奈率掠葉禮等獻調.

秋七月, 倭國今來郡言, 於五年春, 川原民直宮[宮名.], 登樓騁望. 乃見良駒[紀伊國漁者負贄草馬之子也.]. 睨影高鳴. 輕超母脊. 就而買取. 襲養兼年. 及壯鴻驚龍翥. 別輩越群. 服御隨心, 馳驟合度. 超渡大內丘之壑, 十八丈焉. 川原民直宮, 檜隈邑人也.

是歲, 高麗大亂. 凡鬪死者二千餘[百濟本記云, 高麗, 以正月丙午, 立中夫人子爲王. 年八歲. 狛王有三夫人. 正夫人無子. 中夫人生世子. 其舅氏麁群也. 小夫人生子. 其舅氏細群也. 及狛王疾篤, 細群·麁群, 各欲立其夫人之子. 故細群死者, 二千餘人也.].

八年 夏四月, 百濟遣前部德率眞慕宣文·奈率奇[38]麻等, 乞救軍. 仍貢下部東城子言, 代德率汶休麻那.

九年 春正月癸巳朔乙未, 百濟使人前部德率眞慕宣文等請罷. 因詔曰, 所乞救軍, 必當遣救. 宜速報王.

夏四月壬戌朔甲子, 百濟遣中部杆率掠葉禮等奏曰, 德率宣文等, 奉勅至臣蕃曰, 所乞救兵, 應時遣送. 祇承恩詔, 嘉慶無限. 然馬津城之役[正月辛丑, 高麗率衆, 圍馬津城.], 虜謂之曰, 由安羅國與日本府, 招來勸罰. 以事准況, 寔當相似. 然三廻欲審其言, 遣召而並不來. 故深勞念. 伏願, 可畏天皇[西蕃皆稱日本天皇, 爲可畏天皇.], 先爲勘當. 暫停所乞救兵, 待臣遣報. 詔曰, 式聞呈奏, 爰覩所憂,

38 소학관본에서는 '歌'라고 적고 있다.

日本府與安羅, 不救隣難, 亦朕所疾也. 又復密使于高麗者, 不可信也. 朕命卽自遣之. 不命何容可得. 願王, 開襟緩帶, 恬然自安, 勿深疑懼. 宜共任那, 依前勅, 戮力俱防北敵, 各守所封. 朕當遣送若干人, 充實安羅逃亡空地.

六月辛酉朔壬戌, 遣使詔于百濟曰, 德率宣文, 取歸以後, 當復何如. 消息何如. 朕聞, 汝國爲狛賊所害. 宜共任那, 策勵同謀, 如前防距.

閏七月庚申朔辛未, 百濟使人掠葉禮等罷歸.

冬十月, 遣三百七十人於百濟, 助築城於得爾辛.

十年 夏六月乙酉朔辛卯, 將德久貴·固德馬次文等請罷歸. 因詔曰, 延那斯·麻都, 陰私遣使高麗者, 朕當遣問虛實. 所乞軍者, 依願停之.

十一年 春二月辛巳朔庚寅, 遣使詔于百濟[百濟本記云, 三月十二日辛酉, 日本使人阿比多, 率三舟, 來至都下.]曰, 朕依施德久貴·固德馬進文等所上表意, 一一敎示, 如視掌中, 思欲具情, 冀將盡抱. 大市頭歸後, 如常無異. 今但欲審報辭. 故遣使之. 又復朕[39]聞, 奈率馬武, 是王之股肱臣也. 納上傳下, 甚協王心, 而爲王佐. 若欲國家無事, 長作官家, 永奉天皇, 宜以馬武爲大使, 遣朝而已. 重詔曰, 朕聞, 北敵强暴. 故賜矢卅具, 庶防一處.

夏四月庚辰朔, 在百濟日本王人, 方欲還之[百濟本記云, 四月一日庚辰, 日本阿比多還也.]. 百濟王聖明, 謂王人曰, 任那之事, 奉勅堅守. 延那斯·麻都之事, 問與不問, 唯從勅之. 因獻高麗奴六口. 別贈王人奴一口[皆攻爾林, 所禽奴也.].

乙未, 百濟遣中部奈率皮久斤·下部施德灼干那等, 獻狛虜十口.

十二年 春三月, 以麥種一千斛, 賜百濟王.

---

39 소학관본에는 '朕'이 생략되어 있다.

是歲, 百濟聖明王, 親率衆及二國兵[二國謂新羅·任那也.], 往伐高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也, 遂[40]復故地.

十三年 夏四月. 箭田珠勝大兄薨.

五月戊辰朔乙亥, 百濟·加羅·安羅, 遣中部德率木刕今敦·河內部阿斯比多等奏曰, 高麗與新羅, 通和幷勢, 謀滅臣國與任那. 故謹求請救兵, 先攻不意. 軍之多少, 隨天皇勅. 詔曰, 今百濟王·安羅王·加羅王, 與日本府臣等, 俱遣使奏狀聞訖. 亦宜共任那, 幷心一力. 猶尙若玆, 必蒙上天擁護之福, 亦賴可畏天皇之靈也.

冬十月, 百濟聖明王[更名聖王.], 遣西部姬氏達率怒唎斯致契等, 獻釋迦佛金銅像一軀·幡蓋若干·經論若干卷. 別表, 讚流通禮拜功德云, 是法於諸法中, 最爲殊勝. 難解難入. 周公·孔子, 尙不能知. 此法能生無量無邊福德果報, 乃至成辨無上菩提. 譬如人懷隨意寶, 逐所須用, 盡依情, 此妙法寶亦復然. 祈願依情, 無所乏. 且夫遠自天竺, 爰洎三韓, 依教奉持, 無不尊敬. 由是, 百濟王臣明, 謹遣陪臣怒唎斯致契, 奉傳帝國, 流通畿內. 果佛所記我法東流. 是日, 天皇聞已, 歡喜踊躍, 詔使者云, 朕從昔來, 未曾得聞如是微妙之法. 然朕不自決. 乃歷問群臣曰, 西蕃獻佛相貌端嚴. 全未曾有. 可禮以不. 蘇我大臣稻目宿禰奏曰, 西蕃諸國, 一皆禮之. 豐秋日本, 豈獨背也. 物部大連尾輿·中臣連鎌子, 同奏曰, 我國家之, 王天下者, 恆[41]以天地社稷百八十神, 春夏秋冬, 祭拜爲事. 方今改拜蕃神, 恐致國神之怒. 天皇曰, 宜付情願人稻目宿禰, 試令禮拜. 大臣跪受而忻悅. 安置小墾田家. 懃修出世業爲因. 淨捨向原家爲寺. 於後, 國行疫氣, 民致夭殘. 久而愈多. 不能治療. 物部大連尾輿·中臣連鎌子, 同奏曰, 昔日不須臣

---

40 소학관본에는 '遂'가 생략되어 있다.

41 소학관본에서는 '恒'이라고 적고 있다.

計, 致斯病死. 今不遠而復, 必當有慶. 宜早投棄, 懃求後福. 天皇曰, 依奏. 有司乃以佛像, 流棄難波堀江. 復縱火於伽藍. 燒燼更無餘. 於是, 天無風雲, 忽災大殿.

是歲, 百濟棄漢城與平壤. 新羅因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方·尼彌方也[地名, 未詳.].

十四年 春正月甲子朔乙亥, 百濟遣上部德率科野次酒·杆率禮塞敦等, 乞軍兵.

戊寅, 百濟使人中部杆率木劦今敦·河內部阿斯比多等罷歸.

夏五月戊辰朔, 河內國言, 泉郡茅渟海中, 有梵音. 震響若雷聲. 光彩晃曜如日色. 天皇心異之, 遣溝邊直[此但曰直, 不書名字, 蓋是傳寫誤失矣.], 入海求訪. 是時, 溝邊直入海, 果見樟木, 浮海玲瓏. 遂取而獻天皇. 命畫工, 造佛像二軀. 今吉野寺放光樟像也.

六月. 遣內臣[闕名.], 使於百濟. 仍賜良馬二匹·同船二隻·弓五十張·箭五十具. 勅云, 所請軍者, 隨王所須. 別勅, 醫博士·易博士·曆博士等, 宜依番上下. 今上件色人, 正當相代年月. 宜付還使相代. 又卜書·曆本·種種藥物, 可付送.

秋七月辛酉朔甲子, 幸樟勾宮. 蘇我大臣稻目宿禰, 奉勅遣王辰爾, 數錄船賦. 卽以王辰爾爲船長. 因賜姓爲船史. 今船連之先也.

八月辛卯朔丁酉, 百濟遣上部奈率科野新羅·下部固德汶休帶山等, 上表曰, 去年臣等同議, 遣內臣德率次酒·任那大夫等, 奏海表諸彌移居之事. 伏待恩詔, 如春草之仰甘雨也. 今年忽聞, 新羅與狛國通謀云, 百濟與任那, 頻詣日本. 意謂是乞軍兵, 伐我國歟. 事若實者, 國之敗亡, 可企踵而待. 庶先日本軍兵, 未發之間, 伐取安羅, 絶日本路. 其謀若是. 臣等聞玆, 深懷危懼. 卽遣疾使輕舟, 馳表以聞. 伏願, 天慈速遣前軍後軍, 相續來救. 逮于秋節, 以固海表彌移居也. 若遲晩者, 噬臍無及矣. 所遣軍衆, 來到臣國, 衣粮之費, 臣當充給. 來到任那, 亦

復如是. 若不堪給, 臣必助充, 令無乏少. 別的臣敬受天勅, 來撫臣蕃. 夙夜乾乾, 勤修庶務. 由是, 海表諸蕃, 皆稱其善. 謂當萬歲, 肅淸海表. 不幸云亡. 深用追痛. 今任那之事, 誰可修治. 伏願, 天慈速遣其代, 以鎭任那. 又復海表諸國, 甚乏弓馬. 自古迄今, 受之天皇, 以禦强敵. 伏願, 天慈多賜弓馬.

冬十月庚寅朔己酉, 百濟王子餘昌[明王子, 威德王也.], 悉發國中兵, 向高麗國, 築百合野塞, 眠食軍士. 是夕觀覽, 鉅野墳腴, 平原瀰迤, 人跡罕見, 犬聲蔑聞. 俄而儵忽之際, 聞鼓吹之聲. 餘昌乃大驚, 打鼓相應. 通夜固守. 凌晨起見曠野之中, 覆如靑山, 旌旗充滿. 會明有着頸鎧者一騎, 揷鐃者[鐃字未詳.] 二騎, 珥豹尾者二騎, 幷五騎, 連轡到來問曰, 少兒等言, 於吾野中, 客人有在. 何得不迎禮也. 今欲, 早知與吾可以禮問答者姓名年位. 餘昌對曰, 姓是同姓, 位是杆率, 年廿九矣. 百濟反問. 亦如前法, 而對答焉. 遂乃立標而合戰. 於是, 百濟以鉾刺墮高麗勇士於馬斬首. 仍刺擧頭於鉾末, 還入示衆. 高麗軍將, 憤怒益甚. 是時, 百濟歡呼[42]之聲, 可裂天地. 復其偏將, 打鼓疾鬪, 追却高麗王於東聖山之上.

十五年 春正月戊子朔甲午, 立皇子渟中倉太珠敷尊, 爲皇太子.

丙申, 百濟遣中部木刕施德文次·前部施德曰佐分屋等於筑紫, 諮內臣·佐伯連等曰, 德率次酒·杆率塞敦等, 以去年閏月四日到來云, 臣等[臣等者謂內臣也.], 以來年正月到. 如此遣而未審. 來不也. 又軍數幾何. 願聞若干, 預治營壁. 別諮, 方聞, 奉可畏天皇之詔, 來詣筑紫, 看送賜軍. 聞之歡喜, 無能比者. 此年之役, 甚危於前. 願遣賜軍, 使逮正月. 於是, 內臣奉勅而答報曰, 卽令遣助軍數一千·馬一百匹·船卌隻.

二月, 百濟遣下部杆率將軍三貴·上部奈率物部烏等, 乞救兵. 仍貢德率東城子莫古, 代前番奈率東城子言. 五經博士王柳貴, 代固德馬丁安. 僧曇慧等九人,

---

42 소학관본에서는 '叫'라고 적고 있다.

代僧道深等七人. 別奉勅, 貢易博士施德王道良·曆博士固德王保孫·醫博士奈率王有悛陀·採藥師施德潘量豐·固德丁有陀·樂人施德三斤·季德己麻次·季德進奴·對德進陀. 皆依請代之.

三月丁亥朔, 百濟使人中部木刕施德文次等罷歸.

夏五月丙戌朔戊子, 內臣率舟師, 詣于百濟.

冬十二月, 百濟遣下部杆率汶斯干奴, 上表曰, 百濟王臣明, 及在安羅諸倭臣等, 任那諸國旱岐等奏, 以斯羅無道, 不畏天皇, 與狛同心, 欲殘滅海北彌移居. 臣等共議, 遣有至臣等, 仰乞軍士, 征伐斯羅. 而天皇遣有至臣, 帥軍以六月至來. 臣等深用歡喜. 以十二月九日, 遣攻斯羅. 臣先遣東方領物部莫奇武連, 領其方軍士, 攻函山城. 有至臣所將來民竹斯[43]物部莫奇委沙奇, 能射火箭. 蒙天皇威靈, 以月九日酉時, 焚城拔之. 故遣單使馳船奏聞. 別奏, 若但斯羅者, 有至臣所將軍士亦可足矣. 今狛與斯羅, 同心戮力. 難可成功. 伏願, 速遣竹斯嶋上諸軍士, 來助臣國. 又助任那, 則事可成. 又奏, 臣別遣軍士萬人, 助任那. 幷以奏聞. 今事方急. 單船遣奏. 但奉好錦二匹·韃靼一領·斧三百口, 及所獲城民, 男二女五. 輕薄追用悚懼. 餘昌謀伐新羅. 耆老諫曰, 天未與. 懼禍及. 餘昌曰, 老矣, 何怯也. 我事大國, 有何懼也. 遂入新羅國, 築久陀牟羅塞. 其父明王憂慮, 餘昌長苦行陣, 久廢眠食. 父慈多闕, 子孝希成. 乃自往迎慰勞. 新羅聞明王親來, 悉發國中兵, 斷道擊破. 是時, 新羅謂佐知村飼馬奴苦都[更名谷智.] 曰, 苦都賤奴也. 明王名主也. 今使賤奴殺名主. 冀傳後世, 莫忘於口. 已而苦都, 乃獲明王, 再拜曰, 請斬王首. 明王對曰, 王頭不合受奴手. 苦都曰, 我國法, 違背所盟, 雖曰國王, 當受奴手[一本云, 明王乘跼胡床, 解授佩刀於谷知令斬.]. 明王仰天, 大息涕泣. 許諾曰, 寡人每念, 常痛入骨髓. 顧計不可苟活, 乃延首受斬. 苦都斬首而殺. 掘坎而埋[一本云, 新羅留[44]理明王頭骨, 而以禮送餘骨於百濟. 今新羅王埋明王骨

43 소학관본에서는 '筑紫'라고 적고 있다.

於北廳階下. 名此廳曰都堂.]. 餘昌遂見圍繞, 欲出不得. 士卒遑駭, 不知所圖. 有能射人, 筑紫國造. 進而彎弓, 占擬射落新羅騎卒最勇壯者. 發箭之利, 通所乘鞍前後橋, 及其被甲領會也. 復續發箭如雨, 彌厲不懈. 射却圍軍. 由是, 餘昌及諸將等, 得從間道逃歸. 餘昌讚國造射却圍軍, 尊而名曰鞍橋君[鞍橋, 此云矩羅膩.]. 於是, 新羅將等, 具知百濟疲盡, 遂欲謀滅無餘. 有一將云, 不可. 日本天皇, 以任那事, 屢責吾國. 況復謀滅百濟官家, 必招後患. 故止之.

十六年 春二月. 百濟王子餘昌, 遣王子惠[王子惠者, 威德王之弟也.] 奏曰, 聖明王爲賊見殺[十五年, 爲新羅所殺. 故今奏之.]. 天皇聞而傷恨. 迺遣使者, 迎津慰問. 於是, 許勢臣問王子惠曰, 爲當欲留此間. 爲當欲向本鄉. 惠答曰, 依憑天皇之德, 冀報考王之讎. 若垂哀憐, 多賜兵革, 雪垢復讎, 臣之願也. 臣之去留, 敢不唯命是從. 俄而蘇我臣問訊曰, 聖王妙達天道地理, 名流四表八方. 意謂, 永保安寧, 統領海西蕃國, 千年萬歲, 奉事天皇. 豈圖, 一旦眇然昇遐, 與水無歸, 卽安玄室. 何痛之酷. 何悲之哀. 凡在含情, 誰不傷悼. 當復何咎致玆禍也. 今復何術用鎭國家. 惠報答之曰, 臣稟性愚蒙, 不知大計. 何況禍福所倚, 國家存亡者乎. 蘇我卿曰, 昔在, 天皇大泊瀨之世, 汝國爲高麗所逼, 危甚累卵. 於是, 天皇命神祇伯, 敬受策於神祇. 祝者迺託神語報曰, 屈請建邦之神, 往救將亡之主, 必當國家謐靖, 人物乂安. 由是, 請神往救. 所以社稷安寧. 原夫建邦神者, 天地割判之代, 草木言語之時, 自天降來, 造立國家之神也. 頃聞, 汝國輟而不祀. 方今悛悔前過, 修理神宮, 奉祭神靈, 國可昌盛. 汝當莫忘.

秋七月己卯朔壬午, 遣蘇我大臣稻目宿禰·穗積磐弓臣等, 使于吉備五郡, 置白猪屯倉.

八月, 百濟餘昌, 謂諸臣等曰, 少子今願, 奉爲考王, 出家修道. 諸臣百姓報

---

44 소학관본에서는 '葬'이라고 적고 있다.

言, 今君王欲得出家修道者, 且奉敎也. 嗟夫前慮不定, 後有大患, 誰之過歟. 夫百濟國者, 高麗·新羅之所爭欲滅. 自始開國, 迄于是歲. 今此國宗, 將授何國. 要須道理分明應敎. 縱使能用耆老之言, 豈至於此. 請悛前過, 無勞出俗. 如欲果願, 須度國民. 餘昌對曰, 諾, 卽就圖於臣下. 臣下遂用相議, 爲度百人, 多造幡蓋, 種種功德, 云云.

十七年 春正月. 百濟王子惠請罷. 仍賜兵仗良馬甚多. 亦頻賞祿. 衆所欽歎. 於是, 遣阿倍臣·佐伯連·播磨直, 率筑紫國舟師, 衛送達國. 別遣筑紫火君[百濟本記云, 筑紫君兒, 火中君弟.], 率勇士一千, 衛送彌弓[彌弓津名.]. 因令守津路要害之地焉.

秋七月甲戌朔己卯, 遣蘇我大臣稻目宿禰等於備前兒嶋郡置屯倉. 以葛城山田直瑞子爲田令[田令, 此云陀豆歌毘.].

冬十月, 遣蘇我大臣稻目宿禰等於倭國高市郡, 置韓人大身狹屯倉. [言韓人者百濟也.] 高麗人小身狹屯倉. 紀國置海部屯倉[一本云. 以處處韓人, 爲大身狹屯倉田部. 高麗人爲小身狹屯倉田部. 是即以韓人·高麗人爲田部. 故因爲屯倉之號也.].

十八年 春三月庚子朔, 百濟王子餘昌嗣立. 是爲威德王.

廿一年 秋九月. 新羅遣彌至己知奈末獻調賦. 饗賜遇常. 奈末喜歡而罷曰, 調賦使者, 國家之所貴重, 而私議之所輕賤. 行李者百姓之所懸命, 而選用之所卑下. 王政之弊, 未必不由此也. 請差良家子爲使者. 不可以卑賤爲使.

廿二年. 新羅遣久禮叱及伐干貢調賦. 司賓饗遇禮數減常. 及伐干忿恨而罷.

是歲, 復遣奴氐大舍, 獻前調賦. 於難波大郡, 次序諸蕃, 掌客額田部連·葛城直等, 使列于百濟之下而引導. 大舍怒還. 不入館舍, 乘船歸至穴門. 於是, 修

治穴門館. 大舍問曰, 爲誰客造. 工匠河內馬飼首押勝欺紿曰, 遣問西方無禮使者之所停宿處也. 大舍還國, 告其所言. 故新羅築城於阿羅波斯山, 以備日本.

廿三年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廿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安羅國·斯二岐國·多羅國·卒麻國·古嵯國·子他國·散半下國·乞飡國·稔禮國, 合十國.].

夏六月. 詔曰, 新羅西羌小醜. 逆天無狀. 違我恩義, 破我官家. 毒害我黎民, 誅殘我郡縣. 我氣長足姬尊, 靈聖聰明, 周行天下. 劬勞群庶, 饗育萬民. 哀新羅所窮見歸, 全新羅王將戮之首, 授新羅要害之地, 崇新羅非次之榮. 我氣長足姬尊, 於新羅何薄. 我百姓, 於新羅何怨. 而新羅, 長戟强弩, 凌蹙任那, 鉅牙鉤爪, 殘虐含靈. 刳肝斬趾, 不厭其快. 曝骨焚屍, 不謂其酷. 任那族姓, 百姓以還, 窮刀極俎, 旣屠且膾. 豈有率土之賓, 謂爲王臣, 乍食人之禾, 飮人之水, 孰忍聞此, 而不悼心. 況乎太子大臣, 處趺萼之親, 泣血銜怨之[45]寄. 當蕃屛之任, 摩頂至踵之恩. 世受前朝之德, 身當後代之位. 而不能瀝膽[46]抽腸, 共誅奸逆, 雪天地之痛酷, 報君父之仇讎, 則死有恨臣子之道不成.

是月, 或有譖馬飼首歌依曰, 歌依之妻逢臣讃岐, 鞍韉有異. 熟而熟視, 皇后御鞍也. 即收付廷尉, 鞫問極切. 馬飼首歌依, 乃揚言誓曰, 虛也. 非實. 若是實者, 必被天災. 遂因苦問, 伏地而死. 死未經時, 急災於殿. 廷尉收縛其子守石與名瀨氷[守石·名瀨氷, 皆名也.], 將投火中[投火爲刑, 蓋古之制也.], 呪曰, 非吾手投. 以祝手投. 呪訖欲投火. 守石之母, 祈請曰, 投兒火裏, 天災果臻. 請付祝人, 使作神奴. 乃依母請, 許沒神奴.

秋七月己巳朔, 新羅遣使獻調賦. 其使人知新羅滅任那, 恥背國恩, 不敢請罷. 遂留不歸本土. 例同國家百姓. 今河內國更荒郡鸛鵠野邑新羅人之先也.

---

45 소학관본에는 '怨之'가 '冤'이다.

46 소학관본에서는 '胆'이라고 적고 있다.

是月, 遣大將軍紀男麻呂宿禰, 將兵出哆唎. 副將河邊臣瓊缶, 出居曾山. 而欲問新羅攻任那之狀. 遂到任那, 以薦集部首登弭, 遣於百濟, 約束軍計. 登弭仍宿妻家. 落印書弓箭於路. 新羅具知軍計. 卒起大兵, 尋屬敗亡. 乞降歸附. 紀男麻呂宿禰, 取勝旋師, 入百濟營. 令軍中曰, 夫勝不忘敗, 安必慮危, 古之善敎也. 今處疆畔, 豺狼交接. 而可輕忽, 不思變難哉. 況復平安之世, 刀劒不離於身. 蓋君子之武備, 不可以已. 宜深警戒, 務崇斯令. 士卒皆委心而服事焉. 河邊臣瓊缶, 獨進轉鬪. 所向皆拔. 新羅更擧白旗, 投兵降首. 河邊臣瓊缶, 元不曉兵, 對擧白旗, 空爾獨進. 新羅鬪將曰, 將軍河邊臣, 今欲降矣. 乃進軍逆戰. 盡銳遄攻破之. 前鋒所破[47]甚衆. 倭國造手彦, 自知難救, 棄軍遁逃. 新羅鬪將, 手持鉤戟, 追至城洫, 運戟擊之. 手彦因騎駿馬, 超渡城洫, 僅以身免. 鬪將臨城洫而歎曰, 久須尼自利[此新羅語, 未詳也.]. 於是, 河邊臣, 遂引兵退, 急營於野. 於是, 士卒盡相欺蔑, 莫有遵承. 鬪將自就營中, 悉生虜河邊臣瓊缶等, 及其隨婦. 于時, 父子夫婦, 不能相恤. 鬪將問河邊臣曰, 汝命與婦, 孰與尤愛. 答曰, 何愛一女, 以取禍乎. 如何不過命也. 遂許爲妾. 鬪將遂於露地, 奸其婦女. 婦女後還. 河邊臣欲就談之. 婦人甚以慙[48]恨, 而不隨曰, 昔君輕賣妾身. 今何面目以相遇. 遂不肯言. 是婦人者, 坂本臣女, 曰甘美媛. 同時所虜, 調吉士伊企儺, 爲人勇烈, 終不降服. 新羅鬪將, 拔刀欲斬. 逼而脫褌, 追令以尻臀向日本, 大號叫[叫咷也.] 曰, 日本將, 噉我膵脽. 卽號叫曰, 新羅王, 啗我膵脽. 雖被苦逼, 尙如前叫. 由是見殺. 其子舅子, 亦抱其父而死. 伊企儺, 辭旨難奪, 皆如此. 由此, 特爲諸將帥所痛惜. 其妻大葉子, 亦並見禽. 愴然而歌曰, 柯羅俱爾能, 基能陪儞陀致底, 於譜磨故幡, 比例甫囉須母, 耶魔等陛武岐底. 或有和曰, 柯羅俱爾能, 基能陪儞陀陀志, 於譜磨故幡, 比禮甫羅須彌喩, 那儞婆陛武岐底.

---

47 소학관본에서는 '傷'이라고 적고 있다.

48 소학관본에서는 '慚'이라고 적고 있다.

八月, 天皇遣大將軍大伴連狹手彦, 領兵數萬, 伐于高麗. 狹手彦乃用百濟計, 打破高麗. 其王踰墻而逃. 狹手彦遂乘勝以入宮, 盡得珍寶貨賂·七織帳·鐵屋還來[舊本云, 鐵屋在高麗西高樓上. 織帳張於高麗王內寢.]. 以七織帳, 奉獻於天皇. 以甲二領·金飾刀二口·銅鏤鍾三口·五色幡二竿·美女媛[媛名也.] 幷其從女吾田子, 送於蘇我稻目宿禰大臣. 於是, 大臣遂納二女, 以爲妻, 居輕曲殿[鐵屋在長安寺. 是寺, 不知在何國. 一本云, 十一年, 大伴狹手彦連, 共百濟國, 驅却高麗王陽香於比津留都.].

冬十一月, 新羅遣使獻, 幷貢調賦. 使人悉知國家, 憤新羅滅任那, 不敢請罷. 恐致刑戮, 不歸本土. 例同百姓. 今攝津國三島郡埴廬新羅人之先祖也.

廿六年 夏五月, 高麗人頭霧唎耶陛等投化於筑紫, 置山背國. 今畝原·奈羅·山村高麗人之先祖也.

廿八年. 郡國大水飢. 或人相食. 轉傍郡穀以相救.

卅年 春正月辛卯朔, 詔曰, 量置田部, 其來尚矣. 年甫十餘, 脫籍免課者衆. 宜遣膽[49]津[膽[50]津者, 王辰爾之甥也.], 檢定白猪田部丁籍.

夏四月. 膽[51]津檢閱白猪田部丁者, 依詔定籍. 果成田戶. 天皇嘉膽[52]津定籍之功, 賜姓爲白猪史. 尋拜田令, 爲瑞子之副[瑞子見上.].

卅一年 春三月甲申朔, 蘇我大臣稻目宿禰薨.

---

49 소학관본에서는 '胆'이라고 적고 있다.
50 소학관본에서는 '胆'이라고 적고 있다.
51 소학관본에서는 '胆'이라고 적고 있다.
52 소학관본에서는 '胆'이라고 적고 있다.

夏四月甲申朔乙酉, 幸泊瀨柴籬宮. 越人江淳臣裙代, 詣京奏曰, 高麗使人, 辛苦風浪, 迷失浦津. 任水漂流, 忽到着岸. 郡司隱匿. 故臣顯奏. 詔曰, 朕承帝業, 若干年. 高麗迷路, 始到越岸. 雖苦漂溺, 尙全性命. 豈非徽猷廣被, 至德巍巍, 仁化傍通, 洪恩蕩蕩者哉. 有司, 宜於山背國相樂郡, 起館淨治, 厚相資養.

是月, 乘輿至自泊瀨柴籬宮. 遣東漢氏直糠兒·葛城直難波, 迎召高麗使人.

五月. 遣膳臣傾子於越, 饗高麗使[傾子, 此云舸陀部古.]. 大使審知膳臣是皇華使. 乃謂道君曰, 汝非天皇, 果如我疑. 汝旣伏拜膳臣. 倍復足知百姓. 而前詐余, 取調入己. 宜速還之. 莫煩飾語. 膳臣聞之, 使人探索其調, 具爲與之. 還京復命.

秋七月壬子朔, 高麗使到于近江.

是月, 遣許勢臣猿與吉士赤鳩, 發自難波津, 控引船於狹狹波山, 而裝飾船, 乃往迎於近江北山. 遂引入山背高槻館, 則遣東漢坂上直子麻呂·錦部首大石, 以爲守護. 更饗高麗使者於相樂館.

卅二年 春三月戊申朔壬子, 遣坂田耳子郎君, 使於新羅, 問任那滅由.

是月. 高麗獻物幷表, 未得呈奏. 經歷數旬, 占待良日.

夏四月戊寅朔壬辰, 天皇寢疾不豫. 皇太子向外不在. 驛馬召到, 引入臥內, 執其手詔曰, 朕疾甚. 以後事屬汝. 汝須打新羅, 封建任那. 更造夫婦, 惟如舊日, 死無恨之.

是月, 天皇遂崩于內寢. 時年若干.

五月, 殯于河內古市.

秋八月丙子朔, 新羅遣弔使未叱子失消等, 奉哀於殯.

是月, 未叱子失消等罷.

九月, 葬于檜隈坂合陵.

日本書紀卷第十九

일본서기 권 제20

日本書紀 卷第廿

제30대 **정중창태주부천황**(淳中倉太珠敷天皇) **민달천황**(敏達天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서기 권 제20

정중창태주부천황(淳中倉太珠敷天皇 ; 누나쿠라노후토타마시키노스메라미코토) **민달천황**(敏達天皇 ; 비다쓰텐노)

정중창태주부(淳中倉太珠敷 ; 누나쿠라노후토타마시키)[1]천황은 천국배개광정천황(天國排開廣庭天皇 ; 아메쿠니오시하라키히로니하노스메라미코토)[2]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석희황후(石姬皇后 ; 이시히메노키사키)이다[석희황후는 무소광국압순천황(武小廣國押盾天皇 ; 타케워히로쿠니오시타테노스메라미코토)[3]의 딸이다.]. 천황은 불법(佛法)을 믿지 않고, 문사(文史)[4]를 사랑하였다. 29년에 황태자가 되었다.

32년 4월에 천국배개광정천황이 붕어하였다(崩).

---

1 제30대 천황(재위 : 572~585)이다. 민달천황의 일본식 시호는 淳中倉太珠敷尊 및 沼名倉太珠敷命(『古事記』)이다. 欽明의 유언에 따라 任那 부흥에 힘썼고, 한편으로 불교를 탄압하였다고 한다. 백제와 임나 부흥을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진전이 없었고, 그 대신 신라와 통교하여 任那의 조를 받았다고 전한다. 物部氏·中臣氏와 더불어 배불론의 입장에서 蘇我馬子와 대립하였다. 蘇我馬子가 절을 세우고 부처를 섬겼는데 역병이 돌자, 불상과 절을 불태웠다.

2 欽明天皇이다.

3 宣化天皇이다.

4 文章과 歷史를 뜻한다. 『文選』처럼 좋은 문장을 모은 책이나 『史記』·『漢書』와 같은 史書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원년 여름 4월 임신삭 갑술(3일)에 황태자가 천황에 즉위하였다. 황후를 높여 황태후로 삼았다[5].

이 달에 백제대정(百濟大井 ; 쿠다라노오호위)[6]에 궁(宮)을 조영하였다. 물부궁삭수옥대련(物部弓削守屋大連 ; 모노노베노유게노모리야노오호무라지)[7]을 대련(大連)으로 삼은 것이 전과 같았다. 소아마자숙녜(蘇我馬子宿禰 ; 소가노우마코노스쿠네)[8]를 대신(大臣)으로 삼았다.

5월 임인삭(1일)에 천황이 황자와 대신에게 "고구려의 사인(使人)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대신이 "상락관(相樂館)[9]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

---

5 石姬皇后를 皇太后라고 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皇后·皇太后 등의 한자 표기는 후대의 용어이며, 일본어로는 '키사키'·'오오키사키'라고 하였다.

6 『河內志』와 『日本書紀通證』에서는 『和名類聚抄』에 보이는 河內國 錦部郡 百濟鄕, 현재 大阪府 河內長野市 太井으로 추정하였으나, 지명사전 등에서는 大和國 廣瀨郡 百濟(奈良縣 北葛城郡 廣陵町 百濟)로 추정하고 있다. 그밖에도 奈良縣 橿原市 香久山 서북쪽으로 추정하는 설 등이 있다. 그런데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가 吉備池 바닥에서 고대사원 유적을 발굴하였고, 이를 百濟大寺 유적으로 판단하였다. 百濟大寺는 舒明天皇이 639년에 百濟宮과 더불어 百濟川 가에 건립한 사원이므로 이 지역도 과거에 百濟라고 불렸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百濟大井宮도 吉備池 주변일 가능성이 있다. 百濟大井宮은 敏達의 첫 황후였던 廣姬와 관련이 있고, 舒明은 敏達과 廣姬의 아들인 押坂彦人大兄의 아들, 즉 敏達의 손자에 해당하므로 舒明이 敏達의 百濟大井宮을 상속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7 ?~587년. 이 기사에서는 전과 같이 大連으로 삼았다고 하였으나(572), 欽明紀에는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전과 같다고 한 것은 그의 아버지인 物部尾輿가 欽明代의 大連이었으므로 그 관행을 따랐다는 의미일 수 있다. 大臣인 蘇我馬子와 권세를 다투었으며, 불교 수용문제로 갈등을 거듭하였다. 결국 穴穗部皇子와 함께 蘇我馬子에 의하여 주살되었고, 物部氏 본종은 소멸되었다. 이름 속의 弓削은 어머니 阿佐姬가 弓削倭古의 딸이었던 것으로 보아 母系 쪽의 씨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先代舊事本紀』 卷5 天孫本紀).

8 551?~626년. 蘇我稻目의 아들이며, 후예로 蘇我蝦夷(아들)·蘇我入鹿(손자)이 있다. 敏達부터 崇峻·用明·推古 4대에 걸쳐 大臣의 지위에 있으면서 蘇我氏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불교 수용문제를 두고 物部氏·中臣氏와 대립하였으나, 物部氏를 타도하고 왕실의 외척으로서 蘇我氏의 지위를 굳혔다.

였다. 천황이 그것을 듣고 심히 마음이 아프고 가엽게 여겨, 근심스럽게 "애처롭구나. 그 사인들의 이름은 이미 돌아가신 천황[10]에게 아뢰었다."라고 한탄하였다. 이에 군신(群臣)을 상락관에 보내어 바친 조물(調物)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왕경[11]에 보내도록 하였다.

병진(15일)에 천황이 고구려의 표소(表疏)[12]를 대신(大臣)에게 주었다. 그리고 여러 사(史 ; 후비토)[13]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해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史)들은 3일이 지나도 아무도 읽어내지 못하였다[14]. 그런데 선사(船史)의 시조인 왕진이(王辰爾)[15]만이 능히 읽어내어 바쳤다[16]. 이로 인하여 천황과 대신이 모두 "수고하였다. 진이(辰爾)여. 훌륭하구나. 진이여. 네가 만약 학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누가 능히 읽어낼 수 있었겠느냐. 마땅히 지금부터는 궁

---

9 山城國 相樂郡에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서 세운 건물을 말한다. 『日本書紀』 欽明天皇 31년 4월조 참조.

10 원문은 先考天皇이다. 先考는 돌아가신 아버지라는 뜻이며, 여기서는 欽明天皇이다.

11 원문은 京師이다.

12 고구려에서 보낸 國書를 가리킨다.

13 史를 '후비토'라고 하는데, '후미히토(文人)'가 축약된 말이다. 史는 한문의 해독 및 작성 능력을 가지고 官人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한반도 계통의 사람이며, 여러 대에 걸쳐 文翰과 관계된 직무를 세습하면서 史를 姓으로 갖는 경우도 있었다. 船史·白猪史·壹岐史 등이 그러한 예이다.

14 고구려에서 작성한 외교문서가 正格 한문이 아니고, 고구려의 어법에 따른 한문이었기 때문에 읽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한편으로는 국서를 까마귀 깃털에 썼다고 하는 기이한 내용은 기밀을 생명으로 하는 국서의 성격 때문에 전승과정에서 설화적으로 부회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5 王辰爾는 船首王後墓誌銘에 「船氏中祖王智仁首」라고 보인다. 王辰爾(王智仁)이라는 이름이 王仁(和邇)과 유사하므로, 왕진이를 모델로 왕인이라는 가상 인물을 만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6 이 전승은 왕진이의 후예인 船史의 家傳으로부터 채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사관들의 「不能讀」에 비해 왕진이에게는 「能奉讀釋」이라는 대비적 표현 등 과장과 윤색이 엿보인다. 이것은 왕진이의 후예씨족인 船史들의 그들의 선조를 미화한 내용으로 생각된다.

궐 안에서 가까이 섬기라."고 칭찬하였다. 이윽고 동서(東西) 여러 사(史)[17]에게 "너희들이 학문을 제대로 익혔더라면 어찌하여 이루지 못하였겠느냐. 너희들이 비록 많다고 하나, 진이에게 미치지 못하는구나."라고 말하였다. 또한 고구려가 바친 표소는 까마귀 깃털에 쓴 것이었다. 깃털의 검은색 때문에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진이가 깃털을 밥의 증기로 찐 다음, 비단에 깃털을 눌러 글자를 모두 밝혀내었다. 조정(朝廷)에서 모두 그것을 기이하게 여겼다.

6월에 고구려의 대사(大使)가 부사(副使) 등에게 "기성도천황(磯城嶋天皇)[18] 시대에 너희들이 나와 의논한 바를 어기고 다른 곳에서 속임을 당하여, 망령되이 국조(國調)[19]를 나누어 쉽사리 지위가 낮은 자에게 주었다[20]. 어찌 너희들의 과오가 아니겠는가. 이를 만약 우리 국왕이 듣게 된다면, 반드시 너희들을 주살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부사들은 서로 "만약 우리가 나라에 돌아갔을 때 대사가 우리의 과오를 드러내 말한다면, 이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몰래 죽여 그 입을 막고자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 날 저녁에 모의한 것이 새어나갔다. 대사가 그것을 알고 복장을 갖추어 자기 혼자 몰래 빠져나가, 관(館)의 뜰 가운데[21]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도적 한 명이 몽둥이를 가지고 나와서, 대사의 머리를 치고 물러갔다. 뒤이어 도적 한 명이 곧 정면에서 대사의 머리와 손을 치고 물러갔다. 대사는 여전히 말없이 땅에 선 채로 얼굴의 피를 닦았다. 또다시 도적 한 명이 있어, 칼을 들고 급히 와서 대사의 배를

17 東은 大和, 西는 河內를 거점으로 하는 史, 즉 東漢氏와 西文氏를 말한다. 동한씨는 阿知使主(阿知王), 서문씨는 王仁을 시조로 한다.

18 欽明天皇이다.

19 고구려 사신들이 외교의례를 위하여 가지고 온 물품을 말한다.

20 越國의 郡司 道君이 天皇이라고 자처하면서 고구려의 물품을 빼앗은 사실을 말한다.

21 고구려 사신이 머물던 相樂館의 뜰이다.

찌르고 물러갔다. 이때 대사는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 그러나 다시 도적 한 명이 와서 완전히 죽이고 떠났다. 다음날 아침, 영객(領客)[22] 동한판상직자마려(東漢坂上直子麻呂 ; 야마토노아야노사카노우에노아타히코마로)[23] 등은 그 이유를 추문(推問)하였다. 이에 부사 등이 "천황이 대사에게 여자를 하사했는데, 대사는 칙명을 어기고 받지 않았습니다. 무례함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이에 신(臣)들이 천황을 위하여 죽였습니다."라고 속여 말하였다. 유사(有司)는 예로써 거두어 장사지냈다.

가을 7월에 고구려의 사인(使人)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 해의 간지는 임진이다.

2년 여름 5월 병인삭 무진(3일)에 고구려 사인이 월(越)의 해안[24]에 도착하였다. 배가 부서져서 익사하는 자가 많았다. 조정은 빈번히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의심하여 향연을 베풀지 않고 돌려보냈다[25]. 길비해부직난파(吉備海部直難波 ; 키비노아마노아타히나니하)[26]에게 명하여 고구려의 사신을 전송토록 하였다.

가을 7월 을축삭(1일)에 월의 해안에서 난파(難波)와 고구려의 사신들이 서

---

22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직책을 말한다. 『延喜式』 治部式에는 蕃客이 入朝하면 領客使 2인을 임명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23 『日本書紀』 欽明天皇 31년 7월조에 錦部首大石과 함께 고구려 사신을 지키는 守護의 역할을 맡았다. 領客이었던 그가 守護·推問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사신을 접대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신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4 현재 石川·福井縣 근처의 해안이다. 고구려 使人이 자주 越의 해안에 도착한 것은 한반도 북부와 滿洲를 영토로 하고 동해에도 세력을 가진 고구려의 지리상의 위치 때문이다. 고구려 이후에 흥기한 발해의 사신들도 주로 동해 연안의 각지에 도착하였다.

25 원문은 放還이다.

26 여기에서만 보인다. 吉備海部直은 吉備 지역의 海部, 즉 海人 집단을 관리하는 호족이며, 외교와 항해 분야 등에서 활약하였다. 『日本書紀』 雄略天皇 7년 是歲條의 吉備海部直赤尾, 동 12년 7월조의 吉備海部直羽島 등 同族의 이름이 보인다.

로 의논하여 송사(送使)인 난파의 배에 타고 있던 대도수반일(大嶋首磐日 ; 오호시마노오비토이하히)[27] · 협구수간협(狹丘首間狹 ; 사워카노오비토마세)[28]으로 하여금 고구려 사신의 배에 오르게 하고, 고구려의 두 사람은 송사의 배에 오르게 하였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배를 타게 해서 간교한 뜻[29]에 대비하였다. 함께 배를 띄워 몇 리 정도를 나아갔는데, 송사인 난파는 곧 파도가 두려워[30] 고구려인 두 사람을 잡아서 바다에 던졌다.

8월 갑오삭 정미(14일)에 송사인 난파가 돌아와서 복명하기를 "바닷속에 큰 고래가 있어 뱃길을 막고 노[31]를 물어서 부수었습니다. 난파 등은 물고기가 배를 삼킬까 두려워서 바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듣고 거짓말임을 알았다. 그래서 관(官)에서 부리고[32], 그 지역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33].

3년 여름 5월 경신삭 갑자(5일)에 고구려 사인(使人)이 월(越)의 해안에 도착하였다.

가을 7월 기미삭 무인(20일)에 고구려 사인이 왕경에 들어와서 "신들은 작년 송사(送使)를 따라서 우리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먼저 신의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나라는 곧 사인의 예에 의거해서 대도수반일(大嶋首磐日) 등에게 예로써 향연을 베풀었습니다. 고구려국의 왕은 별도로 후한 예

---

27 여기에서만 보인다. 大島首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28 여기에서만 보인다. 狹丘首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29 원문은 奸志이다.

30 吉備 지역은 세토 내해에서 주로 항해하였기 때문에 동해를 가로질러 고구려로 가는 외양 항해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31 원문은 檝櫂이다.

32 朝廷에서 잡역에 종사하는 인부로 만든 것이다.

33 吉備가 吉備海部直難波의 출신 지역인데, 돌려보내지 않은 것이다.

로써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송사의 배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삼가 사인과 아울러 반일(磐日) 등을 보내어 신의 나라의 사신들이 돌아오지 못한 까닭을 묻고자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천황이 듣고 곧 난파의 죄를 헤아려 "조정을 속인 것이 첫째이다. 이웃 사신을 빠트려 죽인 것이 둘째이다. 이 큰 죄를 지었으므로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그 죄를 처단하였다.

겨울 10월 무자삭 병신(9일)에 소아마자대신(蘇我馬子大臣 ; 소가노우마코노오호오미)을 길비국(吉備國)[34]에 보내어 백저둔창(白猪屯倉 ; 시라위노미야케)[35]과 전부(田部)[36]를 더욱 늘렸다[37]. 그리고 전부(田部)의 명적(名籍)을 백저사담진(白猪史膽津 ; 시라위노후비토이츠)[38]에게 주었다.

무술(11일)에 선사(船史) 왕진이(王辰爾)의 아우 우(牛 ; 우시)[39]에게 명하여 진사(津史 ; 츠노후비토)[40]라는 성을 내렸다.

11월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조(調)를 바쳤다.

---

34 현재 岡山縣과 廣島縣 동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율령제하에서는 備前·備中·美作·備後國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吉備 지역은 吉備王國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세력을 떨쳤으며, 九州와 畿內 지역의 교통을 잇는 세토 내해의 항해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雄略代부터 大和政權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아 쇠퇴하기 시작한다.

35 『日本書紀』 흠명천황 16년(555) 7월에 蘇我大臣稻目과 穗積臣磐弓을 보내어 吉備의 5군에 白猪屯倉을 설치하였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16년 7월조 참조.

36 大和政權이 직접 지배하는 屯倉의 토지를 경작하는 집단을 말한다.

37 欽明天皇 때 吉備 여러 지역에 屯倉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와서 다시 늘린 것이다.

38 船史 王辰爾의 조카로 흠명천황 30년(569) 4월에 白猪 田部들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였고, 그 공로로 白猪史라는 성을 받았다.

39 『續日本紀』 延曆 9년(790) 7월조의 津連眞道 등의 상표문에 의하면 牛는 午正君의 막내아들로, 麻呂로 보인다.

40 나루의 세금을 관리하는 일을 職掌으로 하는 집단이다. 이때 津은 難波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天平寶字 2년(758)에 連으로 改姓되었다.

4년 봄 정월 병진삭 갑자(9일)에 식장진수왕(息長眞手王 ; 오키나가노마테노오호키미)[41]의 딸 광희(廣姬 ; 히로히메)를 세워서 황후로 삼았다. (황후는) 한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낳았다. 그 첫째를 압반언인대형황자(押坂彦人大兄皇子 ; 오시사카노히코히토노오오호에노미코)[42]라고 하고[다른 이름은 마려고황자(麻呂古皇子 ; 마로코노미코)[43]이다.], 둘째를 역등황녀(逆登皇女 ; 사카노보리노히메미코)[44]라고 하며, 셋째를 토도기진패황녀(菟道磯津貝皇女 ; 우지노시츠카히노히메미코)[45]라고 한다.

이 달에 한 명의 부인을 세웠다. 춘일신중군(春日臣仲君 ; 카스가노오미나카츠키미)[46]의 딸로 노녀자부인(老女子夫人 ; 오미나고노오호토지)[47]이라고 한다[다른 이름은 약군낭(藥君娘 ; 쿠스리코노이라츠메)이다.]. 세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았다. 그 첫째를 난파황자(難波皇子 ; 나니하노미코)[48]라 하고, 둘째를 춘일황자(春日皇子 ; 카스가노미코)[49]라고 하고, 셋째를 상전황녀(桑田皇女 ; 쿠하타노히메미코)라고 하고, 넷째를 대파황자(大派皇子 ; 오호마타노미코)[50]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채

---

41 계체천황의 后妃 중에 息長眞手王의 딸 麻績娘子가 보인다. 『日本書紀』 계체천황 원년 3월조 참조.

42 『日本書紀』 用明天皇 2년(587) 4월조에는 太子彦人皇子로 되어 있으며, 舒明天皇의 아버지이자 皇極天皇의 할아버지이다.

43 椀子皇子라고도 하였다. 마로코는 貴人의 자제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다.

44 『古事記』 敏達天皇段에는 坂騰王으로 되어 있다.

45 『古事記』 敏達天皇段에는 宇遲王, 『日本書紀』 민달천황 7년(578) 3월조에서는 菟道皇女로 보인다.

46 『古事記』 敏達天皇段에는 春日中若子로 되어 있다.

47 『古事記』 敏達天皇段에는 老女子郎女로 되어 있다.

48 『古事記』 敏達天皇段에는 難波王으로 되어 있으며, 『日本書紀』 용명천황 2년(587) 7월조에 物部氏를 공격할 때 참가하였다.

49 『古事記』 敏達天皇段에는 春日王으로 되어 있으며, 『日本書紀』 용명천황 2년 7월조에 物部氏를 공격할 때 참가하였다.

50 『古事記』 敏達天皇段에는 大俣王으로 되어 있으며, 『日本書紀』 서명천황 8년(636) 7월조, 『日本書紀』 皇極天皇 원년(642) 12월조에도 이름이 보인다.

녀(采女)인 이세대록수소웅(伊勢大鹿首小熊 ; 이세노오호카노오비토워쿠마)[51]의 딸로, 토명자부인(菟名子夫人 ; 우나코노오호토지)이라고 한다. 태희황녀(太姬皇女 ; 후토히메노미코)[52][다른 이름은 앵정황녀(櫻井皇女 ; 사쿠라위노히메미코)이다.]와 강수희황녀(糠手姬皇女 ; 아라테히메노미코)[53][다른 이름은 전촌황녀(田村皇女 ; 타무라노히메미코)이다.]를 낳았다.

2월 임진삭(1일)에 마자숙녜대신(馬子宿禰大臣 ; 우마코노스쿠네노오호오미)이 왕경으로 돌아와 둔창(屯倉)의 일을 복명하였다.

을축[54]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조(調)를 바쳤다. 평년보다 많았다. 천황은 신라가 임나(任那)를 세우지 않으므로, 황자와 대신(大臣)에게 "임나의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여름 4월 을유삭 경인(6일)에 길사금자(吉士金子 ; 키시노카네)[55]를 신라에 사신으로 보내고, 길사목련자(吉士木蓮子 ; 키시노이타비)[56]를 임나(任那)에 사신으로 보내고, 길사역어언(吉士譯語彦 ; 키시노워사히코)[57]을 백제에 사신으로 보냈다.

6월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조(調)를 바쳤다. 평소의 예보다 많았다. 아울러 다다라(多多羅)·수나라(須奈羅)·화타(和陀)·발귀(發鬼) 네 읍(邑)[58]의 조(調)를

---

51 『延喜式』 神名式에 伊勢國 河曲郡 大鹿三宅神社가 보이므로, 大鹿은 采女의 출신 지명으로 생각된다.

52 『古事記』 敏達天皇段에는 布斗比賣命이라고 하였다.

53 『古事記』 敏達天皇段에는 寶王, 糠代比賣王, 田村王으로 되어 있다. 彦人大兄皇子의 비이며, 舒明天皇의 어머니이다. 島皇祖母命으로도 불렸으며, 천지천황 3년(664) 6월에 죽었다.

54 2월에는 을축에 해당하는 날이 없다. 3월 乙卯朔이 빠진 것으로 보면, 3월 11일이 된다.

55 여기에서만 보인다. 『日本書紀』 崇峻天皇 4년(591) 11월조에 보이는 吉士金과 이름이 비슷하다.

56 『日本書紀』 敏達天皇 13년(584) 2월 경자조에 難波吉士木蓮子, 崇峻天皇 4년 11월조에서는 吉士木蓮子로 보인다. 신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외교 분야에서 활약하였다.

57 여기에서만 보인다. 譯語는 통역이라는 뜻이다.

바쳤다[59].

이 해에 점치는 사람에게 명하여 해부왕(海部王 ; 아마노오호키미)[60]의 집터와 사정왕(絲井王 ; 이토위노오호키미)[61]의 집터를 점쳤다. 점친 결과가 좋았다[62]. 드디어 궁을 역어전(譯語田 ; 워사타)[63]에 지었다. 이를 행옥궁(幸玉宮 ; 사키타마노미야)[64]이라고 하였다.

겨울 11월에 황후 광희(廣姬)가 죽었다(薨).

5년 봄 3월 기묘삭 무자(10일)에 유사(有司)가 황후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풍어식취옥희존(豐御食炊屋姬尊 ; 토요미케카시키야히메노미코토)[65]을 세

---

58 『日本書紀』 繼體天皇 23년(530) 4월조에 보이는 多多羅, 須那羅, 和多, 費智 4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현재의 다대포·김해 등을 지칭하며, 특히 須那羅는 '쇠나라' 즉 후에 '金官'이라는 용어의 어원으로 생각된다.

59 신라가 금관국의 옛 영역인 4읍의 조, 이른바 '任那의 調'를 왜왕권에 바친 것에 대해 일본학계의 전통적인 학설에 따르면, 왜왕권의 가야(금관국)지배를 전제로 하여 신라가 이 지역을 병합하자 신라가 의무로서 왜왕권에 공납한 것으로 본다. 이후 가야지배설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신라가 백제와의 대한관계에서 왜왕권의 군사원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정책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日本書紀』에는 4읍(금관국)에 대한 강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 계체 23년 4월조에 '多多羅 등 4村이 약탈당한 것은 毛野臣의 잘못이다'라고 하여 이 지역이 왜왕권의 지배지였었던 듯이 표현하고 있다. 왜왕권의 사신이었던 近江毛野臣은 가야지역의 집정관으로도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왜왕권 측에서 금관국으로부터 철 자원을 얻는 등 선진문물의 수입처로서의 금관국에 대한 인식이 금관국을 멸망시킨 신라에 대한 적대감으로 전환되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60 여기에서만 보인다.

61 여기에서만 보인다.

62 원문은 襲吉이다. 襲은 '거듭'이라는 뜻이다.

63 他田宮, 乎娑陁宮, 乎沙多宮, 譯語田宮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64 櫻井市 太田과 櫻井市 戒重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戒重村은 종래에 他田庄이라고 불렸고, 戒重村의 小字 地名인 和佐田(와사다)이 明治 以前에는 他田(오사다)인 점을 볼 때 戒重이 유력하다. 이곳에 있는 春日神社 일대로 비정하기도 한다.

워 황후로 삼았다. 이에 두 명의 아들과 다섯 명의 딸을 낳았다. 첫째는 토도패소황녀(菟道貝鮹皇女 ; 우지노카히타코노히메미코)[다른 이름은 토도기진패황녀(菟道磯津貝皇女 ; 우지노시츠카히노히메미코)이다.]로 동궁(東宮)[66]인 성덕(聖德 ; 쇼오토쿠)에게 시집갔다. 둘째는 죽전황자(竹田皇子 ; 타케다노미코)이다. 셋째는 소간전황녀(小墾田皇女 ; 워와리다노히메미코)로 언인대형황자(彦人大兄皇子 ; 히코히토노오호에노미코)에게 시집갔다. 넷째는 노자수황녀(鸕鷀守皇女 ; 우모리노히메미코)[다른 이름은 경수황녀(輕守皇女 ; 카루노모리노히메미코).]이다. 다섯째는 미장황자(尾張皇子 ; 워하리노미코)이고, 여섯째는 전안황녀(田眼皇女 ; 타메노히메미코)로 식장족일광액천황(息長足日廣額天皇 ; 오키나가타라시히히로누카노스메라미코토)[67]에게 시집갔다. 일곱째는 앵정궁장황녀(櫻井弓張皇女 ; 사쿠라위노유미하리노히메미코)이다.

6년 봄 2월 갑진삭(1일)에 일사부(日祀部)[68]와 사부(私部)[69]를 두도록 명하였다.

여름 5월 계유삭 정축(5일)에 대별왕(大別王 ; 오호와케노오호키미)[70]과 소흑길사(小黑吉士 ; 워구로노키시)[71]를 보내어, 백제국(百濟國)의 사신[72]으로 삼았다[신

---

65 민달천황의 배다른 여동생이며, 어머니는 蘇我稻目의 딸 堅鹽媛이다. 후의 推古天皇으로 황후가 될 때 나이는 18세였다.

66 春宮이라고도 하며 太子, 즉 왕위 계승 후보자를 말한다.

67 舒明天皇이다.

68 왕실 조상들의 제사를 담당하는 品部로 생각된다. 日祀는 日奉造의 '日奉'과도 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69 后妃들을 위한 品部로 전국 각지에 설정되었다. 중국에서 私官은 황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사이므로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后妃마다 이를 받들기 위한 部를 따로 설정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총칭하는 용어가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70 『日本書紀』 敏達天皇 6년 11월에 백제로부터 불경·승려·기술자를 받아 귀국하였다.

71 여기에서만 보인다.

72 원문은 宰이다. 宰는 '미코토모치(御言持)' 즉 대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라는 설이 있고,

하[73]가 명을 받들어 삼한(三韓)[74]에 사신이 되면, 스스로 재(宰)라고 칭한다. 한(韓)의 재(宰)로 삼았다는 말은, 생각건대 옛날의 법도인 것 같다. 지금의 사신과 같다. 나머지는 모두 이를 따른다. 대별왕의 출신은 잘 알 수 없다.].

겨울 11월 경오삭(1일)에 백제국의 왕이 돌아가는 사신 대별왕 등에게 부쳐, 경론(經論) 몇 권[75]과 율사(律師)[76]·선사(禪師)[77]·비구니(比丘尼)·주금사(呪禁師)[78]·조불공(造佛工)·조사공(造寺工) 6인을 바쳤다. 마침내 난파(難波)의 대별왕의 절[79]에 안치하였다.

7년 봄 3월 무진삭 임신(5일)에 토도황녀(菟道皇女)로 하여금 이세신사[80]를 섬기게 하였는데, 곧 지변황자(池邊皇子 ; 이케베노미코)와 간음하였다. 일이 드러나자 그만두게 하였다.

통역하는 자라고 보는 설이 있다. 『日本書紀』 신공황후 섭정전기 12월조에도 「則留一人, 爲新羅宰.」라고 한 예가 보인다. 왜가 백제, 신라, 가야 등에 파견한 사신을 宰라고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3 원문은 王人이다.

74 『日本書紀』의 三韓이라는 용어는 고구려·백제·신라를 총칭한다. 『三國志』의 三韓이 馬韓·辰韓·弁韓을 지칭하는 데 대하여, 三國을 三韓이라고 한 것은 고구려, 백제 멸망 이후에 신라가 당과 항쟁하면서 망국의 유민들을 규합하던 때부터이다. 따라서 『日本書紀』의 용법은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75 『扶桑略記』에서는 敏達天皇 6년 丁酉에 百濟國이 經論 2백 권을 바쳤는데, 그 속에 法華經이 함께 전래되었다고 하였다.

76 계율에 정통한 승려로 생각된다. 天武 이후의 僧綱 속의 律師와는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77 참선에 정통한 승려로 생각된다.

78 불경 속의 주문을 외워 질병이나 재앙을 없애는 승려로 생각된다. 율령제하에서는 宮內省 典藥寮에 呪禁師 2인과 呪禁博士 1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79 원문은 大別王寺이다. 『扶桑略記』와 『日本靈異記』에도 大別王寺가 보인다. 현재 大阪市 天王寺區 堂ヶ芝에 있는 堂ヶ芝廢寺跡을 대별왕사터로 보는 견해가 있다.

80 원문은 伊勢祠이다. 후대의 伊勢齋宮의 전신으로 생각된다.

8년 겨울 10월에 신라가 지질정(枳叱政)[81] 나말(奈末)[82]을 보내어 조(調)를 바치고, 아울러 불상(佛像)을 보냈다.

9년 여름 6월에 신라가 안도(安刀)[83] 나말(奈末)과 실소(失消)[84] 나말(奈末)을 보내어 조(調)를 바쳤는데[85], 받지 않고 그것을 돌려 보냈다.

10년 봄 윤2월에 하이(蝦夷) 수천 명이 변경을 침범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 괴수(魁帥)인 능조(綾糟 ; 아야카스)[괴수(魁帥)는 대모인(大毛人[86])이다.] 등을 불러서 "생각건대 너희 하이(蝦夷)는 대족언천황(大足彦天皇 ; 오호타라시히코노스메라미코토)[87] 때에 죽여야 할 자는 죽이고, 용서해야 할 자는 풀어주었다. 지금 짐은 그 전례(前例)를 좇아 원악(元惡)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능조 등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박뢰(泊瀨 ; 하츠세)[88]의 중류에 내려가서 삼제악(三諸岳 ; 미모로노워카)[89]을 바라보며, 입에 물을 머금고 나서 "신(臣) 등의 하이(蝦夷)는 지금부터 이후로는 자자손손[고어(古語)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80번 거듭하는 것이라고 한다.] 맑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천자를 받들겠습니다. 신들이 만약

---

81 여기에서만 보인다.

82 신라의 17관등 중 11등으로 신라 대외 외교의 실무자의 관등으로 자주 보인다.

83 敏達天皇 11년 10월에 보인다.

84 민달천황 11년 10월에 보인다.

85 민달천황 11년(582) 10월조와 중복된 기사로 보인다.

86 蝦夷를 毛人으로도 표기하였다.

87 景行天皇이다. 景行紀에 日本武尊이 蝦夷를 정벌한 내용이 보인다.

88 奈良縣 北部를 흐르는 大和川의 上流에 대한 명칭이다. 笠置山地 南部에서 발원하여 三輪山 南麓을 서쪽으로 흘러 奈良盆地를 北西로 흐른 다음 佐保川에 합류하는 부분까지이다. 『古事記』와 『萬葉集』 등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89 奈良縣 櫻井市에 있는 三輪山의 다른 이름이다.

맹세를 어긴다면, 천지의 여러 신과 천황의 영혼이 신의 혈통을 끊으십시오."라고 맹세하였다.

11년 겨울 10월에 신라는 안도 나말과 실소 나말을 보내어 조(調)를 바쳤다.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12년 가을 7월 정유삭(1일)에 "우리 선고천황(先考天皇)[90]의 치세에 신라는 내관가(內官家)인 나라를 멸망시켰다[천국배개광정천황(天國排開廣庭天皇 ; 아메쿠니오시하라키히로니하노스메라미코토) 23년에 임나는 신라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그러므로 신라는 우리 내관가(內官家)를 멸망시켰다고 말한 것이다.]. 선고천황은 임나를 회복하고자 꾀하였다. 그러나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그 뜻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짐은 신령스러운 계책을 받들어서 다시 임나를 일으키고자 한다. 지금 백제에 있는 화위북국조(火葦北國造)[91] 아리사등(阿利斯登 ; 아리시토)[92]의 아들 달솔(達率) 일라(日羅 ; 니치라)[93]는 어질고 용맹하다. 그러므로 짐은 그와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말하였다. 곧 기국조압승(紀國造押勝 ; 키노쿠니노미야츠코오시카츠)[94]과 길비해부직우도(吉備海部直羽嶋 ; 키비노아마노아타히하시마)[95]를 보내어 백제에서

---

90 先王인 欽明天皇이다.

91 火는 肥國, 즉 九州의 중앙부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葦北은 火國의 남쪽으로 현재 熊本縣 葦北郡에 해당한다.

92 『日本書紀』 垂仁天皇紀의 意富加羅國 왕자 阿羅斯等, 『日本書紀』 繼體天皇 23년조와 24년조의 加羅王 阿利斯等과 같은 이름으로 생각된다. 阿利斯登도 한반도 계통의 이름일 것이다.

93 火葦北國造 阿利斯登의 아들로 한반도에서 태어나 백제의 조정에 출사하여 達率의 지위에 올랐다.

94 『紀伊國造系圖』에는 忍勝으로 보인다. 紀氏는 紀國(현재의 若和山縣 지역)의 유력 호족으로 배를 만들 수 있는 목재를 산출하는 지역을 거점으로 해상활동에 능한 海部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관련 기사에서 자주 보인다.

불러들였다.

겨울 10월에 기국조압승 등이 백제에서 돌아왔다. 조정에 "백제국의 왕은 일라를 아까워하여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 해에 또 길비해부직우도를 보내어 일라를 백제에서 불렀다. 우도(羽嶋 ; 하시마)는 이미 백제에 가서 먼저 사사로이 일라를 만나고자 혼자 집의 문 앞으로 갔다. 잠시 후 집 안에서 나온 한(韓)의 부인이 한어(韓語)로 "너의 뿌리를 내 뿌리 속에 넣어라."라고 말하고, 곧 집 안으로 들어갔다. 우도는 곧 그 뜻을 깨닫고 뒤따라서 들어갔다. 이에 일라가 맞이하여 손을 잡고 자리에 앉게 하였다. 몰래 "제가 은밀히 들으니, 백제국주는 천조(天朝)[96]를 의심하여 신을 보낸다면 머무르게 하고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아까워하면서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칙을 알릴 때 엄하고 무서운 안색을 드러내면서 재촉하여 급히 부르십시오."라고 고하였다. 우도는 곧 그 계책에 따라 일라를 불렀다. 이에 백제국주는 천조를 두려워하여 감히 칙을 어기지 못하였다. 백제국주는 일라(日羅), 은솔(恩率) 덕이(德爾)[97]·여노(餘怒)[98]·기노지(奇奴知)[99], 참관(參官)[100] 타사(柁師)[101], 덕솔(德率)[102] 차간덕(次干德)[103]·수

95 여기에서만 보인다. 『日本書紀』 민달천황 2년 하5월조 吉備海部直 참조.

96 倭·日本을 말한다.

97 恩率을 德爾의 관등으로 볼 수도 있으나 恩率이 귀국한 이후에도 德爾는 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恩率과 德爾는 서로 다른 사람이다. 日羅를 암살한 주역으로, 日羅를 감시하기 위하여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98 여기에서만 보인다.

99 여기에서만 보인다.

100 백제 사신단의 관직명으로 생각된다. 『日本書紀』 황극천황 원년(642) 8월조에도 '百濟使參官'이라는 용례가 보인다. 아래에서도 恩率·參官으로 병기되고 있으므로 恩率이 大使, 參官이 副使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01 백제 사신단의 항해 책임자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래의 덕솔 차간덕이 柁師라고 보기에는 관등이 너무 높다.

수(水手) 등 몇몇 사람을 보냈다. 일라 등은 길비(吉備)의 아도(兒島 ; 코지마) 둔창[104]에 도착하였다. 조정은 대반강수자련(大伴糠手子連 ; 오호토모노아라테코노무라지)[105]을 보내어 위로하였다. 또 대부(大夫) 등을 난파관(難波館)[106]에 보내어 일라를 방문하게 하였다. 이때 일라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문 앞에 이르러 곧 건물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절도 있게 무릎 꿇어 절을 하고, "회외궁어우천황(檜隈宮御寓天皇 ; 히노쿠마노미야니아메노시타시라시메스스메라미코토)[107]의 치세에 우리 군주[108] 대반금촌대련(大伴金村大連 ; 오호토모노카나무라노오호무라지)이 나라를 위해서 해외로 사신으로 보냈던 화위북국조(火葦北國造) 형부채부아리사등(刑部靫部阿利斯登 ; 워사카베노유케히아리시토)의 아들인 신 달솔(達率) 일라는 천황의 부름을 듣고 두려워하며 내조(來朝)하였습니다."라고 탄식하였다. 그리고 그 갑옷을 벗어서 천황에게 바쳤다. 천황은 곧 관을 아두(阿斗 ; 아토)[109]의 상시(桑市 ; 쿠하노이치)[110]에 짓고 일라로 하여금 머무르게 하고, 원하는 대로 물품을 지급하였다. 또 아배목신(阿倍目臣 ; 아배노메노오미[111]) · 물부지자련(物部贄子

---

102 백제의 16관등 중 네 번째 관등이다.

103 여기에서만 보인다.

104 『日本書紀』 흠명천황 17년(556) 7월조에 설치된 둔창이다. 白猪屯倉의 일부로 보는 설과 별개로 보는 설이 있다.

105 『上宮記』에 보이는 奴加之古連과 동일인물로 보아 糠手를 '누카데'로 읽기도 한다. 딸 小手古는 崇峻天皇의 비가 되어 蜂子皇子와 錦代皇女를 낳았다.

106 難波津에 설치된 외교사절을 위한 객관을 말한다.

107 宣化天皇이다.

108 원문은 君이다. 이 용어를 근거로 大伴氏와 火國造 사이에 주종관계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109 河內國 澁川郡 跡部鄕(현재의 大阪府 八尾市 植松町 부근으로 추정)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難波津에서 大和川을 거슬러 올라온 지역이다.

110 아래에서 桑市村이 보인다. 위치는 자세히 알 수 없다.

111 여기에서만 보인다.

連 ; 모노노베노니헤코노무라지[112]) · 대반강수자련을 보내어 나라의 정치를 일라에게 물었다. 일라는 "천황이 천하를 다스리는 정치는 모름지기 백성을 보호하고 기르는 것입니다. 어찌 갑자기 병사를 일으켜서 도리어 백성을 잃어버리고 없애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정사를) 의논하는 자로 하여금 천황[113]을 섬기고 받드는 신련(臣連) 및 이조(二造)[이조는 국조(國造) · 반조(伴造)이다.]부터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넉넉하고 부유하며 궁핍한 바가 없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3년이 지나면 음식이 충분해지고 무기가 충분해지니, 기쁘게 백성을 부릴 수 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같이 나라의 어려움을 근심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후에 선박을 많이 만들어서 진(津)마다 늘어 세워 두고 객인(客人)[114]에게 보게 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곧 좋은 사신을 백제에 보내서 그 국왕을 부르십시오. 만약 오지 않으면, 그 태좌평(太佐平)[115]과 왕자(王子) 등을 불러서 오게 하십시오. 곧 자연히 삼가고 복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죄를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 "백제 사람이 모의하여 '배 3백 척이 있으니 축자(筑紫)를 달라고 하자[116].'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실제로 청한다면, 마땅히 주는 척 하십시오. 그리하면 곧 백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반드시 먼저 여인과 어린 아이를 배에 실어서 보낼 것입니다. 천황께서는[117] 이때를 기다려 일기(壹伎)와 대마(對馬)에 많은 복병을 두고 도착하

---

112 『先代舊事本紀』 天孫本紀에 物部守屋의 아우로 物部石上贄古連公이 보인다.

113 원문은 朝列이다.

114 이웃나라로부터의 使人을 말한다.

115 백제에는 원래 6좌평이 있었으나, 이 시기에는 上中下의 佐平과 佐平을 장관으로 하는 관사도 있었다. 태좌평(대좌평)은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의 좌평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116 『日本書紀通證』은 배 3백 척의 人員이 일본에 投化하고 싶다고 하며 筑紫에 거주지를 청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백제가 九州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17 원문은 國家이며, 일본어로 천황을 뜻하는 '미카도'로 읽었다.

는 것을 살펴 죽이십시오. 도리어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요해지에 견고한 요새[118]를 쌓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은솔(恩率)과 참관(參官)이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즈음해서[옛 책(舊本)에서는 은솔을 한 사람으로 하고, 참관을 한 사람으로 하였다.] 은밀히 덕이(德爾) 등에게 "내가 축자를 지날 때를 헤아려서 너희들이 은밀히 일라를 죽인다면, 내가 자세히 왕에게 아뢰어 마땅히 높은 관작을 주도록 하겠다. 자신과 처자는 물론 그 영화로움은 후세까지 누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덕이와 여노는 모두 수락하였다. 참관 등은 드디어 혈록(血鹿 ; 치카)[119]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일라는 상시촌(桑市村 ; 쿠하이치노무라)에서 난파(難波 ; 나니하)의 관(館)으로 옮겼다. 덕이 등은 밤낮으로 함께 모의하여 죽이고자 하였다. 이때 일라는 몸에서 빛이 발하여 불꽃과 같았다. 이 때문에 덕이 등은 두려워 죽이지 못하였다. 그러다 드디어 12월의 그믐에 빛을 잃는 것을 기다렸다가 죽였다. 일라는 다시 되살아나서 "이는 내가 부리는 노비들이 한 짓이다. 신라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끝내고 죽었다[이때 마침 신라의 사신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천황은 지자대련(贄子大連 ; 니헤코노오호무라지)과 강수자련(糠手子連 ; 아라테코노무라지)에게 명하여 소군(小郡 ; 워고오리)[120]의 서쪽 근처 언덕 위에서 거두어 장사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그 처자(妻子)와 수수(水手) 등을 석천(石川 ; 이시카하)[121]에서 살게 하였다. 이에 대반강수자련(大伴糠手子連)이 "한 곳에서 모여

---

118 원문은 壘塞이다.

119 『備前國風土記』와 『和名類聚抄』에 備前國 松浦郡 値嘉鄕이 보이며 현재의 長崎縣 五島列島에 해당한다. 신라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백제 사신단은 五島列島를 출발하여 섬진강 하구 등으로 향하는 항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20 행정구역명이 아니라 難波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官司 혹은 西國 지배를 위한 官廳으로 보기도 한다.

121 河內國의 石川郡과 錦部郡, 현재의 大阪府 南河內郡 남부에서 富田林市, 河內長野市 북부에 걸친 지역이다. 石川은 河內長野市 瀧畑에서 발원하여 河內 평야를 동북으로 흘러

살면 변란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라고 의논하여 말하였다. 그리하여 처자를 석천 백제촌(百濟村 ; 쿠다라노무라)[122]에서 지내게 하고, 수수 등을 석천 대반촌(大伴村 ; 오호토모노무라)[123]에서 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덕이 등을 잡아서 묶고 하백제(下百濟 ; 시모츠쿠다라) 하전촌(河田村 ; 카하타노무라)[124]에 두었다. 몇 명의 대부(大夫)를 보내어 그 일을 추문하자 덕이 등은 죄를 인정하며[125] "사실입니다. 이는 은솔과 참관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저희들은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하여 옥에 가두고 조정에 복명하였다. 곧 사신을 위북(葦北)에 보내어 일라의 일족을 모두 불러서 덕이 등을 주고 마음대로 죄를 결정하게 하였다. 이때 위북군(葦北君 ; 아시키타노키미)[126] 등이 넘겨 받아서 모두 죽이고, 미매도(彌賣島 ; 미메시마)[127]에 던졌다[미매도는 아마도 희도(姬島 ; 히메시마)일 것이다.]. 그리고 일라를 위북으로 옮겨 장사지냈다. 그 후에 바다 근처의 사람이 "은솔(恩率)의 배는 바람으로 인해서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참관(參官)의 배는 진도(津島)[128]에 표박(漂泊)하다가 겨우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大和川에 합류하는 길이 29km의 강이다.

122 『和名類聚抄』에 河內國 錦府郡 百濟鄕이 보인다. 富田林市의 錦織, 彼方 등으로 추정되며 合田에서 상류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石川의 兩岸에 해당한다.

123 富田林市의 大伴 지역에 해당한다.

124 富田林市의 甲田 지역에 해당한다. 石川의 西岸 지역이며, 大伴에서 서남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다.

125 원문은 伏罪이다.

126 葦北國造의 일족으로 생각된다. 君은 西國의 國造에게 많은 姓이다.

127 『日本書紀』 안한천황 2년 9월조의 媛島로, 현재 大阪市 西淀川區의 姬島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28 對馬島이다. 『日本書紀』에서는 이 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對馬로 기록하였다.

13년 봄 2월 계사삭 경자(8일)에 난파길사목련자(難波吉士木蓮子 ; 나니하노키시이타비)[129]를 보내어 신라에 사신으로 가게 하였다. 마침내 임나에 갔다.

가을 9월에 백제를 통해 온 녹심신(鹿深臣 ; 카후카노오미)[130][이름이 빠졌다.]이 미륵석상(彌勒石像) 1구(軀)를 가지고 왔다. 좌백련(佐伯連 ; 사헤키노무라지)[131][이름이 빠졌다.]이 불상(佛像) 1구를 가지고 왔다.

이 해에 소아마자숙녜(蘇我馬子宿禰 ; 소가노우마코노스쿠네)[132]가 불상 2구를 얻어 안부촌주사마달등(鞍部村主司馬達等 ; 쿠라츠쿠리노스구리시메다치토)[133]과 지변직빙전(池邊直氷田 ; 이케베노아타히히타)[134]을 사방으로 보내어, 수행자(修行者)를 구하게 하였다. 이때 오직 파마국(播磨國 ; 하리마노쿠니)에서 환속한 승려가 있었는데, 이름은 고려혜편(高麗惠便)[135]이었다. 대신(大臣)은 이에 스승으로 모셨다. 그때 사마달등의 딸 도(嶋 ; 시마)를 출가시켜 선신니(善信尼 ; 젠신노아마)[136]라고 하였다[이때 나이 11세였다.]. 또 선신니의 제자(弟子) 두 사람을 출가시키니, 한 사람은 한인야보(漢人夜菩 ; 아야히토야보)의 딸 풍녀(豐女 ; 토요메)[137]로 이름을 선장니(禪藏尼 ; 젠조오노아마)라 하고, 또 한 사람은 금직호(錦織壺 ; 니

---

129 『日本書紀』 敏達天皇 4년(575) 4월조에 보인다.

130 近江國 甲賀郡의 호족으로 생각된다. 『元興寺緣起』에 甲賀臣으로 보인다.

131 『日本書紀』 欽明天皇 15년(554) 정월조 참조.

132 『日本書紀』 敏達天皇 원년(572) 4월조 참조.

133 鞍部는 鞍作으로도 표기하며, 말의 안장을 제작하는 기술자 집단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보인다. 후에는 鞍作鳥처럼 불상 제작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村主는 도래인들에게 많이 보이는 姓이다. 『元興寺緣起』에는 按師首達等으로 보인다.

134 『日本書紀』 欽明天皇 14년 5월조 참조.

135 고구려 출신이기 때문에 高麗를 冠稱하였고, 惠便은 법명을 그대로 이름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136 일본 최초의 비구니이다. 崇峻 즉위전기에도 보인다.

137 『元興寺緣起』에는 阿野師保斯의 딸 等已賣로 보인다.

시코리노츠부)의 딸 석녀(石女 ; 이시메)[138]로 이름을 혜선니(惠善尼 ; 에젠노아마)라 하였다[壺는 츠부(都符)라고 읽는다.]. 마자(馬子 ; 우마코)는 홀로 불법(佛法)에 귀의하여 세 비구니를 받들어 숭경하였다. 이에 세 비구니를 빙전직(氷田直 ; 히타노아타히)과 달등(達等 ; 타치토)에게 보내어 의식(衣食)을 공급하게 하였다. 불전(佛殿)을 자택[139]의 동쪽에 세워서 미륵석상(彌勒石像)을 안치시키고, 세 비구니를 굴청(屈請)[140]하여 크게 법회를 열고 설재(設齋)[141]하였다. 이때 달등이 불사리(佛舍利)를 재식(齋食)[142] 위에서 얻었다. 곧 이 사리를 마자숙녜(馬子宿禰 ; 우마코노스쿠네)에게 바쳤다. 마자숙녜는 사리를 시험해 보려고 쇠로 만든 모루에 올려서 쇠망치를 들어 두드렸다. 그러자 모루와 망치가 모두 부러지고, 사리는 부서지지 않았다. 또 사리를 물에 넣었더니 사리는 멋대로 물에서 뜨고 가라앉았다. 이로 인해 마자, 지변빙전(池邊氷田), 사마달등(司馬達等)이 깊이 불법을 믿고 수행하여 게을리하지 않았다. 마자숙녜는 또 석천(石川)의 집[143]에 불전을 세우니, 불법의 기초가 이로부터 만들어졌다.

14년 봄 2월 무자삭 임인(15일)에 소아대신마자숙녜(蘇我大臣馬子宿禰)가 탑(塔)을 대야(大野 ; 오호노)의 언덕 북쪽에 세우고[144] 크게 법회를 열고 설재하였

---

138 『元興寺緣起』에는 錦師都甁善의 딸 伊志賣로 보인다.

139 蘇我馬子의 저택을 말한다. 馬子의 저택은 石川, 槻曲, 飛鳥川邊 등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저택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40 법회 등을 열기 위하여 승려를 간곡히 청하는 것이다. 屈은 몸을 굽힌다는 뜻이다.

141 법회를 마치고 참여한 승려들에게 음식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142 승려들에게 올린 음식을 말한다.

143 현재의 橿原市 石川町에 있던 蘇我馬子의 저택으로 생각된다. 후에 이를 石川精舍라고 하였다.

144 『元興寺緣起』에서는 乙巳年 2월 15일에 止由良佐岐에 刹柱를 세웠다고 하였다. 橿原市 五條野町으로 보는 설이 있다.

다. 곧 달등이 전에 얻은 사리를 탑의 주두(柱頭) 부분에 안치하였다[145].

신해(24일)에 소아대신(蘇我大臣)이 병이 들었다. 점쟁이[146]에게 물으니 점쟁이가 "아버지대부터 불신(佛神)에게 제사지낸 마음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대신이 자제(子弟)를 보내어 그 점의 결과를 아뢰니, 천황이 "마땅히 점쟁이의 말에 따라 조상신[147]에게 제사지내라."고 명하였다. 대신이 조를 받들어 석상(石像)에 예배하여 수명을 늘려줄 것을 빌었다. 이때 나라에 역병[148]이 유행하여 민간에서 죽는 자가 많았다.

3월 정사삭(1일)에 물부궁삭수옥대련(物部弓削守屋大連 ; 모노노베노유게노모리야노오호무라지)과 중신승해대부(中臣勝海大夫 ; 나카토미노카츠미노마에츠키미)가 "어찌하여 신들이 말씀드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돌아가신 천황에서 폐하에게 이르기까지 역질이 유행하여 나라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소아신(蘇我臣)이 불법(佛法)을 흥행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이에 "참으로 그러하다. 마땅히 불법을 금하라."고 명하였다.

병술(30일)에 물부궁삭수옥대련은 스스로 절에 가서 걸상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탑을 자르고 무너뜨린 다음 불을 질러 태웠으며, 아울러 불상과 불전을 태웠다. 타다 남은 불상을 거두어 난파(難波 ; 나니하)의 굴강(堀江 ; 호리에)[149]에 버리게 하였다. 이 날, 구름도 없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 대련(大連)

---

145 탑에 사리를 안치하는 장소는 일정하지 않다. 찰주의 가장 아래 넣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찰주의 가장 위에 안치한 것으로 보인다.

146 원문은 卜者이다.

147 원문은 父神이다.

148 천연두로 생각된다. 후대에 천연두를 稻目瘡이라고 한 것도 이 사건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149 仁德天皇 때 궁의 북쪽 들판을 파서 남쪽의 물을 끌어들여 서쪽 바다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이 수로를 掘江이라고 하였다. 『日本書紀』 仁德天皇 10년 10월조 참조.

은 우의를 입었다. 그는 마자숙녜(馬子宿禰)와 따르던 승려를 꾸짖어 수치심[150]을 일게 하였다. 이에 좌백조어실(佐伯造御室 ; 사헤키노미야츠코미무로)[151][다른 이름은 어려애(於閭礙 ; 오로게)이다.]을 보내서 마자숙녜가 공양하는 선신니(善信尼) 등을 불렀다. 이로 말미암아 마자숙녜는 감히 명을 어기지 못하고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여승들을 불러내어 어실(御室 ; 미무로)에게 보냈다. 유사가 곧 여승들의 승복[152]을 빼앗고 가두었다가 해석류시(海石榴市 ; 츠바키치)[153]의 정(亭)[154]에서 매로 때렸다[155]. 천황은 임나를 세우고자 하여 판전이자왕(坂田耳子王 ; 사카타노미미코노오호키미)[156]을 차출하여 사신으로 삼았다. 이때 천황과 대련이 갑자기 두창에 걸렸다. 그래서 보내지 못하였다. 귤풍일황자(橘豐日皇子 ; 타치바나노토요히노미코)[157]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천황[158]의 칙을 거역할 수가 없다. 임나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라[159]."고 명하였다. 한편 종기가 나서 죽은 사람들이 나라에 가득하였다. 그 병을 앓는 사람들이 "몸이 불타고 두들겨 맞고 부서지는 것 같다."고 하며 울면서 죽어갔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몰래 서로 "이는 불상을 태운 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여름 6월에 마자숙녜가 "신의 질병은 지금까지 낫지 않았습니다. 삼보(三寶)의 힘을 입지 못하면 치유되기 어렵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마자숙녜

---

150 원문은 毁辱이다.

151 『元興寺緣起』에서는 佐俾岐彌牟留古造로 보인다.

152 원문은 三衣이다.

153 『日本書紀』 武熱天皇 즉위전기 참조.

154 驛과 같은 뜻이다.

155 원문은 楚撻이다.

156 『日本書紀』 欽明天皇 32년 3월 임자조 참조.

157 欽明天皇의 황자로 후의 用明天皇이다.

158 欽明天皇이다. 敏達天皇과 用明天皇에게 모두 先考에 해당한다.

159 원문은 勤修이다.

에게 "너 혼자만 불법을 섬겨야 한다. 다른 사람은 금지한다."라고 명하였다. 이에 세 여승을 마자숙녜에게 돌려보냈다. 마자숙녜는 이들을 맞이하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일이라 감탄하며 세 여승에게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올렸다[160]. 이후 새로운 정사(精舍)를 지어서[161] 맞아들여 공양하였다[어떤 책(或本)에서는 "물부궁삭수옥대련, 대삼륜역군(大三輪逆君 ; 오호미와노사카우노키미), 중신반여련(中臣磐余連 ; 나카토미노이하레노무라지)[162]이 함께 불법을 없애고자 모의하여 사탑(寺塔)을 태우고, 아울러 불상을 내버리려고 하였다. 마자숙녜는 다투고 따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가을 8월 을유삭 기해(15일)에 천황은 병을 오래 앓다가 대전에서 죽었다(崩)[163]. 이때 광뢰(廣瀨 ; 히로세)[164]에 빈궁(殯宮)을 세웠다. 마자숙녜대신은 칼을 차고 조문을 읽었다(誄). 물부궁삭수옥대련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165] "사냥에 쓰는 화살에 맞은 참새 같다."고 말하였다. 다음에 궁삭수옥대련은 손발을 떨면서 조문을 읽었다[요진(搖震)은 두려워서 떠는 것이다[166].]. 마자숙녜대신은 웃으며 "방울을 달아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 인하여 두 신하는 조금씩 원한이 생겼다. 삼륜역군(三輪逆君 ; 미와노사카우노키미)은 준인(隼人)으로 하여금 빈정(殯庭)을 지키게 하였다. 혈수부황자(穴穗部皇子 ; 아나호베노미코)는 천하를 가지려고 하였다. 발분하여 "어째서 돌아가신 왕의 뜰은 섬기고, 살아있는 왕[167]은

---

160 원문은 頂禮이다. 頂戴禮拜를 줄인 말이다.

161 『大和志』에서는 高市郡 石川의 廢精舍와 石川村古址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162 여기에서만 보인다.

163 『古事記』에서는 584년에 죽었다고 하였다.

164 大和國 廣瀨郡(奈良縣 北葛城郡 廣陵町 일대) 혹은 河合町 川合 부근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165 원문은 听然而哮이며 다른 사람을 개의치 않고 큰 소리로 웃는 것을 말한다.

166 원문은 戰慄이다.

167 穴穗部皇子 자신을 말한다.

섬기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일본서기 권 제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日本書紀 卷第廿

淳中倉太珠敷天皇 敏達天皇

淳中倉太珠敷天皇, 天國排開廣庭天皇第二子也. 母曰石姬皇后[石姬皇后, 武小廣國押盾天皇女也.]. 天皇不信佛法, 而愛文史. 廿九年, 立爲皇太子. 卅二年四月, 天國排開廣庭天皇崩.

元年 夏四月壬申朔甲戌, 皇太子卽天皇位. 尊皇后曰皇太后. 是月, 宮于百濟大井. 以物部弓削守屋大連爲大連如故. 以蘇我馬子宿禰爲大臣.

五月壬寅朔, 天皇問皇子與大臣曰, 高麗使人, 今何在. 大臣奉對曰, 在於相樂館. 天皇聞之, 傷惻極甚. 愀然而歎曰, 悲哉, 此使人等, 名旣奏聞於先考天皇矣. 乃遣群臣相樂館, 檢錄所獻調物, 令送京師.

丙辰, 天皇, 執高麗表疏, 授於大臣. 召聚諸史, 令讀解之. 是時, 諸史, 於三日內, 皆不能讀. 爰有船史祖王辰爾, 能奉讀釋. 由是, 天皇與大臣俱爲讚美曰, 勤乎辰爾. 懿哉辰爾. 汝若不愛於學, 誰能讀解. 宜從今始, 近侍殿中. 旣而, 詔東西諸史曰, 汝等所習之業, 何故不就. 汝等雖衆, 不及辰爾. 又高麗上表疏, 書于烏羽. 字隨羽黑, 旣無識者. 辰爾乃蒸羽於飯氣, 以帛印羽, 悉寫其字. 朝庭悉異之.

六月, 高麗大使謂副使等曰, 磯城嶋天皇時, 汝等違吾所議, 被欺於他, 妄分

國調, 轍與微者. 豈非汝等過歟. 其若我國王聞, 必誅汝等. 副使等自相謂之曰, 若吾等至國時, 大使顯遒吾過, 是不祥事也. 思欲偸殺而斷其口. 是夕, 謀泄. 大使知之, 裝束衣帶, 獨自潛行. 立館中庭, 不知所計. 時有賊一人, 以杖出來, 打大使頭而退. 次有賊一人, 直向大使, 打頭與手而退. 大使尙嘿 然立地, 而拭面血. 更有賊一人, 執刀急來, 刺大使腹而退. 是時, 大使恐伏地拜. 後有賊一人, 旣殺而去. 明旦, 領客東漢坂上直子麻呂等, 推問其由. 副使等乃作矯詐曰, 天皇賜妻於大使. 大使違勅不受. 無禮茲甚. 是以, 臣等爲天皇殺焉. 有司以禮收葬.

秋七月, 高麗使人罷歸.

是歲也, 太歲壬辰.

二年 夏五月丙寅朔戊辰, 高麗使人, 泊于越海之岸. 破船溺死者衆. 朝庭猜頻迷路, 不饗放還. 仍勅吉備海部直難波, 送高麗使.

秋七月乙丑朔, 於越海岸, 難波與高麗使等相議, 以送使難波船人大嶋首磐日·狹丘首間狹, 令乘高麗使船, 以高麗二人, 令乘送使船. 如此互乘, 以備奸志. 俱時發船, 至數里許. 送使難波, 乃恐畏波浪, 執高麗二人, 擲入於海.

八月甲午朔丁未, 送使難波, 還來復命曰, 海裏鯨魚大有, 遮囓船與檝櫂. 難波等, 恐魚呑船, 不得入海. 天皇聞之, 譏其謾語. 駈使於官, 不放還國.

三年 夏五月庚申朔甲子, 高麗使人, 泊于越海之岸.

秋七月己未朔戊寅, 高麗使人, 入京奏曰, 臣等去年相逐送使, 罷歸於國. 臣等先至臣蕃. 臣蕃卽准使人之禮, 禮饗大嶋首磐日等. 高麗國王, 別以厚禮禮之. 旣而, 送使之船, 至今未到. 故更謹遣使人幷磐日等, 請問臣使不來之意. 天皇聞, 卽數難波罪曰, 欺誑朝庭, 一也. 溺殺隣使, 二也. 以茲大罪, 不合放還. 以斷其罪.

冬十月戊子朔丙申, 遣蘇我馬子大臣於吉備國, 增益白猪屯倉與田部. 卽以田部名籍, 授于白猪史膽津.

戊戌, 詔船史王辰爾弟牛, 賜姓爲津史.

十一月, 新羅遣使進調.

四年 春正月丙辰朔甲子, 立息長眞手王女廣姬爲皇后. 是生一男二女. 其一曰押坂彦人大兄皇子[更名, 麻呂古皇子.]. 其二曰逆登皇女. 其三曰菟道磯津皇女.

是月, 立一夫人. 春日臣仲君女曰老女子夫人[更名, 藥君娘.]. 生三男一女. 其一曰難波皇子. 其二曰春日皇子. 其三曰桑田皇女. 其四曰大派皇子. 次采女伊勢大鹿首小熊女曰菟名子夫人. 生太姬皇女[更名, 櫻井皇女.] 與糠手姬皇女[更名, 田村皇女.].

二月壬辰朔, 馬子宿禰大臣, 還于京師. 復命屯倉之事.

乙丑, 百濟遣使進調. 多益恆歲. 天皇, 以新羅未建任那, 詔皇子與大臣曰, 莫懶懈於任那之事.

夏四月乙酉朔庚寅, 遣吉士金子, 使於新羅. 吉士木蓮子使於任那. 吉士譯語彦使於百濟.

六月, 新羅遣使進調. 多益常例. 幷進多多羅·須奈羅·和陀·發鬼, 四邑之調.

是歲, 命卜者, 占海部王家地與絲井王家地. 卜便襲吉. 遂營宮於譯語田. 是謂幸玉宮.

冬十一月, 皇后廣姬薨.

五年 春三月己卯朔戊子, 有司請立皇后. 詔立豐御食炊屋姬尊爲皇后. 是生二男五女. 其一曰菟道貝鮹皇女[更名, 菟道磯津貝皇女也.]. 是嫁於東宮聖德. 其二曰竹田皇子. 其三曰小墾田皇女. 是嫁於彦人大兄皇子. 其四曰鸕鷀守皇女

[更名, 輕守皇女.]. 其五曰尾張皇子. 其六曰田眼皇女. 是嫁於息長足曰廣額天皇. 其七曰櫻井弓張皇女.

六年 春二月甲辰朔, 詔置日祀部·私部.

夏五月癸酉朔丁丑, 遣大別王與小黑吉士, 宰於百濟國[王人奉命, 爲使三韓, 自稱爲宰. 言宰於韓, 蓋古之典乎. 如今言使也. 餘皆倣此. 大別王未詳所出也.].

冬十一月庚午朔, 百濟國王, 付還使大別王等, 獻經論若干卷, 幷律師·禪師·比丘尼·呪禁師·造佛工·造寺工, 六人. 遂安置於[1]難波大別王寺.

七年 春三月戊辰朔壬申, 以菟道皇女, 侍伊勢祠. 卽奸池邊皇子. 事顯而解.

八年 冬十月, 新羅遣枳叱政奈末進調, 幷送佛像.

九年 夏六月, 新羅遣安刀奈末·失消奈末進調. 不納以還之.

十年 春潤二月, 蝦夷數千, 寇於邊境. 由是, 召其魁帥綾糟等[魁帥者, 大毛人也.]. 詔曰, 惟, 儞蝦夷者, 大足彦天皇之世, 合殺者斬, 應原者赦. 今朕遵彼前例, 欲誅元惡. 於是, 綾糟等懼然恐懼, 乃下泊瀨中流, 面三諸岳, 歃水而盟曰, 臣等蝦火, 自今以後, 子子孫孫[古語云生兒八十綿連.], 用淸明心, 事奉天闕. 臣等若違盟者, 天地諸神及天皇靈, 絶滅臣種矣.

十一年 冬十月, 新羅遣安刀奈末·失消奈末進調. 不納以還之.

---

1 소학관본에는 '於'가 없다.

十二年 秋七月丁酉朔, 詔曰, 屬我先考天皇之世, 新羅滅內官家之國[天國排開廣庭天皇廿三年, 任那爲新羅所滅. 故云新羅滅我內官家也.]. 先考天皇, 謀復任那. 不果而崩, 不成其志. 是以, 朕當奉助神謀, 復興任那. 今在百濟火葦北國造阿利斯登子達率日羅, 賢而有勇. 故朕欲與其人相計. 乃遣紀國造押勝與吉備海部直羽嶋, 喚於百濟.

冬十月, 紀國造押勝等, 還自百濟. 復命於朝曰, 百濟國主, 奉惜日羅, 不肯聽上.

是歲, 復遣吉備海部直羽嶋, 召日羅於百濟. 羽嶋旣之百濟, 欲先私見日羅, 獨自向家門底. 俄而有家裏來韓婦. 用韓語言, 以汝之根, 入我根內, 卽入家去. 羽嶋便覺其意, 隨後而入. 於是, 日羅迎來, 把手使坐於座. 密告之曰, 僕竊聞之, 百濟國主, 奉疑天朝, 奉遣臣後, 留而弗還. 所以, 奉惜不肯奉進. 宜宣勅時, 現嚴猛色, 催急召焉. 羽嶋乃依其計, 而召日羅. 於是, 百濟國主, 怖畏天朝, 不敢違勅. 奉遣以日羅·恩率德爾·餘怒·奇[2]奴知·參官·柁[3]師·德率次干德·水手等, 若干人. 日羅等行到吉備兒島屯倉. 朝庭遣大伴糠手子連, 而慰勞焉. 復遣大夫等於難波館, 使訪日羅. 是時, 日羅被甲乘馬, 到門底下. 乃進廳前. 進退跪拜[4], 歎恨而曰, 於檜隈宮御 天皇之世, 我君大伴金村大連, 奉爲國家, 使於海表, 火葦北國造刑部靫部阿利斯登之子, 臣達率日羅, 聞天皇召, 恐畏來朝. 乃解其甲, 奉於天皇. 乃營館於阿斗桑市, 使住日羅, 供給隨欲. 復遣阿倍目臣·物部贄子連·大伴糠手子連, 而問國政於日羅. 日羅對言, 天皇所以治天下政, 要須護養黎民. 何遽興兵, 翻將失滅. 故今合議者仕奉朝列, 臣連二造[二造者, 國造伴造也.], 下及百姓, 悉皆饒富, 令無所乏. 如此三年, 足食足兵, 以

---

2 소학관본에서는 '哥'라고 적고 있다.

3 소학관본에서는 '柁'라고 적고 있다.

4 소학관본에서는 '拜'라고 적고 있다.

悅使民. 不憚水火, 同恤國難. 然後, 多造船舶, 每津列置, 使觀客人, 令生恐懼. 爾乃, 以能使使於百濟, 召其國王. 若不來者, 召其太佐平·王子等來. 卽自然心生欽伏. 後應問罪. 又奏言, 百濟人謀言, 有船三百. 欲請筑紫. 若其實請, 宜陽賜豫. 然則百濟, 欲新造國, 必先以女人小子載船而至. 國家, 望於此時, 壹伎·對馬, 多置伏兵, 候至而殺. 莫翻被詐. 每於要害之所, 堅築壘塞矣. 於是, 恩率參官, 臨罷國時[舊本, 以恩率爲一人, 以參官爲一人也.], 竊語德爾等言, 計吾過筑紫許, 汝等偸殺日羅者, 吾具白王, 當賜高爵. 身及妻子, 垂榮於後. 德爾·餘奴, 皆聽許焉. 參官等遂發途於血鹿. 於是, 日羅自桑市村, 遷難波館. 德爾等晝夜相計, 將欲殺. 時日羅身光, 有如火焰. 由是, 德爾等恐而不殺. 遂於十二月晦, 候失光殺. 日羅更蘇生曰, 此是我駈使奴等所爲. 非新羅也. 言畢而死[屬是時, 有新羅使. 故云爾也.]. 天皇詔贊子大連·糠手子連, 令收葬於小郡西畔丘前. 以其妻子水手等, 居于石川. 於是, 大伴糠手子連議曰, 聚居一處, 恐生其變. 乃以妻子, 居于石川百濟村, 水手等居于石川大伴村. 收縛德爾等, 置於下百濟河田村. 遣數大夫, 推問其事. 德爾等伏罪言, 信. 是恩率參官, 敎使爲也. 僕等爲人之下, 不敢違矣. 由是, 下獄, 復命於朝庭. 乃遣使於葦北, 悉召日羅眷屬, 賜德爾等, 任情決罪. 是時, 葦北君等, 受而皆殺, 投彌賣島[彌賣島, 蓋姬島也.]. 以日羅移葬於葦北. 於後, 海畔者言, 恩率之船, 被風沒海. 參官之船, 漂泊津島, 乃始得歸.

十三年 春二月癸巳朔庚子, 遣難波吉士木蓮子, 使於新羅. 遂之任那.

秋九月, 從百濟來鹿深臣[闕名字.], 有彌勒石像一軀. 佐伯連[闕名字.], 有佛像一軀.

是歲, 蘇我馬子宿禰, 請其佛像二軀, 乃遣鞍部村王司馬達等·池邊直氷田, 使於四方, 訪覓修行者. 於是, 唯於播磨國, 得僧還俗者. 名高麗惠便. 大臣乃以爲師. 今度司馬達等女嶋. 曰善信尼[年十一歲.], 又度善信尼弟子二人. 其一, 漢人夜菩之女豐女, 名曰禪藏尼. 其二, 錦織壺之女石女, 名曰惠善尼[壺, 此云都

符.]. 馬子獨依佛法, 崇敬三尼. 乃以三尼, 付氷田直與達等, 令供衣食. 經營佛殿於宅東方, 安置彌勒石像. 屈請三尼, 大會設齋. 此時, 達等得佛舍利於齋食上. 則以舍利, 獻於馬子宿禰. 馬子宿禰, 試以舍利, 置鐵質中, 振鐵鎚打. 其質與鎚, 悉被摧壞. 而舍利不可摧毀. 又投舍利於水, 舍利隨心所願, 浮沈於水. 由是, 馬子宿禰·池邊氷田·司馬達等, 深信佛法, 修行不懈. 馬子宿禰, 亦於石川宅, 修治佛殿. 佛法之初, 自玆而作.

十四年 春二月戊子朔壬寅, 蘇我大臣馬子宿禰, 起塔於大野丘北, 大會設齋. 卽以達等前所獲舍利, 藏塔柱頭.

辛亥, 蘇我大臣患疾. 問於卜者. 卜者對言, 祟於父時所祭佛神之心也. 大臣卽遣子弟, 奏其占狀. 詔曰, 宜依卜者之言, 祭祠父神. 大臣奉詔, 禮拜石像, 乞延壽命. 是時, 國行疫疾, 民死者衆.

三月丁巳朔, 物部弓削守屋大連, 與中臣勝海大夫, 奏曰, 何故不肯用臣言. 自考天皇, 及於陛下, 疫疾流行, 國民可絶. 豈非專由蘇我臣之興行佛法歟. 詔曰, 灼然, 宜斷佛法.

丙戌, 物部弓削守屋大連, 自詣於寺, 跪坐胡床. 斫倒其塔, 縱火燔之. 幷燒佛像與佛殿. 旣而取所燒餘佛像, 令棄難波堀江. 是日, 無雲風雨. 大連被雨衣. 訶責馬子宿禰, 與從行法侶, 令生毁辱之心. 乃遣佐伯造御室[更名, 於閇礙.], 喚馬子宿禰所供善信等尼. 由是, 馬子宿禰, 不敢違命, 惻愴啼泣, 喚出尼等, 付於御室. 有司便奪尼等三衣, 禁錮, 楚撻海石榴市亭. 天皇思建任那, 差坂田耳子王爲使. 屬此之時, 天皇與大連, 卒患於瘡. 故不果遣. 詔橘豐日皇子曰, 不可違背考天皇勅. 可勤修乎任那之政也. 又發瘡死者, 充盈於國. 其患瘡者言, 身如被燒被打被摧, 啼泣而死. 老少竊相語曰, 是燒佛像之罪矣.

夏六月, 馬子宿禰奏曰, 臣之疾病, 至今未愈. 不蒙三寶之力, 難可救治. 於是, 詔馬子宿禰曰, 汝可獨行佛法. 宜斷餘人. 乃以三尼, 還付馬子宿禰. 馬子宿

禰, 受而歡悅. 嘆未曾有, 頂禮三尼. 新營精舍, 迎入供養[或本云, 物部弓削守屋大連·大三輪逆君·中臣磐餘連, 俱謀滅佛法, 欲燒寺塔, 幷棄佛像. 馬子宿禰, 諍而不從.].

秋八月乙酉朔己亥, 天皇病彌留, 崩于大殿. 是時, 起殯宮於廣瀨. 馬子宿禰大臣, 佩刀而誄. 物部弓削守屋大連, 呀然而唉曰, 如中獵箭之雀鳥焉. 次弓削守屋大連, 手脚搖震而誄[搖震, 戰慄也.]. 馬子宿禰大臣唉曰, 可懸鈴矣. 由是, 二臣微生怨恨. 三輪君逆, 使隼人相距於殯庭. 穴穗部皇子, 欲取天下. 發憤稱曰, 何故事死王之庭, 弗事生王之所也.

日本書紀卷第廿

부록 1

연표, 도표

1. 『일본서기』에 기재된 사건 연표
2. 천황 和風시호 및 재위기간
3. 천황릉 위치비정표
4. 일본 고대 산성 현황표
5. 고대 일본 관위 및 위계제 변천표
6. 일본 율령제하 관위상당제 및 4등관제표
7. 왜5왕 비정 및 대중관계표
8. 『일본서기』와 『삼국사기』 백제 왕력 비교표
9. 고대 한반도와 왜의 교류표
10. 『일본서기』 도래계 씨족 출자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일본서기』에 기재된 사건 연표

* 고구려·백제·신라는 『삼국사기』에 의거, 중국왕조는 중국정사에 의거함
* 신공기 기년은 수정연대가 아닌 『일본서기』 기년을 그대로 표기함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200	중애 9	2. 仲哀천황의 사망 3. 신공황후가 神主가 되어 신탁에 따라 제사를 지냄. 熊襲國을 토벌함 4. 황후가 제사의 영험함을 얻어 西征을 명령함 9. 신라친정에 앞서 신에게 刀矛를 봉헌하고 군사를 모집하여 훈시함 10. 和珥津을 출발하여 신라에 도착함. 신라왕이 앞으로 조공할 것을 맹세함(微叱己知波珍干岐가 인질이 됨). 고구려·백제도 西蕃으로서 조공을 약속함 12. 應神을 축자에서 낳음 (一云) 신라왕 宇流助富利智干이 항복함. 신라국인이 신라왕의 처를 죽여 천황에게 사죄				
201	신공 1	2. 麛坂王와 忍熊王이 모반함. 倉見別과 五十狹茅宿禰도 麛坂王을 따름 3. 武內宿禰·武振熊가 宇治川에서 忍熊王군의 장군 熊之凝·倉見別·五十狹茅宿禰를 격퇴함 10. 皇太后로 존대되고 이 해를 '太歲辛巳'로 함				
202	신공 2	11. 仲哀天皇을 하내국의 長野陵에 장사지냄				
203	신공 3	1. 譽田別皇子를 황태자로 삼음				
205	신공 5	3. 신라왕이 사신을 파견하여 거짓을 꾸며 微叱許智伐旱을 귀환시킴				
213	신공 13	2. 태자가 角鹿의 笥飯大社에 참배				
239	신공 39	明帝景初 3년 6월에 왜여왕이 大夫難斗米 등을 파견하여 郡에 이르러 天子에게 알현하고 조헌할 것을 요구함. 이에 太守鄧夏는 왜사신을 경도로 보내줌(『삼국지』)	동천왕 13	고이왕 6	조분왕 10	明帝景初 3 (魏)
240	신공 40	正始 元年에 建忠校尉梯携 등을 조서와 인수를 받들어 왜국에 파견함(『삼국지』)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243	신공 43	正始 4년 왜왕이 사신 大夫伊聲者·掖耶約 등 8인을 파견하여 헌상함(『삼국지』)				
246	신공 46	3. 卓淳國에 斯摩宿禰를 파견함. 백제가 일본에 사신(久氐·彌州流·莫古)을 보냄				
247	신공 47	4. 백제와 신라가 함께 조공함(久氐·彌州流·莫古). 千熊長彦을 신라에 파견함(『백제기』)			첨해왕 1	
249	신공 49	3. 荒田別·鹿我別과 木羅斤資·沙沙奴跪가 任那7國를 평정하고 忱彌多禮까지 복속시켜 백제에게 줌. 이때 4邑도 항복함. 이후 千熊長彦과 백제왕이 辟支山에 올라 맹서를 함				
250	신공 50	2. 荒田別 등이 귀환함 5. 千熊長彦·久氐가 일본에 옴. 천황이 구저에게 多沙城을 하사함				
251	신공 51	3. 백제왕이 久氐를 일본에 파견하여 조공함. 千熊長彦을 久氐와 함께 백제로 보냄				
252	신공 52	9. 久氐·千熊長彦이 백제에서 七支刀 1구와 七子鏡 1면을 비롯한 여러 보물을 가지고 옴				
255	신공 55	백제 肖古王의 사망				
256	신공 56	백제왕자 貴須의 즉위				
262	신공 62	신라가 조공하지 않음. 襲津彦을 보내 신라를 침. 沙至比跪가 신라의 미녀에 빠져 加羅國을 침. 천황이 木羅斤資를 파견하여 가라국을 회복시킴(『백제기』)			미추왕 1	
264	신공 64	백제국 貴須王의 사망. 왕자 枕流王의 즉위				
265	신공 65	백제 枕流王의 사망. 왕자 阿花가 어려서 숙부 辰斯가 왕위를 찬탈함				武帝 泰始 1 (晉)
266	신공 66	武帝 泰初 2년 10월에 왜여왕이 거듭 통역을 보내 공헌하였다고 함(『진기거주』)				
269	신공 69	4. 황태후가 사망함 10. 황태후를 장사지내고, 氣長足姬尊으로 추존함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271	응신 2	1. 황태자의 즉위	서천왕 2			
272	응신 3	10. 蝦夷가 조공함 11. 海人이 大命을 따르지 않아 阿曇連의 祖인 大濱宿禰를 파견하여 진압 • 백제 辰斯王이 즉위하여 貴國 천황에게 무례함. 백제국은 辰斯王을 죽여 사죄. 紀角宿禰 등은 阿花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옴				
274	응신 5	8. 諸國에 海人 및 山守部를 정함 10. 伊豆國에 배를 만들도록 함				
275	응신 6	2. 천황이 近江國으로 행차함				
276	응신 7	9. 고려·백제·임나·신라인이 함께 來朝함. 武內宿禰에게 명하여 다수의 한인들을 이끌고 저수지를 만들도록 함(韓人池)				
277	응신 8	3. 백제인이 來朝함. 阿花王이 즉위하여 貴國에게 무례함. 枕彌多禮와 峴南·支侵·谷那의 東韓 땅을 빼앗음. 왕자 直支를 天朝에 보내 先王의 우호를 닦도록 함(『백제기』)				
278	응신 9	4. 武內宿禰가 축자에 갔을 때 동생이 모함함. 壹伎直의 조인 근자의 도움으로 살아나 동생을 제거함. 紀直의 祖 등을 속민으로 삼음				
280	응신 11	10. 劍池 등을 만듦				
282	응신 13	3. 천황이 髮長媛을 부름 9. 髮長媛을 황자에게 보냄				
283	응신 14	2. 백제왕이 縫衣工女를 바침. 眞毛津이라 하며 지금의 來目衣縫의 시조 • 弓月君이 백제에서 來歸. 신라인의 방해로 120현의 인부가 가라에 머뭄				
284	응신 15	8. 백제왕이 阿直岐를 보내 양마를 헌상. 아직기가 王仁을 추천함. 上毛野君의 조상 荒田別·巫別을 백제에 파견			유례왕 1	
285	응신 16	2. 王仁이 내조하여 태자의 스승이 됨 • 백제 阿花王이 사망하자 천황이 直支王에게 귀국을 허락하고 東韓之地를 하사함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285	응신 16	8. 平群木菟宿禰·的戶田宿禰를 가라에 파견하여 신라를 치고 습진언과 궁월군의 인부를 데리고 오도록 함				
288	응신 19	10. 천황이 吉野宮으로 행차함		책계왕 1		
289	응신 20	9. 倭漢直의 조상인 阿知使主가 그 자식인 都加使主와 함께 17현의 당류를 이끌고 來歸				
291	응신 22	3. 천황이 難波로 행차함. 妃인 兄媛이 吉備로 돌아가기를 요청함 4. 兄媛이 難波港에서 출발 9. 천황이 淡路道에서 사냥함 御友別의 자식들에게 吉備國을 분봉함				惠帝 永平 1
294	응신 25	백제 直支王이 사망하고 그 자식인 久爾辛이 즉위함. 왕이 어렸으므로 목만치가 집권하여 왕모와 상음하고 무례를 저지러 천황이 소환함(『백제기』)	봉상왕 3			
297	응신 28	9. 高麗王이 사신을 보내 조공함. 상표문의 내용이 무례하여 찢음				
300	응신 31	8. 官船枯野를 태워 琴을 얻음. 新羅가 목공을 바침	미천왕 1	분서왕 3	기임왕 3	
306	응신 37	2. 阿知使主·都加使主를 吳國에 파견하여 縫工女를 요구. 高麗를 통하여 吳까지 감. 吳가 縫工女 4인을 보냄		비류왕 3		
308	응신 39	2. 直支王이 新齊都媛을 보내 천황을 섬기도록 함. 新齊都媛은 7婦女를 이끌고 來歸함				懷帝 永嘉 2
309	응신 40	1. 천황이 황위계승자로 菟道稚郎子를 선택함. 菟道稚郎子를 황위계승자로 세움				
310	응신 41	2. 천황이 사망함. 阿知使主가 吳國에서 귀국			을해왕 1	
313	인덕 1	1. 천황의 즉위, 궁실의 근검, 鷦鷯命名 설화				愍帝 建興 1
316	인덕 4	3. 3년간 과역을 면제, 근검절약함				
319	인덕 7	8. 任生部와 葛城部를 둠				元帝 太興 2 (東晋)
322	인덕 10	10. 과역을 부과하여 궁실을 완성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323	인덕 11	10. 茨田堤를 쌓음				明帝 太寧 1
324	인덕 12	7. 고구려가 鐵盾과 鐵的을 헌상 8. 고구려 사신을 향응. 고구려가 헌상한 鐵的을 的戶田宿禰가 활을 쏘아 관통시킴 10. 山背에 큰 溝를 만듦				
325	인덕 13	9. 茨田屯倉을 세우고 春米部를 둠 10. 和珥池를 만듦. 横野堤를 쌓음				
326	인덕 14	11. 猪甘津에 다리를 세움 • 京中에 大道를 닦고 大溝를 팜				成帝 咸和 1
329	인덕 17	9. 新羅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지 않은 이유를 물음. 신라가 조를 바침				
334	인덕 22	1. 天皇과 皇后의 불화	고국원왕 3			
342	인덕 30	9. 황후의 부재를 틈타 천황이 妃를 들임 11. 천황이 山背으로 행차함				
343	인덕 31	1. 황태자를 임명함				康帝 建元 1
347	인덕 35	6. 황후 磐之媛 사망		근초고왕 2		
349	인덕 37	11. 황후를 장사지냄				
350	인덕 38	1. 八田皇女를 황후로 세움				
352	인덕 40	2. 雌鳥皇女를 두고 準別皇子와 다툼. 雌鳥皇女 사망				
353	인덕 41	3. 紀角宿禰를 백제에 파견하여 토지의 산물을 기록. 酒君이 무례를 범해 백제왕이 주군을 포박하여 襲津彦에 딸려 왜에 보냄. 주군은 石川錦織首許呂斯의 집에 숨음				
355	인덕 43	9. 鷹甘部를 둠				
362	인덕 50	3. 하내 자전제에 雁이 산란함			내물왕 7	哀帝 隆和 1
365	인덕 53	5. 竹葉瀬의 동생 田道를 보내 신라를 공격함. 4읍의 인민을 데리고 귀국함				
367	인덕 55	蝦夷의 반란. 田道를 보냈지만 패배하고 죽음				
370	인덕 58	10. 吳國과 高句麗國이 함께 조공				
372	인덕 60	10. 白鳥陵의 陵守를 징발. 土師連의 관할하에 둠	소수림왕 2			孝武帝 1
374	인덕 62	5. 가지가 둘인 大木으로 관선을 만듦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377	인덕 65	머리 둘 달린 자가 황명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여 살해함		근구수왕 3		
379	인덕 67	10. 河內의 石津源으로 행차함. 百舌鳥野陵을 만듦 • 吉備國에 大蛇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죽임				
399	인덕 87	1. 천황의 사망. 仲皇子의 반란 10. 천황을 장사지냄	광개토왕 9	아신왕 8		安帝 隆安 3
400	이중 1	2. 천황의 즉위 4. 阿曇連濱子의 반역죄를 사함				
401	이중 2	1. 瑞齒別皇子를 황태자로 삼음 10. 磐餘雉櫻宮을 조성. 平群菟木宿禰 등이 국사를 집권 11. 磐餘池를 만듦				
403	이중 4	8. 諸國에 書記官을 둠 10. 石上溝를 만듦			실성왕 2	
404	이중 5	3. 축자의 3신이 나타나 백성을 빼앗은 것을 나무람 9. 淡路道에서 수렵함. 飼部의 入墨 풍습의 폐지. 皇妃의 사망. 淡路道에서 귀환 10. 황비를 장사지냄				
405	이중 6	1. 藏織을 둠 2. 鯽魚磯別王의 두 딸을 嬪으로 들임 3. 천황의 사망 10. 천황을 장사지냄		전지왕 1		
406	반정 1	1. 천황의 즉위 10. 柴籬宮을 조영함				
410	반정 5	1. 천황의 사망				
411	윤공 1	2. 천황의 즉위				
412	윤공 2	2. 皇妃를 皇后로 추대. 刑部를 둠				
413	윤공 3	1. 신라에 사신을 보내 良醫를 구함 8. 신라의 양의가 천황의 병을 고침	장수왕 1			
414	윤공 4	9. 천황이 姓名을 바로 잡으라고 조를 내림 氏姓을 바로 잡기 위해 盟神探湯을 하도록 조를 내림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415	윤공 5	7. 지진이 일어남. 反正의 殯宮을 玉田宿禰에게 주재시킴 11. 瑞齒別天皇을 장사지냄				
417	윤공 7	12. 천황이 황후의 동생인 弟姬를 소환함. 황후가 자살함			눌지왕 2	
418	윤공 8	2. 천황이 藤原에 행행하여 衣通郎姬(제희)와 연가를 주고받음				
419	윤공 9	2. 茅渟宮으로 행차함 10. 茅渟으로 행차함				
420	윤공 10	1. 茅渟으로 행차함. 황후가 행행의 횟수를 줄이라고 간청함		구이신왕 1		武帝 永初 1 (宋)
421	윤공 11	3. 茅渟으로 행차함. 衣通郎姬를 위해 藤原部를 둠				
424	윤공 14	9. 淡路道로 수렵 나감				文帝 元嘉 1
433	윤공 23	3. 황태자 大梨輕皇子가 同母妹 輕大郎皇女와 밀통함		비유왕 7		
434	윤공 24	6. 輕大郎皇女가 유배됨				
452	윤공 42	1. 천황이 사망함. 新羅王이 조문사를 성대하게 파견함 10. 태자가 자살함 11. 新羅 조문사가 미숙한 일본어 때문에 오해를 받아 감금됨 12. 천황을 장사지냄. 安康의 즉위. 穴穗宮으로 천도				孝武帝 1
453	안강 1	2. 大草香皇子가 천황에게 살해됨				
454	안강 2	1. 황후를 세움				
455	안강 3	8. 천황이 眉輪王에게 살해당함. 3년 후에 장사지냄 10. 市邊押磐皇子가 살해당함. 御馬皇子가 처형당함 11. 웅략천황이 즉위함. 平群臣眞鳥를 大臣, 大伴練室屋·物部連目을 大連으로 임명함		개로왕 1		
457	웅략 1	3. 황후를 세움. 3명의 妃를 맞이함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458	웅략 2	7. 백제 池津媛이 石河楯과 밀통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화형에 처함 己巳年에 蓋鹵王이 適稽女郎을 바쳤다고 함(『백제신찬』) 10. 천황이 吉野宮으로 행차함			자비왕 1	
459	웅략 3	4. 廬城部連武彦이 살해당함				
460	웅략 4	8. 吉野宮으로 행차함				
461	웅략 5	4. 백제 개로왕이 동생 軍君을 자신의 임신한 부인과 함께 왜국으로 보냄 6. 개로왕의 부인이 筑紫 各羅島에서 島君을 낳음 7. 軍君이 京에 도착함 辛丑年에 琨支君이 선왕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함(『백제신찬』)				
462	웅략 6	2. 천황이 泊瀬의 들로 놀러감 4. 吳國이 사자를 보내 조공함				
463	웅략 7	7. 三諸岳의 신인 大蛇를 잡았으나 무서워 방사함 8. 吉備下道臣이 천황에게 저주를 품은 것이 알려져 숙청됨 • 吉備上道臣田狹을 任那國司로 임명함. 천황은 弟君 등에게 신라를 치라고 명을 내림. 今來才伎를 세 지역에 나누어 이주시킴				
464	웅략 8	2. 身狹村主青 등을 오국에 파견함. 신라가 조공해 오지 않은 것이 8년 됨. 신라는 고구려와 동맹을 맺었지만, 고구려가 신라를 칠 것이라는 것이 신라 측에 알려져 양국은 동맹이 깨짐. 신라는 임나왕에 사신을 보내 일본부에게 구원을 요청함. 膳臣 등이 고구려를 격퇴함				
465	웅략 9	2. 凡河內直香賜이 采女를 神域에서 간하자 천황이 처형하라고 명령함 3. 紀小弓宿禰 등에게 신라를 치도록 명령함. 大伴談連과 紀岡前來目連은 전사함. 紀小弓宿禰는 전장에서 病死함				明帝 泰始 1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5. 紀大磐宿禰 등의 암투. 小鹿火宿禰가 大伴大連에게 전권을 건네고 角國에 머무름 7. 田邊史伯孫이 應神天皇陵에서 埴輪馬를 만남				
466	웅략 10	9. 身狹村主靑이 吳國에서 귀환하면서 가져온 鵝鳥를 水間君의 개가 물어죽임 10. 水間君이 養鳥人을 헌상함				
467	웅략 11	5. 川瀨舍人을 둠 7. 백제국에서 吳國인 貴臣(吳의 琴彈壇手屋形麻呂의 조상)이 도망해 옴 10. 鳥飼部와 鳥養部를 둠				
468	웅략 12	4. 身狹村主靑 등을 吳에 파견함				
469	웅략 13	3. 齒田根命이 채녀를 범함 8. 播磨國의 포학한 人文石小麻呂를 小野臣大樹가 죽임				
470	웅략 14	1. 身狹村主靑 등이 오국에서 기술자(漢織·吳織·衣縫)들을 데리고 귀국함 吳國의 손님을 위해 길을 닦음(吳坂) 3. 吳人을 檜隈野에 거주시킴(吳原) 4. 吳人의 향응을 담당한 根使主(坂本臣의 조상)가 몸에 장식한 玉纓이 문제가 됨				
471	웅략 15	천황이 秦酒公에게 秦民을 하사함				
472	웅략 16	7. 뽕나무 심기에 적합한 國縣에 뽕나무를 심고 秦民을 이주시켜 庸·調를 헌상시킴 10. 韓部를 모아 伴造를 뽑고 直性을 내림				
473	웅략 17	3. 土師連에게 部民을 진상시킴				
474	웅략 18	8. 伊勢의 朝日郎을 토벌함. 物部菟代宿禰 휘하의 猪名部를 物部目連이 하사받음				
475	웅략 19	3. 穴穗部를 둠		문주왕 1		
476	웅략 20	백제의 한성이 멸망(『百濟記』)				
477	웅략 21	3. 천황이 久麻那利를 汶洲王에게 하사하여 개건하도록 함. 久麻那利를 末多王에게 주었다고 함(『일본구기』)		삼근왕 1		
478	웅략 22	1. 白髮皇子를 황태자로 삼음 7. 丹波國의 水江浦島子가 낚은 大龜가 여자로 변신하여 부인이 됨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479	웅략 23	4. 백제 文斤王이 죽자 천황은 末多王을 귀국시켜 왕위를 잇도록 함 • 백제의 調賦가 예년보다 많음. 축자군이 고구려를 공격함 7. 천황이 병이 듦 8. 천황이 사망함. 吉備臣尾代가 蝦夷를 토벌함		동성왕 1	소지왕 1	高帝 建元 1 (齊)
480	청녕 1	1. 청녕천황이 즉위함. 궁을 정함. 大伴室屋을 대련으로 삼고, 平群眞鳥를 대신으로 삼음 10. 대박뢰천황을 丹比高鷲原陵에서 장사지냄				
481	청녕 2	2. 白髮部舍人, 白髮部膳夫, 白髮部靫負를 둠 11. 市邊押磐皇子의 아들 億計와 弘計를 찾음				
482	청녕 3	1. 억계와 홍계가 攝津國에 도착함 4. 억계를 황태자로 삼음 9. 臣連을 보내어 풍속을 순시함 11. 신련에게 대정에서 연회를 베품. 諸蕃에게 사신을 보내어 조를 바치게 함				
483	청녕 4	1. 諸蕃의 사신에게 조당에서 연회를 개최함 8. 蝦夷와 隼人이 모두 복속함 9. 천황이 射殿에 나아감				武帝 永明 1
484	청녕 5	1. 천황이 사망함 11. 河內坂門原陵에서 장사지냄				
485	현종 1	1. 홍계천황이 즉위함. 難波小野王을 황후로 세움 3. 後苑에 행차하여 曲水의 연을 베품 5. 狹狹城山君 韓帒宿禰가 황자 押磐을 모살하려고 한 일에 연루됨 6. 避暑殿으로 행차하여 음악을 연주함				
486	현종 2	3. 後苑에 행차하여 曲水의 연을 엶 4. 억계를 황태자로 세움 9. 置目이 늙고 지쳐서 돌아가기를 청함				
487	현종 3	2. 阿閉臣事代를 임나로 파견함 3. 後苑에 행차하여 曲水의 연을 베품 4. 福草部를 바침. 천황이 사망함 • 紀生磐宿禰가 임나에 웅거하여, 고구려와 통교함. 임나의 左魯那奇他甲背 등의 계책을 써서 백제의 適莫爾解를 爾林에서 죽임. 백제가 古爾解와 莫古解 등을 보내 帶山을 공격. 좌로와 나기타갑배 등 3백여 인을 죽임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488	인현 1	1. 억계천이 즉위함 2. 春日大娘皇女를 황후로 세움 10. 홍계천황을 傍丘의 磐杯丘陵에 장사지냄				
489	인현 2	9. 難波小野皇后가 자살함				
490	인현 3	2. 石上部舍人을 둠				
491	인현 4	5. 的臣蚊嶋와 穗瓮君을 죽임				
492	인현 5	2. 국군에 흩어져 있는 佐伯部를 모으고, 佐伯部仲子의 후손을 佐伯造로 삼음	문자왕 1			
493	인현 6	9. 日鷹吉士를 고구려에 사신으로 보내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부름 • 일응길사는 고구려에서 돌아와서 기술자 須流枳와 奴流枳 등을 바침				
494	인현 7	1. 小泊瀨稚鷦鷯尊을 황태자로 세움				
498	인현 11	8. 천황이 사망함. 平群眞鳥, 鮪父子의 전횡을 정벌하고 즉위 10. 埴生坂本陵에 장사지냄 12. 大伴金村은 平群眞鳥臣을 죽이고 황태자에게 즉위를 권유하면서 수도를 정함				
499	무열 1	3. 春日娘子를 황후로 맞이함				
501	무열 3	11. 大伴室屋大連을 불러 信濃國의 男丁을 징발하여 성 모양의 水派邑을 만들라고 지시함. 백제의 意多郎이 죽어 高田丘上에 장사를 지냄		무령왕 1	지증왕 2	
502	무열 4	백제의 末多王(동성왕)이 사망함. 무령왕이 즉위함(『백제신찬』)				武帝 天監 1 (梁)
504	무열 6	9. 小泊瀨舍人을 둠 10. 백제가 麻那郡을 파견하여 조공함				
505	무열 7	4. 백제가 斯我君을 파견하여 조공함				
506	무열 8	12. 천황이 列城宮에서 사망함				
507	계체 1	1. 응신의 5세손 계체천황이 즉위함 2. 手白香皇女를 황후로 삼음 3. 天國排開廣庭尊(欽明)을 낳음. 8인의 妃를 맞이하고 황자녀를 낳음				
508	계체 2	10. 武烈天皇을 장사지냄 12. 耽羅가 처음으로 百濟國에 사신을 보냄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509	계체 3	2. 사신(久羅麻致支彌-『백제본기』)을 백제에 보내 임나현읍에 도망간 백제인을 돌려보냄				
511	계체 5	10. 山背의 筒城으로 천도함				
512	계체 6	4. 穗積臣押山을 百濟에 파견하여 筑紫國의 말 40필을 사여함 12.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任那 4縣을 요구함. 穗積臣押山과 大伴金村大連이 奏上함				
513	계체 7	6. 백제가 사신을 파견함(『백제본기』). 오경박사를 보내면서 伴跛國이 己汶을 빼앗은 것을 보고하고 본국에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함 8. 百濟太子 淳陀가 薨함 9. 勾大兄皇子가 春日皇女를 아내로 맞이함 11. 百濟, 斯羅, 安羅, 伴跛의 사신들을 불러 놓고 己汶·帶沙를 백제에게 사여함. 伴跛國이 사신을 파견하여 己汶을 요청함.				
514	계체 8	3. 伴跛가 일본에 대항하여 성을 쌓고 신라를 공격함			법흥왕 1	
515	계체 9	2. 百濟의 사신이 귀국하는 길에 物部連을 같이 보냄(『백제본기』). 物部連은 伴跛國을 공격하기 위해 帶沙江으로 진출하고 백제사신은 신라를 거쳐 귀국함 4. 物部連이 도망하여 汶慕羅에 정박				
516	계체 10	5. 百濟가 사신을 보내 物部連을 己汶에서 맞이하고 위로함 9. 百濟사신이 物部連과 함께 일본에 와서 己汶사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오경박사를 바침. 백제사신이 高麗사신과 함께 내조함				
518	계체 12	3. 弟國으로 천도함				
523	계체 17	5. 百濟王 武寧이 사망함	안장왕 5	성왕 1		
524	계체 18	1. 百濟太子 明이 즉위함				
526	계체 20	9. 磐余玉穗로 천도함. '一本'에는 7년이라고 함				
527	계체 21	6. 近江毛野臣이 신라에 멸망한 남가라 탁기탄을 부흥하고자 임나에 가고자 하였으나, 筑紫國造磐井의 반역에 실행하지 못함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8. 物部麁鹿火大連에게 磐井반란을 진압할 것을 명함				
528	계체 22	11. 物部大連이 磐井반란을 진압함 12. 筑紫國葛子가 사죄하고 曺屋屯倉을 헌상함				
529	계체 23	3. 백제왕이 穗積臣押山에게 백제의 조공항인 多沙津을 요구함. 物部伊勢連父根을 파견하여 백제왕에게 多沙津을 하사함. 加羅王은 반발하여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음. 가라와 신라는 복장문제 등으로 인해 동맹이 깨지고 신라가 加羅 8성을 함락시킴. 近江毛野臣을 安羅에 파견함. 안라가 高堂을 만들어 安羅國主 및 중신들은 올라갔으나 백제사신은 올라가지 못함 4. 任那王이 大伴大連金村에게 신라침략으로부터 구원요청함. 임나와 신라를 화해시키고자 近江毛野臣을 파견함. 신라 上臣의 반감을 사서 上臣이 임나 4村을 공략함 9. 許勢男人大臣이 사망함				
530	계체 24	9. 천황 毛野臣을 소환함. 任那王이 신라와 백제에 원병을 요청하여 毛野臣을 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신라와 백제에게 5성을 빼앗김 10. 調吉士가 任那에서 돌아와 毛野臣의 실정을 보고함 • 毛野臣은 소환 도중 대마도에서 죽음				
531	계체 25	2. 천황의 병세가 심해짐. 7일에 천황이 사망함. 安閑 즉위함. 大伴大連, 物部大連을 大連으로 삼음 12. 천황을 장사지냄. '或本'에는 천황 '28년 歲次甲寅'에 사망하였다고 하였으나 여기에서 '25년 歲次辛亥'에 사망하였다고 한 것은 『百濟本記』에 의한 것임을 밝힘. 『百濟本記』에는 '太歲辛亥 3月에 乞屯城에 조영한 것과 고려에서 王安이 살해되고, 일본의 天皇 및 太子皇子가 모두 薨去하였다고 전함. 이 辛亥年은 25년에 해당된다고 함	안원왕 1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534	안한 1	1. 大倭國 勾金橋로 천도함 3. 立后와 妃(許勢男人과 物部木蓮子의 딸들)를 들임 4. 伊甚國造가 屯倉을 헌상함 5. 百濟가 사신을 파견하여 공물과 상표문을 바침 7. 皇后의 이름을 屯倉에 남기기 위해 조를 내림 10. 皇后와 妃를 위해 屯倉을 설치함 12. 三島 行幸과 縣主飯粒이 영지를 헌상. 처음으로 部曲을 田部로 삼음. 廬城部連枳莒喩가 딸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 采女丁과 屯倉을 헌상함. 物部大連尾輿도 둔창을 헌상함. 武藏國造의 내분이 일어남. 조정이 笠原直使主를 國造로 임명하자 使主가 屯倉을 헌상함				
535	안한 2	4. 勾舍人部와 勾靫部를 둠 5. 筑紫를 비롯한 여러 곳에 둔창을 설치함 8. 각국에 犬養部를 둠 9. 屯倉의 稅를 관리. 소를 難波지역에 방목하도록 함 12. 천황의 사망. 河內에 장사지냄. 群臣이 宣化를 추대함				
536	선화 1	1. 檜隈廬入野로 천도함 2. 大伴金村과 物部麁鹿火를 大連으로, 蘇我稻目宿禰을 大臣, 阿倍大麻呂臣을 大夫로 임명함 5. 筑紫國의 那津에 官家를 정비함 7. 物部麁鹿火大連이 사망함				
537	선화 2	10. 任那가 신라의 침략을 받자 大伴金村大連의 자식인 磐과 狹手彦에게 任那를 돕도록 함				
539	선화 4	2. 천황이 사망함 11. 천황을 大和國에 장사지냄. 皇后의 사망 시기는 '傳記'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 12. 흠명천황이 즉위함. 大伴金村과 物部尾輿를 대련으로, 蘇我稻目宿禰는 대신으로 정함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540	흠명 1	2. 百濟人이 내조 3. 蝦夷와 隼人이 귀부함 7. 倭國 磯城郡으로 천도 8. 고구려·백제·신라·임나가 함께 조공함. 秦人·漢人을 國郡에 안치하고 호적에 등재 9. 難波祝津宮으로 행차함. 物部尾輿가 예전 임나 4현을 할양한 이 해 신라에게 원한을 샀는데 이것은 大伴金村大連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상함			진흥왕 1	
541	흠명 2	3. 5妃를 들여 22명의 황자녀를 둠(『帝王本紀』) 4. 聖明王이 任那日本府(吉備臣) 및 가야의 旱岐과 임나부흥에 대해서 논의함 7. 百濟는 安羅日本府가 신라와 밀통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자를 안라에 파견하여 임나부흥을 모의하는 한편 安羅日本府의 河內直을 강하게 비난함(『백제본기』)				
542	흠명 3	7.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임나부흥 정책을 奏上함				
543	흠명 4	4. 3년 秋7月에 온 백제사신이 귀국함 9.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扶南재물을 헌상함 11. 일본이 백제에 津守連을 파견해서 任那의 下韓에 있는 백제의 郡令 및 城主를 일본부에 속하도록 하고, 임나를 속히 부흥시키토록 조를 내림 12. 聖明王이 일본부의 河內直 등이 본국으로 소환되도록 백제 관인들과 협의함. 백제는 사신을 임나에 관인하여 일본부의 관인을 소집하였으나 불응				
544	흠명 5	1. 聖明王이 두 번째로 사신을 보내 임나의 집사와 일본부의 집사를 소집하였으나 또한 불응. 임나와 일본부가 신분이 낮은 자를 보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2. 백제가 임나에 사신을 파견. 백제는 임나가 멸망한 원인이 하내직에게 있다고 책망하고, 일본부경과 임나의 한기들에게 임나부흥협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무람(『백제본기』)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544	흠명 5	3.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친신라파인 移那斯·麻都와 일본부관인 的臣 등의 소환을 요청함(『백제본기』) 10. 백제사신이 귀국함(『백제본기』) 11. 백제가 사신 임나에 사신을 보내 임나부흥 계획을 세움 12. 越國 佐島에 肅愼人이 체류함				
545	흠명 6	3. 膳臣巴提便을 백제로 파견함 5.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상표문을 바침 9. 백제가 임나에 사신을 파견하여 吳의 재물을 일본부 및 한기들에게 줌 백제가 천황을 위해 불상을 만듦 11. 膳臣巴提便이 백제에 처자를 동행했는데 자식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힘 • 고구려에 대란이 일어남(『백제본기』)	양원왕 1			
546	흠명 7	1. 백제가 사신을 파견함 6. 백제가 사신을 파견함 7. 倭國 今來郡의 良馬 이야기 • 고구려에 대란이 일어남(『백제본기』)				
547	흠명 8	4.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원군을 요청함				
548	흠명 9	1. 백제사신이 귀국을 요청함 4.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부와 안라가 고구려를 끌어들여 백제를 치고자 하였다는 소문의 진위여부를 물음 6. 백제에 사신을 파견함 7. 백제 사신이 돌아감 10. 백제에 370명을 보내 得爾辛에 성을 쌓는 데 도움				
549	흠명 10	6. 백제 사신이 귀국을 요청함. 일본이 임나에 사신을 보내고자 함				
550	흠명 11	2. 백제에 사신을 파견하여 백제의 뜻을 천황은 이미 알고 있음을 말하고, 馬武를 대사로 파견할 것을 명령함(『백제본기』) 4. 백제에 있는 일본의 王人이 귀환(『백제본기』).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고구려 포로를 헌상함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551	흠명 12	3. 麥 종자를 백제왕에게 하사함 • 성명왕이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쳐서 한성을 획득하고 평양까지 공격함				
552	흠명 13	4. 箭田珠勝大兄皇子가 薨함 5. 백제·가라·안라가 사자를 파견해서 일본에 구원병을 청함(고구려와 신라가 통모) 10. 백제 성명왕은 怒唎斯致契를 파견하여 불상 등을 헌상함. 蘇我大臣稻目과 物部大連尾輿·中臣鎌子가 불교숭배 문제를 두고 대립함 • 백제가 한성과 평양을 버림. 신라가 한성을 점령함				
553	흠명 14	1.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병을 요청함. 백제사신(13년 5월에 입국)이 귀국함 5. 河內國의 바다에 法音이 울림. 바닷속에서 樟木을 찾아 불상을 만듦 6. 백제에 內臣을 파견하여 양마 등 무기를 하사함. 별도로 博士를 교대시키고 卜書와 曆本을 바치도록 조를 내림 7. 樟勾宮으로 행차함. 蘇我大臣稻目宿禰가 王辰爾를 보내 船賦를 기록시킴 8. 백제가 사신을 보내 상표함 10. 백제왕자 餘昌이 고구려를 공격함				
554	흠명 15	1. 황태자를 세움. 백제가 사신을 筑紫에 파견하여 內臣과 佐伯連에게 구원병의 상황을 물음 2.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원군을 요청함. 박사와 승려 등을 교대시킴 3. 백제사신(15년 춘정월)이 귀국함 5. 內臣이 백제로 파견됨 12. 백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상표문을 바침(聖明王의 사망 관련 사건과 餘昌이 축자군의 도움을 받은 내용)		위덕왕 1		
555	흠명 16	2. 백제왕자 餘昌이 왕자 惠를 파견하여 성명왕의 사망소식을 전함 7. 蘇我大臣稻目을 吉備에 보내 白猪屯倉을 설치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555	흠명 16	8. 餘昌이 출가하고자 하였으나 諸臣이 반대하자, 대신에 1백 인을 득도시킴				
556	흠명 17	1. 백제왕자 惠가 귀국함. 阿倍臣 등을 백제까지 호위군으로 붙여 보냄(『백제본기』에는 '筑紫君의 자식 火中君의 동생'이라고 기록) 7. 蘇我大臣稻目을 備前 兒島郡에 보내 둔창을 설치함 10. 蘇我大臣稻目을 倭國 高市郡에 보내 韓人大身狹屯倉과 高麗人小身狹屯倉을 설치함				
557	흠명 18	3. 威德王(여창)이 즉위함				武帝 永定 1 (陳)
560	흠명 21	9. 新羅가 사신을 파견하여 調賦를 헌상	평원왕 2			
561	흠명 22	1. 新羅가 사신을 파견함. 예전보다 향응의 횟수가 적어 신라사신이 화를 냄 • 新羅가 사신을 파견함. 百濟 조공사보다 뒤에 자리하게 된 것에 화가 한 신라사신이 귀국함. 신라가 일본에 대비해서 성을 쌓음				
562	흠명 23	1. 新羅가 任那官家를 멸망시킴 6. 馬飼首歌依가 참언에 고문당하다 죽음 7. 신라가 사신을 파견함. 임나를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紀男麻呂宿禰와 河邊臣瓊緖를 파견하여 문책함 8. 大伴連狹手彦을 보내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치도록 함. 狹手彦은 고구려의 궁성까지 공격하여 많은 보물을 가지고 돌아옴 11. 신라가 사신을 파견함. 신라사신은 귀국하지 않고 攝津國 三島郡에 머뭄				
565	흠명 26	5. 고려인이 來朝함. 山背國에 정주시킴				
567	흠명 28	홍수로 기아가 발생함				
568	흠명 29	황태자를 세움				
569	흠명 30	1. 白猪部의 호적을 조사하도록 함 4. 胆津이 白猪田部를 조사하고 그 공으로 白猪史姓을 하사받음				宣帝 太建 1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570	흠명 31	3. 蘇我大臣稻目이 사망함 4. 泊瀨柴籬宮으로 행차함. 越人江渟臣裙代가 고구려 사신이 표착한 사실을 보고함. 山城國 相樂郡에 사신를 위한 館을 세우도록 함. 東漢氏直糠兒와 葛城直難波를 보내 고구려 사신을 맞이함 5. 膳臣傾子를 越에 보내 고구려 사신을 접대함. 道君이 고구려 사신의 조를 가로챘지만 膳臣傾子의 파견으로 발각됨 7. 고구려 사신이 近江에 도착. 許勢臣猿과 吉士赤鳩가 고구려 사신을 맞이함. 東漢坂上直子麻呂와 錦部首大石을 파견하여 호위하도록 함				
571	흠명 32	3. 坂田耳子郎君을 신라에 파견하여 임나를 멸망한 이유를 물음 4. 천황이 병에 걸림. 신라를 쳐서 임나를 부흥시킬 것을 유언으로 남김. 천황이 사망함 5. 河內國 高市郡에 빈을 설치함 8. 신라가 조문사를 파견함. 신라조문사가 귀국함 9. 흠명천황을 장사지냄				
572	민달 1	4. 민달천황이 즉위함. 百濟大井에 궁을 조영. 物部弓削守屋大連을 대련, 蘇我馬子宿禰를 대신으로 삼음 5. 고구려가 表를 바쳤는데 船史의 시조인 왕진이만 해독함 6. 고구려 사신단의 대사와 부사가 갈등. 대사가 살해됨 7. 고구려 사신단이 귀국함				
573	민달 2	5. 고구려 사인이 越 해안에 도착함. 번번히 길을 헤매는 것을 의심하여 돌려보냄				
574	민달 3	5. 고구려 사인이 越 해안에 도착함 7. 고구려 사인이 왕경에 들어옴 10. 소아마자대신을 吉備國에 보내어 白猪屯倉과 田部를 증액하게 함. 선사 왕진이 아우 牛에게 津史 성을 내림 11. 신라가 사신을 보내 조를 바침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575	민달 4	1. 황후(廣姬)를 세움 2. 백제가 사신을 보내 조를 바침. 평소보다 많음 4. 吉士金子를 신라, 吉士木蓮子를 임나, 吉士譯語彦을 백제에 사신으로 각각 보냄 6. 신라가 사신을 보내 조를 바침. 아울러 多多羅·須奈羅·和陀·發鬼 4읍의 조도 바침 • 幸玉宮을 조영함 11. 황후가 사망함				
576	민달 5	3. 황후(豊御食炊屋姬尊)를 새로 세움			진지왕	
577	민달 6	2. 日祀部와 私部를 두도록 명령함 5. 大別王과 小黑吉士를 백제국에 보냄 11. 백제국왕이 돌아가는 사신 대별왕 등에게 經論 몇 권, 아울러 律師·禪師·比丘尼·呪禁師·造佛工·造寺工 6인을 바침			1	
578	민달 7	3. 菟道皇女와 池邊皇子가 간음함				
579	민달 8	10. 신라가 枳叱政 奈末을 보내어 조를 바치고, 불상을 보냄			진평왕	
580	민달 9	6. 신라가 安刀 나말과 失消 나말을 보내어 조를 바쳤는데 받지 않고 돌려보냄			1	
581	민달 10	2. 蝦夷 수천 명이 변경을 침범				文帝 開皇 1 (隋)
582	민달 11	10. 신라가 안도 나말과 실소 나말을 보내어 조를 바쳤는데 받지 않고 돌려보냄				
583	민달 12	7. 紀國造押勝과 吉備海部直羽嶋를 백제로 보내 日羅 귀국을 요구함 10. 기국조압승이 귀국함. 길비해부직우도를 백제로 보내 일라 귀국을 재차 요구함. 일라는 길비의 아도둔창에 도착. 대부 등을 난파관에 보내 일라를 방문하게 함 12. 일라가 살해당함				
584	민달 13	2. 難波吉士木蓮子를 신라에 사신으로 파견함 9. 鹿深臣이 백제로부터 彌勒石像 1구를 가져 옴. 佐伯連이 불상 1구를 가지고 옴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 蘇我馬子宿禰가 불상 2구를 얻고, 불전을 자책의 동쪽에 세워 안치함. 수행자 세 비구니(善信尼, 禪藏尼, 惠善尼)를 구함				
585	민달 14	2. 소아대신마자가 탑을 大野 북쪽에 세우고, 법회를 엶. 역병이 유행함 3. 物部弓削守屋大連과 中臣勝海大夫가 불법을 금할 것을 간언함. 불상과 불전을 태움. 포창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자 불상을 태운 죄로 여김 6. 소아마자가 새로운 정사를 지어 세 비구니를 맞이하고 공양함 8. 천황이 사망함 9. 용명천황 즉위. 磐余에 궁을 지음. 蘇我馬子宿禰를 대신, 物部弓削守屋連을 대련으로 삼음				
586	용명 1	1. 穴穗部間人皇女를 황후로 세움 5. 穴穗部皇子가 炊屋姬皇后를 범하려 했으나 三輪君逆에게 제지당하자 삼륜군역을 살해함				
587	용명 2	4. 반여의 강가에서 신상제를 지냄. 천황이 병이들어 불교에 귀의하고자 함. 이에 物部守屋大連, 中臣勝海連과 蘇我馬子宿禰大臣이 천황의 귀의를 둘러싸고 갈등. 천황이 사망함 6. 소아마자숙네가 황후를 세우고 혈수부황자와 택부황자를 살해함. 백제 사신이 옴 7. 소아마자숙네가 泊瀨部황자(후에 숭준천황), 廐戶황자와 함께 물부수옥대련을 살해함. 攝津國에 四天王寺를 세움. 소아대신이 飛鳥寺의 땅에 法興寺를 세움. 천황을 磐餘池上陵에 장사지냄 8. 倉梯에 궁을 지음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588	숭준 1	3. 大伴糠手連의 딸 小手子를 황후로 세움 • 백제국이 사신과 승려 惠總, 令斤, 惠寔 등을 보내어 불사리를 바침. 백제국이 은솔 首信 등을 보내어 불사리와 승려 聆照律師 등과 寺工 太良未太와 文賈古子, 노반박사 장덕 白昧淳, 와박사 麻奈文奴와 陽貴文, 悛貴文, 昔麻帝彌, 화공 白加를 바침. 소아마자숙녜가 선신니 등을 백제국의 사신 은솔 首信 등에게 딸려서, 학문을 배우도록 파견함. 처음으로 법흥사를 지음				
589	숭준 2	7. 하이와 접경한 지역을 살핌				
590	숭준 3	3. 학문니 선신 등이 백제로부터 귀국. 櫻井寺에 머물게 함 • 여성들을 출가시킴	영양왕 1			
591	숭준 4	4. 譯語田天皇(민달천황)을 磯長陵에 장사지냄 11. 임나부흥을 위해 紀男麻呂 등을 대장군으로 삼아 2만여 군을 축자에 보냄. 吉士金을 신라에, 吉士木蓮子을 임나에 사신으로 파견함				
592	숭준 5	10. 법흥사의 불당과 보랑을 만듦 11. 소아마자가 東漢直駒를 시켜 천황을 살해함. 천황을 倉梯岡陵에 장사지냄. 동한직구가 대신에게 살해됨 12. 황후가 豊浦宮에서 황위에 오름				
593	추고 1	1. 불사리를 법흥사 刹柱의 초석 가운데 안치함 4. 廐戶豊聰耳皇子를 황태자로 세움 9. 橘豐日天皇(용명천황)을 河內磯長에 장사지냄				
594	추고 2	2. 천황이 황태자와 대신에게 三寶를 흥륭시킴				
595	추고 3	4. 沈水가 淡路섬에 표착함 5. 고구려승 慧慈가 歸化함 • 백제의 승 慧聰이 건너 옴. 삼보의 동량이 됨				
596	추고 4	11. 법흥사가 완성됨. 혜자와 혜총 두 승려가 처음으로 법흥사에 거주함				
597	추고 5	4. 백제가 왕자 阿佐를 파견함 11. 吉士 磐金을 신라에 파견함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598	추고 6	4. 難波吉士 반금이 신라에서 귀국하여 까치 두 마리를 바침 8. 신라가 공작을 한 마리 바침 10. 越國이 흰 사슴 한 마리를 바침		혜왕 1		
599	추고 7	4. 지진이 일어남 9. 백제가 낙타 한 마리, 당나귀 한 마리, 양 두 마리, 흰 꿩 한 마리를 바침		법왕 1		
600	추고 8	2. 신라와 임나가 서로 싸웠다. 이에 천황이 境部臣과 穗積臣 군대를 파견하여 신라의 5성을 공략. 신라왕이 多多羅, 素奈羅, 弗知鬼, 委陀, 南迦羅, 阿羅羅 6성을 할양하고 항복을 청함		무왕 1		
601	추고 9	2. 황태자가 처음으로 궁전을 斑鳩에 세움 3. 大伴連囓를 고구려에 파견하고, 坂本臣糠手를 백제에 각각 파견하여 임나를 구하도록 함 5. 천황이 耳梨의 행궁에 머무름 9. 신라의 간첩 迦摩多가 대마도에 도착하였지만, 잡혀서 上野로 유배당함 11. 신라를 공격하기로 의논함				
602	추고 10	2. 來目皇子를 신라를 치는 장군으로 삼음 4. 내목황자가 筑紫에 도착함 6. 대반련설과 판본신강수가 함께 백제에서 도착함. 이때 내목황자가 병에 걸려 정벌하지 못함 10. 백제의 승려 觀勒이 건너와서 曆書, 천문지리의 서적과 아울러 둔갑, 방술의 서적을 바침. 書生 3~4명을 선발하여 관륵에게 배우도록 함. 고구려의 승려 僧隆, 雲聰이 함께 귀화함				
603	추고 11	2. 내목황자가 축자에서 사망함 4. 내목황자의 형 當摩皇子를 신라정토의 장군으로 삼음 10. 小墾田宮으로 천도함 11. 秦造河勝이 蜂岡寺를 세움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603	추고 11	12. 처음으로 冠位를 시행함. 大德, 小德, 大仁, 小仁, 大禮, 小禮, 大信, 小信, 大義, 小義, 大智, 小智 등 합하여 12계로 하고, 아울러 해당하는 색의 깁으로 관을 만듦				
604	추고 12	1. 처음으로 관위를 모든 신하에게 하사함 4. 황태자가 직접 헌법 17조를 만듦 9. 조정의 禮를 고침. 黃書畵師, 山背畵師를 정함				煬帝 1
605	추고 13	4. 구리와 비단의 장육불상 각각 1구를 만들기 시작함. 鞍作鳥를 공인으로 삼음. 고구려의 대흥왕이 일본국의 천황이 불상을 만든다는 말을 듣고 황금 3백 량을 보냄 10. 황태자가 斑鳩宮에 거주함				大業 1
606	추고 14	4. 구리와 비단의 장육불상을 함께 완성. 장육의 동상을 원흥사의 금당에 안치함 5. 안작조에게 大仁의 관위를 사여하고 近江國 坂田郡의 논 20정을 줌. 안작조가 금강사를 세움 7. 황태자에게 勝鬘經을 강연하도록 함. 황태자가 또한 法華經을 岡本宮에서 강연함				
607	추고 15	2. 壬生部를 정함 7. 小野臣妹子를 大唐에 파견함 • 왜국에 高市池, 藤原池, 肩岡池, 菅原池를 만듦. 山背國 栗隈에 큰 수로를 만듦. 河內國에는 戶苅池, 依網池을 만듦				
608	추고 16	4. 소야신매자가 대당에서 귀국. 대당의 사인 裴世淸과 하객 12명이 매자신을 따라서 축자에 도착 6. 객들이 난파진에 배로 도착. 中臣宮地連烏摩呂, 大河內直糠手, 船史王平을 掌客으로 삼음 8. 당객이 飛鳥에 들어옴. 이 날 향응함 9. 객들을 난파의 大郡에서 향응함. 당의 객인 배세청이 돌아감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609	추고 17	4. 백제 승려인 道欣과 惠彌를 우두머리로 한 10명과 70명의 속인들이 肥後國의 葦北나루에 표착함(吳國에 파견되던 중). 德摩呂와 船史龍을 파견하여 표착인들을 본국으로 보내줌 5. 표착인들 가운데 11명은 元興寺에 살게 함 9. 小野臣妹子 등이 대당에서 귀국함				
610	추고 18	3. 고구려왕이 승려 曇徵과 法定을 보냄. 담징은 五經을 알고, 또 채색과 종이, 묵을 만들고 맷돌을 만듦 7. 신라의 사인 沙喙部 나말 竹世士와 임나의 사인 喙部 大舍 首智買가 축자에 도착함 9. 사신을 파견하여 신라·임나의 사인을 부름 10. 額田部連比羅夫에게 명하여 신라 객을 영접하는 장식마의 장으로 삼고, 膳臣大伴을 임나 객을 영접하는 장식마의 장으로 삼음. 阿斗 강변에 있는 숙사에 쉬게 함				
611	추고 19	5. 천황이 菟田野에서 사냥을 함 8. 신라는 사탁부 나말 北叱智를, 임나는 習部 大舍 親智周智를 파견하여 함께 조공함				
612	추고 20	1. 群卿을 불러 주연을 베풂 2. 황태부인 堅鹽媛을 檜隈의 대릉에 改葬함 • 백제국에서 귀화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얼굴과 몸에 모두 흰 반점이 있음. 路子工이라 하며 順彌山 모양과 吳橋를 南庭에 만들도록 함. 또 백제인 味摩가 귀화함. 櫻井에 살도록 하고 소년을 모아서 기악의 춤을 배우게 함				
613	추고 21	11. 掖上池, 畝傍池, 和珥池를 만듦				
614	추고 22	5. 천황이 사냥을 함 6. 犬上君御田鍬와 矢田部造을 대당에 파견함 8. 대신이 병에 걸려 남녀 1천 명을 출가시킴				
615	추고 23	9. 견상군어전초와 시전부조가 대당에서 귀국. 백제 사자도 견상군을 따라 내조함 11. 백제의 객을 향응함. 고구려의 승려 혜자가 귀국함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616	추고 24	1. 복숭아와 오얏이 열매를 맺음 3. 掖玖人 3인이 귀화함 5. 夜勾人 7인이 옴 7. 액구인 20인이 옴. 신라가 나말 竹世士를 파견하여 불상을 바침				
617	추고 25	이 해에 오곡이 풍년				
618	추고 26	8.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하고 방물을 바치면서 수나라 양제가 침략했으나 물리친 사실을 전함	영류왕 1			高祖 武德 1 (唐)
619	추고 27	4. 近江國과 攝津國에서 사람과 같은 형상을 한 물건과 물고기가 발견됨				
620	추고 28	8. 액구인 2명이 伊豆嶋에 옴 10. 자갈을 檜隈陵 위에 덮음 • 황태자와 嶋大臣이 함께 의논하여, 『天皇記』 및 『國記』, 신·연·반조·국조 180부와 아울러 공민 등의 本記를 기록함				
621	추고 29	2. 廐戶豊聰耳皇子命이 斑鳩宮에서 사망함 • 신라가 나말 伊彌買를 파견하여 조공함. 신라가 상표문을 올리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됨				
623	추고 31	7. 신라가 대사 나말 智洗爾를, 임나가 達率 奈末 智를 파견하여 함께 내조하여 불상 1구 및 금탑과 사리를 바침. 또 큰 觀頂幡 1구와 작은 번 12개를 바침. 불상은 葛野의 秦寺에 안치시킴. 그 외 사리·금탑· 관정번 등은 모두 四天王寺에 봉납함. 이때 대당에 있던 학문승 惠齊·惠光 및 醫 惠日·福因 등이 智洗爾를 따라 귀국함 • 신라가 임나를 토벌함. 천황이 신라를 토벌하려고 대신들과 의논하여 吉士磐金을 신라에 파견하고, 길사 倉下를 임나에 파견하여 임나의 일을 묻도록 함 11. 반금과 창하 등이 신라에서 귀국함				
624	추고 32	4. 한 승려가 도끼로 조부를 때림. 관륵을 승정으로 하고, 鞍部德積을 승도로 삼음. 阿曇連을 법두로 삼음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9. 사찰과 승니를 조사하고, 그 사찰을 만든 이유나 승니의 입도 연유, 득도 연월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함. 이때 사찰은 46개소, 비구승 816인, 비구니 569인				
625	추고 33	1. 고구려왕이 승 惠灌을 보냄. 승정이 됨				
626	추고 34	5. 대신이 사망함. 桃原墓에 장사지냄 • 장마가 계속되어 기근이 심함				太宗 1
627	추고 35	2. 陸奧國에서 담비가 사람으로 변함				貞觀 1
628	추고 36	2. 천황이 병에 걸림 3. 일식이 있음. 천황이 사망함. 南庭에 빈궁을 지음 9. 천황의 장례를 치름. 유언대로 죽전황자의 능에 장사지냄. 대신인 蘇我蝦夷臣을 중심으로 후계 논의(田村皇子, 山背大兄王)				
629	서명 1	1. 대신 및 군경이 천황의 옥새를 전촌황자에 헌상함 4. 田部連을 掖久에 보냄				
630	서명 2	1. 寶皇女를 황후로 세움 3. 고구려의 대사 宴子拔과 소사 若德, 그리고 백제의 대사 은솔 素子와 소사 덕솔 武德 등이 함께 조공함 8. 犬上君三田耜와 대인 藥師惠日을 대당에 보냄. 고구려와 백제의 사신을 조정에서 향응함 9. 고구려와 백제의 사신이 귀국함 10. 천황이 飛鳥岡 근처 岡本宮으로 옮김 • 難波大郡 및 三韓館을 수리함				
631	서명 3	2. 掖玖人이 귀화함 3. 백제 의자왕의 왕자 豊章을 인질로 보냄 9. 천황이 津國의 有間溫泉으로 행차함				
632	서명 4	8. 대당이 高表仁을 파견하여 三田耜를 귀국시킴. 이때 학문승 靈雲과 僧旻, 勝鳥養, 신라의 송사들이 따라옴 10. 당국의 사신 고표인 등이 난파진에 정박함. 難波吉士小槻와 大河內直矢伏를 안내자로 삼음			선덕 여왕 1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633	서명 5	1. 대당의 고표인 등이 귀국함				
634	서명 6	8. 혜성이 남쪽에 나타남				
635	서명 7	3. 혜성이 돌아서 동쪽에 나타남 6. 백제가 달솔 柔 등을 보내 조공함 7. 백제의 사신을 조정에서 향응함				
636	서명 8	1. 일식이 있었음 3. 궁녀를 범한 자를 조사하여 모두 처벌함 5. 장마가 내려 홍수가 남 6. 강본궁에 화재가 발생함. 천황이 田中宮으로 옮김 • 이 해에 가뭄으로 기근이 발생함				
637	서명 9	2. 큰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감 3. 일식이 있었음 • 蝦夷가 배반하여 조공하지 않음. 대인 上毛野君形名을 장군으로 삼아 토벌하게 함				
638	서명 10	7. 큰 바람이 불어 나무를 부러뜨리고 집을 부숨 10. 유간온탕궁으로 행차함 • 백제, 신라, 임나가 함께 조공함				
639	서명 11	1. 新嘗의 의식을 행함 7. 백제천 옆을 궁터로 삼아 서쪽의 백성은 궁을 짓고, 동쪽의 백성은 절을 지음. 書直縣을 大匠으로 삼음 9. 대당의 학문승 惠隱과 惠雲이 신라의 송사를 따라 입경함 11. 신라의 사신을 조정에서 향응함 12. 伊豫의 온탕궁으로 행차함				
640	서명 12	2. 별이 달 안으로 들어감 5. 대규모로 設齋를 행함. 승려 혜은에게 무량수경을 강설하도록 함 10. 대당에서 학문승 淸安과 학생 高向漢人玄理가 신라를 경유하여 귀국함. 백제와 신라의 조공사가 함께 따라옴 • 천황이 백제궁으로 옮김				
641	서명 13	10. 천황이 백제궁에서 사망함. 궁의 북쪽에 빈궁(백제의 大殯)을 설치함		의자왕 1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642	황극 1	1. 황후가 천황으로 즉위함. 蘇我臣蝦夷를 대신으로 삼음. 백제 조문사가 축자국에 도착 2. 阿曇山背連比羅夫 등을 백제의 조사가 있는 곳에 보냄. 백제조사의 僚人들이 大佐平 智積과 국왕의 어머니의 죽음, 翹岐 등이 섬으로 추방된 사실을 알림. 고구려 사인이 難波津에 머뭄. 고구려의 사인이 개소문이 대왕 등을 죽인 사실을 전함. 고구려, 백제의 객을 난파군에서 향응. 고구려, 백제의 사신이 함께 귀국함 3. 신라가 賀騰極使와 弔喪使를 파견함 4. 대사인 교기가 종자를 데리고 천황을 배알함 5. 백제 조문사가 난파진에 도착함. 교기의 아들이 죽음. 교기가 百濟大井으로 이사함 6. 크게 가뭄 7. 大寺의 남쪽 광장에 부처와 보살상과 사천왕상을 안치함 8. 백제사신 참이 귀국. 고구려의 사인이 귀국 9. 越 지역 변경의 하이 수천 명이 귀복함 10. 신라 조사의 배와 하등극사가 壹岐嶋에 머뭄 11. 천황이 신상제를 행함 12. 息長足日廣額을 滑谷岡에 장사지냄. 미리 雙墓를 今來에 만듦	보장왕 1			
643	황극 2	3. 난파의 백제 객인을 위한 館堂과 백성의 가옥에 화재가 일어남 4. 교기와 사신이 함께 축자국에 도착함. 權宮에서 飛鳥板蓋新宮으로 이사함 5. 월식이 있었음 6. 고구려 사신이 도착함 7. 대부를 난파군에 파견하여 백제의 조와 헌상물을 점검시킴 9. 息長足日廣額天皇을 押坂陵에 장사지냄. 황조모명을 檀弓岡에 장사지냄 10. 신하들에게 朝堂에서 향응하고 물건을 내림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643	황극 2	11. 소아신입록이 斑鳩의 山背大兄王을 엄습함. 산배대형 일족이 자살함. 백제의 태자 餘豊이 꿀벌을 사육하였으나 번식시키지 못함				
644	황극 3	1. 中臣鎌子連을 神祇伯으로 임명함 6. 대반마사련이 나리꽃을 헌상함 7. 東國에서 常世神 신앙이 유행함. 秦造河勝이 이것을 진압함 11. 소아대신 부자가 甘檮岡에 집을 세움				
645	효덕 1 (大化 1)	4. 고구려에 파견한 학문승들이 고구려가 鞍作得志를 독살했다고 전함 6. 中大兄, 中臣鎌足 등이 궁중에서 소아입록을 암살함. 소아하이가 天皇記, 國記 및 珍寶를 불태우고 자살함. 輕皇子가 즉위하고 중대형을 황태자로 삼음. 阿倍內摩呂臣을 좌대신으로, 蘇我倉山田石川麻呂臣을 우대신으로 삼음. 중신겸자련을 內臣으로 삼음 7. 間人皇女를 황후로 삼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함께 사신을 파견하여 조를 바침 8. 東國 등의 국사에게 호구조사, 校田을 명함. 鐘匱의 制를 제정함. 남녀의 법을 정하고 양민·노비의 자식 귀속을 정함 9. 吉野에 있던 古人大兄이 모반하여 살해당함 12. 都를 難波長柄豊碕로 옮김				
646	효덕 2 (大化 2)	1. 改新의 詔를 선포함. 천황이 子代離宮으로 행차하여 郡國에 무기고를 지으라고 명함 2. 고구려, 백제, 임나, 신라가 나란히 사신을 보내 조부를 바침 3. 東國 國司의 政績을 평가함. 官司의 屯田을 폐지함. 중대형이 入部와 둔창을 헌납함 8. 品部의 폐지, 官位制·男身의 調의 制를 명함 9. 任那의 調 조공을 폐지함. 천황이 蝦蟆行宮으로 행차함 • 월국의 쥐가 주야로 동쪽으로 옮겨 감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647	효덕 3 (大化 3)	1. 고구려,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조부를 바침 4. 다시 품부의 폐지를 명함 10. 천황이 유간온탕으로 행차함 12. 황태자의 궁이 소실됨 • 7色 13階의 관위를 제정함. 渟足柵을 축조함 • 신라가 上臣 대아찬 김춘추 등을 파견함(質)			진덕 여왕 1	
648	효덕 4 (大化 4)	2. 三韓에 학문승을 파견함 4. 古冠을 폐지하고 새로운 官位를 실시함 • 磐舟柵을 축조함				
649	효덕 5 (大化 5)	2. 관위 19계를 제정. 官司를 둠 3. 아배대신이 죽음. 천황이 주작문에 나가서 애도 의식을 거행함. 蘇我倉山田石川麻呂臣이 모반을 의심받고 山田寺에서 자살함. 소아창산전석천마려의 재산을 몰수함 4. 巨勢德陀古臣을 좌대신으로, 大伴長德連을 우대신으로 삼음 5. 三輪君色夫 등을 신라에 파견함 • 신라왕이 沙喙部 沙飡 金多遂를 보내 질로 삼음				高宗 1
650	효덕 6 (白雉 1)	1. 味經宮으로 행차함 2. 穴戶國으로부터 白雉를 헌상받고 改元함 4.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조를 바침 10. 장육의 繡像, 俠侍, 八部 등 三十六像을 만듦 • 漢山口直大口가 명을 받들어 千佛像을 만듦. 倭漢直縣 등을 安藝國에 파견하여 百濟船 2척을 건조하도록 함.				永徽 1
651	효덕 7 (白雉 2)	6. 백제와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고 물건을 바침 12. 미경궁에 2천1백여 명의 승니를 초청하여, 一切經을 읽도록 함. 難波長柄豊碕宮으로 옮김 • 신라의 知萬沙飡 등이 당나라 복장을 하고, 筑紫에 정박함. 마음대로 복제를 바꾼 것을 불쾌히 생각하여 책망하며 쫓아 보냄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652	효덕 8 (白雉 3)	1. 元日의 의식을 마치고 천황이 大郡宮으로 행차함 3. 천황이 궁으로 돌아옴 4. 승려 惠隱을 불러 無量壽經을 강의하도록 함 9. 호적을 작성함 12. 천하의 승니를 內裏로 불러 법회를 열어 공양함				
653	효덕 9 (白雉 4)	5. 견당사 吉士長丹과 高田首根麻呂 등을 임명함 6. 백제와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고 물건을 바침 7. 견당사 高田首根麻呂 배의 좌초하여 모두 죽음				
654	효덕 10 (白雉 5)	1. 밤에 쥐가 도읍으로 향함 2. 高向玄理 등을 견당사로 임명함 4. 吐火羅國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 日向에 표착함 7. 吉士長丹 등이 백제, 신라의 송사와 함께 축자에 도착함 10. 천황이 사망함. 南庭에 빈소를 세움. 황후가 천황으로 즉위함 12. 大坂磯長陵에 장사지냄 •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사신을 보내 조문함			무열왕 1	
655	제명 1	1. 제명천황이 즉위함 7. 하이에게 향응을 베품 8. 河邊臣麻呂 등이 당에서 돌아옴 10. 飛鳥板蓋宮에 화재가 나 飛鳥川原宮으로 옮김 •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조를 바침. 하이와 隼人이 복속함. 신라가 특사 彌武를 질로 파견함				
656	제명 2	8. 고구려가 達沙 등을 파견하여 조를 바침 9. 고구려에 大使 膳臣葉積 등을 파견함 • 飛鳥의 岡本에 새로 궁전(後飛鳥岡本宮) 지을 터를 정함.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사신을 파견하여 조를 바침. 西海使 佐伯連栲縄 등이 백제에서 돌아옴. 岡本宮에 화재가 발생함				顯慶 1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657	제명 3	7. 覩貨邏國 사람들이 筑紫에 표착함 •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승려 智達 등을 신라의 견당사와 함께 당에 파견하려 하였으나 신라가 이를 거절함				
658	제명 4	1. 좌대신 巨勢德太臣이 사망함 4. 阿陪臣 하이를 침 5. 建王이 8세의 나이로 사망함 7. 하이 2백여 명이 입조하여 물건을 바침. 승려 智通 등이 신라의 배를 타고 당에 건너감 10. 천황이 紀溫湯으로 행차함 11. 蘇我赤兄臣의 배반으로 有間황자가 처형됨 • 越國守 阿部引田臣比羅夫가 肅愼을 침				
659	제명 5	3. 吉野에 행차하여 향연을 베품 7. 坂合部連石布 등이 견당사로 임명되어 파견됨. 견당사의 여정, 황제와 나눈 대화내용 등이 기록됨(『이길련박덕서』, 『난파길사남인서』)				
660	제명 6	1. 고구려의 사신 乙相 賀取文 등 1백여 명이 축자에 정박함 3. 阿倍臣을 보내 숙신국을 치게 함 5. 고구려의 하취문 등이 난파관에 도착. 황태자가 처음으로 물시계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줌. 阿倍引田臣이 하이 50여 명을 바침 7. 고구려의 사신 하취문 귀국함. 도화라인 乾豆波斯達阿가 본토로 돌아가기를 원함. 백제의 멸망사실이 전해짐(『일본세기』, 『이길련박덕서』) 9. 백제가 달솔 사미각종 등을 파견하여 백제의 멸망과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함 10. 귀실복신이 좌평 귀지 등을 보내어 당의 포로를 바치며, 구원군 파견을 요청함. 아울러 餘豊璋의 귀국을 요청함 12. 천황이 난파궁으로 행차함. 천황이 축자에 행차하여 여러 무기를 준비하도록 함 • 백제를 위해 신라를 정벌하고자 駿河國에 배를 만들도록 명함		백제 멸망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신라	중국
661	제명 7	1. 천황이 탄 배가 伊豫의 熟田津의 石湯行宮에 정박함 3. 娜大津에 도착하여 磐瀨行宮에 머무름 4. 백제의 복신이 왕자 糺解를 요청함(『일본세기』) 5. 천황이 朝倉橘廣庭宮으로 거처를 옮김. 탐라가 처음으로 왕자 阿波伎 등을 보내 공물을 바침(『이길련박덕서』) 6. 伊勢王이 사망함 7. 천황이 조창궁에서 사망함. 蘇將軍과 突厥의 왕자 契苾加力들이 고구려를 공격함. 황태자는 長津宮으로 옮겨 거주함 8. 前將軍 大花下 阿曇比邏夫連 등을 백제에 보내 구하도록 함 9. 大山下 狹井連檳榔 등에게 풍장이 본국에 돌아가는 길을 호위하도록 함. 풍장과 복신이 만남 10. 천황의 관을 배에 싣고 출항함 11. 천황의 관을 飛鳥川原에 안치함. 복신이 포로로 잡은 당인 續守言 등이 축자에 도착함(『일본세기』) 12. 고구려가 당군의 군세가 약화됨을 알려 옴 • 播磨國司 岸田臣麻呂 등이 보검을 헌상함		문무왕 1	龍朔 1
662	천지 1	1. 백제 좌평 鬼室福信에게 화살 십만 척 등을 보냄 3. 당인과 신라인이 고구려를 공격하자, 고구려가 왜국에 구원을 요청함 4. 쥐가 말의 꼬리에 새끼를 낳음 5. 大錦中 阿曇比邏夫連 등이 수군 170척을 이끌고 풍장 등을 백제국에 보내줌 6. 백제가 달솔 萬智 등을 보내 조를 바침 12. 백제왕 풍장과 복신 등이 朴市田來津의 간언을 듣지 않고 피성에 주둔함 • 백제를 구하기 위하여 무기를 수선하고 선박을 구비하여 군사의 식량을 비축함			
663	천지 2	2. 백제가 달솔 金受 등을 보냄. 신라인이 백제 남부의 四州를 불태우고, 安德을 빼앗음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신라	중국
		3. 전장군 上毛野君稚子와 間人連大蓋, 중장군 巨勢神前臣譯語와 三輪君根麻呂, 후군 장군 阿倍引田臣比邏夫와 大宅臣鎌柄을 보내, 2만 7천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돕도록 함 5. 犬上君이 고구려에 백제구원군 파견사실을 알리고 돌아옴 6. 上毛野君稚子 등이 신라의 沙鼻와 岐奴江 두 성을 빼앗음 8. 풍장이 白村에서 일본군을 기다림. 賊將이 州柔城을 포위함. 大唐의 수군과 첫 전투를 펼쳤으나 패배함(박시전래진 전사). 풍장이 고구려로 도망감 9. 백제의 주유성이 당에 항복함			
664	천지 3	2. 관위의 階名을 늘리고 바꿈(관위 26계). 氏上, 民部, 家部들의 일을 공포 3. 百濟王 善光王 등을 難波에서 살도록 함 5. 百濟鎭將 劉仁願이 郭務悰 등을 보냄. 蘇我連大臣이 죽음 6. 島皇祖母命이 죽음 10. 고구려 대신 蓋金이 죽음 12. 곽무종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감 • 對馬島, 壹岐島, 筑紫國 등에 防과 봉화를 둠. 축자에 큰 제방을 만들고 물을 가둠(水城)			麟德 1
665	천지 4	2. 間人大后가 사망함. 鬼室集斯에게 小錦下를 사여하고, 백제 남녀 4백여 인을 近江國 神前郡에서 살도록 함 3. 간인대후를 위하여 330인을 출가시킴 8. 달솔 答炑春初를 長門國에 보내 성을 쌓도록 함. 달솔 億禮福留, 四比福夫를 축자국에 보내 大野 및 椽의 두 성을 쌓도록 함. 耽羅가 사신을 보냄 9. 당이 劉德高 등을 보냄 10. 菟道에서 성대하게 열병함 11. 유덕고 등을 향응함 12. 유덕고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감 • 守君大石 등을 당에 파견함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고구려	신라	중국
666	천지 5	1. 고구려가 前部能婁 등을 보냄. 이 날에 耽羅가 왕자 姑如 등을 보냄 3. 황태자가 佐伯子麻呂連의 병문안을 감 6. 고구려의 전부능루 등이 귀국함 7. 홍수가 있어 조세를 면제함 10. 고구려가 乙相 奄鄒 등을 보냄 • 京都의 쥐들이 近江으로 옮겨감. 백제 남녀 2천여 인을 東國에서 살도록 함			乾封 1
667	천지 6	2. 천풍재중일족희천황과 간인황녀를 小市岡上陵에 합장함 3. 도읍을 近江으로 옮김 6. 葛野郡에서 흰 제비를 바침 7. 耽羅가 좌평 椽磨 등을 보냄 10. 고구려 연개소문 자식들 간에 분쟁이 일어남. 남생이 당에 항복함 11. 劉仁願이 法聰을 보내 境部連石積 등을 축자로 돌려보냄. 왜국의 高安城, 讚吉國 屋島城과 대마국의 金田城을 쌓음			
668	천지 7	1. 황태자가 천황으로 즉위함 2. 古人大兄皇子의 딸 倭姬王을 황후로 맞이함 4. 백제가 末都師父 등을 보냄 5. 천황이 蒲生野에서 사냥함 6. 伊勢王과 그 동생이 연이어 죽음 7. 고구려가 사신을 보냄 9. 신라가 사탁 급찬 金東嚴 등을 보냄 10. 고구려가 멸망함 11. 김동엄이 귀국함(신라왕에게 비단 50필, 솜 5백 근 등을 줌) • 사문 道行이 草薙劍을 훔쳐 신라로 도망하려 함	고구려 멸망		總章 1
669	천지 8	1. 蘇我赤兄臣을 筑紫率에 임명함 3. 탐라가 세자 久麻伎 등을 보냄 5. 천황이 山科野에서 사냥함 9. 신라가 사찬 督儒 등을 보냄 10. 藤原內大臣이 사망함(『일본세기』) 12. 大藏에 화재가 일어남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신라	중국
		• 좌평 餘自信, 鬼室集斯 등 남녀 7백여 인을 近江國의 蒲生郡으로 옮겨 살도록 함. 당이 郭務悰 등 2천여 인을 보냄		
670	천지 9	1. 궁문 안에서 大射會를 실시함 2. 호적을 만들고, 도적과 부랑을 단속함 4. 法隆寺에 화재가 발생함 9. 阿曇連頰垂를 신라에 보냄 • 물레방아를 만들어 야금을 함		咸亨 1
671	천지 10	1. 大友皇子를 太政大臣으로 임명하고, 소아적형신을 좌대신으로 임명함. 관위, 제도를 시행함(근강령). 좌평 余自信, 沙宅紹明 등 망명백제관인들에게 관위를 하사함 2. 백제가 臺久用善을 보냄 3. 黃書造本實이 水臬을 바침 4. 물시계를 새롭게 설치함 6. 백제가 翌眞子 등을 보냄 7. 당의 이수진들과 백제의 사신들이 귀국함 8. 고구려의 상부 대상 가루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감 10. 신라가 사찬 金萬物을 보냄 11. 對馬國司 筑紫大宰府에 사신을 보내 보고함. 근강궁에 화재가 발생함 12. 천황이 근강궁에서 사망함. 신라의 사신 사찬 김만물이 귀국함		
672	천무 1	3. 阿曇連稻敷를 축자에 보내어 천황의 상을 郭務悰 등에게 알림 5. 곽무종 일행이 귀국함 6. 大海人皇子가 吉野를 탈출하여 東國으로 감. 近江에서 高市皇子, 大津皇子와 합류함. 壬申의 亂이 일어남 7. 대해인황자 군이 美濃으로부터 近江, 大和로 진격함. 大伴氏도 호응하여 대화에서 전투를 치름. 근강군이 대패함. 大友皇子가 자살함 8. 중신을 처형, 유배보냄 9. 대해인황자가 伊勢를 거쳐 飛鳥의 岡本宮으로 들어감. 飛鳥淨御原宮으로 옮김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신라	중국
672	천무 1	11. 신라의 사신 金押實 등을 축자에서 향응함 12. 여러 공훈이 있는 자를 뽑아 관위를 올려줌		
673	천무 2	1. 군신들에게 연회를 베품 2. 대해인황자가 飛鳥淨御原宮에서 즉위함. 菟野皇女를 황후로 세움 3. 備後國司가 龜石郡에서 잡은 白雉를 바침. 천하에 대사면을 행함. 一切經을 川原寺에서 필사함 5. 관인등용법을 정함 6. 백제의 沙宅昭明이 사망함. 耽羅가 왕자 久麻藝 등을 파견함. 신라가 韓阿湌 金承元 등을 보내 즉위를 축하함. 아울러 一吉湌 金薩儒 등을 보내 천지천황의 상을 조문하도록 함 8. 고구려가 上部 位頭大兄 邯子와 前部 大兄 碩干 등을 보냄. 신라가 金利益을 보내 고구려의 사신을 축자까지 안내함 9. 難波에서 김승원 등에게 향응을 베품 11. 김승원 일행이 귀국함. 고구려의 감자와 신라의 살유 등을 축자에서 향응함 12. 大嘗과 관련된 中臣과 神官 등에게 녹을 하사함		
674	천무 3	1. 백제왕 昌成이 사망함 2. 紀臣阿閉麻呂가 사망함 3. 對馬에서 은이 산출됨 8. 忍壁皇子에게 석상신궁의 신보를 정비시킴. 神庫에 보관되어 있는 여러 씨족의 보물을 그 자손들에게 돌려줌		上元 1
675	천무 4	1. 大學寮, 墮羅 등의 여성, 백제왕 善光, 신라의 仕丁 등이 약물 및 진기한 물건을 바침. 황자 이하 모든 백관들이 배례함. 처음으로 占星臺를 세움 2. 664년 씨족들에게 내린 부곡을 폐지함. 王臣, 諸寺에 내린 산과 섬, 항구, 연못 등을 환수함 3. 고구려가 大兄 富干과 多武 등을 보냄. 신라가 급찬 朴勤修 등을 보냄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신라	중국
		4. 僧尼 2천4백여 명을 불러 齋會를 개최함. 出擧 대상을 백성 가운데 中·下戶로 한정함. 살생을 금지함. 신라의 왕자 忠元이 難波에 도착함 6. 大分君惠尺이 사망함 7. 大伴連國麻呂 등을 신라에 보냄 8. 탐라의 왕자 久麻伎가 축자에 도착함 9. 탐라왕 姑女가 난파에 도착함 10. 사신을 사방으로 보내 일체경을 구함. 諸王, 관위자에게 무기를 갖추도록 함 11. 큰 지진이 일어남		
676	천무 5	1. 國司임용 위계를 규정함 2. 탐라의 사신에게 배 한 척을 줌. 이 달에 대반련국마려 등이 신라에서 돌아옴 4. 西國에 있는 왕신의 봉호를 東國으로 변경함. 畿外의 호족과 재능있는 백성에게 임관의 길을 열어줌 6. 율외왕과 物部雄君連이 사망함 7. 경대부 및 모든 백관들에게 작위를 올려줌 8. 大祓 때 國造가 바치는 물품을 정함 9. 王京 및 畿內의 무기를 조사함 10. 物部連麻呂 등을 신라로 보냄 11. 신라가 사찬 金清平, 급찬 金好儒 등을 보냄. 사자를 諸國에 보내어 금광명경과 인왕경을 강설하도록 함. 고구려가 後部 主簿 阿于 등을 보냄		儀鳳 1
677	천무 6	2. 물부련마려가 신라에서 돌아옴 5. 大博士 백제인 率母에게 大山下의 관위를 하사함 6. 東漢直의 죄상을 밝혀 질책하였지만 용서함 8. 飛鳥寺에서 設齋를 함. 친왕, 제왕 및 군경에게 1인씩 출가시키는 것을 허락함 9. 본관지로부터 재차 도망해 온 부랑자에게 본관지와 부랑지 모두에서 과역을 과함 10. 河邊臣百枝를 民部卿으로 삼음 11. 천하에 대사면을 내리고, 신상을 실시함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신라	중국
678	천무 7	4. 十市皇女가 사망함 9. 稚狹王이 사망함 10. 문무관인의 성적에 의거해 위계승진의 제도를 정함 • 신라의 奈末 加良井山과 金紅世가 축자에 도착함(도중 풍랑을 만나 사신 일부가 행방불명된 것을 알림)		
679	천무 8	2. 고구려가 上部大相 桓父 등을 보냄 4. 諸寺의 이름을 정함 5. 吉野宮으로 행차함 7. 葛城王이 사망함 8. 여러 씨족에게 여인을 공상하도록 함. 大宅王이 사망함 9. 신라, 고구려, 탐라에 보낸 사신들이 귀국하여 보고함 10. 신라가 아찬 金項那 등을 보냄 11. 龍田山, 大坂山에 關을 두고 難波에 羅城을 쌓음		調露 1
680	천무 9	4. 나라의 大寺(官寺)를 정함. 諸寺의 식봉을 30년으로 한정함		永隆 1
681	천무 10	2. 律令 편찬을 개시함. 草壁皇子를 태자로 세움 4. 禁式 92조를 만들고, 황친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복식을 규정함 8. 多禰島로부터 사자가 돌아와 지도를 공상함 9. 고구려와 신라에 보냈던 사신들이 귀국함. 諸氏의 씨족장을 결정하여 보고하도록 함 10. 일식과 지진이 일어남. 신라의 사신 一吉飡 金忠平 등이 축자에 도착함. 신라의 왕이 사망함 11. 지진이 일어남 12. 河邊臣子首를 축자에 보내 신라의 사신에게 향응을 베품	신문왕 1	開耀 1
682	천무 11	1. 氷上夫人이 사망함 2. 김충평이 돌아감 3. 처음으로 新字 1부 44권을 작성함. 위관착용을 금지하고 제복을 개정함. 왕신의 식봉을 거두어들임		永淳 1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신라	중국
		4. 남녀 모두 結髮하도록 명령함 5. 倭漢直이 連성을 사성받음 6. 고구려왕이 助有卦婁毛切 등을 파견함. 신라의 金釋起가 고구려의 사신을 축자까지 안내함 7. 隼人이 방물을 바침 8. 궁정의 예의, 언어를 규정함. 관인의 考選에 族姓을 중시함 9. 跪禮, 匍匐禮를 금지하고 立禮를 하도록 함 12. 諸氏의 씨족장을 결정하여 보고하도록 함		
683	천무 12	2. 대진황자가 조정에서 처음으로 정사를 봄 3. 僧正, 僧都, 律師를 임명함 4. 동전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은전 사용을 금지함 7. 경희왕이 사망함 8. 천하에 대사를 내림 9. 倭直 등 38씨에게 連성을 사성함 10. 三宅吉士 등 14씨에게 連성을 사성함 11. 諸國에 陣法을 가르침 12. 諸國의 경계를 정함. 複都制를 시행하고 難波宮을 部都로 조영함		弘道 1
684	천무 13	3. 京師를 순행하여 궁실의 땅을 정함 4. 문무관인에게 兵馬를 정비시킴 5. 백제의 승니 및 속인 남녀 등을 武藏國에 안치함. 三輪引田君難波麻呂 등을 고구려에 파견함 6. 기우제를 지냄 10. 씨족들의 족성을 고치고, 8色姓을 정함. 守山公 등 13씨에게 眞人姓을 사성함. 諸國의 경계를 정함 11. 大三輪君 등 52씨에게 朝臣姓을 사성함 12. 大伴連 등 50씨에게 宿禰姓을 사성함. 당 유학생 土師宿禰甥 등이 신라를 거쳐 귀국함. 신라가 金物儒를 보내 축자까지 안내함		中宗 嗣聖 1 穆宗 文明 1 則天 武后 (周)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신라	중국
685	천무 14	1. 諸王 이상 12계, 諸臣 48계제를 개정함 2. 대당인, 백제인, 고구려인 모두 147인에게 작위를 내림 3. 김물유를 축자에서 향응함 5. 高向朝臣麻呂 등이 신라에서 돌아옴 6. 大倭連 등 11씨에게 기촌성을 사성함 7. 朝服의 色을 정함 8. 천황이 淨土寺와 川原寺에 행차함 9. 宮處王 등을 왕경 및 기내에 보내 무기를 검열함. 각 지역에 사자를 보내 국사, 군사 및 백성의 실정을 순찰함. 고구려에 보낸 사신들이 귀국함 10. 궁중에서 金剛般若經을 강설함 11. 부대장비용의 병기 개인소유를 금지하고 郡家에 거두어 보관함. 신라가 金智祥 등을 파견함		
686	천무 15 (朱鳥 1)	1. 難波宮이 소실됨 7. 朱鳥로 개원함. 궁의 이름을 飛鳥淨御原宮이라 함 8. 천황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출가시키고, 관세음경 등을 강독하게 함 9. 천황이 사망함. 菟野皇后가 칭제함 10. 大津皇子가 모반을 이유로 체포되어 자살함		
687	지통 1	1. 田中朝臣法麻呂 등을 신라에 보내 천황의 상을 알리도록 함 3. 고구려인 56명을 常陸國에 살게 함 4. 筑紫大宰가 투화한 신라의 승니 및 백성 남녀 22인을 바침 9. 천무천황의 國忌의 齋를 京師의 諸寺에서 행함 10. 황태자가 공경, 백관 등과 大內陵를 축조함		
688	지통 2	2. 국기일의 재를 정함 7. 대규모 기우제를 지냄 11. 천무천황을 檜外大內陵에서 장사지냄		
689	지통 3	4. 투화한 신라인을 下毛野에 살도록 함. 신라가 급찬 金道那 등을 보내 조문함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신라	중국
		5. 신라의 급찬이란 관등과 방물이 조문의 전례에 어긋난다고 하여 돌려보냄 6. 撰善言司를 둠. 諸司에 令 1部 22卷(정어원령)을 분배함 8. 호적을 작성하여 부랑자를 단속함. 병사에게 무사교습을 명함 9. 축자에 사신을 파견하여 位記를 보냄 12. 雙六을 금지함		
690	지통 4	1. 황후가 즉위함 4. 관인의 위계승진 제도, 제복의 색을 개정함 7. 高市皇子를 태정대신으로 임명함. 정어원령의 官階를 시행하여 대규모 인사이동을 행함 9. 호령에 의거하여 호적을 작성함(庚寅年籍)		
691	지통 5	3. 양천신분을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함 4. 해방된 노비의 신분을 경인년적에서 확정함 8. 大三輪 등 18씨 墓記를 상진하도록 함 10. 陵戶制를 제정함		
692	지통 6	3. 中納言 三輪高市麻呂가 천황의 伊勢 행차를 간언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함 5. 藤原宮의 地鎭祭를 행함 9. 班田大夫를 四畿內로 보냄	효소왕 1	
693	지통 7	1. 백성에게 황색 옷, 노비에게 흑색 옷을 입도록 함 3. 뽕나무, 모시, 배, 밤 등의 재배를 장려함 10. 황친, 유위자에게 무구를 갖추도록 함 12. 제국에 陳法博士를 파견하여 병법을 교육시킴		
694	지통 8	3. 大宅麻呂 등을 鑄錢司의 관인으로 임명함 12. 藤原宮으로 수도를 옮김		
695	지통 9	1. 大射 의식을 거행함 2. 길야궁으로 행차함 3. 신라가 왕자 金良琳 등을 파견함 5. 隼人과 大隅에게 향응을 베품 6. 왕경 및 4畿內의 여러 신사에 가서 기우제를 올림 8. 길야로 행차함 9. 小野朝臣毛野 등이 신라로 출발함		

연대	천황	내 용	비고	
			신라	중국
696	지통 10	1. 공경대부에게 향응을 베품. 百濟王南典에게 직대사의 관위를 사여함 2. 길야궁으로 행차함 3. 二槻宮으로 행차함 6. 길야궁으로 행차함		
697	지통 11	1. 공경대부들에게 향응을 베품 6. 죄인을 사면함. 京畿의 여러 절에서 경을 읽도록 함 7. 상습 도적 109인을 사면함. 공경백료가 불상의 개안회를 藥師寺에서 개최함 8. 황태자에게 천황의 자리를 양위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천황 和風시호 및 재위기간

대수	천황	화풍시호	권	재위년수	재위기간
1	神武天皇	神日本磐余彦天皇	권3	76년	기원전 660~기원전 585
2	綏靖天皇	神淳名川耳天皇	권4	33년	기원전 581~기원전 549
3	安寧天皇	磯城津彦玉手看天皇	권4	38년	기원전 548~기원전 511
4	懿德天皇	大日本彦耜友天皇	권4	34년	기원전 510~기원전 477
5	孝昭天皇	觀松彦香殖稻天皇	권4	83년	기원전 475~기원전 393
6	孝安天皇	日本足彦國押人天皇	권4	102년	기원전 392~기원전 291
7	孝靈天皇	大日本根子彦太瓊天皇	권4	76년	기원전 290~기원전 215
8	孝元天皇	大日本根子彦國牽天皇	권4	57년	기원전 214~기원전 158
9	開化天皇	稚日本根子彦大日日天皇	권4	60년	기원전 157~기원전 98
10	崇神天皇	御間城入彦五十瓊殖天皇	권5	68년	기원전 97~기원전 30
11	垂仁天皇	活目入彦五十狹茅天皇	권6	99년	기원전 29~70
12	景行天皇	大足彦忍代別天皇	권7	60년	71~130
13	成務天皇	稚足彦天皇	권7	60년	131~190
14	仲哀天皇	足仲彦天皇	권8	9년	192~200
	神功皇后	氣長足姬尊天皇	권9	69년	201~269
15	應神天皇	譽田天皇	권10	41년	270~310
16	仁德天皇	大鷦鷯天皇	권11	87년	313~399
17	履中天皇	去來穗別天皇	권12	6년	400~405
18	反正天皇	端齒別天皇	권12	5년	406~410
19	允恭天皇	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	권13	42년	412~453
20	安康天皇	穴穗天皇	권13	3년	454~456
21	雄略天皇	大泊瀨幼武天皇	권14	23년	457~479
22	淸寧天皇	白髮武廣國押稚日本根子天皇	권15	5년	480~484
23	顯宗天皇	弘計天皇	권15	3년	485~487
24	仁賢天皇	億計天皇	권15	111년	488~498
25	武烈天皇	小泊瀨稚鷦鷯天皇	권16	8년	499~506
26	繼體天皇	男大迹天皇	권17	25년	507~531
27	安閑天皇	廣國押武金日天皇	권18	2년	534~535
28	宣化天皇	武小廣國押盾天皇	권18	4년	536~539
29	欽明天皇	天國排開廣庭天皇	권19	32년	540~571

대수	천황	화풍시호	권	재위년수	재위기간
30	敏達天皇	淳中倉太珠敷	권20	14년	572~585
31	用明天皇	橘豊日天皇	권21	2년	586~587
32	崇峻天皇	泊瀨部天皇	권21	5년	588~592
33	推古天皇	豊御食炊屋姬天皇	권22	36년	593~628
34	舒明天皇	息長足日廣額天皇	권23	13년	629~641
35	皇極天皇	天豊財重日足姬天皇	권24	3년	642~644
36	孝德天皇	天万豊日天皇	권25	5년(大化)	645~649
				5년(白雉)	650~654
37	齊明天皇	天豊財重日足姬天皇	권26	7년	655~661
38	天智天皇	天命開別天皇天皇	권27	10년	662~671
39	天武天皇	天淳中原瀛眞人天皇	권28	14년	672~685
			권29	1년(朱鳥)	686
40	持統天皇	高天原廣野姬天皇	권30	11년	687~697

3. 천황릉 위치비정표

천황	『고사기』	『일본서기』	『연희식』	궁내청(『능묘요람』) 및 기타
神武	畝火山之北方白檮尾上	畝傍山東北陵	左同 (大和國 高市郡)	左同 (奈良縣 橿原市 大久保町) 山本ミサンザイ古墳〈원분〉
綏靖	衝田岡	桃花鳥田丘上陵 (안령기)	左同 (大和國 高市郡)	左同 (奈良縣 橿原市 四條町) 塚山古墳〈원분〉
安寧	畝火山之美富登	畝傍山南御陰井上陵 (의덕기)	左同 (大和國 高市郡)	左同 (奈良縣 橿原市 吉田町)
懿德	畝火山之傎名子谷上	畝傍山南繼沙谿上陵 (효소기)	左同 (大和國 高市郡)	左同 (奈良縣 橿原市 西池尻町)
孝昭	掖上博多山上	掖上博多山上陵 (효안기)	左同 (大和國 葛上郡)	左同 (奈良縣 御所市 大字三室)
孝安	玉手岡上	玉手丘上陵 (효령기)	左同 (大和國 葛上郡)	左同 (奈良縣 御所市 大字玉手)
孝靈	片岡馬坂上	片丘馬坂陵 (효원기)	左同 (大和國 葛下郡)	左同 (奈良縣 北葛城郡 王寺町)
孝元	劍池之中岡上	劍池嶋上陵 (개화기)	左同 (大和國 高市郡)	左同 (奈良縣 橿原市 石川町) 中山塚〈자연구릉〉
開化	伊邪河之坂上	春日率川坂本陵	左同 (大和國 添上郡)	春日率川坂上陵 (奈良縣 奈良市 油阪町) 念佛寺山古墳〈전방후원분〉
崇神	山邊道勾之岡上	山邊道上陵	左同 (大和國 城上郡)	山邊道勾岡上陵 (奈良縣 天理市 柳本町) 行燈山古墳〈전방후원분〉
垂仁	菅原之御立野中	菅原伏見陵	菅原伏見東陵 (大和國 添下郡)	左同 (奈良縣 奈良市 尼辻西町) 寶來山古墳〈전방후원분〉
景行	山邊之道上	倭國之山邊道上陵 (성무기)	左同 (大和國 城上郡)	山邊道上陵 (奈良縣 天理市 澁谷町) 澁谷向山古墳〈전방후원분〉

천황	『고사기』	『일본서기』	『연희식』	궁내청(『능묘요람』) 및 기타
成務	沙紀之多他那美	倭國狹城盾列陵 (중애기)	左同 (大和國 添下郡)	狹城盾列池後陵 (奈良縣 奈良市 山陵町) 佐紀石塚山古墳〈전방후원분〉
仲哀	河內惠賀之長江	河內國長野陵 (신공기)	惠我長野西陵 (河內國 志紀郡)	左同 (大阪府 藤井寺市 藤井寺 4丁目) 岡ミサンザイ古墳〈전방후원분〉
應神	川內惠賀之裳伏岡		惠我藻伏崗陵 (河內國 志紀郡)	左同 (大阪府 羽曳野市 譽田 6丁目) 譽田御廟山古墳〈전방후원분〉
仁德	毛受之耳原	百舌鳥野陵	百舌鳥耳原中陵 (和泉國 大鳥郡)	左同 (大阪府 堺市堺區 大仙町) 大仙陵古墳〈전방후원분〉
履中	毛受	百舌鳥耳原陵	百舌鳥耳原南陵 (和泉國 大鳥郡)	左同 (大阪府 堺市西區 石津ケ丘) 上石津ミサンザイ古墳〈전방후원분〉
反正	毛受野	耳原陵 (윤공기)	百舌鳥耳原北陵 (和泉國 大鳥郡)	左同 (大阪府 堺市堺區 北三國ケ丘町 2丁) 田出井山古墳〈전방후원분〉
允恭	河內惠賀之長枝	河內長原陵	惠我長野北陵 (河內國 志紀郡)	左同 (大阪府 藤井寺市 國府 1丁目) 國府市ノ山古墳〈전방후원분〉
安康	菅原之伏見岡	菅原伏見陵	菅原伏見西陵 (大和國 添下郡)	左同 (奈良縣 奈良市 宝來 4丁目) 〈방분〉
雄略	河內之多治比高鸛	丹比高鷲原陵 (청녕기)	左同 (河內國 丹比郡)	左同 (大阪府 羽曳野市 島泉 8丁目) 島泉丸山古墳(원분)
淸寧		河內坂門原陵	左同 (河內國 古市郡)	左同 (大阪府 羽曳野市 西浦 6丁目) 西浦白髮山古墳〈전방후원분〉
顯宗	片岡之石坏岡上	傍丘磐杯丘陵 (인현기)	左同 (大和國 葛下郡)	傍丘磐坏丘南陵 (奈良縣 香芝市 北今市) 〈전방후원분〉
仁賢		埴生坂本陵	左同 (河內國 丹比郡)	左同 (大阪府 藤井寺市 靑山 3丁目) 野中ボケ山古墳〈전방후원분〉
武烈	片岡之石坏岡	傍丘磐杯丘陵 (계체기)	左同 (大和國 葛下郡)	傍丘磐坏丘北陵 (奈良縣 香芝市 今泉) 〈자연구릉〉
繼體	三嶋之藍御陵	藍野陵	三嶋藍野陵 (攝津國 嶋上郡)	左同 (大阪府 茨木市 太田 3丁目) 太田茶臼山古墳〈전방후원분〉

천황	『고사기』	『일본서기』	『연희식』	궁내청(『능묘요람』) 및 기타
安閑	河內之古市高屋村	河內舊市高屋丘陵	左同 (河內國 古市郡)	古市高屋丘陵 (大阪府 羽曳野市 古市 5丁目) 高屋築山古墳〈전방후원분〉
宣化		大倭國身狹桃花鳥坂上陵	左同 (大和國 高市郡)	左同 (奈良縣 橿原市 鳥屋町) 鳥屋ミサンザイ古墳〈전방후원분〉
欽明		檜隈坂合陵	左同 (大和國 高市郡)	左同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大字平田) 梅山古墳〈전방후원분〉
敏達	川內科長	磯長陵	河內磯長中尾陵 (河內國 石川郡)	左同 (大阪府 南河內郡 太子町大字太子) 太子西山古墳〈전방후원분〉
用明	石寸掖上, 後遷科長中陵	磐余池上陵	河內磯長原陵 (河內國 石川郡)	左同 (大阪府 南河內郡 太子町大字春日) 春日向山古墳〈방분〉
崇峻	倉椅岡上	倉梯岡陵	無陵地(大和國 十市郡)	左同 (奈良縣 櫻井市 倉橋) 赤坂天王山古墳〈방분〉 – 森浩一
推古	大野岡上, 後遷科長大陵	竹田皇子之陵	磯長山田陵 (河內國 石川郡)	左同 (大阪府 南河內郡 太子町 大字山田) 推古山田高塚古墳〈방분〉
舒明		押坂陵	押坂內陵 (大和國 十市郡)	左同 (奈良縣 櫻井市 大字忍阪) 忍坂段ノ塚古墳〈팔각분〉
皇極	齊明 重祚			
孝德		大坂磯長陵	左同 (河內國 石川郡)	左同 (大阪府 南河內郡 太子町 大字山田) 山田上ノ山古墳〈원분〉
齊明		小市岡上陵 (천지기)	越智崗上陵 (大和國 高市郡)	左同 (奈良縣 高市郡 高取町 大字車木) 車木ケンノウ古墳〈원분〉
天智		山科陵	御廟野古墳 (山背國 宇治郡)	左同 (京都府 京都市 山科區 御陵上御廟野町) 山科御廟野古墳〈팔각분〉
天武		檜隈大內陵 (지통기)	左同 (大和國 高市郡)	大內陵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 大字野口) 野口王墓古墳〈팔각분〉
持統		檜隈大內山陵 (『속일본기』)	天武天皇과 합장	

4. 일본 고대 산성 현황표

지역	번호	유적명	소재지	비고
九州	1	*金田城	長崎縣 對馬市	
	2	*大野城	福岡縣 大野城市	
	3	水城	福岡縣 大宰府市	
	4	鹿毛馬神籠石	福岡縣 飯塚市	
	5	御所ケ谷神籠石	福岡縣 行橋市	
	6	唐原神籠石	福岡縣 築上郡	
	7	阿志崎山城	福岡縣 筑紫野市	
	8	杷木神籠石	福岡縣 朝倉市	
	9	高良山神籠石	福岡縣 久留米市	
	10	雷山神籠石	福岡縣 糸島市	
	11	女山神籠石	福岡縣 みやま市	
	12	*基肄城	佐賀縣 三養基郡 基山町	
	13	帶隈山神籠石	佐賀縣 佐賀市	
	14	おつぼ山神籠石	佐賀縣 武雄市	
	15	*鞠智城	熊本縣 山鹿市·菊池市	
本州	16	*長門城	山口縣 下關市	유적 못찾음
	17	石城山神籠石	山口縣 光市	
	18	*常城	廣島縣 福山市	유적 못찾음 奈良時代(?)
	19	*茨城	廣島縣 福山市	유적 못찾음 奈良時代(?)
	20	*鬼ノ城	岡山縣 總社市	
	21	*大廻小廻山城	岡山縣 岡山市	
	22	*播磨城山城	兵庫縣 たつの市	유적 불분명
	23	*高安城	大阪府 八尾市·奈良縣 平群町	
四國	24	*屋嶋城	香川縣 高松市	
	25	*讃岐城山城	香川縣 坂出市	
	26	*永納山城	愛媛縣 西條市·今治市	

※ *는 백제식 산성.

5. 고대 일본 관위 및 위계제 변천표

603년(12계)	647년(13계)	649년(19계)	664년(26계)	685년(48계)		701년(30계)	
推古	孝德		中大兄 칭제	天武		文武	
	大小 織	大小 織	大小 織	明·淨	正(8계급)	正從 一位	
	大小 繡	大小 繡	大小 縫			正從 二位	
	大小 紫	大小 紫	大小 紫			正從 三位	
大小 德	大 錦	大 化 上下	大錦 上中下		直(8계급)	正從 四位 上下上下	
大小 仁	小 錦	小 化 上下	小錦 上中下			正從 五位 上下上下	
大小 禮	大 靑	大 山 上下	大山 上中下	勤(8계급)		正從 六位 上下上下	
大小 信	小 靑	小 山 上下	小山 上中下	務(8계급)		正從 七位 上下上下	
大小 義	大 黑	大 乙 上下	大乙 上中下	追(8계급)		正從 八位 上下上下	
大小 智	小 黑	小 乙 上下	小乙 上中下	進(8계급)		大小 初位 上下上下	
	建武	立身	大小 建				

6. 일본 율령제하 관위상당제 및 4등관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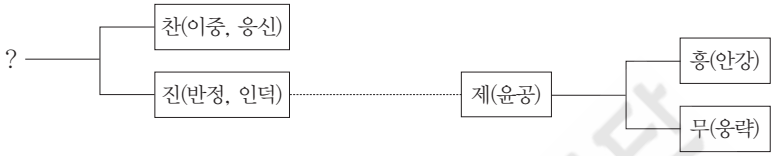
위계 \ 관직				神祇官	太政官	中務省	中務以外 7省	衛府	大宰府 弾正台	國司	勳位
貴族（殿上人）	貴（公卿）	正一位 從一位			太政大臣						
		正二位 從二位			左右大臣 內大臣						
		正三位			大納言						勳1等
		從三位			中納言			大將	帥		2等
	通貴	正四位	上			卿					3等
			下		參議		卿				3等
		從四位	上		左右 大弁				伊		4等
			下	伯				中將			4等
		正五位	上		左右 中弁	大輔		衛門督	大弐		5等
			下		左右 少弁		大輔 大判事	少將	弼		5等
		從五位	上			少輔		兵衛督		大國守	6等
			下	大副	少納言	侍從	少輔	衛門佐	少弐	上國守	6等
官人		正六位	上	少副	左右 弁大史				大忠		7等
			下			大丞	大丞 中判事	兵衛佐	大監 少忠	大國介 中國介	7等
		從六位	上	大祐		少丞	少丞	將監	少監	上國介	8等
			下	少祐			少判事	衛門大尉	大判事	下國介	8等
		正七位	上		大外記 左右 弁少史	大錄	大錄	衛門少尉	大典·防人正 大疏		9等
			下			大主鈐	判事大屬	兵衛大尉	主神	大國大掾	9等
		從七位	上		少外記			兵衛少尉		大國少掾 上國掾	10等
			下					將曹	博士		10等
		正八位	上			少錄 少主鈐	少錄		小典·医師 防人佐·少疏	中國掾	11等
			下	大史			判事少屬	衛門大志			11等
		從八位	上	少史				衛門少志 兵衛大志		大國大目	12等
			下					兵衛少志		大國少目 上國目	12等
		大初位	上						判事大令使		
			下						判事少令使	中國目	
		小初位	上							下國目	
			下								

	神祇官	太政官	省	衛府	大宰府	國	郡	鎭守府
長官	伯	太政大臣 左右大臣 內大臣	卿	督	帥	守	大領	將軍
次官	大副 少	大納言	大輔 少	佐	大弐 少	介	少領	副將軍
判官	大祐 少	左 右 大·中·少弁 少納言	大丞 少	大尉 少	大監 少	大掾 少	主政	軍監
主典	大史 少	左 大史 右 弁 少 大 少 外記	大錄 少	大志 少	大典 少	大目 少	主帳	軍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 왜5왕 비정 및 대중관계표

〈왜5왕 계보〉



〈남조의 왜왕에 대한 칭호 제수〉

시기		왜왕	제수 구분	책봉칭호			출전
				군사호	장군호	왕호	
宋	永初 2(421)	讚	책봉		安東將軍	倭國王	宋書
	元嘉 15(438)	珍	자칭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책봉	倭隋 등 13명에 장군호를 신청해서 책봉받음	安東將軍	倭國王	
	元嘉 20(443)	濟	책봉		安東將軍	倭國王	
	元嘉 28(451)		가호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大明 6(462)	興(武)	책봉		安東將軍	倭國王	
	昇明 1(477)		자칭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昇明 2(478)	武	자칭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開府儀同三司	倭國王	
			책봉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王	
齊	建元 1(479)		진호		鎭東大將軍		南齊書
梁	天監 1(502)		진호		征東將軍		梁書

〈고구려 · 백제 · 왜 將軍號 변천표〉

고구려		백제		왜	
		372년(餘句)	鎭東將軍		
		386년(餘暉)	鎭東將軍		
413년(高璉)	征東將軍				
416년	征東大將軍	416년(餘映)	鎭東將軍		
		420년	鎭東大將軍		
				438년(珍)	安東將軍
				443년(濟)	安東將軍
				451년	安東大將軍
		457년(餘慶)	鎭東大將軍		
				462년(興)	安東將軍
463년	車騎大將軍			478년(武)	安東大將軍
				479년	鎭東大將軍
480년	驃騎大將軍	480년(牟都)	鎭東大將軍		
		490년(牟太)	鎭東大將軍		
494년(高雲)	征東大將軍				
502년	車騎大將軍	502년	征東大將軍	502년	征東將軍
508년	撫東大將軍				
520년(高安)	寧棟將軍				
		521년(餘隆)	寧棟大將軍		
		524년(餘明)	綏東將軍		
526년(高延)	撫東將軍				
548년(高成)	寧棟將軍				
562년(高湯)	寧棟將軍	562년	撫東大將軍		

8. 『일본서기』와 『삼국사기』 백제 왕력 비교표

『日本書紀』		『三國史記』	
기사	기년(간지)	기사	기년(간지)
神功 55 百濟肖古王薨.	255(乙亥)	近肖古王30 冬11月. 王薨	375(乙亥)
神功 56 百濟王子貴須立爲王.	256(丙子)	近仇首王1. 近肖古王之子. 卽位.	375
神功 64 百濟國貴須薨. 王子沈流王立爲王.	264(甲申)	近仇首王10 夏4月. 王薨 枕流王1. 近仇首王元子. 卽位.	384(甲申)
神功 65 百濟沈流王薨. 王子阿花年少. 叔父辰斯奪立爲王.	265(乙酉)	沈流王2 冬11月. 王薨 辰斯王1. 近仇首王仲子. 卽位	385(乙酉)
應神 3 春3月 百濟國殺辰斯王以謝之. 紀角宿禰等. 便立阿花爲王而歸.	272(壬辰)	辰斯王8 11月. 薨於狗原行宮. 阿莘王1. 枕流王之元子. 卽位.	392(壬辰)
應神 16 百濟阿花薨. 天皇召直支王謂之曰. 汝返於國以嗣位.	285(乙巳)	阿莘王14 秋9月. 王薨. 腆支王1. 阿莘王之元子. 自立爲王.	405(乙巳)
應神 25 百濟直支王薨. 卽子久爾辛王爲王.	294(甲寅)	腆支王16 春3月. 王薨. 久爾辛王1. 腆支王長子. 卽位.	420(庚申)
雄略 2 秋7月 己巳年. 蓋鹵王立.	458(丁酉)	蓋鹵王1. 毗有王之長子. 嗣.	455(乙未)
雄略 20 蓋鹵王乙卯年冬. 狛大軍來. 攻大城七日七夜. 王城降陷. 遂失尉禮. 國王及大后. 王子等. 皆沒敵手.	476(丙辰)	蓋鹵王21. 秋9月 麗王巨璉師兵三萬來圍王都漢城. (중략) 麗人追而害之.	475(乙卯)
雄略 21 春3月 汶州王蓋鹵王母弟也.	477(丁巳)	蓋鹵王之子也. (중략) 蓋鹵在位21年. 城破王死. 遂卽位.	475
雄略 23 夏4月 百濟文斤王薨. 是爲東城王.	479(己未)	三斤王3 冬11月. 王薨. 東城王1. 諱牟大. 文周王弟昆支之子. 卽位.	479(己未)

『日本書紀』		『三國史記』	
기사	기년(간지)	기사	기년(간지)
武烈 4 末多王無道. 暴虐百姓. 國人共除. 武寧王立.	502(庚辰)	東城王23 11月. 使人刺王. 武寧王1. 牟大王之第二子也. 卽位.	501(辛巳)
繼體 17 5月 百濟王武寧薨.	523	武寧王23 夏5月. 王薨.	523(癸卯)
繼體 18 春正月 百濟太子明卽位.	524	聖王1. 武寧王之子也. 繼位.	523
欽明 15 12月 苦都斬首而殺. 掘坎而埋.	554	聖王32 秋7月. 王欲襲新羅 (중략) 爲亂兵所害薨.	554(甲戌)
欽明 18 春3月 百濟王子餘昌嗣位.	557	威德王1. 聖王之元子也. 繼位	55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 고대 한반도와 왜의 교류표

시 기	한반도→왜국	왜국→한반도	내 용(『일본서기』)
신공 46년 3월	백제→왜국		교류 시작
47년 4월	백제·신라→왜국		
51년 3월	백제→왜국		
응신 7년 9월	4국→왜국		
8년 3월	백제→왜국		전지 파견
14년 2월	백제→왜국		縫衣工女 보냄
15년 9월	백제→왜국		阿直伎 보냄
16년 8월		왜국→가라	
28년 9월	고구려→왜국		
39년 2월	백제→왜국		新齊都媛 보냄
인덕 12년 7월	고구려→왜국		문물 전달
17년 9월	신라→왜국		문물 전달
41년 3월		왜국→백제	
윤공 3년 1월		왜국→신라	良醫 요구
461년(웅략 5) 4월	백제→왜국		곤지 파견
463년 시세	백제→왜국		今來才伎 파견
479년 4월		왜국→백제	동성왕 귀국(筑紫군사 5백 명)
493년(인현 6) 9월		왜국→고구려	기술자 요구
504년(무열 6) 10월	백제→왜국		마나군 파견
505년 4월	백제→왜국		사아군 파견
509년(계체 3) 2월		왜국→백제	
512년 4월		왜국→백제	筑紫馬 40필
12월	백제→왜국		임나4현 요구
513년 6월	백제→왜국		오경박사 단양이 파견
11월	반파→왜국		기문 요청
516년 5월	백제→왜국		오경박사 한고안무 파견
529년 4월	임나→왜국		군사 요청(대신라전)
534년(안한 1) 5월	백제→왜국		
540년(흠명 1) 2월	백제→왜국		

시 기	한반도→왜국	왜국→한반도	내 용(『일본서기』)
3월	4국→왜국		
543년 9월	백제→왜국		扶南 문물 전달
544년 3월	백제→왜국		임나의 친신라파 소환 요청
545년 3월		왜국→백제	膳臣巴提便 파견
5월	백제→왜국		
546년 1월	백제→왜국		
6월	백제→왜국		
547년 4월	백제→왜국		군사 요청(대고구려전)
548년 4월	백제→왜국		군사 요청(대고구려전)
6월		왜국→백제	
10월		왜국→백제	득이성 쌓는 인력 지원
550년 2월		왜국→백제	군사 지원
4월	백제→왜국		고구려 포로 보냄
552년 5월	백제→왜국		군사 요청
10월	백제→왜국		불교 전파
553년 1월	백제→왜국		군사 요청(대신라전)
6월		왜국→백제	문물 전달 및 박사 교대 요구
8월	백제→왜국		
554년 1월	백제→왜국		군사 요청(대신라전)
2월	백제→왜국		군사 요청(대신라전), 박사 교대
5월		왜국→백제	군사 지원(관산성 전투)
12월	백제→왜국		
555년 2월	백제→왜국		성왕 전사 소식 알림
556년 1월		왜국→백제	혜왕 귀국(호위군)
560년 9월	신라→왜국		문물 전달
561년 1월	신라→왜국		문물 전달
시세	신라→왜국		
562년 7월	신라→왜국		문물 전달
11월	신라→왜국		문물 전달
565년 5월	고구려→왜국		
570년 4월	고구려→왜국		표착, 국서 전달
571년 3월		왜국→신라	가야 멸망시킨 이유 물음
571년 8월	신라→왜국		조문사

시 기	한반도→왜국	왜국→한반도	내 용(『일본서기』)
573년(민달 2) 2월	고구려→왜국		
574년 5월	고구려→왜국		
11월	신라→왜국		문물 전달
575년 2월	백제→왜국		문물 전달
4월		왜국→백제·신라·임나	
6월	신라→왜국		문물 전달
577년 5월		왜국→백제	불교 관련 자료 갖고 귀국
579년 10월	신라→왜국		문물(불상) 전달
580년 6월	신라→왜국		문물 전달(받지 않음)
582년 10월	신라→왜국		문물 전달(받지 않음)
583년 7월		왜국→백제	日羅 귀국 요청
584년 2월		왜국→신라	
588년(숭준 1) 시세	백제→왜국		승려와 불사리 보냄
591년 11월		왜국→신라·임나	임나 부흥
595년(추고 3) 5월	고구려→왜국		혜자의 도왜
597년 4월	백제→왜국		아좌 파견
11월		왜국→신라	
598년 8월	신라→왜국		문물 전달
599년 9월	백제→왜국		문물 전달
601년 3월		왜국→고구려·백제	임나 구원
602년 10월	백제→왜국		관륵의 도왜
605년 4월	고구려→왜국		황금 보냄
609년 4월	백제→왜국		백제 승려 표착
610년 3월	고구려→왜국		담징을 보냄
7월	신라·임나→왜국		
611년 8월	신라·임나→왜국		
612년 시세	백제→왜국		미마지의 도왜
615년 9월	백제→왜국		왜국의 견당사와 함께 파견
618년 8월	고구려→왜국		對隋戰 승리 소식을 전함
621년 시세	신라→왜국		
623년 7월	신라·임나→왜국		문물(불교) 전달
625년 1월	고구려→왜국		혜관 파견

시 기	한반도→왜국	왜국→한반도	내 용(『일본서기』)
630년(서명 2) 3월	고구려→왜국		
631년 3월	백제→왜국		풍장 파견
635년 6월	백제→왜국		
638년 시세	백제·신라·임나→왜국		
639년 9월	신라→왜국		대당 학문승 귀국시킴
640년 10월	신라→왜국		대당 유학생 귀국시킴
642년(황극 1) 1월	백제→왜국		조문사
2월	고구려→왜국		연개소문의 쿠데타 사실을 전함
3월	신라→왜국		조문사
643년 2월	백제→왜국		교기의 파견
6월	고구려→왜국		
645년(효덕 1) 7월	고구려·백제·신라→왜국		
646년 2월	고구려·백제·신라·임나→왜국		
647년 1월	고구려·신라→왜국		
시세	신라→왜국		김춘추 파견
649년 시세	신라→왜국		김다수 파견
650년 4월	신라→왜국		
651년 6월	백제·신라→왜국		
653년 6월	백제·신라→왜국		
654년 7월	백제·신라→왜국		왜국의 견당사를 귀국시킴
654년 시세	고구려·백제·신라→왜국		조문사
655년(제명 1) 시세	고구려·백제·신라→왜국		신라는 특사를 별도로 파견
656년 8월	고구려→왜국		
9월		왜국→고구려	
시세	고구려·백제·신라→왜국		
657년 시세		왜국→신라	신라 견당사와 함께 견당사 파견 요청(신라가 거절)
660년 1월	고구려→왜국		賀取文 등 1백여 명 파견
9월	백제→왜국		백제멸망 소식 전함

시 기	한반도→왜국	왜국→한반도	내 용(『일본서기』)
10월	백제→왜국		당포로 바치고 구원군 요청
661년 4월	백제→왜국		복신이 糺解를 요청함
	고구려→왜국		당군 군세가 약함을 전함
662년(천지 1) 1월		왜국→백제	군사 원조
3월	고구려→왜국		구원 요청
5월		왜국→백제	풍장 귀국시킴(170척)
6월	백제→왜국		
663년 2월	백제→왜국		
3월		왜국→백제	백제 구원군 파견(2만 7천 명)
5월		왜국→고구려	백제 구원군 파견 소식 전함
666년 1월	고구려→왜국		
10월	고구려→왜국		
668년 7월	고구려→왜국		
10월	신라→왜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일본서기』 도래계 씨족 출자표

(*『신찬성씨록』에 의거)

本貫	種別	細分	氏族名	姓	同祖關係	始祖
左京	諸蕃	漢	太秦公宿禰	宿禰		出自秦始皇帝三世孫孝武王也
左京	諸蕃	漢	秦長藏連	連	太秦公宿禰同祖	融通王之後也
左京	諸蕃	漢	秦忌寸	忌寸	太秦公宿禰同祖	融通王五世孫丹照王之後也
左京	諸蕃	漢	秦忌寸	忌寸	太秦公宿禰同祖	融通王四世孫大藏秦公志勝之後也
左京	諸蕃	漢	秦造	造		始皇帝五世孫融通王之後也
左京	諸蕃	漢	文宿禰	宿禰		出自漢高皇帝之後鷺王也
左京	諸蕃	漢	文忌寸	忌寸	文宿禰同祖	宇爾古首之後也
左京	諸蕃	漢	武生宿禰	宿禰	文宿禰同祖	王仁孫阿浪古首之後也
左京	諸蕃	漢	櫻野首	首	武生宿禰同祖	阿浪古首之後也
左京	諸蕃	漢	伊吉連	連		出自長安人劉家揚雍也
左京	諸蕃	漢	常世連	連		出自燕國王公孫淵也
左京	諸蕃	漢	山代忌寸	忌寸		出自魯國白龍王也
左京	諸蕃	漢	大崗忌寸	忌寸		出自魏文帝之後安貴公也
左京	諸蕃	漢	幡文造	造	大崗忌寸同祖	安貴公之後也
左京	諸蕃	漢	楊侯忌寸	忌寸		出自隋煬帝之後達率楊侯阿子王也
左京	諸蕃	漢	木津忌寸	忌寸		後漢靈帝三世孫阿智使主之後也
左京	諸蕃	漢	楊胡史	史	楊侯忌寸同祖	
左京	諸蕃	漢	淨村宿禰	宿禰		出自陳袁濤塗也
左京	諸蕃	漢	清宗宿禰	宿禰		唐人正五位下李元環之後也
左京	諸蕃	漢	清海宿禰	宿禰		出自唐人從五位下沈惟岳也
左京	諸蕃	漢	嵩山忌寸	忌寸		唐人外從五位下〈船典賜綠.〉 張道光入朝焉.沈惟岳同時也
左京	諸蕃	漢	榮山忌寸	忌寸		唐人正六位上〈本國岳賜綠.〉 晏子欽入朝焉.沈惟岳同時也
左京	諸蕃	漢	長國忌寸	忌寸		唐人正六位上〈本押官賜綠.〉 五稅兒入朝焉.沈惟岳同時也
左京	諸蕃	漢	榮山忌寸	忌寸		唐人正六位上〈本判官賜綠.〉 徐公卿入朝焉.沈惟岳同時也
左京	諸蕃	漢	嵩山忌寸	忌寸		唐人正六位上〈本丑倉賜綠.〉 孟惠芝入朝焉.沈惟岳同時也

本貫	種別	細分	氏族名	姓	同祖關係	始祖
左京	諸蕃	漢	清川忌寸	忌寸		唐人正六位上〈本賜綠.〉 盧如津入朝焉.沈惟岳同時也
左京	諸蕃	漢	清海忌寸	忌寸		唐人正六位上〈本賜綠.〉 沈庭勗入朝焉.沈惟岳同時也
左京	諸蕃	漢	新長忌寸	忌寸		唐人正六位上馬清朝之後也
左京	諸蕃	漢	当宗忌寸	忌寸		出自後漢獻帝四世孫山陽公也
左京	諸蕃	漢	丹波史	史		後漢靈帝八世孫孝日王之後也
左京	諸蕃	漢	大原史	史		出自漢人西姓令貴也
左京	諸蕃	漢	桑原村主	村主		出自漢高祖七世孫万德使主也
左京	諸蕃	漢	下村主	村主		出自後漢光武帝七世孫愼近王也
左京	諸蕃	漢	上村主	村主	廣階連同祖	陳思王植之後也
左京	諸蕃	漢	筑紫史	史		陳思王植〈一名東阿王.〉之後也
左京	諸蕃	漢	吉水連	連		出自前漢魏郡人蓋寬饒也
左京	諸蕃	漢	牟佐村主	村主		出自吳孫權男高也
左京	諸蕃	漢	和藥使主			出自吳國主照淵孫智聰也
左京	諸蕃	漢	大石		高丘宿禰同祖	廣陵高穆之後也
左京	諸蕃	百濟	和朝臣	朝臣		出自百濟國都慕王十八世孫武寧王也
左京	諸蕃	百濟	百濟朝臣	朝臣		出自百濟國都慕王卅世孫惠王也
左京	諸蕃	百濟	百濟公	公		出自百濟國都慕王廿四世孫淵王也
左京	諸蕃	百濟	調連	連	水海連同祖	百濟國努理使主之後也
左京	諸蕃	百濟	林連	連		出自百濟國人木貴公也
左京	諸蕃	百濟	香山連	連		出自百濟國人達率荊員常也
左京	諸蕃	百濟	高槻連	連		出自百濟國人達率名進也
左京	諸蕃	百濟	廣田連	連		出自百濟國人辛臣君也
左京	諸蕃	百濟	石野連	連		出自百濟國人近速王孫憶賴福留也
左京	諸蕃	百濟	神前連	連		出自百濟國人正六位上 賈受君也
左京	諸蕃	百濟	沙田史	史		出自百濟國人意保尼王也
左京	諸蕃	百濟	大丘造	造		出自百濟國速古王十二世孫 恩率高難延子也
左京	諸蕃	百濟	小高使主			出自百濟國人毛甲姓加須流氣也
左京	諸蕃	百濟	飛鳥部			百濟國人國本木吉志之後也
左京	諸蕃	高麗	高麗朝臣	朝臣		出自高句麗王好台七世孫延典王也
左京	諸蕃	高麗	豊原連	連		出自高麗國人上部王虫麻呂也

本貫	種別	細分	氏族名	姓	同祖關係	始祖
左京	諸蕃	高麗	福当連	連		出自高麗國人前部能婁也
左京	諸蕃	高麗	御笠連	連		出自高麗國人從五位下高庄子也
左京	諸蕃	高麗	出水連	連		出自高麗國人後部能皷兄也
左京	諸蕃	高麗	新城連	連		出自高麗國人高福裕也
左京	諸蕃	高麗	男連	連		出自高麗國人高道士也
左京	諸蕃	高麗	高史	史		出自高麗國元羅郡杵王九世孫延王也
左京	諸蕃	高麗	日置造	造		出自高麗國人伊利須意弥也
左京	諸蕃	高麗	福当造	造		出自高麗國人前部志發也
左京	諸蕃	高麗	河内民首	首		出自高麗國人安劉王也
左京	諸蕃	高麗	後部藥使主			出自高麗國人大兄憶德也
左京	諸蕃	高麗	王			出自高麗國人從五位下 王仲文〈法名東樓.〉也
左京	諸蕃	高麗	高			高麗國人高助斤之後也
左京	諸蕃	高麗	高			高麗國人從五位下 高金藏〈法名信成.〉之後也
左京	諸蕃	新羅	橘守		三宅連同祖	天日桙命之後也
左京	諸蕃	任那	道田連	連		出自任那國賀羅賀室王也
左京	諸蕃	任那	大市首	首		出自任那國人都怒賀阿羅斯止也
左京	諸蕃	任那	清水首	首		出自任那國人都怒何阿羅志止也
右京	諸蕃	漢	坂上大宿禰	大宿禰		出自後漢靈帝男延王也
右京	諸蕃	漢	檜原宿禰	宿禰	坂上大宿禰同祖	都賀直孫賀提直之後也
右京	諸蕃	漢	内藏宿禰	宿禰	坂上大宿禰同祖	都賀直四世孫東人直之後也
右京	諸蕃	漢	山口宿禰	宿禰	坂上大宿禰同祖	都賀直四世孫都黄直之後也
右京	諸蕃	漢	平田宿禰	宿禰	坂上大宿禰同祖	都賀直五世孫色夫直之後也
右京	諸蕃	漢	佐太宿禰	宿禰	坂上大宿禰同祖	都賀直三世孫兎子直之後也
右京	諸蕃	漢	谷宿禰	宿禰	坂上大宿禰同祖	都賀直四世孫宇志直之後也
右京	諸蕃	漢	畝火宿禰	宿禰	坂上大宿禰同祖	都賀直三世孫大父直之後也
右京	諸蕃	漢	櫻井宿禰	宿禰	坂上大宿禰同祖	都賀直四世孫東人直之後也
右京	諸蕃	漢	路宿禰	宿禰	坂上大宿禰同祖	
右京	諸蕃	漢	文忌寸	忌寸	坂上大宿禰同祖	都賀直之後也
右京	諸蕃	漢	山田宿禰	宿禰		出自周靈王太子晉也
右京	諸蕃	漢	志我閉連	連	山田宿禰同祖	王安高之後也
右京	諸蕃	漢	長野連	連	山田宿禰同祖	忠意之後也

本貫	種別	細分	氏族名	姓	同祖關係	始祖
右京	諸蕃	漢	山田造	造	山田宿禰同祖	忠意之後也
右京	諸蕃	漢	高村宿禰	宿禰		出自魯恭王之後青州刺史劉也
右京	諸蕃	漢	伊吉連	連		出自長安人劉家楊雍也
右京	諸蕃	漢	常世連	連		出自燕國王公孫淵也
右京	諸蕃	漢	台忌寸	忌寸	河內忌寸同祖	漢孝獻帝男白龍王之後也
右京	諸蕃	漢	錦織村主	村主		出自韓國人波努志也
右京	諸蕃	漢	檜前村主	村主		出自漢高祖男齊王肥也
右京	諸蕃	漢	廣階連	連		出自魏武皇帝男陳思王植也
右京	諸蕃	漢	平松連	連	廣階連同祖	陳思王之後也
右京	諸蕃	漢	上村主	村主	廣階連同祖	通剛王之後也
右京	諸蕃	漢	椋人			阿祖使主男武勢之後也
右京	諸蕃	漢	松野連	連		出自吳王夫差也
右京	諸蕃	漢	八清水連	連		出自唐左衛郎將王文度也
右京	諸蕃	漢	楊津連	連	八清水連同祖	王文度之後也
右京	諸蕃	漢	若江造	造		出自後漢靈帝苗裔奈率張安力也
右京	諸蕃	漢	下村主	村主		出自後漢光武帝七世孫愼近王也
右京	諸蕃	漢	秦忌寸	忌寸	太秦公宿禰同祖	功滿王三世孫秦公酒之後也
右京	諸蕃	漢	秦忌寸	忌寸	太秦公宿禰同祖	功滿王之後也
右京	諸蕃	漢	秦忌寸	忌寸	太秦公宿禰同祖	始皇帝十四世孫尊義王之後也
右京	諸蕃	漢	秦忌寸	忌寸		始皇帝四世孫功滿王之後也
右京	諸蕃	漢	秦人		太秦公宿禰同祖	秦公酒之後也
右京	諸蕃	漢	淨山忌寸	忌寸		出自唐人賜綠沈淸朝也
右京	諸蕃	漢	栗栖首	首	文宿禰同祖	王仁之後也
右京	諸蕃	漢	工造	造		出自吳國人太利須須也
右京	諸蕃	漢	田邊史	史		出自漢王之後知惣也
右京	諸蕃	漢	大山忌寸	忌寸	高丘宿禰同祖	廣陵高穆之後也
右京	諸蕃	漢	高向村主	村主		出自魏武帝太子文帝也
右京	諸蕃	漢	雲梯連	連	高向村主同祖	宗宝德公之後也
右京	諸蕃	漢	郡首	首	高向村主同祖	段姓夫公〈一名富等.〉之後也
右京	諸蕃	漢	祝部		工造同祖	吳國人田利須須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百濟王			出自百濟國義慈王也
右京	諸蕃	百濟	菅野朝臣	朝臣		出自百濟國都慕王十世孫貴首王也
右京	諸蕃	百濟	葛井宿禰	宿禰	菅野朝臣同祖	塩君男味散君之後也

本貫	種別	細分	氏族名	姓	同祖關係	始祖
右京	諸蕃	百濟	宮原宿禰	宿禰	菅野朝臣同祖	塩君男智仁君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津宿禰	宿禰	菅野朝臣同祖	塩君男麻侶君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中科宿禰	宿禰	菅野朝臣同祖	塩君孫宇志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船連	連	菅野朝臣同祖	大阿郎王三世孫智仁君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三善宿禰	宿禰		出自百濟國速古大王也
右京	諸蕃	百濟	鴈高宿禰	宿禰		出自百濟國貴首王也
右京	諸蕃	百濟	安勅連	連		出自百濟國魯王也
右京	諸蕃	百濟	城篠連	連		出自百濟國人達率支母末惠遠也
右京	諸蕃	百濟	市往公	公		出自百濟國明王也
右京	諸蕃	百濟	岡連	連	市往公同祖	目圖王男安貴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百濟公	公		
右京	諸蕃	百濟	百濟伎			出自百濟國都慕王孫德佐王也
右京	諸蕃	百濟	廣津連	連		出自百濟國近貴首王也
右京	諸蕃	百濟	淸道連	連		出自百濟國人恩率納比旦止也
右京	諸蕃	百濟	廣海連	連		出自韓王信之後須敬也
右京	諸蕃	百濟	不破連	連		出自百濟國都慕王之後　有王也
右京	諸蕃	百濟	麻田連	連		出自百濟國朝鮮王淮也
右京	諸蕃	百濟	廣田連	連		百濟國人辛臣君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春野連	連		出自百濟速古王孫比流王也
右京	諸蕃	百濟	面氏		春野連同祖	比流王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己氏		春野連同祖	速古王孫休奚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斯氏		春野連同祖	速古王孫比流王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大縣史	史		百濟國人和德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道祖史	史		出自百濟國主挨許里公也
右京	諸蕃	百濟	大原史	史		出自漢人木姓阿留素西姓令貴也
右京	諸蕃	百濟	苑部首	首		出自百濟國人知豆神也
右京	諸蕃	百濟	民首	首	水海連同祖	百濟國人努利使主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高野造	造		百濟國人佐平余自信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飛鳥戶造	造		出自百濟國比有王也
右京	諸蕃	百濟	御池造	造		出自百濟國扶餘地卓斤國主施比王也
右京	諸蕃	百濟	中野造	造		百濟國人杵率答他斯智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眞野造	造		出自百濟國肖古王也
右京	諸蕃	百濟	枌谷造	造		出自百濟國人堅祖州耳也

本貫	種別	細分	氏族名	姓	同祖關係	始祖
右京	諸蕃	百濟	坂田村主	村主		出自百濟國人頭貴村主也
右京	諸蕃	百濟	上勝			出自百濟國人多利須須也
右京	諸蕃	百濟	不破勝			百濟國人淳武止等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刑部			出自百濟國酒王也
右京	諸蕃	百濟	漢人			百濟國人多夜加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賈氏			出自百濟國人賈義持也
右京	諸蕃	百濟	半　氏			百濟國沙半王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大石椅立			出自百濟國人庭姓蚊爾也
右京	諸蕃	百濟	林		林連同祖	百濟國人木貴之後也
右京	諸蕃	百濟	大石林		林連同祖	百濟國人木貴之後也
右京	諸蕃	高麗	長背連	連		出自高麗國主鄒牟〈一名朱蒙.〉也
右京	諸蕃	高麗	難波連	連		出自高麗國好太王也
右京	諸蕃	高麗	島岐史	史		出自高麗國能祁王也
右京	諸蕃	高麗	島史	史		出自高麗國和興也
右京	諸蕃	高麗	狛首	首		出自高麗國安岡上王也
右京	諸蕃	高麗	高田首	首		出自高麗國人多高子使主也
右京	諸蕃	高麗	日置造	造		出自高麗國人伊利須使主也.〈一名伊和須.〉
右京	諸蕃	高麗	高安下村主	村主		出自高麗國人大鈴也
右京	諸蕃	高麗	後部王			高麗國長王周之後也
右京	諸蕃	新羅	三宅連	連		新羅國王子天日桙命之後也
右京	諸蕃	新羅	豊原連	連		新羅國人壹呂比嵐呂之後也
右京	諸蕃	新羅	海原造	造		新羅國人進廣肆金加志毛禮之後也
山城國	諸蕃	漢	秦忌寸	忌寸	太秦公宿禰同祖	秦始皇帝之後也
山城國	諸蕃	漢	秦忌寸	忌寸		始皇帝十五世孫川秦公之後也
山城國	諸蕃	漢	秦忌寸	忌寸		秦始皇帝五世孫弓月王之後也
山城國	諸蕃	漢	秦冠			秦始皇帝四世孫法成王之後也
山城國	諸蕃	漢	民使首	首	高向村主同祖	宝德公之後也
山城國	諸蕃	漢	錦部村主	村主	錦織村主同祖	波能志之後也
山城國	諸蕃	漢	工造	造		出自吳國人田利須須也
山城國	諸蕃	漢	祝部		工造同祖	吳國人田利須須之後也
山城國	諸蕃	漢	谷直	直		漢師建王之後也
山城國	諸蕃	百濟	民首	首	水海連同祖	百濟國人怒理使主之後也

本貫	種別	細分	氏族名	姓	同祖關係	始祖
山城國	諸蕃	百濟	伊部造	造		出自百濟國人乃里使主也
山城國	諸蕃	百濟	末使主			出自百濟國人津留牙使主也
山城國	諸蕃	百濟	木曰佐		末使主同祖	津留牙使主之後也
山城國	諸蕃	百濟	勝		上勝同祖	百濟國人多利須須之後也
山城國	諸蕃	百濟	岡屋公	公		百濟國比流王之後也
山城國	諸蕃	高麗	黃文連	連		出自高麗國人久斯祁王也
山城國	諸蕃	高麗	桑原史	史		出自狛國人漢也
山城國	諸蕃	高麗	高井造	造		出自高麗國主鄒牟王廿世孫汝安祁王也
山城國	諸蕃	高麗	狛造	造		出自高麗國主夫連王也
山城國	諸蕃	高麗	八坂造	造		出自狛國人之留川麻乃意利佐也
山城國	諸蕃	新羅	眞城史	史		出自新羅國人金氏尊也
山城國	諸蕃	任那	多多良公	公		出自御間名國主爾利久牟王也
大和國	諸蕃	漢	眞神宿禰	宿禰		出自漢福德王也
大和國	諸蕃	漢	豊岡連	連		出自漢高祖苗裔伊須久牟治使主也
大和國	諸蕃	漢	秦忌寸	忌寸	太秦公宿禰同祖	秦始皇四世孫功滿王之後也
大和國	諸蕃	漢	桑原直	直	桑原村主同祖	漢皇帝七世孫万得使主之後也
大和國	諸蕃	漢	己智			出自秦太子胡亥也
大和國	諸蕃	漢	三林公	公	己智同祖	諸齒王之後也
大和國	諸蕃	漢	長岡忌寸	忌寸	己智同祖	諸齒王之後也
大和國	諸蕃	漢	山村忌寸	忌寸	己智同祖	古禮公之後也
大和國	諸蕃	漢	櫻田連	連	己智同祖	諸齒王之後也
大和國	諸蕃	漢	朝妻造	造		出自韓國人都留使主也
大和國	諸蕃	漢	額田村主	村主		出自吳國人天國古也
大和國	諸蕃	百濟	縵連	連		出自百濟人狛也
大和國	諸蕃	百濟	和連	連		出自百濟國主雄蘇利紀王也
大和國	諸蕃	百濟	宇奴首	首		出自百濟國君男彌奈曾富意弥也
大和國	諸蕃	百濟	波多造	造		出自百濟國人佐布利智使主也
大和國	諸蕃	百濟	薦口造	造		出自百濟國人拔田白城君也
大和國	諸蕃	百濟	園人首	首		出自百濟國人知豆神之後也
大和國	諸蕃	高麗	日置造	造		出自高麗國人伊利須使主也
大和國	諸蕃	高麗	鳥井宿禰	宿禰	日置造同祖	伊利須使主之後也
大和國	諸蕃	高麗	榮井宿禰	宿禰	日置造同祖	伊利須使主男麻弖臣之後也

本貫	種別	細分	氏族名	姓	同祖關係	始祖
大和國	諸蕃	高麗	吉井宿禰	宿禰	日置造同祖	伊利須使主之後也
大和國	諸蕃	高麗	和造	造	日置造同祖	伊利須使主之後也
大和國	諸蕃	高麗	日置倉人		日置造同祖	伊利須使主兄許呂使主之後也
大和國	諸蕃	新羅	糸井造	造	三宅連同祖	新羅國人天日槍命之後也
大和國	諸蕃	任那	辟田首	首		出自任那國主都奴加阿羅志等也
大和國	諸蕃	任那	大伴造	造		出自任那國主龍主王孫佐利王也
攝津國	諸蕃	漢	石占忌寸	忌寸	坂上大宿禰同祖	阿智王之後也
攝津國	諸蕃	漢	檜前忌寸	忌寸	石占忌寸同祖	阿智王之後也
攝津國	諸蕃	漢	藏人		石占忌寸同祖	阿智王之後也
攝津國	諸蕃	漢	葦屋漢人		石占忌寸同祖	阿智王之後也
攝津國	諸蕃	漢	秦忌寸	忌寸	太秦公宿禰同祖	功滿王之後也
攝津國	諸蕃	漢	秦人		秦忌寸同祖	弓月王之後也
攝津國	諸蕃	漢	志賀忌寸	忌寸		出自後漢孝獻帝也
攝津國	諸蕃	漢	大原史	史		出自漢人西姓令貴也
攝津國	諸蕃	漢	上村主	村主	廣階連同祖	陳思王植之後也
攝津國	諸蕃	漢	竺志史	史	上村主同祖	陳思王植之後也
攝津國	諸蕃	漢	台直	直	台忌寸同祖	漢釋吉王之後也
攝津國	諸蕃	漢	史戶			漢城人韓氏　德之後也
攝津國	諸蕃	漢	溫義			北齊國溫公高緯之後也
攝津國	諸蕃	百濟	船連	連	菅野朝臣同祖	大阿良王之後也
攝津國	諸蕃	百濟	廣井連	連		出自百濟國避流王也
攝津國	諸蕃	百濟	林史	史	林連同祖	百濟國人木貴之後也
攝津國	諸蕃	百濟	爲奈部首	首		出自百濟國人中津波手也
攝津國	諸蕃	百濟	牟古首	首		出自百濟國人吉志也
攝津國	諸蕃	百濟	原首	首	眞神宿禰同祖	福德王之後也
攝津國	諸蕃	百濟	三野造	造		出自百濟國人布須眞乃古意彌也
攝津國	諸蕃	百濟	村主		葦屋村主同祖	意宝荷羅支王之後也
攝津國	諸蕃	百濟	勝		上勝同祖	多利須須之後也
攝津國	諸蕃	高麗	桑原史	史	桑原村主同祖	高麗國人万德使主之後也
攝津國	諸蕃	高麗	日置造	造	鳥井宿禰同祖	伊利須使主之後也
攝津國	諸蕃	高麗	高安漢人			出自狛國人小須須也
攝津國	諸蕃	新羅	三宅連	連		新羅國王子天日桙命之後也
攝津國	諸蕃	任那	豊津造	造		出自任那國人 左李金〈亦名佐利己牟〉也

本貫	種別	細分	氏族名	姓	同祖關係	始祖
攝津國	諸蕃	任那	韓人		豊津造同祖	左李金〈亦名佐利己牟〉之後也
攝津國	諸蕃	任那	荒荒公	公		任那國豊貴王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高丘宿禰	宿禰		出自百濟國公族 大夫高侯之後廣陵高穆也
河內國	諸蕃	漢	山田宿禰	宿禰		出自魏司空王昶也
河內國	諸蕃	漢	山田連	連	山田宿禰同祖	忠意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山田造	造	山田宿禰同祖	忠意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長野連	連	山田宿禰同祖	忠意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志我閇連	連	山田宿禰同祖	王安高男賀佐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三宅史	史	山田宿禰同祖	忠意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大里史	史	太秦公宿禰同祖	秦始皇五世孫融通王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秦宿禰	宿禰		秦始皇五世孫融通王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秦忌寸	忌寸	秦宿禰同祖	融通王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高尾忌寸	忌寸	秦宿禰同祖	融通王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秦人		秦忌寸同祖	弓月王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秦公	公		秦始皇帝孫孝德王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秦姓			秦始皇帝十三世孫然能解公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古志連	連	文宿禰同祖	王仁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河原連	連	廣階連同祖	陳思王植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野上連	連	河原連同祖	陳思王植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河原藏人		上村主同祖	陳思王植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河內畫師		上村主同祖	陳思王植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八戶史	史		出自後漢光武帝孫章帝也
河內國	諸蕃	漢	高安造	造	八戶史同祖	盡達王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板茂連	連	伊吉連同祖	楊雍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河內忌寸	忌寸	山代忌寸同祖	魯國白龍王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火撫直	直		後漢靈帝四世孫阿知使主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下曰佐			出自漢高祖男齊悼惠王肥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高道連	連		同上
河內國	諸蕃	漢	常世連	連		出自燕國王公孫淵也
河內國	諸蕃	漢	春井連	連	下村主同祖	後漢光武帝七世孫愼近王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河內造	造	春井連同祖	愼近王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武丘史	史	春井連同祖	愼近王之後也
河內國	諸蕃	漢	当宗忌寸	忌寸		出自後漢獻帝四世孫山陽公也

本貫	種別	細分	氏族名	姓	同祖關係	始祖
河內國	諸蕃	漢	交野忌寸	忌寸		出自漢人庄員也
河內國	諸蕃	漢	廣原忌寸	忌寸		出自後漢孝獻帝男孝德王也
河內國	諸蕃	漢	刑部造	造		出自吳國人李牟意弥也
河內國	諸蕃	漢	茨田勝			出自吳國王孫皓之後意富加牟枳君也
河內國	諸蕃	漢	伯禰			出自西漢人伯尼姓光金也
河內國	諸蕃	百濟	水海連	連		出自百濟國人努理使主也
河內國	諸蕃	百濟	調曰佐		水海連同祖	
河內國	諸蕃	百濟	河內連	連		出自百濟國都慕王男陰太貴首王也
河內國	諸蕃	百濟	佐良良連	連		出自百濟國人久米都彦地
河內國	諸蕃	百濟	錦部連	連	三善宿禰同祖	百濟國速古大王之後也
河內國	諸蕃	百濟	依羅連	連		出自百濟國人素禰志夜麻美乃君也
河內國	諸蕃	百濟	山河連	連	依羅連同祖	素禰夜麻美乃君之後也
河內國	諸蕃	百濟	岡原連	連		出自百濟國辰斯王子知宗也
河內國	諸蕃	百濟	林連	連		出自百濟國直支王〈古記云周王.〉也
河內國	諸蕃	百濟	吳服造	造		出自百濟國人阿漏史也
河內國	諸蕃	百濟	宇努造	造	宇努首同祖	百濟國人彌那子富意彌之後也
河內國	諸蕃	百濟	飛鳥戶造	造		出自百濟國主比有王男昆伎王也
河內國	諸蕃	百濟	飛鳥戶造	造		百濟國末多王之後也
河內國	諸蕃	百濟	古市村主	村主		出自百濟國虎王也
河內國	諸蕃	百濟	上曰佐			出自百濟國人久爾能古使主也
河內國	諸蕃	高麗	大狛連	連		出自高麗國人伊利斯沙禮斯也
河內國	諸蕃	高麗	大狛連	連		出自高麗國溢士福貴王也
河內國	諸蕃	高麗	島本			高麗國人伊理和須使主之後也
河內國	諸蕃	新羅	伏丸			出自新羅國人燕怒利尺干也
和泉國	諸蕃	漢	秦忌寸	忌寸	太秦公宿禰同祖	融通王之後也
和泉國	諸蕃	漢	秦勝		同祖	
和泉國	諸蕃	漢	古志連	連	文宿禰同祖	王仁之後也
和泉國	諸蕃	漢	池辺直	直	坂上大宿禰同祖	阿智王之後也
和泉國	諸蕃	漢	火撫直	直		後漢靈帝四世孫阿智王之後也
和泉國	諸蕃	漢	栗栖直	直	火撫直同祖	阿智王之後也
和泉國	諸蕃	漢	楊侯史	史	楊侯忌寸同祖	達率楊公阿了王之後也
和泉國	諸蕃	漢	上村主	村主	廣階連同祖	東阿王之後也
和泉國	諸蕃	漢	蜂田藥師			出自吳主孫權王也

本貫	種別	細分	氏族名	姓	同祖關係	始祖
和泉國	諸蕃	漢	蜂田藥師			出自吳國人都久爾理久爾也. 〈古記云怒久利.〉
和泉國	諸蕃	漢	凡人中家		山代忌寸同祖	白龍王之後也
和泉國	諸蕃	百濟	百濟公	公		出自百濟國酒王也
和泉國	諸蕃	百濟	六人部連	連	百濟公同祖	酒王之後也
和泉國	諸蕃	百濟	錦部連	連	三善宿禰同祖	
和泉國	諸蕃	百濟	信太首	首		百濟國人百千之後也
和泉國	諸蕃	百濟	取石造	造		出自百濟國人阿麻意弥也
和泉國	諸蕃	百濟	葦屋村主	村主		出自百濟意宝荷羅支王也
和泉國	諸蕃	百濟	村主		葦屋村主同祖	大根使主之後也
和泉國	諸蕃	百濟	衣縫			出自百濟國神露命也
和泉國	諸蕃	新羅	日根造	造		出自新羅國人億斯富使主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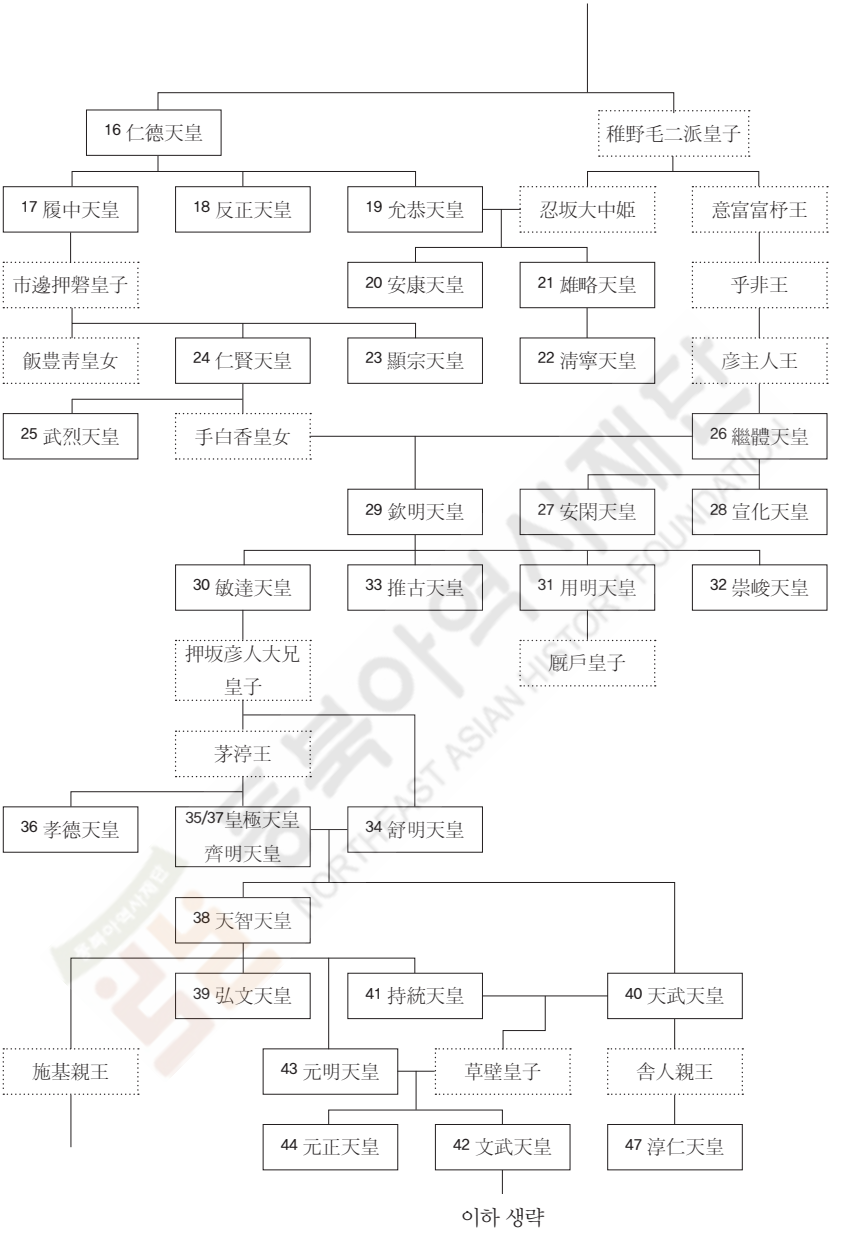
부록 2
계보, 지도

1. 『일본서기』 천황 계보
2. 武內宿禰 후예씨족 계보
3. 葛城氏 계보 및 大王家와의 관계도
4. 蘇我氏 계보 및 大王家와의 관계도
5. 大和지역 고분군 및 유력씨족 분포도
6. 고대 일본 屯倉 분포도
7. 壬申의 난 관계지도
8. 고대 일본 지도
9. 畿內 지역 고대 주요유적 분포도
10. 백제왕 계보
11. 가야 7국 위치도
12. 任那 4縣과 己汶, 帶沙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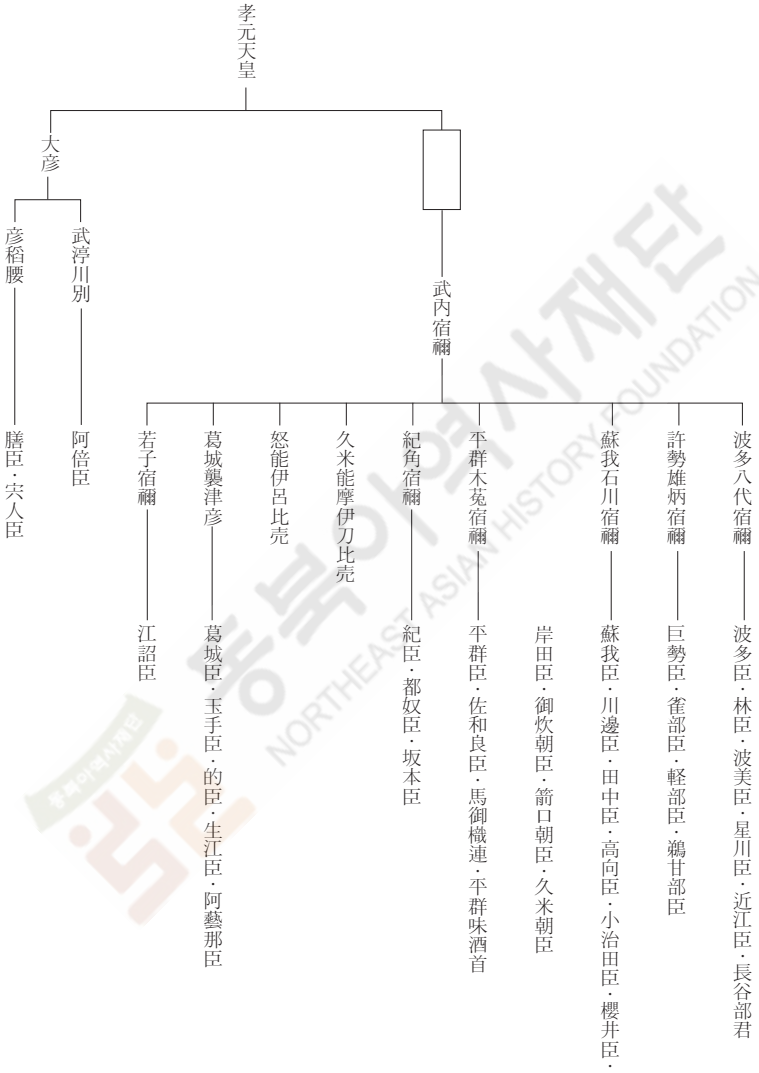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일본서기』 천황 계보


1 神武天皇
2 綏靖天皇
3 安寧天皇
4 懿德天皇
5 孝昭天皇
6 孝靈天皇
7 孝靈天皇
8 孝元天皇
9 開化天皇
10 崇神天皇
彦坐王
11 垂仁天皇
12 景行天皇
日本武尊
13 成務天皇
14 仲哀天皇
神功皇后
15 應神天皇


16 仁德天皇
稚野毛二派皇子
17 履中天皇
18 反正天皇
19 允恭天皇
忍坂大中姬
意富富杼王
市邊押磐皇子
20 安康天皇
21 雄略天皇
乎非王
飯豊青皇女
24 仁賢天皇
23 顯宗天皇
22 淸寧天皇
彦主人王
25 武烈天皇
手白香皇女
26 繼體天皇
29 欽明天皇
27 安閑天皇
28 宣化天皇
30 敏達天皇
33 推古天皇
31 用明天皇
32 崇峻天皇
押坂彦人大兄皇子
厩戶皇子
茅渟王
36 孝德天皇
35/37皇極天皇 齊明天皇
34 舒明天皇
38 天智天皇
39 弘文天皇
41 持統天皇
40 天武天皇
施基親王
43 元明天皇
草壁皇子
舍人親王
44 元正天皇
42 文武天皇
47 淳仁天皇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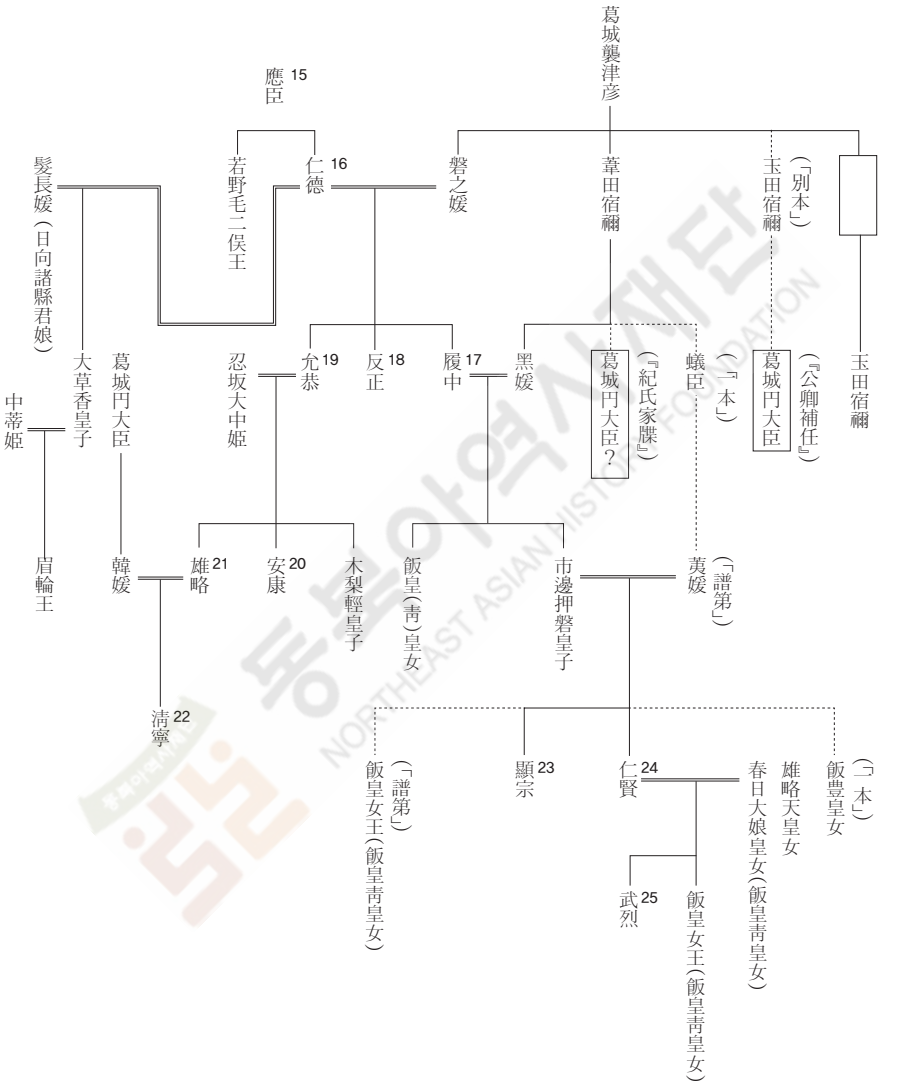
2. 武內宿禰 후예씨족 계보



傍系氏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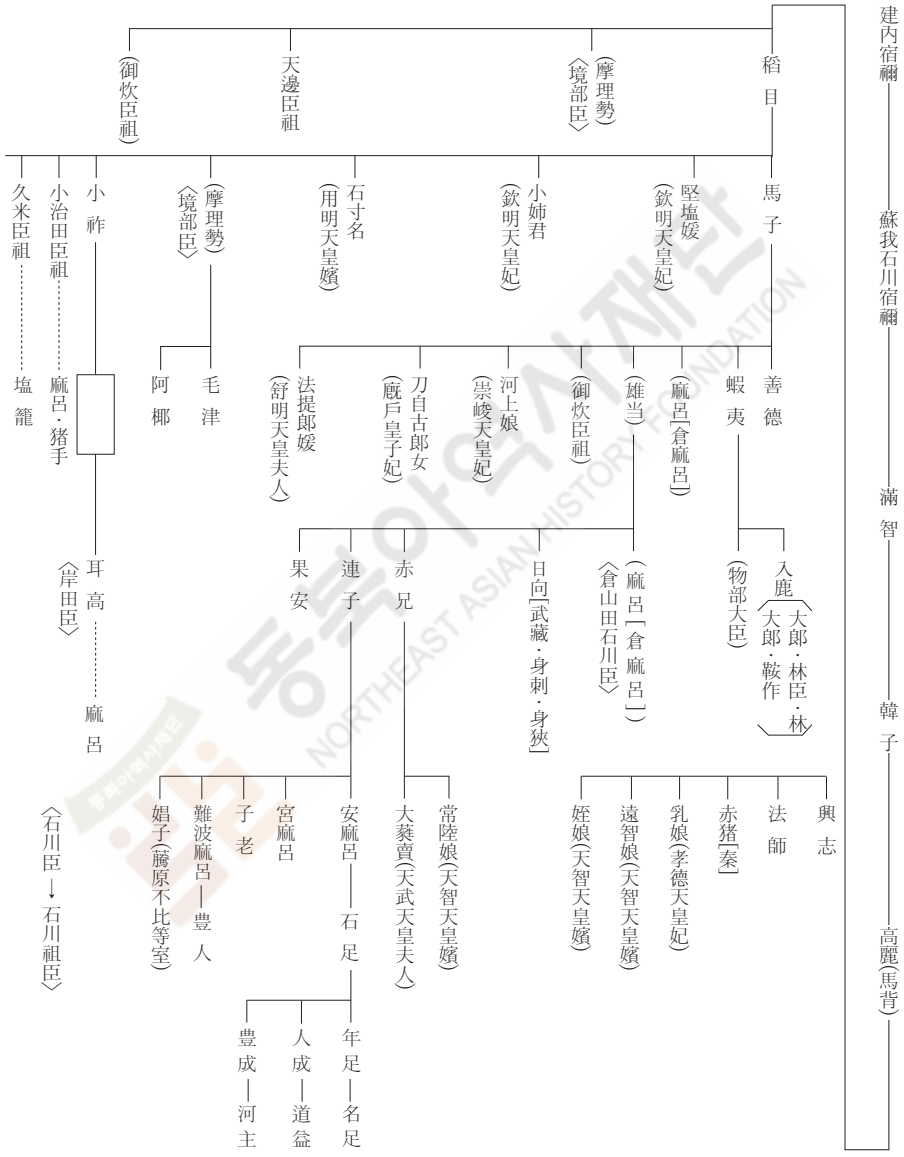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葛城氏 계보 및 大王家와의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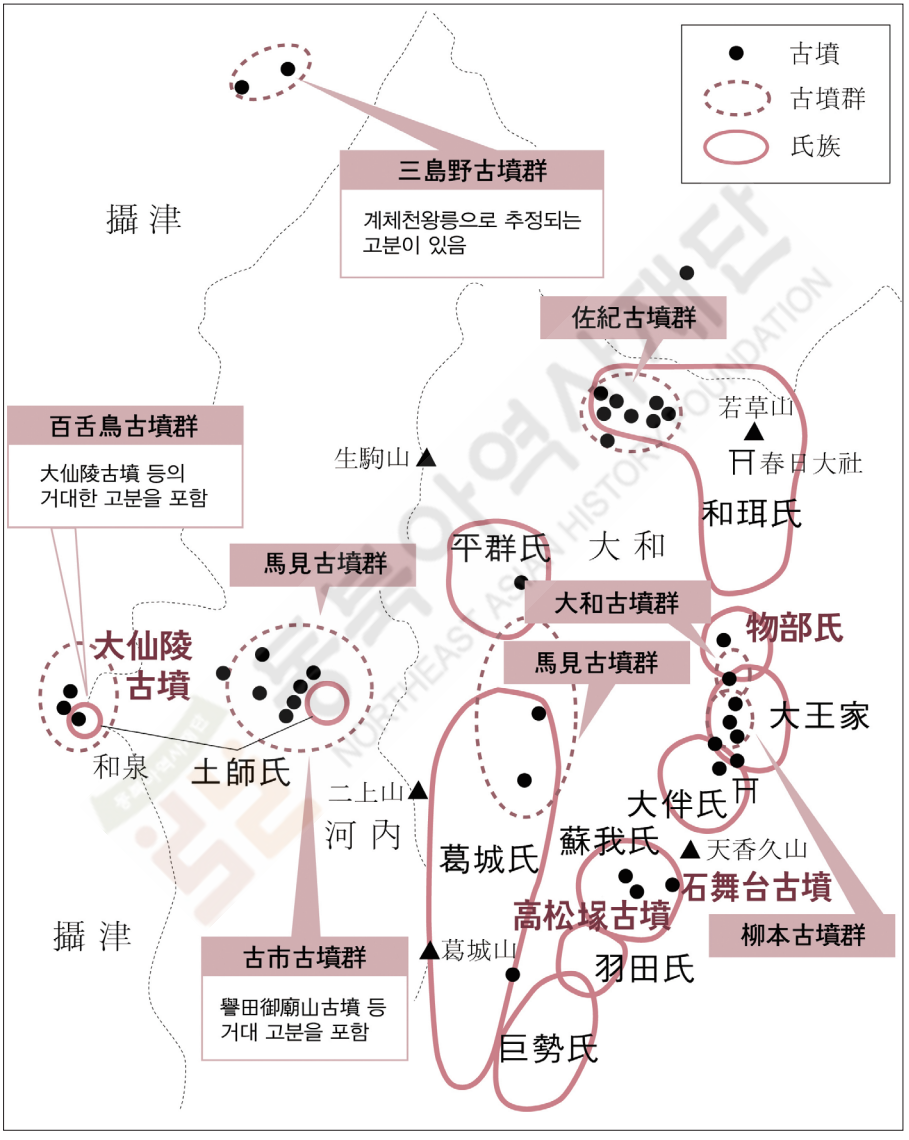
* ═══ 선은 부부관계임.

4. 蘇我氏 계보 및 大王家와의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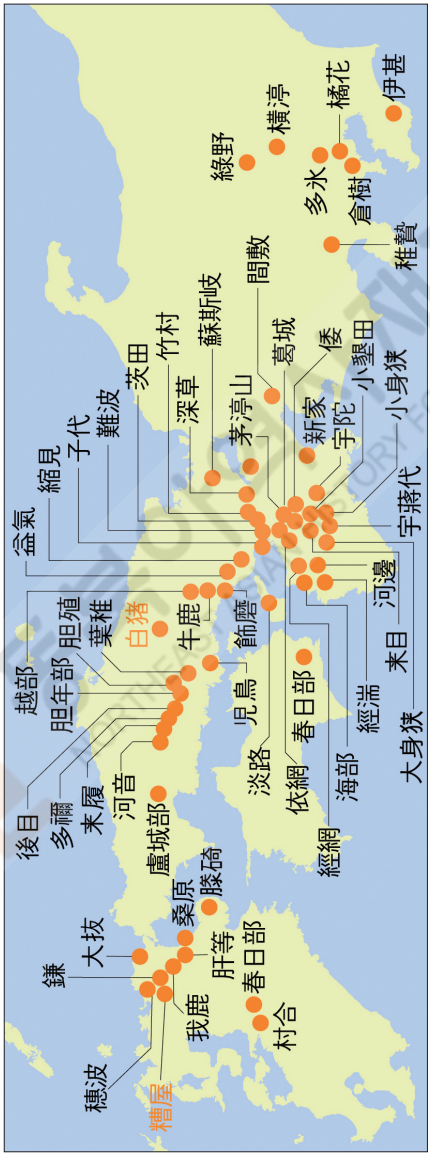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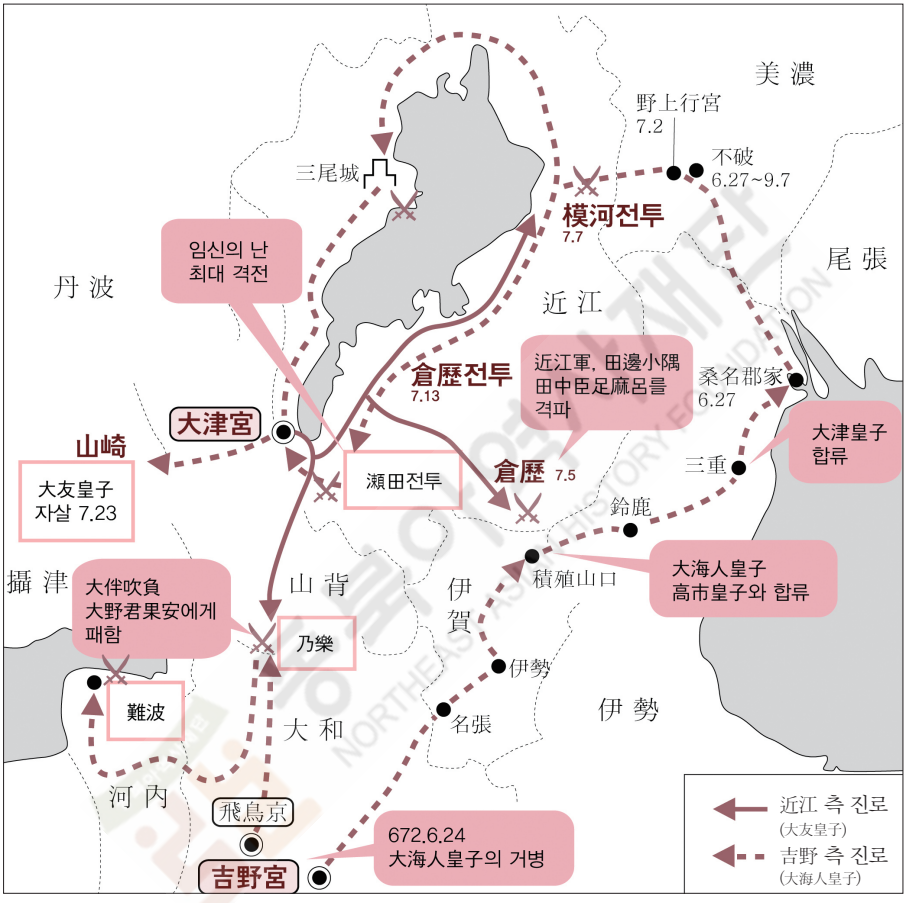
5. 大和지역 고분군 및 유력씨족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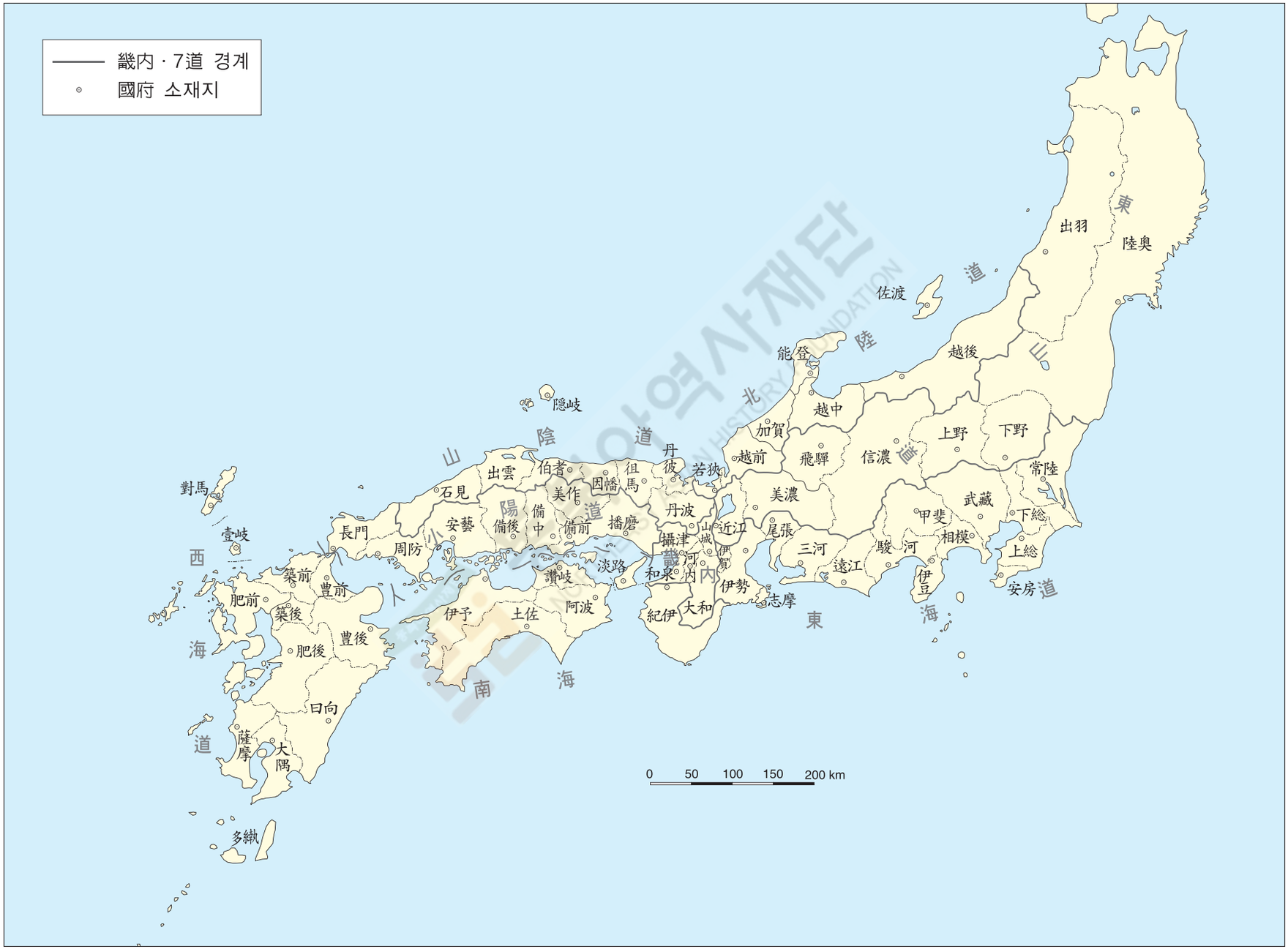
6. 고대 일본 屯倉 분포도


後目
多禰
來履
河音
盧城部
桑原
膝碕
肝等
春日部
村合
我鹿
穗波
糟屋
鎌
大抜
越部
胆年部
胆殖
葉稚
白猪
益氣
縮見
子代
難波
牛鹿
飾麿
児鳥
淡路
依網
春日部
海部
經湍
河邊
來目
大身狹
宇蘇代
小身狹
稚贄
倉樹
多氷
橘花
伊甚
横渟
綠野
間敷
葛城
倭
新家
宇陀
小墾田
茅渟山
深草
蘇斯岐
茨田
竹村

7. 壬申의 난 관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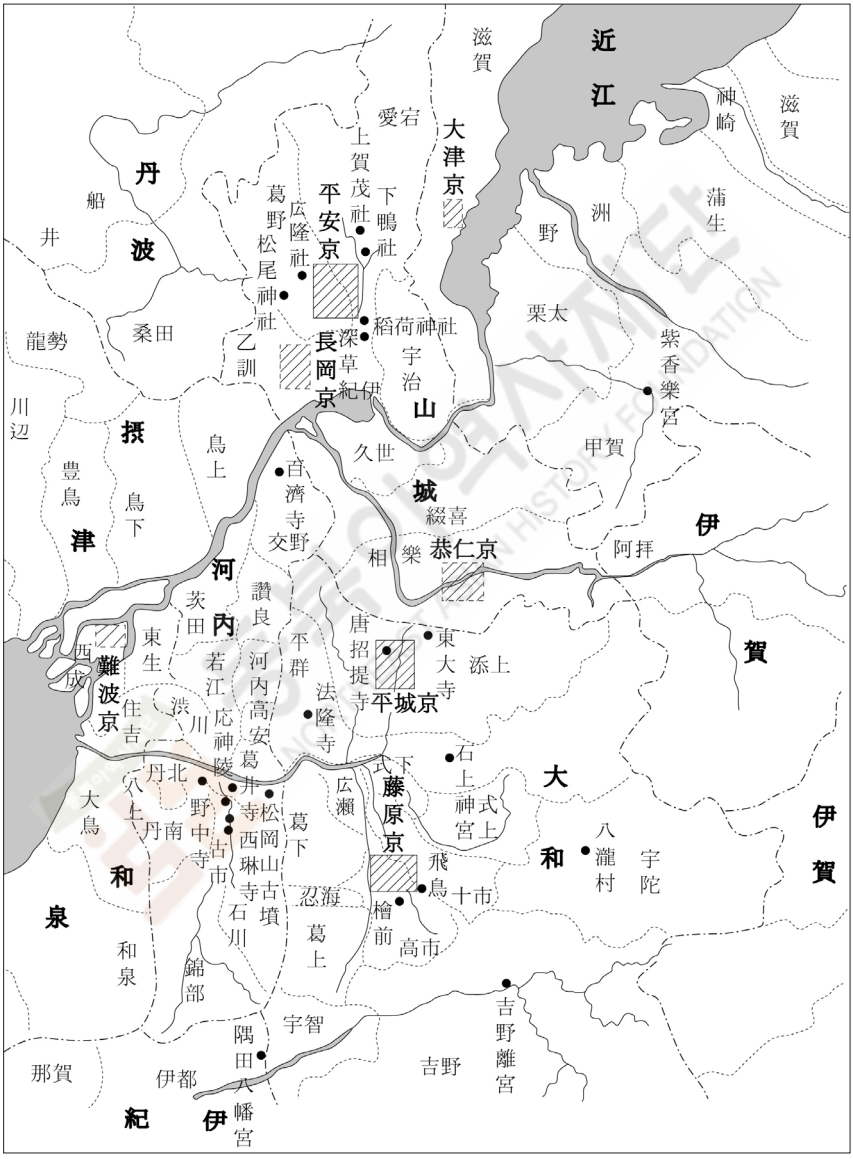

美濃
野上行宮
7.2
不破
6.27~9.7
三尾城
模河전투
7.7
尾張
丹波
임신의 난
최대 격전
近江
近江軍, 田邊小隅
田中臣足麻呂를
격파
倉歷전투
7.13
桑名郡家
6.27
大津皇子
합류
大津宮
山崎
大友皇子
자살 7.23
瀨田전투
倉歷 7.5
三重
鈴鹿
攝津
大伴吹負
大野君果安에게
패함
山背
伊賀
積殖山口
大海人皇子
高市皇子와 합류
乃樂
伊勢
難波
名張
伊勢
大和
河內
飛鳥京
吉野宮
672.6.24
大海人皇子의 거병
近江 측 진로
(大友皇子)
吉野 측 진로
(大海人皇子)

8. 고대 일본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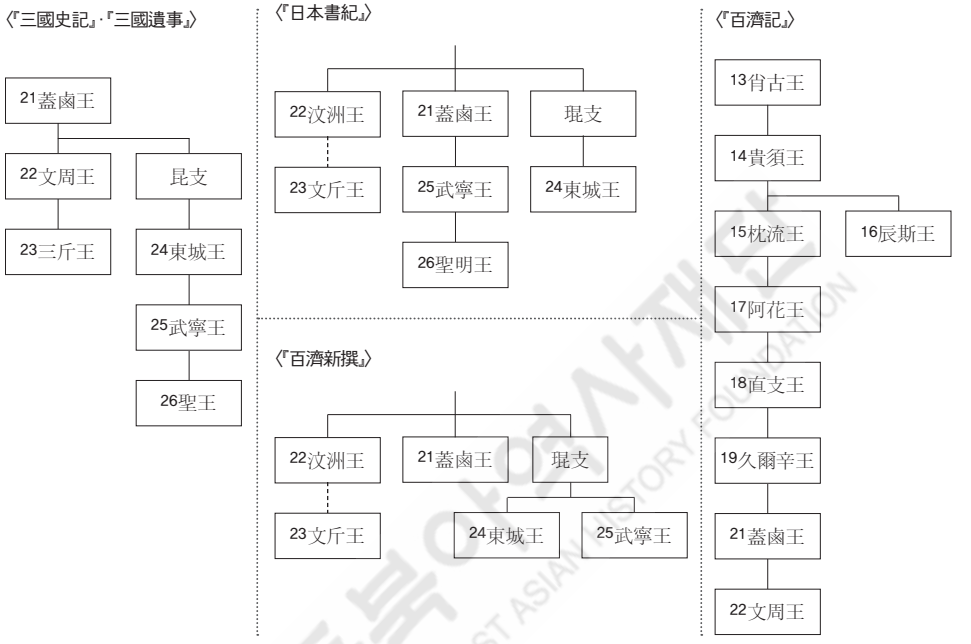

畿內 · 7道 경계
國府 소재지
出羽
陸奥
東山道
佐渡
能登
越後
越中
加賀
越前
飛驒
信濃
上野
下野
常陸
北陸道
隱岐
山陰道
出雲
伯耆
但馬
因幡
美作
石見
對馬
壹岐
山陽道
備後
備中
備前
播磨
丹波
丹彼
若狹
美濃
尾張
三河
遠江
駿河
甲斐
相模
武藏
下總
上總
安房
東海道
西海道
長門
周防
安藝
築前
豊前
肥前
築後
豊後
肥後
日向
薩摩
大隅
多禰
南海道
淡路
讚岐
伊予
土佐
阿波
和泉
紀伊
大和
攝津
河內
山城
近江
伊賀
伊勢
志摩
伊豆
0 50 100 150 200 km

9. 畿內 지역 고대 주요유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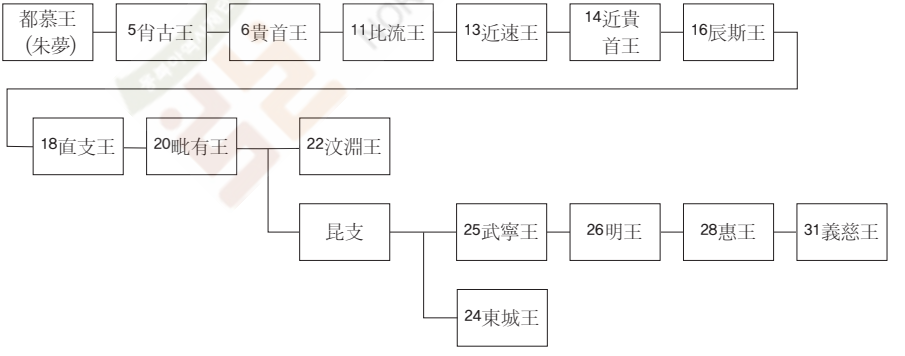
(* 宮 · 京, 寺, 고분 등)



10. 백제왕 계보



〈『新撰姓氏錄』〉



11. 가야 7국 위치도

(신공기)



* 지명 비정에 이설이 있는 경우 [ ]로 표시함.

12. 任那 4縣과 己汶, 帶沙 위치도

(계체기)



* 지명 비정에 이설이 있는 경우 [ ]로 표시함.

부록 3
금석문 및 문헌자료

1. 일본 고대 금석문
2. 일본 내 한반도 관련 문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일본 고대 금석문

七支刀

奈良縣 天理市 石上神宮에 소장된 양날 칼로 전체 길이는 74.9cm이다. 칼의 몸 좌우로 각각 가지 칼이 3개씩 뻗어 모두 7개의 칼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七支刀라는 이름이 붙었다. 칠지도에는 앞면 34자, 뒷면 27자로 모두 61자가 금상감되어 있다.

앞면 泰〈奉〉□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造百鍊(鍊)七支刀(世)辟百兵宜供(侯)王□□□□作

| 해석 | 태〈봉〉□ 4년 5월 병오(16일)에 한낮에 백 번이나 단련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 칼은 온갖 兵禍를 피할 수 있으니, 마땅히 侯王에게 줄 만하다. □□□□가 만들었다.

뒷면 先世以來未有此刀百(濟)王世(子)奇生聖音故爲倭王旨造傳(示)後世

| 해석 | 지금까지 이러한 칼은 없었는데, 백제 왕세자가 신성한 계시를 받아서 존귀하게 태어났다. 이에 일부러 왜왕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

稻荷山古墳 출토 鉄剣과 銘文

1968년 埼玉縣 行田市의 稻荷山古墳(5세기 후반 축조, 전방후원분)에서 출토된 철검으로 전체 길이가 73.5cm이다. 이 철검에는 앞면에 57자, 뒷면에 58자로 모두 115자가 금상감되어 있다.

앞면 辛亥年七月中記乎獲居臣上祖名意富比垝其兒多加利足尼其兒名弖已加利獲居其兒名多加披次獲居其兒名多沙鬼獲居其兒名半弖比

| 해석 | 辛亥年(471) 7월 중에 기록한다. (나는) 乎獲居臣이다. 나의 조상의 이름은 意富比垝, 그 아들은 多加利足尼, 그 아들의 이름은 弖已加利獲居, 그 아들의 이름은 多加披次獲居, 그 아들의 이름은 多沙鬼獲居, 그 아들의 이름은 半弖比,

뒷면 其兒名加差披余其兒名乎獲居臣世々爲杖刀人首奉事來至今獲加多支鹵大王寺在斯鬼宮時吾左治天下令作此百練利刀記吾奉事根原也

| 해석 | 그 아들의 이름은 加差披余, 그 아들의 이름은 乎獲居臣이다. 대대로 杖刀人의 수장이 되어 봉사해 오니 지금에 이르렀다. 獲加多支鹵大王이 斯鬼宮에 있을 때 내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도왔다. 이에 백련의 利刀를 만들 것을 명하여 내가 봉사한 근원을 기록한다.

江田船山古墳 출토 鐵刀와 銘文

1873년 熊本縣 玉名郡 和水町의 江田船山古墳(5세기 후반 축조, 전방후원분)에서 출토된 철도로 전체 길이가 90.6cm이다. 이 철도에는 모두 75자가 은상감되어 있으며, 剝落된 글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治天下獲□□□鹵大王世奉事典曹人名无利弖八月中用大鐵釜幷四尺廷刀八十練六十捃三寸上好刊刀服此刀者長壽子孫洋々得□恩也不失其所統作刀者名伊太和書者張安也

| 해석 | 천하를 다스리는 獲□□□鹵大王 시절, 典曹人으로 봉사한 无利弖가 8월 중에 큰 솥과 4척의 廷刀를 사용하여 80번 단련하고 60번 정련을 거듭하여 3寸의 좋은 칼을 만들었다. 이 칼을 가지는 자는 장

수하고 자손이 번영하여 三恩을 얻을 것이다. 그 통솔하는 바를 잃지 않을 것이다. 칼을 만든 자의 이름은 伊太和이고 글을 쓴 자는 張安이다.

稻荷台1號墳 출토 鐵劍과 銘文

1987년 千葉縣 市原市 山田橋字의 稻荷台1號墳(5세기 중반 축조, 원분)에서 출토된 철검으로 전체 길이가 73cm이다. 이 철검에는 모두 12자가 은상감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5자 정도는 전혀 알 수 없어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앞면 王賜□□敬(安)

뒷면 此廷(刀)□□□

岡田山1號墳 출토 鐵刀와 銘文

1915년 島根縣 松江市 大草町의 岡田山1號墳(6세기 후반 축조, 전방후방분)에서 출토된 철도로 유실된 부분이 많아 전체 길이(잔존 길이는 49.8cm)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유실된 끝 부분에 겨우 12자 정도의 은상감된 명문만 확인 가능하다. 이 가운데서도 해독할 수 있는 글자는 '各田了臣'이다.

各田刀臣□□□素□大利□

(各田了臣는 額田部臣으로 판단됨)

箕谷2號墳 출토 鐵刀와 銘文

1984년 兵庫縣 養父市 八鹿町의 箕谷2號墳(7세기 축조, 원분)에서 출토된 철도로 전체 길이는 68cm이다. 이 철도에는 모두 6자가 동상감되어 있다.

戊辰年五月□

(무진년은 608년으로 추정)

중국 전래 中平刀

1962년 奈良縣 天理市의 東大寺山古墳(4세기 후반 축조, 전방후원분)에서 출토된 철도로 전체 길이 110cm이다. 이 철도에는 모두 24자가 금상감되어 있다.

中平□□五月丙午 造作支刀 百練淸剛 上應星宿 □□□□

| 해석 | 中平(184~189년) □년 5월 병오일에 銘文을 새긴 칼을 만들었다. 잘 단련된 鋼刀이기 때문에 天上에서는 神의 뜻에 화합할 수 있고, 下界에서는 災禍를 피할 수 있다.

隅田八幡神社人物畫像鏡

和歌山縣 橋本市의 隅田八幡神社에 소장된 銅鏡(5~6세기 제작)으로 지름은 19.9cm이다. 이 동경의 뒷면에는 69자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양각(주조)되어 있다.

癸未年八月日十大王年男弟王在意柴沙加宮時斯麻念長壽遣開中費直穢人今州利二人等取白上同二百旱作此竟

| 해석 | 癸未年(443년 또는 503년) 8월 日十大王年, 男弟王이 意柴沙加宮에 있을 때 斯麻가 장수를 기원하여 開中費直과 穢人 今州利 두 사람을 보내 흰색의 좋은 구리 200旱을 가지고 이 거울을 만들었다.

2. 일본 내 한반도 관련 문헌
–『일본서기』와 관련하여 –

('*'표시 문헌은 한반도 관련 기록이 많고,『일본서기』의 사료를 비판·해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동시에 일본고대 역사서의 성립과정 및 당대 지식인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역사서	*古事記	712
	※日本書紀	720
	續日本紀	797
	日本後紀	840
	續日本後紀	869
	日本文德天皇實錄	879
	日本三代實錄	901
	類聚國史	892
	先代舊事本紀	9~10세기
	日本紀略	미상
	百練抄	13세기 후반
	帝王編年記	1380
	日本逸史	1692
	日本書紀私記	미상
	*釋日本紀	13세기 후반
	愚管抄	1220
	神皇正統記	1343
	善隣國宝記	1470
	續善隣國宝記	18세기 중반
법령집	令義解	833
	令集解	9세기 중반
	延喜式	927
	類聚三代格	11세기
	政事要略	1002
씨족 관련 사료	*藤氏家傳	760
	*新撰姓氏錄	815
	公卿補任	10세기
	尊卑分脈	1395 이전

지지(地誌)	*風土記	733 전후
	懷橘談	1661
사료집·일기	東大寺要錄	1106
	平安遺文	1980
	貞信公記	948 이후
	九曆	960 이후
	猪隈關白記	1211 이후
	上井覺謙日記	1586 이후
불교 관련 자료	*元興寺緣起	747
	興福寺緣起	900
	*上宮聖德法王帝說	10세기
	*聖德太子傳曆	10세기 말
	僧綱補任抄出	1165
	佛法傳來次第	12세기 후반
	聖德太子傳私記	1238
	開目抄	1272
	佛法由來集	1284
	三國佛法傳通緣起	1311
	上宮太子拾遺記	14세기
	聖德太子平氏傳雜勘文	1314
	*元亨釋書	14세기
	本朝高僧傳	1702
문학작품	*懷風藻	751
	*萬葉集	759
	日本國現報善惡靈異記	822
	菅家文草	900
	源氏物語	11세기 초반
	宇津保物語	미상
	大鏡	12세기 전반
	今昔物語集	12세기 전반
	水鏡	12세기 말
	平治物語	미상
	平家物語	13세기
	古今著聞集	1254
	梵天國	미상
	用明天王職人鑑	1705

문학작품	統道眞伝	1752
	雨月物語	1776
	胆大小心錄	1808
	蘭東事始	1815

역사서

•『古事記』

신화·전설·가요·계보 등을 소재로 하여 일본 건국의 유래와 제1대 神武천황부터 제33대 推古천황까지의 事蹟을 기록한 일본 현존 最古의 典籍이며, 전체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天武천황대에 천황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던 역사 저술사업을 元明천황이 계승하여, 太安萬侶에게 稗田阿禮가 암송하고 있던 천무천황대의 역사 저술 내용을 필록하도록 명하였다. 712년 太安萬侶가 和漢混用體의 문장으로 기록하여 이를 원명천황에게 奏上하였다. 일본 최초의 사서로 일본고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일본고전문학대계 등에 수록되었다.

•『日本書紀』

神代부터 持統天皇 11년(697)까지를 서술한 편년체 사서이다. 天武천황대부터 역사서 편찬사업이 시작되어 持統·文武·元明천황을 거치며 계속 추진되어 元正천황대인 720년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720년의 책임자는 舍人親王으로 역사서가 완성된 후 元正천황에게 奏上하였다. 전체 30권, 系圖 1권이지만, 系圖는 전해지지 않는다. 권1·2는 神代卷이며, 권3~권30은 神武천황부터 持統천황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하였다. 일본고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서이며, 한국에 관한 많은 기사가 수록되어 있어 한국 고대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續日本紀』

六國史의 하나로 『日本書紀』의 뒤를 잇는 편년체 사서이며, 전체 4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光仁천황 때에 石川名足 등이 편집한 것을 桓武천황 때에 藤原繼繩·菅野眞道 등이 개정하여 전반부를 완성하였고, 다시 후반부를 편찬, 수정하여 797년 완성하였다. 697(文武천황 원년)~791년(桓武천황 延曆 10)까지 95년 동안의 일본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하였다. 奈良시대의 기본 사료이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日本後紀』

六國史의 하나로 『續日本紀』의 뒤를 잇는 편년체 사서이다. 전체 40권으로 840년 간행된 관찬사서이다. 藤原緖嗣 등이 嵯峨천황의 명으로 편찬을 시작하여, 淳和천황대와 仁明천황대 등 모두 3차에 걸쳐 편찬이 이루어졌다. 平安시대 초기의 근본 史料로서 792(延曆 11)~833년(天長 10)의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현재는 그 중 10권(桓武紀 4권, 平城紀 2권, 嵯峨紀 4권)이 전해지고 있다. 결실된 부분은 『類聚國史』·『日本紀略』 등에 의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續日本後紀』

六國史 중 네 번째 勅撰史書이다. 전체 20권으로, 855년 文德천황의 명으로 右大臣 藤原良房 등이 편찬을 시작하여 869년 완성하였다. 833(天長 10)~850년(嘉祥 3)까지 仁明천황 1代의 사적을 기록한 실록체 사서로, 내용은 유교적인 의례, 천황의 동정, 궁중행사 기사가 자세하게 수록되었다. 율령이나 국가의 동향을 전하는 기사는 비교적 적다. 외교, 怪異 등의 기사가 많고 4위 이상 귀족, 관인의 薨卒 전기에는 성품과 관련된 사적을 기록하고 있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日本文德天皇實錄』

六國史 중 다섯 번째 正史이다. 문덕천황의 일대를 대상으로 한 편년체 사서로 전체 10권이다. 871년 淸和천황이 右大臣 藤原基經 등에게 명하여 제1차 편찬이 이루어졌으며, 陽成천황 때에 제2차 편찬을 하여 879년 완성되었다. 嘉祥 3년(850) 3월부터 天安 2년(858) 8월에 이르는 8년 6개월간의 일이 수록되었다. 六國史 중에서 처음으로 實錄이라는 명칭을 채용하여 『日本三代實錄』에 답습되었다. 다른 국사에 비해 格을 매우 적게 인용하고 있지만, 인물의 전기가 풍부하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日本三代實錄』

六國史 중 최후의 正史이다. 宇多천황의 명으로 源能有·藤原時平·菅原道眞·大藏善行·三統理平이 편찬하기 시작하여 醍醐천황 때인 901년에 완성하였다. 전체 50권이며, 淸和天皇·陽成天皇·光孝天皇 3代의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858(天安 2)~887년(仁和 3)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연중행사에 관한 기사와 詔勅·上表·願文 등을 자세하게 싣고 있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類聚國史』

六國史(『日本書紀』·『續日本紀』·『日本後紀』·『續日本後紀』·『日本文德天皇實錄』·『日本三代實錄』)의 기사를 神祇·帝王·後宮·政理 등의 사항별로 분류하여 연대순으로 수록한 책이다. 編者는 菅原道眞으로 892년에 성립하였지만 뒤에 增補가 있었다. 원래 本編 200권, 目錄 2권, 帝王系圖 3권 등이나, 현존하는 것은 61권이며, 抄出本 1권이 있다. 六國史의 기사를 뽑아 보는 데 편리할 뿐 아니라 六國史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도 많아서 일본 고대사연구에 중요한 사료이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先代舊事本紀』

『舊事紀』 또는 『舊事本紀』라고도 하며 저자 미상의 사서이다. 서문에는 추고 28년(620)에 聖德太子와 蘇我馬子가 찬록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을 통해서 볼 때 平安 초기에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10권으로 구성되었으며, 神代부터 추고천황대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國造本紀」와 「天孫本紀」라는 자료가 인용되어 있는데 尾張氏와 物部氏 등의 계보와 씨족 전승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일본 고대사 연구에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日本紀略』

神代부터 11세기 전반의 後一條天皇까지의 편년체 사서이다. 전체 34권이며, 성립연대와 편자는 확실하지 않다. 光孝천황까지는 六國史의 抄錄, 宇多천황부터 後一條천황까지는 『新國史』·『外記日記』 등에서 抄錄한 것이다. 六國史의 校勘에 도움이 되고, 缺失부분이 많은 『日本後紀』의 원형을 엿볼 수 있다. 六國史 이후 平安시대 중기에 이르는 기본사료로 매우 중요하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百練抄』

13세기 후반경에 성립된 역사서로 『百錬抄』라고도 한다. 編者는 미상이다. 968~1259년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하고 있다. 전체 17권이지만 권1~3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귀족들의 일기를 사료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鎌倉時代 京都 公家사회의 동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帝王編年記』

年代記로 승려 永祐가 편찬하였다고 하나 근거는 없다. 1364~1380년 사이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神代부터 後伏見院에 이르는 27권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천황대별로 卽位前紀와 당대의 중요 사항을 편년체로 기록하고, 나아가 皇統譜·攝關·大臣·大將·鎌倉將軍·執權 등의 補任 등을 적고, 天竺·震旦의 사항을 수록하였다. 천황 역대의 年代記에 일본과 중국의 전적을 주로 적어 넣은 것이다. 일본 자료로는 六國史·『扶桑略記』·『皇帝紀抄』·『吾妻鏡』 등이 많이 인용되었지만 이미 없어진 책도 인용되고 있으며, 이 책에 가장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는 경우도 있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日本逸史』

편년체 사서이며, 편찬자는 鴨祐之이다. 전체 40권으로 1692년(元祿 5)에 완성하여 1724년(享保 9)에 간행하였다. 散逸한 『日本後紀』를 복원하기 위해 『類聚國史』·『類聚三代格』·『日本紀略』·『公卿補任』·『令集解』·『政事要略』 등에서 延曆 11(792)~天長 10년(833)까지의 관계 사료를 수집하여 出典을 註로 명기하였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日本書紀私記』

奈良시대부터 平安시대 중기에 걸쳐 궁정에서 행하여졌던 『日本書紀』 講讀의 메모로 『日本紀私記』라고도 한다. 養老 5년(721) 私記(全1卷), 弘仁 4년(813) 私記(全3卷), 承和 6년(839) 私記, 元慶 2년(878) 私記(全1卷), 延喜 4년(904) 私記, 承平 6년(936) 私記, 康保 2년(965) 私記, 日本紀 私記(全3卷) 등을 모은 것이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釋日本紀』

현존하는 最古의 『日本書紀』 주석서이다. 鎌倉時代 中期에 성립되었으며, 저자는 卜部兼方이다. 전체 28권이며, 平安시대 초기 이후 『日本書紀』를 강독해 온 博士들의 설과 講讀의 私記에 卜部家의 家學으로 전해져 오던 것을 모은 것이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神皇正統記』

北畠親房이 1339년(曆応 2)에 常陸國의 小田城에서 집필하여 1343년(康永 2)에 常陸國의 關城에서 수정한 후 後村上天皇에게 바쳤다. 어린 천황이 참고할 역사서로 집필하였다고 하지만, 당시 南北朝의 동란 가운데 東國 무사를 결집하기 위해 집필하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神代부터 後村上天皇까지 역대 천황의 사적, 역사의 변화를 서술하면서 南朝의 정통성을 강조하여 후세의 史觀·國體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고전문학대계에 수록되었다.

• 『愚管抄』

鎌倉시대 초기에 天台座主 慈圓이 저술한 중세의 대표적인 사서이다. 1220년에 성립하였지만 承久의 난 이후에 수정·보완하였다. 慈圓은 섭관가 출신이지만 귀족정권에서 武家政權으로 이행하는 역사를 냉정하게 보면서, 말법사상과 道理의 이념에 의해 일본역사 전개를 서술하고 있다. 전체 7권(연대기 2권, 본문 4권, 부록 1권)으로 (新訂增補)國史大系, 일본고전문학대계 등에 수록되었다.

• 『善隣國寶記』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대외관계 및 외교문서집이다. 전체 3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470년에 편찬되었다. 1464년 室町막부는 遣明使를 파견하면서 명

황제에게 보낼 상표문을 작성하도록 瑞溪周鳳에게 명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瑞溪周鳳이 外交文書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자 편찬하였다. 상권은 垂仁천황 88년부터 明德 3년(1392)까지 승려의 왕래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교섭을 적고 있다. 『元亨釋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곳이 많지만, 『海外國記』·『書籍後傳記』 등 현존하지 않는 책에서 인용한 것도 있다. 중권과 하권은 應永 5년(1358)부터 文明 18년(1386)까지의 명·조선과의 왕복문서와 그 別幅을 수록하였다. 室町막부의 對明조공외교를 비난한 것으로 유명하다. 『續群書類從』에 수록되었다.

•『續善隣國寶記』

文明 5년(1473)부터 万治 3년(1660)까지의 외교문서를 집성한 사료집이다. 江戶시대 중기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舊彰考館本 二冊(전쟁으로 燒失), 東京大學史料編纂所本 一冊, 東京都立中央圖書館市村文庫本 二卷一冊 등이 있다.

법령집

•『令義解』

養老令의 官撰 註釋書이다. 826년 明法博士 額田今足이 律令條文에 대한 공적 주석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계기로 국가사업으로 주석서 편찬 사업이 시작되었다. 右大臣 淸原夏野 등 12명의 편찬자가 참여하여 833년에 완성하였다. 대부분의 令文해석은 明法家의 해석 중에서 中道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10卷 30編으로 구성되었지만 현재는 8권 倉庫令·医疾令 부분이 없어졌다. 일본 율령국가의 법제와 행정제도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令集解』

養老令의 私撰 註釋書로 편찬자는 明法博士 惟宗直本으로 알려져 있다. 養老令文에 관한 9세기 중엽 이전의 여러 학설을 집성한 책이다. 원래 권수는 미상이지만 현존하는 『令集解』는 32권이다. 『令義解』뿐만 아니라 「古記」·「令釋」·「跡記」·「穴記」 등 사찬 주석서의 설명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인용한 「古記」나 「師說」 등을 통해 大寶令의 내용도 알 수 있다. 일본 律令制 초기의 실체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延喜式』

律令格에 대한 시행세칙을 집대성한 고대법전 중의 하나로, 弘仁式·貞觀式과 함께 三代式으로 불린다. 905년 醍醐天皇의 명을 받고 藤原時平(時平 사후에는 藤原忠平)을 비롯한 12명의 편찬위원이 編纂에 착수하여 927년에 완성하였다. 전체 50권으로 홍인식과 정관식, 그 후의 식을 取捨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967년부터 이 연희식에 의해 법이 시행되어 정치의 전거가 되었다. 삼대식 중에서 현재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이다. 公家制度를 비롯해 일본고대사 연구에 불가결한 자료이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類聚三代格』

11세기에 編纂된 法令集으로 編者는 미상이다. 현재 12卷本과 20卷本이 남아 있는데, 缺失된 부분은 많지 않다. 弘仁格·貞觀格·延喜格을 모아서 神社事·國分寺事·廢置諸司事·調庸事·禁制事 등과 같은 주제별로 편집하였다. 8세기 초부터 10세기 초까지의 1천 개 이상의 格이 수록되었다. 律令의 내용과 그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政事要略』

平安시대 법제서이며, 원래 130권이었으나 현재 25卷이 남아 있다. 藤原實資의 명을 받아 明法博士 惟宗允亮이 1002년경 편찬하였다. 당시 年中行事·公務要事·交替雜事·糾彈雜事·至要雜事·國郡雜事·臨時雜事의 7항목으로 나누어 정무전반에 관한 제도와 사례를 널리 모아 수록하였다. 현존하는 것은 연중행사 등 일부만 남아 있지만, 平安시대의 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이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씨족 관련 사료

• 『藤氏家傳』

760년 上·下 두권으로 편찬되었다. 上권 「大織冠傳(鎌足傳)」은 藤原鎌足의 손자인 惠美押勝(藤原仲麻呂)이 작성하였다. 藤原鎌足과 定惠, 藤原史(藤原不比等)의 전기가 수록되었는데 藤原不比等의 전기는 현존하지 않는다. 下권 「武智麻呂傳」은 백제계 승려 延慶이 편찬하였다.

• 『新撰姓氏錄』

平安京과 5畿內에 거주하던 고대 씨족의 系譜書로 『姓氏錄』이라고도 한다. 전체 30권, 목록 1권 등이다. 그러나 현재 完本은 전해지지 않고 초록본만 전한다. 799년 桓武천황의 명으로 씨족들의 계보를 모으는 사업이 시작된 후, 815년에 이를 萬多親王 등이 완성하였다. 平安京과 5畿內에 살던 1,182씨족의 出自를 조사하여, 천황가에서 유래한 씨족[皇別], 天神地祇에서 유래한 씨족[神別], 도래계 씨족[諸蕃] 등으로 분류하고, 다시 지역별로 정리하였다. 고대 씨족 연구에 중요한 사료이다. 현존 초록본을 佐伯有淸이 校訂하여 『新撰姓氏錄の硏究』 本文篇(吉川弘文館)으로 정리하였다.

• 『公卿補任』

초대 神武天皇부터 明治 元年(1868)까지 公卿의 氏名·官歷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高官 職員錄이다. 편찬자와 권수는 확실하지 않다. 弘仁 2년(811)에 완성된 『歷運記』(일명 公卿記)를 기초로 하여 10세기경에 『公卿補任』이 만들어졌다. 그 후 기록을 추가하여 지금의 『公卿補任』이 되었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尊卑分脈』

諸氏의 家系圖로 洞院公定이 1377년 이후 1395년 이전에 편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 있는 系圖는 그 후에 증보되고 수정된 것이다. 본문은 이름을 큰 글씨로 적고 그 좌우에 작은 글씨로 역임한 官職·位階·生母·沒日·年齡·事蹟 등을 註로 적고, 관계를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본서에만 보이는 독자적인 所傳도 있어 귀중한 자료이지만, 傳寫할 때 잘못 전사한 것도 눈에 띄어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한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지지(地誌)

• 『風土記』

奈良시대의 地誌이다. 713년에 元明천황이 郡·鄕의 유래, 산물, 지형, 전승 등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명하였고, 諸國이 이에 따라 解文의 형태로 중앙정부에 보고한 것이다. 60여 개 國에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常陸·出雲·播磨·肥前·豊後의 5개국의 것이다. 이 중에서 完本이 남은 것은 『出雲國風土記』(733년 성립)뿐이다. 古代 日本의 지방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日本古典文學大系 등에 수록되었다.

• 『懷橘談』

出雲國의 地誌로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은 1653년에 성립되었고, 하권은 1661년에 성립되었다. 저자 黑澤石齋는 松江藩主 松平直政의 家臣이며, 유학자로 出雲國의 村里·神社·寺院·自然을 견문하고 이 책을 저술하였다. 『續續群書類從』에 수록되었다.

사료집·일기

• 『東大寺要錄』

平安시대 院政期에 성립한 東大寺 寺誌이다. 전체 10권으로 1106년에 완성되었다. 編者는 미상이다. 1134년에 觀嚴에 의해 增補, 재편집이 이루어졌다. 東大寺의 諸院·別當·末寺 등의 緣起에 관하여 기록한 사료집이다. 창건기부터 평안시대에 이르기까지 東大寺의 발전과 그 시대배경을 엿볼 수 있는 풍부한 소재가 수록되었다. 『續續群書類從』에 수록되었다.

• 『朝野群載』

平安시대 후기의 詩文·文書集으로 編者는 三善爲康이다. 1116년(永久 4)에 완성되었고, 후에 증보되었다. 전체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는 21권이 확인된다. 권1~권3은 文筆部로 賦·詩·銘·啓·願文·祭文 등 각종 시문을 모았다. 권4 이후는 각종 公文書와 私文書를 모아 놓았다. 중급 관료를 위한 실무용 文例集의 성격을 띠고 있어, 平安시대 후기의 행정·문서의 실태를 알려주는 유익한 자료이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 『平安遺文』

竹內理三이 1947년부터 1980년까지 걸쳐 편찬한 平安시대 사료집이다.

古文書編 11권, 金石文編 1권, 題跋編 1권, 索引編 2권으로 되어 있으며, 東京堂出版에서 간행하였다. 天応 元年(781)부터 元暦 2년(文治 元年, 1185) 8월까지의 古文書 5천5백여 통과 金石文 565점 등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平安時代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제1 사료이다.

·『貞信公記』

攝政 關白 太政大臣 藤原忠平의 일기이다. 忠平의 아들 實頼가 초록한 초본의 형태로 남아 있다. 忠平의 28세(907년)부터 69세(948년)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10세기 전반의 政務·儀式에 관한 기록이 많아 기본사료로 중요하다. 현존하고 있는 平安시대 귀족의 제일 오래된 일기이다. 大日本古記錄에 수록되었다.

·『九暦』

右大臣 藤原師輔의 일기이다. 원형은 존재하지 않고 초록본(『九暦抄』)·別記(『九條殿記』) 師輔가 아버지 忠平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九暦記』(『貞信公救命』) 등에 인용된 逸文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기는 930~960년까지 궁정의 상세한 의식·연중행사, 자택에서 열었던 연회와 행사 등에 관해 자세히 기록하여, 당시의 풍속 사료로 귀중하다. 大日本古記錄에 수록되었다.

·『猪隈關白記』

關白 近衛家實의 일기이다. 주요부분은 19세(1197년) 權中納言兼右近衛中將 때부터 34세(1211년) 關白 때까지 기록한 일기에 해당된다. 後鳥羽上皇의 院政期부터 承久의 난 이후에 이르는 公家日記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大日本古記錄에 수록되었다.

• 『上井覺謙日記』

戰國大名 島津義久의 家臣 上井覺謙의 일기이다. 전체 27책으로 1574년부터 1586년까지 기록한 일기이다. 전국시대 말기부터 織豊시대에 걸쳐 島津氏를 둘러싼 정치정세와 무사사회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며, 藝能·文藝에 관한 사료로도 가치가 높다. 大日本古記錄에 수록되었다.

불교 관련 자료

• 『元興寺緣起』

747년 성립되었으며 원래 『元興寺伽藍緣起幷流記資財帳』이 정식명칭이다. 이 연기에는 元興寺의 유래나 자재 목록이 적혀있는데, 내용 가운데 『上宮聖德法王帝說』과 함께 538년에 백제 성명왕이 흠명천황에게 불교를 전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大日本佛敎全書』에 수록되었다.

• 『興福寺緣起』

흥복사의 緣起로 藤原良世가 昌泰 3년(900)에 撰述하였다. 전체 1권이다. 金堂·講堂·五重塔·南圓堂의 창건 유래와 금당의 釋迦丈六像과 脇侍菩薩像, 강당의 羂索菩薩像 등의 조영과 흥복사에서 개최되는 維摩會·法華會·長講會 등 법회의 기원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大日本佛敎全書』에 수록되었다.

• 『上宮聖德法王帝說』

聖德太子의 傳記로 1권이며, 편저자는 미상이다. 平安 中期에 성립되었다. 聖德太子를 중심으로 한 황실 계보, 성덕태자의 事蹟, 法隆寺의 金堂藥師像光背銘, 釋迦像光背銘과 그 주석, 天壽國繡帳銘과 주석 등 성덕태자의 전기 자료, 성덕태자 事蹟의 보충, 欽明천황부터 推古천황까지 다섯 천황의 재위년

수·崩年·陵名, 태자의 생몰년·묘소 등에 대해 적고 있다. 『古事記』·『日本書紀』와 다른 傳承도 많이 실려 있어 귀중한 사료이며, 태자신앙과 설화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책이다. 『群書類從』에 수록되었다.

·『聖德太子傳曆』

聖德太子 傳記로 전체 2권이며, 편찬자는 미상이다. 10세기 말경에 편찬되었다. 내용은 聖德太子 兩親의 결혼에서 시작하여 태자의 사적이나 관련된 사건, 태자 사후의 아들 山背大兄王 사건, 645년(大化元)의 蘇我氏 멸망까지를 기술하고 있다. 성덕태자에 관한 說話·奇談을 집대성한 전기로, 후세에 사람들의 太子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大日本佛敎全書』, 『續群書類從』, 『聖德太子全集』 등에 수록되었다.

·『僧鋼補任抄出』

『僧綱補任』의 초록으로 전체 2권으로 구성되었다. 東大寺에서 보관하고 있던 『僧綱補任』(전체 12권)에서 深賢이 뽑아낸 기사를 永萬 元年(1165) 東大寺 東南院 院主 惠珍이 편찬하였다. 推古천황 32년(624)부터 永萬 원년까지의 僧綱의 敍任·사원·법회·승려 등의 종교관계를 중심으로 한 특기사항을 편년체로 기술하였다. 『群書類從』에 수록되었다.

·『佛法傳來次第』

中世의 佛敎學書로 전체 1권이다. 12세기 후반에 信救가 편찬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불교의 日本 전래와 平安시대 중기까지의 佛敎史의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聖德太子와 延曆寺에 관한 기술이 상세한 것이 특징이다. 『續群書類從』에 수록되었다.

• 『聖德太子傳私記』

法隆寺의 寺誌와 聖德太子傳의 秘傳을 집대성한 것으로 著者는 法隆寺 승려 顯眞이다.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은 1238년에 완성되었고, 하권은 1239년경에 완성되었다. 『古今目錄抄』, 『聖德太子伝古今目錄抄』 등의 별칭도 있다. 상권은 法隆學問寺·中宮寺·太子伝雜錄 등 顯眞이 스승 隆詮에게 전해 들은 法隆寺와 太子傳에 관한 秘傳을 중심으로 한다. 하권은 顯眞이 성덕태자의 시종이었던 자신의 조상에 관한 秘傳을 기록하여, 聖德太子信仰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사료이다. 『大日本佛教全書』에 수록되었다.

• 『開目抄』

日蓮이 쓴 日蓮宗의 근본 聖典이며 전체 2권으로 1272년 2월에 완성되었다. 日蓮이야말로 求法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日蓮이 왜 20여 년간 수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의문을 느끼는 제자들의 질문에 日蓮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法華經』이 다른 經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과 末法 때에 『法華經』을 전파하는 사람이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日蓮을 통해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고전문학대계에 수록되었다.

• 『三國佛法傳通緣起』

天竺(인도), 震旦(중국), 일본에 걸친 불교의 創起傳通에 관한 槪說書로 상·중·하 3권이다. 應長 元年(1311) 7월 5일, 東大寺戒壇院 凝然이 완성하였다. 상권은 인도에서의 불교의 進展과 중국의 불교 13宗(毗曇·成實·戒律·三論·涅槃·地論·淨土·禪·攝論·天台·華嚴·法相·眞言)에 대해 서술하고, 중·하권은 일본의 三論·法相·華嚴·俱舍·成實·律·天台·眞言·禪·淨土 등의 10宗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화엄종과 율종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일본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大日本佛教全書』에 수록되었다.

• 『顯眞得業口決抄』

聖德太子傳에 관한 秘傳을 모은 책이다. 鎌倉시대 後期에 法隆寺 승려 俊嚴이 叔父 顯眞의 저서 『聖德太子傳私記』의 내용 중에서 발췌하여 편집한 것이다. 俊嚴이 叔父 顯眞과의 관계를 적고 있는 약간의 기사 이외에는 모두 『聖德太子傳私記』를 발췌한 것이다. 『大日本佛敎全書』에 수록되었다.

• 『上宮太子拾遺記』

『聖德太子繪傳』의 解說書로 전체 7권이다. 鎌倉시대 末期 橘寺의 승려 法空이 편찬하였다. 法空이 前著 『聖德太子平氏傳雜勘文』에서 빠졌던 내용을 『聖德太子傳曆』에 따라 해설한 것이다. 佚書가 많이 보여 法隆寺와 聖德太子 硏究에 중요한 사료이다. 『大日本佛敎全書』에 수록되었다.

• 『聖德太子平氏傳雜勘文』

『聖德太子平氏傳』(鎌倉時代 『聖德太子傳曆』의 別稱)의 註釋書이다. 上·下 6권으로 1314년 橘寺의 승려 法空이 편찬하였다. 『聖德太子傳曆』 주석서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상세하다. 각 단마다 『聖德太子傳曆』의 사항을 적고 참고자료를 인용하였으며, 「私云」으로 자신의 설을 적고 있다. 佚書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책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많이 보이고 있어 성덕태자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大日本佛敎全書』에 수록되었다.

• 『元亨釋書』

鎌倉시대 末期에 虎關師鍊이 저술한 불교사서이다. 전체 30권이다. 1~19권은 僧傳으로 고승, 불교신자, 尼僧, 神仙 등 4백여 명의 전기가 10항으로 분류되어 서술되었다. 20~26권은 資治表로 흠명천황부터 순덕천황까지 황실관계의 불교기사가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27~30권은 志인데, 불교제도,

大寺의 역사, 불교음악, 불교교단의 항쟁 등을 10志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다. 불교 전래부터 元亨 2년(1322)까지의 약 7백 년간의 불교사를 서술하였다. 師練은 이 책을 조정에 바치고 大藏經에 포함하도록 요청하여 받아들여졌다.

•『本朝高僧傳』

美濃의 聖德寺僧 卍元師蠻이 지은 전기로 전체 75권, 목록 1권으로 구성되었다. 1702년에 완성되었다. 『元亨釋書』의 僧傳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淨土眞宗과 日蓮宗 이외의 종파 1,662인의 僧尼 전기를 10항으로 분류하여 편집하였다. 근거한 사료를 들고 있으며, 일본승전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수록한 점에서 편리하다. 『大日本佛敎全書』에 수록되었다.

문학작품

•『萬葉集』

歌集으로 奈良시대 末에 성립되었다. 전체 20권이며, 여러 차례의 편찬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大伴家持가 20권으로 편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仁德天皇 시대부터 759년까지의 短歌·長歌·旋頭歌 4천5백여 수를 모았다. 1천8백여 수는 작자 미상이지만, 2천7백여 수는 天皇·皇后·귀족·관인·農民 등 다양한 계층 사람들 작품이다. 『日本古典文學大系』 등에 수록되어 있다.

•『懷風藻』

현존 일본 最古의 漢詩文集으로 작자는 미상이다. 전체 1권이며 751년에 완성되었다. 近江朝부터 奈良朝 후기까지 64명이 지은 120首의 한시를 모았다. 藤原不比等과 그의 세 아들, 長屋王·文武天皇·官人 등이 작자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六朝詩·初唐詩의 영향이 보인다. 日本古典文學大系에 수록되었다.

• 『日本國現報善惡靈異記』

日本 最古의 불교설화집이며, 전체 3권으로 상권 35話, 중권 42話, 하권 39話 등 모두 116話로 구성되었다. 藥師寺의 승려 景戒가 822년경 편찬하였으며, 설화를 雄略천황부터 嵯峨천황까지 연대순으로 배열하였다. 일본 고유의 전승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중국에서 전래한 傳奇 등의 번안, 일본의 고유신앙과 불교의 대립, 防人과 出擧 등 당시 사상사적, 사회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박력 있게 서술하여, 후대 설화집에 큰 영향을 미쳤다. 日本古典文學大系 등에 수록되었다.

• 『菅家文草』

菅原道眞의 漢詩文集으로 전체 12권이다. 900년에 완성하여 醍醐천황에게 바쳤다. 前 6권은 어렸을 때부터 右大臣이 되었을 때까지 지은 한시를 모았고, 後의 6권은 賦·銘·贊·祭文·記·詩序·策問·對策·詔勅·奏狀·願文 등 여러 장르의 산문 119편을 실었다. 당시 일본의 한문 수준을 보여주며, 이후 漢詩文에 큰 영향을 주었다. 日本古典文學大系에 수록되었다.

• 『源氏物語』

平安시대 중기의 物語로 11세기 초기에 성립되었다. 저자는 一條天皇의 中宮 彰子의 女房이었던 紫式部이다. 전체 54帖으로 前編 44帖과 後編 10帖(宇治 十帖이라고 함)으로 이루어졌다. 전편은 皇子 光源氏의 애정 행각을, 후편은 光源氏의 아들 薰大將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묘사하였다. 작품 자체의 구성, 인물의 심리묘사 등이 뛰어난 物語文學의 최고봉으로 국제적으로도 평가가 높다. 藤原道長시대 귀족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사료이기도 하다. 日本古典文學大系(岩波書店) 등에 수록되어 있다.

• 『宇津保物語』

平安시대 중기의 物語이며, 전체 20권으로 성립연대는 미상이다. 작자는 源順이나 藤原爲時라는 설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전반은 淸原王의 자손인 俊蔭과 그의 손자 仲忠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을 묘사하여 학문과 예술을 찬양하고, 후반은 연애 이야기를 통해 귀족사회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日本古典文學大系 등에 수록되어 있다.

• 『大鏡』

平安시대 말기 歷史物語의 대표작으로 작자와 성립년대는 미상이다. 12세기 초에 성립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850년부터 1025년의 文德天皇에서 後一條天皇까지의 역사를 문답체와 紀傳體를 섞어서 극적으로 구성하여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藤原道長 때에 전성기를 이룬 藤原氏의 榮華와 그 어두운 면을 드러내어 신랄한 史論을 보여주고 있다. 日本古典文學大系 등에 수록되어 있다.

• 『今昔物語集』

고대의 설화집으로 전체 31권이다. 현재는 8·18·21권이 없어져 28권만 존재한다. 저자는 확실하지 않다. 平安시대 후기 12세기 전반경에 성립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도·중국·일본 3국의 불교설화와 세속설화를 집대성하였다. 원래는 1,079話였으나, 현재는 1,040話가 남아 있다. 불교설화 663話, 세속설화 377話이다. 고대 말기의 사회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日本古典文學大系 등에 수록되었다.

• 『水鏡』

歷史物語로 전체 3권 3책이다. 12세기 말에 성립되었으며, 저자는 中山忠

親이라는 설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大鏡을 모방하였으며, 73세의 여승이 들은 역사이야기로서 제1대 神武天皇부터 9세기 仁明天皇까지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대부분 『扶桑略記』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낮다. (新訂增補)國史大系에 수록되었다.

•『平治物語』

軍記物이며, 鎌倉시대 초기에서 중기에 걸쳐 성립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作者는 미상으로 전체 3권이다. 平安시대 말기 1159년에 일어난 平治의 亂에 대해 琵琶法師들이 琵琶를 연주하면서 읊은 내용을 和漢混交體로 서술한 것이다. 日本古典文學大系에 수록되었다.

•『平家物語』

軍記物의 대표적 작품이다. 信濃前司 藤原行長이 琵琶法師 生佛의 협력을 얻어 썼다는 설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전체 12권이며, 13세기 전반경에 성립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平氏一門의 興隆부터 衰亡까지를 불교적 無常觀에 기초하여 각색한 이야기이다. 日本古典文學大系 등에 수록되었다.

•『古今著聞集』

중세 설화집으로 전체 20권이다. 1254년에 하급관인 橘成季가 펴냈다. 神祇·釋敎·政道忠信·公事·文學·和歌·管絃歌舞 등 30항목으로 분류하여 고금의 설화 7백 화 가까이를 연대순으로 수록하였다. 일본 중세 설화집 가운데 가장 정리가 잘 된 책이다. 고대 말기부터 중세에 걸쳐 귀족세계의 실상이 백과사전적으로 수집된 중요한 사료이다. 日本古典文學大系, (新訂增補)國史大系 등에 수록되었다.

• 『梵天國』

室町시대에 성립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御伽草子(동화풍의 단편소설)로, 本地物(本地로서의 절대적인 부처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곳에 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설명하는 이야기) 장르에 속한다. 9세기 전반 淳和천황대 피리의 달인이었던 五條의 中納言이 天界와 다른 나라를 편력하는 이야기이다. 日本古典文學大系에 수록되었다.

• 『用明天王職人鑑』

淨瑠璃(口誦藝能). 5段. 近松門左衛門 作이다. 1705년 大阪 竹本座에 의해 初演되었다. 내용은 敏達天皇의 시대에 外道를 믿는 山彦皇子와 불교를 믿는 花人親王(用明天皇)의 대립을 그리고 있다. 最後는 佛力이 승리하며, 用明天皇의 皇子인 聖德太子가 山彦皇子를 멸하면서 끝나게 된다. 日本古典文學大系, 『近松淨瑠璃集下』 등에 수록되었다.

• 『統道眞傳』

「道」에 관한 사상을 논한 수필풍의 논문집으로 4권 5책이며, 1752년경에 성립되었다. 安藤昌益이 저술한 封建制批判論이다. 내용은 의학에서부터 천문학에까지 이르는 넓은 학식을 기본으로 독자적인 자연철학을 전개하고 유교와 불교를 비판하였으며, 군주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상으로 하는 社會觀을 주장하였다. 日本古典文學大系에 수록되었다.

• 『雨月物語』

讀本으로 5권 5책으로 구성되었다. 작자는 上田秋成이며, 1768년에 원고를 완성하여 1776년에 간행하였다. 9話의 단편으로 구성되었다. 중국소설을 번안하는 한편 『萬葉集』·『源氏物語』·『古今著聞集』 등 일본의 고전과 고전

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주제를 교묘하게 구축하였다. 일본 怪異소설사상 최고 걸작이며, 초기 讀本의 지적인 수준을 대표하는 명작으로 알려져 있다. 日本古典文學大系, 『上田秋成集』 등에 수록되었다.

• 『膽大小心錄』

수필이며, 1808년에 성립되었다. 上田秋成이 만년에 자신의 생각을 적은 수필집이다. 163章의 단문으로 이루어졌다. 和歌·俳諧·학문이나 일본고대사, 중국고대사상에 대한 비판이 보인다. 나아가 불교·신앙까지 언급하면서 친구나 세상에 기탄없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日本古典文學大系, 『上田秋成集』 등에 수록되었다.

• 『蘭東事始』

洋學書로 1815년(文化 12)에 성립되었다. 『蘭學事始』 또는 『和蘭事始』라고도 한다. 蘭學者 杉田玄白이 蘭學의 초창기 사정과 난학이 발달한 과정을 회상한 수상록이다. 전체 2권으로 서구인의 도래와 화란의학의 전래, 화란어학의 발흥, 『解体新書』 출판의 경과, 난학의 동지와 후배들의 동정 등에 대해 쓰면서 난학이 발달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 日本古典文學大系에 수록되었다.

ㄱ

가라(加羅) 343, 345
가라구이(柯羅俱爾) 398
가라국(加羅國) 393
가랍직기갑배(加臘直岐甲背) 354
가마(哥麻) 367
가부직비직(加不至費直) 347
가비(哥非) 356
가수리군(加須利君) 142
가인부(家人部) 158
가황소전(歌荒樔田) 224
각국(角國) 159
각라(各羅) 253
각라도(各羅島) 142
각자궁(角刺宮) 205
간등둔창(肝等屯倉) 319
간부둔창(間敷屯倉) 321
간솔(杆率) 367, 375, 380, 382, 383
갈성(葛城) 32, 95, 126
갈성부(葛城部) 23
갈성산(葛城山) 140
갈성산전직서자(葛城山田直瑞子) 390
갈성습진언(葛城襲津彦) 63, 94, 147
갈성원대신(葛城圓大臣) 129
갈성직(葛城直) 392
갈성직난파(葛城直難波) 401
갈성한원(葛城韓媛) 199
갈성황자(葛城皇子) 342
감구(感玖) 28
감미원(甘美媛) 397
갑배(甲背) 345
강경(强頸) 24
강경단간(强頸斷間) 25
강수옥형마려(壇手屋形麻呂) 162
강수자련(糠手子連) 446
강수희황녀(糠手姬皇女) 437
강자(糠子) 343
강정신군대(江渟臣裙代) 401
개로왕(蓋鹵王) 132, 141, 143, 174, 175
거래수별천황(去來穗別天皇) 63, 78, 211
거세남인대신(巨勢男人大臣) 292
거증산(居曾山) 395

거지군(車持君) 75
거지부(車持部) 75
거하희(居夏姬) 208
걸손국(乞飡國) 393
걸탁성(乞乇城) 296
검도태자왕(劒刀太子王) 74
견반(堅磐) 149
견야황녀(肩野皇女) 342
견양부(犬養部) 321
견염원(堅鹽媛) 341
겸둔창(鎌屯倉) 319
경(輕) 398
경괄전(輕括箭) 107
경단둔창(經湍屯倉) 320
경대랑황녀(輕大娘皇女) 91
경론(經論) 373
경수황녀(輕守皇女) 439
경황군(更荒郡) 395
경흑언황자(境黑彦皇子) 91
계덕(季德) 383
계체천황(繼體天皇) 261
고교대랑황녀(高橋大娘皇女) 228
고교황녀(高橋皇女) 131
고당(高堂) 289
고덕(固德) 369, 378, 382, 383
고도(苦都) 385
고라제(考羅濟) 17
고려인소신협둔창(高麗人小身狹屯倉) 390
고반황녀(栲幡皇女) 136
고발원(高拔原) 168
고부황자(高部皇子) 79
고분(高分) 353
고분옥(高分屋) 353
고시군(高市郡) 390
고안전(固安錢) 149
고위관(高槻館) 402
고이해(古爾解) 226
고전해(古殿奚) 343, 360
고차국(古嵯國) 393
고파(古跛) 288
고학랑희(高鶴郎姬) 76
고황산령(高皇産靈) 224, 225
곡녀(哭女) 231
곡수(曲水)의 연(宴) 220, 222, 225
곡전(曲殿) 398
곡지(谷智) 385
곤지(昆支) 141
곤지군(昆支君) 143
곤지왕(琨支王) 253
과라(蜾蠃) 144
과야신라(科野新羅) 378
과야차주(科野次酒) 375
곽정(鑊丁) 314
관가(官家) 174, 355
관원복견릉(菅原伏見陵) 111
광국압무금일천황(廣國押武金日天皇) 311
광뢰(廣瀨) 452
광희(廣姬) 438, 436
교식(攪食) 67
구귀(久貴) 369

구금교(勾金橋) 312
구금교궁(勾金橋宮) 322
구대형광국압무금일천황(勾大兄廣國押武金日天皇) 311, 323
구라니(矩羅膩) 386
구라마치지미(久羅麻致支彌) 272
구례모라성(久禮牟羅城) 295
구례사기모(久禮斯己母) 294
구례산(久禮山) 358
구례산의 5성 361
구례이사지우나사마리(久禮爾師知于奈師磨利) 290
구례질급벌간(久禮叱及伐干) 391
구마나리(久麻那利) 175
구변직(溝邊直) 376
구사모라(久斯牟羅) 290
구사인부(勾舍人部) 318
구수니자리(久須尼自利) 396
구시고옥구릉(舊市高屋丘陵) 322
구인부(勾靭部) 318
구자(勾子) 340
구자(舅子) 397
구자신(口子臣) 33
구지(倶知) 41
구지신(口持臣) 33
구지파다지(久知波多枳) 295
구지포례(久遲布禮) 290
구차한기(久嵯旱岐) 360
구취유리(久取柔利) 343, 360
구타모라(久陀牟羅) 385
국수다(國雖多) 352
국의원(國依媛) 33
국조(國造) 317, 445
군군(軍君) 141
군령(郡令) 351, 356
군사(郡司) 316, 401
군윤귀(君尹貴) 289
굴강(堀江) 24, 375, 450
궁삭련풍수(弓削連豐穗) 154
귀수왕(貴首王) 345
귤마려황자(橘麻呂皇子) 343
귤본치황자(橘本稚皇子) 342
귤왕(橘王) 208
귤중황녀(橘仲皇女) 324
귤풍일존(橘豐日尊) 341
귤풍일황자(橘豐日皇子) 451
귤화(橘花) 318
귤황녀(橘皇女) 327, 228
귤희황녀(橘姬皇女) 129
근강(近江) 97, 402
근강국(近江國) 161, 262, 320
근강모야신(近江毛野臣) 284, 289, 290
근강산군치수산(近江山君稚守山) 39
근비조(近飛鳥) 218
근사주(根使主) 109
금관(金官) 292
금래군(今來郡) 366
금래재기(今來才伎) 148
금부수대석(錦部首大石) 403
금부정안나금(錦部定安那錦) 150
금인판(琴引坂) 105

금직호(錦織壺) 448
기각숙네(紀角宿禰) 40
기강전래목련(紀岡前來目連) 156
기경(紀卿) 158
기국(紀國) 31, 320, 390
기국조압승(紀國造押勝) 442
기군(紀郡) 336
기남마려숙네(紀男麻呂宿禰) 395
기노지(奇奴知) 443
기능말다간기(己能末多干岐) 289
기대반숙네(紀大磐宿禰) 157
기련(己連) 350, 354, 366
기로(耆老) 385
기릉(其悋) 364
기마(奇麻) 360
기마노궤(己麻奴跪) 357
기마차(己麻次) 383
기문(己汶) 277, 279
기부리지가(己富利知伽) 288
기생반숙네(紀生磐宿禰) 225
기성군(磯城郡) 338
기성도(磯城嶋) 338
기성도금자궁(磯城嶋金刺宮) 338
기성도천황(磯城嶋天皇) 432
기소궁숙네(紀小弓宿禰) 154
기신(紀臣) 347, 350
기신나솔미마사(紀臣奈率彌麻沙) 347, 353
기장족희존(氣長足姬尊) 393
기전해(旣殿奚) 279
기주기루(己州己婁) 313, 351
기주신(旣酒臣) 358
기지부(己知部) 338
기질기리성(己叱己利城) 291
기치진로(磯齒津路) 167
길비(吉備) 388
길비국(吉備國) 179, 435
길비궁삭부허공(吉備弓削部虛空) 145
길비상도(吉備上道) 158
길비상도신(吉備上道臣) 130, 202
길비상도신전협(吉備上道臣田狹) 146
길비상도채녀대해(吉備上道采女大海) 156
길비신(吉備臣) 221, 343, 357, 360
길비신미대(吉備臣尾代) 179
길비신산(吉備臣山) 145
길비신소리(吉備臣小梨) 152
길비와옥신(吉備窪屋臣) 130
길비제군신(吉備弟君臣) 358
길비중국(吉備中國) 47
길비치원(吉備稚媛) 200~202
길비품지부웅즉(吉備品遲部雄鯽) 38
길비하도신전진옥(吉備下道臣前津屋) 145
길비한자나다리(吉備韓子那多利) 293
길비해부직난파(吉備海部直難波) 433
길비해부직우도(吉備海部直羽嶋) 442
길비해부직적미(吉備海部直赤尾) 147
길사금자(吉士金子) 437
길사목련자(吉士木蓮子) 437
길사역어언(吉士譯語彦) 437
길사적구(吉士赤鳩) 402

길야궁(吉野宮) 134, 133, 138
길야사(吉野寺) 376

ㄴ

나간타갑배(那干陀甲背) 354
나기타갑배(那奇陀甲背) 354
나능리증모(奈能利曾毛) 101
나라(奈羅) 399
나라산(那羅山) 18
나말(奈末) 441
나솔(奈率) 346, 350~352, 354, 360, 364, 366, 367, 370, 378, 382
나진(那津) 325
난파(難波) 18, 375, 392, 434, 450
난파관(難波館) 274, 444
난파근자무진웅(難波根子武振熊) 46
난파길사(難波吉師) 110
난파길사(難波吉士) 321
난파길사목련자(難波吉士木蓮子) 448
난파길사일향향(難波吉士日香香) 170
난파길사적목자(難波吉士赤目子) 152
난파둔창(難波屯倉) 314
난파소야왕(難波小野王) 218
난파소야황후(難波小野皇后) 229
난파옥작부즉어녀(難波玉作部鯽魚女) 231
난파일응길사(難波日應吉士) 154
난파진(難波津) 45, 104, 402
난파황자(難波皇子) 436
남가라(南加羅) 284
남대적천황(男大迹天皇) 261, 311, 322, 335, 340
남야릉(藍野陵) 296
남해(南海) 271
남협기(男狹磯) 102
납채(納采) 19
납취조황자(臘嘴鳥皇子) 341
내관가(內官家) 290, 442
내두(內頭) 352
내라산(乃羅山) 35
내락산(乃樂山) 250
내리둔창(來履屯倉) 320
내목부(來目部) 132
내목부소순(來目部小楯) 215, 221
내목수(來目水) 138
내목치자(來目稚子) 208, 207
내선경(內膳卿) 312
내신(內臣) 376, 378
내전면(來田綿) 128
내협협(來狹狹) 317
내협협촌(來狹狹村) 172
노녀자부인(老女子夫人) 436
노류지(奴流枳) 232
노리사치계(怒唎斯致契) 372
노수구리(奴須久利) 294
노자수황녀(鸕鷀守皇女) 439
노자야읍(鸕鷀野邑) 395
노저대사(奴氐大舍) 392
녹부(鹿父) 231

녹사(錄史) 287
녹심신(鹿深臣) 448
녹야둔창(綠野屯倉) 321
뇌파하포(瀨波河浦) 363
능비기부리(能備己富利) 294
능조(綾糟) 441
니미방(尼彌方) 375

ㄷ

다녜둔창(多禰屯倉) 319
다다라(多多羅) 292, 437
다다라원(多多羅原) 291
다라(多羅) 343
다라국(多羅國) 393
다빙(多氷) 318
다지비서치별천황(多遲比瑞歯別天皇) 78
단마(但馬) 172
단마귤대랑황녀(但馬橘大娘皇女) 91
단비(丹比) 79
단비고취원릉(丹比高鷲原陵) 203
단비공(丹比公) 324
단비읍(丹比邑) 28
단양이(段楊爾) 277
단파(丹波) 172
단파국(丹波國) 176, 180, 320
단파소자(丹波小子) 210
달솔(達率) 372
담년부둔창(膽年部屯倉) 320
담련(談連) 156
담로(淡路) 16, 66
담로궁(淡路宮) 78
담로도(淡路島) 74
담식둔창(膽殖屯倉) 320
담진(膽津) 400
담협산부(膽狹山部) 317
담혜(曇慧) 382
당마경(當摩徑) 65
대군(大郡) 392
대내구(大內丘) 366
대덕(對德) 383
대도수반일(大嶋首磐日) 434
대련(大連) 316, 359
대마(對馬) 155, 295, 445
대마하현직(對馬下縣直) 225
대모인(大毛人) 441
대물주신(大物主神) 144
대박뢰(大泊瀨) 388
대박뢰유무천황(大泊瀨幼武天皇) 123, 199
대박뢰천황(大泊瀨天皇) 98, 200, 203, 209, 222, 223
대박뢰천황기(大泊瀨天皇紀) 111
대박뢰치무천황(大泊瀨稚武天皇) 91
대박뢰황자(大泊瀨皇子) 105, 108
대반강수자련(大伴糠手子連) 444, 445
대반경(大伴卿) 158
대반공(大伴公) 157
대반금촌대련(大伴金村大連) 263,

323, 337, 444
대반금촌련(大伴金村連) 250
대반담련(大伴談連) 154
대반대련(大伴大連) 201, 312, 315
대반대련금촌(大伴大連金村) 285, 339
대반대련실옥(大伴大連室屋) 267
대반련실옥(大伴連室屋) 129
대반련협수언(大伴連狹手彦) 398
대반백부(大伴伯父) 314
대반실옥대련(大伴室屋大連) 132, 155, 200, 202, 203
대반실옥련(大伴室屋連) 101
대반촌(大伴村) 447
대반황녀(大伴皇女) 342
대발둔창(大拔屯倉) 319
대별왕(大別王) 439
대부(大夫) 324
대불손(大不孫) 343, 360
대사(帶沙) 281
대사(大舍) 392
대사(滯沙) 279
대사강(帶沙江) 281
대사주(大使主) 72
대산성(帶山城) 225
대삼륜신(大三輪神) 167
대삼륜역군(大三輪逆君) 452
대상(大嘗) 204
대석존(大石尊) 208
대시두(大市頭) 370
대신(大臣) 362
대야(大野) 449
대엽자(大葉子) 397
대왕(大王) 345, 356
대왕[大君] 164
대왜(大倭) 143
대왜국(大倭國) 312, 326
대우도(大隅嶋) 321
대장성(大藏省) 336
대장연(大藏掾) 339
대정하(大井河) 45
대정호(大井戶) 201
대족언존(大足彦尊) 16
대진(大津) 31
대진마사(大津馬飼) 134
대초료천황(大鷦鷯天皇) 13, 63, 87
대초향부길사(大草香部吉士) 170
대초향부민(大草香部民) 169
대초향황자(大草香皇子) 21, 88, 109, 169
대택신(大宅臣) 79
대택황녀(大宅皇女) 341
대파황자(大派皇子) 436
대판(大坂) 65
대하내직미장(大河內直味張) 313
대하내치자원(大河內稚子媛) 324
대형(大兄) 311
대형거내수별천황(大兄去來穗別天皇) 21, 207
대형황자(大兄皇子) 276, 341
덕솔(德率) 352, 367, 368, 375, 378, 443
덕이(德爾) 443

도(嶋) 448
도가(刀伽) 288
도구사기성(都久斯岐城) 151
도군(島君) 142
도군(道君) 402
도당(都堂) 386
도덕(都德) 313
도신(道臣) 292
도왕(嶋王) 253
도치자(嶋稚子) 208
도침(道深) 382
도화조판상(桃花鳥坂上) 326
동궁(東宮) 439
동녀군(童女君) 130
동량(棟梁) 351
동방령(東方領) 384
동성도천(東城道天) 352
동성산(東聖山) 380
동성왕(東城王) 177
동성자막고(東城子莫古) 382
동성자언(東城子言) 367, 382
동한국직(東漢掬直) 177, 200
동한씨직강아(東漢氏直糠兒) 401
동한직국(東漢直掬) 150
동한판상직자마려(東漢坂上直子麻呂) 402, 433
두무리야폐(頭霧唎耶陛) 399
둔전(屯田) 15
둔창(屯倉) 15
둔창수(屯倉首) 212
득문(得文) 360
득이신(得爾辛) 369
등리지모라(騰利枳牟羅) 295
등원(藤原) 98
등원궁(藤原宮) 98
등원부(藤原部) 101
등이(登伊) 317

ㅁ

마가모(麻奇牟) 351
마나갑배(麻那甲背) 289
마나군(麻那君) 254
마도(麻都) 369
마려고황자(麻呂古皇子) 436
마로(麻鹵) 289, 345
마무(馬武) 353, 370
마사수가의(馬飼首歌依) 394
마사신(馬飼臣) 177
마수비(麻須比) 281
마자숙네(馬子宿禰) 449
마자숙네대신(馬子宿禰大臣) 437
마정안(馬丁安) 382
마진성(馬津城) 368
마차문(馬次文) 369
마차해(麻且奚) 281
막고해(莫古解) 226
만해(滿奚) 281
말다왕(末多王) 175, 176, 252
매노(昧奴) 345
매방(枚方) 295

맹신탐탕(盟神探湯) 93
명뢰빙(名瀨氷) 394
명형대랑황녀(名形大娘皇女) 90
모니부인(慕尼夫人) 133
모루(牟婁) 273, 340
모자지모라(牟雌枳牟羅) 295
모정(茅渟) 100
모정궁(茅渟宮) 100
모정산둔창(茅渟山屯倉) 314
모정해(茅渟海) 376
모정현주(茅渟縣主) 170
목리 시덕 문차(木刕施德文次) 381, 383
목리경황자(木梨輕皇子) 90
목리금돈(木刕今敦) 372
목리마나(木刕麻那) 352
목리미순(木刕眯淳) 347, 352
목사(木事) 79
목윤귀(木尹貴) 352
목자원(目子媛) 270, 311
목저(目杵) 44
목토숙네(木菟宿禰) 20, 68
목협자(目頰子) 295
무내숙네(武內宿禰) 20, 95, 274
무령왕(武寧王) 283
무방산(畝傍山) 105
무소광국압순천황(武小廣國押盾天皇) 322, 336, 429
무열천황(武烈天皇) 247
무원(畝原) 399
무장국(武藏國) 162
무장국조(武藏國造) 317
무장인(武藏人) 24
묵판신(墨坂神) 145
문근왕(文斤王) 176
문도전읍(蚊嶋田邑) 158
문득지(汶得至) 279
문모라(汶慕羅) 282
문사(文史) 429
문사간노(汶斯干奴) 383
문석소마려(文石小麻呂) 165
문옥야(蚊屋野) 219, 220
문주왕(汶洲王) 175
문휴대산(汶休帶山) 378
문휴마나(汶休麻那) 367
물부(物部) 351
물부궁삭수옥대련(物部弓削守屋大連) 430, 450
물부대련미여(物部大連尾輿) 316, 339, 374
물부대련추록화(物部大連麤鹿火) 274, 285
물부대부수(物部大斧手) 173
물부대전숙네(物部大前宿禰) 65, 107
물부련나솔용가다(物部連奈率用歌多) 354
물부련목(物部連目) 129
물부막가무련(物部莫哥武連) 384
물부목대련(物部目大連) 131, 164
물부목련(物部目連) 173
물부목련자대련(物部木蓮子大連) 312
물부미여대련(物部尾輿大連) 337

물부오(物部烏) 382
물부이거불대련(物部伊莒弗大連) 72
물부이세련부근(物部伊勢連父根) 287
물부장진담련(物部長眞膽連) 73
물부지자련(物部贄子連) 444
물부지지련(物部至至連) 281
물부추록화대련(物部麤鹿火大連) 248, 264, 312, 323
물부토대숙녜(物部菟代宿禰) 173
미강구(味橿丘) 93
미등리(彌縢利) 290
미륜왕(眉輪王) 111
미륵석상(彌勒石像) 448
미마사(彌麻沙) 350
미매도(彌賣島) 447
미미파야(彌彌巴椰) 105
미이거(彌爾居) 378, 383
미이거국(彌移居國) 364
미장국(尾張國) 320
미장련(尾張連) 325
미장련오습(尾張連吾襲) 95
미장황자(尾張皇子) 439
미저(彌弖) 390
미지기지(彌至己知) 391
미질자실소(未叱子失消) 404
민달천황(敏達天皇) 429

ㅂ

박국(狛國) 365, 378
박뢰(泊瀨) 441
박뢰부황자(泊瀨部皇子) 342
박뢰시리궁(泊瀨柴籬宮) 400
박뢰열성(泊瀨列城) 252
박뢰천(泊瀨川) 278
박왕(狛王) 367
박적(狛賊) 368
반(磐) 326
반량풍(潘量豐) 383
반립(飯粒) 315
반배구릉(磐杯丘陵) 229
반성(磐城) 200
반성황자(磐城皇子) 130, 201
반여(磐余) 71, 225, 283
반여시기지(磐余市磯池) 72
반여언제(磐余彦帝) 292
반여옥수궁(磐余玉穗宮) 296
반여지(磐余池) 72
반여치앵궁(磐余稚櫻宮) 69, 73
반외황녀(磐隈皇女) 341
반정(磐井) 128
반정천황(反正天皇) 78
반조(伴造) 445
반지원명(磐之媛命) 21
반파(伴跛) 279
반파국(伴跛國) 277
반판시변압우황자(磐坂市邊押羽皇子) 70

반판원(磐坂媛) 39
반판황자(磐坂皇子) 219
반풍여왕(飯豊女王) 208
반풍청황녀(飯豊青皇女) 215
반풍황녀(飯豊皇女) 70, 205
발귀(發鬼) 437
배벌(背伐) 292
배평(背評) 294
백발무광국압치일본근자천황(白髮武廣國押稚日本根子天皇) 130, 199
백발부사인(白髮部舍人) 203
백발부선부(白髮部膳夫) 203
백발부채부(白髮部靫負) 203
백발천황(白髮天皇) 210, 214, 216, 223, 227, 267
백발황자(白髮皇子) 176
백설조야(百舌鳥野) 41
백설조야릉(百舌鳥野陵) 48
백설조이원(百舌鳥耳原) 47
백설조이원릉(百舌鳥耳原陵) 77
백저둔창(白猪屯倉) 388, 435
백저사(白猪史) 400
백저전부(白猪田部) 400
백제기(百濟記) 174
백제대정(百濟大井) 430
백제본기(百濟本記) 272, 277, 281, 296, 347, 354, 355, 357, 358, 365, 369, 370, 390
백제신찬(百濟新撰) 132, 142, 253
백제촌(百濟村) 447
백조릉(白鳥陵) 44
백충(百衝) 43
번개(幡蓋) 373
번국(蕃國) 374
번사황녀(幡梭皇女) 21, 71, 109
번원(幡媛) 316
범하내직향사(凡河內直香賜) 153
법사군(法師君) 254
보제(菩提) 364
복초부(福草部) 225
봉래산(蓬萊山) 176
봉류구(蓬藁丘) 160
봉신찬기(逢臣讚岐) 394
부견촌(俯見村) 172
부곡(部曲) 316
부남(扶南) 351
부신(部臣) 373
부여(扶余) 287
부지나마례(夫智奈麻禮) 289
북적(北敵) 362
분파위좌(賁巴委佐) 279
불계(祓禊) 75
비(肥) 326
비구니(比丘尼) 440
비리막고(鼻利莫古) 346, 352
비전(備前) 390
비조산(飛鳥山) 65
비조의봉부(飛鳥衣縫部) 168
비조호군(飛鳥戶郡) 159
비지(費智) 292
비진류도(比津留都) 399
비탄국(飛驒國) 46

비후국(備後國) 319
빈궁대부(殯宮大夫) 95
빙전직(氷田直) 449

ㅅ

사(史) 431
사나노아비다(斯那奴阿比多) 282
사나노차주(斯那奴次酒) 353
사대(事代) 224
사도도(沙都嶋) 281
사라(斯羅) 279, 383
사마노(飼馬奴) 385
사마왕(斯麻王) 253
사부(私部) 439
사부(飼部) 74
사수원(紗手媛) 312
사아군(斯我君) 254
사이기국(斯二岐國) 393
사이기군(斯二岐君) 360
사이기한기(斯二岐旱岐) 343
사인황녀(舍人皇女) 342
사정왕(絲井王) 438
사주(使主) 209, 210, 318
사타(娑陀) 273, 340
사택기루(沙宅己婁) 352
사포리(斯布利) 293
산반하국(散半下國) 393
산반해군(散半奚君) 360
산반해한기(散半奚旱岐) 343
산배(山背) 32
산배국(山背國) 172, 336, 399
산배하(山背河) 32
산배황자(山背皇子) 342
산변소도자(山邊小嶋子) 164
산부(山部) 202
산부련(山部連) 204, 221
산부련소순(山部連小楯) 227
산성국(山城國) 401
산수(山守) 15
산수부(山守部) 221
산저(山杵) 231
산전적견황녀(山田赤見皇女) 312
산전황후(山田皇后) 336
산촌(山村) 338, 399
산촌기지부(山村己知部) 338
삼귀(三貴) 382
삼근(三斤) 383
삼도(三嶋) 315
삼도군(三嶋郡) 154, 399
삼륜(三輪) 128
삼륜군신협(三輪君身狹) 128
삼륜역군(三輪逆君) 452
삼자단간(衫子斷間) 26
삼제악(三諸岳) 144, 441
삼좌평(三佐平) 352
삼한(三韓) 158, 326, 440
상다리(上哆唎) 273, 340
상도신(上道臣) 202
상도원(上桃原) 150
상락(相樂) 403

상락관(相樂館) 430
상락군(相樂郡) 401
상령록(上鈴鹿) 28
상모야국(上毛野國) 321
상모야군(上毛野君) 42
상모야군소웅(上毛野君小熊) 318
상부(上部) 313, 375
상상원(上桑原) 315
상수위(上首位) 343, 360
상시(桑市) 444
상시촌(桑市村) 446
상식엽황자(上殖葉皇子) 324
상어야(上御野) 315
상원둔창(桑原屯倉) 319
상전(桑田) 29
상전구하원(桑田玖賀媛) 28
상전황녀(桑田皇女) 436
상좌평(上佐平) 352
상총국(上總國) 313
상풍포(上豐浦) 28
생반숙네(生磐宿禰) 226
서강포도자(瑞江浦嶋子) 176
서부(西部) 372
서수가룡(書首加龍) 159
서치별천황(瑞齒別天皇) 21, 78, 87, 108
서치별황자(瑞齒別皇子) 67
서한재기(西漢才伎) 148
석녀(石女) 449
석상(石上) 108
석상광고궁(石上廣高宮) 227
석상구(石上溝) 73
석상부사인(石上部舍人) 230
석상부황자(石上部皇子) 342
석상신궁(石上神宮) 137
석상진신궁(石上振神宮) 67
석상황자(石上皇子) 341
석진원(石津原) 46
석천(石川) 446
석천금직수허려사(石川錦織首許呂斯) 40
석하(石河) 28
석희(石姬) 337
석희황후(石姬皇后) 429
선련(船連) 377
선문(宣文) 346, 368
선부(膳夫) 36
선사(船師) 177
선사(船史) 377, 431, 435
선사(禪師) 440
선신(膳臣) 152
선신경자(膳臣傾子) 402
선신니(善信尼) 448
선신대마려(膳臣大麻呂) 312
선신반구(膳臣斑鳩) 152
선신여기(膳臣余磯) 72
선신장야(膳臣長野) 135
선신파제편(膳臣巴提便) 364
선장(船長) 377
선장니(禪藏尼) 448
선해제(善解除) 75
선화천황(宣化天皇) 322

섭진국(攝津國) 172, 205, 399
성구전래목(城丘前來目) 201
성덕(聖德) 439
성명왕(聖明王) 344
성방(城方) 345
성주(城主) 351, 356
성천왕(星川王) 178
성천치궁황자(星川稚宮皇子) 130
성천황자(星川皇子) 200~202
세군(細群) 365, 367
소간전(小墾田) 374
소간전둔창(小墾田屯倉) 314
소간전채녀(小墾田采女) 95
소간전황녀(小墾田皇女) 439
소교(小橋) 27
소군(小郡) 446
소궁숙녜(小弓宿禰) 156
소록화숙녜(小鹿火宿禰) 154
소박뢰사인(小泊瀨舍人) 253
소박뢰조(小泊瀨造) 26, 29
소박뢰천황(小泊瀨天皇) 263, 292
소박뢰치초료(小泊瀨稚鷦鷯) 247
소박뢰치초료존(小泊瀨稚鷦鷯尊) 232
소박뢰치초료천황(小泊瀨稚鷦鷯天皇) 228, 271
소부인(小夫人) 367
소사기둔창(蘇斯岐屯倉) 320
소석희황녀(小石姬皇女) 324
소순(小楯) 205, 212, 214, 221
소아경(蘇我卿) 388
소아대신도목숙녜(蘇我大臣稻目宿禰) 374
소아대신마자숙녜(蘇我大臣馬子宿禰) 449
소아도목숙녜(蘇我稻目宿禰) 323
소아도목숙녜대신(蘇我稻目宿禰大臣) 337, 398
소아마자대신(蘇我馬子大臣) 435
소아마자숙녜(蘇我馬子宿禰) 430, 448
소아신(蘇我臣) 387
소아한자숙녜(蘇我韓子宿禰) 154
소이산(素珥山) 38
소자군(小姉君) 342
소저(小杵) 317
소하만지숙녜(蘇賀滿智宿禰) 71
소흑길사(小黑吉士) 439
속고왕(速古王) 345
속대(速待) 29
송원(松原) 321
수간성왕(水間城王) 292
수나라(須那羅) 292
수나라(須奈羅) 437
수덕(脩德) 313
수류지(須流枳) 232
수말재기(手末才伎) 149, 167
수백향황녀(手白香皇女) 228, 268
수백향황후(手白香皇后) 335
수석(守石) 394
수수(水手) 443
수옹군(穗瓮君) 230
수적반궁신(穗積磐弓臣) 388
수적신압산(穗積臣押山) 273

수파둔창(穗波屯倉) 319
숙네신(宿禰臣) 26
숙신외(肅愼隈) 363
숙신인(肅愼人) 363
숙피고려(熟皮高麗) 232
순인숙네(盾人宿禰) 26
순타(淳陀) 278
습진언(襲津彦) 40
시덕(施德) 351, 353, 364, 371, 382, 383
시동[僮竪] 316
시리궁(柴籬宮) 79
시변압반황자(市邊押磐皇子) 127, 204, 208, 209, 219
식구구릉(埴口丘陵) 215
식려(埴廬) 399
식생판(埴生坂) 65
식생판본릉(埴生坂本陵) 233
식장족일광액천황(息長足日廣額天皇) 439
식장족희존(息長足姬尊) 274
식장진수왕(息長眞手王) 436
신가둔창(新家屯倉) 325
신가련(新家連) 325
신관[祝] 74
신기백(神祇伯) 268, 388
신농국(信濃國) 162, 252
신라국(新羅國) 150
신모군대부(身毛君大夫) 146
신상(新嘗) 39
신이해(辛已奚) 279
신전황녀(神前皇女) 322
신풍(神風) 164
신한도부고귀(新漢陶部高貴) 150
신협(身狹) 326
신협촌주청(身狹村主靑) 136, 150, 160, 162, 167
실산(室山) 73
실소(失消) 441
심초리(深草里) 336
십시부(十市部) 317

ㅇ

아나국(婀娜國) 320
아담련빈자(阿曇連浜子) 66
아담련흑우(阿曇連黑友) 66
아도(兒島) 444
아도군(兒嶋郡) 390
아두(阿斗) 444
아라(阿羅) 392
아례노궤(阿禮奴跪) 132
아로한기(阿鹵旱岐) 358
아록둔창(我鹿屯倉) 319
아리사등(阿利斯等) 288, 290
아리사등(阿利斯登) 442
아미고(阿弭古) 41
아배대마려신(阿倍大麻呂臣) 323
아배목신(阿倍目臣) 444
아배신(阿倍臣) 325, 389
아부라(阿夫羅) 295

아비다(阿比多) 369, 370
아사비다(阿斯比多) 372
아소잉군(阿蘇仍君) 325
아지사주(阿知使主) 65
아탁득문(阿乇得文) 356
아파국(阿波國) 102, 320
아파국각사별(阿波國脚咋別) 77
아폐신국견(阿閉臣國見) 136
아폐신사대(阿閉臣事代) 224, 225
아현이나사(阿賢移那斯) 347
악인(樂人) 104, 383
악해제(惡解除) 75
안(安) 297
안강천황(安康天皇) 106
안교군(鞍橋君) 386
안다(安多) 292
안도(安刀) 441
안라(安羅) 279, 343
안라국(安羅國) 393
안라일본부(安羅日本府) 346
안부견귀(鞍部堅貴) 150
안부촌주사마달등(鞍部村主司馬達等) 448
안예(安藝) 36
안예국(安藝國) 317
안정(安定) 283
안치신(安致臣) 177
압견숙네(押見宿禰) 224
압목주만(押木珠縵) 109
압반언인대형황자(押坂彦人大兄皇子) 436
액상(掖上) 73
액전대중언황자(額田大中彦皇子) 15
액전부련(額田部連) 392
앵정궁장황녀(櫻井弓張皇女) 439
앵정둔창(櫻井屯倉) 314
앵정전부련(櫻井田部連) 321
앵정황녀(櫻井皇女) 437
앵정황자(櫻井皇子) 342
야도(野島) 66, 70
약군낭(藥君娘) 436
약엽례(掠葉禮) 366, 367
양지선(兩枝船) 72
양향(陽香) 399
어강엽(御綱葉) 31
어마황자(御馬皇子) 70, 128
어명부(御名部) 363
어실(御室) 451
어우숙네(淤宇宿禰) 15
억계(億計) 204, 205, 216, 219, 222, 223
억계왕(億計王) 208, 210~212, 215
억계천황(億計天皇) 226, 229, 247, 312, 324
언인대형황자(彦人大兄皇子) 439
언태존(彦太尊) 261
여노(餘怒) 443
여성부둔창(廬城部屯倉) 317
여성부련무언(廬城部連武彦) 137
여성부련지거유(廬城部連枳莒喩) 316
여성하(廬城河) 137
여입야(廬入野) 323

여저하(廬杵河) 39
여창(餘昌) 379
역등황녀(逆登皇女) 436
역박사(曆博士) 377, 382
역박사(易博士) 377, 382
역어묘안나(譯語卯安那) 150
역어전(譯語田) 438
역정(櫟井) 98
연나사(延那斯) 369
연비선나(燕比善那) 352
열성궁(列城宮) 255
엽치둔창(葉稚屯倉) 320
영객(領客) 433
영현주니마려(嶺縣主泥麻呂) 161
예색돈(禮塞敦) 375
예전릉(譽田陵) 160
예전천황(譽田天皇) 13, 262, 274
오(吳) 162, 364
오경박사 282
오국(吳國) 44, 150, 162
오금(吳琴) 162
오백성입언황자(五百城入彦皇子) 13
오십령하(五十鈴河) 137
오원(吳原) 167
오자롱(吾子籠) 16
오자롱숙녜(吾子籠宿禰) 135
오전언(吾田彦) 209, 210
오전자(吾田子) 398
오직(吳織) 167
오판(吳坂) 167
오호파신(烏胡跛臣) 357
옥대(玉代) 39
옥만(玉縵) 168
옥수(玉穗) 283
옥전숙녜(玉田宿禰) 94, 147
완자(椀子) 324
완자황자(椀子皇子) 341
왕도량(王道良) 382
왕류귀(王柳貴) 382
왕보손(王保孫) 382
왕사(王師) 155
왕유릉타(王有悋陀) 382
왕진이(王辰爾) 377, 431, 435
왜(倭) 15, 65, 98
왜국(倭國) 149, 338
왜국조수언(倭國造手彦) 396
왜군(倭君) 254
왜대숙녜(倭帒宿禰) 221
왜문직(倭文織) 250
왜사부(倭飼部) 105
왜자련(倭子連) 159
왜직(倭直) 15
왜직오자롱(倭直吾子籠) 45, 67, 98
용가다(用哥多) 364
용미부(舂米部) 27
우(牛) 435
우니미파야(宇泥咩巴椰) 105
우도(羽嶋) 443
우두마좌(禹豆麻佐) 171
우두모리마좌(禹豆母利麻佐) 171
우두방(牛頭方) 375
우록둔창(牛鹿屯倉) 319

우무읍(禹武邑) 363
우전(羽田) 74
우전시대숙네(羽田矢代宿禰) 64
웅략천황(雄略天皇) 123
웅야갑(熊野岬) 31
웅조진간치자숙네천황(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 21, 87, 106
웅조진간치자숙네황자(雄朝津間稚子宿禰皇子) 88
웅천(熊川) 290
원(圓) 72
원강국사(遠江國司) 45
원대신(圓大臣) 125
원도(媛嶋) 321
원황녀(圓皇女) 79
월(越) 433
월국(越國) 363, 401
월부둔창(越部屯倉) 319
월인(越人) 401
월전국(越前國) 263
위가가군(爲哥可君) 355
위가기미(爲哥岐彌) 355
위나공(偉那公) 324
위나부진근(韋那部眞根) 165
위덕왕(威德王) 379
위례(尉禮) 175
위북(葦北) 447
위북군(葦北君) 447
위전숙네(葦田宿禰) 70, 208
위타(委陁) 292
위포둔창(葦浦屯倉) 320
유무존(幼武尊) 138
유비기(有非岐) 355
유지신(有至臣) 383
6성 361
육인부(宍人部) 134, 150
육회(肉膾) 135
윤공천황(允恭天皇) 87
율태군(栗太君) 161
응가기미(鷹哥岐彌) 354
응감부(鷹甘部) 41
응감읍(鷹甘邑) 41
의다랑(意多郎) 252
의망둔창(依網屯倉) 41
의박사(醫博士) 377, 382
의봉(衣縫) 167
의봉부(衣縫部) 150
의사이마기미(意斯移麻岐彌) 277
의신(蟻臣) 208
의통랑희(衣通郎姬) 97
이림(爾林) 370
이림성(爾林城) 225
이부혈수부황녀(埿部穴穗部皇女) 342
이부혈수부황자(埿部穴穗部皇子) 342
이사지모라성(伊斯枳牟羅城) 294
이성산(耳成山) 105
이세(伊勢) 163
이세국(伊勢國) 172, 317
이세대록수소웅(伊勢大鹿首小熊) 437
이세대신(伊勢大神) 341
이세대신사(伊勢大神祠) 130
이세신궁(伊勢神宮) 38

이세의봉(伊勢衣縫) 168
이수위(二首位) 360
이심(伊甚) 312
이심국조(伊甚國造) 312
이심둔창(伊甚屯倉) 313
이열비(爾列比) 281
이예국(伊豫國) 108
이예래목부소순(伊豫來目部小楯) 204, 211
이원(夷媛) 208
이원릉(耳原陵) 96
이장락신(伊奘諾神) 74
이중천황(履中天皇) 63
이질부례지간기(伊叱夫禮智干岐) 291
이질부례지나말(伊叱夫禮知奈末) 291
이치수문(伊峙水門) 43
이타비(伊施寐) 312
이탄해(夷呑奚) 343
이하국(伊賀國) 325
이하신(伊賀臣) 325
인가신(印哥臣) 355
인기미(印岐彌) 361, 358
인덕천황(仁德天皇) 13
인번(因播) 172
인판대중희명(忍坂大中姬命) 89, 106
인해반풍청존(忍海飯豊青尊) 215
인해부여왕(忍海部女王) 208
인해부조세목(忍海部造細目) 204
일근야(日根野) 100
일기(壹伎) 445
일라(日羅) 442, 443
일본경(日本卿) 349
일본부(日本府) 행군원수(行軍元帥) 152
일본부의 집사(日本府執事) 353
일본현읍(日本縣邑) 272
일사부(日祀部) 439
일사주신(一事主神) 138
일영황녀(日影皇女) 341
일원(日媛) 134
일응길사(日鷹吉師) 149, 276
일응길사(日鷹吉士) 230~232
일지원(日之媛) 67
일하부련사주(日下部連使主) 209
일향문(日香蚊) 110
일향발장원(日向髮長媛) 21
임나(任那) 224, 225, 344
임나국(任那國) 175
임나국사(任那國司) 147
임나 4현 276
임나왕(任那王) 151, 289
임나의 대부(任那大夫) 378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 343
임나집사(任那執事) 347
임례국(稔禮國) 393
임생부(壬生部) 23
입록둔창(入鹿屯倉) 321
입봉황녀(笠縫皇女) 337
입신(笠臣) 47
입원직사주(笠原直使主) 317

ㅈ

자령건(刺領巾) 69
자전군(茨田郡) 325
자전련삼자(茨田連衫子) 25
자전제(茨田堤) 24
자조황녀(雌鳥皇女) 37
자치전(雌雉田) 313
자타국(子他國) 393
자타한기(子他旱岐) 343, 360
자탄(子呑) 281
작간나(灼干那) 371
작막고(灼莫古) 282
잡라(匝羅) 155
장객(掌客) 392
장구궁(樟勾宮) 377
장군(將軍) 382
장대둔창(蔣代屯倉) 70
장대야(蔣代野) 39
장덕(將德) 369
장빙황녀(樟氷皇女) 228
장안사(長安寺) 398
장야원릉(長野原陵) 105
장원(樟媛) 149
장육불상(丈六佛像) 364
장읍(長邑) 102
장저기(長渚崎) 75
재황녀(財皇女) 79
저감진(猪甘津) 27
저군(儲君) 71
저명부어전(猪名部御田) 163
저명현(猪名縣) 35
저미문귀(姐彌文貴) 277
저사부(猪使部) 174
적계녀랑(適稽女郎) 133, 141
적덕손(嫡德孫) 313
적막이해(適莫爾解) 225
적석(赤石) 101
적석군(赤石郡) 204
적신(的臣) 26, 357, 379
적신문도(的臣蚊嶋) 230
적호전숙녜(的戶田宿禰) 26
전도(田道) 42
전령(田令) 390, 400
전변사백손(田邊史伯孫) 159
전부(田部) 314, 316, 400, 435
전부(前部) 346, 351, 367
전부목리불마갑배(前部木刕不麻甲背) 282
전신륜읍(田身輪邑) 158
전안황녀(田眼皇女) 439
전전주승대형(箭田珠勝大兄) 371
전전주승대형황자(箭田珠勝大兄皇子) 337
전질래(田疾來) 210
전촌황녀(田村皇女) 437
전향옥성궁(纏向玉城宮) 16
전협신(田狹臣) 147
정부인(正夫人) 367
정신라장군(征新羅將軍) 179
정위(廷尉) 394
정유타(丁有陀) 383

정전(淳田) 36
정중창태주부(淳中倉太珠敷) 429
정중창태주부존(淳中倉太珠敷尊) 381
정중창태주부천황(淳中倉太珠敷天皇) 429
제군(弟君) 147
제마려(弟麻呂) 158
제왕본기(帝王本紀) 342
제원(第媛) 167
제원(弟媛) 79
제희(弟姬) 97
조관(鳥官) 162
조길사(調吉士) 294
조길사이기나(調吉士伊企儺) 397
조산(鳥山) 32
조수(鳥樹) 316
조양부(鳥養部) 162
조옥둔창(糟屋屯倉) 286
조일랑(朝日郎) 173
족중언천황(足仲彦天皇) 263
졸마국(卒麻國) 393
졸마군(卒麻君) 360
졸마한기(卒麻旱岐) 343
좌도도(佐渡嶋) 363
좌로나기타갑배(左魯那奇他甲背) 225, 226
좌로마도(佐魯麻都) 347
좌리지(佐利遲) 290
좌백련(佐伯連) 381, 389, 448
좌백부(佐伯部) 35, 230
좌백부매륜(佐伯部每輪) 128
좌백부중자(佐伯部仲子) 209, 230
좌백조(佐伯造) 230
좌백조어실(佐伯造御室) 451
좌지촌(佐知村) 385
주견황녀(酒見皇女) 91
주공(周公) 373
주군(酒君) 40
주금사(呪禁師) 440
주기둔창(腠碕屯倉) 319
주길(住吉) 340
주길대신(住吉大神) 274
주길읍(住吉邑) 77
주길중황자(住吉仲皇子) 21, 64
주길진(住吉津) 167
주도(主島) 142
주리즉이(州利卽爾) 277
주리즉차(州利卽次) 282
주적황자(住迹皇子) 342
죽문지(竹汶至) 279
죽사도(竹斯島) 384
죽사물부막기위사기(竹斯物部莫奇委沙奇) 384
죽엽뢰(竹葉瀨) 42
죽전황자(竹田皇子) 439
죽촌(竹村) 315
죽촌둔창(竹村屯倉) 316
준별황자(隼別皇子) 37
준인(隼人) 68, 338
준하국(駿河國) 321
중기황녀(中磯皇女) 71
중부(中部) 346, 350, 364, 371,

372
중부인(中夫人) 367
중신련겸자(中臣連鎌子) 374
중신반여련(中臣磐余連) 452
중신승해대부(中臣勝海大夫) 450
중신오적진사주(中臣烏賊津使主) 97
중자(仲子) 219
중좌평(中佐平) 345, 352
중체희(中蒂姬) 110
중황자(仲皇子) 64
중희명(仲姬命) 13
지거유(枳莒喩) 137
지변직빙전(池邊直氷田) 448
지변황자(池邊皇子) 440
지자대련(贄子大連) 446
지전숙녜(砥田宿禰) 29
지질정(枳叱政) 441
지토사부(贄土師部) 172, 317
진노(進奴) 383
진대진부(秦大津父) 335
진도(津島) 447
진마려(津馬呂) 156
진모귀문(眞牟貴文) 351
진모선문(眞慕宣文) 367
진민(秦民) 170, 171
진반조(秦伴造) 339
진봉전고천(眞鋒田高天) 135
진사(津史) 435
진수련(津守連) 351, 354
진수련기마노궤(津守連己麻奴跪) 354
진신원(眞神原) 150
진야원(津野媛) 79
진원(振媛) 262
진인(秦人) 338
진조(秦造) 170
진조대신(眞鳥大臣) 248
진조주(秦造酒) 171
진주공(秦酒公) 163, 171
진치황녀(眞稚皇女) 228
진타(進陀) 383

ㅊ

차간덕(次干德) 443
차주(次酒) 364, 378
차한기(次旱岐) 343
찬기국조(讚岐國造) 77
찬기전충별(讚岐田蟲別) 173
참관(參官) 443
창소(倉樔) 318
창치릉희황녀(倉稚綾姬皇女) 324
창황자(倉皇子) 341
채녀(采女) 67, 105, 131
채녀정(采女丁) 317
채약사(採藥師) 382
천국배개광정존(天國排開廣庭尊) 269
천국배개광정천황(天國排開廣庭天皇) 335, 429, 442
천군(泉郡) 376
천도하(川島河) 47
천뢰사인(川瀨舍人) 161

천왕(天王) 176
천원민직궁(川原民直宮) 366
천조(天朝) 359
천집부수등미(薦集部首登弭) 395
천향자황자(天香子皇子) 342
첨상군(添上郡) 338
청녕천황(淸寧天皇) 199
청령도(蜻蛉島) 139
청령도왜(蜻蛉島倭) 139
청령야(蜻蛉野) 139
청묘(靑墓) 173
청해부인(靑海夫人) 340
청해황녀(靑海皇女) 70
초향번사희황녀(草香幡梭姬皇女) 129
초향부길사한언(草香部吉士漢彦) 201
촌합둔창(村合屯倉) 69
추군(麁群) 365, 367
추봉(推封) 281
추자(椎子) 363
추전군(椎田君) 325
추촌(麤寸) 231
축견둔창수(縮見屯倉首) 204, 210, 211
축자(筑紫) 74, 142, 173, 284, 319, 326, 381, 399
축자(祝者) 388
축자국(筑紫國) 177, 273, 317, 325
축자국조(筑紫國造) 386
축자군갈자(筑紫君葛子) 286
축자도(筑紫嶋) 253
축자화군(筑紫火君) 389
축족류성(筑足流城) 151
축진궁(祝津宮) 339
춘일(春日) 98
춘일국(春日國) 278
춘일대랑황녀(春日大娘皇女) 130, 228
춘일부둔창(春日部屯倉) 319, 320
춘일부채녀(春日部采女) 317
춘일산전황녀(春日山田皇女) 229, 312, 343
춘일소야신대수(春日小野臣大樹) 165
춘일신중군(春日臣仲君) 436
춘일일고신(春日日柧臣) 343
춘일화이신심목(春日和珥臣深目) 130
춘일황녀(春日皇女) 280
춘일황자(春日皇子) 436
춘일황후(春日皇后) 313
출운신(出雲臣) 15
취주왕(鷲住王) 76
치릉희황녀(稚綾姬皇女) 341
치목(置目) 219, 220, 221, 223
치앵부신(稚櫻部臣) 73
치앵부조(稚櫻部造) 73
치자직(稚子直) 312
치전근명(齒田根命) 164
치정모이기황자(稚淳毛二岐皇子) 106
치지둔창(稚贄屯倉) 321

ㅌ

타사(柁師) 443

탁기탄(啄己呑) 284, 345
탁순(卓淳) 345
탁지(啄地) 156
탐라인 271
태좌평(太佐平) 445
태중지제(胎中之帝) 276, 325
태중천황(胎中天皇) 290
태희랑희(太姬郎姬) 76
태희황녀(太姬皇女) 437
택원(宅媛) 312
토대숙녜(菟代宿禰) 173
토도(菟道) 17
토도궁(菟道宮) 18
토도기진패황녀(菟道磯津貝皇女) 436, 439
토도산(菟道山) 19
토도치랑자(菟道稚郎子) 14
토도패소황녀(菟道貝鮹皇女) 439
토도황녀(菟道皇女) 440
토사련(土師連) 45, 172
토사련소조(土師連小鳥) 158
토아야(菟餓野) 35
토전(菟田) 38, 162
토전어호부(菟田御戶部) 135
통성(筒城) 272
통성강(筒城岡) 33
투계(鬪鷄) 45
투계국조(鬪鷄國造) 91
투계도치대산주(鬪鷄稻置大山主) 45
투계어전(鬪鷄御田) 163

ㅍ

파마국(播磨國) 165, 204, 319, 448
파마좌백직아아능호(播磨佐伯直阿俄能胡) 38
파마직(播磨直) 389
파사산(波斯山) 392
판본신(坂本臣) 109, 170, 397
판전(坂田) 97
판전이자랑군(坂田耳子郎君) 403
판합부련지숙녜(坂合部連贄宿禰) 127
판합흑언황자(坂合黑彦皇子) 125
팔도국(八島國) 278
팔심옥(八尋屋) 76
팔전황녀(八田皇女) 19, 30
팔조궁(八釣宮) 218, 225
팔조백언황자(八釣白彦皇子) 91, 125
팔지경(八咫鏡) 159
평군목토숙녜(平群木菟宿禰) 64, 71
평군신(平群臣) 20
평군신진조(平群臣眞鳥) 129
평군진조대신(平群眞鳥大臣) 202
평군진조신(平群眞鳥臣) 247
평양(平壤) 371
포괘(浦掛) 180
포나모라(布那牟羅) 288, 295
포도자(浦嶋子) 176
포전녀(飽田女) 231
풍(豐) 326
풍국(豐國) 284, 319
풍녀(豐女) 448

풍어식취옥희존(豐御食炊屋姬尊) 341, 438
풍추일본(豐秋日本) 374
피구근(皮久斤) 371

ㅎ

하내(河內) 79
하내고시(河內古市) 404
하내국(河內國) 65, 159, 325, 376
하내마사수압승(河內馬飼首押勝) 392
하내마사수황롱(河內馬飼首荒籠) 265
하내모수마사수어수(河內母樹馬飼首御狩) 294
하내부(河內部) 372
하내삼야현주소근(河內三野縣主小根) 201
하내인(河內人) 24
하내직(河內直) 347, 357, 358
하내직마사수어수(河內直馬飼首御狩) 291
하내판문원릉(河內坂門原陵) 207
하내현(河內縣) 316
하다리(下哆唎) 273, 340
하다호리현(下哆呼唎縣) 176
하도원(下桃原) 150
하령록(下鈴鹿) 28
하백제(下百濟) 447
하변둔창(河邊屯倉) 320
하변신경부(河邊臣瓊罐) 395
하부(下部) 313, 345, 367, 371
하산(荷山) 359
하상사인부(河上舍人部) 135
하상원(下桑原) 315
하어야(下御野) 315
하음둔창(河音屯倉) 320
하이(蝦夷) 43, 338, 441
하전촌(河田村) 447
하좌평(下佐平) 352
하풍포(下豐浦) 28
하한(下韓) 350
하한기(下旱岐) 343, 360
한고안무(漢高安茂) 282
한국(韓國) 16, 148
한노실(韓奴室) 158
한백수랑한(韓白水郎曄) 231
한부(漢部) 171
한부(韓婦) 359
한사주(漢使主) 172
한성(漢城) 371
한수인부(漢手人部) 150
한언(漢彦) 201, 202
한원(韓媛) 126, 130
한의봉부(漢衣縫部) 167
한인(漢人) 338
한인대신협둔창(韓人大身狹屯倉) 390
한인야보(漢人夜菩) 448
한직(漢織) 167
한직(漢直) 65
함산성(函山城) 384
함파한기(函跛旱岐) 359

해나마례(奚奈麻禮) 289
해부둔창(海部屯倉) 390
해부왕(海部王) 438
해석류시(海石榴市) 451
해인(海人) 16, 66
해표(海表) 379
행옥궁(幸玉宮) 438
행채(荇菜) 109
향강상왕(香岡上王) 365
향원(向原) 374
향향유원(香香有媛) 312
향화희황녀(香火姬皇女) 79
허세남인대신(許勢男人大臣) 264, 312
허세대신남인(許勢大臣男人) 285
허세신(許勢臣) 358, 387
허세신도지(許勢臣稻持) 339
허세신원(許勢臣猿) 402
현견양련(縣犬養連) 321
현수(縣守) 47
현수연(縣守淵) 48
현유신(賢遺臣) 27, 29
현종천황(顯宗天皇) 207
현주소근(縣主小根) 201
혈록(血鹿) 446
혈문(穴門) 392
혈문관(穴門館) 392
혈수괄전(穴穗括箭) 107
혈수궁(穴穗宮) 108
혈수부황자(穴穗部皇子) 452
혈수천황(穴穗天皇) 106, 123, 169, 209, 227
혈수천황기(穴穗天皇紀) 170
협구수간협(狹丘首間狹) 434
협명래전장진지명(狹名來田藏津之命) 75
협수언(狹手彦) 326
협수자조별(狹穗子鳥別) 135
협전모황녀(狹田毛皇女) 338
협정전(狹井田) 316
협협성산군(狹狹城山君) 221
협협성산군한대(狹狹城山君韓帒) 128
협협파산(狹狹波山) 402
형군(兄君) 147
형마려(兄麻呂) 158
형부채부아리사등(刑部靫部阿利斯登) 444
형원(兄媛) 167
혜(惠) 387
혜선니(惠善尼) 449
혜편(惠便) 448
호덕(護德) 351, 364
홍계(弘計) 204, 205
홍계왕(弘計王) 208
홍계천황(弘計天皇) 207, 227, 229
홍계천황기(弘計天皇紀) 205, 227, 230
화국(火國) 284, 319
화다(和多) 292
화부인사라아(畫部因斯羅我) 150
화염황자(火焰皇子) 324
화위북국조(火葦北國造) 442, 444

화이(華夷) 222
화이신(和珥臣) 33
화이지(和珥池) 27
화중군(火中君) 390
화타(和陀) 437
환인지리(歡因知利) 148
활목천황(活目天皇) 262
황릉(荒陵) 44
황자 자성(皇子茨城) 341
황태부인(皇太夫人) 202
회외(檜隈) 323
회외고전천황(檜隈高田天皇) 341
회외궁어우천황(檜隈宮御寓天皇) 444
회외민사박덕(檜隈民使博德) 136, 150, 162
회외야(檜隈野) 167
회외읍(檜隈邑) 366
회외판합릉(檜隈坂合陵) 404
횡야제(橫野堤) 27
횡정(橫亭) 318
후성둔창(後城屯倉) 319
흉방신(胸方神) 153
흑사(黑梭) 313
흑언황자(黑彦皇子) 127
흑원(黑媛) 64
흘건지(訖乾智) 360
흠명천황(欽明天皇) 335
희도(姬島) 447
희씨(姬氏) 372

역자 소개

연민수(延敏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규슈[九州]대학 문학박사

논저 : 『고대한일관계사』(1998, 혜안), 『일본역사』(편저, 1998, 보고사), 『고대한일교류사』(2003, 혜안), 『일본고중세문헌 속의 한일관계사료집성』(공편, 2005, 혜안), 『일본서기와 천황제의 창출』(역서, 2011, 동북아역사재단), 『한반도의 전방후원분』(공저, 2011, 학연문화사) 외 다수

김은숙(金恩淑)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츠쿠바[筑波]대학 문학박사

논저 : 『한국사』 7(공저, 199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9(공저, 1998, 국사편찬위원회), 『時代轉換과 歷史認識』(공저, 2001, 솔), 『21世紀の歷史認識と國際理解』(공저, 2002, 明石書店), 『전환기 일본교과서 문제의 諸相』(공저, 2010, 경인문화사), 『日韓で考える歷史敎育』(공저, 2010, 明石書店) 외 다수

이근우(李根雨)

부경대학교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학박사, 교토[京都]대학 수학

논저 : 『고대왕국의 풍경 그리고 새로운 시선』(2006, 인물과사상사), 『역주 중국정사 외국전』(공역, 2011, 동북아역사재단), 『부산 속의 일본』(2012, 부경대학교출판부), 『속일본기 1~3』(역서, 2009~2012, 지식을만드는지식), 『전근대한일관계사』(공저, 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외 다수

정효운(鄭孝雲)

동의대학교 교수,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문학박사

논저 : 『고대한일정치교섭사연구』(1995, 학연문화사), 『일본고대왕권 국가민족형성사 개설』(역서, 2005, 제이앤씨), 『동아시아의 타자인식』(공저, 2006, 제이앤씨), 『구주 해안도서와 동아시아』(공저, 2007, 경인문화사), 『백제의 문물교류』(공저, 2007, 충청남도역사문화원),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공저, 2010, 국학자료원) 외 다수

나행주(羅幸柱)

대진대학교 일본학과 강의교수, 와세다[早稻田]대학 문학박사

논저 : 『일본의 봉건제』(공역, 1991, 신서원), 「古代朝日関係における質の意味」(1996), 「왜왕권과 백제·신라의 '질'」(2006, 『일본역사연구』 24), 「신라와 '임나의 조'-신라 측에서 본 종래설 비판」(2008, 『한일관계사연구』 29), 『일본문화사전』(공저, 2010, 도서출판문), 『왜 일본에 사무라이가 등장했을까』(공저, 2012) 외 다수

서보경(徐甫京)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도쿄[東京]대학 사료편찬소 연수

논저 : 「鐵製品을 매개로 한 百濟와 倭의 交涉」(2000,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임나문제와 한일관계』(공저, 2005, 경인문화사), 「百濟を媒介とする高句麗と倭との交涉」(2008), 「達率日羅를 통해 본 倭系百濟官僚」(2010), 「고대 일본의 治水事業과 韓人」(2012, 『한일관계사연구』43), 「『新撰姓氏錄』의 편찬과 목적」(2012) 외 다수

박재용(朴宰用)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박사, 조에치[上越]교육대학 수학

논저 : 『백제사자료역주집-일본편』(공저, 2008), 「『일본서기』의 편찬과 백제 관련 문헌 연구」(2009, 한국교원대학교), 『무령왕릉 그 안에 담긴 백제의 숨결』(2012), 『백제와 주변세계』(공저, 2012, 진인진), 『한권 백제』(공저, 2013, 로도스), 『삶이 있는 이야기 충남』(공저, 2013, 웅기장이), 『고대 최고의 외교전략가, 김춘추』(역서, 2013, 역사공간) 외 다수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124

역주 일본서기 2

초판 1쇄 인쇄 2013년 12월 1일
초판 1쇄 발행 2013년 12월 10일

엮은이 연민수, 김은숙, 이근우, 정효운, 나행주, 서보경, 박재용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3

ISBN 978-89-6187-310-9 94910
ISBN 978-89-6187-308-6 94910(세트)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 CIP2013024297)